

한국전쟁의  
유 격 전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간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 장 안 병 한

과거나 현재나 변함 없이 전쟁의 양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프카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최근 현대전은 우수한 조기경보 능력, 무기의 정밀성, 대량 살상력 등으로 정규전은 조기에 종결되지만, 도시 및 산악지역에서 일어나는 게릴라전과 테러는 크나큰 위협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전쟁에 관하여 새로운 사료의 발굴, 인식의 확대로 여러 부문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쟁배경이나 정규군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유격대 활동·첩보수집·통신망 교란 등 비정규전에 대해서는 사료부족, 작전상의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미진한 편입니다. 또한 유격전이라고 하면, 좌익 빨치산 활동을 연상하기 쉬우나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에서 활발했던 반공유격대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유격대 전우회의 사료 수집과 미군의 자료 공개로 그 면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부터 북한군의 점령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반공 유격투쟁은 공산세력으로부터 고향과 조국을 지키려는 반공정신으로 무장했지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와 탄약 및 보급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였습니다.

국군은 북한군 주력에 대한 견제와 그들의 후방을 교란하는 제2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명부대’, ‘결사유격대’ 등을 운용하였으며, 미군도 1951년 1월부터 서해안으로 탈출했던 많은 자생적인 의용군들을 유격대로 활용하여 백

령도의 ‘레오파드(Leopard)기지’와 강화도의 ‘울팩(Wolfpack)기지’, 주문진의 ‘커크랜드(Kirkland)기지’ 등을 조직화하였습니다. 1951년 7월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이들 유격부대들을 제8240부대로 통합·운용하여, 1953년 초에는 그들의 규모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격대는 평안도·황해도·함경도 등지로 출동하여 북한군과 중공군 진지 습격, 지하조직 구축, 피난민과 추락한 조종사 구출, 무기 노획 등 여러 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항공정찰만으로 군사 시설이나 군대의 이동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대화도와 동쪽으로는 원산 앞 바다를 장악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의 이러한 전투와 정보수집 활동의 결과는 미 제8군의 서쪽 측면방어를 지원하여 주 저항선에 있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분산을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서해안 연안 도서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1953년 정전 이후 백령도를 비롯한 5개 섬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당시 유엔군이 제해권을 장악했던 요소도 작용했지만, 한국인 유격대와 공작대 등의 활동 역시 그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50여 년이 흐른 데다가, 자생적인 유격대와 국군 통제하의 경우는 일시적이었고, 미군이 운용한 동서 연안의 유격대는 미군의 지휘아래 군번도 계급도 없이 싸웠던 까닭에 수많은 유격부대의 활동에 대한 기억이 더욱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연구서는 사료부족으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유격전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활발해져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 목 차

제 1 장	머 리 말 .....	1
제 2 장	민간 자생유격대 활동 .....	17
제 1 절	자생유격대의 전통 .....	19
제 2 절	전쟁시 유격대 활동 .....	22
	1. 남한 지역 / 22	
	2. 북한 지역 / 38	
제 3 장	국군 유격대 .....	59
제 1 절	전쟁이전 유격대의 활동 .....	61
	1. 좌익 빨치산 활동과 게릴라의 남파 / 61	
	2. 호림부대 / 66	
제 2 절	전쟁 시기 유격대 편성과 활동 .....	80
	1. 창설배경과 유격대의 편성 / 80	
	2. 육본 직할 유격대의 활동 / 84	
	3. 일선부대의 유격대 / 114	
	4. 기타 부대 / 124	
제 4 장	미 제8240유격부대의 창설과 운용 .....	129
제 1 절	창설 배경 .....	131
제 2 절	통제기구와 임무 .....	136
	1. 통제기구 / 136	
	2. 임무와 역할 / 149	

제 3 절	유격부대의 편성과 운용 .....	154
	1. 부대 편성 / 154	
	2. 대원의 모집과 보급지원 / 164	
제 4 절	교육훈련과 일상생활 .....	185
	1. 교육훈련 / 185	
	2. 여가생활 및 주둔지 주민과의 관계 / 198	
제 5 절	작전목표와 성과 .....	206
	1. 작전 목표 / 206	
	2. 작전 활동 / 210	
제 6 절	북한군과 중공군의 대응 .....	236
	1. 주민통제와 격리 / 236	
	2. 해안 경비강화와 유격대 근거지 공격 / 241	
제 5 장	제8240유격부대의 활동과 해체 .....	249
제 1 절	동키부대 .....	251
	1. 동키 제1부대 / 251	
	2. 동키 제2부대 / 264	
	3. 동키 제3부대 / 279	
	4. 동키 제4부대 / 289	
	5. 동키 제5부대 / 305	
	6. 동키 제6부대 / 310	
	7. 동키 제7부대 / 314	
	8. 동키 제8부대 / 326	
	9. 동키 제9부대 / 334	
	10. 동키 제10부대 / 339	
	11. 동키 제11부대 / 349	
	12. 동키 제12부대 / 369	
	13. 동키 제13부대 / 374	
	14. 동키 제14부대 / 380	

15. 동키 제15부대 / 386	
16. 동키 제20부대 / 402	
17. 동키 제21부대 / 409	
18. 기타 부대 / 415	
제 2 절	울팩부대 ..... 419
1. 울팩 제1부대 / 419	
2. 울팩 제2부대 / 425	
3. 울팩 제3부대 / 437	
4. 울팩 제4부대 / 450	
5. 울팩 제5부대 / 455	
6. 울팩 제6부대 / 460	
7. 울팩 제7부대 / 466	
8. 울팩 제8부대 / 475	
제 3 절	동해안 유격부대 ..... 488
1. 창설배경과 각 부대편성 / 488	
2. 커크랜드(Kirkland)부대의 활동 / 494	
3. 아밴리(Avanlee Regiment) 부대 / 501	
4. 스톰(Storm)부대 / 505	
5. 토치라이트부대(Torchlight Regiment) / 508	
제 4 절	제1공수유격부대 ..... 511
1. 창설배경과 개편 / 511	
2. 주요 작전 / 517	
제 5 절	첩보대의 조직과 활동 ..... 525
1. 전쟁이전 첩보기구와 KLO / 525	
2. 전쟁시기 KLO 첩보대 조직과 활동 / 533	
제 6 절	해체와 국군 편입 ..... 568
1. 유격부대의 후방 철수와 국방부 제8250부대 편입 / 568	
2. 육군 편입 / 575	
3. 전사자와 포로 및 실종자의 현황 / 585	



제 6 장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영도유격대 .....	595
제 1 절 창설 배경과 부대 편성 .....	597
1. 창설 배경 / 597	
2. 부대창설과 대원 모집 / 602	
3. 부대 편성 / 608	
제 2 절 교육 훈련 .....	612
제 3 절 주요 작전활동 .....	615
1. 개 요 / 615	
2. 주요 작전 / 621	
제 4 절 부대 해체 .....	636
제 7 장 맺 음 말 .....	641
제 1 절 유격대 활동의 성과와 의의 .....	643
제 2 절 유격대 운용의 한계 .....	648
유격전 주요 연표 .....	653
참고문헌 .....	655
필자후기	

제 1 장  
머 리 말



유격대 활동시 사용한 태극기(구멍난 부분은 총탄흔적)

사진제공 : D-21 김 용 영

# 제 1 장

## 머 리 말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개 국이 참전하여 3년간이나 지속된 대규모의 전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규전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정규전도 그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1951년 6월 이후 주력 전선이 교착되어 갈 때, 미군 통제 아래 편성되었던 유격대의 활동은 더욱 활발했다.

현대전에서 대규모 재래전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격전은 여전히 유용한 전술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쿠바·베트남<sup>1)</sup> 등의 공산화 과정,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 유고와 소말리아 등의 탈냉전형 중·저강도 형태의 지역분쟁, 최근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GPS(범지구위치측정 체계)·스텔스기 등 최첨단 무기와 결합된 전자전·정보전과 다른 한편으로 도시나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 양상은 결국 현대 전쟁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양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다.

세계에서 마지막 냉전을 치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쟁 이후 50년이 넘도록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상대측 군사 전략·전술적 의도를 제때에 파악하고 그 기능을 사전에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며 후방을

1)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 해안에서 활발한 좌익 게릴라투쟁으로, 이 시기를 ‘게릴라전의 연대(the decade of the guerrilla)’라고 일컬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무기는 수소폭탄과 눈에 설치된 대못과 같은 게릴라전이라고 지적되기도 있다(Peter Paret and John W. Shy, “Guerrilla Warfare and US Military Policy”, US Marine Corps, *The Guerrilla and How to Fight Him*, 1990, introduction, p. 37).

#### 4 유격전사

교란함으로써 군의 기본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10만명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sup>2)</sup> 따라서 군사장비의 현대화와 그 운용기술의 진보와 함께 전사를 연구하여 그 교훈을 현대 교리에 적용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sup>3)</sup>

유격전(Guerrilla Warfare)이란 원래 적국 내 또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대개 열세한 장비를 가지고 기습·매복 등을 감행하는 군사적 또는 군사적 작전이다. 그 구체적인 작전형태로는 차단 및 교란, 정보 외에도 심리전, 도피와 탈출 등을 포함한다.<sup>4)</sup>

유격대의 발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는 적이 점령·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무장한 경우, 둘째 정규군의 일부 병력으로 편성한 경우, 셋째 정규군 유격대와 민간유격대와 배합 등이다.<sup>5)</sup> 결국 유격전은 그 전투행위를 수행한 자가 정규군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형태를 띠거나 정규군 부대의 일부가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결합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유격전과 비슷한 용어로 빨치산전 혹은 게릴라전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군과 싸우면서 등장한 빨치산이라는 용어는 싸우는 사람 혹은 그 단체를 뜻하고, 스페인 산간지역에서 프랑스군과 투쟁하면서 사용된 게릴라전은 소규모 전투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각 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빨치산전 혹은 게릴라전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은 게릴라전, 혹은 빨치산전을 혼용하였다. 1952년 11월 유격대 간부들의 훈장을 상신할 때 게릴라대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나,<sup>6)</sup>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에서 발행한 동키 제13부대의 대원 신분증에는 ‘애국 빨치산부대의 일원’이라고 했

2) 『세계 최대규모의 북한특수부대의 해부』, 『평화』, 1989. 6; 김정민, 『북한군 특수부대는 어떤 군사집단인가』, 『북한』, 1997. 7, 91면; 김선한, 『X』 하, 디지털에프케이, 2000, 301-302면;白沙善燁, 『朝鮮半島 對話の限界』, 東京: 草思社, 2003, 59면.

3) 일본방위학연구회편(강창구·김행복 역), 『군사학강좌』, 병학사, 2000, 97쪽.

4) 육군본부, 『군사평론: 전술연구 참고』, 1972, 238-242면; 김광석 편, 『용병술어연구』, 병학사, 1993, 385-386면.

5) 육본, 『공산도당의 적화유격전술』, 1965, 24면; 육군본부, 『군사평론: 전술연구참고』, 1972, 238면.

6)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다.) 1952년 11월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한국인 유격부대를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PFK)에서 보듯이 파르티잔(partisan)이라고 했다. 현재에도 이를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아군의 경우 유격대로, 적군인 경우 빨치산으로 구분하여 썼지만 상황에 따라 게릴라라는 용어도 병용하였다.

특수전, 비정규전, 특공작전 등의 용어와도 구분이 필요하다. 특수전은 비정규전은 물론 대(對)게릴라전 즉, 대비정규전 및 심리전에 관계되는 모든 군사적 대책과 활동을 의미한다. 비정규전(unconventional warfare)은 군사적으로 유격전, 도피와 탈출, 전복활동 등 외에도 정치적, 심리전, 경제적 형태를 포함하는 작전으로 적국 또는 적의 지배지역 내에서 점령세력을 제거 또는 약화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민들과 외부세력의 총체적인 저항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특공작전은 정규군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이고 단일전투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구분된다.<sup>8)</sup>

유격전, 비정규전, 특수전과의 상관 관계는 특수전이 가장 포괄적이고, 비정규전, 유격전 순이다. 본서에서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이나 군인이 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전투활동을 주로 다루고, 첩보수집활동을 덧붙였다.

한국전쟁 시기 크고 작은 여러 부대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원들은 “민족의 운명을 지킨 민족의 용사로서, 인류의 자유를 위한 십자군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자부”했으나,<sup>9)</sup> 그들의 공과가 소홀히 다루어진 데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국난에 맞서 싸웠던 민간인 항쟁의 역사를 체계화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sup>10)</sup>

휴전 이후 유격대원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군 당국과 학계에서 아군 유격전사의 연구는 소홀했다. 한국전이 고전적이고 제한적인 정규전으로 인식되어 주로

7) 표작전기지사령부, 『박승덕 신분증』, 1952. 12. 30. 율령 제2부대 약사에서도 ‘애국빨치산’이라고 서술했다(『타이거여단 약사』 1953. 7, 5면).

8) 육군본부, 『군사평론: 전술연구 참고』, 1972, 238-244면; HQ, Department of the Army, *Special Forces Operations*, 1969, pp. 3.1-5.

9) 1대대 義人, 『총궐기 승리의 길로 돌진하자』, 『당나귀』 4, 1953. 2, 12면.

10) 『잊혀져 가는 ‘군번없는 용사들’』, 『중앙일보』, 1982. 6. 25; 『민간인 호국영령 한 풀어주세요』, 『한국일보』, 1984. 6. 8.

정규작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유격전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의 전 유물’인 것처럼 먼저 떠올리는 실정이다.<sup>11)</sup>

좌익 빨치산 활동의 연구는 전쟁을 전후한 토벌작전에 대한 정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남한지역에서 활동했던 좌익 빨치산 활동에 대한 회고록, 자료집·소설·영화 등이 활발히 소개되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12)</sup> 북한에서도 『조선통사』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 좌익빨치산의 주요 활동을 다루었고, 최근에는 구월산빨치산을 비롯한 다른 게릴라 활동에 관한 연구 산물을 발간했다.<sup>13)</sup>

아군 유격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그들의 활동을 알리는데 치중했다. 1970년대 이후 각 유격부대 전우회가 결성되기 시작해서,<sup>14)</sup> 1983년 7월 25일 ‘황해(서해)지구유격군전우회연합회’가 결성되어 유격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고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는 노력을 해 왔다. 1992년 12월 동서 연안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의 부대별 전우회가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전사자·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다.<sup>15)</sup> 이 무렵부터 각종 언론에도 유격부대의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주요 유격대에서는 이미 전쟁 직후부터 위령비 혹은 기념비를 세웠다. 동키제15부대에서 용유도로 철수한 후, 1953년 10월 13일 전우들이 잠든 북녘땅과 가까우며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마음과 그들의 넋을 달래

11) 이기건, 『구월산 여장군』, 우현사, 1953. 1, 1-2면; Ian F.W. Beckett, *Encyclopedia of Guerrilla Warfare*, CA: ABC-CLOIO, INC., 1999, p. 127.

12) 양영조, 『한국전쟁시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한·일 국제세미나; 김광운,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군사』 48, 2003. 4; 육본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1971; 김남식,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1-7, 1996 등.

13) 강석희, 『조선민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조선통사』 하, 1987; 강근조,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14) 1961년, 국방부에서 전쟁중 정규군이 아닌 ‘비군인 복무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가 창설되었으나(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그 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유지되었다.

15) 연합회 사무실은 이북5도청(서울 구기동 통일회관 117호)에 있다.

기 위하여 충혼탑을 세웠다. 울팩부대에서도 1953년 10월 31일, 강화읍에 이 고장 출신의 군경을 비롯한 유격대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을 세웠다.<sup>16)</sup> 육군 제5816유격부대 전우회에서 1981년 6월 25일, 강화도 송해면 하도리에 ‘반공유격용사위령탑’을 건립했고, 1984년 10월 3일 부산 영도에서 활동했던 영도유격대가 기념비를 세웠다. 1987년 6월 24일 개마고원반공유격대 기념사업회에서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통일공원에 위령탑을 세웠고, 1990년 11월 9일 백골병단 참전전우회에서는 1965년 이후 추진하던 전적비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백골병단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2001년 11월 울팩 제2부대는 교동도에 ‘유격군충혼전적비’를 세웠다.

또한 유격부대사가 점차 발간되기 시작했다. 전쟁당시 황해도 반공의거를 주로 다루면서 일부 유격대의 활동을 간략히 서술한 『항공의 불꽃』이 발행된 이후, 유격부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긴 참전자들이 일부 부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sup>17)</sup> 이미 1960년대 초반 유엔군 산하에서 활동한 유격대전우회에서는 전사편찬자료를 수집하여 전사를 발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sup>18)</sup> 1970년부터 황해도 안악군, 평북 정주군 등 각 군지와 황해도지 등의 향토지가 발간되면서 유격대의 활동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북한연구소가 북한지역과 그 피난민의 반공투쟁활동을 정리한 『북한민주통일운동사』에서는 서해안 유격대의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1974년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에서 부대사를 정리한 이후 주요 부대 전우회에서 부대사를 발간했다.<sup>19)</sup> 예를 들면 옹진학도유격부대사의 경우 이미 1970년

16) 『북위 40도선』, 338-339면; 박상준, 『반공유격대원 충혼탑 비명』, 해주고보·동중동창회, 『백세청풍』, 1982, 49면.

17) 이경남, 『유엔군 유격대 당나귀부대』, 『신동아』, 1965. 8;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신동아』, 1969. 1; 조동환, 『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김종벽,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후』, 서울인쇄주식회사, 1967; 이형우, 『빨치산들의 섬』, 새시대문화사, 1983; 주홍길, 『Y부대 송가』, 도서출판 평화, 1988; 이춘복, 『땀부기는 오늘도 ‘조산들’을 날고 있다』, 가톨릭출판사, 2002 등.

18)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7-28면.

19) 김응수, 『북위40도선』(D-15),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1974; 수월부대전사편찬위원회, 『은울유격전사』, 1986; 유격군울팩3부대전우회, 『유격전사』, 1990; 백호부대유격군 전우회, 『백호부대유격전사』, 1992; 이영재편저, 『학도유격부대 전사』, 명성출판사, 1992; 대한유격대 참전



발간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추진하던 회원이 작고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1992년에야 자료수집과 170여 명에 이르는 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완성되었다.<sup>20)</sup> 해주유격부대 전사의 경우, 1984년 전우회를 결성한 후 곧 전사편찬위원을 두고 자료수집을 시작했으나 2003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sup>21)</sup>

일부 전우회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명부대’에 관한 참전자나 전우회의 기록은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1958), 『버림받은 충혼』(1993), 『모래톱에 묻힌 충혼』(1995) 등이 간행되었다. 결사유격대의 경우, 『나와 6·25』(1961), 『적 후방 300리의 혈투 백골병단』(1988), 『백골병단전사』(1993),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1999) 등 수 많은 책이 발간되었다. 동키 제2부대의 경우도 『구월산』(1955),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1967), 『구월산유격부대전사』(2002) 등이 발간되었다.

정부와 국민들도 전쟁에서 유격대원들이 기여한 점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 “통계를 위주로 하는 전사편찬만으로 그치기에 너무도 슬프고 기막히는 많은 사실들이 전쟁이면에 있었다”며 한 소설가가 구월산유격부대, KLO 첩보원의 귀환기 등을 소개했다.<sup>22)</sup> 1972년에 중앙일보사는 주요 유격부대의 간부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유격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sup>23)</sup> 이 외에 반공교육자료로써,<sup>24)</sup>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 일부 소개되었으며 함북 주을 유격대는 소설화되기도 했다.<sup>25)</sup>

1961년 6월 한국일보사에서 전쟁 중 조국수호에 숨은 영웅적 행적을 찾아내 반공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6·25 반공애국유적부활운동’을 전개하여, 유엔군 산하의 반공유격대(동키부대; 8240부대)의 명령들의 낫을 위로하고자 1961년 8월 15일, 윤보선 대통령 휘호와 한국일보의 협조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반공유

동지회, 『백골병단 전사』, 1993; 호림유격전우회, 『호림부대전사』, 1999; 영도유격부대전우회, 『영도유격부대』, 2001 등.

20) 『경기일보』 1992. 10. 24; 『인천일보』 1993. 6. 25; 이영재 편저, 앞의 책.

21)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전사』, 2003, 23-24면.

22) 박계주,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 정음사, 1955.

23)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5, 1983.

24) 『구월산 유격대』, 『어깨동무』, 1971. 6; 경기도교육연구원, 『D-11 웅진학도유격대』, 1981.

25) 박영한, 『장강』 1-2, 창공사, 1996.

적비를 세웠다.<sup>26)</sup> 그 후 1977년 6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3,096위의 영령을 봉안한 유격전 위령비가 세워졌다.<sup>27)</sup>

군 당국에서는 그 동안 정규 작전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육군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교훈분석도 소홀하였다.<sup>28)</sup> 전쟁 시기 아군 유격대의 활동보다는 유격전의 이론적 접근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록 적의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취할 점을 획득하기 위해 공산측의 유격전술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었다.<sup>29)</sup>

그러나 유격대 활동 가운데 부대장이 현역이어서 정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유격대의 기록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sup>30)</sup> 1953년 1월 이기전 대령이 구월부대에서 활동한 이정숙 여사의 일대기를 발간했다.<sup>31)</sup> 1955년 6월 30일 국방부에서 구월부대의 활동사인 『구월산』을 발간했고, 부대장을 역임했던 김종벽이 육군본부 『전사』 69~73호에 『한국의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육군대학에서도 유격작전 사례로 연구했다. 그 외에도 명유격부대와 영도유격대가 소개되었다.<sup>32)</sup> 1985년에는 『백골병단』이 발간되었다.<sup>33)</sup>

소부대 전투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호림부대,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 백마부

26) 『한국일보』, 1961. 6. 30;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 12, 22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4.

27) 1970년대 중반, 정부에서 유엔 16개국 참전비를 세울 때, 마침 유격대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어(이원복, 『6월의 산하가 전화에 물들 때: 유격대』, 『조선일보』, 1975. 7. 8)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28) 육군본부, 『전쟁원칙』, 1957; 육군본부 군사감, 『병과별 부대역사』, 1959; 『육군사』, 1955; 육본부, 『전투교훈』 2-3, 1990.

29) 육본, 『공산도당의 적화유격전술』, 1965; 육군대학, 『특수8군단』, 1975; 육본, 『세계유격전사』, 1979.

30) 『군사』 22, 육군본부, 1956. 5. 20.

31) 이기전, 『구월산 여장군』, 우현사, 1953. 1.

32) 『군사연구』 62, 육군본부, 1966; 『구월산 유격작전』, 『군사평론』 88-89, 1967;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전(실전기)』, 『전사』 80, 1974. 4;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대』, 육본, 『전사』 84, 1976. 6.

3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대, 영도유격대 등의 전례가 소개되었다.<sup>34)</sup> 1980년대 초 당시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민간인유격대에 대해 일부 연구를 시작했다. 1994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각 유격대의 주요 간부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한국전쟁과 유격전』을 발간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발간된 『한국전쟁』 중에 일부 반영되었다.<sup>35)</sup> 그 외에 일반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유격대 자료에 대한 해제가 있을 뿐이다.<sup>36)</sup>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국방부 및 육해공군 문서, 가운데 유격전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유격전의 특성상 전쟁 당시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까닭에 대부분 증언에 의존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관련자료가 일부 공개되기 시작하자, 유격대 참전 미군과 군 경력자들이 주로 이 부문을 소개했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대부분 참전자의 증언에 의한 것이고, 미군 요원중심으로 서술에 그치고 있어서 이 부문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서는 유격전사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우리측의 유격대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싸웠고 왜 싸웠는지를 밝혀 그들의 교훈을 계승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가 전쟁의

34)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 『전사연구』 10, 육본, 1979; 『전사연구』 12, 육본, 1981; 특전사, 『특수전사례집』, 1986.

3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채한국의, 『한국전쟁』 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36) 조이현,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보존』 12, 2000.

37) 벤 S. 맬콤(군사편찬연구소역), 『백호부대유격전사』, 2001; Alfred Harlan Paddock Jr., “Psychological and Unconventional Warfare, 1941-1952: Origins of a ‘Special Warfare’ Capability for the US Army”, Ph. D. Dissertation, Duke Uni., 1979;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ys”, *Army*, Nov. 1984; Ed Evanhoe, *Darkmoon: 8th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Annapolis, MD, 1995; Michael E. Haas, *In the Devil's Shadow: UN Special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Annapolis, MD, 2000; William B. Breuer, *Shadow Warriors: the Covert War in Korea*,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96; Douglas C. Dillard, *Operation Aviary: Airborne Special Operations-Korea, 1950-1953*, Trafford, 2003, etc.

발생 배경과 미국과 중국의 개입 등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점차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휘주체를 기준으로 유격대를 민간 자생유격대, 민간유격대와 국군의 결합, 국군 유격대, 미군 통제하의 유격대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유격부대의 활동은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부대를 서술하되, 2만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2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미군 통제하의 유격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유격전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부대에서는 전쟁 당시 문서를 일부 보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쟁 당시부터 부대기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어느 부대는 간부들의 갈등으로 부대기록이 파기된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전후의 보존과정에서 일실된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1991년 10월 특전사령부에서 역사관을 세우면서 전쟁 당시 유격전 자료를 일부 수집한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일부 자료는 전쟁기념관에 기증되어 보존 혹은 전시되어 그들의 활동상을 전하고 있다.<sup>38)</sup>

본서에서 이용될 자료는 크게 네 종류이다. 첫째, 군내 관련 기록이다. 국군 예하에 있던 일부 유격대는 정기역사편집자료를 일부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sup>39)</sup> 미 극동군사령부 제8240유격대가 유엔군측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국군으로 편입되기 전의 기록은 군 당국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52년 11월 미 제8240부대 산하 간부 22명에게 수여한 무공훈장공적서가 남아 있다.<sup>40)</sup> 휴전 후 이들이 국방부 제8250부대로 편입될 때의 문서마저도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다. 전우회의 청원을 토대로 한 일부 부대의 전사자명부와 1961년 비군인으로 종군했던 이들에 대한 복무조정에 관한 문서가 부분적으로 정부기록보존소와 육본 부관감실에 남아있다.<sup>41)</sup> 이 때문에 유격대원들의 공훈, 사상자에 대한 보훈 등의

38) 유격대원들은 전쟁기념관에서 기증한 자료들이 교체되어 전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39) 유격사령부, 『정기역사편집자료제공지침』, 1950. 11. 9, 『육군부대역사 보고서』,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115.

40) 국방부 제1국장, 『미국동사령부직할부대원 22명에 대한 무공훈장수여』, 1952. 11. 21, 군편 소장, 『공적서철』 304.

41) 민사군정감실 운영과, 『구월산부대전사자명부』, 1955. 12. 12, 육본 부관감실; 민사감실 민사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동·서해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해군 작전경과보고서,<sup>42)</sup> 복무했던 해군 간부들의 기록,<sup>43)</sup> 해군본부에서 펴낸 일화집에도 부분적으로 유격대 지원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공군에서 발간한 증언록에서 일부 첩보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다.<sup>44)</sup>

둘째, 유격부대의 자체 기록이다.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대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제대로 정리해서 보존하지 못했다. 대원의 명부, 일지 및 주요 작전 종료 후 작전활동을 기록한 보고서 등 유격대 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마저도 극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보존되어 있지 못하다. 동키 제7부대의 경우, 작전과 공작횟수를 기록하였으나 작전참모의 사망으로 유실되었고,<sup>45)</sup> 일부 유격대는 대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있는 자료 접근이 용이치 않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미군사령부와 휴전 후 유격대 처리시에 보고한 일부 문서가 남아 있다.<sup>46)</sup>

좌익 빨치산의 경우처럼 전쟁 당시 유격대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발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sup>47)</sup> 또한,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비밀작전이라든가 비정규전의 성격 때문에 유격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sup>48)</sup>

협력과, 『8240부대출신민간인전사자 명부』, 1965. 4. 22, 육본 부관감실; 8250부대 명부; 민사협력과, 『8240/8250부대 전사명부』 등.

42)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1-12, 해군본부, 2001;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해군작전사 개설』 1, 해군본부, 2001.

43) 문기섭, 『나의 걸어 온 길 가야 할 길』(미발간 수기), 1999; 강기천, 『나의 인생여로』, 계몽사, 1995.

44)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1-5, 1964, 1969, 1977, 1993, 1997; 공군본부, 『6·25전쟁과 증언록』, 2002.

45) 수월부대전사편찬위원회, 『은울유격전사』, 95면.

46) 『D-20 병기통계 급 배치표』, Nov. 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백호부대 D-3연대, 『장비일람표』, 1952. 11. 28, 같은 문서철; 『태한철』(사령부) 1954. 1(특전사 역사관 소장); 타이거여단 사령부 행정과, 『근무일지』, 1954(동 역사관); 『송호부대 명부』, 1953. 1. 21(동 역사관).

47)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87면.

48) 이에 비해, 북한언론은 남한지역 뿐만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기 좌익빨치산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었다(『빨찌산부대전투원들 맹활동』, 『조선인민군』, 1950. 11. 28; 『인민유격대 적후방에서 중흥무진으로 전과확대』, 같은 신문, 1950. 12. 9; 『적의 강점하에서 용감하게 싸운 서평양청년근위대원들의 투쟁』, 같은 신문, 1950. 12. 30; 『평남명산군 인민유격대의 영웅적 활동기록』, 같은 신문, 1951. 1. 12; 『송악산일대에 용맹을 휘날린 장현식 유격대의 투쟁기』, 같은 신문, 1951. 1. 25; 『빨찌산의 모범결사대원』, 『로동신문』, 1951. 2.

1952년 11월 이후, 백령도 표기지 유격대 ‘합동참의부’ 정훈부에서 월간 단위로 발간한 『당나귀』지, 1953년 2월부터 유엔유격사령부 심리작전과에서 유격대원들의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주간단위로<sup>49)</sup> 발간한 『과라슈트』지 등이 특전사 역사관에 수집되어 있다.

일부 유격대원들이 남긴 일기는<sup>50)</sup> 당시 기록으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부대정황과 대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간단하여 아쉽다.



당나귀지(특전사령부 역사관)

유격대원이나 첩보대 가운데 수천 명이 생존해 있으나, 유격대의 상부나 여타 부대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부대장이나 간부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규모 전투를 기억할 수 없었다. 유격대원들은 “여전히 꿈속에서는 종종 당시의 총성이 들릴 만큼 생생히 남아 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전후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바빠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둔 채 애써 잊고 지냈던 전쟁이 되었다.<sup>51)</sup> 또한 대원들 가운데 일부는 기억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증언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한 부대사는 그 대부분이 전쟁 당시 원사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전후에 참전자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간부가 아닌 생존자의 증언은 부대 본부의 운용내용에 대해

5; 『향토를 지켜 싸우는 청년들』, 『민주청년』 1952. 5. 4).

49) 실제 한 달에 1권을 발행했으나, 1954년 1월부터 한 달에 2권을 낼 것을 약속했고, 발행부수도 1,000부에서 2,000부로 늘리기로 했다(『편집후기』, 『과라슈트』 14, 1954. 1. 15).

50) 이종암, 『一生日誌』·『북진록』·『북향록』 1949. 2-1954. 6; 조남혁 일기, 1951. 11. 25-1956. 1. 31; 이영재 일기, 1952, 1953; 전인수, 『바보일기』 1953, 1954. 1-3 등.

51) 한동근(울פק제8부대), 『전투기록, 잊을 수 없는...』, 2002. 8.



조남혁·이종암·이영재 등의 일기

전우회에서 주축이 되어 발간되었던 관계로 부대활동을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대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각 전우회의 부대사는 앞으로도 당시 미군 문서, 고문관 회고록, 타부대원과 탈북자 등의 교차 증언, 북한자료 등을 통해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엔군 통제하 유격대의 활동을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미군의 문서가 있다. 미군 정규작전의 여러 보고서에서는 유격전 관련 자료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언급된 일부 자료들은 그 부분이 삭제된 경우가 많다.

미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에서 미 극동군사령부 제8240부대 관련 문서를 수집했으나, 일부 시기의 월간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주로 첩보수집 보고서(Intelligence Report)가 많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외에 미군 간부와 각 유격대 부대장 인터뷰 기록이 있어서, 미 육군군사연구소(Military History Institute)에서 수집한 미군 간부의 인터뷰기록을 활용했다.<sup>53)</sup> 이미 1960년대에 미 제8240부대 관련

52) 임봉익(동키 제4부대원) 증언, 2002. 8. 13.

53) Record Group(이하, RG로 줄임) 349 CCRAK(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G-2 Report 1952. 10-1953. 5, NA; RG 349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RG 319 Army Intelligence TS Decimal Files 1942-52; 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1953, SN 1400, 1400-1(이들 자료는 내부자료로 번역되었다: 서용선, 『북한인 유엔군유격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110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잘 알지 못했으며, 다른 부대 사정은 서로 잘 몰랐다.<sup>52)</sup>

증언내용에는 ‘사실’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대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히 전과 부분은 자신의 부대의 영광을 위해 과장된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부대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미군 당국에 관련자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쉽게도 미군 당국은 관련기록이 없다고 회신했다.<sup>54)</sup> 1993년에도 미 육군부 인사사령부나 국방부에 미 제8240부대원의 군적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역시 그들은 어떠한 기록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로 보아 미군 측은 유격대원들의 개인별 전과를 기록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sup>55)</sup> 이러한 형편은 지금도 계속되어 관련문서를 전체 입수하지 못하고 일부 관련자료를 미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 미 육군 군사연구소(Military History Institute, MHI) 등에서 입수했다.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과 관련된 잭부대(Joint Advisory Commission Korea, JACK) 부대의 자료는 결국 입수하지 못했다. 첩보부대와 관련된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와 미 육군군사연구소 등지에서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미군측은 전쟁 당시와 전후 문서에서 그들 산하에서 활동했던 게릴라와 첩보활동을 제외시키거나 비밀문서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극동군사령부 역사분과에서 한국전쟁 일지를 작성했을 때 유격 활동은 모두 외면하였고, 극동군 사령부의 월간보고서에서도 제외시켰다.<sup>56)</sup> 그 후의 공간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미군들의 회고록도 일부 번역 소개되었다.<sup>57)</sup> 미군은 1952년 10월부터 역사자료수집대를 작전지역으로 파견하여, 유격부대사(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를 정리하도록 했다. 미국측이 제8240부대와 영도유격대 등을 직접 통제했기 때문에 관련문서가 미국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월간 지휘보고(Monthly Command Report) 등 대다수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유격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sup>58)</sup> 이는 유격대 활동에 대

54) “War Record of Cockland Unit”, Apr. 11, 1967, 육본 부관감실.

55) HQ, 8th Personnel Command, DA, “Verification of UNPIK Veterans”, Oct. 27, 1993, 육본 부관감실; 벤 S. 맬콤, 『백호부대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1, 376면. 1993년 질의시, 미 제8군에서는 국제연합유격군(UNPIK)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다.

56) GHQ, FEC, “G2 Section Report”, Apr.-Aug., 1952(군사편찬연구소, SN 1612); Military History Section, HQ FEC, “Korean Chronology June 25- Dec. 31, 1951”, Apr.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332).

57) 벤 S. 맬콤·론 마즈, 『백호부대 유격전사: 한국전쟁시 북한지역에서 수행된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야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한 종합평가 보고서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매우 유용하였다.<sup>59)</sup> 그리고 일부 전투사적 교훈 도출에 관한 논고가<sup>60)</sup> 일부 있다.

넷째, 아군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공산측의 토벌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북한 자료 가운데에는 『로동신문』, 『황해일보』 등 일부 신문자료를 제외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중공군의 자료는 황해도 지역의 토벌대책, 만주지역으로 투입된 일부 첩보대의 토벌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sup>61)</sup> 북한에서는 아군 유격대를 ‘해상의 무장비적’, ‘악질테러 강탈단체’ 혹은 첩보대원은 간첩이라고 불렀고, 중공군은 유격대를 ‘특무장(特武裝)’이나 ‘특무기관(特務機關)’으로 표현하였다.<sup>62)</sup>

끝으로 본서의 서술방법으로는 전체 부대를 고찰하되 부대의 비중을 고려해 주요 부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각 부대의 작전성과도 개별 전투를 모두 나열할 수 없으므로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전투활동을 서술할 때,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보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유격전』을 따랐다.

58) ORO, Johns Hopkins University(육본 군사연구실역),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육본, 1988.

59) 홉킨스 대학측은 이 보고서 관련자료가 대학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60)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전(실전기)』, 『전사』 80(1974. 4), 84; 『국군최초의 북과유격대 호림부대』, 『전사연구』 12;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D-10), 『전사연구』 10; 『주지봉 유격전』, 『전사연구』 10; 『제5유격대대의 양양지구 유격전』, 『전사연구』 12; 『채명신 유격대(백골병단)의 사투』, 『전사연구』 12; 『정주출신 유격대(백마)의 분전기』, 『전사연구』 12; 『함경도지구 Y유격대의 유격전기』, 『전사연구』 12; 『태백산지구 북괴인민유격대의 토벌전기』, 『전사연구』 12 등

61)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정, 『미국간첩 탕나 등이 우리나라 안전을 해친 사건에 관한 기소서』 1954. 10. 9; 안도현 공안국, 『로령에서의 특무소탕전투공로자표창대회기록』, 1953. 2; 『미국공중투하특무섬멸기』,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편, 『돌아보는 역사』, 심양: 료녕출판사, 2002;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滙編』, 解放軍出版社, 1987; “Capture of American Imperialist Agent Wang Chi”, Col(R). Douglas C.Dillard, op. cit., p. 94 등

62) 『황해일보』, 1952. 9. 4, 23; 『해적 80여 명 섬멸』, 『황해일보』 1952. 10. 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0, 133-134면; 編輯委員會編, 『志愿軍一日』 下, 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2000, 916면.

## 제 2 장 민간 자생유격대 활동



진안결사대 대원들

## 제 2 장

## 민간 자생유격대 활동

## 제 1 절 자생유격대의 전통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유격대원들은 강제적으로 조직 편성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죽음으로써 지키겠다는 자연발생적인 의병이나 구한말 일본의 침략 당시에 봉기한 의병의 활동과 연계성을 강조하였다.<sup>1)</sup> 왜냐하면, 그들이 의병과 같이 나라가 위급할 때 병역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침략군과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의병에 대해, 박은식은 “의병이란 민군이다. 국가가 위급할 때 즉시 의로써 일어나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싸우는 것(義兵者民軍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徵之發 而從軍敵愾者也)”이라고<sup>2)</sup> 간결하게 정의했다.

우리 역사상 의병은 이미 고려시대 몽골침입 때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호란 때 일어나 활약하였던 것이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경복궁에 침입하여 개혁을 강요하였던 1894년부터 비롯되었

1) 차치루, 『유격전의 史實과 우리의 활약상』, 『파라슈트』 9, 1953.8.15, 23면; D-11 용진학도유격대전우회, 『용진학도유격대전사』(초), 연도 없음, 14면; 김종학 증언, 『가평지구 반공투쟁 산악대 투쟁사』 1986.9.6, 육본 군사연구실, 8면; 수월부대 전사편찬위원회, 『은율유격전사』, 1986, 7면.

2)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0, 29-30면.

다. 그 후 1905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보호국으로 만들자, 조직적으로 직접 일본제국과 투쟁을 하였던 것이 의병항쟁이다. 먼저 강원도 원주에서 원용팔이 일으킨 것을 시작하여 홍주에서 민중식, 순창에서는 최익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영남지방에서 일어난 의병가운데, 평민의병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신돌석과 고종의 시종관이었던 정환직과 그의 아들 정용기의 산남의진(山南義陣)이 대표적이었다.

의병들은 전술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 싸운 것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싸웠다. 즉, 의병장 최익현이 말한 대로 “우리 의병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것이 낫다”는 정신으로 싸웠다. 이 후,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였고, 군대마저 해산시켰을 때, 해산당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함으로써 의병부대의 무장과 전술 등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의병들의 활약으로 1907년 말에는 도시와 도로 연변을 제외하고 지방은 거의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의 반격도 강화되어 군함까지 동원한 정규군이 직접 참가한 ‘남한 대토벌작전’을 펼쳐 의병을 비롯한 양민들의 희생이 컸다. 호남의병에 대한 대토벌 이후, 의병운동은 더욱 더 소규모로 분산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활동무대도 황해도, 강원도, 경북 등 남한 이북지역으로 옮겨서 투쟁을 계속하였지만,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으로 그 세력은 국내에서 크게 약화되었다가, 나라를 잃은 후 국외의 무장독립투쟁으로 이어졌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가까운 서북간도와 연해주 지방을 비롯해 멀리 흑룡강 유역의 북만주 및 구한말 노동 이민으로 성립된 하와이와 미국, 멕시코 등지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이러한 독립운동기지를 토대로, 특히 만주지역에서는 더욱 조직화된 독립군들이 3·1운동 후 여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국내 진입작전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일본군의 독립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도 강화되었다. 특히,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이 어렵게 되자, 일부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 임시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광복군 결성에 참여하였다. 광복군에는 이들

독립군 외에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 간 학도병들이 탈출하여 온 경우도 있었다. 광복군은 일부가 연합군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국내진입 작전을 모색하고 있던 중 일본이 항복하였던 까닭에 일본과의 본격적인 항쟁은 하지 못하고 말았다.<sup>3)</sup>

자주독립을 위한 이러한 끊임없는 대일 무장투쟁은 한국전쟁시기의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자유 의병’으로 이어졌다. 다만 한국전쟁시기의 유격대도 의병과 마찬가지로 국난시 자발적으로 일어난 무장세력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으나 역대 의병이 타민족에 대한 항쟁이었다면, 한국전쟁시 유격대는 동족 내부의 이념적 투쟁이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점이 있다.

---

3) 일제시기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화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독립동맹과 그 산하에 있는 조선의용군 이외에도, 김일성 부대의 활동이 있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경험을 전쟁 전부터 대남 게릴라투쟁에 활용했다(『인민과 혈연적 관계를 긴밀히 하라』, 『조선인민군』 1950년 11월 28일자 사설; 방문권,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의 항일무장투쟁』, 『력사과학』 1967-5).

## 제 2 절 전쟁시 유격대 활동

### 1. 남한 지역

#### 가. 개 요

북한군의 기습으로 국군이 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인들이 ‘군번없는 용사’가 되어 전투에 참가했다. 학도의용군이나 무기수송을 했던 노무자, 현지입대 등으로 국군을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적 후방에서 게릴라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많았다. 그들은 국군이 “부산까지 밀리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투쟁하겠다”는 투쟁의지를 가졌다.<sup>4)</sup>

전쟁 전 좌익빨치산 출몰지역에서 이들의 진압에 참가하거나, 그들의 공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쟁 초기 북한군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이루어진 빠른 남진 속도에 남한지역 주민들은 북한군이나 좌익세력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다. 이미 1950년 7월 하순 북한군 제4사단이 진안·군산·광주·남원·목포 등지를 점령했고, 제6사단은 순천, 하동을 거쳐 진주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했다. 제12사단은 안동을 점령하고 8월초에 이르러 낙동강선에 도착했다.<sup>5)</sup> 이러한 긴박한 전세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역전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후퇴해야 했다. 이에 대한 반격전은 서부전선에서 1월 중순부터 오산·이천·수원을 탈환했으나 서울을 재차 회복한

4) 김영필(제2사단 제32연대 제3대대장) 증언, 날짜없음,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독수리유격대자료집』 1995.8, 군편.

5) “Korean Army Casualty Report” Jan, 1951, “Army-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51-52”, Korean & Pyongyang, 군사편찬연구소, SN 1620; Military History Section, HQ FEC, “Korean Chronology June 25-Dec. 31, 1951”, Apr.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332.

것은 3월 중순이었다. 중부전선에서는 1월 하순, 원주와 영월을 탈환했다.<sup>6)</sup>

이와 같이 밀고 밀리는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유격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쟁 초기 국군의 후퇴시기이고, 둘째는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기이며, 셋째 중국군의 제3차 공세로 서울을 빼앗기고 이를 수복할 때까지이다.

두 번째 북진시기는 아군의 승리에 고무되어 여러 지역에서 치안대 혹은 학도의용대를 편성해 치안을 확보하면서 국군을 지원하여 북한군 패잔병이나 빨치산 토벌에 참가한 경우가 많아서 순수 유격대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의 경우도 북한군의 점령시기보다 짧은 기간인데다가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1951년 1월 중순, 경북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에서 중공군의 공세와 함께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대해 미 제10군단 산하의 국군과 문경 경찰, 및 대한청년단 특공대원 29명이 참가한 경우처럼,<sup>7)</sup> 국군과 경찰 등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유격대 활동이 활발한 북한군 점령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은 1950년 7월 22일 대통령령(긴급명령) 제7호에 따른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한 전국 각 마을단위로 조직되었던 향토자위대나 기타 공적인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즉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했을 때, 모두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원해 국군에 입대하거나 반공유격대를 결성해 곳곳에서 항전을 벌였다. 반공유격대에 가담한 이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북한의 점령 아래 있던 청장년들이었다.<sup>8)</sup> 이들 가운데 반공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군경이나 공무원 가족 등이 주동이 된 경우가 많았다.<sup>9)</sup> 유격대원들은 국군 전투복, 인민군복, 민간복장 등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무기도 국군이나 경찰이 남기고 갔거나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다발총, 소련제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

민간유격대가 활발한 곳은 지역별로는 38선과 근접한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로, 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한군의 잦은 도발을 겪었기 때문

6) 이한립,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216-217면; 『한국전쟁』 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435면.

7) 『적성리 대첩』, 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 『내고장의 대공투쟁사』, 1988.

8) 김윤성, 『자유의 증언』, 정화문화사, 1976, 49-50면.

9) 북한의 유격대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다(『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의 첫대렬에 섰다』, 『황해일보』 1952.11.11; 같은 신문 1953.2.8).

에 국군이 후퇴한 후에도 북한치하에서 반공투쟁 활동을 계속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주로 다루고 전라도 등지에서 발생한 유격대 활동을 간략히 고찰했다.

북한군 점령시기 주민들의 무장투쟁은 1950년 7월 20일 이후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그 지역 방위를 위해 학도병, 의용경찰대, 청년방위대 등이 합세하여 격전을 벌인 것과 같은 형태가<sup>10)</sup> 많다. 소수 인원이 일시적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1950년 7월 하순 강원도 철원 근방에서 7명으로 구성된 반공청년들이 북으로 끌려가는 반공인사를 구출하고 야간에 이동하는 적의 차량을 파괴하고 북한군을 기습하기도 했다.<sup>11)</sup>

또한 유격대활동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저항활동을 한 단체들도 많았다. 그 예를 들면, 충남 아산군 온양읍에서 동란 중 미처 피난가지 못한 온양중학교 재학생 남녀 11명이 반공단체인 태극동맹을 결성하여 감금된 학생과 애국지사를 구출하고 국군과 유엔군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북한만행을 규탄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50년 9월 하순 6명의 학생이 희생되었다.<sup>12)</sup> 예산군 대술면에서도 학생, 면서기, 경찰, 주민들 등이 참여하여 태극동맹을 결성하여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조병옥, 김홍식 등 10여 명이 희생되었다.<sup>13)</sup> 충남 서천군에서 북한군의 점령시기 당시 장항농업중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던 김달식, 양태순 등 5명이 결사동지회를 결성해 해군에게 적정을 탐지해 정보를 제공하다가 좌익의 밀고로 체포되어 대전교도소에서 희생되었다.<sup>14)</sup>

전라도의 무장투쟁 가운데 규모가 있는 경우는 전라북도 진안결사대와 전라남도 완도 청산리결사대 등이다. 전북 진안군 진안면에서 1950년 7월 20일, 김유중 등 17명이 국군과 경찰이 버리고 간 총기로 무장을 해 ‘보라매구국대’를 결성하여 구룡리 ‘삼베실’로 입산했다. 이 무렵 문훈모 외 11명이 부귀면 운장산으로

10)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75면.

11) 『중위 김귀홍 수기』, 김윤성, 『자유의 증언』, 정화문화사, 1976, 43-46면.

12)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60면; 『참전기념조형물도감』, 국가보훈처, 1996, 499면.

13) 예산군, 『예산의 얼』, 1982, 190-191면.

14) 『참전기념조형물도감』, 국가보훈처, 1996, 539면.



입산하여 유격작전을 펼쳤다. ‘보라매구국대’가 인민군과 자위대원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은 서로 합칠 것을 결의하여 7월 27일, 부귀면 수항리에서 문훈모를 대장으로 진안결사대를 조직했다. 대원들은 17세부터 26세로 김봉우·채몽석 등이 17세였고, 대장인 문훈모가 25세였다. 특히 대장 문훈모는 다른 2형제도 참가해 3형제가 결사대원이었다.

대원이 68명으로 늘자, 3개 소대로 편성해 산중에서 작전을 계속했다. 그 가운데 1950년 8월 21일, 주천면 대불리에서 완주군 동상면 자위대원 9명을 사살했고, 9월 6일 진안군 상전면 월평마을 노상을 달리고 있던 북한군 보급차량 2대를 기습해 북한군 7명을 사살하고, 수만 발의 탄약을 9월 26일 후퇴하는 북한군을 기습해 25명을 사살했다.

대원들의 복장이 주로 인민군복을 입고 있어서 미군이 진주해올 때 대원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해 총격을 받아 1명이 사망했다.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1대대 1중대(중대장 이봉근 대위)와 함께 진안과 임실에서 북한군 패잔병과 빨치산 소탕작전에 참가했다. 그런데, 식사는 군에서 지급했으나 피복과 담배 등은 지급되지 않는 등 현역과 차이가 나자, 대원들이 불만을 갖고 모두 이탈했다. 그 후 일부는 경찰이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군에 입대했다.<sup>15)</sup>

전남 완도에서 1950년 7월 30일,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되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청년방위대 간부였던 신형균 등 44명이 ‘청산향토방위결사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청년방위대를 기반으로 해군 901함정, 514함정, 516함정 등과 경찰로부터 총기, 실탄, 수류탄 및 약품을 조달해 무장했다. 무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대나무통에 카바이트를 넣어 적을 기만하는데 활용한 죽포였다. 이들은 청산면 주위 완도읍, 금일읍, 군의면, 고군면 등에 있는 북한군을 교란시켰고, 청산면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을 수 차례 막아냈다. 이 지역이 국군에 의해 수복되자 결사대를 해체하고, 대원들은 육군 제106사단에 지원입대했다.<sup>16)</sup>

15) 김봉규·이우병·김우종·서편안, 『진안결사대 조직 경위 및 전력 개요』(날짜 없음), 육본 군사연구소.

16) 신형균·정규철, 『청산 향토방위결사대 투쟁사』, 1988.3.10, 육본 군사연구소.

## 나. 주요 지역 활동

### (1) 강원지역

전쟁 당일,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내평리 지서를 방어하는 데 경찰관과 함께 대한청년단원이 가담해 북한군 20여 명을 사살하고, 지서장 노종해 경위 등 9명의 경찰관과 대한청년단 북산면 단장인 김봉림 등 3명이 전사했다.<sup>17)</sup> 이 사건의 배후와 관련자를 밝혀내기 위해 북한 내무서원들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박승무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반공청년 30여 명을 규합해 ‘화무결사대(花武決死隊)’를 결성했다. 대원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청년단원으로서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군사분계선 일대를 수색하여 수류탄, 박격포 등을 찾아내 무장했다. 마침 국군 낙오병 이유선 일등상사가 합류하게 되어 전력이 강화되었다. 이들은 반공인사를 학살하는 등 양민을 괴롭히는 좌익 선동자와 내무서원 등을 처치하여<sup>18)</sup>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원도 40여 명으로 늘었다. 즉 1950년 8월 8일 북산면 민청위원장과 내무서원을 처치했고, 유엔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한 후 북한군 패잔병을 수류탄과 박격포로 습격해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0월 4일 국군 제6사단이 춘천을 수복하는 날 사단사령부를 찾아가 노획품을 인계한 후 해산했다.<sup>19)</sup>

춘성군 남면(현, 춘천군 남산면) 가정리에서 1950년 8월 15일을 맞이해, 이미 활동하고 있던 유격대원들이 한말 의병장 유인석의 후손인 유봉과 가평에서 피난 나온 국군 낙오병 장호석·이정용, 가평경찰서 복장포 지서에 근무하던 이승균 순경 등이 합류하여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반공투쟁 공작 산악대’를<sup>20)</sup> 결성했다. 그들은 “지방공산적구 내무서원 후방인민군

1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2, 52-54면.

18) 이들을 포로로 처리할 형편이 못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군들도 치안대원들에게 ‘인민의 원수’라는 명분으로 즉결 처단했다. 30여 명의 치안대원을 모두 죽인 경우도 있었다(『적 치안대 일망타진코 구분대의 진공으로 타개』, 『조선인민군』 1950.12.13).

1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17-120면.

20) 가평출신들이 참가함으로써 ‘가평반공산악공작대’라는 표현도 있고, 가평반공투쟁사에서 다루고 있으나(신현정 편저, 『가평반공투쟁사』, 가평향토문화추진협의회, 1984), 당시 유격대장

소탕을 결사투쟁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케 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적개심을 환기시킬 것”을 결의했다. 산악대의 본부는 방하리 칼봉산을 근거지로 했다. 산악대의 간부로는 대장 이승균, 부대장 유갑상·유영상, 전투중대장 장호석, 소대장 이정용 등이었고, 창설 당시 대원의 규모는 40명 정도였으나 점차 늘어 8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21)</sup>

대원들은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하여 활동했다. 주요 활동으로 1950년 8월 21일, 가평읍 달전리에서 주민을 괴롭히는 북한군 1명을 처치했고, 9월 10일과 12일 방하리를 통과하는 북한군 2명, 3명을 각각 공격하여 5명을 사살하는 한편 남면, 가평, 청평 등을 무대로 지방 좌익세력을 제거하고 내무서를 습격했다. 9월 20일 유제록과 유봉상이 남이섬에 정박중인 북한군의 식량수송선을 기습하여 130여 가마를 쌀을 노획하여 이 가운데 50가마를 대원들의 식량으로 비축하고, 나머지는 부락민에게 나눠주었다.<sup>22)</sup>

‘산악대’의 활동이 계속되자, 북한군은 남면일대에 국군 낙오병이 활동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민학살과 반공인사의 납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군이 이곳을 수복하자, 10월 10일 치안활동을 해오던 산악대는 모든 무기를 남면 자치대에 인계하고 해산했다. 이들은 약 2개월간 활동하면서 북한군과 내무서원 등 다수를 사살하고 4명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소총 21정 실탄 2,000여 발을 노획했다고 한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75년 춘성군 남면 남이섬에 전적비를 세웠다.<sup>23)</sup>

강원도 인제군에서도 기린면 상·하남리, 진동리, 남면 수산리 등에서 한청결사대의 유격활동이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남리 결사대는 흥인철을 중심으로 한청단원들인 함용남, 박오철, 김영길, 홍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면 소재지인 현1리에 전쟁 전 비축해 놓은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가 되지

이승균의 보고서에는 강원도 춘성군 남면지구 반공투쟁공작산악대라고 되어 있다(이승균, 『강원도 춘성군 남면 지구 반공투쟁공작산악대투쟁개요』, 1950.10, 육본 군사연구소).

21) 이정용 증언, 『가평지구 반공투쟁산악회 투쟁사』, 1986.9.6, 육본 군사연구소.

22) 신현정 편저, 앞의 책, 125-127면, 140-143면.

23) 『강원도 춘성군 남면지구 반공투쟁공작산악대 투쟁기』(날짜 없음, 군사편찬연구소;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20-122면; 가평문화원편, 『가평지구전투사』, 2002, 44-47면.

않도록 구곡현과 하남2리 용포 뱃터 등에 대원을 배치하여 차단했다. 북한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하던 중 장익삼, 김재여, 안만수 등이 희생되었다. 또한, 함명대, 연병기 등 대원은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진동리 한청결사대는 1950년 7월 12일, 김진철을 단장으로 김종웅, 박경래를 부단장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곳은 북한과 4km 밖에 되지 않는 산간오지로 전쟁 전부터 북한이 자주 빨치산을 남파시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결사대의 결성동기는 전쟁 전부터 북한의 유격대들이 월경해 가축과 식량을 약탈해 감으로써 내 부락, 내 가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나자 80여 명의 대원들은 임시본부를 두무대로 정하고, 인민군 복장과 무기로 위장했다. 1개 분대 규모로 나누어 진동1리의 적암, 두무대, 치전을 중심으로 작전을 했다. 전과로는 1950년 8월초 의용군을 모집하러 왔던 북한군 장교 1명과 사병 2명을 처치한 후 권총과 장총 2정을 노획했다. 이들은 국군이 진격해 올 때까지 활동하다가 해산했다. 교전 중에 최칠성, 김중희, 최병선, 엄재철, 양만준 등이 전사했다.<sup>24)</sup>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결사대는 전쟁이 나면서 이문규 등 6명으로 조직되었다. 그 후 양구군 남면 하수내리(당시 38선 이북)에 거주하던 김종순이 수산리로 피난오면서 결사대는 확대 재편되어 43명으로 늘었다. 대원 구성상의 특이한 점은 월남민이 32명이고, 수산리 현지 주민은 11명이었다. 결사대 대장 이문규는 당시 36세였고, 다른 대원들은 16세의 소년으로부터 40세까지 이르렀다. 후에 60여 명으로 늘어 2개 소대로 편성했다. 마을 주민들은 북한요원들의 활동상황을 제보하고 식량을 조달했다.

결사대원들은 군경이 후퇴하면서 버리고 간 총과 탄약을 입수해 무장하여 수산리 뒷산 광산골을 본거지로 해서 국군이 진주할 때까지 활동했다. 7월 초 북한 내무서원이 자위대원을 데리고 수산리에 와서 소 10마리, 식량 등을 강탈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대원들이 출동해 도강 중인 배를 전복시킨 후 소와 식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수산리에 온 북산면 인민위원장과 서기 1명을 황골고개에서 사살한 것을 비롯해, 수산리에 인접한 대동리에

24) 『김형배 외 2인 증언』 1990.4.2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온 내무서원 3명을 유인해 ‘절골’에서 사살하고 장총 3정과 탄약을 노획했다. 정치보위부원 2인이 수산리에 와서 결사대원들의 가족을 구타하고, 집을 방화했을 때 긴급 출동해 이들을 사살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 점령시기에 좌익세력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단체활동을 하지 못했고, 현물세 징수 업무도 수행하지 못한 반공마을이었다. 결사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한군이 후퇴할 때 피랍된 인사 50여 명을 구출하는 한편, 패잔병을 습격해 그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유격활동과정에서 대원들의 희생도 늘어나서 전사와 행방불명자가 16명이나 되었다. 1950년 11월 경 결사대는 홍천경찰서 두촌지서에 노획한 무기 250여 정을 인계하고 해산했다.<sup>25)</sup>

전쟁 전 반공청년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던 홍천군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반공투쟁을 전개했다. 이 가운데 별도의 무장투쟁 단체를 결성해 유격대 활동 수준에 이르렀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홍천군 두촌면에서 전쟁 전부터 활동하던 한국청년단원 150여 명이 전쟁이 나자 결사대(대장 : 한상돈)를 결성해 북한군과 전투를 벌여 치안을 담당하다가, 수복 후 경찰에 이관하고 해산했다. 내촌면에서도 반공청장년들이 ‘구국단’을 결성하여 국군 낙오병 이병석과 함께 분주소를 습격하려 했으나, 한 사람의 배신으로 18명 모두 체포되어 수감 중 생존자 5명을 제외하고는 아군 공군기에 희생되었다고 한다.<sup>26)</sup>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군에 항거하고자 반공청년단을 결성한 김석범, 지장문, 이기구, 김병선 등 5명은 1950년 10월 22일, 영랑호반에서 공비들과 격전중 전사했다.<sup>27)</sup>

## (2) 경기지역

### (가) 개 요

북한군이 점령하였던 시기에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크고 작은 반공투쟁활동이 많았다. 북면 ‘임산 의혈대’, 조옥현·최귀복 등이 결성한 ‘초옥동 결사대’, 가평

25) 이문규·김종순·이면우 증언, 『수산리 결사대의 반공투쟁사』 1987.7.16, 육본 군사연구소; 『이문규(결사대장) 증언』 1990.4.16, 국방군사연구소.

26)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125면; 『주민의 반공투쟁사료 : 홍천군』 1990(군사편찬연구소 소장).

27)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37면.

음 우익인사들이 춘성군 남면으로 피난해 결성한 ‘반공 산악공작대’ 등이다. 이 가운데 ‘임산 의혈대’는 1950년 7월 15일, 북면 논남기·임산 두 마을의 주민들이 북한군에게 양식을 빼앗겨 굶어 죽느니 보다 차라리 결사적으로 대항하자며 비밀결사대를 조직했다. 최원길(31세), 이홍식(35세) 등과 18세에 불과한 최봉운 등 마을 반공청년들은 임산 부락에 있는 임산회사 사무실에 ‘논남 청년자위대’라는 위장 간판을 걸고 좌익 자위대원과 내무서 분주소원을 몰래 처치해 8월 초순에 이르러, 그들로부터 빼앗은 소련제 장총이 20여 정이 넘었고, 따발총 8정, 수류탄이 30여 발이나 되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이후 노획무기를 전부 경찰서에 반납하였다. 그러나 1·4후퇴 후 의혈대원들은 국군 제5사단을 따라 경북 영양군에 가서 공비토벌을 했고,<sup>28)</sup> 다시 가평으로 돌아와 청계산과 명지산에서 공비토벌을 했다고 한다. 이 때 최춘길 대원은 북부에 관통상을 입고도 끝까지 기관총을 쏘며 적을 사살한 공로로 민간인으로서 받기 어려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sup>29)</sup>

장단·연천·파주 등지의 반공청년들이 파주 감악산으로 모여 각각 감악산지구 결사대를 결성했다. 1950년 7월 4일 이재우가 60여 명의 대원과 함께 감악산 밤나무골에서 ‘대한구국단’을 결성했고, 11일 당시 대한청년단 백학면 단장 유인종이 대원 40명과 함께 ‘대한의열단’을 결성했으며, 8월 1일 파평산에서 이동희 등 대원 25명이 ‘서부결사대’ 등을 조직했다. 이들은 서로 감악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고랑포와 백학 보급로 차단, 내무서 습격, 부역자의 납치 처단 등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데는 당시 적성면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채수혁과 최진학이 인민군과 내무서원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0)</sup>

1950년 7월 중순경 북한군이 점령한 포천군에서 소홀읍 대한청년단 간부, 방위장교, 공무원 등이 가족들과 함께 소리봉(蘇利峰)으로 입산했다. 이들은 이곳

28) 정규군과 주요 작전 위주로 기술된 제5사단 역사에서는 이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다(보병 제5사단, 『부대역사』, 1979).

29) 신현정 편저, 앞의 책, 158-161면; 김동숙,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2002.2.24; 가평문화원, 『6·25 한국전쟁중 가평지구전투사』, 2002, 30-34면.

30)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경기도미수복지구편), 1990, 480-485면.

에서 청년단 간부인 임찬호, 방위장교 노규현과 권혁문 등과 소리봉 유격대를 결성했다. 결성 당시 소총 7정과 실탄 수백 발뿐이었지만, 향토와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했다.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내촌면 죽엽산부대, 진접면 광동부대, 별내면 송산부대 등을 편성했다.

이 부대는 전화선의 절단, 연락병과 통신병 등을 납치해 문서를 탈취하는 등 통신망을 교란하면서 무장투쟁을 했다. 소흘읍 직동리에서 송산으로 넘어가는 송산고개에서 잠복해 북한군 2명을 사살했고, 내루부락 뒷산 물푸레봉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여 소총 1정, 권총 1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sup>31)</sup>

인천 지역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청년단, 서북청년회 등의 청년들이 서북청년회 경기도 지부 사무실에 ‘인천방위사령부’(단장 김득하)를 설치해 인천시청, 경찰서 등을 방어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1950년 7월 4일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주해 오자 이에 대항하다가 김득하 등 대원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자 후퇴했다. 이들은 부산으로 후퇴한 후, 그곳에서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함효영·이성민 등 33명이 ‘해군의용대’를 결성하여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인천을 수복한 후 해산했다고 한다.<sup>32)</sup>

북한군이 강화지역을 점령하자, 이 지역에서 좌익들은 여러 좌익기관을 창설했다. 예를 들면, 7월 21일 서원면에서는 면과 각리 자치위원회, 인민위원회, 노동당, 내무서, 자위대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원 확대, 창고 경비, 해안선과 항공망 감시, 대한청년단·민보단 등의 우익단체 간부를 조사하여 국군패잔병을 색출했다.<sup>33)</sup> 이러한 정세아래 대한정의단 대한지하결사대 등 여러 우익단체가 결성되었다.<sup>34)</sup> 그 가운데 북한군 점령시기에 창설되었다가 1·4후퇴시기 재차 활동했던 대한정의단(大韓正義團)과 강화특공대가 대표적인 단체였다.

31) 『포천군 소리봉부대의 투쟁』,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경기도미수복지구편), 1990, 485-490면; 포천군지편찬위원회, 『포천군지』 상, 1997, 444-447면.

32) 전태준, 『6·25 참전』, 2002.12.7.

33) 『강화도 서도면 공작필기』 1950.7-9, 군사편찬연구소 SN 1351.

34) 강화문화원편, 『강화사』, 1989; 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22-23면; 6·25 참전 강화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 『호국충용』, 1987, 27-28면.

호국군 중위였던 조성실, 경종오가 주동이 되어 ‘실지회복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성공회 사무실을 비롯하여 대원들의 집 등을 전전하여 회의를 갖고 지하 공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50년 8월 20일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최중석·홍재룡·김훈대·김대용 등을 추대하여 대한정의단을 발족시켰다. 단장에 최중석, 부단장 조성실·경종오를 선출하고 단원 66명을 규합했다.

이들은 김포와 강화 사이를 왕래하는 북한군과 내무서원의 이동수단인 어선을 제거함으로써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을 봉쇄하기 위해 ‘어선 깨뜨리기 작전’을 벌였다. 작전은 단원들이 야음을 이용하여 적이 강화도 근해에서 징발해 쓰고 있는 어선 40여 척을 도끼로 배 밑창을 깨뜨려 차례로 파괴시켰다. 어선 깨뜨리기 작전을 완료한 정의단은 적을 공격하기에 필요한 무기가 부족하여 먼저 적의 트럭 5대를 기습하여 4문의 포를 노획하고 적군 7명을 생포하였으며, 2차 기습전으로 3명의 적군을 생포하여 해군 제313정에 인계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은 단원들은 내무서 분주소를 기습하여 엽총 4정과 실탄, 수류탄 등 다량의 무기를 획득했다. 다시 인민위원회를 기습, 등사판을 획득하여 전단을 제작 살포했다.<sup>35)</sup>

강화도를 수복한 대한정의단은 치안대로 개편하여(대장 홍재승), 지방 공산당원을 색출하여 치안활동과 함께 경찰에 인계하고 11월 5일 대한정의단을 자진 해체했다. 1950년 12월 18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다시 후퇴할 무렵, 대한정의단 단장으로 활약했던 최중석을 비롯한 24명의 청년들이 다시 모여 향토방위를 위한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란 유격대를 조직했다.

특공대는 1951년 1월 2일, 모든 관공서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특공대원과 주민들이 각종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화도 방위에 나섰다. 5일 특공대는 개풍군 일대에 내무서원 22명과 인민위원회 요원 50여 명이 강화도로 돌아오기 위해 도강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돌미루 선창일대에 대원들을 배치하고 기습해 그들의 대다수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sup>36)</sup> 6일에도 월곶으로 상륙하는 북한군 22

35) 『민족의 증언』 5, 311-312면.

36) 이 작전의 시기가 1월 7일로 기술되어 있고 적의 규모도 다르다. 이후의 작전일시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강화문화원편, 『강화사』, 1976, 355-361면).



명을 생포했고, 30일에는 특공대는 김포에서 건너오는 북한군과 중공군과 결전을 벌여 강화읍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했다.<sup>37)</sup> 이후 일부 대원들은 육군 제 5816부대 유격대로 편입되었다.

## (나) 태극단

### 1) 결성 배경과 편성

북한군의 남침한 지 불과 3일만에 경기도 고양과 파주지역이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곳곳에서 향토를 지키고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투쟁할 것으로 결의했다.<sup>38)</sup>

1950년 6월 27일 금촌(金村)에 살고 있는 경성상공중학교 4학년생 이순창은 동생인 휘문중학교 3학년생 순호와 함께 금촌역 부근에서 M1 소총 3정을 습득했다. 그 이틀 후 29일, 국군 제1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완료한 바로 그 날 이순창은 경기사범학교 3학년생인 김경규, 경성상공중학교 4학년생인 황상균과 함께 수색에 있는 제1사단 사령부 영내로 잠입하여 배낭 세 개에다 수류탄 10여 발씩을 챙겨 이를 김경규 집에다 숨겨 두었다. M1 소총 3정과 수류탄 30여 발을 획득한 이들 4명의 학생들은 반공 투쟁에 뜻을 모아 태극기에다 혈서로 ‘대한민국 지하 공작대’라고 쓴 다음 반공투쟁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

7월 1일 백마에서 호국군 출신이었던 강화신·송태성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고기값이라도 하고 죽자는 맹세”를 하고 박영수(한양공업중학 4학년생)·배정균(백마 초등학교 교사) 등을 포섭하고 무기를 수집했다. 그 후 국군 낙오장병 이승환 대위·이학주 중사 등이 가담했다. 3일 청석에서 윤석만(송문중 6학년생)은 친구인 황세영(경기공업 6학년생)과 함께 청석지구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동지를 모았다. 이 무렵 파주군 교하에서도 윤훈용(인천중 5학년생)·박우호(한성중 5학년생) 등이 조국을 위해 결사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대

37) 『대한정의단의 반공투쟁』,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경기도미수복지구편), 1990, 524-525면. 북한측은 1951년 1월 17일, 박승달 구분대가 강화도 상륙에 성공해 50여 명을 살상 포로로 했다고 주장했다(『로동신문』 1951.2.15).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8) 태극단동지회, 『태극단투쟁사』, 1983.

원을 모으던 중 서울에서 피난 온 이기호(태양신문사 사원)·윤영세(농업은행원) 등이 합류해 구국결사대를 조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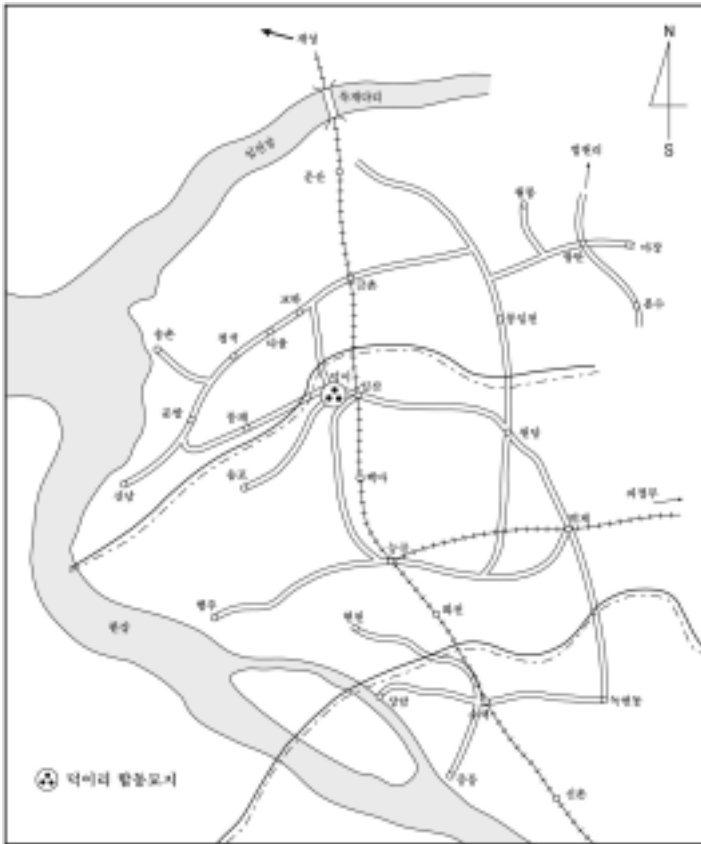
7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高陽郡 中面 一山里) 삼정부락에서 김복환(21세, 서라벌 예술학교생)과 이장복(26세, 교통부 육운국 근무)을 중심으로 안영근(22세, 교통부 서울 검사사무소), 박정량(21세, 교통부), 홍원식(20세, 경성전기 중학교 5학년생), 최희성(20세, 성동공업학교 5학년생), 이승국(19세, 서울공업학교 4학년생) 등이 모여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혈서로 맹세하고 태극단(일명 TK)을 조직하여 반공투쟁에 나섰다. 단장은 이장복, 총무 안영근, 조직 홍원식, 정보 김복환 등 책임부서를 정하고, 김복환을 고양군 민청에 가입시켜 각종 정보를 수집케 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봉호가 태극단이라고 제안한 이유는 태극기를 지킨다는 뜻이었다고 한다.<sup>39)</sup>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결사대가 조직되어 각기 조직을 결성했으나, 세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충기를 다룰 줄 모르고 결사대를 이끌어 나갈 역량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8월 초순까지 태극단과 금촌의 이순창이 주동이 되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동일한 목적이라면 통합하는 데에 뜻을 모았고, 한편으로 새로 조직을 확대했다. 마침 각지의 결사대원들이 대부분 경의선 통학생들로 통학하는 동안 차안에서 익힌 친분과 평소의 행동에 나타난 사상 등을 감안해 각 마을마다 조직이 이루어졌으므로 쉽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지리적으로 경의선 중심에 위치했던 일산에 본부를 두고 수색으로부터 문산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극단은 경기도 파주군과 고양군내의 금촌, 백마, 청석, 산남, 교하, 지도(능곡), 광탄, 송포 등지의 학생, 공무원, 농민, 상인, 국군 및 경찰 낙오자들을 총망라하여 각 지역별로 지단을 조직했다. 별동대(이순창), 파주군단(이기호), 수색지단(조성구), 송포지단(황인성), 능곡지단(홍순성), 금촌지단(신국범), 광탄지단(이정구), 백마지단(이길환), 산남지단(김봉호) 등이 중심이 되었다. 각 지단별 연락은 파주군단과 송포지단 김병숙, 이아가다 등 여자단원과 홍원식, 능곡지단 이병렬, 금촌지단 이순창, 광탄지단 황규현, 백마지단 김복환 등이 담당했다.

39) 이장복 증언, 1980.8.2, 전사편찬위원회, 『태극단활동상황(증언록)』(No. 736).

&lt;요도 2-1&gt; 태극단 투쟁지역도40)



단원은 태극표지의 도장이 찍힌 머리띠와 흉장을 만들어 단원들 사이의 식별과 국군이 복진할 때 좌익들과 구별하도록 했다. 대원들 가운데 공무원, 회사원 등도 있었으나 학생들이 많아서 자신들을 ‘반공학생유격대’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전단의 원고작성을 비롯해 각 지단의 조직을 지도했고, 라디오를 들고 분석해 하루에 통보했다. 각 지단은 반드시 본부의 지령에만 의하지 않고 조를 만들어 투쟁하기도 했다. 대원의 규모는 9·28 수복 이전까지 240명으로 경기관총 1정을 비롯한 각종 소총 54정, 수류탄 270여 발, 실탄 수천 발을 보유하게 된 큰 결사대로 성장했다.

1950년 7월초부터 3개월 동안 반공투쟁을 전개해왔던 단원들은 서울 수복 이

40) 『태극단투쟁사』, 1983.

후인 10월 초순에 무장하고 있던 모든 장비들을 군에 반납하고 군대 입대 연령이 넘는 경우는 귀가했다. 그 외 이장복 단장 이하 100여 명의 단원이 서울 서대문구 창천초등학교에서 국방부 정훈국의 별동대원으로 대북 선무공작요원 교육을 받았으나 이들이 전부 편성되지는 않았다. 10여 명만 정훈국으로 선발되어 갔고, 이기호 등 40여 명은 방위군으로 입대해 노무사단으로 갔다. 그 외 38명은 청량리에 있는 서울 농업학교에서 2주간 첩보 및 유격교육을 받았다.<sup>41)</sup> 이들은 동년 12월말에 각 사단 첩보공작대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첩보대에 소속되어 복무했기 때문에 전쟁시기 행정상 병역기피자로 처리되어 휴전 후 국군으로 재입대했다고 한다.

## 2) 주요 활동

태극단 본부에서는 포고문·벽보·전단지 제작 및 살포, 철로 파괴, 북한군의 통신망 절단 등 유격전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강제동원된 의용군의 분산 도피지원, 부역자 명단 작성 등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50년 7월말 수색지역에서 의용군으로 강제 징병당한 30여 명을 도피시킨데 이어, 8월초 전화선을 절단하여 북한의 통신을 방해하기도 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전단지 제작 살포, 경의선 철도 탈선 및 보급열차 파괴 등이었다.<sup>42)</sup>

전단지 제작과 살포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심리전 활동은 북한군 점령 지역아래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컸다. 7월 20일 “적귀들의 침략하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적귀의 주구(走狗)가 되지 말라! 적귀들의 기관에 관계하고 있는 자들은 금일 중으로 사퇴하고 타 지방으로 도피하라! 불법남침한 적귀들은 성지(聖地)에서 떠나 만주 이북으로 가라! 본 포고를 준수치 않는 자는 금후 1주일 내에 가족과 더불어 멸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작성,<sup>43)</sup> 와동리 인민위원회 건물 벽과 주요 도로변에 부착하여

41) 이장성 증언, 1980.8.2, 전사편찬위원회(736); 이순창 증언, 2003.9.16.

42) 이길환 등, 『입증서』(날짜 없음), 전사편찬위원회(736).

43) “인류의 적귀는 이 땅에서 물러가라. 기만선전하지 말고 의용군, 북구작업에 주민들의 동원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 TK단은 민족의 이름으로 불법남침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회고도 있다.

공산분자들을 당혹케 하였다.

1950년 8월 10일 청석지단장 황세영(경기공업중학 6년생)이 태극단 본부를 방문했을 때 이장복 단장이 전단 원문을 작성해 제작 살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황세영이 청석초등학교 교사 김은화에게 뜻을 전달하자 동료 교사인 윤자설, 정태경, 이영무 등이 학교 창고에서 몰래 제작했다. 전단에 TK 혹은 ‘태극’을 크게 넣었다. 그 내용은 ① 유엔군이 참전하여 곧 전면 반격 수복될 것이다. ② 소위 의용군이나 복구작업 동원을 기피하라. ③ 복귀는 모든 자유가 없는 생지옥이니 이들의 기만선전에 속지 말고 모든 협조를 거부할 것이며 반역행위를 하지 말라. ④ 애국인사와 반공인사는 즉시 피신하라. ⑤ 우리 TK단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하여 결사투쟁하겠으며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등이었다. 이 전단의 살포는 황인갑(문산초등학교 교사)이 임진강 근처에 살아 그곳 지리에 밝았던 관계로 임진강 독개다리 복구공사장 부근에 살포했다. 그는 노력동원에 참가한 주민에게 비행기 출현시기를 이용하여 비행기가 살포한 것으로 위장해 살포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8월 27일과 9월 1일에 윤훈용(인천중학교 5학년)이 전단을 고양과 파주 일대에 살포했다.<sup>44)</sup>

단원들의 활동지역이 경의선 주변이어서 철로파괴 활동을 했다. 1950년 9월 19일 철도교환원인 류춘화(수색지단)가 철도전화로 피랍인사를 태운 열차가 수색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조성구·민두식이 주위를 감시하고, 정은수 주도 아래 이순창·김경규는 화전(花田)역 북방 800미터 지점에서 약 10m 가량의 철길 개뿔을 뽑아내고 직결나사를 풀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북한에서 탄환을 만재하고 남하하는 북한군 탄약 수송 열차 12량을 탈선시켰다. 이에 대한 복구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를 발견한 유엔 공군기가 폭격을 가해 열차에 적재되어 있던 탄약이 폭발되었다. 9월 21일 수색지단의 이수만 등이 서울방면의 북한군에게 보급하기 위해 난지도 강변에 착륙시키려는 식량수송선을 발견해 수류탄으로 침몰시켰다.

또한 태극단은 문산역 북쪽 2km 지점에 있는 터널(일명 여우굴) 속에 북한군의 포탄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탐지하고, 유엔군 항공기가 이 터널을 폭파하도록

44) 김은화 증언, 1980.8.14, 전사편찬위원회; 이순창 증언, 1986.5.13, 육본 군사연구소.

유도하기 위해 전지(全紙) 4배 크기로 인공기를 그려 여우굴 뒷산에다 퍼놓았다. 다음날 단원들의 의도대로 경의선 상공을 비행하던 유엔 전폭기 1개 편대가 그 표적에 로켓포 공격을 가하여 터널 속의 포탄을 폭발시켰다.

이러한 성과가 커지자, 조직이 점차 노출되어 북한 내무서원들의 추적을 받아 9월 중순이후 희생자가 많았다. 1950년 9월 15일 이응복은 북한 보안대원에게 발각되어 총살되었고, 20일경 이병렬도 체포된 후 시체로 발견되었다. 특히 과주 지구인 산남지단에서 13명, 청석지단에서 4명, 금촌지구에서 8명(2명은 도중에 탈출)의 단원이 각각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고양군 송포면 덕이리에서 학살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내무서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전사한 단원도 11명에 이르렀다. 9월 20일 내무서를 공격하려다 발각되어 고양시 출신 단원 16명, 과주군 출신 29명이 희생되었다. 이 외에 다른 우익인사 등 50여 명이 학살되었다.<sup>45)</sup>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단행한 이후, 미 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탱크를 지원 받아 태극단은 북한군 폐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9월 하순 일산을 수복했다.<sup>46)</sup>

## 2. 북한 지역

### 가. 전쟁이전 북한지역 반공활동

소련군정 시기부터 북한 내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북한 당국이 99%가 넘는 주민이 투표해 참가해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후보에게 95~

45) 1961년 12월 국방부에서 이들에게 1962년 2월 전사확인증을 발급해 연금을 받도록 처리했다. 매년 9월 30일, 생존전우회는 고양시 일산에서 추모행사를 갖는다.

46) 경찰을 비롯해 치안대와 태극단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면서, 좌익세력과 부역자를 처단함으로써 주민희생자 문제가 발생했다(민주공화당, 『반공사적지현황조사』, 1976.12, 22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627면 등). 이러한 문제는 수복 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96%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는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도 이미 반대세력이 존재했다. “선거가 비민주주의적이다”, “공동후보는 필요 없다. 자유 경쟁이라야 정말 민주주의 선거이다”, “선거결과는 모모 당이 독판치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심지어 선거에는 참가하되 선거표를 흑함에 넣어 반대투표를 하려는 ‘흑함운동’도 있었다.<sup>47)</sup>

김일성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1947년과 1948년 인민경제계획 완수, 2개년 계획의 실시 등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던 북한지역에서 식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식민지적 편파성과 봉건적 낙후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했다.<sup>48)</sup> 이와 대비하여 남한 주민들은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다고 선전했다.<sup>49)</sup>

그러나 북한 정책의 성과가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1947년 3월 황해도에서 목사 조봉환은 학교아이들에게 조밥도 배불리 못먹이고 있다는 설교 때문에 반동죄로 처벌받았다. 미군 정보당국은 1949년에도 쌀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재의 생산부족, 혹은 경제운용상의 결함으로 1949년 11월 21일 김일성은 연설에서 생필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시설이 모자람을 지적했다.<sup>50)</sup>

47) 졸고, 『1946년 11월 북한의 인민위원회 선거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452면; 『조선전사』 24, 1981, 23-24면.

48) 『북조선의 민주개혁은 조선민주발전의 기본토대이다』, 북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선전원수책』 6, 1947.6, 8면; 『조국의 자주독립원조자인 쏘베트군대를 환송하면서』, 『인민』 3-6, 1948.11;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1948(북조선 민전 중요문헌 제2집, 1949.7), 『관계사료집』 32, 52-53쪽;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감사문』(북조선 민전 중요문헌 제2집, 1949.7), 『관계사료집』 32, 102면; 박헌영, 『8·15해방 4주년 기념보고』, 『근로자』 16, 1949.8.31, 15면; 『김일성종합대학 제1회 졸업식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훈사』, 『청년생활』 1950.2, 3면.

49) 『파괴되는 남조선 산업』, 『순간 북조선통신』 1948년 8월 상순호 No.38, 『관계사료집』 28;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경제침략의 특질』, 『순간 통신』 1948년 11월 상순호, No.2, 『관계사료집』 28; 『미국의 남조선경제원조의 실태』, 『순간 통신』 1949년 2월 중순호, No.9-12 종합호, 『관계사료집』 28; 『서울시각중요급 및 소매가격지수』, 『순간통신』 36, 1949년 10월 중순호; 『남조선경제침략을 획책하는 미군정』, 『순간 북조선통신』 No.23, 1948년 3월 상순호; 『천정모르고 등귀하는 남조선물가』, 『순간 북조선통신』 No.27, 1948년 4월 중순호; 『미군주둔하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형편』, 『조선녀성』 1950.2.

50) 『목사 조봉환 반동선전사건 형상제1심 소송기록』, 『관계 사료집』 20, 484-485쪽;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8.10.12, 『관계 사료집』 21; American Embassy,

또한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토지개혁 후 현물세는 규정상 소출량의 30%만 내는 3:7제이었지만 실제로 농작물 판정과정에서 50~60%으로 결정되었고, 농약대, 비료대 찬조금 등이 공제되어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sup>51)</sup>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가구당 세금 비중이 4%에 불과하였고, 사회조직 회비 1.7% 등을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지만,<sup>52)</sup> 실제로는 각종 잡세가 농민에게 부담이 되었다. 시나 면 유지세 외에 각종 분담금이 부과되었다. 학교부담금, 남한동포구제비, 애국투사후원회비, 조·소문화협회비, 농민동맹비, 탱크나 비행기 헌납비 등이 강제부담이 되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난민을 통한 정보에서 북한사람들이 북한정권에 불만을 품는 이유가 개인별 연 40일간의 강제노동과 높은 세금인 것으로 파악하였다.<sup>53)</sup> 더욱이 북한주민들은 각종 단체 가입, 자아비판, 징병과 군사훈련, 강제 노력동원 등 규제가 많아서 북한정권에 반발했다. 1947년 북한에서 징병법이 공포되어 이를 기피하는 반공청년들이 늘어났다.<sup>54)</sup>

따라서 반공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월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으로부터 월남한 자의 수는 1946년 185,208명, 1947년 163,233명, 1948년 115,807명 등 464,248명에 이르렀다. 남북한에 정부가 각각 수립된 이후인 1949년에도 5월말까지 14,647명이 넘어 왔다.<sup>55)</sup> 이 가운데는 물론 일제시기 남한 거주자의 북한지역 이동자의 귀환이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문제로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948년 7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371명의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월남동기로 경제적 어려움 48.3%, 공산

“Premier's Kim Il Sung's Speech of Nov. 21, 1949”, Dec. 1, 1949, Mulphy Papers 1(군사편찬연구소, SN 1468); American Embassy, Seoul, “North Korea Contribution Campaign for the People's Armed Forces of NK”, December 1, 1949, the Murphy Collection(같은 문서).

51) 이종운, 『살아남은 자의 일기』, 웅진출판사, 1996, 102면, 142-143면; American Embassy, “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OK, July 1949”, Aug. 10, 1949, 69/263, NA, p. 19.

52)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마예프의 6·25전쟁보고서』 3, 93쪽.

53) US Embassy, “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OK July 1949”, Aug. 10, 1949, CIA Mulphy Papers 1(군사편찬연구소, SN 1468).

54) Maj. Shaun M. Darragh, op. cit., p. 68.

55)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9.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 출판부, 2000, 42-43면에서 재인용.



주의에 대한 혐오 29.4%였다.<sup>56)</sup> 한 예로, 1949년 1월 18일경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초도 거주민 6명이 모여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남한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승인되어 당당한 정부가 되었으나 북한은 유엔총회에도 참가 못했으므로 미구 파멸될 것”이라고 한 말이 공산당원에게 탐지되어 그들 중 2명이 초도 내 무지서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구금된 2명을 구출하는 동시에 내무서원 3명, 인민학교장, 민청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 등 7명을 포박하여 섬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월남하였다.<sup>57)</sup>

월남하지 못한 반공주의자들은 반공지하조직 활동과 연계되었다. 이들은 남한의 이북출신 단체와 연결되어 전단을 살포하거나, 무기를 반입하거나, 내무서원 등을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 비밀단체를 결성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시위 혹은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련 군정측의 보도통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각지로 퍼져나갔다.<sup>58)</sup> 1945년 11월 15일 이북 5도 회의에서 소련군이 점령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비공산주의 세력에게는 실망을 가져다 주었고 몇 군데에서 소요를 야기하기도 하였다.<sup>59)</sup>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반공의거나 1946년 3월 13일 함흥 학생반공의거가 발생했다.<sup>60)</sup>

1947년 11월 평양에서 이응룡, 김기협, 김인호 등이 공산당 타도를 목표로 한 조양단(朝陽團)을 결성했다. 이들은 1948년 1월 평양 시내에 유엔한국위원단의 입국을 환영한다는 배라를 살포했으나 곧 체포되었다.<sup>61)</sup> 1946년 7월경, 평양에서 순천군 출신 김병화가 학생, 철도역원 등을 결집해서 해동의사단(海東義士團)을 결성했다. 이들은 1946년 10월 성천군 영천면 용택지서를 습격하여 방화하는 성공했고, 평원선을 통과하는 군수품수송차량을 수덕역과 신성천역 사이의 터

56) “G-2 Period Report”, Dec.3. 1948, 『주한미군정보일지』 6, 한림대, 1989, p. 629;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2000, 42-44면.

57) 『동아일보』, 1949.2.5, 『자료대한민국사』 10, 380면.

58)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182-183면.

59)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ISNK”, 1945.12.17,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1, p. 27.

60) 한국통일촉진회편, 『북한반공투쟁사』, 1970;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 1-5, 199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 1992, 163-168면.

61) 김인호, 『실록수기』, 1981.8.5,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81-2; 유인용, 『대동강』, 189면.

널 입구지점에 다이어마이트를 매몰해 이를 폭파시킴으로써 화차 10량을 전복시켰다.<sup>62)</sup>

1949년 1월 28~29일 김종하·유인용 등 18명이 검거되었다. 그들은 모란봉에 숨어서 찍은 동대원 비행장의 소련제 야크기 등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남한에 정보를 제공하려다 발각되었다.<sup>63)</sup> 12월 신의주에서 북한정권의 전복을 도모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100명 가량의 기독교인을 처벌했다는 사건이나 1950년 2월 평양 등지에서 북한군 창설기념일을 방해하기 위해 수류탄을 가진 반공청년 12명이 북한보안서원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첩보도 있었다.<sup>64)</sup>

해주 지역의 정의추격대 사건은 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사회, 교원들이 중심이 된 신우회, 정의추격대 등이 남한과 연계되어 일으킨 사건이었다. 1948년 10월 남으로부터 받은 지령은 해주형무소를 파괴하고, 노동당 황해도당 당사와도 인민위원회 청사에 불을 질러 반공애국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미리 발각되어 14명이 체포되었다. 김진영·이춘식 등 4명에게는 사형, 이창근·권석준 등 10명에게 15년 내지 18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sup>65)</sup>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서 1949년 9월 중순 북한정세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 경제적 개혁조치들이 성공적이지만, “적대적인 분자들의 저항도 아직 존재하고 있음 … 현재의 정치 체제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주

62) 『순천군 해동의사단 반공투쟁』,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편), 1990, 354-357면.

63) 유인용, 앞의 책, 9-14면.

64) “G-2 Period Report No. 261”, Feb. 10, 1950,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2,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293.

65) 이 사건에 대해 미군정 G-2에서도 남한의 CIC가 개입한 것으로 여겼다. 1월 24일, 평양방송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범석 총리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49년 3월 21일 개각에서 이범석 국방장관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공작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천영환, 『열면 방송과는 달리 해주는 고요-해주 ‘정의추격대’ 사건』, 한국통일촉진회편, 『북한반공투쟁사』, 1970, 150-153면; 이범석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88-89면; “G-2 Periodic Report”, Jan. 22, 1949, 『주한미군정보일지』 7, pp. 174-175; “G-2 Periodic Report”, Jan. 24, 1949, 같은 책, 179-180면; “G-2 Periodic Report”, Jan. 26, 1949, 같은 책, 188면; “G-2 Periodic Report”, March 21, 1949, 같은 책, p. 394).

출신들인데, 이들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음 ... 1948년에 비하여 1949년 중에 정치 범죄 행위가 증가하였음 ... 이는 소련군의 철수가 한 요소로 반동세력들이 보다 대담해진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남한이 파견한 스파이, 테러리스트, 파괴분자들의 침투가 강화된 결과임 ... 적대적인 분자들의 활동이 기존 정치 체제에 커다란 위협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는 이러한 ‘정치 범죄 집단들’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했다.<sup>66)</sup>

소련대사관에서는 남한 첩자들이 북한의 각도에 테러 및 파괴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들 단체들에게 새로운 단원의 충원, 첩보 활동의 수행, 봉기 계획의 수립을 지령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집단들은 평양에서 2개, 해주에서 1개, 신의주에서 1개가 적발되었는데, 이 단체들은 남한으로부터 수류탄과 총포를 제공받고 있으며, 체포된 자들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1949년 5월 중 무기를 추가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정부는 38선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군대와 경찰을 증강했다고 한다.<sup>67)</sup>

미국 측도 1950년 1월, 그들이 획득한 첩보에 의하면 해주 감옥에는 1,594명의 수감자 중 1,300명이 정치범이라는 보고를 입수했고, 전쟁 직전에 미국 CIA는 북한에서 수동적이지만 김일성 정권에 대한 불만세력이 널리 존재한다고 분석했다.<sup>68)</sup> 이승만 대통령도 무기와 군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남한의 원조없이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무기와 보급을 지원해 줄 수 없으므로 단지 기다려달라고 할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 나는 이북 자체의 애국적 요소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북공산군도 그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끌려나가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북동포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서 일어날 것으

66) 『남북한 정세에 대한 대사관 분석 보고』, 1949.9.15,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36-37면.

67)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1949.5.2, 41-44면,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17면.

68) “G-2 Period Report No. 255”, Jan. 31, 1950,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2,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261; “Current Capabilities of the Northern Korean Regime”, June 19, 1950, 『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한국전쟁 자료총서 14),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270.

로 믿는 바”라고 평가하면서, 북한동포들이 남한에서 공산당을 타도해 주기를 고대한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 나. 전쟁시 반공 투쟁활동

### (1) 투쟁 배경

전쟁이전 반공활동이 무장투쟁으로 발전되었다. 국군이 패배하면서 후퇴할 때와 중공군의 개입으로 재차 후퇴할 때, 북한지역에서 반공활동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기의 여러 투쟁에 비해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

북한의 반공적인 주민들은 북한군이 남침을 한 지 불과 1개월만에 경상도 지역만을 제외하고 남한 전지역을 석권한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피난길을 떠났던 피난민들에 의해 더 이상 남으로 가 보아야 헛수고라는 소문이 나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거나 더 이상 남으로 피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반공세력들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sup>70)</sup> 그러나 일부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무장투쟁을 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유격대라기보다는 북한군 징집을 피해 도망 나오거나 사상범 또는 경제범 등이 도피해 있는 수준이어서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면, 황해도 감악산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대원이 100명 정도였으나, 무기는 소총이 다섯 자루였다. 이들은 분대, 소대와 같은 조직적인 단체를 결성하지 못했고, 입산도 마을 단위로 구분했으며 언제든지 하산해서 가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향 등을 서로 교환하거나 선무공작, 나아가서는 지역의 악질적인 내무서원을 징벌하는 수준이었으며, 여기에 낙오한 국군 구출, 혹은 국군이 보낸 첩보원 지원, 후퇴해오는 북한군 낙오병을 공격하여 무기를 빼앗는 수준이었

69) 『평화일보』, 1949.4.29; 『동방신문』, 1949.10.2; “Syngman Rhee to Dr. Chough Pyung Ok”, Apr. 10, 1949, 『대한민국사자료집』 29, p. 46.

70) 『학도유격부대전사』, 98면. 한 개인의 평가이지만, 한 목격자는 북한인구의 70% 정도가 국군의 패주를 개탄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북녘 동포의 대다수가 남한체제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이종운, 앞의 책, 112-113면, 115면).

다.<sup>71)</sup> 물론 이 가운데 전쟁 전부터 투쟁해 온 이들도 있을 것이나 국군이 계속 후퇴하는 여건에서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38선 이북으로 계속적인 북진이 이어지자, 북한지역 곳곳에서 반공단체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진주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고향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1950년 9월 하순 김일성도 방송연설을 통해서 아군측이 스파이와 유언비어 날포자를 이용하여 후방지역을 교란시키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미 중앙정보국은 이를 북한이 내부에서 민심이반 혹은 불만세력의 존재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하였다.<sup>72)</sup>

북한에 남아 있는 반공적인 시민들은 한결같이 목을 길게 빼고 하루빨리 유엔군이 들어와 주기를만을 지나거나 고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하늘에는 평화, 통일의 상징인양 B-29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쪽으로 날아갔고, 국군이 연이어서 북으로 북으로 진격하여 이들은 이제 통일이 다 된 것으로 여겨져 가슴을 설레었다고 한다. 폭격에 질려 무섭기도 하려만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즐거웠으며, 바다에 떠있는 군함은 믿음직스럽다고 한다.<sup>73)</sup>

북진을 하고 있을 때, 반공청년들이 머리띠에 ‘멸공’, 팔에는 ‘대한청년단’이라고 쓴 완장을 끼고 국군을 환영했다. 그들은 북한군 패잔병으로부터 탈취한 소련제 장총, 따발총을 들고 손에는 피문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국군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8·15 해방이후 또 한번의 해방을 맞아 남북이 분단된 후 처음으로 태극기가 북한 땅에서 펄럭였다.<sup>74)</sup> 불과 며칠 전 시가전을 벌였던 원산사에서 ‘대한청년단 결성준비위원회’ 등 민간조직이 결성되고,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sup>75)</sup> 북한 지역 가운데 이미 일제시대부터 좌익세력이 강해서 공산주의 운동의 근거지로 여겼던 함흥, 흥남 등지에서도 국군이 진입해 올 때, 공산당 간부들이 피난간 후 십리도 못가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국군을 크게 환영하였다고

71) 이영재, 앞의 책, 94-97면; 이종운, 앞의 책, 127-134면.

72) “The Korean Situation”, Sep. 27, 『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 1997, 1950, p. 205.

73) 김재수 메모 노트, 2002. 6; 유인용, 『대동강』, 232면.

74) 이걸, 『평양 시민들이 공산잔당을 소탕』, 육사 제8기생회, 『노병의 증언』, 1992, 416면; 이재균 (울팍 제5부대), 『나는 이렇게 싸웠다』, 1999.6.14.

75) 박남식, 『한 지식인 출신 국군의무병이 온몸으로 체험한 6·26일기』, 『월간중앙』, 1999.7, 431면.

한다.<sup>76)</sup>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부류 가운데 기회주의자들도 존재했겠지만, 5년간 공산치하에서 지조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그들과 대항하여 투쟁한 애국동포의 참뜻에서 나오는 환영이 대부분이었다. 지하에 있던 청년들과 단체는 지상으로 우후죽순같이 나타났다. 여러 정치단체나 종교단체도 변성하였다.<sup>77)</sup> 이들은 국군이 북진하기 전 공산주의자의 붕괴를 믿고 지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열성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며 국군의 입성을 기다리던 반공청년들은 ○○청년단, ○○치안대, ○○협조 보안대 등의 간판을 내걸고 치안을 확보하였다. 국군의 북진 소식에 평양에서는 반공민주연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세”, “기다리던 국군입성 만세”, “평화의 사도 유엔군 환영” 등 플래카드를 평남검찰소 자리에 내걸었다. “우리가 갈망하는 광명과 자유는 왔습니다.” 북한치하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던 평양의 애국동포 남녀노소들은 … 오, 국군용사여! 어찌 오늘이야 왔단 말이고.” 이와 같이 국군을 크게 환영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았다. 공산주의자들의 귀순을 권고하는 귀순공작대와 같은 활동도 있었다.<sup>78)</sup> 이들은 곧 국군을 도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데에 합류하거나 치안확보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공산치하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곳곳에서 자행한 반공세력들에 대한 학살도 한 동인이 되었다.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해주·은율·함흥·원산 등 북한지역에서 동원령 기피자, 유엔군 협력자 등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sup>79)</sup> 예를 들면 1950년 9월 28일 웅진에서는 400~500명이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 10월 11일 냉정리 비행장 굴로 옮겨진 후, 심사 후 석방할 사람은 석방한다고 했지만 총살이 계속되었다고 한

76) 『혁명과 전향을 넘나든 삶—한승격 증언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1999, 315면.

77) 문제안, 『남북삼천리』, 낙산각, 1956, 29-30면; Maj. Shaun M. Darragh, op. cit., p. 68.

78) 김재율, 『함남단천반공투쟁기』, 1981.8.4, 전사편찬위원회, 8면; 『국군보고 울고 부는 평양시민』, 정승규, 『중군만리』, 1953, 국도신문사, 28-29면, 36면; 최국송, 『슬픈지역』, 자유문화사, 1955, 274-287면; 노덕영, 『압록강변의 원한』, 양학출판사, 1978, 116면.

79)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다. 이 때문에 한 목격자는 10월 15일, “여태까지 세도를 부리던 빨갱이는 간 곳이 없고 집집마다 남은 것이 곡성뿐이다”라고 회고했다.<sup>80)</sup> 냉정리 비행장과 웅진광산 폐광 굴속, 심지어 웅진 읍내에 산재하는 우물에까지 사람들의 시체로 메워져 있었다.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살상의 계기가 되었다. 즉 가족이나 친지들의 학살된 시체를 보고 흥분하여 공산치하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마구잡이로 구타, 린치를 가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sup>81)</sup> 신막에서도 치안대는 북한군들의 만행을 보복하였다.<sup>82)</sup>

이와 같이 국군이 북진하기 전 내무서원과 고급 당간부 등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처형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반격을 받아 많은 희생이 일어났다.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 신천과 재령에서는 무력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국군과 유엔군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일으켰다. 함경도 신흥군에서도 1950년 10월 14일경 유엔군이 함흥과 북청에 입성했다는 소문에 공산당원들이 도망했다. 이 때 이 지역에서 전쟁 전부터 반공활동을 했던 박후진, 이흥연 등은 반공청장년들을 모아 북한군을 체포하는 등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나, 도리어 후퇴하는 북한군에게 사로잡혀 이흥연, 이춘엽 등이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sup>83)</sup> 함경북도 성진군 어랑천(漁浪川)의 한 여학생이 북한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가는 도중 북한의 보안서원에 붙잡혀 처참하게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sup>84)</sup>

중공군의 개입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아군에게 정보제

80) 이종암, 『일생일지』, 1950.9.28-10.15.

81) 이영재, 앞의 책, 102-116면.

82) 이종운, 『살아남은 자의 일기』, 웅진출판, 1996, pp. 142-143.

83) 박후진, 『대한민국호위단』, 1981. 6, 전사편찬위원회; 조동환, 『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북한측은 국군과 유엔군 북진시기, 미군이 치안대, 멸공단 경찰대 백골단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을 동원하여 대규모적이고 잔인한 학살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김희일, 『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다』, 『력사과학』 1960-4, 36면;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1946-1947, 『조선중앙년감』 1968, 조선중앙통신사, 1969, 490면; 조선기록과 학영화촬영소, 『잊지말자 신천땅의 원한을』, 1999).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주체와 규모에 대한 논쟁이 있고 유격대활동과 구분되므로 별도로 고찰되어야 한다.

84) 『권태일(수단사단 작전처 보좌관) 증언』, 1965.12.10, 전사편찬위원회.

공, 악질 공산주의자 처단 등을 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부르짖으며 시가지를 행진했던 북한주민들에게는 전세가 악화되어 가자, 하늘에 떠가는 B-29기 마저도 그 소리가 맥없이 들렸다.<sup>85)</sup> 국군과 유엔군이 또다시 후퇴하게 되자, 북한지역에서 그 동안 우익활동을 했던 인사들은 두가지 형태를 나타냈다.

첫째, 유엔군을 따라 북한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이 때에 육로와 동서해안을 통해 대량탈출이 이루어졌다. 원산항에서 생사를 걸고 배에 오르려던 아주머니들의 발버둥은 죽음과 삶을 판가르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배를 못타면 나는 죽는다.” “여기에 남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우리를 죽여달라.” 국군이 떠나고 나면 ‘반동숙청’의 회오리가 불어닥치리라는 불안이 그들을 필사적인 탈출로 몰았을 것이다.<sup>86)</sup>

서해안에서도 1·4후퇴 후 은울 해변가 산등성이에 약 2~3천 명이 몰려 있었다.



황해도 치안대원

85) 『권태일(수단사단 작전처 보좌관) 증언』, 1965.12.10, 전사편찬위원회; 김재수 메모 노트, 2002.6; 박계주,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 정음사, 1955, 75-76면.

86) 서한중, 『형·아무가 해병이었다』, 해병대 3·4기생 전우회, 『참전실록』, 2002, 370면; 전창수, 『전투중에 있었던 우연한 일들』, 같은 책, 532-533면. 중공군들은 황해도 수안군 ‘멸공구국회’, 신대리 치안대, ‘대한민족축진회’ 등 반공적인 인사 90명을 체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衛國前線』, 1951.4.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2, 2000, 443면).



대부분의 섬은 작은 섬들이며 그 중에서 주도(舟島)는 직경이 500여 미터에 불과한 섬이었는데, 이런 섬에까지 피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당시 백령도 주변 도서의 주민은 17,813명이었고, 피난민의 수는 62,082명이었다.<sup>87)</sup> 1·4후퇴 후에도 계속 탈출해 왔다. 1951년 3월 12일, 연백군 안성에 숨어있는 반공청년들이 함포소리를 듣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원을 요청하여 해군 제704함은 100명을 구출해 교동도로 후송했다.<sup>88)</sup>

둘째, 아군 후퇴시기 반공인사들의 또 다른 행동방식은 유엔군의 재반격을 기다리면서 몸을 숨기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자치대를 조직해서 활동했던 이들 대다수가 남한으로 피난을 간 상황에서 지하공작을 하는 경우는 소수였다.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목숨을 건 반공투쟁활동은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한 후 유격대활동으로 발전했다.

투쟁형태는 국군 낙오병이 주도하여 반공주민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한 경우와 반공청년들만으로 이루어진 자생적인 민간인유격대가 있다. 국군 제7169부대 소속 지완철(池完哲) 일등중사는 1950년 국군이 북진할 때에 평북 영원까지 진격하였다가 철수 작전에서 낙오되어 이 지역에서 피난하지 못한 애국청년 약 50명과 반공청년결사대를 결성하여 평북일대에서 내무서 습격, 중공군 후방 보급처를 습격하는 등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51년 2월부터 공산군의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원산 신고산 지역으로 피해 들어갔다가 북한 청년 3명과 함께 귀환하였다.<sup>89)</sup> 이 무렵 원산으로부터 38선까지 국군 낙오병이나 분대 단위 규모 국군들이 잔류하여 이 지역 반공청년들과 투쟁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첩보를 수집하려는 미군이 첩보원을 파견하기도 했다.<sup>90)</sup>

황해도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반공청장년들은 1951년 1월 중순까지 무장투쟁을 하다가 결국 인근도서로 철수했다. 황해도 등 서부지역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이들은 육로로 피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해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피난

87)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174면; 『해군사-작전편』 1, 152면.

88) 『작전경과보고서 제3·4권』, 247면.

89) 문제안, 『남북삼천리』, 낙산각, 1956, 239-241면.

90) *Dark Moon*, p. 103.

했다. 황해도 지역에서 피난 경로는 육로로 개성 쪽이고, 은률-송화 축선지역은 서해안 바닷가 초도, 백령도 등지로 탈출하기 위해서 장연, 풍천 등지에 피난민이 몰렸다. 이 지역의 월사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독일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하였던 던커크(Dunkirk)와 같은 곳이 되었다. 또 다른 탈출로인 재령 남서쪽의 장산곶을 통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으로 탈출했다.<sup>91)</sup>

서해안 지역으로 후퇴한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의 반공청년들은 미군과 연계되어 활발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미군 통제하 유격대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주로 함경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1952년 후반기에도 백두산지역에 반공유격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격부대장도 있었지만,<sup>92)</sup>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여 유격대의 조직 규모와 지속성을 감안하여 이미 알려진 유격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2) 주요 단체

### (가) 개마고원유격대

개마고원 지역은 한말 의병대장 홍범도 장군, 차도선 등이 의병을 일으켜 투쟁했던 항일독립투쟁의 유서 깊은 고장이다. 해방이후 소련 군정시기 인민위원회 선거 반대투쟁을 위해 광복군 출신 김용교를 중심으로 반공빠라를 배포하고 벽보를 붙였고, 조령·조재국 등이 주도한 ‘민생·민권·민주’ 서클이 결성되어 풍산군 뿐만 아니라 갑산군까지 조직을 확대하려다가 탄압을 받는 등 여러 반공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sup>93)</sup>

함남 풍산군 웅이면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8월, 멀리 동해 바다에서 유엔군의 함포사격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반공청년들은 커다란 힘을 얻었다. 1950년 9월 2일, 이미 김봉·조석재·황헌 등이 결성했던 서북 광복동지회를<sup>94)</sup> 유격대로 재편했다.

91) 이성근, 『6·25 당시 반공의거활동』, 1981.3.23, 전사편찬위원회; 김용철(탈북자) 증언, 2002. 12. 4; “UN Partisan Forces 1951-52”, pp. 5-6.

92)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11.5,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93)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함경도편), 1990, 312-339면.

94) 『서북광복동지회의 투쟁』, 북한연구소편, 342-345면.

김봉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 및 전투부대인 진공대(進攻隊)를 재편성했다. 간부진은 부회장 황현, 조직부장 이춘근, 보급부장 최병로, 동원부장 이창순, 반공조사부장 조동학, 훈련교관 강명구, 진공대장 조동울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봉 회장은 유격전이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기습하고 사방으로 갈라서 퇴각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공대를 소수 인원으로 편성했다. 즉 분대(4명), 소대(12명), 중대(20명)로 편성했다. 대원의 규모는 동지회 회원과 북한군 기피자 등 진공대와 비무장대원을 모두 합쳐 150여 명 정도였다. 무기는 주로 인민군을 기습해 빼앗은 것이었다. 훈련은 일본군 출신 강명구 교관으로부터 넓은 화전밭을 훈련장으로 삼아 매일 3시간씩 실시했다.<sup>95)</sup>

유격대는 개마고원 주변지역을 무대로 본격적인 유격작전으로 들어갔다. 이들 진공대는 진공대장 조동울의 지휘 아래 청년들을 전선으로 강제 동원하고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는 내무서 분주소를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하거나, 미 공군기들이 미처 파괴하지 못한 교량과 도로들을 파괴·차단하는 등의 작전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한편, 낙동강까지 남침했다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이 북으로 패퇴 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유격대는 각 지방의 공산주의자들의 최후 발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본부를 산에서 군청 소재지인 풍천으로 이동했다. 이때 북한군을 피하여 지하에 잠입해 있던 청년들이 유격대 입대를 지원함으로써 인원은 200명으로 늘어났다.

유격대는 즉시 치안 업무를 담당하여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 분자들을 색출, 수감하고 한편으로는 패잔병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집으로 귀가시켰다. 이 때 유격대에서는 “인민 군대 여러분! 敵狗<sup>96)</sup> 김일성은 어제 밤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싸울 생각하지 말고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거리마다 게시했다.

이외에도 진공대는 풍산군 일대의 산속에 숨어 있는 북한군 패잔병들과 내무서원들의 소굴을 찾아다니면서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1950년 9월 20일경, 현물세

95) 『김봉 증언』, 육본 군사연구실, 1991.

96) 김봉, 『불타는 개마고원』, 자유사, 1972, 270면.

와 징병을 위해 마을에 나타난 8명을 공격했다. 진공대장 조동율을 비롯한 8명의 대원이 출동하여 7명을 처치했다. 10월 15일, 서창리에서 함경남도 정치보위부, 풍산군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의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봉을 비롯해 진공대장, 부회장 등이 공격진을 3대로 편성해 이들을 기습하여 2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했다.<sup>97)</sup>

이들은 북한군 패잔병과 공산당원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서 1950년 11월 16일, 문조리에서 기습을 당해 유격대원은 희생당하거나 흩어지면서 30여명만 남았다.<sup>98)</sup> 대원들의 희생이 컸던 것은 대원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투경험이 풍부한 적과 대적했기 때문이었다.

11월 18일 김봉 회장을 위시한 생존대원들은 이 지역까지 북진해 온 미 제7사단 제31연대 제2대대와 만났다. 미군 지휘관은 서북광복동지회가 그동안 개마고원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작전에 계속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격대는 미군과 함께 삼수 갑산으로 진격작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진격작전은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12월 4일 유격대원들도 미 제31연대와 함께 북청, 홍원(洪原), 함흥을 거쳐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했다.

#### (나) 함북 주을 반공유격대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함북 경성군 주을에서 반공인사, 인민군징병 기피 청년 등 약 300명으로 구성된 반공유격대가 결성되었다. 유격대는 전투를 수행하는 한편, 별도로 주을 지역 뿐만 아니라 널리 반공인사를 규합했다. 이들은 대원 모집, 식량과 물자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반공회’를 결성했다. 북한반공회의 간부는 회장 김형두, 부회장 겸 군사부장 신민, 조직부장 이두표, 총무부장 김재만 등이다. 이들은 이미 1948년초부터 반공조직을 결성했다.

유격대의 조직은 3개 소대와 7개 지구 및 특수공작대로 구성되었다. 유격대장 신민, 부관 이인, 제1소대장 신철, 제2소대장 김지구, 제3소대장 김희련 등이었고, 이외에도 제1지구장(화상리), 제2지구장(연향동), 제3지구장(주을 읍내), 제5지구장(하면), 제6지구장(성정), 제7지구장(주북면), 제8지구장(온대진), 제9지구장(용

97) 김봉, 앞의 책, 280-281면, 288-298면.

98) 김봉, 앞의 책, 344면.

천동)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강정태, 김용준 등으로 구성된 특수공작대가 있었다. 또한 김복옥, 박정희 등 여성대원이 일부 있었다.

유격대는 무기를 확보한 후 북한의 보급로와 후방지역을 교란하여 유엔군의 진격작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북한군과 행정기관을 공격하기로 했다. 당시 주을에는 북한군 경비대의 예비병력이 일부 주둔하고 있었고, 미 해군이 수시로 포함사격을 해왔던 해안지대에도 경비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기 획득을 위해 온대진(溫大津) 어항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대원을 일부 포섭해 대원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경비대를 습격하기로 했다. 1950년 9월 16일, 이미 포섭된 북한군이 보초를 서고 있을 때, 김이선, 고경준 등 유격대원 90여 명이 외곽통신망을 절단하고 온대진항의 북한군 경비중대를 기습했다. 그 결과 소련제 소총 100여 정, 따발총 10여 정, 경기관총 5정, 수류탄 200발, 실탄 등을 노획했다.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관모봉 산악지대와 온천동 화상동 성정동 일대의 부락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동태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원들에게 병기조종과 사격 및 유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했다. 1950년 10월 30일, 유격대장 신민이 지휘하는 70여 명의 특공대와 조직부장 이두표가 지휘하는 별동대 30여 명은 야음을 이용해 주을읍에 잠입해 내무서, 정치보위부, 노동당, 군인민위원회 등을 기습했다. 노동당 사무실, 현물세 창고 등을 소각하고 공산당 간부 20여 명을 생포했다. 북한 기관원들은 처음에 유엔군이 상륙한 줄로 여겨 큰 저항없이 도망했으나 유격대임을 알고 인근 북한군, 정치보위부원 등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추격했다. 유격대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국군이 북진하자, 유격대는 독자적인 작전을 버리고 함북 명천에서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 수색중대와 합류했다. 이 때부터 국군이 제공하는 급식과 보급품을 받으며 전열을 정비했다. 유격대 중 일부는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0여 명은 수도사단의 수색대에 차출되고, 나머지 100여 명은 제1연대와 같이 북한군 나남사단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어랑천 봉강고지 전투에 참가해 승리를 거둔 후 11월 20일 주을읍도 점령했다.

수도사단은 북진을 계속했고, 유격대는 수복지구의 치안확보와 인민군 패잔병

소탕을 담당했다. 그 후 중국군의 개입으로 1950년 12월 3일,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시 함께 남하했다.<sup>99)</sup>

#### (다) 고원청년유격대

국군 진격시 함경남도 고원지역에서 치안대를 조직하여 치안유지 활동을 했던 반공청년들이<sup>100)</sup> 1950년 12월 6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하자 국군의 뒤를 이어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 지역 반공청년들은 원산 북쪽 약 10km 지점인 문천에서 후퇴의 발길을 멈추고, “우리의 힘으로 다시 내 고장을 수복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고원반공유격대를 조직했다.<sup>101)</sup> 간부로는 고원 대한청년단 훈련부장이었던 조병팔 대장과 부관 김성원, 중대장 박기연, 임덕복, 이승권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 때 문천지역 전경주 외 10여 명의 반공청년들도 이들과 합류해 대원들은 100여 명으로 늘었다. 유격대의 장비는 경기관총 1정에 소총 80여 정 및 다량의 실탄과 수류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문평(文坪) 해안을 떠나 배로 여도(麗島)로 건너가 육지로 상륙하기로 했다.<sup>102)</sup>

유격대원들은 여도에서 당시 저도(猪島)에 피신해 있던 반공지도자 서창하, 서증현 등과 제휴하여 상륙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이곳으로 찾아 온 영흥(永興) 청년들과 협의하여 영흥을 먼저 탈환한 뒤, 고원으로 진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원들은 12월 20일, 여도를 출발하여 호도반도(虎島半島)의 방구미(芳九米)에 상륙했다. 이곳에 상륙한 대원들은 12월 26일 미명에 서증현이 저도에서 인솔해 온 50여 명의 고원 청년대원들과 은평리에서 합류했다. 이에 따라 약 150여 명으로 늘어난 유격대는 진흥장(鎭興場)을 거쳐 영흥으로 진격하면서 일부 대원들이 마장(馬場)을 급습하여 1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는 개가를 올리고 순녕(順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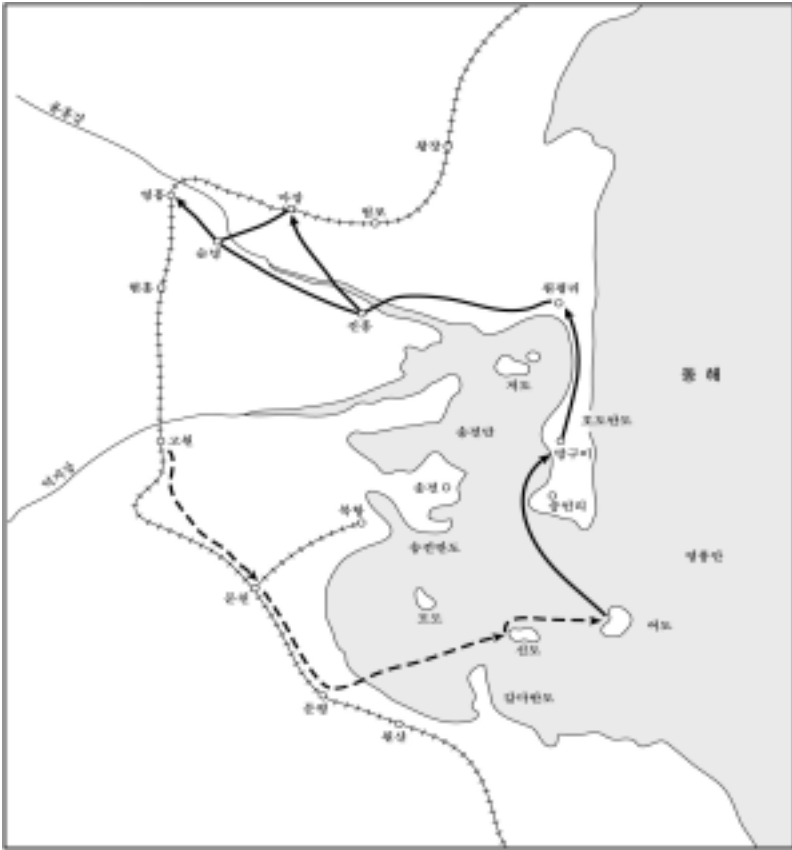
99) 신민, 『함북반공유격대』, 1981.3.11,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82; 신민, 『반공유격대전기』 1981.8.5,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81-10.

100) 이 지역에서 치안대 활동 사실은 북한신문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조선인민군』 1951.4.24).

101) 유격대를 여도에서 편성했다는 서술도 있으나(서원룡, 『군번없는 고원의 청년들』, 경운출판사, 1988, 20면), 여도까지 오기 전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미 육지에서 유격대가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02) 『고원반공유격대』, 북한연구소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함경남도편), 1990, 611-612면.

&lt;요도 2-2&gt; 유격대 활동지역도



에서 합류하여 일단 휴식을 하였다.

다음날 조병팔 대장은 70여 명의 비무장대원들을 순녕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80여 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12월 27일 새벽 순녕을 출발, 영흥 치안대장의 안내를 받아 영흥의 남산을 점령했다. 이에 당황한 적 50여 명이 즉각 남산으로 진격해 왔으나 대기하고 있던 유격대의 일제사격으로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용흥교를 통해서 도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열을 강화하여 얼마 후에 다시 반격해 옴으로써 마침내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화력은 전보다도 강렬하여 일진일퇴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순녕에 남아 있던 비무장대원들이 적의 기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대장은 하는 수 없이 생포한 8명의 적을 앞세우고 순녕 방면으로 철수하

였다. 이 때 순령을 기습했던 적이 본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듯 고지에서 일제사격을 가해 오자, 유격대는 적과 접전하면서 순령을 우회하여 방구미로 후퇴했다. 이 전투에서 박수련·송경구 등 대원 2명이 전사하고, 부관 김성원이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으며 생포한 포로도 전원 도주했다.

결국 영흥 탈환작전은 실패했다. 그 원인은 용흥교 복단에 잠복해 있으면서 다리를 통해서 도주하는 적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영흥대가 새벽 2시경, 순령을 출발하여 용흥교 복단으로 이동하던 중 공교롭게도 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과 조우했는데, 이들을 중공군 부대로 인식해 이를 피해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들이 지나간 다음 작전을 재개하려 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였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sup>103)</sup> 한편 순령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무장 대원 70여 명은 적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 곳을 재빨리 탈출하여 위기를 모면했으나, 이날 밤 순찰 당번이었던 일부 대원들이 행방불명되었다.

영흥 전투에서 실패한 고원유격대는 다시 여도로 집결하여 병력을 3개 중대로 재편해서 북한군의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1년 1월 16일 새벽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들은 북한 동해안 경비 독립대대 소속으로 16일 자정쯤 호도반도를 출발해서 여도의 후면으로 상륙한 다음, 약 50여 명의 적은 여도의 제1고지를 점령하고, 30여 명은 제2고지를 장악하여 일거에 유격대를 섬멸하고자 했다.

그러나 요소마다에 배치되어 있던 경계병들의 신속한 보고와 함께 대장 조병팔이 제1중대는 고지 정면으로, 제2중대는 측면, 제3중대는 해안과 부락을 수비하는 한편 적의 퇴로를 차단케 하는 등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적절한 대응작전을 펼쳤다. 이날 전투는 새벽 4시부터 영하 16도나 되는 칙흑 같은 추운 밤에 눈 속을 헤치면서 전투를 벌여 오전 8시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적병 43명을 사살하고, 41명을 생포<sup>104)</sup>하는 것 외에 기관총 6정, 소총 80여 정 등 다수의 무기 및 탄약을 노획했다. 하지만 유격대도 희생이 커서 변대선, 김여

103) 서원룡, 앞의 책, 27면.

104) 대원들 사이에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것을 고민했지만, 후방으로 인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북한군의 공격에 직면한 저주스런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서원룡, 앞의 책, 46-4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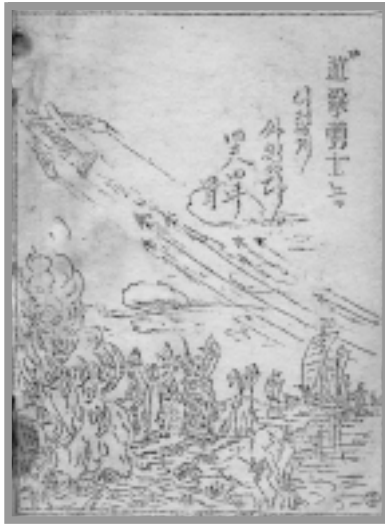
결, 배병두 등 14명의 대원이 전사했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패배를 당한 북한군이 곧 보복전을 가해 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으나 유격대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도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전력이 없어서, 적이 기습해 오기 전에 이 섬에서 철수키로 결심했다. 1951년 1월 17일 밤 유격대원 80명과 피난민 50여 명이 7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여도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남으로 철수 도중에 알섬과 주문진 등지에 상륙을 시도했으나, 육지에 북한군이 관측되는 등 상황이 불투명하여 포기하고 계속 남하하여 1월 19일 오후에 무사히 묵호항에 상륙했다.

묵호에서 고원유격대는 대원 전원이 동의해 국군 수도사단 유격연대 제3대대(일명 고원대)로 편성되었다(대대장 조병팔). 재편 후 묵호를 떠나 강릉방면으로 북상했다. 이곳에서 강릉 북쪽 30km 떨어진 아야진 부락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전초부대 1개 중대와 접전해서 북한군 20여 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북한군 패잔병의 공격을 받아 오대산 계곡에서 몇 차례 전투를 하면서 묵호로 귀환했다. 1951년 3월 8일 고원대의 50여 명이 유격연대에서 동 사단 제26연대 제3대대(대대장 이하영 소령)로 편입되면서 고원유격대는 해체되었다.<sup>105)</sup>

105) 서원룡, 앞의 책, 59-68면.

### 제 3 장 국군 유격대



이규학, 『추억』, 1953

# 제 3 장

## 국군 유격대

### 제 1 절 전쟁이전 유격대의 활동

#### 1. 좌익 빨치산 활동과 게릴라의 남파

해방 후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둘러싼 좌우의 갈등은 점차 폭력투쟁으로 변해 1946년 10월 대구사건, 1948년 4월 제주도 4·3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좌익세력들은 설자리를 잃으면서 무장투쟁을 더욱 강화했다. 전쟁 전 이들의 존재는 남한 사회의 불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박헌영이 전쟁을 일으키는 한 요소가 되었다.

제주도 4·3사건의 여파와 여·순 10·19사건을 계기로 좌익 빨치산들이 산으로 피신하여 ‘야산대’ 활동을 했다. 4·3사건은 1948년 7월 하순경에 이르러 거의 진압되었으나 일부 세력들이 한라산으로 입산해 저항을 계속했다. 여·순사건에 가담했던 좌익세력들도 지리산 지역으로 도피해 산악지대에 유격근거지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를 토벌하기 위해, 제주에는 제9연대와 제2연대가 교대로 투입된 후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광주에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입산한 좌익세력들에 대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었다.<sup>1)</sup> 1949년 1월 주한 미국대사 무쵸

(John Muccio)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군 내부에서 “비록 게릴라들의 활동이 아직도 남한 산악지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여·순사건의 진압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sup>2)</sup>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에서 지속적인 게릴라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의 붕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남침시 지원세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1949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뼈라 살포와 ‘인민공화국기’를 게양했다거나, 경상남도 일대에서 미군철수와 이승만 정권을 분쇄하기 위한 게릴라전이 격렬했다<sup>3)</sup>는 등 그들의 선전매체에서 남한의 게릴라활동을 고무했다. 북한측의 주장에 따르면 게릴라의 규모는 1949년 4월 16,257명, 8월 44,256명, 9월 77,256명, 10월 89,924명 등이었다고 선전했다.<sup>4)</sup>

북한측은 남한지역에서 좌익세력을 지원하고 조직적으로 후방 교란을 위하여 1947년 가을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했다. 강동정치학원은 남한에서 월북한 여성을 포함한 좌익청년들을 입학시켜 군사단기반과 정치반을 운용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격·지형학·폭파·‘모택동의 항일유격전술’ 등을 교육시킨 후 주로 동해안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남으로 침투시켰다.<sup>5)</sup>

북한측이 전쟁 전까지 남파시킨 게릴라의 규모는 총 10차에 걸쳐 약 2,400명이었다. 북한측은 여·순 10·19사건 이후 국군 주력이 호남지구로 집중되어 38도선의 경비가 약화된 틈을 타, 1948년 11월 14일 제1차로 강동정치학원 출신 게릴라 180명을 양양~오대산 지구로 침투시켰다. 그들은 오대산을 타고 태기산 부근까지 남하했으나 아군에 포착되어 격퇴되었다.<sup>6)</sup>

1)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206-214면.

2) FRUS 1949, Vol. VII, pp. 947-952,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945-50』, 국방군사연구소, 1999, 177면에서 재인용.

3) 『치열화하는 남반부인민항쟁』, 『함남인민보』, 1949. 4. 9; 『경기도 전역에 구국투쟁활발』, 『함남인민보』, 1949. 4. 10; 『전남인민무장대 전투치열』, 『함남인민보』, 1949. 5. 1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630-631면.

4)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4, 244-247면; “Seoul to Secretary of State”, May 8, 1950,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20, 1995, p. 15.

5) 육본 정보국, 『인민군특보』, 34면;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 1998, 58면, 72-73면, 77면; “G-2 Period Report No. 234”, Dec. 22, 1949,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2,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136.

제2차부터는 북한의 남침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북한정권 수립 직후부터 구상한 ‘국토완정론’을 1949년 들어서자 크게 강조하면서 소련을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크레믈린에서 스탈린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남측내의 강력한 유격대 운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친미 정권을 경멸하는 남쪽 주민들도 분명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sup>7)</sup> 강조했다. 8월 12일에도 김일성과 박헌영은 슈티코프에게 “공격이 개시되면 틀림없이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대규모 인민봉기가 남반부에서 분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득했다.<sup>8)</sup>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은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국군이 북한으로 귀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어서, 중국인민이 미국을 몰아내듯이 조선에서도 그들을 쫓아 낼 것”이라고<sup>9)</sup> 강조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남침 의도에 대해, 9월 11일 스탈린은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에게 남한 군대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 외에 남한내 게릴라의 현황과 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주재 소련공사 툰킨은 김일성과 박헌영에 의하면, 그들이 남한 내에 약 1,500~2,000명의 게릴라들이 있고, 특히 박헌영은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을 보고했다.<sup>10)</sup> 또한 9월 15일자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스탈린에게 보낸 남북한 정치 경제 정세에 관한 보고서에서, “남한 내에 남조선로동당은 1948년 기준으로 90만 명의 당원이 24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좌익단체

- 
- 6)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44-45면. 남파된 유격대의 규모가 1,600여 명이라는 기술도 있다(유재홍,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1994, 106-107면).
- 7) 『민주조선』, 1948. 9. 21; 『조선인민은 미국군대의 동시철거를 요구한다』, 같은 신문 1948년 9월 22일자 사설; 일성 등 북한대표단과 스탈린의 대화』, 1949. 3. 7,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27면;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출판, 1996, 87면.
- 8) 『김일성·박헌영과 슈티코프의 대화 비망록』, 1949. 8. 12,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23면.
- 9) 『조선인민대표단 박정애의 연설』, 『동북조선인민보』 1949. 10. 6.
- 10) 『툰킨 일기』, 1949. 8. 27,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특별연구반, 『소련외무성문서』, 11면; 『스탈린이 평양주재 소련 대사 대리에게』, 1949. 9. 11; 『툰킨이 크레믈린 당국에게』, 1949. 9. 14,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29-31면.

들은 여전히 특정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남한에는 아직 2,000명의 유격대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1949년 기간 중 2,000회 이상의 작전을 감행했고, 주민들은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군부대와 경찰의 배치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격대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유격대활동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전투를 지도할 경험 있는 기간 요원이 부족하고 무기와 탄약이 극도로 부족함으로, 우호세력들이 남한내 유격대 운동에 대한 제반지지 및 그 지도력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당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sup>11)</sup>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소련 외무부장관 그로미코와 국방부장관 불가닌이 작성한 정치국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서 “남한에서 인민들이 반동정권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견해에 동의하나, 남한내 유격대 운동이 충분하게 전개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게릴라 활동이 남한정권을 와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sup>12)</sup>

소련측의 평가를 전달받은 김일성과 박헌영은 슈티코프에게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명을 파견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박헌영은 남한내 유격대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up>13)</sup> 이처럼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침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남한에서 좌익빨치산 활동을 지원했다.

1949년 6월 1일 북한은 약 400명의 게릴라를 오대산지구로 침투시켰다. 이 때 게릴라들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육본 정보국장 백선엽·제8연대장 김형일 등의 ‘요인암살 지령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14)</sup> 특히 8월부터 11월까지 연이은 게릴라의 남파는<sup>15)</sup> 남·북 로동당 합당과 미군 철수 직후 시기인 1949년

11) 『남북한 정세에 대한 대사관 분석 보고』, 1949. 9. 15,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34-35면, 38-39면.

12) 『전 연방 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의안 초안 및 결의』, 1949. 9. 23-24,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41-42면; 와다 하루키(서동만·남기정역), 『북조선』, 돌베개, 2002, 95면.

13)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 10. 4,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앞의 책, 44면.

14) 김인철, 『38선에서 휴전선까지』, 보문당, 1992, 94면.

15) 제3차(7월 6일, 200명); 제4차(1949년 8월 4일-11일, 김달삼부대 300명); 제5차(1949년 8월 12일,

7월초 ‘인민유격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중앙당 14호실(대남유격사업 지도부) 예하에 3개 병단으로 편성한 후 그 활동을 강화시킨 결과였다. 제1병단(이호제 부대 또는 1군단)은 강동정치학원생 360여 명으로 오대산지구에, 제2병단(이현상 총사령관)은 4개 연대로 지리산지구에, 제3병단(총사령관 김달삼, 부사령관 남도부)은 300여 명으로 태백산지구에 각각 침투시켰다.<sup>16)</sup>

그 후로도 북한측은 게릴라를 남파했다. 1950년 3월 하순 김상호 부대와 김무현 부대 약 700명은 빨치산 제1군단 부대(사령 이호제, 부사령 김달삼)가 붕괴되기 전에 이 부대의 월북을 지원하며 남한공비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했다.<sup>17)</sup>

여기에 남조선로동당이 호응하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덕유산, 지리산, 보현산, 태백산, 일월산, 소백산 등지에서 빨치산들은 파출소·면사무소·전화국·열차 및 철도역·곡물창고·마을 등의 습격, 전화선과 철로 절단·전봇대와 교량 파괴, 민간인 납치 등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1949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경기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 지역에서 빨치산들은 민간인 173명을 납치했고,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전라남도·강원도 등지에서 176명을 납치했다.<sup>18)</sup>

육본 정보국의 전투정보과의 선임장교였던 유양수는 1949년에 접어들어 공비 침투가 급증하여 업무가 폭주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영근 중위는 전투정보과에서 게릴라들이 나타나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작전국에 통보했다

선발대 15명); 제6차(1949년 8월 12일, 40명); 제7차(1949년 9월 20일, 이호제부대, 360명); 제8차(1949년 9월 28일, 50명); 제9차(1949년 11월 6일, 100명) 등(『공비연혁』, 227-247면).

16)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10, 2003, 443면.

17) 『자유신문』, 1950. 4. 4; 『한성일보』, 1950. 4. 28, 『자료 대한민국사』, 군사편찬위원회; 육본 정보국, 『인민군특보』, 31-34면; 보병 제8사단, 『오뚜기 약사』 1, 1969, 98-101면. 그 이후에도 유격대를 남파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전쟁직전 6월 15일, 15명의 유격대원이 남파되었다는 진술도 있다. 이들이 남침준비를 위해 군사기밀의 탐지를 목적으로 한 첩보대적 성격이었을 수도 있다(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2, 240-243면).

18) “G-2 Period Report No. 162”, Aug. 9, 1949,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79; “G-2 Period Report No. 164”, Aug. 12, 1949, 같은 책, p. 95; “G-2 Period Report No. 170”, Aug. 25, 1949, 같은 책, p. 139; “G-2 Period Report No. 172”, Aug. 29, 1949, 같은 책, p. 153.

고 한다.<sup>19)</sup> 이들의 규모는 군·경찰·군사고문단 G2의 정보를 종합하면, 1949년 9월 3,000~3,200명으로 추산되었다. 그 중에서 2,000명이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분석했다.<sup>20)</sup>

## 2. 호림(虎林)부대

### 가. 창설배경과 편성

여·순 10·19사건 이후 좌익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게릴라를 파견하자 치안이 불안했다. 1949년 2월 신성모 내무부 장관은 북한 무장대의 침입은 게릴라 활동이 아니라 남북간의 본격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국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sup>21)</sup>

1949년 봄 백선엽 육군본부 정보국장은 이범석 국방장관과 함께 전국의 치안상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향 각지에서 치안이 안 돼 국민들이 살 수 없다고 해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어찌 하느냐. 단호히 치안 확보에 주력하라”고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sup>22)</sup>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활동과 북한군이 수 백 명씩 남하하는 침략행위 등을 예시하면서 총과 탄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탱크와 군함, 기관총 등이 있다면 남한을 방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을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sup>23)</sup>

정규군을 동원하여 좌익 빨치산을 토벌했다. 1948년 10월 30일 호남지구전투

19) 조갑제,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102면.

20) 『대사가 국무부에게』, 1950. 4. 15, Records of the U.S. Depar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0-54, Depart of State Decimal Files 795, 895, and 995, NA.

21) 『조선일보』, 1949. 2. 4, 양영조, 앞의 책, 179면에서 재인용.

22)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지구촌, 1999, 360면.

23)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Nov. 29, 194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8, 1996, pp. 495-496.



사령부(사령관: 준장 송호성)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3월 1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준장 정일권)와 같은 달 2일 제주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대령 유재홍), 9월 28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준장 원용덕)가 설치되어 일부는 1950년 3월 중순까지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이 때 서북청년단원들이 ‘특별토벌대’를 편성해 군·경의 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정규군으로 편입되었다. 국군 4개 사단과 경찰 병력 일부가 후방지역에 분산 주둔함으로써, 38선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는 형편이었다.<sup>24)</sup> 또한 제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8사단 등도 주둔지에서 게릴라를 토벌했다.

남한정부가 계속해서 진압작전을 전개하자, 좌익빨치산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194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군은 좌익게릴라에 대해 평균 3일에 한번씩 공격하여 총 542회의 토벌작전을 전개했다.<sup>25)</sup> 1949년 7월 한 달 동안, 제5사단의 경우 게릴라 263명을 사살하고 50명을 생포했다.<sup>26)</sup> 남파게릴라의 포로 진술에 의하면, 1949년 10월 1일 강동정치학원 출신의 게릴라대원 200명이 오대산지역으로 파견되었는데,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는 대부분 타격을 입고 3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sup>27)</sup>

국군의 강력한 토벌작전의 결과, 1950년 3월 말 좌익 빨치산의 규모는 367~400명으로 감소되었다. 북한주재 소련대사도 좌익 빨치산들이 로동당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가 약화되어 공세적이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평가했다.<sup>28)</sup> 이 무렵 좌익 빨치산들은 가난한 농가에 와서 양곡이나 금전 등을 강요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그들을 강도단처럼 여겨 점차 고립되었다.<sup>29)</sup>

24) 『대비정규전사』, 1945-60, 146-147면; 안만옥, 『형제』, 행림출판, 1994, 26-27면.

25) “Gue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53”, p. 8.

26) “G-2 Period Report No. 160”, Aug. 5, 1949,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61.

27) “G-2 Period Report No. 198”, Oct. 7, 1949,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1, p. 397.

28) 『대사가 국무부에게』, 1950. 4. 15, Records of the U.S. Depar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0-54, Depart of State Decimal files 795, 895, and 995; 『스픽코프 대사가 그로미코 외상에게 보내는 ‘전시조선 정치상황’』, 1950. 7. 18,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특별연구반, 『소련외무성문서』, 93면;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638면.

29) 『제주도 유격대의 최근의 상태』, 하기와라 료(최태순역), 『한국전쟁』, 한국논단, 1995, 269-270면.

한편 국군 당국은 게릴라를 토벌하고 북한으로 파견하여 유격전을 벌이기 위해 특수부대를 새로 창설했다. 1948년 11월 25일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 제1여단사령부 내에 육군 수색학교가 만들어졌고, 1948년 12월 31일 각 여단에 유격대대가 편성되었다. 1949년 8월 5일 육군 보국대대(報國大隊)가 설치되었다. 이어 1949년 2월 호림부대가 창설되었다.<sup>30)</sup> 호림부대를 제외한 다른 부대는 대북작전을 의도하기도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주로 좌익 빨치산의 토벌을 위한 특수임무부대였다.

육군수색학교는 제1연대에서 1개 중대, 제13연대에서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창설했다. 처음 창설할 때는 북한으로 파견하여 유격전을 전개시키려고, 대원들은 수원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다. 초대 교장은 제8연대 제2대대 부관 겸 작전교육장교 출신의 김용주 소령이었다.<sup>31)</sup>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수색학교로 하여금 1949년 1월 31일까지 경남 산청으로 이동하여 제5여단장의 통제아래 좌익빨치산 토벌작전에 합류하도록 했다. 이때 ‘서울유격대’라고 불렀다.<sup>32)</sup> 1949년 5월 9일 지리산 토벌작전을 마친 ‘서울유격대’는 수원으로 이동하여 토벌작전에서 희생된 이석호 등 17명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지낸 후, 6월 4일 웅진지구로 출동했다.<sup>33)</sup> 이 무렵 ‘38부대’라고 호칭했다. 웅진에서 130명이 출동하여 국사봉전투에 참가했으나, 북한군에 포위되어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30여 명만이 귀환했다. 6월 20일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되자 여기에 편입되었다가<sup>34)</sup> 7월 15일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을 하고 있던 제5사단에 편입되어 독립 제1대대가 되었다. 주둔지를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여

30)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한국전쟁사』 1, 334-335면.

31) 『연합신문』, 1949. 6. 3, 『자료 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공적조사서: 조재미』, 1953. 12. 19, 전사편찬위원회, 『6·25 당시 무공훈장 수상자』 II; 조재미(예, 준장) 증언, 2003. 3. 11. 제2대 대대장 조재미 대령(전북 고창)은 공비토벌을 통해 많은 전과가 있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그만두었다.

32) 『육본 작명 갑 제22호』, 1949. 1.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5, 2002, 23면; 강성희(예, 대령), 『서울 유격대 창설』, 1966. 3. 8, 전사편찬위원회;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10.

33) 『연합신문』, 1949. 6. 3, 『자료 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

34) 이 때 독립보병제1대대로 개칭했다(『국방부 일반명령 제17호』, 1949. 6. 1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5, 2002, 17면.

병력을 보충하여 훈련을 받고, 다시 진주로 이동해 공비토벌에 참가했다. 그 후 전쟁 직전 1950년 6월 15일 제5사단에서 해편되어 제3사단으로 편입되었다. 이 때 지휘관은 김종순 중령이었다.<sup>35)</sup>

각 여단의 유격대대는 여단의 편제에서 유격대대의 명칭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게릴라를 토벌하기 위해 정규 대대를 일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던 제3여단 소속인 제5연대 제3대대 예하에 지리산지구 유격대(대장: 육군 소령 임익순)가 있었다. 1949년 1월 이들은 지리산 지구에서 게릴라를 토벌하기 위해 이중한 대위의 지휘 아래 유격대를 편성해서 5개 월간 작전을 하고 5월 9일 개설했다.<sup>36)</sup> 제6여단 유격대대는 1949년 2월 5일 까지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도의 잔여 빨치산을 토벌했다.<sup>37)</sup>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부터 창설하기 시작한 호국군은 정규군의 전투강화를 사명으로 하되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로 구분하여 편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특수부대는 편성되지도 않는 채, 1949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었다.<sup>38)</sup>

1949년 7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월남 귀순장병 환영대회’가 개최되었고, 9월 24일에는 육군본부에서 귀순 장병 30명을 국군으로 편입시키는 기념식을 가졌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귀순 장병(‘월남 공산군’)들이 전국을 순회하여 선전하면 38선 이북 북한군의 귀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남한민심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5일자로 첩보과 직속부대로 보국대대를 창설했다.<sup>39)</sup> 제

35) 『김용주 장교고과표』,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451; 강성희(예, 대령), 『서울 유격대 창설』 1966. 3. 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334면; 『한국전쟁사』 3, 68면; 공국진, 앞의 책, 100면; 백선엽 장군 증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실, 2003. 3. 12; 박종병(예, 대령), 증언, 2003. 11. 11; 허균(당시 소대장) 증언, 2003. 11. 14.

36) 『민주중보』, 1949. 5. 10;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한국전쟁사』 1, 334면;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349면;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178면.

37) 『육본 작명 갑 제22호』, 1949. 1.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자료집』 5, 2002, 23면; 공국진, 앞의 책, 53면.

38) 남정욱,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166-169면.

39) 『육본일반명령 제34호』, 1949. 8. 8, 『일반명령철』, 군편사료 629;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박창암(예, 준장) 증언록: 보국대대의 활동, 1977. 4. 6, 군사편찬연구소; 육본 군사연구실, 『이종훈 증언』 1980. 7. 30. 이 때 팔로군 출신 김성록 중위의 조

803부대 혹은 제803독립대대로 일컬어진 이 부대는 북한군·정치보위부·내무서원·팔로군·38경비대의 귀순장병과 월남민 등 약 600명으로<sup>40)</sup> 편성되었다. 귀순 장교 가운데, 안병식을 부대장으로 하고 심상국·차동준을 대위로 임관시켰다. 부대 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 경남염색공장 자리였다.<sup>41)</sup>

대원들은 우이동에서 유격대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창설 당시 부대는 거의 포로수용소 수준으로 군복만 입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문 정보국장이 방원철<sup>42)</sup>을 부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원들이 대구 경북 중학교에서 전국순회 강연을 시작했으나, 부대장 방원철은 이들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기를 원했다. 1950년 1~2월 경 보국대대는 대구에 있던 보병 제3사단에 편입되어 별동대로 영남지구 토벌과 대민심리전을 전개했다. 장교 52명, 사병 400여 명 규모로 청도·밀양지구에 파견했다.

토벌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후, 본부를 서울에 두고 북한이 남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전방으로 배치되었다. 심상국 대위가 지휘하는 1개 중대는 제6사단에, 박창암 중위가 지휘하는 중대는 제7사단에 파견되었다. 제7사단에 배치된 1개 중대 병력에 못 미치는 약 75명으로 6월 25일 저녁에 장암리에 있는 북한군 규모를 확인하기 수색정찰을 나갈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남침하자 바로 전투에 투입되었다.<sup>43)</sup>

따라서 전쟁 이전 국군이 창설한 본격적인 유격부대는 호림부대이다. 이러한 특수부대의 창설은 당시 북한이 남로당 출신으로 조직된 대남계탈라를 남파하는 전략에 대응하여, 남한도 서북 출신들로 하여금 대북 유격군을 편성하여 북한 후방을 정치공작과 유격전으로 교란시키기 위해 이범석 국방부 장관의 발의로

언이 있었다.

40) 450명이라는 진술도 있다(『방원철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술자료총서』 2004년 발간 예정).

41) “G-2 Period Report No. 187”, Sep. 26, 1949,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p. 289-291.

42) 그는 1949년 12월 9일, 육군 예비역 소령으로 임관했다(국본특별명령(육) 제357호, 1949. 12. 9).

43) 방원철(예, 대령), 『보국대대편성』, 1967. 7. 14, 전사편찬위원회; 박창암(예, 준장) 증언록: 보국대대의 활동, 1977. 4. 6, 군사편찬연구소; 『방원철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술자료총서』 2004년 발간 예정.

이루어졌다.<sup>44)</sup>

호림부대는 반공청년단체, 특히 서북청년회의 반공활동의 산물이다. 이미 서북청년회에서는 이범석 국방부장관에게 국군도 북한의 게릴라 남파에 대응하여 강동정치학원과 맞먹는 비밀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수차 건의했다.<sup>45)</sup> 1947년 7월 서북청년회 강원도 횡성지부 위원장 박만하와 기린지부 위원장 박동학이 힘을 합해 영동지부에 계림공작대를 조직했다. 대원들은 백의곤의 지휘아래 대북첩보 수집활동, 북한내 지하조직 구축 등을 수행했다. 정부수립 후, 계림공작대는 국방부 제4국<sup>46)</sup>과 연계된 ‘동해특별유격대’로서 동부지역에서 대북 첩보활동을 전개했다. 1949년 2월 25일<sup>47)</sup> 국방부 제4국이 해체된 후<sup>48)</sup> 육본 정보국의 지원을 받아 호림부대로 확대 개편되었다.<sup>49)</sup>

대원의 규모는 불분명하다. 2월 26일 거제도과 경북 일대로 좌익빨치산을 토

44) “Presen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Feb. 12, 194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9, 1996, p. 36.

45) 문봉제, 『호림부대와 나』, 『호림부대전사』, 2000, 16면.

46) 국방부 제2국 소속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동아일보』 1949. 5. 26).

47) 29일이라는 기술도 있다(『호림결사대』, 『조선일보』, 1968. 9. 4; 『호림용사 유족은 어디에』, 『한국일보』, 1972. 1. 21).

48) 1949년 1월 18일 해주에서 일어났던 반공청년 의거사건은 제4국과 연계되어 있었다. 당시 해주지역에서는 청사회, 교원들이 중심이 된 신우회, 정의추격대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1948년 10월 남으로부터 받은 지령은 해주형무소를 파괴하고, 노동당 황해도당 당사와 도 인민위원회 청사에 불을 질러 반공애국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미리 발각되어 14명이 체포되어 김진영·이춘식 등 4명에게는 사형, 이창근·권석준 등 10명에게 15년 내지 18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군정 G-2에서도 남한의 CIC가 개입한 것으로 여겼다. 1월 24일, 평양방송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범석 총리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49년 3월 21일 개각에서 이범석 국방장관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공작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천영환, 『열편 방송과는 달리 해주는 고요-해주 ‘정의추격대’ 사건』, 한국통일추진회편, 『북한반공투쟁사』, 1970, 150-153면; 이범석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88-89면; “G-2 Periodic Report”, Jan. 22, 1949, 『주한미군정보일지』 7, pp. 174-175; “G-2 Periodic Report”, Jan. 24, 1949, 같은 책, 179-180면; “G-2 Periodic Report”, Jan. 26, 1949, 같은 책, 188면; “G-2 Periodic Report”, March 21, 1949, 같은 책, p. 394).

49)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1989, 1220-1221면. 호림부대의 ‘호림’은 맹호출림(猛虎出林)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호림부대전사』, 16면). 그런데 호림부대의 창설시기는 1949년 6월초 수색학교에 입교하여 훈련 후 명명되었다는 기술도 있다(호림유격부대제5·6대대동지회, 『호림유격부대 제5, 6대대 혈전기』, 1970. 7. 2면).

별하러 나갈 때 557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367명이라는 기록도 있다.<sup>50)</sup> 총지휘관은 정보국 특무과장 육군 소령 한왕룡이었고, 부대장은 강중철이었다. 제5대 대장에 백익곤 대위, 제6대대장에 김현주 대위가 임명되었다. 당시 제5대대와 6대대로 칭한 것은 북한군에게 대부대로 오인시키기 위해 위장한 것이었다. 대대는 본부와 3개 중대로,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1개 소대는 12명<sup>51)</sup> 등으로 편성되었다. 제5대대와 제6대대의 병력은 각각 120명씩 편성되었다.<sup>52)</sup>

그 외에 2대대와 3대대가 편성되었다. 제2대대는 대대장 한지룡 아래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총 병력이 112명이었다. 1949년 7월 하순 대원 70명이 황해도 장연군 몽금포 남쪽에 있는 월내도를 기습하여 선전전단을 살포하고 공산당원 5명을 생포하여 백령도로 귀환했다.<sup>53)</sup> 1949년 7월 중순 제3대대는 제5~6대대의 진압을 위해 동원된 북한군에 대항하기 위해 제5, 6대대와 연계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철수했다고 한다.<sup>54)</sup>

호림부대는 창설된 직후 훈련을 받을 겨를도 없이, 1949년 3월 초순경부터 경북일대의 좌익빨치산과 거제도의 공산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어 5월 하순까지 토벌활동을 했다.<sup>55)</sup> 5월 25일 대원들은 서울에 개선하여 중앙청 앞 광장에서 이범석 국무총리·사회부·법무부·농림부 등 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을 받았다. 경북 도민은 도내 안정을 위해 이 부대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는 진

50) 『동아일보』, 1949. 5. 26; 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호림결사대』, 『조선일보』, 1968. 9. 4; 『호림부대 전사』, 59면.

51) 1개 소대 규모가 16명, 1개 중대는 51명이라는 기술도 있다.

52) 『호림부대전사』, 64면. 그러나 대원의 규모에 대해 이견이 많다. 제5대대는 180명, 6대대는 136명이라는 진술도 있고, 제6대대의 규모가 86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5-6대대를 합친 대원이 모두 240명이었다는 진술도 있다(『호림결사대』, 『조선일보』, 1968. 9. 4; 『20년만에 찾은 전공』, 『동아일보』, 1970. 7. 26; 이홍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53) 대원 규모가 100여 명이었고, 간부진으로 부관 이병하, 제1중대장 김동식, 제2중대장 김철이라고 한다(『호림부대전사』, 70-71면, 137면). 그러나 제1중대장이 박철동, 제2중대장은 이종운이었고, 작전시기도 9월 하순이라는 진술도 있다. 한 대원은 공산당원의 처치, 연락선에 대한 총격 등 한지룡 대대장의 독단적인 지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병준, 『6·25전투록』, 1995,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54) 『호림부대전사』, 70-71면. 그 후 한지룡은 결사유격대 특별연대를 지휘했다.

55) 『조선일보』, 1949. 4. 26, 27.

정서를 대표 3인이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sup>56)</sup>

귀경 후, 전원이 수색학교에 입교하여 6월 14일까지 2주 동안<sup>57)</sup> 일본군이 사용하던 일제 99식 소총·수류탄·TNT 등으로 훈련을 받았다. 제2~3대대는 시흥(미군 탄약고 터)에서 훈련했으므로 ‘시흥학원’으로도 불렸다. 유격전 교육은 육본 정보국 김형일 중령이 담당하고, 일반 군사훈련은 육본 정보국에서 파견된 이희성 소위, 강신탭 소위와 이미 수색학교(수원)를 수료한 예비역 장교들에 의하여 제식훈련·각개 전투 등의 기초훈련을 실시했다.<sup>58)</sup>

## 나. 작전 활동

1949년 1월 27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쉬띠코프는 크레믈린 당국에게 “최근 남한 정보당국은 테러리스트 집단의 파북을 증가시켰다. 총 80명이 체포되었고, 해주에서 폭발물 5상자·액체 폭약 6병·가솔린 1통을 갖고 있던 14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체포되었다. 그들은 창고와 학교를 불태우고 지역 지도자들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받고 있었다”고<sup>59)</sup>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내무서원 등 보안기관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sup>60)</sup>

전쟁 전 대북작전은 일시적인 반격작전을 제외하고, 호림부대의 작전이 처음이었다. 1949년 5월 국군 제8연대 제1대대(표무원 소령)와 제2대대(강태무 소령)의 집단 월북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6사단 제1연대가 사단장에게 알

56) 『동아일보』, 1949. 5. 13, 26.

57) 이홍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유관중, 『호림부대투쟁사』, 전사편찬위원회사료 176; 『호림부대전사』, 63면. 훈련기간이 1개 월간 혹은 5개 월간이었다는 회고도 있다(『호림용사 유족은 어디에』, 『한국일보』, 1972. 1. 21; 한경선, 『호림이여, 영원하라!』, 육본, 『6·25 참전 수기』 2, 1998, 157면).

58) 강신탭 증언, 2003. 3. 5; 황휘성 증언, 2003. 10. 25.

59) 『슈티코프가 외무부에게 보낸 전문』, 1949. 1. 27, 47-49면,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11-12면.

60) “Seoul to Secretary of State”, May 8, 1950,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20, 1995, p. 28. 1949년 중반기, 이기봉 서울시장 아래에 있던 이중출 공보실장이 월남인을 이용해 이북으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성사는 되지 못했다고 한다(『예비역 대령 방원철 증언』, 1967. 7. 14,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101).

리지도 않고 1개 소대병력을 동원해 북한군 후방까지 침투하여 북한군 다수를 살상했으나 아군 3명도 전사하는 사건이 있었다.<sup>61)</sup> 7월 4일에도 제6사단 10연대 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육군본부나 미 고문단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게릴라 남파를 봉쇄하기 위해 제1대대(대대장 소령 고백규)를 출동시켜 양양에 있는 ‘인민유격대 재훈련소’와 기타 시설을 파괴한 ‘양양돌입사건’이 있었다.<sup>62)</sup> 또한 1950년 3월 25일 해군 첩보대원 14명이 월내도를 기습한 적이 있다. 이 작전에서 유격대장 김일호·제1조장 황기수·제2조장 이종원 등이 모두 전사했다.<sup>63)</sup>

호림부대원들은 거제도 좌익빨치산 토벌에 참가하여 경험을 쌓은 후 1949년 6월 23일 수색학교를 떠나 북한으로 침투하기 전 채병덕 총참모장의 훈시를 들었다고 한다.<sup>64)</sup> 침투 목적은 설악산을 거점으로 동부 산악지대를 북상하여 적의 경계가 약한 읍·면의 행정기관 기습, 교량 및 주요 도로 파괴, 창고 방화, 정당 사회단체의 간부 암살에 의한 민심교란, 군사기밀 탐지 등이었다.<sup>65)</sup>

제5, 6대대는<sup>66)</sup> 6월 27일 양양군 서림(西林)에 도착한 후 행군으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이동한 후 적정 파악을 위해 이틀간 주둔했다. 가랑비가 내리면서 짙은 안개가 내린 6월 29일, 북한군 복장으로 99식 장총과 수류탄, TNT로 무장한 채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제5대대가 선봉이 되어 38선을 돌파하여 태백산맥의

61) 『김중오 장군 증언』, 1965. 3. 4-6, 전사편찬위원회, 3-7면.

62)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이원복, 『타이거 장군 송요찬』, 육군교육사령부, 1996, 128-133면.

63) 『해군 14인용사 총흔비』, 백령도; 구운서(해군 특수임무수행 사관단)·이성기(예, 대위) 증언, 2003. 10. 20. 총흔비는 전쟁중 일부가 파괴되어 대원 7명의 이름만 남아 있다.

64) 백선엽 장군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실, 2003. 11. 19. 제6대대는 6월 16일 강원도 횡성으로 이동하여 현역 수명과 여·순 10·19사건시 토벌작전의 경험이 있는 경찰관 출신 대원으로 부대를 재편한 후 양양군 서림에서 제5대대와 합류했다고 한다(이홍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65) 이홍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66) 제5, 6대대의 작전활동은 『국군최초의 북파유격대 호림부대』(육본, 『전사연구』 12-소부대전례, 1981), 『호림부대』(특수전사령부, 『특수전사례집』, 1986), 『호림부대전사』를 주로 참고했다. 그런데 군에서 정리한 내용과 전우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은 최근에 발간된 『호림부대전사』를 따랐다.



## &lt;요도 3-1&gt; 작전 경로



점봉산을 넘고 박달령을 거쳐 양양지구 오색촌으로 침투했다. 계속 북상하여 설악산 대청봉 1708고지로부터 동북쪽 6km 지점에 위치한 봉정암에 집결했다. 이곳으로부터 제5대대는 영동지구로 진출하고, 제6대대는 영서 중부 고원지구로 북상하여 7월말에는 양덕 맹산지구에서 합류할 계획이었다.<sup>67)</sup>

제5대대는 7월 2일 목적지인 설악산 북쪽 2km 떨어진 화채봉으로 이동하여 최초의 근거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북한 보안대원이 남한에서 국군이 설악산으로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요소 요소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현지 첩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화채봉을 떠나 상북리로 이동했다. 상북리에서 대대는 그 동안 주민들에게 박해를 가해온 상북리 노동당 위원장과 당원 한 명을 처치했다. 7월 8일 새벽에 대대가 상북 2구의 피골이란 마을을 통과할 때, 보안대원 6명이 마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입수하여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했다.

67) 『호림부대전사』, 129면. 당시 국방부에서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북한정권에 반대하는 무장결기가 있다고 발표했다.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남한에서 보낸 일은 없고 북한의 인민군·보안대 자체의 모순에 의지하여 애국적 청년들이 자주적 정의감에 불타 공산세력을 박멸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무력항쟁할 운동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터인데 아마 이번 의거사건은 그것의 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자유신문』, 1949. 8. 14). 출동 당시, 육군 정보국은 대원들이 북한으로 침투한 후에 민간반공단체의 의거로 취급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약 1개 소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추격을 받았다.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대원들이 반격하여 6명을 사살하자, 나머지 적들은 퇴각했다. 대대는 적의 재차 공격을 예상하고 근거지 이동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령(嶺)을 향해 이동했다. 이튿날 낮 대대 주력이 큰령 마루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안 대원 3명을 생포하고 마을을 기습하여 식량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적 소대 병력이 후속하고 있어서, 대대는 산 위의 유리한 지형으로부터 사격을 가해 적을 물리쳤다. 대원들은 마을로 진입하여 식량을 구한 후 마산(馬山)으로 이동했다. 7월 12일 마산 근처의 산에서 숙영을 하고 있을 때, 적 1개소대 규모의 병력이 추격해 왔다. 대대는 유리한 지형에 위치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다. 2시간의 교전 끝에 8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장총 6정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대장은 퇴각한 적이 재차 공격을 위해 많은 인원을 동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중에 고립될 것을 우려하여 즉각 향로봉으로 이동했다. 행군 도중 대대는 인제에서 간성에 이르는 도로상에 교량 2개소를 폭파하고 7~8명의 병력을 태운 목탄 트럭을 기습하여 차량을 파괴하고 병력을 모두 사살하기도 했다. 대대는 향로봉을 거쳐 7월 15일 삼치령(三峙嶺)으로 진출했다.

이 때 적은 유격대가 향로봉~금강산 선으로 침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강(南江)-삼치령-노루메기-대방골을 연하는 선을 봉쇄하고 있었다. 대대는 삼치령 마루턱 약 100미터 지점에서 적의 봉쇄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백의곤 대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작전을 간부들과 숙의하고 있을 때 계곡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대대장은 이 때를 이용하여 적의 봉쇄선을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적진 30미터 지점까지 접근시킨 다음 일제 사격을 가하며 적진으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대는 적 48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장총 38정·다발총 6정·경기관총 2정·수십 발의 수류탄과 수천 발의 실탄·식량 등을 노획했으나, 임석순·김정덕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을 입었다.

적의 봉쇄선을 돌파한 대대는 금강산을 따라 북상하여 7월 16일 내금강의 국사봉에 도달하여 삼각고지를 점령한 후 병력을 배치했다. 이날 19시 30분경 대대를 추격해 온 북한군이 삼각고지를 동남북으로 포위하여 공격해 왔다. 국사봉 부근에서<sup>68)</sup> 적에게 포위를 당해 대대장 이하 많은 대원이 희생되었다. 탈출에

성공한 대원들은 각자 분산된 상태에서 남쪽을 향해서 남하했다. 이들 중 많은 대원들이 적의 차단선에서 체포당하고 일부는 화전민들의 도움을 받아 적의 경계선을 뚫고 원대로 복귀했으나 생환 대원의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이 작전에서 김종호·추병한 등 현지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현지주민을 통해서 지형의 안내는 물론 인민위원회의 동태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식량을 조달받았다. 이러한 협조를 했던 상복리 주민 가운데 김영옥·김몽수 등은 남한으로 탈출했으나, 김종우·조만순·양영길 등은 강현면 내무서원에 의해 체포되어 원산감옥으로 이관되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문과 혹독한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는 처형당했다고 한다.<sup>69)</sup>

한편 제6대대는 7월 2일 백담사를 수색하여 인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태규를 체포하여 인제지역의 정보를 수집한 후 용대리 인민위원회와 내무분주소 습격을 계획했다.

7월 4일 용대리(龍垔里) 내무서 분주소를 습격하여 내무서원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다. 이어 소비조합과 농민창고를 습격, 식량과 각종 필수품 등을 노획했다. 1차 기습작전에서 성공한 대대는 우선 용대리 뒷산으로 철수하여 간성과 인제 방면에 대한 경계를 했다. 이때 민간인으로 가장한 적 척후병 6명을 생포했다.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이 추격중이라는 것이다. 16시 경 인제 방면에서 약 2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이 대대 진지를 향해 서북방으로부터 공격해 왔다. 적이 북한군과 38경비대로 박격포와 기관총을 장비하고 있었으나, 유격대원들은 99식 소총으로 저항을 계속하다가 적이 삼면으로 포위하려 하자 매봉산 골짜기로 후퇴했다.

7월 5일 새벽 대원들은 서화리로 이동하기 위해 북상하다가 잠시 화전민 부락에 들러 휴식을 취하며 적정을 수집해 본 결과 용대리에 약 1개 연대 병력의 북한군이 집결해 있고, 차량 50여 대가 계속 병력을 수송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에 따라 신속히 위치를 변경하여 서화리(瑞和里)를 습격하기로 방침을

68) 북한측 발표로는 강원도 인제군 서구면 이포리에서 포위 섬멸했다고 한다(『동북조선인민보』, 1949. 7. 31).

69) 김재수 메모 노트, 2002. 6; 『호림부대전사』, 131-132면.

세웠다. 7월 7일 서화리를 목표로 출동한 본 대가 인근 가마골에 도착했을 때, 적 약 1개 연대병력이<sup>70)</sup> 사방의 요지를 포위하고 집중사격을 가해 대원 10명이 전사했다. 16시경에 김현주 대대장이 대원들에게 탈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적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포위되었다. 이때 대대장 이하 대원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12명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sup>71)</sup>

호림부대의 활동을 탐지한 북한군은 즉각 토벌대를 편성하여 추격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호림부대는 몇 차례 걸쳐 북한군 경비대와 자위대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후방을 교란했으나, 목적지인 양덕 지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2주일만에 침투 도중 와해되었다.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부연동 골짜기에 1개 중대가 큰 타격을 입고, 나머지 부대는 이포리 뒷산과 금강산 일대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고 아군지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sup>72)</sup>

제5, 6대대에서 귀환한 대원은 30여 명에 불과했다.<sup>73)</sup> 이 가운데 10여 명은 해



포로가 된 호림부대 대원 재판 광경  
(MBC 뉴스, 2000. 6. 22)

70) 2개 대대병력이라고 서술된 경우도 있다.

71) 1949년 9월 경, 마지막으로 귀환한 대원이 있었다는 회고도 있고(이홍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생존 대원이 20여 명이었다고 기억한 대원도 있다(최병태 증언, 2003. 11. 26).

72) 『청년영웅전』 1, 평양: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84면; 최병태(제6대대) 증언, 2003. 12. 11. 전우회에서 최병태를 전사자로 처리했으나(『호림부대전사』, 211면), 그는 귀환 후 이탈했다.

73) 42명이라는 진술도 있다(황휘성, 『출간사』, 『호림부대전사』, 28면). 북한측은 포로가 된 대원 44명을 1949년 9월 11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재판했다.

군 목호경비부 사령관 김두찬(金斗燦) 해군 소령의 후원 아래 어룡대(魚龍隊)라는 민간인공작대를 만들어 대북첩보공작을 하다가, 전쟁 후 해병대로 입대했다고 한다.<sup>74)</sup> 일부는 육군시흥학교로 돌아와서, 치료와 휴양을 했다. 출동 전 육군 정보국으로부터 “생환자는 그 공로와 능력에 따라 군 간부에 특채시켜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sup>75)</sup> 이것이 이행되지 않자, 일부 귀환 대원들은 도주하기도 했다.<sup>76)</sup>

제5, 6대대 귀환 대원들과 제2, 3대대 대원들은 1949년 7월 12일 육군 호국군에 편입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대원은 제대하고 나머지는 같은 해 11월 13일 현역에 편입되었다.<sup>77)</sup> 그 후 육군영등포학원으로 개칭되었다. 부대장 한왕룡 중령 후임으로 홍성준 소령이 부임했다. 부대원들은 삼각지 소재 수도경비사령부내 병사에 수용되었다. 1949년 9월 15일 공비토벌작전을 위하여 지리산으로 출동했다. 그 후 육군영등포학원은 제3사단으로 배속되어 보현산·팔공산 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했다.<sup>78)</sup>

전쟁이 일어난 후인 1950년 8월 18일 영등포학원이 해체되자, 대원들은 제3사단에서 팔공산지구, 영덕~강구방어 작전 등에 참가했다.<sup>79)</sup> 이 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도사단으로 전속되고, 대대본부 요원들은 제3사단 수색중대로 배치되었으며 중대원들은 제23연대 제1, 5, 9, 11 중대에 배치되었다.<sup>80)</sup>

74) 김시홍(예, 해병중령), 『나의 회고』, 『건국회보』, 1990. 3. 25. 호림유격대 전사자 명단 가운데 김종모·김은수·김학배 등은 1950년 6월 25일, 함흥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육본, 『비군인 전사망확인서』, 1979. 7. 19). 이들은 아마도 대북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75) 이흥렬, 『호림부대 제6대대 작전상보』, 1972. 6. 22, 군사편찬연구소.

76) 호림부대의 장병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인 호국군의 신분으로 출동했다. 이 때문에 육군본부나 보훈처에서 이들을 비군인 신분으로 처리했다(『호림부대전사』, 58면; 최병태<제6대대> 증언, 2003. 11. 26).

77) 육본 군사감실, 『6·25사변 육군전사』 1, 1952. 1, 부표 9-6. 8월 13일에 현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기술도 있다(『호림부대전사』, 59면).

78)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2001, 100면. 부대장은 원장이라고 불렀다(육영특별명령(을) 제10호, 1950. 2. 15, 국방부 일반명령 1949-1950, 군편 사료 915)

79) 『육본 작명 제57호』, 1950. 7. 27, 『한국전쟁사료』 62, 1987, 651면; 『육본 작명 제82호』 1950. 7. 29, 같은 책, 707면; 공국진, 앞의 책, 109면.

80) 『호림부대전사』, 60면; 박종병(예,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3. 11. 11.

## 제 2 절 전쟁 시기 유격대 편성과 활동

### 1. 창설배경과 유격대의 편성

국군이 후퇴할 때, 적 주력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적 후방 깊숙이 투입하는 제 2전선 형성의 전략구상이 필요했다.<sup>81)</sup> 즉 전세가 불리할 때 소부대가 대부대를,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以小敵大, 以弱制強) 유격전술이 유용하다.<sup>82)</sup>

전쟁 발발 후 육군본부 김백일 참모부장은 “미군이 안오면 태백산에 들어가 유격전을 하면서라도 싸워야지. 태백산이 아마 지형상으로나 또 해외로부터의 보급지원면에서 가장 좋을 거야. 그곳으로 가야 할거야” 하며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전의를 다졌다.<sup>83)</sup> 이러한 결의가 유격대 편성으로 좀더 구체화된 시기는 1950년 8월 초순이었다.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대구·부산지구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육·해·공군 총사령관 정일권 소장은 유격대를 편성해 빨리 적 후방에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1950년 8월 초순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작전계장으로 있던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가 ‘명부대’이다.<sup>84)</sup>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지만 유격대를 활용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는 1950년 7월 16일 맥아더 장군에게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용군으로 모으거나 유격대원을 무장시키는 데에도 무기가

81) 박창암, 『전우의 실전수기 발간에 부쳐』, 김한철, 『마지막 침투한 대북유격대의 활약상』, 월간 자유사, 1991, 17면.

82) 권준 대령 역(수도경비사령관), 『遊擊戰綱要』, 1949. 8, 3면.

83)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197-198면.

84) 대령 방원철, 『감격의 날을 회고하여』,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1958, 243-244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게릴라부대가 아군 후방 특히 미군지역을 교란시켜 타격을 주었듯이 경험있는 유격대원들을 적 후방으로 침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sup>85)</sup> 그는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이미 적 후방의 인천이나 대구 북방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비록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첩보대원으로 혹은 유격대원으로 싸울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sup>86)</sup> 또한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도 리지웨이 장군에게 중공군의 전술에 맞서 “우리도 게릴라가 될 수 있다”며 유격전을 활용하기를 희망했다.<sup>87)</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격대의 편성은 육군본부, 일선부대, 낙오장병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육군본부는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후퇴하는 정규군의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는 한편 유격대를 편성했다. 이는 북한측의 활발한 게릴라 활동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sup>88)</sup>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결사유격대, 제9172부대 등이 있다. 부대 창설 주체로 살펴보면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제9172부대 등은 육본 작전국에서 추진했고, 결사유격대는 육본 정보국에서 주도했다. 그 후 1951년 3월 30일 육본 정보국장 감독하의 육군 유격군부대에 관한 제반업무를 작전교육국으로 이관했다.<sup>89)</sup>

유격대의 창설시기는 전세가 매우 어려웠던 전쟁 초기 북한군 남진시기와 중공군 개입이후 38선 이남으로 재차 후퇴했을 때 주로 편성되었으나, 특수부대로 발전한 제9172부대는 1952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또한 유격대들은 모두 단기간 작전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적 후방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둘째, 일선부대에서도 편성했다. 제1사단 15연대에서 본부아래 정규군 병력이

85) 이승만 대통령, 『의용군지원에 대해서』, 1950. 7. 16, 정부기록보존소;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Aug. 12, 1950, 『대한민국사자료집』 29, p. 335.

86)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Sep. 8, 1950, 『대한민국사자료집』 29, pp. 339-340.

87) “Francesca's Diary”, Jan. 9, 1951, 『대한민국사자료집』 29, pp. 420-421.

88) 신성모 국방장관은 미군측에 국군에서도 유격대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211면).

89) 『육본 지령 제13호』, 1951. 3. 30, 『한국전쟁사료』 65, 육본, 1988, 1067면.

운대 차출해 유격중대를 운용한 경우<sup>90)</sup> 외에, 일부 일선부대에서는 비정규 병력을 모집해 유격대를 편성했다. 꼭 유격대는 아니더라도, 각 사단의 수색중대, 대전차포대대(사단 직할대대), 연대에서 수색중대나 대전차포대대에서 강원도 등 오지에서는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길 안내·탄약 운반 등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sup>91)</sup>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그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제1군단에서도 유격대대가 편성되었다. 아마도 군단에서 교전하고 있는 적 유격 3여단 1,000명과 대적하기 위해 편성했을 것으로 보인다.<sup>92)</sup> 제1사단 편성한 제5816유격부대, 제2사단의 독수리유격대, 제8사단 유격대 등이 있었고, 해군에서 편성한 부대도 있었다.

셋째, 낙오장병 가운데 일부가 후방지역에서 유격대를 편성해 포로가 된 아군 구출, 북한군 자동차 기습 등 일시적 활동한 경우도 있다.<sup>93)</sup> 서울 동부지역 태릉방면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던 육사 생도대대들 가운데 다른 부대가 철수한 후에도 1950년 6월 28일, 김동원·박금천 등 육사 1기생 10여 명은 불암산에서 유격대(대장 김동원)를 결성하여 적 후방에서 전투활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7월 1일, 다시 2기생과 제9연대 낙오병이 가세했다. 그 외에 불암사 주지 윤용문이 적극 호응하여 그가 추천한 박태홍·박용문 등은 물자조달과 첩보수집을 유격대 진용을 갖추어 ‘호랑이부대’라고 했다. 이들은 7월 10일 퇴계원에 있는 북한군 보급소를 공격했고, 7월 31일 창동 초등학교 위병소와 내무서를 공격했다. 8월 15일 육사에서 훈련중인 남한 출신 의용군을 공격해 이들을 분산, 도주케 했다.<sup>94)</sup>

청년방위대의 수도방위대 고문관으로 있던 안병범 대령은 창동지역으로 나가 낙오병을 수습하다가, 적의 포탄 파편에 부상을 입고 고립되었다. 서울 함락 후,

90) 『연대 전투일보』, 1951. 8. 21-12. 31, 『한국전쟁사료』 106.

91) 손희선 증언(예, 소장), 2003. 7. 28. 이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이 유격대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92) 『육본 작전일지』, 1951. 1. 10, 『한국전쟁사료』 91, 286-287면; 『육본 작전일지』, 1951. 1. 28-29, 같은 책, 555, 567, 578, 597면.

93) 박경석 중령 증언, 1965. 9. 26, 전사편찬위원회, 7면.

94) 『불암산 유격대 메모』(날짜 없음), 육본 군사연구실.



그는 인왕산으로 피신하여 유격대 조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호응하는 이가 없고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자결했다.<sup>95)</sup>

1950년 7월 15일 헌병사령부 범죄정보계 문관 김관철이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양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낙오된 유원근 일등 중사, 안사로 하사, 정홍식 이등 중사 등을 포섭해 ‘의혈단유격대’를 결성했다. 유격대의 부서는 대장 김관철, 부대장 김남중, 조직책 정연근, 연락책 채수혁, 정보책 정현식 등을 선출했다. 8월 14일 적성면 내무서를 습격, 유치장에 구류 중이었던 강인수·유재근 등을 구출했다고 한다. 이후 1950년 10월 12일 제8사단장의 명에 의해 사단직할유격대로<sup>96)</sup> 재편성되었다. 이 때 현역이었던 유원근·안사로 등은 원대복귀를 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이후 복진작전에 참가했고,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도 참가했다.<sup>97)</sup>

이 지역에서는 중공군 개입이후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낙오병들에 의해 유격전이 있었다. 제1사단은 평양 점령 후 연변·박천을 경유 태천읍까지 복진을 계속하다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낙오가 된 배인태 소위 등 6명은 남으로 후퇴하면서 1951년 1월 초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널묵리에 이르렀다. 이들은 현지 주민 채경훈의 도움을 받아 적암리 강필승, 송산리 김성태, 어지리 박태준, 장현리 차순태 등 23개 마을에서 250여 명을 규합하여 유격대를 편성했다. 대원들에게 각 조의 연락방법, 습격, 도피 등 훈련을 하면서 4월 22일, 영국군 제27여단과 조우할 때까지 전선으로 수송되는 적의 보급품 습격, 후퇴하는 적의 퇴로를 기습했다. 이러한 전과로 장병들은 영국군 여단장의 공적 추천으로 훈장을 받았고, 일부 민간인 대원들은 영국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sup>98)</sup>

1950년 12월초 두만강을 90리 정도 앞둔 함북 부령까지 복진해 간, 수도사단 제8연대 2대대 6중대는 선발대로 두만강 쪽으로 출동한 상황이어서, 중공군 개

95) 육본, 『義將 安秉範』, 1989, 318-340면. 안병범 대령이 미아리 전투에 참가했으나 북한군에게 밀리자 남하하지 않고 장병 30여 명으로 인왕산과 북한산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하다가 7월 하순 북한군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기보다 조국의 수호신이 되기를 위해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다(『안병범 장군의 게릴라전』, 류근주·남상선 공편, 『승자와 패자』 1, 육법사, 1982, 38-70면).

96) 부대사에는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제8사단, 『오뚜기약사』, 1969).

97) 보병 제8사단유격대 대장 김관철, 『전투일지』, 1950. 6. 25-1951. 10. 9, 날짜 없음, 육본 부관감실.

98) 박종대, 『감박산지구 유격전 120일』, 전남재향군인회, 『6·25가 남긴 증언』, 1986, 96-102면.

입이후 통신이 닿지 않아 미처 철수하지 못했다. 고향이 부령인 당시 제6중대장이원개 소령은 중대원 160명과 함께 고립돼 유격전을 펼쳤다고 한다.<sup>99)</sup>

## 2. 육본 직할 유격대의 활동

### 가. 개 요

육본 직할 유격대 가운데, 자료가 비교적 정리된 독립 제1유격대대와 결사유격대는 별도로 다루고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제9172부대 등을 간단히 고찰했다.

먼저 유격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적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패잔병과 좌익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한 부대로 적 유격부대에 대치한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수준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 남한지역에서 나오던 북한군과 무장한 좌익세력의 규모는 1950년 10월~12월말경 32,000~35,000명에 이르러 국군에서는 좌익 게릴라부대의 진압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격부대의 창설을 통한 대북작전은 미약했다. 육본직할 유격대는 독립 제1대대로부터 제2, 3, 5, 6, 7대대까지 6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각 대대는 일시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창설된 후, 1950년 10월 초(국본 일반명령 제85호) 유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때 기존에 있는 4개 독립유격대대와 새로 창설한 제6대대를 유격사령부로 예속시켰다. 제6유격대의 규모는 장교 36명, 사병 698명이었다. 이들의 장비는 모두 노획장비로 충당하도록 했다.<sup>100)</sup> 1950년 10월 20일 유격사령부의 본부는 강원도 원주에 설치되었다.<sup>101)</sup> 후에 사령부를 횡성으로 이동시켰으나, 같은 달 26일 제3군단의 구두지시에 의해 사령부 본부를 다시 원주로 이동했다.<sup>102)</sup>

99) 『대한매일』, 1993. 6. 24.

100) 『국본 일반명령』 제85호, 1950. 10. 5.

101) 이 때문에 원주유격사령부라고 기억하는 장교도 있다(김도영 증언, 『원주유격사령부』 1966. 1. 24, 전사편찬위원회).

102) 박영준(예, 소장) 증언, 1967. 3. 29, 전사편찬위원회.



유격대원의 군번부여 명령서(『유사특명(을)』 제1호, 1950. 10. 30)

초대 사령관으로 전 청년방위군 고문단 육군 대령 김관오였고, 참모장은 전성호 대령을 임명했다(육본 특 제191호). 김관오 대령은 중국 군관학교인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을 졸업한 후 국민당군에서 대좌를 지냈고,<sup>103)</sup> 참모장 전성호 대령은 일제시대 독립군의 하나인 북로군 중대장을 역임했다.<sup>104)</sup> 이는 유격전의

103) 박영준(예, 소장) 증언, 1967. 3. 29, 전사편찬위원회; 강문구, 『한국군부의 창설·변천과정』,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21면.

104) 유격사령부, 『정기역사문집자료제공지간』, 1950. 11. 9, 『육군부대역사 보고서』,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115; 함태암, 『전성호평전』,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국방부, 1955, 382면.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1유격대대는 1950년 7월 중순 당시 육군본부가 동해안과 중부전선과의 사이에 생긴 취약지대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였다. 당시 제3사단이 영덕에서 방어하고 안동 쪽에는 유재홍 장군이 싸우고 있었으나, 보현산 지역은 병력이 없었던 까닭에 좌익 게릴라들이 대구시내에도 박격포를 발사하는 형편이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이 정진(鄭震) 소령에게 예비대를 편성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병력이나 무기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정진 소령은 대구지구의 방위대 지대 요원과 일부 학생지원병 200명을 인수한 다음, 대구 북명 초등학교에서 육본직할 제1유격대대를 편성했다. 그 명칭은 적 유격부대에 대치한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수준이었다.

6개 소총중대와 본부중대로 편성된 이 부대는 장비는 일제 99식 소총과 미군이 지원한 M1 소총이었고, 소대장과 분대장은 호국군 배속장교와 방위대 장교 등 120명으로 충원했다. 참모 겸 중대요원은 현지 임관한 최주중 중위, 박준호 중위, 최창륜 중위였다. 유격대대는 대구에서 민가의 대문을 뜯어다가 종이로 표적을 만들어 사격훈련을 약 2주일 동안 마친 다음 신녕으로 이동해 카빈 소총을 지급받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8월초 이 대대는 보현산 지구에 투입되어 이곳을 점령해 박격포, 기관총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다. 그 후에도 가산전투·좌천전투 등이 있었다. 전상자는 많았지만 상당한 전과가 있었다.<sup>105)</sup>

제2유격대대는 1950년 8월 초순 남원에서 제30연대 연대장 김용주 중령이 남원군수의 협조를 받아 이 지방의 청년과 학생·피난민 등 1,000명으로 편성했다. 무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 학생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등 군대인지 무엇인지도 모를 오합지졸이었다고 한다. 진주 중학교에서 1주일 동안 목총으로 기초훈련을 실시하여 사격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원들은 김해를 거쳐 구포초등학교 이동하는 즉시 유격대대로 편성했다. 이 곳에서 북한출신 1개 중대 병력을 추가로 모집했다. 그러나 마침 제1군단 부군단장이었던 김백일 준장이 부대시찰에서 병사가 ‘받들어 총’ 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을 받고 전투부대로서 인정을 받

105) 최주중(예, 소장), 『가산전투』, 1967. 4. 13,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1면;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3, 1970, 63면.

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포로 가서 재훈련을 한 다음 부대를 영천으로 이동하여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에게 부대실정을 호소해서,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로 편입된 후 제25연대가 작전을 하고 있던 기계 북쪽의 후방예비대로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제25연대가 적의 기습을 받고 많은 희생자를 냈을 때 이들을 지원해 적을 격멸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 강문봉 작전국장으로부터 부대명을 공식적으로 받았다.<sup>106)</sup> 하지만 1950년 8월 20일 김용주 중령은 육본작명 제47호에 의해 보병 제7사단 제8연대 연대장으로 떠났다.<sup>107)</sup>

1950년 10월 4일 육군본부에서는 유격사령관에게 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6개의 유격대대 병력을 통합하여 평해(平海) 부근 일대에 약 3,000명, 매봉산 부근에 약 1,000명, 단양(丹陽) 일대에 약 2,000명, 평창~안흥 부근 산악지대에서 약 2,000명이 출몰하고 있는 패잔병을 토벌하도록 지시했다. 작전지역은 제1유격대대가 충주, 제2유격대대 원주, 제3유격대대 평해, 제5유격대대 영월, 제6유격대대 춘양, 제7유격대대 안동 등이었다.<sup>108)</sup>

이 작전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제5유격대대의 활동만 정리되었다.<sup>109)</sup> 그러나 이미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작전은 적 후방에 침투하지 않고 낙오된 북한군을 소탕했기 때문에 간단히 서술했다.

제1군단에 배속되어 활동하던 제5유격대는 군단의 북진 경로인 영월·진부·강릉·양양으로 북상하면서 잔적들을 소탕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적의 근거지를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원의 규모가 950명이었으나 대원 절반이 일제 99식 소총을 무장했을 만큼 장비는 취약했다.<sup>110)</sup>

106) 『김용주 (예, 준장) 증언』, 1971. 6. 25, 1978. 3. 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3, 68면; 강기천,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66면.

107) 『공적내용: 김용주』, 전사편찬위원회, 『6·25 당시 무공훈장 수상자』 1. 그는 대구에서 재편되어 육본작명 제161호(1950. 9. 3)로 신병에 이동해 제2군단으로 배속되어 영천지구, 안강·기계, 평양점령 전투에 참가했다. 그후 1951년 1월 16일부터 육군제1훈련소에서 부소장을 거쳐 휴전 후 제38사단장으로 근무했다.

108) 『육본 작명 제206』, 1950. 10. 4, 『한국전쟁사료』 63, 95-96면.

109) 『군사』 22, 육군본부, 1956. 5; 『전사연구 제12집: 소부대전례 특수전편』, 육군본부, 1981; 『특수전사례집』, 특수전사령부, 1986 등을 주로 참고했다. 이 부대는 ‘백봉부대’로 부르기도 했으나, 부대장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

110) 『제5유격대대의 양양지구 유격전』, 『전사연구 제12집: 소부대전례 특수전편』, 24-25면.

1950년 11월초 대대장은 미리 수색대원을 설악산지역으로 파견하여 적정을 파악한 후 부대원 가운데 김병호 중위·오정길 상사 등 70명을 선발하여 양양을 출발했다. 설악산 방면의 화일리와 양지말을 각각 기습하여 적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sup>111)</sup> 올렸다. 이 때 현지 자위대원은 길 안내를 지원했다.

그러나 1950년 10월 30일부로 유격 제1, 2, 7대대는 해편과 동시에 각각 제9사단 제28연대·제29연대·제30연대의 각각 제3대대로 재편했다(국본일반명령 제96호).<sup>112)</sup> 또한 1950년 11월 24일 국일명 제108호로 후방에서 공비토벌, 도로경비 등 치안확보와 포로경비를 위해 제3유격대(강원 울진), 제5유격대(경남 밀양), 제6유격대(경북 의성) 등을 각각 제1, 2, 3경비대대로 새로 창설했다. 이들은 주둔지에서 활동하다가, 1951년 3월 중순 영주·전주·임실·초치원 등으로 이동해 좌익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했다.<sup>113)</sup> 그 후 제1, 2경비대대는 1951년말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했다.<sup>114)</sup>

육군본부 작전국 신경전과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피난 나온 무장대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담당하는 을지 제1병단과 서해안을 담당하는 을지 제2병단을 조직했으나, 곧 미군에게 인계했다. 제1병단의 경우 관련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을지 제2병단의 경우를 정리했다.

서해지역에서 많은 무장대원들이 유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육군본부는 1951년 3월 27일, 강화도를 중심으로 육군 을지 제2병단을 창설했다. 그러나 강화도와 교동 일대가 미군 작전지역이었고, 미군이 이 지역에서 유격대를 창설하려 했으므로 미군 부대로 인계되었다. 즉 육군본부에서 을지병단의 특별부대(강화), 제21연대(홍훈), 제22연대(아차도), 제23연대(교동도) 등을 1951년 3월 28일부로 미 육군 중위 윌리엄 고의 지휘 아래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한 제25연대(삼정리)와 제26연대(용호북리)는 윌리엄 버크 소령의 지휘

111) 화일리에서 120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생포했으며, 양지말에서는 80명을 사살했다고 한다.

112) 유격사령부, 『정기역사편집자료제공지건』, 1950. 11. 9, 『육군부대역사 보고서』,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115.

113) 『육본 작전일지』, 1951. 3. 12, 『한국전쟁사료』 91, 771, 775, 777면; 육본 군사감실, 『병과별 부대역사』, 1959, 16면.

114) 『공비연혁』, 360면.

아래로 편입시켰다. 부대의 작전·통신·보급은 모두 미군 장교가 담당하도록 했다.<sup>115)</sup> 제2병단은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미 제8군 통제하의 백령도 기지사령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동키 제5부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육군 을지 제2병단은 공식적으로는 단 하루만 존재한 셈이었으나,<sup>116)</sup> 작전권이 백령도 기지사령부로 이관되었지만 1951년 7월경까지 육군 을지 제2병단 사령관 차동준 소령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했다.<sup>117)</sup> 이 때문에 그는 미군 기지사령부와 갈등을 일으켜, 1951년 8월 초 육본으로 복귀했다.<sup>118)</sup>

미군으로 편입된 후에도 한 동안 을지병단은 부대원들에게 보급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형편인 데다가 작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개똥병단’이라고 자조했다고 한다.<sup>120)</sup> 그 후 제5장에서 후술할 강화도 울퉁기지 예하 울퉁 제2부대가 되었다.

육군에서 보다 체계적인 특수부대 혹은 유격대가 창설된 것은 1952년 초에 이르러서였다. 육본 작전교육국장 이용문 준장이 특수부대 창설을 계획하여 이기



육군 을지 제2병단 사령관 보고서(1951. 7. 15)<sup>119)</sup>

115) 육본 작명 제7호(1951. 3. 24); 『육본훈령 제11호』, 1951. 3. 28, 『한국전쟁사료』 65, 1064면.

116) 박상준(연대장) 증언, 2003. 11. 8.

117) 소령 차동준, 육군을지제2병단사령부, 『업무보고의 관한 건』 1951. 7. 15(박상준 제공문서).

118) 『약사』, 1953. 7, 17-18면.

119) 박상준(울퉁 제2부대장) 제공.

120) 이종암(울퉁부대 대원) 증언, 2003. 8. 9.

건 대령, 이극성 중령, 박창암 소령, 김종벽 대위, 김동식·김석환·민승기·홍성철 소위 등 50명의 기간요원을 선발하여 미국 하와이 인근 섬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1952년 2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 특수전학교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드골이 알제리에서 수행한 비정규전 전례, 첩보전, 심리전 등을 교육받았다.<sup>121)</sup> 1952년 8월 이들이 귀환하자 일부는 첩보대로 보내고 대부분은 대구에서 새로 창설된 제9172부대에 소속되었다. 부대 명칭은 이기전 대령과 송정엽 중령이 미국에서 훈련받을 때 받았던 번호인 91번과 72번을 따랐다고 한다. 초대 부대장 이기전 대령을 거쳐 몇 개월 후에 박창암 소령이 되었다. 당시 부대 지표는 “우리의 적은 공산당과 매국노와 무법세계다”, “역사적인 반항터에서 쓰러진 우리들의 의병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도 사랑과 동경을 받는다” 등으로<sup>122)</sup> 대원들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했다.



제9172부대 동해안과건대 표지(이인배 제공)

병력은 장교 50명, 부사관과 사병 100여 명으로 편성했다. 사병들은 육군 각 사단에서 북한출신으로<sup>123)</sup> 중학 정도의 학력과 전투경험이 있는 현역으로부터 김재호·문주환·심상연·박상룡·이효삼 등 100여 명을 차출했다. 그들은 논산훈련소와 진해 공병학교, 부산 영도에서 기습전, 심리전, 폭파훈련 등을 받고 가덕도에서 적진 침투훈련을 받았다.<sup>124)</sup>

121) 노성린, 『도깨비부대의 미 특수 교육 회상기』, 『호국』, 113-114면.

122) 백순영(예, 대위) 진술, 2003. 12. 15.

123) 동해안 과건대 제3소대 대원 12명은 모두 함남 원산·나남, 평북 의주, 황해도 연백군, 평남 평원군 등 모두 북한출신이었다. 당시 군 당국에서는 심리전 요원으로 모집했다고 한다(백순영 제공 문서).

124) 『육군장교자력표: 민승기』; 홍성철, 『대인 박창암장군』, 『만주 박창암장군 논설집』, 2002, 919면. 부산에서 훈련받을 때 ‘부두부대’라고 불렀고, 가덕도에서는 ‘수산동부대’라고 했다(김동식 증언, 2003. 12. 15).



부대의 주력은 무지개부대로 편성되어 서남지구와 제주도 좌익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일부는 동해안지역에서 대북 작전을 했다. 무지개 부대는 부대장 박창암 소령을 비롯해, 소주영 중위(S 1, 4), 송서규 중위(S 2), 김세림 소위(S 3), 민승기 소위(S 5) 등이었다. 이 부대는 장병 86명으로 1952년 겨울 동안 약 4개월간 제주도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했다.<sup>125)</sup>

동해안파견대의 책임자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양치호 대위였고, 보급관은 김이남 대위였다. 파견대는 4개 소대로 편성되어, 1개 소대 규모는 10명 규모였다. 각 소대장은 이찬국·김동식·이강려·심대복 등이었다. 파견대는 미 극동군 특수대(SMG : Special Mission Group)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고문은 킹스톤(Robert C. Kingston) 대위이고 훈련은 헤이스(Ernest T. Hayes) 중위가 담당했다.

동해안파견대는 당시 속초에 주둔하고 있는 커크랜드부대와 갈등을 일으키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로 이동했다고 한다.<sup>126)</sup> 휴전 후 일부 장교는 보병학교 특수전 교관이나 특전사에 복무했다. 1955년 5월 초 경기도 소사에서 해산되었다고 한다.<sup>127)</sup>

대북작전을 위해 장교와 사병들이 작전에 직접 투입되어 폭파·납치·교란 등의

125) 노성린, 『9172부대장 박창암장군 승전기』, 『만주 박창암장군 논설집』, 2002, 916-917면; 김한철, 『마지막 침투한 대북유격대의 활약상』, 18면; 민승기(예, 대령) 증언, 2003. 12. 5.

126) 이인배 증언(영도유격대, 참전자), 2003. 12. 14; 한문석(참전자) 증언, 2003. 12. 15.

127) 김동식(예, 대령)·김동식(예, 대령) 증언·강형식(참전자) 증언, 2003. 12. 5; 이인배(참전자) 증언, 2003. 12. 17.

① 4286. 4. 10. 1200 月南連津尾奇襲作戰 5. 10. 2400.  
 月南連津尾奇襲하여 奇襲時期 2450 本部 1235 小隊가  
 上陸同時에 5. 10. 2450 小隊가 月南連津尾에 奇襲  
 作戰을 3시간 30분 戰成 戰果 2名 擄獲  
 人 1名 2名 擄獲

② 4286 4. 12. 1200 月南連津尾에 奇襲하여 奇襲 5. 10  
 2400 戰成 戰果 2-3名 擄獲을 4. 12. 1400 作戰으로  
 奇襲 月南連津尾에 奇襲 奇襲 奇襲  
 擄獲 戰果 2名 擄獲  
 高 3名 擄獲  
 藥品 供 奇襲

③ 4286. 4. 12. 月南連津尾 奇襲作戰 戰海峽 戰區  
 探査日 奇襲 4. 12. 2200 戰成 戰果 2名 擄獲을 2400 2500 戰果  
 개기 進出中 2400. 警戒조인 제 5 小隊는 上陸開始 途中  
 敵의 襲擊으로 擄獲 戰果 2名 擄獲

④ 4286. 4. 16 月南連津尾 奇襲作戰 開始 4. 16. 2300 警戒조  
 出 發 4. 17. 2300 奇襲 奇襲 奇襲 4. 17. 2450 戰果  
 2名 擄獲 4. 18. 1700 戰果 2名 擄獲.  
 奇襲 戰果 2名 擄獲

⑤ 4286. 5. 10. 1200 32名 月南連津尾에 奇襲 5. 14. 1700 —  
 2000 32名 奇襲 奇襲 5. 14. 2100 奇襲 奇襲 警戒조인  
 32名 同 奇襲 5. 14. 2900 作戰 奇襲 2名 擄獲  
 人 1名 擄獲 7名 奇襲 3名 擄獲  
 擄獲 1名

작성 메모  
 (백순영 제공)

임무를 수행했다. 몇몇 작전사례를 살펴보면, 1953년 4월 10일 24시경 제1소대 김모 소위 등 12명이 함경북도 청진 북쪽에 있는 연진리를<sup>128)</sup> 기습했다. 제3소대는 경계조로 출동했다. 북한군 2명을 생포한 후 복귀하면서 12일, 함경북도 다진동(多津洞)에서 전단 살포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공산당원 2명을 납치했다. 13일 적 해안배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도앞 창전동을 기습했으나, 경계조인 제5소대가 상륙중 발각되어 철수했다. 16일 함경남도 일진동<sup>129)</sup> 터널을 파괴했다. 5월 10일 대원 32명이 양도에 도착하여 14일에 성진 남쪽에 있는 예동에 상륙했다. 경계조와 주력 동시에 상륙하여 자위대와 북한군 7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sup>130)</sup> 그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원들은 “제 9172부대가 비정규전의 대명사”였다고 자부했다.<sup>131)</sup>

128) 당시 메모에는 함남으로 정리되었다.

129) 대원들은 일진동으로 기억하나, 일신동일 것으로 보인다.

130) 백순영(예, 대위) 일기, 1953.

정보국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1950년 12월초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인엽 장군은 적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무장유격대의 편성을 구상했다. 방첩대의 지원과 청년단체의 협조를 받아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 250명을 모집했다. 전 북한군 장교 출신인 강창남 소령이 그들에게 유격전술을 훈련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계속하자, 12월 29일 임시로 편성된 유격대원들에게 북한군복과 장비로 무장시켜 문산에서 임진강을 통해 이북지역으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적을 기만하여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공군의 남진으로 통신이 두절되었고, 아군이 후방으로 철수했던 까닭에 침투한 대원들의 활동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sup>132)</sup> 그 후 1951년 1월에 새로 편성된 결사유격대는 별도로 다루었다.

한편 육본 정훈감실의 협조로 조직된 학도기간대(學徒基幹隊) 가운데 일부는 적 후방에 침투시킬 유격대로 편성되었다.<sup>133)</sup> ‘명부대’로 알려진 독립 제1유격대는 자세히 후술하고 일부 증언을 토대로 제3유격대를 간단히 살폈다.<sup>134)</sup>

국군이 대구로 후퇴했을 때, 1950년 8월 15일<sup>135)</sup> 정훈감실 문이정(文履禎) 소령이 ‘경상북도 학도기간대’<sup>136)</sup>를 창설하여 대구지역 중학교 3년 이상 학도호국단 간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부대는 8월 15일 창설했다는 점을 들어 육군 제8150부대 혹은 제815유격대로 불렸다. 대원 가운데 일부는 피난민도 있었으나 손대종이 경북중학 6학년생이었고, 하상진이 대구 상업중학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것처럼 대원 90%가 이 지역출신 학생들이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은 ‘펜 대신 총’을 들고 입대한 ‘학도병부대’로 인식했다.<sup>137)</sup>

131) 노성린, 『도깨비부대의 미 특수 교육 회상기』, 『호국』, 113면.

132)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9-17면.

133) 육본,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1994, 130면.

134)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학도의용군실전기』(개요), 1980, 10면; 김용진 중령(예)·김정욱 대위(예) 증언, 2003. 5. 12. 이외에도 제2, 5대대도 편성되었다고(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학도의용군실전기』(개요), 1980, 10면) 하나, 제2대대와 5대대의 발자취를 찾을 길 없다. 한편 제3유격대는 유격사령부 산하의 제3유격대대일 가능성도 있다.

135) 백낙준 문교장관이 학생들에게 “후고(後顧)말고 나아가자”고 격문을 발표할 때가 1950년 9월 5일이었다(『민주신보』, 1950. 9. 6).

136) ‘학생오열방위대’였다는 기억도 있다(신승갑, 『소년 학도병』, 한림저널사, 2000, 14면).

대원들은 영천군 금호면 금호 초등학교에서 주둔했다가, 대구 삼덕 초등학교와 계성 중학교에서 훈련을 한 후 8월 20일 경남 밀양군 부북면 부북 초등학교로 이동해 육본직할 독립 제3유격대대로 편성되었다.<sup>138)</sup> 대원들은 5개 중대로 편성되었는데, 그 규모를 위장하기 위해 제1중대는 청룡대(중대장 임병우 대위), 제2중대 용진대, 제3중대 혜성대(중대장 최성집 대위<sup>139)</sup>), 중화기중대 충무대(중대장 이동진 대위), 본부중대 금강대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문이정 소령이 떠난 후 부대장 이성주, 부부대장 엄정주 등을 비롯해 중대장들도 경찰 출신이 많았다. 소대장은 대학생이나 방위소위였다고 한다.<sup>140)</sup> 그 후 9월 8일 동해지구경비사령부 제1경비대대로 재편되면서, 육군 정원(正元)부대로 불리우기도 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하순까지 모택동의 유격 16전법, 전술교육을 받았다. 당시 대원들의 복장과 장비 모두 북한군의 것을 사용했다. 당시 부대훈은 “혁명투사적 영웅심과 우월감에서 희생적 정신을 발휘, 승리의 쾌감을 쟁취하자”였다.

<부 대 가><sup>141)</sup>

- |                     |                     |
|---------------------|---------------------|
| 1. 침략의 욕된 물결 밀려들어오고 | 2. 눈썹인 오대산봉 피로 물들이고 |
| 배움의 거룩한 길 총칼로 바뀌    | 순국의 젊은 충혼 뒤를 이어서    |
| 통일의 부르심에 용감히 서서     | 원한의 싸움터로 용진 또 용진    |
| 이 목숨 바치도다 민족 재단에    | 승리의 개선가를 높이 부르자     |

(후렴) 보아라 찬란하다 넘실한 기상  
그 이름 빛나도다 학도유격대

137) 손대중(예, 대위), 『실전과 같은 훈련이 승리보장』, 육본, 『호국용사 6·25 참전 전투수기』 4, 2000, 305-306면; 하상진(예, 대위), 『지휘관을 위기에서 구출하다!』, 같은 책, 339면; 박두현(울팩 제8부대) 증언, 2002. 6. 24.

138) 학도유격 제2대대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하명운, 『내생애의 여적』, 2002, 59면; 최몽준 증언, 2003. 12. 10). 대원들은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 명의로 신분증을 받았다고 유격총사령부(사령관 최윤동)에 속했다고 기억한다(김한주 증언, 2003. 12. 15).

139) 후에 윤혜승 대위로 교체되었다(최몽준, 『6·25 사변전쟁과 나』, 2003. 10. 13).

140) 대원들은 대대장(육군 중령 이성주), 부대대장(육군소령 엄정주)이 각각 남대구경찰서와 영월경찰서 서장 출신이었다고 기억하나, 장교 자격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41) 작사자는 윤혜승 중대장, 작곡은 김계욱이라고 한다(신승갑, 앞의 책, 6면; 하명운, 앞의 책, 60면; 최몽준, 『6·25 사변전쟁과 나』, 2003. 10. 13). 경비대대로 개편 후에도 이 부대가를 ‘학도유격대’ 대신 ‘871부대’로 바꿔 불렀다.

제3유격대는 밀양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10월 8일, 부산항에서 미군 수송선(LST)를 타고 이틀 후 강원도 울진(현재, 경북 울진) 죽변 항구에 상륙했다. 대원들은 당시 후퇴하던 북한군 패잔병 소탕과 울진면 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경비하다가 북진명령에 따라 삼척에서 정라진 항만을 비롯한 삼척 주변지역을 경비하던 중 다시 강릉으로 이동하여 읍사무소 뒤 홍아여관에 숙영했다. 이곳에서 강릉(신승갑), 영월(송영철) 등 이 지역과 월남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제식훈련과 목총으로 훈련했다. 이 때 병력은 600명 정도에 이르렀다.

대원들은 후퇴하던 패잔병을 소탕하면서, 주문진·양양·속초·간성·거진까지 북진했다가 다시 강릉으로 되돌아 내려오면서 주문진에서 부대를 재정비했다. 이 때 김정욱의 경우처럼 만 15세 미만의 어린 학도병들을 귀향토록 했다.

1950년 12월 20일 부대는 오대산과 발왕산 일대에서 적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진부 초등학교로 이동했다. 월정사, 상원사, 방아다리 약수터에서 적과 교전하여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42)</sup> 그 후 적군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 부대는 본부중대와 전투중대가 분리된 채 혹심한 추위와 눈 속에 후퇴를 거듭하다가 1월초 울진군 근남면 노음 초등학교에서 합류했다. 이곳에서 부대가 육군 제1경비대대(제871부대)로 재정비되면서, 대원들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임시 군번(036-) 대신에 새로운 군번(0712-)도 받고, 병력이 보충되었으며 무기도 교체되었다. 이 때 간부진도 정규군으로 교체되어 부대장은 박주용 소령이었고 부부대장은 김정환 대위였다.

1월 중순 부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에 맞추어 죽변항에서 다시 삼척으로 진격하여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영월군 상동면 록전리를 거쳐 2월 3일 삼척군 하장면 황지리(현 태백시)에 주둔했다. 본부중대는 황지에 두고 제2중대는 황지와 도계 사이의 경비를 맡았으며 제1·3중대, 중화기 중대가 도계읍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피난민들로부터 적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21시경 도계장터에 진입했으나, 적과 조우하여 야간에 육박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적 1개 소대에게 타격을 주었으나 하복구 소대장과 사병 13명이 전사하고 실종자도 발생했다. 이 전투공로로 일부 대원들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sup>143)</sup> 2월 20일 부대는

142) 하상진, 앞의 글, 340면.

후방으로 이동해 영주·대구·대전·이리를 거쳐 전주에 주둔했다가 제1중대와 중화기 중대는 군산으로 가서 군산 비행장과 군수기지 경비를 맡고, 나머지 중대는 정읍으로 이동하여 공비토벌과 운암발전소 경비를 했다.<sup>144)</sup>

## 나. 주요 부대

### (1)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 (가) 창설 배경

1950년 8월초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부산교두보를 돌파하기 위해 동해에서 상륙작전을 검토한 결과 장사동 지역으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미 제 8213특공중대에게 그 임무를 주려고 했으나, 기장에서 훈련 중이었으므로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제3사단도 병력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sup>145)</sup> 이 때 밀양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유격대를 선정했다. 이 유격대는 부대의 공식명칭은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였으나(육본특 제154호, 유격사 특1호)<sup>146)</sup> 부대장의 이름을 따라 ‘명부대’로 널리 알려졌다.<sup>147)</sup>

명부대의 창설은 국방부 정훈국 소속의 이명흠(李明欽: 후에 宗勳으로 개명) 대위의 역할이 컸다. 그는 대구에서 국방부 정훈국 ‘대적 공작대장(對敵 工作隊長)’으로 군·관·민의 사기 진작과 북한군에 대한 귀순공작을 전개하던 중 보직이 육본 민사부원으로 변경되자 병력 보충을 위해 모병 임무를 맡았다.<sup>148)</sup> 그

143)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전사자들이 단 한명도 전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했다(하명운, 『내 생애의 여적』, 62면; 하상진, 앞의 글, 343-344면; 최몽준, 『6·25 사변전쟁과 나』 2003. 10. 13; 조경구 증언, 2003. 12. 8). 한편 작전일을 1950년 9월말 회고한 경우도 있다(손대중, 앞의 글, 305-306면).

144) 김병우(하사, 0712820), 『6·25 참전수기: 871유격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183; 『유근춘(예, 대령) 증언』, 1966. 6. 23, 전사편찬위원회; 김정욱 증언, 2003. 5. 12; 신승갑, 『육군 제871부대(제1경비대대) 약사』, 2003. 5. 12.

145) *Dark Moon*, pp. 25-27.

146) 1950년 9월 18일부로 창설된 것(『국본 일반명령(육)』 제72호, 1950. 9. 17)은 부대의 출동 이후 법적으로 정리된 듯하다.

147) 당시 밀양에 ‘유격사령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는 이미 전쟁 전 청년방위대 훈련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과 청년들을 모으는데 유리했을 것이다.

이 때 대구에서 최윤동(崔允東)<sup>149)</sup> 주동이 되어 청년 학도 수백 명을 모집, 유격대를 조직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미 수원지역에서 대한청년단 간부들과 애국청년들을 모아 ‘구국유격의용대’를 결성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sup>150)</sup> 그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에게 유격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군에서 장비만 제공해 주면 자신이 민간인 유격대를 직접 지휘하여 적지로 침투해서 싸우겠다고 건의했다. 이 무렵 육군 수뇌부들도 적 후방을 교란시킬 유격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유격전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했지만 8월 중순 마침내 승인했다.

이 대위는 정훈부대 요원으로 모집된 대학생들과 함께 대구역 광장에서 “동지는 뭉치자”라는 강연을 통해 청년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가운데 대한청년단원을 비롯해 200명을 선발한 후, 당시 밀양에 설치되어 있던 ‘유격사령부’로 가서 최윤동의 유격대원 560명을 인수했다.<sup>151)</sup>

1950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이들은 밀양 역전에 있는 미곡창고에서 주둔해 있으면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실시했다. 9월 1일 부산에 있는 육군본부로 이동해 ‘육본 직할 유격대원’이라는 대원증을 받고 9월 11일까지 훈련을 받았다. 부대는 육군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였으나 부대원이 772명이라고 해서 제772부대<sup>152)</sup> 혹은 부대장의 이름을 따라 육군 독립 명부대 또는 명부대라고도 했다. 간부진으로 대대장 이명흠, 부관 백운봉 외에 청년방위학교 출신이 많았다. 이들

148) 장교자력표(이명흠 중령).

149) 최세창 장군의 부친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했다(유주형 증언, 1986. 4. 10, 육본 군사연구실).

150)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47-48면.

151) 장교자력표(이명흠 중령), 군사편찬연구소;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56-57면. 대구에서 모집된 인원을 560명, 최윤동의 대원을 160명 혹은 200명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으나(육군본부, 『학도의용군』, 133면; 김행복, 앞의 책, 33-34면), 부대장의 진술에 따랐다. 대원이었던 최재명도 최윤동 의원이 모집할 때 응모한 수가 1,0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560명만 대원증을 받았다고 한다(『버림받은 충혼』, 1993,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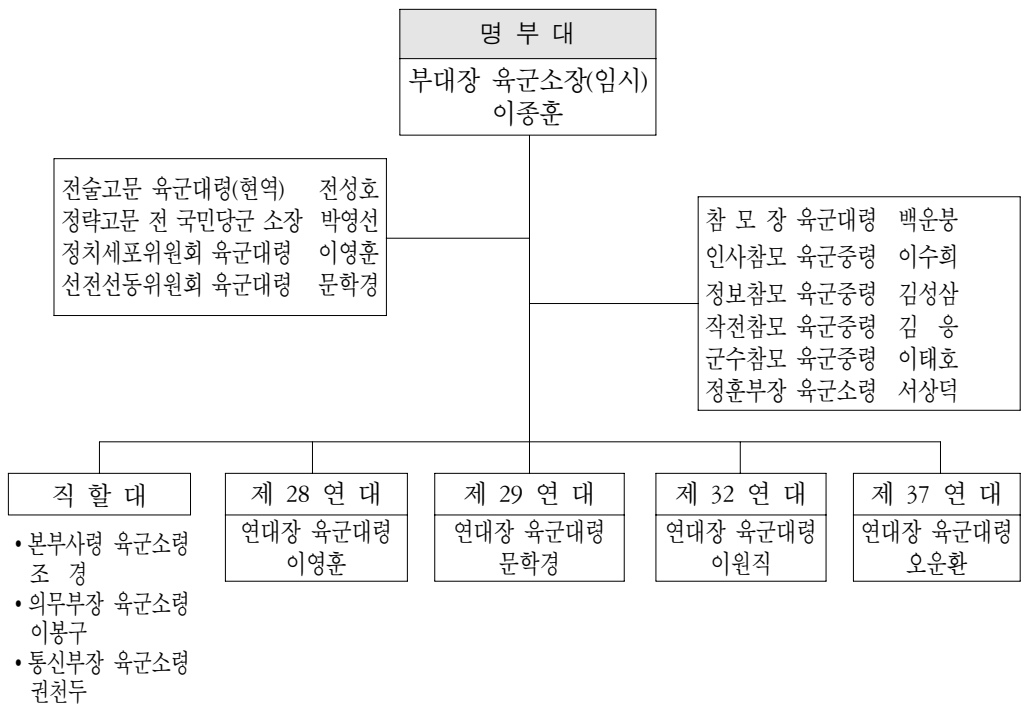
152) 부대장 이종훈 증언, 1980. 7. 30, 육본 군사연구실. 이와 별도로 호남지구 빨치산 토벌 작전 시 선무공작을 위해 제773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지창훈 증언, 2003. 11. 28). 1951년 2월 1일, 육군 정훈 제1대대를 제772부대로 제정했다(『육군역사일지』, 군편사료 280).

은 소련제 소총·체코 기관총·막심중기·박격포 등의 장비와 북한군 복장으로 무장했다.<sup>153)</sup>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이종훈 대위가, 군사훈련은 주로 방원철 소령이<sup>154)</sup> 담당했다. 민주주의이념과 민족문화사, 영웅전, 정치학 등을 비롯해 소련제 소총, 경기관총 사격술, 수류탄 투척, 상륙작전요령, 교량과 토치카 파괴법 등을 받았다. 사격훈련과정에서 조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명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규모의 병력이었으나, 대원의 사기 양양과 작전상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를 대대에서 사단으로, 중대를 연대로 위장 편성했다. 각 연대 병력은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東海岸地區掃共總司令官)’으로, 부관은 참모장으로 제1중대장은

<부대편성 및 지휘관>



153) 육본 군사연구실, 『이종훈 증언』 1980. 7. 30.

154) 박창암 중위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133면).



제28연대장으로, 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으로, 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으로, 제5중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했고, 계급도 각각 대령으로 했다. 일반 대원들은 임의로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었다. 최재명 대원은 일등상사 계급장이 큼직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붙였다고 한다.<sup>155)</sup>

#### (나) 장사동 상륙작전과 후방 교란활동

장사동 상륙작전은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군의 반격작전시 적의 퇴로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50년 9월 10일 당시 북한군 2개 사단이 포항과 안강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도록 육본직할유격대를 적 후방에 상륙시키도록 작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하도록 했다.<sup>156)</sup> 9월 12일 부대장이종훈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수령했다고 한다.

- ① 임무: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의 후방을 교란하라.<sup>157)</sup>
- ② 작전 개시일: 1950년 9월 13일
- ③ 보급: 제1군단에서 수령하라. 곤란할 시에는 항공보급을 실시한다.
- ④ 상륙작전대책: 대형 LST를 이용한다. 상륙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상륙지구 전역에 걸쳐 항공기 폭격 및 해군 함포사격을 실시, 적을 섬멸한 다음 상

155)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78-79면, 218면; 김행복, 앞의 책, 44면. 그런데 1951년 4월경 부대장 이명흠 소령은 부하들의 계급사칭을 방지했다는 이유로 대위로 강등당했다고 한다(『이종훈 증언』 1980. 7. 30, 육본 군사연구실). 대원들은 작전개시 후인 9월 18일, 육본 특을 제189호로 정규군으로 입대 명령과 군번이 부여되었다(『육을 제189호』 1950. 9. 18, 군번은 0365427-6157이었다).

156) 『육본작명』 174, 1950. 9. 10, 『한국전쟁사료』 62, 1046면. 영덕-강구전선을 맡았던 제3사단 참모장 공국진 중령은 포항이 실패하자 1개 대대를 흥해 북방에 역상륙시켜 포항북쪽 횡격실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적의 배후를 공격하여 적의 중위(重圍)를 풀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112면).

157) 부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적 보급로 차단을 포함한 적지구에 대한 유격전을 전개하여 아군의 모종작전을 용이하게 하라”고 되어 있다(『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65-66면).

록을 개시한다.

⑥ 전술 고문관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한다.

⑦ 통신: 통신감실에서 12명으로 편성된 무선전신반을 배속받아 국군 제1군단 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군본부와 통신을 유지하라.

1950년 9월 초순 강문봉 작전국장이 장사동으로 상륙할 것을 중용했으나, 부대장 이종훈 대위는 부대원이 모두 학도병이어서 아직 미흡함을 강조했다.<sup>158)</sup> 그러나 이 작전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기만전술로 동해안에서 기습상륙을 감행하여 적을 견제하면서 경인지구에 대한 적군의 증원을 방해하고자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작전은 전쟁전 제1사단 제12연대장이었고 전쟁이후 창설된 ‘유격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전성호 육군대령이 전술 고문으로 작전에 직접 참가했던<sup>159)</sup> 만큼 중요했다.

9월 14일<sup>160)</sup> 명부대는 육군 수뇌부에게 신고를 한 후, 16:00시 부산항 제4부두에서 해군 수송선<sup>161)</sup> LST 문산호(2,700톤)에 승선하여 상륙지점인 장사동을 향해 동해상으로 북상했다. 승선 인원은 4개 중대 규모로 부대장, 육본에서 파견된 통신병 12명 등 772명, 문산호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미군 고문 1명,<sup>162)</sup> 통역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 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28명이었

158) 육본 군사연구실, 『이종훈 증언』, 1980. 7. 30. 강문봉 국장이 9월 초순 장사동으로 상륙할 것을 요구했다면, 8월 말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한미 주요 지휘관에서 인천상륙작전 계획안이 발동되었음을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120-121면), 9월 15일 작전과 연계 가능성이 낮아진다.

159) 함태암, 『전성호평전』,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국방부, 1955, 377-382면; 『한국전쟁사』 3, 647면. 9월 11일 군산은 영국 군함이 군산에 대규모 함포사격을 했고 미 공군이 군산 주변 도로와 철도에 폭격을 가해서 원산과 함께 유력한 상륙작전의 후보였다고 한다. 포항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너무 후방이어서, 당시 해병들은 군산이나 원산이나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강복구, 『철모와 들국화』, 행림출판, 1993, 41-42면)

160) 이종훈 부대장의 수기,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와 『한국전쟁사』 3에서는 9월 13일로 서술되어 있으나(10면, 648면), 14일이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장사동 상륙작전』, 『해군작전사 개설』 1, 해군본부, 2001, 20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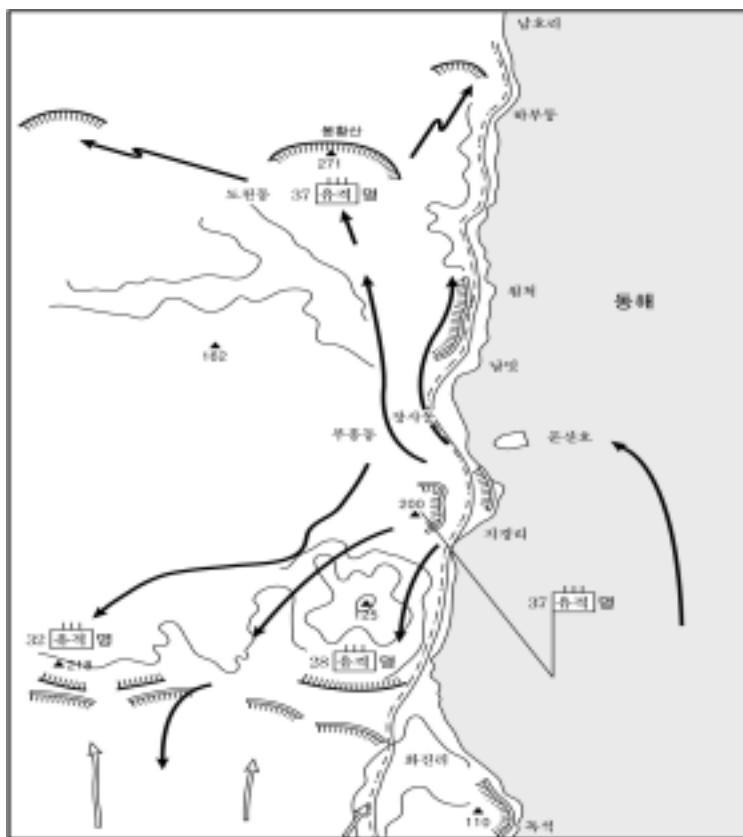
161) 문산호는 대한해운공사 소속이었고 선장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미군 기록에는 한국 상선으로 서술되었다(James A Field, Jr.(김중기의 역), 『미해군 한국전참전사』, 해군본부, 1985, 269면).

162) 기존의 서술에는 선박안내를 맡은 미군 중위로 되어 있으나, 당시 미군(William S. Harrison 중위)은 작전 중 유격대의 고문이었다(Dark Moon, p. 73).

다.<sup>163)</sup> 이 때 영국 구축함 Q-34호가 호위했다.

9월 15일 05시 문산호는 상륙 목적지인 영덕 앞 바다 해상 4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으나, 짙은 안개와 심한 파도로 해안에 닿을 내리기 어려웠다. 안개가 점차 사라지자 때 마침 아군의 상륙을 알아차린 북한군이 장사동 북쪽 신흥동 고지와 남쪽 지경동 고지에서 각종 포탄을 문산호에 집중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선체를 완전히 접안시키지 못하고 해안에서 20~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로프를 타고 상륙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종훈 부대장은 선장실에서 지도를 펴놓고 상륙작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적의 직격탄이 선장실을 뚫고 들어와 미군 장교가 쓰러졌고 선장실의 기기가 파손되었다. 이 때 전성호 대령이 적탄에 대퇴부를

<요도 3-2> 명부대 상륙 및 전개도



163)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9-10면, 80-81면.

맞고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sup>164)</sup>

제37연대장은 갑판 위에 설치한 체코제 수냉식 기관총 12정과 81밀리 박격포 8문으로 적에 대항했으나, 북한의 포격과 높은 파고로 LST가 심하게 동요하여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LST선은 06시경 좌초되었다. 이 때문에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으나,<sup>165)</sup> 유격대원은 상륙했다.

명부대가 상륙할 때 항공지원과 함포지원을 실시한 후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상륙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영국 구축함(Q 34호) 1척만이 함포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의 화력을 제압할 수 없었다.<sup>166)</sup> 이 불리한 상황에서 상륙은 계속되어 오전 9시경 완료되었다.

대원들이 상륙한 후에도 적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다. 제1차로 상륙한 제28연대가 적의 해안 토치카로 돌격하던 중 연대장 이영훈이 전사하고 이어 제1대대장도 전사했다. 이를 목격한 제1대대원들은 다시 돌격을 감행하여 해안 토치카 3개소를 점령 파괴하고 3명의 포로와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 뒤이어 상륙한 제29연대는 200고지 우측으로 우회하면서 장사리 일대의 적 해안진지를 공격하여 적을 소탕했다.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이종훈 부대장은 각 연대에서 2개 대대씩 차출하여 271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상륙작전에서 명부대는 39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했으며, 토치카 파괴 9개소·직사포 2문 및 포탄 450상자·지프 1대·기관총 45정·로켓포 1문·다발총 5정 등을 노획했으나 제28연대장 이하 23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 때 동해안의 피아 전선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9월 16일 19시경 제28연대장으로부터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적의 대부대가 북상해 오고 있으며 제32연대장으로부터는 4대의 적 전차가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이종훈 부대장은 즉각 각 연대를 재배치하여 적과 대전할 준비를 갖추

164) 함태암, 앞의 글, 382면.

165) James A Field, Jr.(김중기의 역), 『미해군 한국전참전사』, 269-270면.

166) 위의 책, 269면.

었다.

적은 9월 17일 06시 박격포와 전차로 선제 사격을 하면서 날이 완전히 밝자 제32연대가 배치되어 있는 218고지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연대가 유리한 지형에서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접전 40분만에 적이 후퇴했다. 후퇴한 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 포격을 한 다음 이번에는 제28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125고지 정면으로 공격을 해 왔다. 적은 이곳에 유격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한 듯했다. 제28연대가 즉각 저지사격을 가하자 적은 다시 물러났다.

대원들은 적군을 일단 격퇴시켰으나 적의 계속적인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본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그러나 SCR 694 장거리 무전기가 파괴되었고,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통신반장까지 상륙작전 때에 전사하여 상급부대와의 연락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적에게 포위되자, 일부 대원들이 투항하지는 주장도 있었으나 부대장은 대원들에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것을 독려했다. 이날 일몰을 기하여 이종훈 부대장은 제28, 제32연대 전 병력을 200고지로 철수시켜 재배치하고 지휘부를 200고지에서 좌초된 문산호로 이동했다.

다음 날인 18일 05시경 220고지에 잔류하고 있던 부대로부터 적이 제3차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18일 09시경에는 적 수색대가 200고지를 향하여 공격하면서 유리한 서남쪽의 능선을 이용하여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했다. 명부대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실탄 및 보급품 부족으로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 점을 감안한 부대장은 약 3시간 동안 전투를 계속한 끝에 이곳에서 철수하여 제1군단의 전투지역인 포항방면으로 남하하면서 적을 공격하여 교란시키기로 했다. 그는 각 연대에게 전투를 중지하고 제28, 29, 32연대 순으로 진지를 철수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하도록 지시했다. 마침 작전지역의 상공을 정찰하는 미군 헬기와 연결되어 미 해군 함대로부터 부대 철수에 대한 지원을 받아 장사리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다.

#### (다) 귀환 후 활동과 부대해체

문산호가 좌초되자, 해군본부에서는 9월 16일 07시 구조선 LT 제1호와 제304

정을 급파했으나 이미 깊이 좌초되어 구조에 실패했다. 구조선 정장은 육군본부에 문산호 상태와 상륙한 유격대원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응원부대를 증파하거나 철수시킬 것을 건의했다. 명부대의 철수 작전은 19일 06시에 LST(조치원호), 볼스터(Bolster)함, 헬레나(Helena)함 등이 문산호 조난지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sup>167)</sup>

해안 접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군 소령 파이드(Frank Pied) 정장의 노력으로 육지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까지 겨우 접근했다. 그러나 별도의 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와 LST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여 승선하기로 했다. 이 때 아군 함대와 항공기에서는 함포사격과 폭격을 가해 적을 견제했으나, 승선시간이 지연되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초 승선 완료시간이 12시까지 예정되었으나 15시가 되었는데도 승선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박격포탄과 소총탄이 LST 주위와 함상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전사하고 미군 장교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직 마지막 지상 엄호부대인 제29연대 제5대대 30여 명이 지상에 남아 있었으나, LST 함장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LST가 손상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승선을 중지하고 장사동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대원 640명을 승선시킨 LST는 9월 20일 새벽 2시경 무사히 부산항에 귀환했다.<sup>168)</sup>

명부대는 장사동 해안에 상륙한 이후 단 며칠 동안의 작전을 하면서 1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작전은 특수훈련과 장비로 무장된 미군 공수부대나 특공부대만이 해낼 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sup>169)</sup> 그러나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장비와 보급 지원도 없이 북한군 제2군단의 주 보급로인 포항·영천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차단해 그들의 후방활동을 견제하는 한편, 포항·경주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했던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방면으로 유인함으로써 국군의 반격작전에 기여했다.<sup>170)</sup>

167) James A Field, Jr.(김종기의 역), 『미해군 한국전참전사』, 270면.

168)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1-12, 해군본부, 2001, 190-194면.

169)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112-113면.

170) 이종훈, 『군부의 대의옥사건』, 1987. 4. 10, 6면, 육본 군사연구실; 김행복, 앞의 책, 85면; 『한국전쟁사』 3, 650면; *Dark Moon*, p. 73.

귀환 후 명부대는 정규군 200명을 더 보충받아 반격작전에 참가했다. 안동에서 보국대 계통의 강창남 소령이 부대를 지휘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문이정 중령, 다시 이명흠 부대장이 지휘했다. 4차에 걸친 부대장의 교체와 이종훈 부대장의 부상,<sup>171)</sup> 수 차례의 부대개편으로 대원들이 여러 부대로 흩어졌다.<sup>172)</sup>

1980년 참전 대원들은 전우회를 결성하고, 1991년 9월 영덕군 장사리에 ‘장사상륙전 전몰용사 위령탑’을 건립했다. 상륙작전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4일 민·군합동 위령제를 지내 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 (2) 결사유격대

### (가) 부대 창설 배경과 편성

정보국에서 편성한 유격대는 결사유격대가 대표적이다.<sup>173)</sup> 1951년 1월 정보국에서는 대구 달성 초등학교에 있던 ‘제7훈련소’를<sup>174)</sup> 통해 전투정보 장병과 유

171) 이명흠 부대장은 1950년 12월 10일, 육군 정훈 제1대대장으로 옮겼다(육군 정훈제1대대 부대약력표, 육본 군사연구실).

172) 육본 작전참모부 편제과, 『명부대에 관한 군편제명령사본』, 1962. 8. 3. 1951년 3월 미 제8군에서 동해안 연안지역의 확보를 위해 커크랜드 부대를 창설할 때, 육군본부의 동의로 약 200명이 선발해서 울진에 본부를 두고 태백산지역의 좌익계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육본 참모들은 명유격대가 장사동상륙작전의 실패이후 이 유격대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 제8군에 쉽게 이관했다고 한다(*Dark Moon*, pp. 72-75; *In the Devil's Shadow*, p. 50). 그러나 대원들 가운데 30여 명은 제3군단 사령부로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2사단 제31연대와 제32연대로 재편되었으나 커크랜드부대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종훈 증언』, 1980. 7. 30, 육본 군사연구실; 이남표 증언, 2003. 10. 21; 배수용·이영식 증언, 2002. 11. 12, 2003. 12. 9;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18면).

173) 결사유격대는 전쟁 당시를 비롯해 그 동안 유격대로 인식해 왔다. 즉 작전명령에서도 “戰局이 증대함에 비추어 강대한 무장유격대를 조직하여 此를 적진지에 각 요소에 침투하여 ……”라면서 ‘무장유격대’ 임을 명시했고, 정보보고서에서 ‘아유격대 제11연대 제1대대 제3중대장’의 진술을 언급했으며 결사유격 제11연대의 경우, 1951년 5월 1일 육군참모장 정일권 중장이 수여한 표창장에는 ‘결사유격 제11연대’로 명기되었다(작명 제4호, 1951. 2. 3.; 육본 정보국, 『정기정보고서』 93, 1951. 4. 3, 『한국전쟁사료』 1, 1985, 1050면; 전 인식, 『백골병단』, 대한유격동지회, 1988; 김한철, 『마지막 침투한 대북유격대의 활약상』, 19면). 그러나 당시 제11연대장 채명신이나 전우회에서는 작전 지역 현지 주민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단기작전을 수행했으므로 유격대보다는 특수임무부대 혹은 각 군단에 편성되어 있는 특공연대와 같은 특수작전부대의 성격임을 강조했다(채명신, 앞의 책, 248면; 채명신(예, 중장) 증언, 2002. 10. 29; 전인식, 『추모사』, 2003. 6. 5).

격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육본 작전국 편제과(과장 이근양 중령)의 협조를 받아 결사유격대를 새로 창설했다.<sup>175)</sup> 당시 서해안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출신 무장대원들을 규합하여 편성할 수 있었으나, 육군 본부와 가까이 있던 육군보충대의 병력을 대상으로 했다. 마침 대구 육군 보충대에 소집된 6,000~7,000여 명의 예비병력 가운데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체력·학력·사상 등을 기준으로 차출하여 유격전 훈련을 시켰다.<sup>176)</sup>

결사유격대는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제15연대, 제16연대 및 특별대 등의 순서대로 편성되었다. 유격대 명칭 가운데 결사유격 제11연대로 시작된 것은 채명신 중령이<sup>177)</sup> 38선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했던 제11연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sup>178)</sup> 각 연대의 규모는 육군 중앙문서관리단 자료에 의하면, 제11연대 360명, 제12연대 360명,<sup>179)</sup> 제13연대 194명,<sup>180)</sup> 제15연대 194명, 제16연대 297명, 특별대 24명 등 총 1,430명에 이른다.<sup>181)</sup> 이 규모는 교육수료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보학교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제11연대는 349명, 제

174) 제7훈련소는 1950년 9월 11일, 육본직할로 경남 진해에서 창설되었다(국일명 육 제7호). 1951년 1월 27일 정보국 소속으로부터 제7훈련소로 개칭되었다는 기술도 있다(육본 정보국각서 제 24호).

175)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29-31면.

176)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건설연구사, 2003, 24-27면; 한무협(예, 소장)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언자료집』, 2004, 발간 예정.

177) 당시 정보국에서는 유격대 지휘관을 현역으로 임명하는 데에 부담으로 여겼으나, 부대장 가운데 제11연대만 현역인 채명신 중령으로 임명된 배경은 그가 좌익빨치산 토벌 경험이 풍부한 외에, 김창룡 특무대장이 그가 제8사단 21연대 1대대장(소령)으로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포위되자 탈출(자신과 연락병 2명)하여 1951년 1년 초 아군지역으로 귀환했으므로 그를 적진에 침투시켜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33면).

178) 채명신, 앞의 책, 213면.

179) 대원이 216명이라는 진술도 있다(결사유격제12연대장 이두병, 『부대개황』, 1990. 6, 김한철, 앞의 책, 336-337면).

180) 제13연대 부대원 수가 136명이라는 주장도 있다(김한철, 앞의 책, 317면).

181) 결사제11연대 363명(채명신 중령 포함)과 제12연대 330명, 제13연대 124명 등 817명과 후속 제15연대 124명, 제16연대 330명, 특별연대 34명 등 488명을 모두 합하면, 1,305명이라는 주장도 있다(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37면). 11연대의 규모도 200명 정도라는 기술도 있다(육본, 『백골병단』, 117면, 123면).



12연대는 361명, 특별대 36명 등으로 나타나 있다.<sup>182)</sup>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제7훈련소’에서 연대별로 실시되었다. 당시 채명신 중령은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4주에서 8주간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실제로는 3주 정도의 무장첩보와 유격전 교육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간부들에게 독도법을 가르칠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sup>183)</sup> 교육 훈련은 제11연대가 1951년 1월 하순에 끝났고, 제12연대는 2월초, 제16연대와 특별대는 3월초에 끝났다. 이때 제7훈련소 부교장이던 문중섭 소령이 총괄하고, 강창남 소령이 북한군의 동향·군사노선·전략 등을 단기간에 걸쳐 주입식으로 가르쳤으며 최덕연 중위는 침투훈련교리를 맡았다.<sup>184)</sup>

피복과 장비는 이후락 정보국 차장과 이극성 중령이 구해 담당했다.<sup>185)</sup> 군복은 북한군 피복을 모방하여 누비바지로 된 방한복으로 특별히 제조한 것 같았다고 한다. 무기는 북한군이 쓰던 소련제 장총과 기관단총 등 노획한 무기를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대원들은 왜 북한군 병기를 주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대원들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1951년 1월 25일자로 대통령 명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신성모 명의의 임관

임관사령장

182) 교육사령부, 『백골병단 참전전우회 자료확인 요청 회신』 2002. 6. 27.

183) 채명신, 앞의 책, 212-214면; 전인식, 앞의 책, 27-30면. 그런데 제11연대는 10일간 혹은 2주일간, 제12연대는 16일간 교육을 실시했다는 자료도 있다(교육사령부, 『백골병단 참전전우회 자료확인 요청 회신』, 2002. 6. 27; 육본본부, 『백골병단』, 133면).

184)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32면; 전인식, 『임진강에서 내설악까지』, 건설연구소, 1991, 30면. 문중섭 소령은 1951년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민방위군 소속이었다(『육군장교자력표』).

185)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32면;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45-46면.

사령장을 받았다. 그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던 육군준장 이한림 장군이 계급장을 수여했다. ‘민간인’ 이상섭과 신의순 등 124명에게 GO 1001번부터 1124번까지 ‘임시보병소령’부터 ‘임시소위’ 계급이 수여되었다. 사병은 병장으로부터 중사까지 G(Guerrilla) 군번을 부여받았다.<sup>186)</sup> 대원들이 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계급이 차등 있게 부여된 것은 중·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대했기 때문이었다.<sup>187)</sup>

채명신 중령은 북진 당시 평북 영원지방까지 북진한 제8사단 제21연대 제1대 대장으로 진격했으나 중공군에게 포위되자 연락병 2명과 함께 탈출하여 1951년 1년 초 아군 지역으로 귀환한 뒤 결사유격 제11연대 유격대장을 자원,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sup>188)</sup> 제12연대장은 임시 소령 이두병이었고, 제13연대장은 임시 대위 김한철이었다. 연대 편제상 특징으로 제11연대의 경우 직할대로 수색대가 있었고, 3개 소대를 1개 중대로 하고 3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성하였으며 대대에 참모진을 두어 독립작전을 할 수 있었다.<sup>189)</sup>

#### (나) 주요 전투

결사유격대 가운데, 제15연대는 1951년 2월 하순 부산항을 떠나 목호항에 내려 오대산과 흘령산 지역으로 북진할 예정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제16연대(연대장 임시대위 최성진)와 특별대는 공비토벌을 위해 선의산으로 출동할 예정이었다.<sup>190)</sup>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고찰할 수 없

186) 국본특별명령(육) 제22호 추가 1; 국방장관 신성모, 『임관사령장: 전인식』, 1951. 1. 25; 채명신, 앞의 책, 213면; 『한국전쟁과 유격전』, 88면. 그런데 3주간 정도의 교육 훈련으로 장교계급을 부여했던 점은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다.

187) 임시 군번이 부여된 것은 정보국에서 문관 T/O를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31면, 36면), 생존 대원들은 ‘군인 아닌 군인’으로 처리된 데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정식 계급으로 처리되었다.

188) 당시 정보국에서는 유격대 지휘관을 현역으로 임명하는 데에 부담으로 여겼으나, 부대장 가운데 제11연대만 현역인 채명신 중령으로 임명된 배경은 김창룡 특무대장이 채 중령이 적진에서 귀환했으므로 그를 적진에 침투시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육본 정보 내발』 51, 『장교자력표』;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991. 6, 33면).

189)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41-42면.

190) 『조직도표』, 날짜없음. 그러나 제15연대는 적후방으로 침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었다.

훈련을 마친 결사유격대는 1951년 1월말부터 4월초까지 60여 일간, 강원도 영월·평창·양양·인제 등지의 적 후방에서 활동했다. 부대 임무는 적 연락장교 생포·지휘소 습격·애국청년포섭과 기밀문서 획득·생산기관파괴 및 교란·보급로 파괴·적의 투항 및 귀순 공작·첩보망 구축·민중조직 확대 등이었다.<sup>191)</sup> 대원들이 출동할 때, 육해공군 총참모장 소장 정일권·제1군단장 준장 김백일·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미 제8군 군사고문단 하우스만 중령·이극성 중령(미 제8군 정보연락장교단 단장) 등의 사열과 훈시가 있었다.<sup>192)</sup>

결사유격대는 1951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각 부대별로 활동했다. 그 후 20일 적이 점령 중에 있는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퇴곡리 일대에 3개 연대가 집결하자, 채명신 중령은 육군본부 지시에 의하여 결사유격대 3개 연대 병력<sup>193)</sup>과 사기막리 및 퇴곡리에서 자원 입대한 여성 및 청·장년 15명을 규합해 부대명을 ‘백골병단’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조치였다.<sup>194)</sup>

그러나 결사유격 제13연대장 김한철은 ‘백골병단’이 통합부대명이 아니라 제11연대를 개편한 것으로 주장하여,<sup>195)</sup> 전투 경과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2월 20일

191) 육본 민사감실, 『조직도표』 날짜 없음, 육본 중앙문서관리단, 결사유격제12연대장 이두병, 『부대 개황』, 1990. 6, 김한철, 앞의 책, 336-337면.

192) 정일권 장군이 출동하기 전에 “유엔군도 여러분에게 기대가 큼니다…… 만일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계급은 지금 그대로 현역계급으로 전환함은 물론 1계급 또는 2계급 승진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훈시했다(채명신, 앞의 책, 213-214면).

193) 그 규모에 대해 500여 명 혹은 647명이라는 주장이 있다(채명신, 앞의 책, 218면;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2003, 266면).

194) 백골병단 참전전우회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백골병단 전적비’에서 매년 10월 15일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195) 제12연대는 ‘인민군 제12사’, 제13연대는 ‘인민군 제8사’라고 호칭하다가 ‘동해지구유격대사령부’로 불렸다고 한다(김한철, 앞의 책, 19-22면). 이에 대한 반론은 『백골병단전사』에 자세하다(249-252면). 그런데 1951년 2월 3일자 작전명령 4호 8항에서 “육군 ○○○은 통합지휘관으로서 부대 전체를 지휘 장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명령 수령자가 제12, 13연대가 아니라 제13, 15연대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연대의 귀환 후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장군 명의의 표창장에서 각 연대별로 처리되었다. 채명신 장군의 자력표에는 부대명을 유격대대로 표기했다(육본 정보 51).



정일권 육해공군 총참모장  
결사유격 제12연대 사열  
(1951.2.7)

전까지 개별부대의 전과를 살펴보고, 그 후는 주요 전과를 간단히 서술했다.<sup>196)</sup>

결사유격 제11연대는 1951년 1월 30일 새벽, 연대장 채명신 중령의 인솔 아래 대구 육군 제7훈련소를 떠나 군용트럭을 이용하여 같은 날 밤 8시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위치한 국군 제7사단 전방지휘소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 추가적인 보급을 지원 받고 31일 새벽<sup>197)</sup> 적진 후방으로 침투했다.

2월 10일 하진부리 부근에 도착한 결사유격 제11연대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명신 연대장 지휘 아래 제3대대장 이창식 대위, 대대 보급관 권영철 중위와 이남학 소위 등 3개 소대 병력을 제2방어선상인 하진부리에 투입시켰다. 이곳에서 연대는 적의 통신가설병을 비롯한 34명을 생포하고 식량을 획득한 후 진로를 수정하여 대관령을 넘어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식량 조달이 어렵자 사천면 사기막리로 북진해 쌀 20여 말과 소 3마리로 식량을 마련한 후 퇴곡리로 북상했다.

결사유격 제12연대는 1951년 2월 4일<sup>198)</sup> 연대장 이두병 임시 소령의 인솔 아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를 떠나, 경주-포항-삼척-목호에 도착했다. 2월 6일 명주군 강동지서 앞에서 출동신고를 하고 장비 및 탄약, 식량 등을 수령하여 동

196) 이하 전투활동은 『한국전쟁과 유격전』과 전인식의 주장을 주로 정리했다.

197) 2월 3일 침투를 시작했다는 기술도 있다(『채명신 유격대(백골병단)의 사투』, 육본, 『소부대전례』, 1981, 40면).

198) 2월 1일 출발했다는 진술도 있다(결사유격제12연대장 이두병, 『부대개황』, 1990. 6, 김한철, 앞의 책, 336-337면).

일 22시경 강릉의 적 후방으로 침투했다.

2월 7일 강릉시내에 진입한 제12연대는 강릉시내에서 일부 패잔병을 소탕하고 9일에 구정방면을 거쳐 대관령을 넘어 평창군 도암면으로 이동했다. 도암면을 출발한 연대는 2월 12일 수색정찰 중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정찰조장 송세용과 분대장 안병희·이익재 등 9명은 적 11명을 사살했으나 이등중사 이재성 등 3인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고 속사리 방면으로 퇴각했다.

제12연대는 속사리에서 월정사 방면으로 진로를 수정하고 동북쪽으로 이동 중 두일리 방면에서 북한군 제15사단 예하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참모장 장철익 대위와 수색대장 김익환 소위, 소대장 조병설 등 50여 명이 계곡에 매복했으나 그들의 공격이 완강하여 부득이 월정사 방면으로 철수했다.

그 당시 적의 주 저항선이 오대산 남방인 황병산(1407고지), 계방산(1577고지) 선상이었으므로 연대는 도처에서 적의 주력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대는 이곳을 탈출해서 적진 배후로 침투하기 위하여 2월 17일 주문진 어성동 전투와 21일 고교전투에서 북한군 제7사단 1개 연대를 상대로 교전하여 타격을 입혔다.<sup>199)</sup>

결사유격 제13연대는 1951년 2월초<sup>200)</sup> 연대장 김한철 임시 대위의 인솔 아래 대구소재 정보학교를 떠나 부산으로 갔으나 폭풍우로 2일간 대기한 뒤 수송함(LST)으로 강원도 삼척군 묵호항에 도착했다. 대원들은 최종 목표인 어은산을 향해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정선군과 양양군을 피해 중간지역인 인제군 쪽으로 침투했다.<sup>201)</sup> 이들도 주간에 자고 야간에 행군하면서 만난 빨치산들을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sup>202)</sup>

199) 육군참모장 정일권, 『표창장, 결사유격제12연대』, 1951. 5. 2.

200) 2월 2~3일경 대구를 출발하여 2월 5일, 부산항에서 출동했다는 주장(김한철, 앞의 책, 39-43면) 외에, 11일 혹은 13일 출동했다(대한유격전동지회, 『백골병단 전사』, 91면;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84면)는 기술도 있다.

201) 침투경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202) 1951년 2월 하순 이후 제13연대는 간성지구 군수병참기지와 양양군 송암산 동편 해안도로에서 북한군 군수병참물자 수송차량 22대를 기습하여 파괴했고,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북한군 제5사단 병력을 공격하여 타격을 입혔다고 한다(김한철, 앞의 책, 304-305면).

1951년 2월 이후 주요 전투는 설악산(DT5318) 지역에서 북한군 제69여단 기밀 문서 노획과 길원팔 빨치산 지대장의 생포였다.<sup>203)</sup> 2월 28일 북한 제69여단 정치군관 중위·대위·특무장 등 4인을 생포하면서, 제69여단장이 제2군단장(최현)에게 보내는 1급 기밀문서를 노획했다. 문서 내용은 제69여단의 병력 손실이 많아 5,000명 수준이며, 여단 사령부와 군단사령부의 위치가 나타나 있었다. 이를 3월 4일경 육군본부에 보고함으로써 아군이 북한군 제69여단을 공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군량발에 진주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 제5유격지대장 길원팔<sup>204)</sup>과 그의 참모장인 강철성 총좌를 비롯하여 내무서원·자위대원·연락병 등 50여 명과 부락 인민위원장·민청위원장·세포위원장 등을 생포했다. 특히 길원팔과 강철성 북한군 총좌는 제13연대에서 식량확보를 위한 수색정찰 중<sup>205)</sup> 생포했다. 길원팔은 김일성의 “전선사령관에게 고함”이라는 지령문과 암호·난수표·조직편성표 등 가치있는 정보문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19일 새벽에 생포된 길원팔의 비서인 여군관 1명이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자 생포자 중 소년과 소녀를 제외하고는 사살했다.<sup>206)</sup>

적 빨치산 제5지대 사령관의 생포이후 적의 추격을 피해, 유격대는 군량발에서 망대암산을 경유하여 백담사 입구 외가평을 지나 3월 23일 새벽 4시경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이르렀을 때, 적의 대부대가 남하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한밤중에 적의 대병력과 조우하게 된 유격대는 결사유격 제 11연대 병력

203) 그런데 결사유격제11연대에 수여된 표창장에 따르면, 주요 전과는 3월 4일 퇴곡리전투와 3월 29일 사기막리전투이다.

204) 길원팔 유격부대는 아군이 북진할 때 낙오된 패잔병을 수습하여 재편한 것으로, 그 병력이 한 때 1개 사단 규모에 이르는 1만 명이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하순 국군 제9사단 제29연대 제1대대가 이들을 기습해 약 300명을 전멸시켰고, 이듬해 1월 중순 제3군단(군단장, 유재홍)이 적 제2군단과 길원팔 유격부대를 포위하여 많은 병력을 사살함으로써 길원팔의 제5유격지대는 약화되었다(『민간인첩보로 적 1개대대를 섬멸』, 육군본부, 『전사연구』 11, 1979, 341-346면; 『공비연혁』, 343-344면;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사』 1, 1982, 51-65면; 손규석, 『6·25전쟁 영웅』,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8면).

205) 대한유격전동지회, 『백골병단 전사』, 118-121면. 채명신은 제11연대와 13연대의 200여 명으로 하여금 군량발을 포위하여 생포한 것으로 기술했다(채명신, 앞의 책, 225-227면).

206) 전인식, 『적진 800리의 혈투』, 116-125면; 채명신, 앞의 책, 220-227면.

으로 하여금 적의 진로를 견제하게 하고 이틈을 이용하여 나머지는 남방 862고지 계곡을 지나 백담사 방면으로 우회하기로 진로를 수정했다. 이 작전은 결사 유격 제11연대 제1대대가 60여 명을 사살하는 등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아군의 손실도 커서 1대대 윤희 소위를 비롯하여 40여 명이 희생되었다.

1951년 3월 30일 15시경 유격대원들은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전면으로 귀환했다. 귀환한 병력은 결사 제11연대 170여 명, 제2연대 40여 명, 제13연대 50여 명 등 모두 260여 명이었다. 대원들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4월 1일 강릉에 도착했다.<sup>207)</sup> 강릉으로 돌아온 며칠 뒤 전선에서 분산 또는 낙오되었다가 살아 돌아 온 전우 20여 명이 합류하여 전체 생존자의 수는 283명으로 늘어났다. 귀환자의 수가 적었던 이유는 대원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주일 분의 미숫가루와 40~50말의 탄약 외에 식량과 탄약 등이 추가로 전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3개 유격대를 거의 동일지역에 침투시킴으로써 현지에서 보급 확보마저 용이하지 않았다.<sup>208)</sup>

1951년 4월 15일부로 육군본부에서는 제11연대, 13연대, 15연대, 16연대, 특별연대, 17연대, 18연대 등의 작전 및 행정을 모두 미 제8군사령부 해리슨(William E. Harrison) 중위의 지휘하로 편입시켰다.<sup>209)</sup> 그 후 1951년 7월 25일부로 육본에



결사유격 제11연대 제3대대  
생환장병(1951. 4)

207) 제13연대는 4월 9일 귀환했고, 전사자 수가 56명이므로 그 병력도 80명이라고 한다(김한철, 앞의 책, 299면, 301-302면).

208) 김한철, 앞의 책, 310-311면; 전인식, 『백골병단전사』, 1993, 220면.

209) 『육본 지령 제17호』, 1951. 4. 15, 『한국전쟁사료』 65, 육본, 1988, 1074면. 그러나 전우회에서 제17연대·18연대의 합류사실을 부인했다.



커그랜드부대 제대증  
(전인식, 1951. 6. 28)

서는 동해지구유격대(구유격 제16연대, 198명)를 8월 1일까지 주문진으로부터 포항으로 이동하여 제5군단에 배속토록 지시했다. 8월 25일에는 추가로 27명이 제5군단에 배치되었다.<sup>210)</sup>

### 3. 일선부대의 유격대

가.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sup>211)</sup>

#### (1) 창설배경과 부대편성

육군 제1사단 정보처에서는<sup>212)</sup> 사단의 주 작전 대상지역인 황해도 연백, 경기

210) 『육본 지령 제35호』, 1951. 7. 30, 『한국전쟁사료』 65, 육본, 1988, 1113면; 『육본 지령 제40호』, 1951. 8. 15, 같은 책, 1123면; 『육본 지령 제43호』, 1951. 8. 23, 같은 책, 1129면.

211) 제5816부대는 1950년 4월 1일부터 육군 제1사단의 통상명칭이었다(『부대약력표』). 이 부대사는 육군제5816부대유격전우회의 『청원서』(1984. 7. 13, 1985. 10. 7), 『한국전쟁과 유격전』 등과 증언을 참고했다.



도 개성·개풍 지구에 포진하고 있는 적의 주력을 측면에서 분산 약화시키고 적정을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화도에 유격대 창설을 계획했다.

당시 강화도와 교동도에는 중공군 개입이후 이곳 반공청년들과 북한지역에서 탈출한 청년들로 강화향토 방위특공대, 해군 교동특공대 등이 결성되어 자체적으로 향토 방위 및 치안유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sup>213)</sup> 그러나,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유대결여와 보급물자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1951년 2월 28일<sup>214)</sup> 제1사단 정보처의 주선으로 안일채(安日彩) 임시 중위와 이인탁·박봉룡·이형신·이근학·장현일·최광순 등 공작원들이 강화읍 관청리 한 민가에 진주하여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를 조직 편성했다. 당시 ‘국군 특수부대’로 알려지기도 했다.<sup>215)</sup> 안일채·이인탁·장현일 등은 유엔군 북진시 평안북도 박천에서 치안대활동을 했고, 박봉룡과 이근학도 각각 정주, 용천출신이었다. 이들은 1·4후퇴 후 제1사단으로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sup>216)</sup>

이 때 모집된 유격대원들은 현지 반공청년들과 1·4후퇴 때 개성과 연백지역을 비롯해 평안도, 황해도지역에서 강화도로 피난 온 청년들이었다. 일부 연백출신은 을지병단으로 간 경우도 있었다.<sup>217)</sup> 송도 중학생인 박창근, 황주 농업중학

212) 사단 사령부의 명령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에서 임의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당시 제1사단장을 역임했던 백선엽, 강문봉, 박임항 등 부대 간부들은 유격대의 투쟁사실을 확인했다(1983. 8).

213) 채명신, 앞의 책, 210면.

214) 그러나, 강화경찰서장 김연화의 『감사장』(1953. 3. 1)에는 부대의 창설일을 3월 1일로 명기했다. 박봉룡, 정도현 등도 3월 1일로 주장했으나(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경고문』 1989. 5. 1), 1950년 8월 25일부터 주장한 경우도 있다(임원빈, 2003. 5. 20).

215) 『동아일보』, 1951. 4. 9; 남정욱 증언, 2003. 11. 17. 제1사단 부대약력표에는 대구, 경주 중고등학교 학생 56명을 학도병으로 입대시켜 사단직할 수색대를 창설한(1950. 8. 4) 기록과 사단직할대로 사단보충대를 창설(1951. 4. 5)했다가 해편한(1951. 8. 12) 기록은 있지만, 유격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전쟁 당시 제1사단에서 육본에서 보고될 때에는 유격대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육본 작전일지』, 1951. 3. 18, 『한국전쟁사료』 1048면). 또한 제1사단 역사에는 유격대 창설과 작전활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보병 제1사단, 『전진역사』, 1966).

216) 백선엽 장군 증언(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실, 2003. 3. 12); 율백 1부대 부관 이인탁 증언(연구소 회의실, 2003. 3. 19);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 668면. 전우회에서는 그들이 사단 정보처에서 공작원으로 근무했다고 기술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217) 이달환(예, 대령) 증언, 2003.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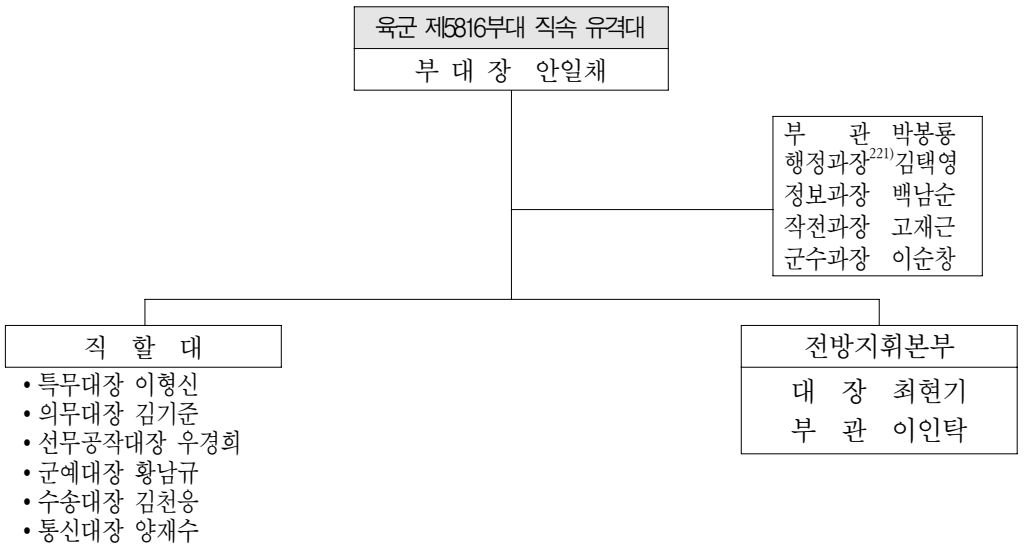
생 이달환 등 학생들이 많아 ‘학도유격군’이라고 한 적도 있었다.<sup>218)</sup>

이 외에 수원지역에서 첩보교육을 받았던 김영숙·남정욱 등 57명이 합류했다. 남정욱은 경기도 양주군 출신으로 피난도중 안성에서 첩보지대에 의해 선발되어 용인지역에서 김동석 대위에게 군사첩보 교육을 받고 수원으로 이동했다. 이 때 각 출신지역 별로 적 후방지역에 공중투하 될 계획이었으나, 안일채 부대장의 인솔아래 갑자기 강화도로 이동하여 편입되었다고 한다.<sup>219)</sup> 이들을 규합하여 유격대 제1지대(지대장 이인탁)가 조직되었다.

1951년 3월 중순 부대장은 불음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현기와 만나 작전지역이 같은 제1사단 관할지역이므로 통합할 것에 합의했다. 그가 대원 400명을<sup>220)</sup> 데리고 오자, 3개 중대로 재편하여 전방 지휘본부를 따로 만들었다.

부대본부의 편성상 두드러진 특징은 선무공작대와 군예대의 존재이다. 유격전과 병행하여 심리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대장은 선무공작대를 편성했다. 선무공작대 대장은 전쟁 전 미술교사였던 우경희가 맡고, 만화를 잘 그렸던 임영의·

<부대 편성 및 지휘관>



218) 전우회, 『학도유격군명단』, 1993, 육본 군사연구실. 안일채 부대장은 당시 41세였다.

219) 남정욱(WP-1 정보과 근무) 증언, 2003. 11. 17.

220) 500명이라는 기술도 있다(최현기, 『전투일지』, 강화문화원편, 『강화사』, 1976, 363면).

221) 당시 용어는 과장보다는 관이었다는 주장도 있다(이인탁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3. 3. 19).

이상철 등이 참가하여 부대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유격주보」를 발행해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군예대에는 후에 ‘노란사쓰 입은 사나이’, ‘방랑 김삿갓’을 불러 유명한 한명숙·명국환 등이 대원으로 활동하여 대원은 물론 현지 주민이나 해병대와 영국군에게 위문공연을 했다.<sup>222)</sup> 또한 부대편성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참모아래 보좌관이 있어서 정보참모 보좌관 전명덕이나 작전참모 보좌관 임원학 등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역할이 컸다고 한다.

1951년 5월 10일 대원이 점차 늘어나면서<sup>223)</sup>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전방지휘본부를 해체하고 3개 대대와 중화기 중대로 확대 개편했다. 제1대대(대대장 최현기)와 제2대대(대대장 이관소)는 전투대대로 해안경비임무를 맡고, 제3대대(대대장 김택군<sup>224)</sup>)는 교육대대로 보충대 역할을 했다. 1951년 6월 8일 제1대대 제1중대(중대장 조명휘)와 특별소대 병력을 영국군 제26여단의 수색중대로 파견했다가, 6개월 정도 근무한 후 원대 복귀했다고 한다.<sup>225)</sup>

미군 편입 전 부대의 보급사정은 제대로 군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을 할 때에도 실탄이 넉넉하지 못해 5~6발 정도 지급되었을 뿐이었다. 부족한 식량은 부대 주둔지역 마을을 통해 식량을 보충했다. 이 과정에서 강화도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유격대의 민폐를 호소하기도 했다.<sup>226)</sup> 또한 북한지역 작전을 통해서 대원의 보급을 조달한 경우가 많았다. 모자라는 보급을 메꾸기 위해 안 부대장은 대원들에게 훈시할 때, “북한군과 중국군이 우리의 보급창고”라고 강조했다.<sup>227)</sup>

그런데 북한지역의 작전을 통해서 노획한 인삼·담배·소금 등을 처리한 과정

222) 우경희는 미 극동사령부에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전후 주요 일간지의 연재소설 삽화로 명성을 날렸고, 임영의도 만화가가 되었다. 안성일, 『잃어버린 어머니의 얼굴』, 『골든 에이지』 1996. 12, 95면; 김우중, 『개성사람 우경희 화백』, 『송도』 1998. 3, 20면; 조은정, 『한국전쟁기 남한 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3, 2002년 겨울호, 184-187면.

223) 재편 시기가 6월 26일이고, 대원의 규모는 1,200명이 넘었다는 주장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224) 『청원서』 1984.7. 임원빈이 제3대대장이었다는 주장도 있으나(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청원서』, 1985. 10. 7), 그는 이를 부인했다(임원빈 증언, 2003. 5. 26).

225) 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남정욱 증언, 2002. 9. 6; 이인탁 증언, 2003. 4. 25.

226) 강종진 증언, 강화 교동도, 2002. 9. 7; 김명환, 『실제 체험기』, 1998.

227) 임영의(필명 임수) 증언, 2003. 4. 4.

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보급관 김상윤이 사망하기도 했다.<sup>228)</sup> 이후 안일채 부대장과 그를 따르던 조명희·이근학 등이 이탈하여, 나중에 초도로 가서 안용부대를 새로 창설했다.<sup>229)</sup>

1951년 7월<sup>230)</sup> 유격대가 육군 제1사단에서 미군 제8086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sup>231)</sup> 미군으로 편입되었던 이유는 유격대가 제1사단에서 임의로 편성되어 운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제8086부대가 주한극동군사령부 연락처(제8240부대) 소속의 울팩기지가 창설되면서, 울팩 제1부대가 되었다.<sup>232)</sup>

1981년 6월 전우회에서는 강화도에 ‘반공유격용사위령탑’을<sup>233)</sup> 건립해서 매년, “우리의 하나 하나, 어둠 속에 켜진 불꽃, 직위도 명예도 나에게, 그 무엇이라, 자유대한 지키는 아~유격대”라는 노래<sup>234)</sup>처럼, 당시 전우의 뜻과 전사자를 기리고 있다.

228) 이규학, 『추억』, 1953, 95면, 103면; 임영의 증언, 2002. 8. 29; 임원빈 증언, 2003. 5. 20; 『서울신문』, 1984. 6. 24.

229) 『안용부대 8240편성표』, 정부기록보존소; 임원빈 서신, 2003. 5. 17. 이인덕 등은 동해안의 토치라이트부대로 갔다.

230) Commanding 2nd PIR, “Memo”, Nov. 30, 1953, 임원빈 제공문서. 그런데 울팩 제1부대장 임원빈에 대한 공적서에 의하면, 1951년 5월 19일부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임원빈』, 1952. 10. 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 같은 문서철. 그러나 1951년 11월 미 제8군의 요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기술된 경우도 있지만(안일채, 『제5816부대 직속유격대전투사』, 1983. 11. 9,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178, 5면; 육군 제5816부대 유격군전우회, 『전사수록에 관한 건』, 1985. 10. 7, 육본 군사연구실), 미 제8240부대로 편입된 시기를 의미한 것 같다.

231) 그런데 제1사단 15연대에서 정규군 병력가운데 차출해 유격중대를 운용했다(『연대 전투일보』, 1951. 8. 21-12. 31, 『한국전쟁사료』 106).

232) Lt. Col., Stanley E. Bease, Commanding 2nd PIR, UNPFK, “Memo”, Nov. 30, 1953(임원빈 부대장 소장).

233) 이 부대는 육군 제5816부대유격대에서 강화독립부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우들 가운데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과 갈등이 있다. 건립당시 ‘강화독립부대(8240)’를 강조했으나, 후에 ‘육군 제5816부대유격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994년의 위령제 행사에서는 ‘육군 제5816, 8240부대 유격군전몰용사 위령제’와 같이 병기하여 표시한 적도 있다(『송도』, 1994. 5, 16-17면).

234) 안일채, 『제5816부대직속유격대 전투사』, 1983. 11. 19,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178. 불꽃 대신에 촛불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1951년 4월 군·관·민 친선축구대회 후(1951. 4)  
좌측 후열 4번째부터 최현기(제1대대장), 안일채(부대장), 이관소(제2대대장) 등

## (2) 주요 작전 활동

유격대의 작전구역은 경기도 황해도 연백군, 경기도 개성시와 개풍군이였다. 선무공작대의 성과에 의해 중공군 문화소대장 서춘발이 ‘귀순권고전단’을 지참하고 귀순한 적도 있었지만,<sup>235)</sup> 주요 전과는 피난민 구출과 적진 상륙작전이였다.

1951년 3월 18일 밤 실시한 제1차 봉화가미 상륙작전은 부대 편성을 완료한 후 첫 작전이였다.<sup>236)</sup> 이 작전은 적정탐지 및 난민구출이 목적이였다. 안일채 부대장과 제1지대 지대장 이인택은 대원 150명을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포구에서 범선 14척에 분승시켜 연백군 온정면 봉화리(烽火里)로 상륙하도록 했다.<sup>237)</sup> 대원들은 효정리와 천북리까지 침투했으나, 남하 중인 북한군 제8사단 정찰병력과 교전했다. 그러나 적의 병력증원으로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 편

235) 임원학, 『감수결과 기록서』, 1994. 3, 육본 군사연구실.

236) 전우회의 전사자 명단에는 이미 1951년 1월 19일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정리되어 있으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9일 연백군 온정면에 상륙했다는 주장도 있다(『청원서』 1984. 7. 13).

237) 이 작전에서 유 소위부대, 교동특동대, 흥현치안대, 안일채 부대 2개 소대가 참가했고, 최현기가 지휘했다는 기술도 있다(최현기, 『전투일지』, 강화문화원편, 『강화사』, 363면).

성 후 충분한 훈련도 없이 투입된 첫 작전에서 윤기선·이인학 등 20여 명이 전사하고<sup>238)</sup> 60여 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생포한 북한군 특무장의 진술과 노획한 소지품에서 북한군 지휘관 명단과 병력배치도 등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육군 제1사단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작전에 기여했다.<sup>239)</sup>

제1차 봉화가미 작전 후 3월 24일, 안일채 부대장은 제2차 봉화가미 상륙작전을 계획했다. 안일채·최현기·이관소 등이 부대규모의 작전으로<sup>240)</sup> 연백군 온정면 해안일대로 상륙, 북한군 2개 중대와 25일 새벽까지 교전하여 7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북한군 7명·내무서원 4명·노동당원 14명 등 25명을 생포했으며, 다발총 4정·소련제 소총 16정 등과 소금 620가마·쌀 58가마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아군은 6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1차 봉화가미 작전에서 생포되었던 유격대원과 난민을 구출했다.

1951년 3월 하순 북한군은 병력을 재편성하여 중공군과 합동으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아군과 대치하고 있었다.<sup>241)</sup> 1951년 4월 4일 육군 제1사단장 강문봉(姜文奉) 장군은 적의 주공병력을 분산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 유격대에게 적을 측면에서 협공 기습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전방 지휘본부 부관 이인택이 개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1951년 4월 5일 야간 자신이 직접 차출한 제1중대(중대장 조명휘)를 지휘하여 선발대로 철산포(鐵山浦)를 출발, 개풍군 남면 당두포(堂頭浦)로 기습 상륙했다. 이 때 고지에 포진하고 있던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적 2개 소대를 섬멸했다. 이어서 토성(土城) 전방 2km 지점까지 침투하여 적정을 탐색한 결과, 적의 대병력이 토성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1중대는 풍덕(豐德)으로 이동하여 제2중대 병력과 합류한 다음 개성시로 진격했다.<sup>242)</sup>

238) 전사자 명부에 의하면, 3월 19일자 전사자는 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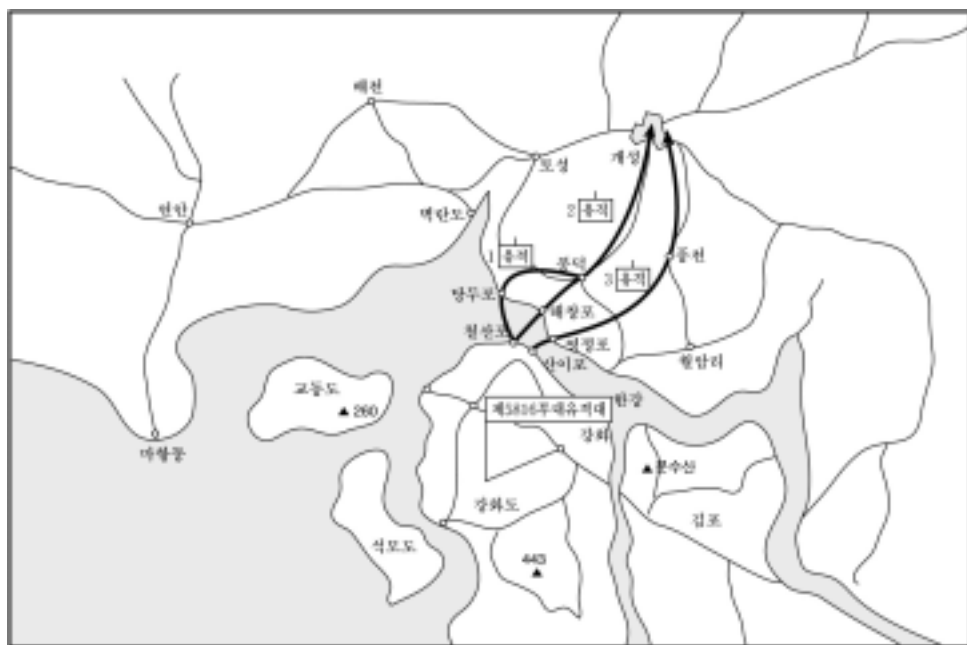
239) 적 140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63명이 전사하고 27명이 실종되었다는 주장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240) 전우회의 기록에는 500명이라고 기술되었다.

24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22-123면.

242) 이 때 당두포에 상륙했으나, 적의 대병력이 대원들을 포위하려 하자 철산포로 철수했고, 본격적인 개성작전은 12일 영정포로 상륙한 때부터라는 기술도 있다(최현기, 『전투일지』, 강화문화원편, 『강화사』, 364면).

## &lt;요도 3-3&gt; 개성작전(1951.4) 상황도



한편 전방 지휘본부 최현기 대장은 제1, 2중대의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시키기 위해 제3중대(중대장 이영이)로 하여금 영정포(嶺井浦)를 경유, 장단(長端) 방면으로 진격시켜 양동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주력이 작전에 혼돈을 초래하도록 작전을 구사했다.

개성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던 제1중대는 개성시내 지리에 밝은 개성출신으로 구성된 특별소대(소대장 박치명)를 선두로 하여 개성시내로 돌입, 4시간의 기습 공격 끝에 4월 9일 12시에<sup>243)</sup> 개성을 점령했다.<sup>244)</sup> 이 때 북한군 4명을 생포했

243) 국군 첩보대의 보고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4일 09시에 점령한 것으로 했다(육본 정보국, 『정기정보보고』 97, 1951. 4. 7, 『한국전쟁사료』 2, 119면; 『동아일보』, 1951. 4. 10). 그 외에도 6일 혹은 7일이나 8일 12시로 기습한 경우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청원서』 1984. 7. 13; 강종진, 6·25 참전 무공수훈자 사실확인 청원서, 1998; 강종진 증언, 2003. 11. 6). 그러나 최현기는 12일 영정포에 상륙하고 13일 개성 고남문부근에 집결했다고 기록했다(최현기, 『전투일지』, 364면).

244) 수색대가 토성까지 침투하여 적정을 파악한 다음 기습작전을 전개했고, 이 때 유엔공군과 국군 제1사단의 포격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개성을 완전 장악하는데 몇 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다. 그리고 개성시 용산동 추궁(湫宮)에 전방 지휘본부를 설치한 다음, 전 대한 청년단장 허범을 치안대장으로 임명하여 시내 치안을 맡기고 김천웅 등 80여 명을 편의대(便衣隊)로 편입시켜 난민 구출작전에 협조토록 했다.

개성 시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 제1사단 정찰대가 적과 조우함이 없이 개성으로 들어갔다.<sup>245)</sup> 24일<sup>246)</sup> 임진강 방면의 북한군과 개성 북쪽에서 공격해 온 중공군의 반격을 받자, 유격대는 10여 일간 점령했던 개성을 떠나 강화도로 철수했다.<sup>247)</sup> 당시 유격대는 유격작전과 병행하여 우경희, 임영의 등의 선무공작대가 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중공군의 문화소대장인 서춘발이 귀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성작전이 끝난 후, 5월 2일 제1사단장 강문봉 장군은 안일채 부대장에게 사단장 표창장을 주어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sup>248)</sup>

1951년 5월 23일 안일채 부대장은 월포(月浦), 영정포(嶺井浦) 상륙작전을 김포 지구 해병대의 포사격과 미 공군의 엄호사격 아래 개시했다. 이 작전은 미군들이 유격부대의 작전역량을 확인하여 율령부대로 편입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의도로 주간에 실시되었다. 대원들은 주간에 목선을 타고 조수간만이나 풍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군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적의 집중사격으로 선상에서 박종설·한상렬 등 수 십명이 전사했고, 안성일 등이 포로가 되었다.<sup>249)</sup>

제1대대는 강화도 월곶포(月串浦)에서 제2대대는 철산포에서 각각 동시에 출발하여 적지 상륙을 기도했으나 백마고지(BS794889)에 포진하고 있는 적 주력의 직사포와 연안일대의 기관포 등의 치열한 집중사격으로 대대 병력이 승선하고

245) 육본 정보국, 『정기정보보고』 108, 1951. 4. 18, 『한국전쟁사료』 2, 427면.

246) 22일 혹은 23일이라고 기술된 경우도 있다.

247) 개성에 거주하던 김명환은 대원들이 후퇴할 때 길 안내를 하면서 유격대에 합류했다(김명환, 『실제 체험기』, 1998).

248) 최현기, 『전투일지』, 364면; 『청원서』 1984. 7. 13; 『서울신문』 1984. 6. 24.

249) 임영의 증언, 2002. 8. 29. 안성일은 포로가 된 후 23일만에 도주해 귀환했으나, 포로가 된 사실에 대해 비난을 받자, 동해안 토치라이트 부대로 옮겨갔다고 한다(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8. 18). 최현기는 작전일자가 22일이었고 전사자 1명, 부상자 27명이라고 기록했다(최현기, 『전투일지』, 364면). 그는 이후 작전일자도 다르게 기술했다.



있는 범선 20척이 적탄에 맞아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후퇴하고 제1대대 제1중대(중대장 조명휘)만이 영정포(嶺井浦)에 상륙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륙과 동시에 적 주력과 맹렬한 전투를 하던 중대는 역부족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때 유도(流島)에 배치되어 있던 제1대대 2중대가 엄호사격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사히 철수하여 강화도로 복귀했다.

그러나 제1, 2대대는 같은 날 22:00시, 병력을 재편성해 다시 야간 침투작전을 감행하여 해창포(海蒼浦)에 상륙, 적을 기습 강타하고 백마고지를 점령했다. 이어서 유격대는 당두포(堂頭浦)까지 추격전을 감행하여 적 1개 중대를 섬멸한 후 24일 오전 3시까지 백마고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적이 대병력을 투입하여 반격을 가해 오자 유격대는 부득이 철수했다. 이 작전에서 유격대는 적 사살 100여 명, 직사포 3문 파괴, 소련제 소총 56정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했다. 반면에 유격대도 제2대대 1중대장 박영구 외 27명이 전사하고 제2대대장 이관소 외 3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범선 5척과 동력선 1척이 대파 당했다.

1951년 6월 11일<sup>250)</sup> 03시 안일채 부대장은 제2차 개성 탈환작전을 위해 제1대대와 제2대대 약 600여 명을<sup>251)</sup> 산이포(山伊浦)에서 범선 17척에 승선시켜 상륙지점인 개풍군 해창포로 향했다. 해창포에 상륙한 대원들은 적과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하면서 14일 새벽에 개성 시가지로 진입했다.

대원들이 개성 시내에 진입했으나 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인전술에 걸려 들었던 셈이었다. 15일 새벽<sup>252)</sup> 중공군의 반격을 받아 포위되었다. 제1사단에서는 중공군의 이동을 알리고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부대장이 점령지를 쉽게 버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철수를 지연시킨 까닭에 결과적으로 많은 희생을 낳았다. 중공군의 공격 속에 대원들은 철수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sup>253)</sup> 이러한 고전 중에 미 공군의 공중 엄호사격과 지원을 받아 유격대는 국군 제1사단 지역과 해병대 작전지역으로 분산하여 철수했다. 이 작전으로 적

250) 6월 18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 7. 13).

251) 400명이 출동했다는 진술도 있었다(『청원서』 1984. 7. 13).

252) 작전이 5일간 계속된 것이 아니라, 2일간으로 그쳤다고 회고하는 간부도 있다.

253) 임수, 『제2차 개성시탈환작전비화』, 『송도』, 1992. 9, 104-105면.

100여 명을 사살하고 중공군·내무서원 등 70여 명을 생포했으나, 유격대는 제2대대 제2중대장 김기완을 비롯해 주용순 등 15명이 전사하고 150여 명이 실종되는 큰 손실을 입었다.<sup>254)</sup>

제2차 개성 탈환작전에서 많은 대원을 잃은 유격부대는 개성 탈환작전에 출전했다가 낙오가 된 대원들의 구출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1951년 6월 23일 제1대대 부관 이인택이 지휘하는 결사대 150명은 산이포에서 범선을 이용하여 야유편에 상륙지점인 해창포로 향했다.<sup>255)</sup> 해창포에 무사히 상륙한 결사대원들은 개풍군 해안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적들과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하며 내륙 깊숙이 진입하여 잠복 은신하고 있는 대원 46명을 수색 구출하는데 성공하는 한편, 전사한 대원의 시신 6구를 발견하여 매장한 후 무사히 귀환했다.

#### 4. 기타 부대

제2사단에서 제17연대와 제32연대 아래 독수리유격대와 유격대대가 각각 편성되었다. ‘독수리유격대’는<sup>256)</sup> 경기도 포천 지역의 민간유격대로 출발한 후, 제2사단으로 편입되었다. 이 유격대는 서울 수복 이후인 1950년 11월 경, 포천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이들은 이미 전쟁 전 포천경찰서와 제7사단 9연대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정보수집을 하거나, 월남하는 가족들을 도왔던 서북청년단 소속이 중심을 이루었다.

최종성과 최종철 형제를 비롯한 63명이 결성한 이 유격대는 장총, M1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수복 후 패잔병 소탕과 치안유지에 노력했다. 중공군이 개입한

254) 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청원서』 1984. 7. 13. 그러나 적 사살 규모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255) 제1사단 15연대 1대대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951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기습작전을 전개했다. 이 작전은 작전명령 상으로 유격대와 연계가 드러나지 않는다(『6.22 개성 기습작전』, 『한국전쟁사료』 106, 393-408면).

256) 본 유격대의 창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유격대장 최종성의 아들(최면택)의 자료조사와 국방부 조사 문헌 등에 의존했다(독수리유격대 사업회, 『독수리유격대 자료집』, 1995. 8, 군편).

후 철원을 거쳐 일동면 화대리로 철수해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 17연대 1대대 대대장 김영필 대위가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동부대의 유격대로 편입했다.<sup>257)</sup> 그들은 소총, 실탄, 수류탄, 배낭, 피복 등을 지급받아 작전에 참가했다. 중공군의 공세로 유격대는 국군과 함께 청평, 양평을 거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현 충주시) 목행리까지 철수했다.

이 때 김영필 대위가 제32연대 제3대대장으로 부임해 가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유격대원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자신의 부대로 소속시켜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 유격대원들은 장비나 보급품 등 대우면에서 현역과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이해하는 김영필 대위를 따랐다고 한다.<sup>258)</sup>

1951년 2월 초 유격대원들의 집단이동을 알게 된 제17연대 제1대대장 유창훈 소령은 헌병 4명을 시켜 유격대원 전원을 제17연대로 복귀시켰다. 그는 유격대원들이 같은 사단 제32연대 아래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 및 도망죄’를 적용해 유격대장 최종성을 비롯해 최종철, 고관도 등 간부 5명을 총살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보급품과 장비를 압수한 채 추방했다.

제17연대에서 간부들이 총살을 당하고 대원들이 쫓겨났지만, 2월 중순 또 다시 유격대원들은 김익수를 대장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당시 충북 단양에 주둔하고 있는 제32연대 제3대대의 유격대로 편입되었다. 이후 경북 의성·청송·안동·예천, 충북 제천·단양 등 후방지역에서 좌익빨치산 토벌에 참가했다. 그 후 제2사단이 전방으로 이동하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강원 화천군 사창리 하오고개, 금화 천불산 373고지 등지의 전투에 참가하면서 박용달·정동진 등이 전사했다. 1952년 가을 육군본부에서 군번없는 군속을 귀향 조치토록 지시함에 따라 대부분 귀향했고 일부는 현지입대를 했다.<sup>259)</sup>

257) 김영필 대대장은 대원들을 연대본부에 보고하여 정식 부대원으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편성했다. 이는 당시 제2사단이 사단재창설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950년 11월 11일, 제31연대는 병원에서 퇴원한 장병 일부, 제2국민병으로 병력을 충원했다. 1950년 11월 25일, 제2사단 32연대는 유격사령관 김관오로부터 유격 제1, 2대대 장교 4명과 사병 1,111명을 인수하여 각 대대 기간요원으로 편성했다(보병제2사단 민심처, 『노도부대사』 1, 1995, 146면).

258) 박영식(예, 대위) 증언, 1988. 2. 18.

259) 박홍진 증언, 2003. 11. 19.

독수리유격대는 전쟁시기 도망병이라는 불명예로 간부 5명이 총살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지만, 1989년 국방부에서 조사를 통해 그들의 공적을 인정받았다.<sup>260)</sup> 1991년 6월 독수리유격대가 활약했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에 전적비가 세워져, 해마다 현충일을 맞아 “부름이 없었음에도 조국 앞에 모이고 뭉쳐 이겨레 이 강토 지켜낸 장한 임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sup>261)</sup>

독수리유격대와 별도로 1951년 6월 중순경 제2사단에서는 편제와 장비면에서 유격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유격대대를 창설했다. 그 규모는 장교 21명, 사병 306명 등 총 327명이었다. 대대장은 육사 8기생으로 소령 권정룡이었고, 제1중대(중위 이기범)·제2중대(중위 이정우)·제3중대(중위 김재영)로 편성된 특공대와 같은 부대였다. 이들은 약 1개월 반 동안 유격전 훈련을 받아 침투공격 및 야간기습에 능했다. 1951년 8월 초 금성지구 두목(제734고지) 전투에서 유격대대는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sup>262)</sup>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고 있던 국군 제8사단에서는 북한지역에 있는 반공치안대원 1,300명을 수색대대로 편입시켰다. 이들은 전쟁 전부터 북한지역에서 반공투쟁을 했던 사람, 전쟁 후 인민군 징병거부자, 천도교 청우당이나 민주당원 등이었다. 이들은 기존 병력과 함께 9개 중대로 편성하여 운용했다. 신입대원들은 지역별로 조직하여 계급을 임시로 부여받았다. 소대장급 이상은 장교 계급을 상실했으나 장교가 보병학교에서 임관하는 만큼 인사규정상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사 이하는 사단장의 특명으로 운용되었고 후에 일부는 현지임관으로 장교가 되었다. 이 대대는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수색대대를 운영했다. 이 수색대는 북한지역에서 활동했던 반공치안대원들을 주축으로 편성되어 정규군 사단편

260) 생존한 유격대원과 유가족들은 휴전 후 유격대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 오랫동안 추적조사를 해 왔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1989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시 유창훈 소령이 유격대 간부 5명을 불법으로 총살시키고 잔류 유격대원 58명을 추방한 행위는 국방경비법 제49조(살인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15년 이 경과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다(국방부 조사대, 『진정회신』, 1989. 6. 24)고 생존 유격대원들에게 통보했다.

261) 『독수리유격대의 전설 ‘사실로’』, 『국민일보』 2001.6.5; 국가보훈처, 『참전기념조형물도감』, 246면; 포천군지편찬위원회, 『포천군지』 상, 447-450면.

262) 『유격대대 두목지구전투상보』, 1951. 8. 2-8, 『한국전쟁사료』 48, 1031면, 1056면.

제와 달리 비정규군의 민병대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sup>263)</sup>

해군 서해지구 사령부에서는 황해도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반공청년 단체를 지원했으나 피난민 구호는 물론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무장대원들을 무기·탄약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던 미군으로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해도서에 배치된 병력이 부족했으므로 일부 반공청년들을 의용대, 혹은 특공대, 해주부대 등 여러 형식으로 해군의용대를 편성했다. 그 규모가 약 3,500명에 이르러, 그들을 4개 대대로 편성했다.<sup>264)</sup> 1951년 1월 29일 현재 응도 250명, 신천 150명, 용강 100명 등을 비롯해 초도·대청도·소청도 등지에 해군의용대를 편성 운용했다. 7월에는 용매도에도 해군의용대 100명 등이 주둔했다고 한다.<sup>265)</sup>

1951년 1월 17일 해군 함정 제704정에서는 백령도 등지에 있는 청년들의 훈련을 위해 해군 본부로 10명의 해병대 장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266)</sup> 이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백령도를 비롯한 도서경비와 북한지역으로 침투작전을 전개했다. 1951년 2월 24일 청방대원 150명이 해군 제306정의 지원을 받아 홍미면 지역으로 상륙했다. 제304정은 청방대원 17명이 창동지구로 상륙하는 작전을 지원했다. 3월 14일 해주부대가 해주지구로 상륙했다. 4월 7일 연평도 향토방위대 60명과 소수압도 향방 150명으로 편성된 6개 소대를 금산리와 화산리에 각각 상륙시켰다. 석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독립 제41중대에서는 피난민 가운데 반공사상이 투철한 약 100명으로 의용군을 편성하여 1951년 8월 12일 유동욱 중사가 의용군 45명을 지휘하여 월사리반도를 기습했다. 이 때 동키부대의 협조를 받아 여러 명의 적을 생포하고 수십 명의 적을 사상시켰다.<sup>267)</sup> 그런

263) 박창암, 『보병 제8사단수색대대의 6·25 실전비화』, 『자유』, 2002. 9, 68-69면.

264)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233면; 『해군작전사 개설』 1, 70면.

265) 『해본 작명』 32, 1951. 1. 18, 『한국전쟁사료』 91, 554면; 『해병대 배치현황』, 1951. 1. 29, 같은 책, 639-640면;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104면; 『해군작전사 개설』 1, 84면.

266) 『해군 함정 제704호가 해군본부에게』, 1951. 1. 17,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67)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 249면;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4, 19면; 정재호,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 화정문화사, 2000, 194-195면.

데 의용대원들 가운데 해병대로 입대한 대원을 제외하고는 게릴라부대인 동키부대로 북한지역에서 활동하기를 강력히 요구했으므로, 1952년 8월 15일<sup>268)</sup> 해병대의용대에서 해체된 신천무장대는 동키 제13부대를 창설했다.

---

268) 김장성, 『신천 10·13의거』, 『파라슈트』 13, 1953. 12. 25, 59면. 이미 6월경 혹은 7월 20일 부대를 창설했다는 기술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조동환, 앞의 책, 566면.

제 4 장  
미 제8240유격부대의 창설과 운용



## 제 4 장

## 미 제8240유격부대의 창설과 운용

## 제 1 절 창설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 합동참모부(JCS)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는 비정규전을 중앙정보국(CIA)이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미군은 게릴라전술을 연구했지만 한국전쟁 전까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비는 하지 못하였다. 극동군사령부도 전쟁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정규전을 상정하지 않았다.<sup>1)</sup>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 측은 북한군에게 밀리는 아군에 대한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규전 부대의 편성을 계획하였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얀마와 필리핀, 유럽 지역에서와 같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려 했다. 1950년 7월초 제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던 맥기 대령(John Hugh McGee)은 게릴라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그는 미 제8군 작전참모부에 배치되었을 뿐, 그를 지원해 줄 인력이나 게릴라를 편성하기 위한 무기도 없었다. 게다가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려는 게릴라들이나 싸우기를 원하는 피난민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전쟁 초기 북한에서 피난 나온 한국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유격대원으로 싸울 것을 두

1) *In the Devil's Shadow*, pp. 13-14; Alfred. H. Paddock, Jr.,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 Hawaii: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2.



려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그 계획은 취소되었다.

미 제8군에서는 한국인 게릴라부대 편성 계획을 중단하고 낙동강 전선의 포항 지역 후방에 침투하여 적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공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8월 24일 제8군 산하에 장교 3명과 사병 73명으로 구성된 특공중대(ranger company)가 창설되었다.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Lawton Collins) 장군이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킨 후 침투작전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적 후방에 침투시킬 부대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이 부대는 더욱 강조되었다.<sup>2)</sup> 당시 북한군은 공세 때마다 전선에서 정규군과 함께 유격부대를 적절히 활용했다.<sup>3)</sup>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아군이 급속히 북진하자 유격대의 창설이나 게릴라 작전을 할 필요성이 약화되는 듯 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후, 남한 지역에서 나오던 북한군과 무장한 좌익 빨치산은 1950년 10~12월말경, 지리산에 약 1만 명을 비롯해 총 32,000~35,000명 규모로 단양, 대전, 삼척 등지에서 교란활동을 했다. 이들에 대한 아군의 토벌로, 1951년 3월경에 이르면 15,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해 여름 동안 국군과 경찰이 토벌작전을 계속해 연말 무렵에는 8,000여 명까지 줄었다.<sup>4)</sup> 북한측의 활발한 게릴라 활동으로, 미군은 그들의 게릴라 작전 방식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동시에,<sup>5)</sup> 한국인으로 하여금 유격투쟁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중공군의 개입 이후, 전세는 아군에게 다시 불리해졌다. 1950년말에는 계속 밀리다가 북위 37도선에서 전선이 안정되자, 유엔군은 다소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후방작전에서 북한출신을 활용할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이 때 유격부대를 운용하려는 목적은 양측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38선에서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시켜 유엔

2) “The John H. Mcgee Papers” Mar. 24, 1986, 군사편찬연구소, SN 1961, p. 4; 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Robert W. Black, *Rangers in Korea*, N.Y.: Ballantine Books, 1989, pp. 12-19.

3)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s, GQ, UN and FEC, “Military Situation” May 4,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980, p. 9.

4) “Record of the Action Taken by the JCS Staff Relative to the UN Operations in Korea from 25 June 1950 to 11 Apr.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699, p. 98; “Gue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53”, pp. 9-13, p. 15.

5)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1, 2001, 267면.

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었다.<sup>6)</sup> 1951년 1월 1일 당시 한국군의 병력은 육군 185,000명 · 경찰 62,000명 · 해군 7,500명 · 해병대 5,600명 · 공군 2,500명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병력으로 공산군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평가 역시<sup>7)</sup> 유격대 편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미군 당국이 유격대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 해군이 서해안 도서에서 공산군에 대항하는 유격대 활동을 알리고, 탄약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8)</sup> 1951년 1월 8일 한국 해군 95.7기동전대장은 해주와 사리원 등 황해도 서쪽으로 후퇴해 온 약 1만 명의 의용군이 일제 99식과 38식 소총 · 소련제 소총 · 약간의 카빈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일제와 소련제 무기의 탄약 보급이 가능하는 지를 미 제8군사령관에게 문의해 왔다. 이 무렵 미군은 동부지역에도 원산과 전선 사이에 소규모의 유격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sup>9)</sup>

미 제8군사령부는 일제 99식 소총의 탄약을 비롯해 소련제 소총과 기관단총의 탄약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정보참모부에게 의용군 지도자를 확인하여 그들의 능력이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때부터 미 극동군사령부는 제8군으로 하여금 반공유격대에 관심을 갖고 게릴라부대를 편성해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반공의용군이 공산군과 싸울 의지가 강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충분한 보급품을 지급하고 잘 조직하여 적절히 운용만한다면 공산군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sup>10)</sup> 미 제2군수사령부 탄약창에서 그들에게 소련제 소총 탄약 7만 발, 일제 99식 소총 2만 발, 일제 38식 소총 1만 발, 수류탄 3상자 등을 공급했다.<sup>11)</sup> 미 제8군 정보참모부에서도 황해도 지역의 의용군에 대한

6)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14, p. 420.

7) G2/I, "Military Capabilities of ROK" Mar. 9, 1951, RG 319/47, 군사편찬연구소, SN 1620.

8) "Col.(R), Paschall's Comment"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2-3; Alfred Harlan Paddock Jr., *op.cit.*, p. 158.

9) ROKN TF 95.7 Message 1951, 1.8. AFFE 8086 AU HMD Report; *Dark Moon*, p. 103.

10)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49면, 214면; 『제95.7기동전대장이 미 8군에게 보낸 전문』 1951.1.8, 10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미 8군 사령관이 제95.7기동대장에게 보낸 전문』 1951.1.10, 같은 문서; "The John H. McGee Papers" Mar. 24, 1986, 군사편찬연구소, SN 1961, p. 9.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송화군과 은율군 출신 의용군이 초도를 중심으로, 장연군 출신은 백령도를 근거지로 각각 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2)</sup>

<요도 4-1>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동·서해안에는 해군 제61함, 301·302·306·518정 등과 미군 구축함 등 유엔함대가 제해권을 장악하여 해안을 경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격대에 대한 함포와 함재기 지원과 공군 지원이 가능했다.<sup>13)</sup> 또한 해군 소속 해병대 병력이 백령도, 교동도, 원산 영흥만 여도, 신도 등

<요도 4-1> 해군 함정 배치현황(1951. 3. 27)<sup>14)</sup>



11) 『버크(William A. Burke) 소령이 대브니(Dabney) 대령에게』 1951.1.20,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12) 『황해도 의용군에 대한 특별 조사』 1951.1.20,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13) 『대한민국해군사-작전편』 2, 50면.  
 14)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281면.

주요 도서를 장악한 상황 역시<sup>15)</sup> 북한지역에 대한 유격전을 안정적으로 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51년 1월 중순 맥기 대령은 극동군사령부로부터 게릴라부대의 편성, 지원, 통제권을 승인받았다.<sup>16)</sup>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게릴라 작전에서 공군과 해군의 지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해군과 공군 지원을 승인받아 유격대원의 지원을 위한 무기와 탄약은 미 제8군으로부터, 통신과 기동력은 미 해군과 한국 해군으로부터, 유격대원들의 식량은 유엔 민간원 조위원회(UN Civil Assistance Commission)으로부터 확보하여 2주만에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미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간인 유격대가 조직되었다.<sup>17)</sup>

15)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4, 5면, 432면, 479면.

16) 영국군 특수부대(SAS) 출신인 앤더슨 대위는 1950년 12월 미군이 유격대 편성을 승인할 것인 지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 뿐이었다(Ellery Anderson, *Banner Over Pusan*, London: Evans Brothers LTD., 1960, pp. 24-25).

17) 안병섭, 『실지를 지키는 낙도』, 『사상계』 1962.2, 216면; 미 8군 G-3, 『소모전』 1951.11.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Col., Rod Paschall, “A Study in Command and Control Special Operations in Korea, 1951-195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1988, pp. 5-6.

## 제 2 절 통제기구와 임무

### 1. 통제기구

#### 가. 사령부

미 제8군사령부는 서해안 지역의 반공무장대를 적지 내륙으로 침투시켜 유격전을 전개할 계획아래, 1951년 1월 중순에 서해안 유격군사령부 윌리엄 에이블리지(William Able Base)를 창설하였다. 유격대에 대한 통제는 처음에 미 제8군에서 담당했다가 미 극동군사령부로 이관되었다.

1951년 1월 15일 미 제8군사령부는 유격대를 지원할 통제기구로 작전참모부(G-3)에 지구전과를 설치했다. 5월 지구전과가 해체되고 제8086부대인 기타업무단(Miscellaneous Group)으로 재편되었다. 기타업무단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게릴라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sup>18)</sup> 기타업무단은 미 제8군사령부의 통제하에 부산에 있는 미 제8군 후방지휘소의 보급지원을 받았다.

적 전선 후방의 유격대 운용에 대한 통제가 극동군사령부로 이관되면서, 1951년 7월 26일 미 극동군사령부 연락처(FEC/LD), 제8240부대를 창설했다. 주한연락처(FECLD/K)<sup>19)</sup>는 극동군사령부 연락처의 통제를 받았는데, 본부는 서울시 인사동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빌딩에 있었다.<sup>20)</sup> 이미 1949년 6월부터 미 극동군사령부는 정보참모부 산하에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를 설치하여 첩보활

18) 『유엔군 유격전』, 58면.

19) HQ, FEC LD(K), "Combat Command Report for Jan"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당시 유격대원(목영설, 이태규)의 신분증과 체육대회 상장에서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제8240부대로 표시되어 있다. '유엔제8240유격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유엔제8240유격군 타이거여단, 『교육수료증』 1952.11.18).

20)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1;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동을 해왔다.<sup>21)</sup>

주한 연락처는 유격전과(Guerrilla Section)<sup>22)</sup>와 첩보전과를 편성하여, 유격전과 첩보전을 망라하였다. 1952년 9월말 사령관은 알렉산더(Frederick B. Alexander Jr.) 대령, 부사령관은 아이베스(Mackey Ives) 대령, 유격전과 책임자는 밴더풀(Jay D. Vanderpool) 중령이었고, 첩보전과는<sup>23)</sup> 두페(Robert L. Doupe) 중령이 담당했다.<sup>24)</sup> 당시 유격전과는 유격사령부로 불려져서, 밴더풀 중령이 주한연락처 유격사단장이었고, 두페 중령은 정보국장이었다.<sup>25)</sup>



제8240부대 본부



알렉산더 사령관

21)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2, 195면; 정용욱, 『한국전쟁시 미군 방첩대 조직 및 운용』,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연구총서』 1, 2001, 42면; 『유엔군 유격전』, 59면; HQ, CCRAK, “Task Organization”, Jan. 28,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HQ, CCRA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Feb. 1, 1953, 같은 문서.

22) 후기에는 Divis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23) 전투정보대장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이영순, 『KLO/8240부대전황』 1, 『세대』 1967.2, 193면).

24) HQ, FECLD(K), 8240th AU, “Assigned Officers” 1952, 군편 1963;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40.

25)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홍갑목』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 『훈장추천: 이진호』 1952.11.13, 같은 문서; HQ, Partisan Command, FECLD(K), 8240AU,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1951년 11월 28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연합정찰사령부(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CCRAK)<sup>26)</sup>를 설치했다.<sup>27)</sup> 사령부 아래에는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주한합동고문단(Joint Advisory Committee Korea, JACK), 미 공군 정보대, 미 육군 제8007부대 등이 있었다. 이 사령부는 당시 난립해 있는 여러 부대들 사이에 역할 조정을 위해 창설되었으나, 지휘권이 없어 단순한 조정기관에 그쳤다. 따라서 예하 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조가 부족했다. 예하 부대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작전의 중복이나 노출 등의 혼선이 있었다.<sup>28)</sup> 이러한 요소 때문에, CIA의 한 간부는 단일 조직으로 작전활동을 수행했다더라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29)</sup>

1951년 12월 10일 극동군사령부주한연락처와 기타업무단이 통합되어, 유격대의 작전통제권이 극동군 사령부의 정보참모부(G-2)로 이관되었다. 1952년 9월 하순 유격대 증강이 계획되면서, 주한 연합정찰사령부는 제8242부대로<sup>30)</sup> 개칭되고



부대(PFK) 표지

극동군사령부 연락단으로부터 예속이 해제되면서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였으나, 여전히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제8240부대로 널리 불렸다. 1952년 11월 연락과전대의 유격부대를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ited Nations Partisan Forces in Korea, UNPFK)로 명명했다.

1953년 6월 현재 연합정찰사령부 제8242부대의 간부진은 사령관 스투어트(A. W. Stuart) 준장, 부사령관

26) 당시 표현으로는 재한정찰활동합동사령부로 기술되었다(『합의문서』,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황해도편>, 630-632면).

27)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7.

28) “Organization CCRAK Staff”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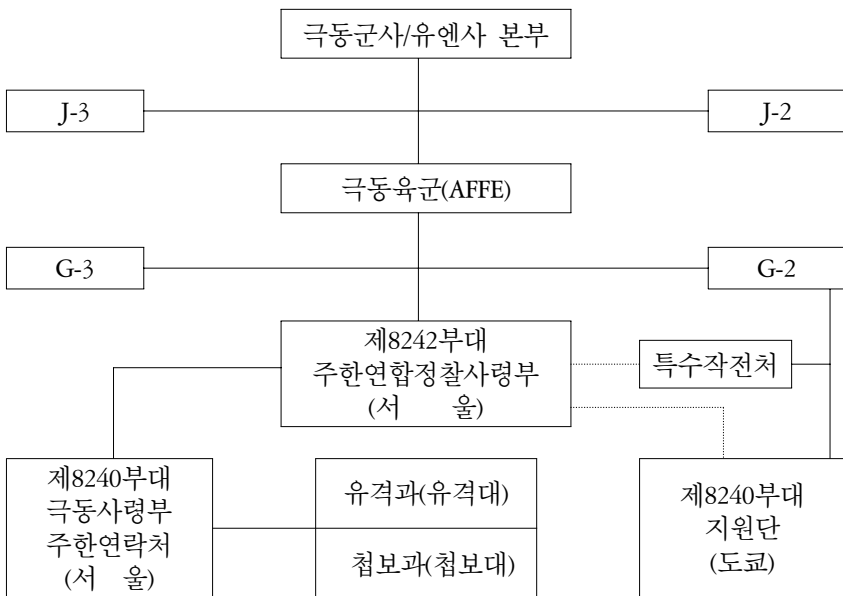
29) Richard G. Stilwell, “Guerrilla Warfare as Conducted in the Far East”, US Psychological Warfare School, Fort Bragg, N.C. July 25, 1955, p. 7.

30) 당시 미극동주한종합군사정보처(8242부대)라고 표현했다(대령 이영순, 유격사단 부사단장·한국 육군과전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길보(M. E. Gilbo) 공군대령, 참모장 스타인벡(P. W. Steinbeck) 대령,<sup>31)</sup> 부관 에반스(M. L. Evans), 정보참모 벤코스키(S. W. Benkosky) 중령, 작전참모 무겔버그(G. E. Muggelberg) 중령, 군수참모 파운틴(R. L. Fountain) 소령 등이었다. 주한연락처 사령관은 브레브너(C. E. Brebner) 대령, 제5공군 연락장교 젠킨스(Jenkins), 제8군 정보참모부 연락장교 퍼셀(Purcell) 중령, 제8군 작전참모부 연락장교 워커(Walker) 중령 등이었다.<sup>32)</sup>

이상과 같은 편성으로 전쟁 중 계속 운영하다가 휴전 무렵부터 유엔군유격부대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1953년 8월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되었다. 이후 1953년 9월에는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제8240부대) 예하 유격과가 독립 단위 부대로서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ited Nations Partisan Infantry Korea, UNPIK)로

<표 4-1> 사령부 편성(1952. 12)



31) 나중에 부사령관인 된 스타인벡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볼리비아에서 첩보전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2-3, p. 29).

32) HQ 8242nd AU, "Organization" June 1, 1953, SN 1968.



개편되어 유격대를 전적으로 통제 및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한 연합정찰사령부는 해체되는 동시에 극동육군 협조파견대(제8087부대)가 신편되어 한국에서 극동군 연합정찰사령부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sup>33)</sup>

이러한 복잡한 통제기구 아래, 맥기 대령·밴더폴 중령·무겔버그 중령 등이 유격부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이 가운데, 유격전 경험이 풍부했던 밴더폴 중령이 담당했던 시기가 부대운용에서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34)</sup> 그는 포병 출신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바탈’ 방어작전에 참가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유격전을 전개한 경험이 있었다.<sup>35)</sup> 무겔버그 중령은 동양에서 4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었으나 유격작전에 대해 특별한 경험은 없었다.<sup>36)</sup>

한편 유격부대와 한국군과의 관계에 대해, 신태영 국방장관은 한 격려사에서 제8240부대원들을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특수한 임무를 띤 것으로 인식했다.<sup>37)</sup> 이러한 태도는 1951년 4월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중장이 구월부대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도 드러난다. 당시 미군 예하에서 동키 제2부대의 부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종벽 대위의 소속을 ‘육군정보국 구월부대(황해도지구 유격대)로 표기했다. 대원들도 스스로 육군 정보국 소속으로 인식하기도 했다.<sup>38)</sup> 그러나 국군 통제 아래 있었던 을지 제2병단이 미군 지휘로 편입되기 전에는 한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으나, 미군 통제 이후로는 국군에서 이들을 ‘외인부대’처럼 소홀히 했다.<sup>39)</sup>

1951년 1월 중순 미 제8군 맥기 대령이 미군은 물론 한국 육군, 해군 등으로 연합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초기 작전계획에 의하면, 각 기지에 한국군 해군

33) 『한국전쟁과 유격전』, 125면.

34) Col. Rod Paschall, “A Study in Command and Control Special Operations in Korea, 195101953”, US Army Mil. History Institute, June, 1988, p. 56.

35) 이영순, 『잊지못할 유격전사』, 날짜없음.

36)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30.

37) 국방부장관 신태영, 『격려사』 1952.10, 『당나귀』 3, 1953.1, 11면.

38) 김종벽,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114면; 이형우, 앞의 책, 284-285면.

39)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18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1.

경비병 100명 외에 한국군으로 해군 지휘관·유격기지 지휘관·참모장교 및 사병 등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sup>40)</sup> 이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다만 국군과 유엔군과 합동작전의 긴밀한 상호 연락을 위해 육군본부에 국제연합연락장교단이 창설된 것처럼,<sup>41)</sup> 미 극동주한연락처 파견단 본부에는 한국군 육군 파견장교단이 있었다. 장교단은 계인주 대령이 첩보업무를 맡았고, 1951년 9월초 ‘유격사단 부사단장’으로 이영순 대령이 임명되었다.<sup>42)</sup> 그는 미 군정시기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미 극동군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발탁되었다. 그 외 오봉규 소령, 이창복 소령, 선우진 소령, 이신근 소령, 홍승면 대위, 고흥순 대위 등이 파견되었다.<sup>43)</sup> 그러나 카투사와 같은 병력은 파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유격대원의 인사, 작전권을 비롯해 보고계통에서 소외되어 거의 통역장교 수준이었다고 한다. 오봉규 소령은 정훈장교 출신으로 유격대원들의 규율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대원들이 부대 내나 사회에 말썽을 일으켰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외에 부대운용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다고 회고하였다.<sup>44)</sup> 이러한 여건이었으므로 국군 장교단은 각 기지사령부와 한국인 부대장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동키 제2부대장 김종벽 대위와 갈등이 있었고 울퉁 기지사령부에서도 타이거여단 사령관 이현서가 한국군과 연계를 가지려 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국군 장교단을 통해 해결되지 못했다.<sup>45)</sup>

40) 미 8군 G-3, 『소모전』 1951.11.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윌리엄에이블 작전계획-한국에서의 유격대편성과 작전계획』 1951.1.23, 『유엔군 유격전』, 222-223면.

41) 『국본 일반명령(육)』 제35호, 1950.8.2. 당시 규모는 장교 63명, 사병 17명, 문관 30명 등 총 111명이었다. 1951년 2월 12일부로 연락장교단은 육군통역단으로 개칭되면서 규모도 축소되었다(『국본 일반명령(육)』 제32호, 1951.2.12).

42) 부대 본부에서 공작부(intelligence section)가 2층에 있었고, 유격부(guerrilla section)는 1층, 군수처는 태화관이었다고 한다(이영순, 『KLO/8240부대전황』 1, 『세대』 1967.2, 193면; 박휘(아벤리부대 정보참모) 증언, 2003.11.4).

43) 대령 이영순, 유격사단 부사단장·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찰』(군편 사료 304);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2, 191면, 196면; 계인주, 앞의 책, 171면. 전후 이영순은 자신이 부대사령관이라고 진술했으나(이영순, 앞의 글, 190면, 195면; 이영순(예, 대령), 『8240부대 유격전』, 1986.3.14, 육본 군사연구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44)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19면; 박상준 증언, 2003.11.7; 오봉규(예, 소령), 증언, 2003.12.13.

1953년 5월 20일 연합정찰사령부의 요청으로 이 대령과 그의 참모들은 원대복귀하고,<sup>46)</sup> 김안일 대령과 김일환 중령이 파견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유격대의 명단, 대북심리전 강화, 유격부대 내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선별적 점검계획 수립 등이었다.<sup>47)</sup> 이미 1951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는 육군본부 작전국과 군수국에 속한 전사편찬위원회와 후방전사편찬위원회를 확대하여 전사감(戰史監)을 설치하여 전사기록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편찬기능을 강화하였으나,<sup>48)</sup> 미 제8240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심지어 휴전 후 국방부 제8250부대가 창설되어 유격부대의 인사·행정·포상 및 징계권을 인계했으나, 유격부대의 작전통제권만은 주한 극동군사령부 연락처가 계속 장악하였다.

### 나. 작전기지 사령부 편성

1951년 2월 중순경 미 제8군은 작전참모부 예하 지구전과 책임아래 첩보수집, 침투계획, 대원 모집, 훈련, 지원 등을 할 작전수준급 부대인 작전기지사령부<sup>49)</sup> 백령도에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기지와 부산근교에 공수훈련 및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베이커기지(Baker Section)를 창설하였다.<sup>50)</sup>

1951년 3월 윌리엄 에이블기지가 레오파드(Leopard)기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산하의 유격부대는 건제순으로 동키부대에 숫자를 부여하였다. 레오파드기지의 작전지역은 북쪽으로 평안북도 연안 도서인 신미도와 대화도로부터, 남으로는 웅진군 홍미반도의 등산곶까지였다. 그 후 서해안에서 울팩부대가 추가로 창설되었다.

45) 박상준 증언, 2003.11.7.

46) 1953년 2월 실시된 화폐개혁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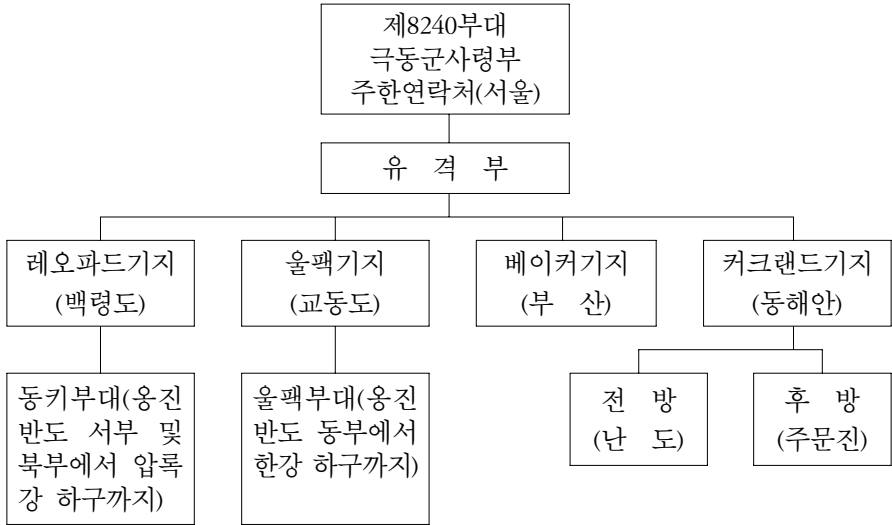
47) “Combat Command Report No.5” June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48) 『국본 일반명령(육)』 제37호, 1951.2.17.

49) 표작전기지사령부, 『박승덕 신분증』 1952.12.30.

50) 이 때 정보, 태업, 및 특공형 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해병 특수임무부대인 레드 윙(Task Force Red Wing) 부대를 창설했다고 하나, 이 부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lt;표 4-2&gt; 작전기지 사령부의 유격대 편성(1952. 1)



1951년 4월 15일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지구전과에서는 서해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유격작전과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동해안 지역에도 유격부대를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군 지휘 아래 있던 동해안지역 유격부대인 육군 을지 제1병단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주문진에서 커크랜드(Kirkland)부대를 창설하였다.

베이커기지는 후에 제1공수유격연대로, 커크랜드부대는 스캐논부대로 개칭되었다. 베이커기지와 커크랜드기지는 제5장에서 개별 기지를 다룰 때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1951년 중반 이후 서해안 지역에서 유격대가 계속 증가하자, 유격작전 지역을 2개의 독립지역 사령부로 분할하였다. 즉 웅진반도 등산곶을 기점으로 레오파드기지사령부는 웅진반도의 서부 및 서북부지역를, 울팩(Wolfpack)기지사령부는 웅진반도의 동쪽과 남쪽으로 한강 어귀와 인천 앞 바다의 도서를 관할했다. 이 때문에 울팩기지사령부를 남사령부, 동키사령부를 북사령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는 예하에 20개에 이르는 유격대를 두었다. 산하의 부대 명칭이 당나귀부대였기 때문에 당나귀기지라고도 했다.<sup>51)</sup> 동키부대라고 칭

51)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전장교단장, 『훈장추천: 김정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백령도 동키기지사령부 전경  
(동키 제4부대 송호식 제공)



기지사령관 숙소  
(『뉴스피플』 2000. 6. 15)

한 이유는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와 제일 먼저 연결된 신천무장대가 부대명을 지을 때, 사자부대·봉화부대 등이 논의되었으나 대원 중 한 사람이 무전기에 필요한 발전기(제너레이터)가 당나귀 형체와 똑같다고 해서 당나귀부대라는 명칭을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는 발전기를 보면서 전쟁 전 고향의 제유공장에 있는 당나귀 한 마리에 대한 간절한 추억을 연상했다고 한다.<sup>52)</sup>

1951년 2월 백령도기지의 지휘관은 버크<sup>53)</sup> 소령을 시작으로 에콧드 중령, 맥킨(Elroy H. McKean) 중령, 다이(Thomas A. Dye) 소령 등이 뒤를 이었다.<sup>54)</sup> 초기에는 사령관 외에 작전과 통신을 지원하는 장교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점차 정보·훈련·특수임무 등을 담당하는 위관급 장교와 행정·보급·통신·취사 등을 담당하는 사병 25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이 산하의 유격대를 통제하고 지원했다. 앵글 나인(ANGRC) 무전기로 산하부대와 교신했다.<sup>55)</sup>

52) 김용서, 『당나귀의 유래』, 『당나귀』 6, 1953.4, 65-66면.

53) 강기천, 『나의 인생여로』, 계몽사, 1995.

54) 『백마유격부대 전투사』(김응수 증언록), 1987, 육본 군사연구실 소장, 45면; HQ, FECLD(K), 8240th AU, “Assigned Officers” 1952, 군사편찬연구소, 1963.

---

55)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Fonkey 1, Chang Jae Hwa”,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 47; Col(ret.).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군편, SN 1962), p. 417.



해군 백령도 부대장 강기천과  
버크 기지사령관

1951년 12월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의 작전지역이 넓어서, 부대사령부에서는 그 임무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강화도에 울팩기지를 설치하였다. 울팩기지의 모체는 교동도에 지구사령부를 두고 강화도로부터 연평도 서쪽까지 담당했던 ‘페리(Perry)’ 특수임무부대였다.<sup>56)</sup>

울팩 작전기지는 산하에 10여 개 부대가 있었다. 타이거여단 제3연대를 울팩 제9부대로 편성했다는 기록이나<sup>57)</sup> 울팩 제10부대와<sup>58)</sup> 울팩 제22부대의 작전활동이 일부 나오지만,<sup>59)</sup> 주요 부대는 8개 부대이다. 강화도에 있는 기지사령부는 8개 울팩부대의 본부로, 산하 부대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sup>60)</sup> 산하 각 유격부대들은 레오파드기지사령부 예하에 있을 때 호칭한 동키부대를 사용하지 않고,

56) 『유엔군 유격전』, 64-65면.

57) 제8250부대 2연대, 『실종자명부』 1953.11.12, 전쟁기념관; 서해지구 울팩유격군전우회 연합회, 날짜 없음, 육본 군사연구실.

58) CCRAK Guerrilla, “Summary No. 30” June 1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9) CCRAK Guerrilla, “Summary No. 79” Aug. 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0)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조신원(WP-2)·임원빈(WP-1)·  
에바하드·공성로(WP-8)·  
박상준(WP-2) 등 울퍽부대  
간부들(1952.10)

울퍽 부대의 건제 순으로 부여된 숫자로 불렀다.<sup>61)</sup>

초대 울퍽기지사령관은 리플레이(Richard M. Ripley) 소령이었고, 히스탠드(Joe Hiestand) 소령, 소피아 중령이 뒤를 이었다.<sup>62)</sup> 히스탠드 소령이 1952년 9월 23일 작전 때 적의 기관총을 맞아 교체되었다. 소피아 중령은 산하 부대 정보참모들에게 침투시 비밀문서 탈취, 정보수집 방법, 교량파괴 기술, 금고열쇠 개방 등을 직접 교육했다고 한다.<sup>63)</sup>

레오파드기지와 울퍽기지의 병력이 증가되고 유격부대가 추가로 창설되었지만 연대급 부대 개편은 없었다. 1952년 11월 유격부대의 병력을 증강시키려는 계획 아래, 극동군사령부는 극동군사령부 주한 연락처의 유격부대를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로 개편했다.<sup>64)</sup> 이 때 주요 지역의 각 지휘부는 연대로 재편되면서, 레오

61) 『백호부대 유격전사』, 294-296면.

62) 『타이거여단 역사』, 23면;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사편찬연구소, SN 1962, p. 415.

63) 한여섭(울퍽 제8부대 정보참모) 증언, 2003.12.1; HQ, FECLD(K), 8240th AU, “Report of Guerrilla Operations” 22-30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64) 1952년 3월까지 2만 명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Alfred H.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 p. 102) 실현되지 않았다.



파드부대는 제1유격연대(1D PIR)로, 울팩부대는 제2유격연대로 재지정되고, 스캐논(Scannon)부대는 제3유격연대로 개칭되었다. 베이커기지(Baker Section)에서 공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제1공수 유격연대(PAIR)로 재편되었다.<sup>65)</sup> 이들의 규모는 제1연대 7,557명, 제2연대 7,702명, 제3연대 3,310명, 제1공수유격대는 527명 등이었다.<sup>66)</sup>

또한 1953년 4월에 서해안의 유격 작전 지역이 추가로 분할되었다. 제5유격연대가 이전의 서 울팩 지역에서, 제6유격연대는 과거의 북 레오파드 지역에서 각각 창설되었다. 이들 연대를 드래곤(Dragon) 기지사령부라고 불렀다.<sup>67)</sup>

따라서 사령부 예하 유격부대들은 대대급으로 하향 조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임관장에 나타나듯이 동키 제7부대는 제7대대로 조정되었다.<sup>68)</sup> 그 후 국방부 제8240부대로 재편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레오파드 기지사령부 산하 동키 제1연대로 불렀던 제1연대 제1대대로, 울팩 기지사령부 산하 타이거여단은 제2연대 제2대대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유격대의 지휘부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유격대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대를 동키<sup>69)</sup> 및 울팩 부대로 호칭했다.<sup>70)</sup>



제5유격연대 발행 신분증

65) 『한국전쟁과 유격전』, 128면.

66)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Report” Feb. 1, 1953, “Command Report”, Jan.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67) 『유엔군 유격전』, 112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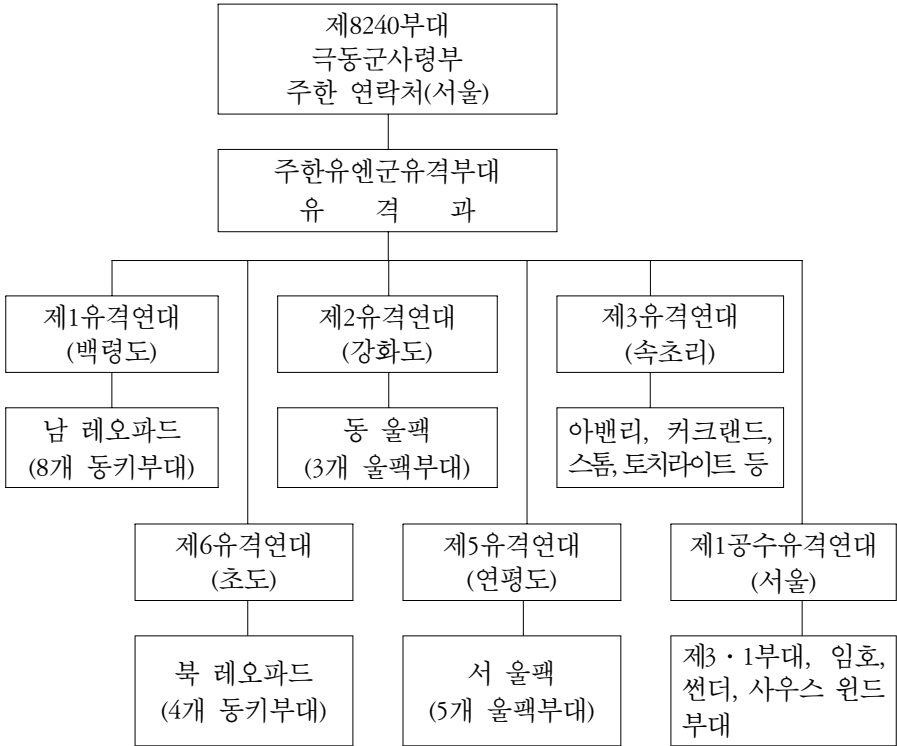
68) 김정태 대대장을 국제연합 유격군의 중령으로 임관하였다.

69) 국방부에서는 유격대원들 가운데 수훈자의 무공훈장을 상신하면서 당나귀부대로 불렀다(국방부 제1국장, 『미국동사령부직할부대원 22명에 대한 무공훈장수여』, 1952.11.21, 군사편찬연구소, 『공적서철』 304).

70) 국방부제8250부대사령부, 『부대명칭 및 호칭 사용에 관한 건』, 1953.11.25(박상준 제공문서);



<표 4-3> 작전 수준급의 유격대 재편(1953. 4)



임관장

## 2. 임무와 역할

각 기지사령부는 서울에 있는 사령부(FEC/LD)의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월 유격부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유격대장들은 보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급을 요청했다.<sup>71)</sup> 부대장은 매달 1회 사령부에 출두하여 정보 공작과 작전 활동을 보고한 후, 작전 지시를 받고 보급 물자를 수령했다. 그러나 각 부대장과 기지사령관과 유대는 그다지 깊지 못했다. 각 부대장은 한 달에 한번 꼴로 15~20분 정도 사령관을 만났다. 한 부대장은 이 짧은 시간에 유격대원의 바램을 사령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sup>72)</sup>

유격대원의 모집과 작전수행은 사령부 본부나 미군 고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격대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담당했다. 한국인 지휘관들은 대원을 선발하고, 전술적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기지사령부는 쌀, 무기, 피복, 통신장비, 의약품 등의 보급과, 공중지원 및 해군 함정 지원, 첩보 등을 통해 산하 유격대를 통제했다. 성과를 낸 유격부대에게 상을 즉각 주었다. 제일 큰 상은 발동선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작전에서 그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았다.<sup>73)</sup>

그런데 유격대의 훈련과 보급을 통제하고 지원할 미군 병력이 크게 부족했다. 최소한의 인원에도 미치지 못했다.<sup>74)</sup> 작전 수준급 부대를 운용하기 위한 유엔군 병력은 서해안의 레오파드기지 소속으로 장교 23명, 사병 14명이 인천으로부터

71)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33;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 426;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72) 『당나귀』 2, 1952.12, 80면.

73)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p. 414-415, p. 417.

74)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편, SN 1958, p. 5.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각 부대장 회의(1952.11.27)

압록강까지 펼쳐 작전하는 7천여 명의 유격대 요원을 지원하였으며, 동해안 커크랜드 기지의 최초 보직인원은 장교 2명, 사병 2명에 불과하여 총 200명 수준이었다.<sup>75)</sup> 이들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파견되었으며, 1953년 7월경 제8240부대에 배속된 인원이 450명 규모였다.<sup>76)</sup>

울팩기지는 유엔군의 서쪽 방면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기지와 마찬가지로 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1952년도에 울팩 작전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미군은 총 15명으로, 장교 7명과 사병 8명이 전부였다. 1952년 10월 울팩 제3부대에서 제8부대까지 여섯 개의 부대를 맡았던 존스톤(Archie B. Johnston) 대위는 총 3,000여 명의 유격대원들을 총괄했으나 그를 돕는 미군 고문관으로 중위 2명과 사병 5명 뿐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격대가 증가함에 따라 <표 4-4>처럼 미군 고문관의 숫자는 장교 66명, 사병 134명 등 미군 200명이 2만여 명의 유격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77)</sup>

각 유격대에는 미군 고문이 있었다. 작은 규모의 섬에는 미군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이 있었다. 그들은 연대본부를 통해 연합정찰사령부와 통신했다.<sup>78)</sup> 고문

75) Cecil B. Smyth Jr., "UN Partisan Forces-Korea", *Trading Post*, p. 71.

76) John Patrick Finnegan, *op.cit.*, p. 119;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2002.

77) 『백호부대 유격전사』, 298-299면.

78)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표 4-4> 유격대 인원과 미군요원의 비교(1953. 5)<sup>79)</sup>

부 대	미 군			유격대
	장 교	사 병	계	
유격사령부(서울)	9	8	17	
제 1 유격대(백령도)	13	27	40	5,610
제 2 유격대(강화도)	8	24	32	4,204
제 3 유격대(속초)	11	21	32	4,793
제 5 유격대(연평도)	8	26	34	3,010
제 6 유격대(초도)	10	17	27	3,001
제1공수유격대(서울)	7	11	18	1,533
계	66	134	200	22,142

관의 역할은 작전에 대한 자문, 정보 공유, 보고, 작전결과 확인, 적시 보급, 화력 지원, 의료지원 등이었다. 고문관은 부대를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부대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고문관은 작전을 제안하거나 지원을 약속하되, 문제 소지가 있는 작전의 경우는 지원을 보류하여 통제하였다.<sup>80)</sup> 고문관들은 전투 중 작전 수행방법을 놓고 부대장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sup>81)</sup>

해·공군지원은 고문관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화력지원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지만, 상륙작전시 대개 미군이 참가하지 않아 이를 유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종 효율성이 떨어졌고, 동키 제4부대의 대영호 피격 사건처럼 오폭으로 아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있었다.<sup>82)</sup>

그런데 미군 장병들이 유격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 미군들은 유격전의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 작전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통상 전술작전과 유격전 이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유격전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었다.<sup>83)</sup>

79) 『유엔군 유격전』, 164면.

8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18.

81) 신인수(울퍽 제8부대 제3대대장) 증언, 2003.8.8.

82)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21.

83)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램대위 송별기념사진(D-6 전우회)

미군 장병들은 유격대 지원동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들은 유격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진급에 유리한 가산점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적절히 즐길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전투수당과 공수낙하수당을 받고 일본에 있는 휴양소를 자주 드나드는 등 임무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았다.<sup>84)</sup>

순환근무체계는 미군 장병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투경험이 있는 병력이 교체되는 것이므로 전투효율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었다.<sup>85)</sup> 유격대에 파견된 미군의 교체는 잦은 편이었다. 울팩 제2부대의 경우, 스미스 중위·제임 단 중위·프레이사 대위·다라로 소령 등으로 교체가 잦았다.<sup>86)</sup> 왜냐하면 미군은 36점을 획득하면 근무지가 교체되었는데, 섬에서 근무할 경우 1개월에 4점으로 9개월이면 36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1개월에 3점이 부여됨으로써 12개월이 걸렸고 후방지역에서는 2점씩 18개월이 소요되었다.<sup>87)</sup>

84)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85) Paul F. Braim(육군교육사령부 번역실역), 『위대한 장군 벤플리트』, 육군본부, 2001, 469-470면.

86) 『타이거여단 역사』 참조.

더욱이 미군들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며, 지형이나 문화적 이해도 없어서 유격대의 활동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미군 장교 가운데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sup>88)</sup> 이 때문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사령부에 1주일에 3회 정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sup>89)</sup>

---

87)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88) “Guerrilla Warfare” 1951-52.

89)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1.

## 제 3 절 유격부대의 편성과 운용

### 1. 부대 편성

유격대 창설 초기, 각 기지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일련의 ‘연대급’ 부대로 편성되었다.<sup>90)</sup> 그런데 상술한 대로 기지사령부가 연대 단위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부대로 통일하였다.

부대 규모는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적을 기만하기 위해 과장되게 편제했으나 규모가 있는 부대의 경우 대대병력 수준이었다. 동키부대의 각 유격대 규모는 소부대인 경우, 2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70명, 670명, 870명 단위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동키 제5·8·9·21부대 등은 270명 규모이고, 3부대·10부대 등은 470명 정도, 7·13부대는 670명 규모, 4부대와 11부대는 890명 등이다. 그러나 동키 제16부대는 143명에 불과하였다.<sup>91)</sup> 각 유격대의 규모는 전적으로 지도자의 지휘통솔 능력에 따라 달랐다. 미군 장교는 유격대를 미군 보병중대보다 규모가 컸으나 대대보다 작았다고 회고했다.<sup>92)</sup>

각 유격대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무장치안대의 조직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sup>93)</sup> 부대 수가 많았던 까닭은 같은 고향사람끼리 편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

90) 『한국전쟁과 유격전』, 145면.

91) “Notes”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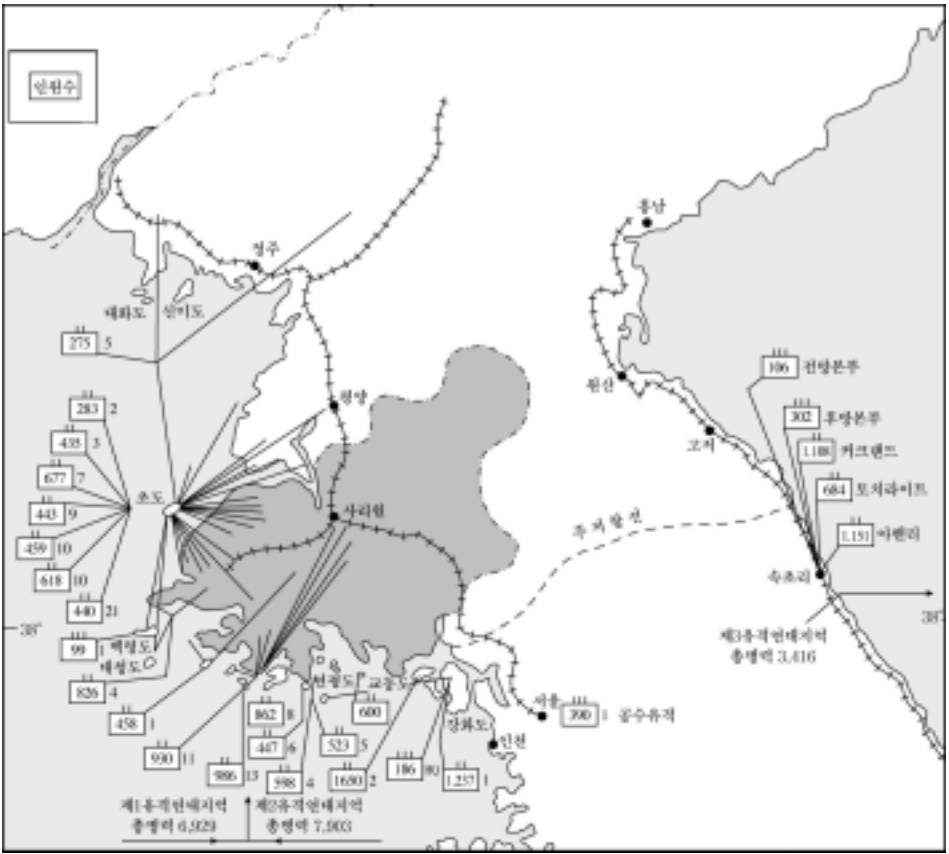
92) Alfred H.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 p. 101; “Archie’s Letter”, Oct. 21, 2002.

93) 이외에 중공군에서 귀순한 전국부군 출신으로 유격대를 조직중에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장교들도 있었다. 그들은 중공군 복장을 입고 상륙해 많은 첩보를 수집하여 4~5회 정도 작전을 수행하여 미군들의 신뢰를 받았다. 휴전이 가까워지자, 이들이 대만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각각 1,000달러의 금을 주었다. 이 외에도 안통과 신의주에서 파괴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인 150명을 모집해 암호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Guerrilla Section, 8240th AU, HQ FECLD(Korea),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il 1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Lt.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SN 1958, p. 14; HQ Partisan

---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SN 1964).

<요도 4-2> 유격부대의 병력 및 배치(1953. 2)<sup>94)</sup>



문이다. 즉 황해도 출신의 동키 제1(신천)·2(은율)·3~4(장연)·7(은율군 수월)·8, 10(안악)·11(옹진)·13(신천) 부대 등이고, 평안남도 출신 부대로 동키 제9부대와 평안북도 출신의 동키 제14·15부대가 있었다. 각 부대는 각각 고향에 대해 작전대상지역을 부여받았다. 그 이유는 “어느 산골짜기에 동굴이 있고, 어느 냇가에 알맞은 은신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원 속에 잠입할 첩자의 식별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sup>95)</sup>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주의는 여러 부대들을 단일하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편

94) 『유엔군 유격전』, 104면.

95)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22면;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34-535면; 송태욱 증언, 2002.9.12.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대원들이 이탈하는 요인이 되었고, 유격부대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52년 10월 14일 울팩 제8부대 대원 2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동키 제13부대로 와서 간부 몇 명을 구타했고, 동키 제11부대와 제13부대는 주둔지와 작전지역을 둘러싸고 언제나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sup>96)</sup>

1952년 11월 미군 사령부의 승인아래,<sup>97)</sup> 각 부대 단위별로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체 조직을 강화하고, 부대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동키부대의 각 부대장들이 공동으로 서해지구 합동참의부를 창설했다. 간부진은 의장 김응수 백마부대장,<sup>98)</sup> 부의장 이종학 웅진학도유격부대장, 집행위원 박철, 이아천, 김장성, 상무 이태훈, 총무부장 김대성, 정훈부장 강석인,



동키부대장들

뒷줄 : 이태훈(D-9), ○○○, 이종학(D-11), 장재화(D-1), ○○○, 김응수(D-15), ○○○, ○○○, 노순하(D-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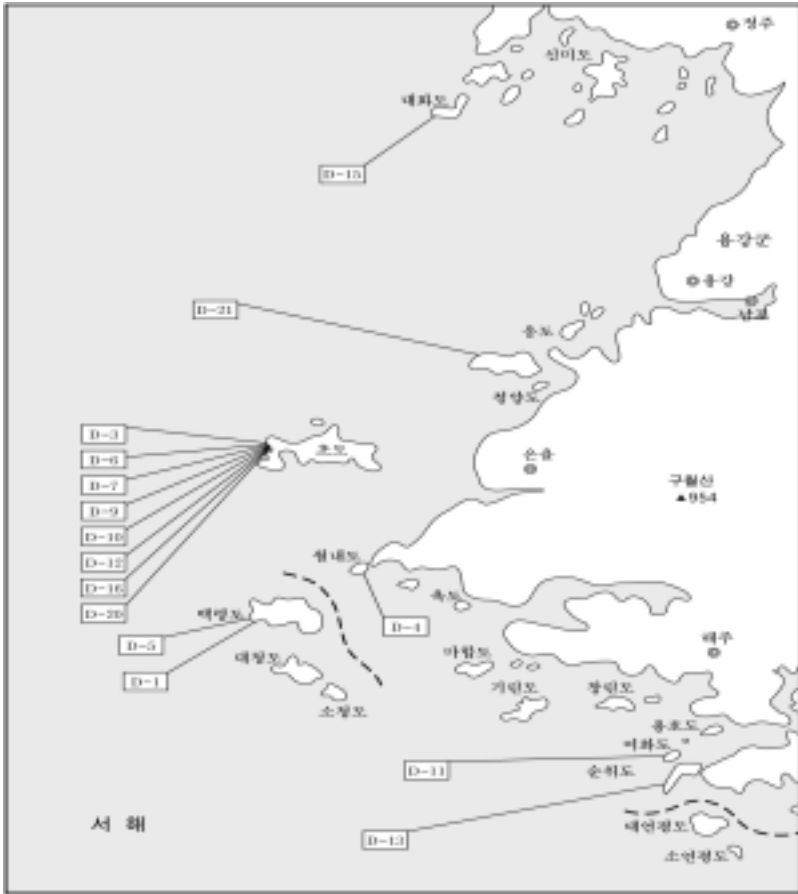
앞줄 : ○○○, ○○○, ○○○, 최문려(D-4), 한광주(D-5), ○○○, 김정태(D-7), 안태섭(D-8)

96) 이영재 일기 1952.10.13-17, 1953.4.4, 6.16-17;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35.

97) 합동참의부 의장이었던 김응수는 사령부 몰래 비밀히 결성한 것으로 기술하였다(『북위40도 선』, 326면).

98) 1953년 4월, 백마부대가 새로 생긴 드래곤 기지사령부로 편입되자, 2대 의장으로 신천부대 김장성이 선출되었다.

&lt;요도 4-3&gt; 동키부대 배치도(1952. 6)



감찰부장 김영복 등이었다.<sup>99)</sup> 1952년 12월 20일 초도지구 각 동키부대장들은 안악부대 본부에서 합동참의부 초도지구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부서와 책임자를 정했다. 지부장 김정태, 부지부장 리아천, 총무 과장 리태영, 정훈과장 송군두, 감찰과장 정만수 등이었다.<sup>100)</sup> 참의부에서 첫 사업으로 기관지 『당나귀』를 발간하고, 군기확립과 상호친선을 위하여 휘장과 계급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각 유격대는 처음 ‘연대급’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대개 2~3개 대대로 편성

99) 김웅수, 『권두사』, 『당나귀』 1-2, 1952.11-12; 『당나귀 신문』 1952.12.6, 『당나귀』 2, 1952.12, 92면; 이종학(웅진학도유격부대장) 증언, 2003.1.14.

100) 『당나귀 신보』 1953, 『당나귀』 3, 1953.1, 92면.

되었다. 각 대대는 대대장 아래 부관, 인사관, 정보관, 작전관, 보급관 등이 있었고 2~3개 중대로 이루어졌다.<sup>101)</sup> 대대의 규모는 부대마다 약간씩 달랐으나, 70여 명에서 150명 정도였다. 동키 제10부대의 경우는 제1·2대대가 각각 104명, 제3대대는 74명이었다. 동키 제11부대의 경우는 80~130명 수준이었고, 동키 제13부대는 125명이었으며, 동키 제4부대는 150명이었다.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고, 각 소대병력은 8명으로부터 16명 정도였다. 동키 제20부대의 1개 소대는 8명이었다. 그런데 율팩 제2부대의 편제표를 보면 소대의 규모가 30여 명이었고, 율팩 제6부대의 소대원 사진을 보면 20~30명에 이르고 있다. 율팩 제3부대의 경우도 1개 중대 규모가 45~60명 정도였으므로, 1개 소대병력은 15~2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동키 제2부대의 경우, 부대장으로부터 대대장·중대장·소대장·상사·중사·하사·병사 등 계급을 붙여 구분했으나, 곧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키 제11부대의 경우, 부대장 중령·부부대장 소령·참모 대위·중대장 중위·소대장 상사·분대장 하사 등으로 구별했다.<sup>103)</sup>

율팩 제2부대의 경우, 간부들을 10여 등급으로 나누어 대우를 했다. 율팩 제8부대의 경우, 부대 내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인사참모 보좌관 박현세가 부대장 1급, 부부대장 2급, 대대장 3급, 중대장 5급, 대대 행정관·작전관 등 6급, 소대장 7급, 분대장 8급, 고참병 9급, 3개월 이상자 10급, 신입 대원 11급 등으로 계급을 정리했다.<sup>104)</sup>

각 부대장은 인사, 작전, 보급을 전담하고 기지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간부들과 대원들은 학력, 교육훈련 성적, 사회경험, 근무성적, 전공을 참작하여 배치되었다.<sup>105)</sup> 부대장은 각 소대장·중대장 등의 전속과 강등, 대원의 제대와 처벌

101) 『학도유격부대전사』, 351면; 이창희 증언, 2003.6.27.

102) 『D 13부대 조직편성표』 1952.10.31,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D 10연대 편성표』 1952.11.7, 같은 문서; 『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 1956.4.23, 같은 문서;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

103) 웅진학도유격부대 전우회, 『화보』, 2001, 24면; 김현 증언, 2003.11.17.

104) 율팩 제8부대 전우회 제공, 2003.11.18.

105) 『타이거여단 약사』, 33-34면.



부대 계급표(구월부대)



등을 처리하였다. 보급미 부정처분이나 음주, 폭행으로 강등되는 간부도 있었고 가정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는 제대 처리를 하였다.<sup>10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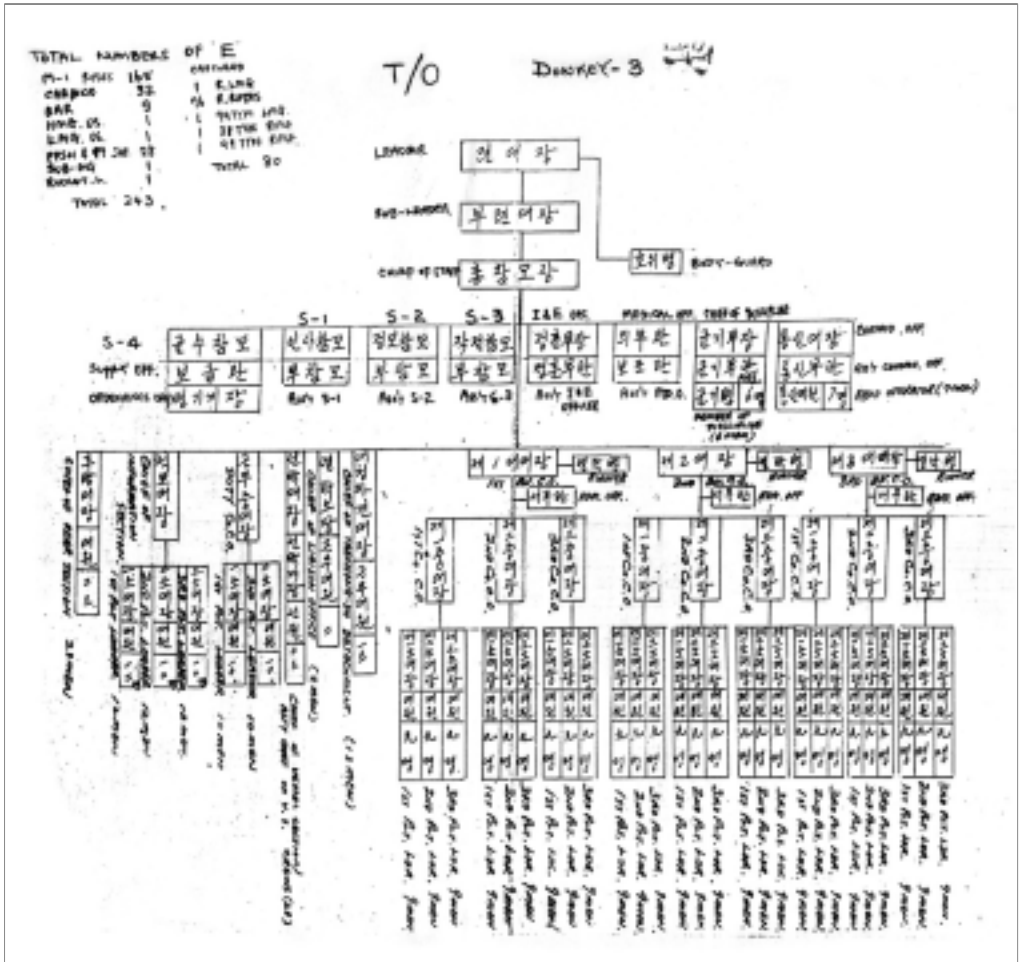
유격대의 지도자들은 대개 전투를 하지 않고, 부대를 대표했다. 즉 부대장은 대개 작전기지사령부와 부대 내 군기, 첩보원 조직, 주둔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대외관계 등을 맡고, 참모장이나 작전참모가 전투지휘권을 가졌다. 실제 전투는 각 유격대의 참모장이 대개 담당했고 부관·보좌관·중대장의 역할도 컸다. 지도자는 유격대원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해임되었다.<sup>107)</sup>

유격대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참모체제가 잘 갖추어 있었다. 이들 간부들이 부대를 운용했다.<sup>108)</sup> 산하 유격부대는 처음에 어떤 특별한 편제 없이 대원들을 몇

106) 2R 2B, 『특명(갑)철』, 1953, 전쟁기념관.

107)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개조로 나누었다가, 동키 제3부대 편성표에 나타나듯이 점차 미군 보병처럼 참모장, 인사 혹은 행정, 정보, 작전, 군수 등 참모부서와<sup>109)</sup> 각 대대를 편성했다.



동키 제3부대 편성표('T/O Donkey-3' 1952. 11. 7)

108)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 120;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같은 문서;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편, SN 1400-1, p. 128.

109) 당시에는 인사, 작전, 정보 등 순서로 편제했던 경우도 있었고(구월부대, 『부대총강』, 1952.4, 구월산유격부대 전우회), 참모 대신에 과장이라는 표현도 썼다(『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 (1956.1.23, 정부기록보존소).

그런데 소대장, 중대장 등 간부임명에서 기준이 없이 부대장의 친소에 의하여 임명된 경우가 있어서 부대 내 갈등요소가 되었다.<sup>110)</sup>

참모진 가운데, 정훈참모는 선무·문화·체육 등을 담당하였다. 동키 제10부대의 경우, 정훈참모 대신에 교도참모가 이를 대신했다. 그 외에도 동키 제7부대의 경우처럼, 특수공작대를 편성하거나 동키 제8부대의 경우처럼 작전과 아래 소규모의 특수공작대를 두고, 적지 상륙하는 병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키 제4부대는 부상병으로 편성된 부상대(負傷隊)가 있었다.<sup>111)</sup> 동키 제15부대는 민사처를 설치하여 주둔지인 대화도와 인근 도서 피난민을 보호하고 섬 주민에게 부족식량을 보급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세워 교육까지 담당했다.<sup>112)</sup>

정규군의 헌병대나 방첩대와 같은 역할을 한 군기대, 감찰부 혹은 R.P.대는 각 부대의 군기 단속은 물론 섬의 치안을 담당했다. 1952년 9월 각 부대에서 합동 군기대를 편성해 단속하기도 했다. 즉 여러 부대가 주둔하였던 초도에는 각 부대에서 2~3명씩 차출하여 합동감찰부(Donkey Police)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 헌병대의 단속을 거부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sup>113)</sup> 군기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국군 군법회의에 이관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또 부대의 감찰 규칙에 의하면, 대원의 군기를 확립할 목적으로 상관에게 불손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 외에도, 탄약을 임의로 양여하거나 잘못 취급해 인화물질에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탄약소비죄’, 풍기문란을 예방하기 위한 강간죄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sup>114)</sup>

또한 군기대는 작전시 부족한 선박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조업 중인 어선을 안남미를 제공하여 징발하였고, 전투시 독전대(督戰隊)로서 역할도 하였으며 철수시 마지막까지 대원의 승선여부를 확인하였다.<sup>115)</sup>

110)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11.5,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계인주, 앞의 책, 171면.

111) 『유격대관련자료』,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112)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11, 81면.

113) 이영재 일기, 1952.9.18-19. 『타이거여단 약사』, 25면; 정만수 증언, 2003.12.8. 군기대의 일부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도 있었다(『황해일보』 1952. 9.23). 군기대에서 배신자나 납치한 북한인을 임의로 처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14) 구월부대, 『감찰세칙』, 날짜없음,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115) 『타이거여단 약사』, 33면; 양석호 증언, 2003.11.13.



유격대가 이용한 선박(동기 제11부대)

유격대원들의 상륙작전시 대원 수송과 귀환 등을 지원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선박대(船舶隊) 혹은 선박과가 있었다.<sup>116)</sup> 섬에서 교통수단은 초기에 범선인 낚배가 전부였다. 기동력 있는 배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낚배에 엔진을 달고 개조했다가, 기지사령부의 지원으로 발동선을 보유했다. 범선은 주둔지 어부들로부터 징발하였으므로 이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sup>117)</sup> 동기 제3부대의 경우 발동선 3척, 범선 7척, 정크선 2척, 전마선 9척 등을 보유했다. 전마선은 ‘똑딱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길이 25m, 폭 4m 정도로 야음을 틈타 적에게 노출되지 않아 상륙전에 유용했다.<sup>118)</sup>

의무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당시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거나 봉합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 약품도 크게 모자라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약간과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항생제가 약간 있었을 뿐이었다.<sup>119)</sup> 이에 따라 부상자들은 수송기로 영등포의 제121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

116) 제6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총인원명부』 1954.1.13,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117)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2002.

118) 장연백호유격대, 『유격전적개황보고서』, 1975; 조재필·최한옥 증언, 동기 제4부대전우회, 2002.8.

119) 이종은 증언, 동기제4부대전우회, 2003.2.21.

한 경우에는 이탈리아 적십자병원이나 국군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다. 창린도에서 부상을 당한 한 대원은 백령도로 후송되어 해군의무실에서 임시 치료를 받고 수송기로 영등포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구 육군병원으로 내려가 치료한 후 복귀했다.<sup>120)</sup> 동키 제15부대에서 중공군의 대화도 폭격시, 이태규 등은 인천시립병원, 대구 국립구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다.<sup>121)</sup>

점차 의료여건이 개선되어, 울퍽 제2부대는 부대본부와 미군의 지원으로 강화군 교동면 읍내에 병원(병원장 김운광)을 개설하였다. 내과와 외과 의무관, 약제관 외에도 간호병 7~8명 등이 부상대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거나 치료를 했다. 다른 의료시설이 없는 섬에서 개복·절단 등의 수술도 했다고 한다.<sup>122)</sup>



울퍽 제2부대 의무대  
(김세영 제공)

120) 이영재(동키 제11부대) 일기, 1952.1.12-22; Guerrilla Section, 8240th AU, HQ FECLD(Korea),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il 11, 1952, 군편, SN 1963.

121) 이태규 증언, 2003.12.8.

122) 『김운광 공적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전투공적조사서』, 1953.12; 김세영 증언, 2002.9.25; 김세영, 『유격군의 백의중군 용사들』,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

## 2. 대원의 모집과 보급지원

### 가. 대원의 구성과 모집

유격대원은 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북한지역에서 피난을 나온 반공청년 6,000~10,00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 주민과 남한출신들도 상당수 모집되었다.<sup>123)</sup> 특히 동키부대는 북한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울퉁부대와 동해안부대 등은 남한출신도 많았다.

유격대원들이 의무적인 군대복무를 위해 징병되거나 고용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원들의 입대 배경은 다양했다. 먼저 북한에서 공산군의 만행과 학살 참상에 대한 강렬한 반공의식에서 비롯되었다.<sup>124)</sup>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것인가, 고향이 보고싶다, 조국에 자유가 와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담했다. “忠을 위하여 愛를 버리리라” 하면서도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안전, 피난한 가족들이 굶주리는 현실에 고민하면서 가담했다.<sup>125)</sup>

혹은 북한에서 남으로 피난해 강제 징집되어 국군에 입대했던 한 참전 용사의 회고처럼 “공산주의가 싫어 자유를 찾아 월남했지만, 누구를 위하여 싸움터에 나아가 목숨을 바쳐야 할지 고민이었으나, 반공인의 한 사람으로 공산군을 무찌르는데 용감하게 앞장 설 결심을 했다”는<sup>126)</sup> 점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지는 미 고문관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후에 월남전에 참가했던 한 미 고문관은 전의를 찾아 볼 수 없는 월남군과는 달리, 가족을 구하고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한국 유격대원들에게 훨씬 더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했다.<sup>127)</sup>

일부는 징집을 기피하거나 고향을 등지고 오랜 피난민 생활에 지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남한출신 가운데에는 국군에 징집되는 것

123) 김용서, 『당나귀의 유래』, 『당나귀』 6, 1953.4, 65면.

124) 황해도서해지구유격군전우회, 『정기총회』 제3회, 1987.7.25.

125) 『이종암 일기』 1953.3.16, 4.6; 『서해의 초소 초도의 순방기』, 『과라슈트』 6, 1953.6, 96면.

126) 이병완, 『끝나지 않는 전쟁』, 명성출판사, 1997, 257-258면.

127) 벤 S. 멜콤, 『백호부대유격전사』, 411면.

보다 미군에 근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점과 미군으로부터 피복, 보급 등이 더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이들도 있었다.<sup>128)</sup> 적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을 가까이 늘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볼 수 있었던 점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점도 유격대 가담 이유였다.<sup>129)</sup> 북한에 침투해 노획한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130)</sup>

대원 가운데에는 형제, 부자, 부자지간, 장인과 사위가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동키 제2부대의 박홍준 대원은 1951년 3월 월사리반도 상륙전에서 북한군으로 끌려간 동생 광준을 극적으로 만나 한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7월 30일 모두 전사하였다.<sup>131)</sup> 동키 제4부대의 노준희는 두 오빠와 함께 가담했고, 동키 제12부대에서는 변철석·변철준이 형제였다. 울팩 제2부대에서는 마승일의 3형제가 가담했고, 울팩 제7부대의 최광국·최광식, 울팩 제8부대의 김일·김기서, 송병원·송병철 등이 형제였다. 송병원은 1953년 5월 해성면 전투에서 전사했다.<sup>132)</sup> 그 규모는 많지 않았지만, 북한군 귀순병들이 중대장이나 소대장 등 간부로 활동했다.

유격대원들의 규모는 1951년 7월경 5,000~6,000명 수준에서<sup>133)</sup> 한동안 지속되다가<sup>134)</sup> <표 4-5>에 의해 나타나듯이 1952년 9월에 이르러 8,175명이 되었다.

128) 이병두, 『오뚜기 인생』 3, 2000, 88-90면; 김관수(아밴리 대원) 증언, 2003.11.5;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129)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한 대원은 울팩 제8부대가 주문도로 이동하자, 웅진반도에 있던 동키 제11부대로 자의로 옮겼다고 한다(조남혁, 『나는 북위 38°선상에서 결혼했다』, 2002, 52면, 56면).

130) 계인주, 『맥아더장군과 계인주대령』, 다인미디어, 1999, 171면; 황순규 증언, 2003.8.8; 김원형 증언, 2003.12.8; “BG 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43.

131) 『구월산유격부대전사』, 70면.

132) W/P 8부대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투쟁사』, 1991.8; 최광국, 『유격전참전수기』, 1992.6; 노준희 증언, 동키제4부대전우회, 2003.7.21.

133)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40.

134) 1951년 12월경 레오파드기지 3,650명, 울팩기지 4,400명, 커크랜드기지 290명 등 8,340명이었다는 기술도 있다(“Gue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53”, p. 15). 그러므로 1951년 9월 대원의 규모가 2만 명 정도라는 진술(이영순, 『KLO/8240부대전황』 1, 『세대』 1967.2, 193

---

면)은 첩보대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너무 많다.



<표 4-5> 각 유격연대의 월별 대원 현황<sup>135)</sup>

(단위 : 명)

월	제1유격연대	제2유격연대	제3유격연대	제5유격연대	제6유격연대	제1공수연대	계
1952. 1	-	-	-				6,000
4	-	-	-				6,000
7	3,200	4,100	275				7,575
8	3,350	4,100	275				7,725
9	3,800	4,100	275	-	-	-	8,175
10	4,600	4,100	275				8,975
11	6,000	7,000	1,150				14,150
12	7,002	7,645	1,589				16,236
1953. 1	7,628	7,737	2,503	-	-	527	18,395
2	6,654	7,927	3,574	-	-	336	18,491
3	7,139	8,080	4,182	-	-	624	20,025
4	5,165	5,335	4,578	2,871	2,304	1,132	21,385
5	5,601	4,024	4,844	3,010	3,001	1,533	22,013
6	6,128	4,180	4,638	3,010	2,932	1,306	22,194
7	4,826	4,188	4,592	1,794	2,464	1,252	19,116
8	4,592	4,093	4,125	1,532	2,099	539	16,973
11	3,064	3,724	3,257	-	3,699	586	14,330

1952년 9월 27일 전구급 사령부(극동군사령부/미 제8군사령부)는 유격대의 작전활동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력을 1953년 3월 15일까지 2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7월 15일까지는 4만 명으로 배가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952년 말경부터 대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각 기지사령부는 전과가 좋은 부대에게 우선적으로 증원을 허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주로 북한출신 피난민이었는데, 점차 남한출신이 늘어났다. 유격대원의 모집은 사령부나 미군 고문이 관여하지 않고 유격대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sup>136)</sup> 간부들이 목포나 군산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고

135) 『유엔군 유격전』, 112면, 167면; “Records of Discussion” Nov. 2, SN 1400-1;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Report” Feb. 1,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향에서 피난 온 청년들을 보충하였다.<sup>137)</sup> 일부 부대에서는 거리에 나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모집하거나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반강제적 설득도 있었다. 한국군에 복무하는 것보다 유격대에 근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더욱이 자질도 확인하지 않고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모집되어 일부는 주먹패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징집기피자로 간주해서 항의하였다.<sup>138)</sup>

이러한 유격대의 증강계획은 휴전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무모한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 약 600여 명의 모병요원들이 유격대에 입대하는 자에게 보수, 피복 등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면서 유격대 입대를 희망하는 자에게 한국 육군의 징집을 보류해 주는 댓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되어 한국 정부는 유격대 모병요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 때 병역기피자와 탈영병 등 부적격자가 유격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유격대 간부들이 대원의 질적 저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갈등을 야기해 대원 확충 계획은 1953년 봄에 결국 중단되었다.<sup>139)</sup> 이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일부 유격대원의 해임조치가 있었고, 입대했던 대원 가운데 일부는 기대했던 만큼 대우가 여의치 않자 탈영함으로써 유엔군 유격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날게 했다.

1953년 5월 유격대의 병력이 22,227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sup>140)</sup> 유격군전우회에서는 유격대원의 수를 백령도기지 9,380명 강화기지사령부 7,999명 스캐논기지 9,535명 덕소공수기지 3,126명 드래곤기지 13,163명 등 총 42,203명으로 주장

136)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 415.

137) 임봉익(동키 제4부대) 증언, 2002.8.17; 김두필(동키 제13부대) 증언, 2003.11.11.

138) 계인주, 앞의 책, 171면;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139) 『유엔군 유격전』, 22면, 25면, 113면, 169-170면; 벤 S. 맬콤, 『백호부대유격전사』, 360-361면, 404면.

140) 그런데 이영순은 유격대원의 규모가 1951년 9월경 20,000여 명에서 68,000명으로 증강시켰다고 진술했으나,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이영순(예, 대령), 『8240부대 유격전』, 1986.3.14, 육본 군사연구실}.

했다. 물론 이 규모는 과장된 점도 있지만, 대원 가운데 첩보부대나 국군으로 입대하거나<sup>141)</sup> 도망하는<sup>142)</sup> 등 도중에 이탈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면 2만 명은 크게 넘었다.<sup>143)</sup>

각 기지사령부에서는 사령관이 직접 현지 부대를 시찰하여 인원을 점검했다.<sup>144)</sup> 그러나 대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대를 떠났다. 특히 휴전을 전후해서 이탈자가 많이 생기면서, 휴전 무렵인 1953년 7월 19,116명이었던 대원의 수가 11월에는 14,33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sup>145)</sup>

전쟁중에도 이탈한 자도 발생하였다. 부대에서 대원을 정예화하면서 연장자나 허약자 등을 해제시키기도 했다. 스캐논 부대에서 활동하였던 김병국이 서해안 동키 제12부대에서 부대장과 갈등이 심해지자 동해안부대로 간 것처럼, 다른 유격대로 옮겨간 경우도 있었다.<sup>146)</sup> 1960년대 국방부에서 정규군이 아닌 참전자에 대한 ‘중군자복무조정시’ 신청한 유격대원 가운데 증명서·사진 등 물적 근거가 희박한 자 3,140명 가운데 1년 이하 복무한 경우는 566명, 2년 이하는 1,888명에 이르렀다.<sup>147)</sup>

1951년 유격대 창설 초기 대원들의 출신지역은 대다수가 황해도 서부 출신이었고, 평양과 정주지역 출신도 있었다. 같은 지역사람들이 많았으며 친인척도 많았다.<sup>148)</sup> 그러나 유격대원들이 모두 북한출신이 아니었다. 1953년 12월 한국군

141) 1952년 1월 중순, 웅진학도유격대에서는 이택규, 오덕수 등 49명이 첩보부대로 지원했다(『학도유격부대전사』, 290면). 백마부대의 김찬수는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국군장교가 되어 복무했다.

142) 울퓌 제8부대에서 도주병을 체포하러 용호도에 갔다가(조남혁 일기, 1953.2.26), 순위도에서 대원 권 모가 도망했다(이종암 일기, 1953.3.2)는 기록이 있다.

143)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9면. 이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소재하고 있는 유격부대 전적위령비에는 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144) 1953년 4월 23일 강화도기지사령관이 말도에 시찰했다(이종암 일기, 1953.4.23).

145)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 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9-23; Col. Rod Paschall, “A Study in Command and Control Special Operations in Korea, 1951-195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1988, p. 1;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2002.

146) 김병국 증언, 2002.7.25.

147) 국방부 병무과, 『중군자복무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962. 10. 10, 정부기록소 소장; 국방부 병무과, 『중군자 복무확인 작업결과』 1965. 8. 4, 같은 문서.

제8250부대와 주한유격군부대(UNPIK)가 그 동안의 전투손실과 이탈자 등을 제외하고 14,000여 명에 대한 배경을 조사한 결과, <표 4-6>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출신은 5,888명으로 42%로 제6유격연대만 북한출신이 56%로 높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남한 출신이었다. 각 부대의 간부나 주력은 북한출신이 주도했을 것이고, 남한 출신들은 북한 피난민 출신과 달리 고향수복 의지나 전투의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원 가운데 여성은 39명에 불과했다. 이는 부대원들을 위해 취사나 빨래, 간호활동 등을 했던 여성들을 정식 대원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49)</sup> 여성대원들은 피난민과 도서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학과공부, 체조, 무용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여성대원들은 여성에게는 적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하거나 통신대원으로 활약하였다. 동키 제4부대의 이만화 여성대원은 당시 15세에 불과했지만, 오빠 이만복이 전사한 후 그를 대신해 입대하기를

<표 4-6> 유격대원의 출생지별 분포(한국육군 제8250부대: 1953. 12. 15)

지역 유격연대	서울	경기도	남한	북한	계	북한 (%)	남한계
제1	3	1,754	30	1,068	2,855	37.4	1,787
제2	23	2,115	32	1,425	3,595	39.6	2,170
제3	538	877	941	1,250	3,606	34.7	2,356
제6	80	1,276	149	1,961	3,466	56.0	1,505
제1공수	60	70	170	184	484	38.0	300
계	704	6,092	1,322	5,888	14,006	42.0	8,118

148) 『유엔군 유격전』, 66면, 68면; 김병선·한갑수·이왕재 등(울퍹 제8부대) 증언, 2002.6.24.

149) 김선애(동키제4부대) 증언, 2002.8. 제8250부대로 편입된 후 대원명부에는 취사를 담당했던 여성을 ‘식모’로 표기하였다(제6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총인원명부』 1954.1.13,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동키 제11부대에서 간부 59명, 유격대원 599명, 군속 243명이라고 분류했는데(국방부제8250부대 제1연대 11대대, 『총인원명부』 1953.11.25, 특전사역사관), 군속이 이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옥·송원옥 등 동계 제4부대 간호대원

호소하여 무전병으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 평북부대에서도 평북부대에는 김원제라는 홍일점 여자무전사가 활동하다가 전사했다.<sup>150)</sup>

여성 대원들 중 구월부대의 이정숙은 함경도 함흥출신으로 1950년 10월말 안악군에서 서하무장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대원들과 함께 합류한 후 부대장 보좌관으로 활동하여 ‘구월산 여장군’이라는 애칭을 얻었다.<sup>151)</sup>

전체 대원들의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일부 부대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다녔거나 졸업했던 대원도 있었다.<sup>152)</sup> <표 4-7>처럼 연령상으로는 23세 이하가 약 60%였고, 17~19세도 26.3%였다. 29세 이상도 3,000명을 넘었고, 울괘 제4부대의 이중기·최만복·박형민 등은 42세였다. 당시 14~15세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서, 이들을 ‘10대 게릴라(the teenage guerrilla)’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울괘 제4부대의 김상돈과 유병열은 14세였다. 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작전에는

<표 4-7> 연령별 유격대원 분포(1953. 12. 15)

(단위 : 명)

연령 유격연대	16세 이하	17~ 19	20~ 21	22~ 23	24~ 28	29~ 33	34~ 40	41세 이상	계
제1	109	521	384	327	560	395	424	96	2,816
제2	54	820	744	565	806	477	162	27	3,595
제3	48	1,252	711	429	556	414	192	4	3,606
제6	63	899	592	399	659	499	317	38	3,466
제1공수	0	184	85	47	82	67	19	0	484
계	274	3,696	2,516	1,707	2,633	1,852	1,114	165	13,967
%	2.0	26.3	18.0	12.2	19.1	13.2	8.0	1.2	100.0

150) 『백호부대유격전사』, 123-15면.

151) 이기건, 『구월산의 여장군』, 우현사, 1953; 『구월산 유격부대전사』, 73면, 97-98면.

152) 『여단 전장병학력별통계표』,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



울팩 제4부대 류내필 등 10대 대원

참가하지 못하고, 전령역할을 하거나 첩보수집을 하였다.<sup>153)</sup>

그런데 유격대원들의 신분은 모호했다. 이 때문에 도망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은 보급을 조절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였다.<sup>154)</sup> 기지사령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는 ‘부대근무자’ 혹은 ‘기관원’<sup>155)</sup>으로 명기되어 있고, 영문으로 고용된(employed)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그들은 미군의 고용인이<sup>156)</sup>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의 통제 받기를 지원한 동맹국의 비정규군 요원들(private army of Korean guerrillas)이었다.<sup>157)</sup>

하지만 대원들은 미군이나 한국군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휴전 후 한국정부와 협의할 때도 그들은 단순히 ‘제8240미군부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이었다. 군 당국에서는 유격대 간부들이 국군으로 편입될 때,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장교로 현지입관”한 것으로 처리했다.<sup>158)</sup> 결국 유격대원들은 “군번도

153) 『유엔군 유격전』, 168-169면; 『해주유격부대전사』, 430-443면; 심구인·최광식(동키제4부대) 증언, 2002.8; Allan R. Millett, *Their War for Korea*, pp. 51-53.

154) 『조남혁 일기』, 1952.2.26;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L.

155) 베이커기지, 『신분증: 김완규』 1952.4.22.

156) 미군들은 통역 외에도 보급, 기술, 의료, 수송 등에 많은 한국인을 고용했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급여를 지불했다(이정구 증언, 2003. 10.21; MHD, 8086th Army Unit, FEAF, “Maintenance of Troop Strength in Korea”, 1954, 군사편찬연구소 SN 455, p. 114).

157) John Patrick Finnegan, *op.cit.*, p. 119.

158) 『합의문서』,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30-631면; 육본, 『민원처리회신(임종득)』, 1986. 5.28; 육본, 『민원처리 결과회신(목영설)』 1995.12.4.



신분증



없이 계급도 없이” 활동을 했던 것이다. 아무런 신분보장도 없이 사선을 넘나 들었다는 점은 그들을 불안하게 한 요소였다.<sup>159)</sup>

만약 유격대원들의 신분보장이 확실했다면,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것이고 그들을 통제하기도 쉬웠을 것이다.<sup>160)</sup> 대원의 신분이나 처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휴전협상이 진전될수록 대원들은 자신의 장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부대에서 대원명부를 유지했으나,<sup>161)</sup> 미군은 한국정부 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혹은 군사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고 개인기록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162)</sup>

## 나. 보급 지원

### (1) 무 기

유격전에서 무기와 탄약, 식량부족은 매우 큰 문제이다. 유격대원들이 북한 지역을 집단적으로 탈출하여 자생 유격대를 조직하여 활동할 때 무장도 미약했고 탄약, 식량 및 기타 보급품도 부족한 실정에 있었다. 당시 국군으로서도 유격부대를 지원하기 어려웠다.<sup>163)</sup> 유격대는 해군으로부터 일부 무기와 탄약, 구호품을 받았지만 작전 활동시 탄약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늘 부족하였다. 또한 대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sup>164)</sup>

이 때문에 유격대가 작전을 할 때에는 소총 사수나 경기관총 사수 뒤에 몇 명

159) 방성운, 『군번없이 싸운 무명용사들!』, 육본, 『호국용사 6·25 참전 전투수기』 4, 2002, 431면.

160)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5.

161) 현재 남아있는 대원명부는 휴전 후 국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62) 『유엔군 유격전』, 25면, 68면;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7-18;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 419.

163) 당시 무기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M1 소총 1정 64달러=89,600원, BAR 1정 358달러=501,200원, 바주카포 1문 65달러=91,000원, 중기 1문 720달러=1,008,000원, 60밀리 박격포 1문 554달러=775,600원, 81밀리 박격포 1문 1,055달러=1,477,000원 등이었다. 당시 1 달러는 1,400원으로 환산되었다(아침, D-10, 『새해를 맞으며, 나의 일언』, 『당나귀』 3, 1953.1, 22면).

164) 민중선 증언, 2003.9.27; 박상준 증언, 2003.11.8.

의 비무장 대원이 따라 붙어, 북한군이 쓰러지면 총과 실탄을 노획했고 농구화나 군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러나 유격대가 미군 통제로 들어가면서 식량과 무기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났고 군복도 잘 갖추어 입게 되었다. 이렇게 여건이 호전되자, 유격대원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대원들도 있었다.<sup>165)</sup>

미 제8군은 1951년 1월에서 2월까지 피난민과 무장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식량과 피복, 무기와 탄약을 서해 도서 지역으로 보냈다. 유격대에 대한 미 제8군의 초기 보급방침은 기본장비를 충족시킨 이후부터 유격대가 자급자족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방침은 유격부대가 필요한 군수품을 대부분 노획하고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또 해결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것이었다. 사실 적에게 타격을 크게 줄수록 무기와 탄약, 식량 등이 충족되므로 작전이 있을 때는 무장대원 뿐만 아니라 비무장 대원이나 피난민들이 식량을 운반하기도 했다. 이를 유격전의 장점이라고 여기기도 했다.<sup>166)</sup>

미군 통제아래 편입되면서,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통신기와 무기 등을 보급받아 유격대원의 사기가 고양되었다.<sup>167)</sup> 유격대도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잘 치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신 무기와 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8240부대 아래 소속된 유격대는 미군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적 후방에서 스스로 조직된 자생유격대 수준에 비해 각종 장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나아졌다. 각 부대에게 지프 1대와 소형 쾌속정 1척 등을 비롯해, 중장거리 무전기(SCR-10, CAR-609) 등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파견대나 인접부대와 연락하기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었고 백령도와 강화도 기지사령부와의 연락이 용이해졌다. 무전기는 교신시간이 야닐 때면 미군이나 일본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sup>168)</sup>

당시 미 제8군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951년 2월 유격대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의 총수는 약 1천여 정 정도에 불과하였다. 4월경에도 동키 제15부대 한 중대장의 부족한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진하다가 희생되고 말았다.<sup>169)</sup>

165) 이형우, 앞의 책, 152면, 334-335면.

166) 이형우, 앞의 책, 205면.

167)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11, 80면.

168) 무전기 교신을 통해서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이영재 일기, 1952.7.24).

미 제8군은 1951년 1월말부터 6월초까지 1,707정의 각종 무기를 추가로 보급하였다. 이 중 747정은 소련 및 일본제 화기였다. 유격대도 2월부터 7월까지 762정을 노획하였다. 당시 유격대가 보유한 무기는 종류가 다양하여 탄약 조달의 어려움이 많았다.<sup>170)</sup>

1951년 7월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유격부대의 전투 가능인원은 총 7천여 명인데 비해 무기는 약 3,400여 정으로 당시 그들의 무기 보유수준을 알 수 있다. 이 해 8월 동키 제5부대(타이거여단)의 병기 현황을 보면, 칼빈 36정, M1 97정, 일제 99식 소총 53정, 소련제 소총 77정, 소련제 장총 394정, 다발총 119정 등 모두 합해도 1,004정(일부 포 포함)에 불과하여<sup>171)</sup> 당시 대원의 규모에<sup>172)</sup> 비추어 보면 무장비율이 매우 낮았으므로, 여전히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소련제 소총이나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했다. 이 무렵 작전을 나갈 때 실탄을 5발로 제한하는 실정이었다.<sup>173)</sup>

이처럼 유격대원들에게 장비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았다. 1952년 초까지도 동키 제11부대(웅진학도유격대)의 경우 중화기는 없고 소총만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군 복무경험이 없는 학생들로만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유격대 창설 초기 대원 모습(동키 제11부대, 1951년 2월경)

169) 『동키 제15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11.5,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70) 『한국전쟁과 유격전』, 136면.

171) 『병기총계표』 1951.8.1(전우회 제공).

172) 당시 규모가 5,000명이라고 주장되었다.

173) 민종선 증언, 2002.11.14; 박상준 증언, 2003.8.22.

까지 동키 제7부대(수월부대)의 경우도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무기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노획무기를 활용했다고 한다.<sup>174)</sup> 유격대원들에게 소총만으로는 작전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적의 야간기습작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명탄과 같은 것이 절실했지만 이러한 장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sup>175)</sup> 1951년 12월부터 1952년 7월까지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가 유격부대에 추가 보급한 무기는 <표 4-8>과 같다.

보급된 무기는 M1과 칼빈 소총, 57mm와 75mm 무반동총, 60mm와 81mm 박격포, 3.5인치 로켓포, 자동소총 등으로 화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1952년 11월 처음으로 소염 장비가 부착된 화기와 화염방사기를 갖추었고, 57mm 대전차포도 지급되었다.<sup>176)</sup>

이러한 규모는 국군 정규 사단의 군수품이 칼빈(Cal 30, M2) 4,541정, M1 소총

<표 4-8> 무기 보급 현황(1951. 12~1952. 7)

(단위 : 정, 문)

화 기	수	화 기	수
권 총		박격포(문)	
38구경	123	60밀리	33
45구경	331	81밀리	20
M1 소총	6,363	무반동총	
칼 빈		57밀리	9
M 1	174	75밀리	6
M 2	481		
기관단총(45구경)	305	로켓포(문)	
자동소총(30구경)	386	2.37인치	24
경기관총(30구경)	65	3.5인치	26
기 관 총(50구경)	26	유탄발사기	331

174) 이진복(동키 제7부대) 증언, 2003.11.8; “The Narrative of Mr. Lee Jung Hok, Leader of D 11”, Nov. 4, 1952, p. 83.

175) 한봉덕·김찬수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3.7.9.

176) 이종암 일기, 1953.6.22-23; 강석인, 『웅진학도유격대 투쟁사 증언』, 1986.7.15, 8.25, 육본 군사연구실;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16면, 29-31면; 이형우, 앞의 책, 334면; 『유엔군 유격전』, 217-218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32” Sep. 2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Archie’s Letter”, Oct. 21, 2002.

5,956정, 자동 소총 411정, 권총(45구경) 1,758정, 박격포 65mm 81문, 81mm 39문, 로켓포 3.5인치 297문, 2.36인치 81문, 기관총 50구경 244정, 경기관총 30구경 182정, 기관단총 45구경 248정, 무반동총 57mm 81정, 75mm 39정 등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77)</sup> 그러나 이러한 유격대의 무장은 좌익 빨치산들이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정도에 비하면, 정규군과 버금가는 장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sup>178)</sup>

1952년 후반기에도 각 유격대에 지급된 무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1952년 11월 경, 동키 제4부대의 부대원 규모는 657명인데 비해 M1 265정, 칼빈 57정, 그 외 기관단총 박격포 등을 모두 포함해도 348정에 불과했다. 동키 제16부대도 대원이 총 143명이었으나 비무장 대원수는 69명이었다. 더욱이 작전에 필요한 병력 70명 가운데 40명이 비무장이었다. 동키 제20부대는 412명 가운데 무장대원 264명이고, 120정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동키 21부대는 부대원 443명 가운데 무

<표 4-9> 동키 제20부대(D-20) 병기 통계<sup>179)</sup>

소 속	M-1	칼 빈	M-2	경 기	중 기	자동소총	다발총	구구식	권 총	
본 부		1							2	3
S - 1								1		1
S - 2		1							1	2
S - 3		1							1	2
S - 4			2							2
군 기 부	1	2							1	4
통 신 부		1								1
수색대대	3	5					5	64		77
제 1 대대	40	4	1	1	1					46
제 2 대대	40	4			1	2				47
제 3 대대	40	4	1			2				47
계	124	23	2	2	2	4	5	65	5	232

177) "Ordnance", G2/I, "Military Capabilities of ROK" Mar. 9, 1951, RG 319/47, SN 1620.

178)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9면.

179) 『D-20 병기 통계 급 배치표』 1952.11.7, 군편, SN 1963.

장총수는 165명에 불과하고, 무기 부족수가 278정이라고 보고했다. 동키 제20부대의 경우, 중기관총은 총 8정에 불과했던 것처럼 다른 부대도 비슷한 사정이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군이 보급한 무기 외에도 각 부대마다 구식 장총을 상당수 활용하였다. 동키 제3부대의 경우, 지급된 무기는 243정이었고 노획무기는 소련제 경기관총 1정을 비롯해 소총 76정, 99식 소총 등 80정이었다.<sup>180)</sup>

이런 상황이 계속된 데에는 미군도 군수 부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sup>181)</sup> 유격대 기지사령부에서 대원들의 작전이나 전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해 보급품을 작전통제수단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각 기지 사령부는 유격대가 실시한 작전과 그 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보급품을 제공했다. 올팩 제2부대장 박상준은 미군들이 중공군 포로를 인계하면 경기관총이나 박격포를 보상으로 주었고, 북한군 포로인 경우 소총을 지급해 줌으로써 유격대의 무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다.<sup>182)</sup>

## (2) 식 량

의식주 가운데 식량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미군에게 쌀을 보급받을 때까지는 식량조달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sup>183)</sup> 섬으로 피난 나온 유격대원들은 생필품이 늘 부족하였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친 얼굴에, 군복도 제대로 보급 받지 못해 절반은 군복을, 절반은 여기저기 덧대어 기운 사복차림이었다. 군복을 입은 대원은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사복을 입은 자는 그대로 길거리에 나왔으면 거지라고 할 만한 행색이었다. 식사는 하루에 아침 저

180) 『D-16 부대편성 급 장비배치표』 1952.11, SN 1963; 『D-21연대 편성표 및 무기통계표』 1952.11, 같은 문서철;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27-28.

181) Record of the Action Taken by the JCS Staff Relative to the UN Operations in Korea from 25 June 1950 to 11 Apr.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699, p. 77.

182) 『박상준 회고담』,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183) 최진현·송종명(동키제4부대)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3.7.21. 이 시기는 국군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했다. 군용 수통 한 컵 정도의 양이 하루 식량이었고, 반찬은 약간의 된장과 소금이 주된 것이었으며, 노란 무 한쪽도 받은 날이 드물었다고 한다. 1951년 5월 이후에 보급이 개선되어 식량이 넉넉해졌고, 장비도 보충되었다고 한다(강복구, 앞의 책, 63-64면).

녁으로 주먹밥 2덩어리씩 배식되었다. 대원들은 배가 너무 고프고 고생이 많았다고 기억했다.<sup>184)</sup>

미군의 보급은 대원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부대에 따라서는 더 많은 보급을 위해 가명(假名) 명단도 다수 있었다. 유격대장들은 가능한 많은 보급을 원했지만, 기지사령부에서는 전과를 입증할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했다. 전과가 있으면 보급품이 넉넉했지만, 전과가 없으면 안남미만 보급했다. 각 부대별 전과를 비교하여 성적이 좋은 부대는 쌀을 추가로 지급하였다.<sup>185)</sup> 즉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급이 제한되었다. “보급품은 전투작전의 성과에 그 양이 비례하여 지급될 것”이라는 방침 때문에 “한 명의 포로라도 더 잡아야 해. 한 명 잡는데 안남미 열 포대야, 우리의 보급을 위해서라도 더 잡아야 한다”<sup>186)</sup>는 말처럼 유격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과를 획득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 사령부는 노획된 무기와 장비로부터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하여 완전한 보급지원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미 고문관들은 “훌륭한 게릴라부대는 적지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유격대의 보급창은 적진에 있다”면서 “적은 모든 유격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많은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다. 적으로부터 물자를 노획하여 사용하라”고<sup>187)</sup>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원들은 그들에게 야속한 마음을 느꼈

184) 복장 역시 철수당시 소지하였던 다양각색의 민간복장을 걸쳤고, 피난민이 밤새워 만든 짚신, 운동화 등을 신었다. 신발은 고무신 또는 구두, 학생화 등을 신었는데, 바닥이 떨어져서 노균 줄이나 혹은 새끼줄로 동여매서 신어 ‘햇바지부대’라고 불렸다. 유격대원들에게 잘 맞지 않는 피복이나 군화가 지급되어, 대원마다 헐렁한 미군 군복을 입었다(이형우, 앞의 책, 335면; 『해주유격부대 전사』, 218-219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4).

185) “Records of Discussion” Nov. 2, SN 1400-1; Col(ret.).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사편찬연구소, SN 1962, p. 426; 이봉석·김병선·백경부 등 증언, 율백 제8부대 전우회, 2002.6.24.

186) 버크 중령, 『지시서』 1951.8.9(박상준 제공 문서);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 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임수, 『제2차 개성시탈환작전비화』, 『송도』 1992.9, 104면.

187)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 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HQ, FEC LD(K),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으며, 약소민족의 슬픔으로 이해했다.<sup>188)</sup>

또한 각 기지사령부는 식량을 작전통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쌀 분배권을 활용하였다. 이 때 미군측은 유격대에 보급품을 분배하면서 2가지 중요한 문제와 부딪혔다. 즉 유격대의 정확한 대원명부와 작전 결과의 통제였다. 그러나 기지사령부 예하 유격부대들이 내륙에 많은 대원들을 침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통제요원인 미군이 대부분의 소규모 습격작전까지 감독할 수 없었다. 보급분배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란 통상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유격대에 더 많은 작전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작전보고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sup>189)</sup>

기지사령부는 보급품을 배와 항공기로 수송하였다. 후방기지사령부(KCOMZ)에서 보급품을 인천이나 동해안의 속초로 수송하면, 주로 해군 LST선이나 일부 공군 수송기로 기지사령부에 보냈다. 기지사령부는 각 유격대 근거지로 정크선을 통해서 쌀·담배·건어물 등 보급물품을 보냈다.<sup>190)</sup>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는 C-45 수송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백령도 용기포의 천연 비행장으로 물자를 수송하였다.<sup>191)</sup>

서울 공항(K-16)에서 서해안의 백령도와 초도, 동해안의 여도로 공중보급을 지원했던 부대는 제21TCS(1952년 12월 제6461TCS로 변경)였다. 당시에 이 부대를 ‘큐슈 집시(Kyushu Gypsy)’라고 불렀다. 부대장 알트하우스 중령(H. Clarke Althause)이 지휘한 비치코머(Operation Beachcomber) 보급작전은 1951년 여름부터 시작했다. 미 제5공군이 간혹 호위를 했으나, 적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저공비행을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sup>192)</sup> 때로는 그리스와 타이랜드 C-47 수송기도 동원되었다.

Apr. 11, 1952, 군편, SN 1963.

188) 박종극, 『유격대원에게 남기고 싶은 글』, 2002.6.25.

189) 『한국전쟁과 유격전』, 137-138면; 『유엔군 유격전』, 119-120면.

190)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9.

191) 송효식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2.8.21.

192) “Major(R), Dana L. Mansur Jr.'s letter to Min Jong Sun, President White Tigers Veteran Association” Feb. 4, 2003{부대원들은 큐슈집시전우회(Kyushu Gypsy Squadron Association)를 결성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Captain A. G. Thompson, *The Greatest Airlift, the Story of Combat Cargo*, Tokyo:



미군은 대체로 유격대원의 수보다 50% 이상 보급품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한다.<sup>193)</sup> 전쟁 당시 보급을 맡았던 미군 장교는 이를 매우 혼란스런 작전(a most frustrating operation)이라고 회고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보급인원은 물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sup>194)</sup>

미 제8군은 1951년 1월말부터 6월초까지 쌀 801톤을 유격대에 보급하였는데 이 보급량은 월평균 180톤 정도로 1951년 7월 당시 전투 가능인원 7천 명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월 25kg 정도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1952년도에 주한 극동군 사령부 연락처에서 유격대에 제공한 군수비용 중 쌀 및 기타 식량을 위한 비용이 약 820만 달러였다. 1952년의 군수비용중 쌀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쌀은 유격부대의 경비지출 수단으로 월간 1인당 45kg짜리 한 포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부대장은 쌀의 초과량으로 필요한 육류, 어류, 야채 등의 부식과 기타 생활 필수품 획득을 위하여 주민들과 물물교환을 하였다.

쌀을 유격부대에 일괄 지급하면, 부대장들이 대원들에게 분배했다.<sup>195)</sup> 유격대원에게 1일 800그램씩 혹은 9홉씩 지급된 쌀은 동양인에게 1일 소요된 600그램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여겼다. 5~6홉은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부식거리와 교환했다.<sup>196)</sup>

유격대가 기지사령부로부터 보급품을 받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대원에게 충분하

Dai-Nippon Printing Co, 1954, pp. 273-281.

193)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32.

194)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9-23. 보급품의 관리 및 배분과정에서 지휘관의 유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보급이 거의 악몽수준(the logistic nightmare)이라고 회고했다. 무기, 탄약, 무전기, 텐트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보급품의 재고를 조사할 때면 재고량이 크게 부족했다. 지휘관이 일부 보급품을 내다 팔거나 친지에게 주거나 혹은 도둑을 맞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195)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유엔군 유격전』, 119-120면.

196) 『다이 소령과 면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특별 주간작전보고서 제19호, 1953.2.23-3.1』, 같은 문서.

지 못했다. 1952년 11월 주요 부대장의 훈장 추천서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애국심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했다”는<sup>197)</sup> 것처럼 유격대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사령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장비·탄약·식량 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고 공산군을 상대로 계속 투쟁하였다.<sup>198)</sup> 다만 일부 부대에서는 대원들이 칫솔이나 바지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99)</sup> 1952년 1월 중순 미 제8240부대 정보학교에서 교육생을 모집할 때, 웅진학도유격대 대원 49명이 입교했다. 그들은 교육을 마친 후에 미군 부대에 보직되어 대우는 물론 근무조건도 좋다는 점을 이유로 응시했다.<sup>200)</sup>

각 부대는 이에 따라 적이나 비협조적인 주민들로부터 곡식이나 소를 노획했다. 적 후방에 침투한 대원들에 대한 보급이 가장 어려워서 전리품을 보급에 충당하였다. 동키 제4부대의 경우, 마합도의 보급기지는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품을 보관했던 곳이었다.<sup>201)</sup> 황소·식량·피복·선박 같은 노획품은 이를 획득한 유격대가 사용하되,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팔 수 있었다.<sup>202)</sup> 이 때문에 유격대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모 유격대 간부는 국민들이 유격대가 “도적놈이 아닌 것을 알아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sup>203)</sup>

또한 각 부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격대원들은 부대 주둔지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동키 제21부대의 경우, 1952년 11월 경 대원

197) 토마스 A. 다이 소령, 『훈장추천지건』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198) 대위 도날드. A. 세이버트(Donald A. Seibert),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11.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199) 조남혁 일기, 1953.1.25, 28; 이영재 일기, 1952.4.21.

200) 『학도유격부대전사』, 29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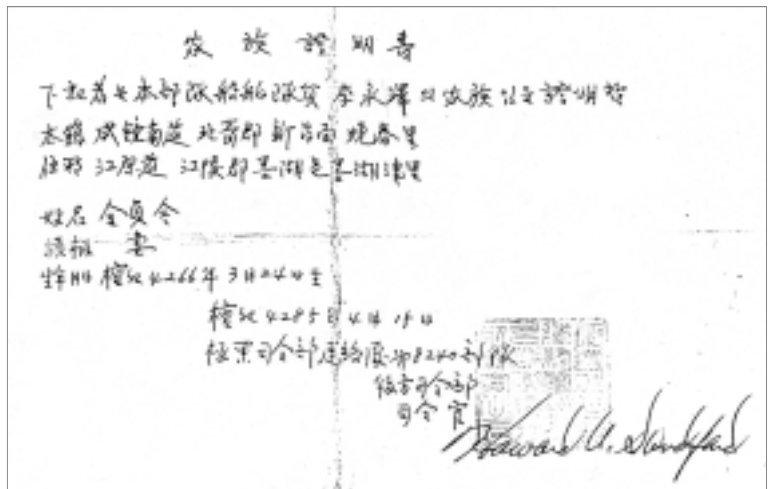
201) 대위 도날드. A. 세이버트,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11.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민종선 증언, 2003.8.16; Allan R. Millett, *op.cit.*, p. 54;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4, Pak Choll”,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02)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 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이 과정에서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인삼, 아편 등으로 대북교역을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모 부대 전우회, 2002.6.24).

203) 『당나귀』 2, 1952.12, 77면.

의 규모가 443명인데, 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의 수는 383명이었다. 모 대원의 경우, 조부모 부모 형제 처 자녀 등 9명에 이르렀다.<sup>204)</sup> 유격부대에서는 대원 가족을 위해 가족미를 지급했다. 한 대원은 울퉁 제8부대에서 가족미로 5되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작전에서 쌀, 소금, 소 등을 노획해서 혹은 팔아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부대원들과 가족들을 부양했다.<sup>205)</sup>

유격대원 가운데 이탈자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sup>206)</sup> 사령부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키 제16부대장 전용세는 사령부에게 대원가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sup>207)</sup> 이 때문에 사령부에서 유격대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원조계획이 있었다면 대원의 도망이나 ‘약탈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했다.<sup>208)</sup> 이후 유격군 사령부는 대원들 1인에게 식량 외에 야채, 생선, 고기 등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가족증명서

204) 『D-21연대 편성표 및 무기통계표』 1952.11, SN 1963; D-21연대, 『대원가족명부』, 1952, 육본 군사연구실(사본).

205) 이종암 일기, 1953.4.1; 조남혁 증언, 2003.9.29.

206)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207) 『설문』, 『당나귀』 2, 1952.12, 81면.

208) 『미군장병의 전투체험 보고서』 1954.3.21, 『유엔군 유격전』, 296면.

쌀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sup>209)</sup>

각 부대는 부식조달에 힘을 기울였다.<sup>210)</sup> 동키 제15부대는 후방대장 김제익을 책임자로 삼아 ‘추수대’를 편성하고 가도의 농산물을 수확했다. 벼, 조, 콩, 옥수수, 팥 등을 합하여 약 2,000여 석을 거둔 후, 대화도로 운반하여 식량수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밤, 복숭아, 등의 과일도 추수하여 대원들의 영양공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겨울철 부식조달을 위해 어영도 어장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대화도 앞 바다에서 갈치잡이배 6척을 동원하여 약 200t 가량의 갈치를 잡아서 탄도에 있는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sup>211)</sup> 담배도 대원들에게 중요한 보급품이었다. 상륙작전이나 첩보공작으로 육지에 가면 일부 대원은 필사적으로 담배잎 말린 황초(黃草)를 한 보따리씩 걸머지고 들어왔다.<sup>212)</sup>

일부 부대에서는 값싸고 편리하게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인천으로 군수와 요



순위도 보급창고

원을 파견하여 조달하기도 했다.<sup>213)</sup> 그런데 동키 제11부대의 어화도 주둔부대에서 부식 조달과 현지주민의 생계에 기여하고자 1953년 3월 31일, 유격대원 14명이 동남면 태배도로 굴채취를 나간 28명의 부녀자들을 지원하려 나갔다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다수의 전사자와 포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214)</sup>

209)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41-144.

210) 동서해안에 주둔한 해병대에서도 부식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었으나, 대원들이 산나물을 캐서 보충했고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128면).

211) 김찬수편, 『유격전』, 백마부대전우회, 2002.12.25.

212) 『구월산유격부대전사』, 80면.

213) 이종암 일기, 1953.1.29-30; 박종극(울팩 제6부대) 증언, 2002.7.3.

214) 『학도유격부대전사』, 378-382면.

## 제 4 절 교육훈련과 일상생활

### 1. 교육훈련

#### 가. 훈 련

유격전은 대원들의 뚜렷한 투쟁의식과 소총이나 TNT만 있어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원들의 훈련이 강조된다.<sup>215)</sup> 어느 면에서는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은 훈련과 전술이 필요하다. 유격대도 군사지식과 전술을 연마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전투의 원동력이다.

전쟁중 국군 장병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이 강조되었다. 전선이 안정되고 병력이 확대되면서 1951년 3월경이면 보병학교, 부사관학교, 신병훈련소 등을 운용해서 전투력을 향상시켰다.<sup>216)</sup>

특히 장교의 능력이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James A. Van Fleet) 장군의 영향으로, 국군 장교 양성과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미 1951년 3월초부터 16주의 교육과정은 24주로 연장되었다. 장교후보생은 10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후 각 병과학교에서 14주간의 병과별 교육을 실시했다. 1952년에는 한국군 보병장교 150명과 포병장교 100명을 미 보병 및 포병학교에서 연수받도록 했다.<sup>217)</sup>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그들의 교육효과가 1952년 중·동부전선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sup>218)</sup>

215) Ellery Anderson, *Banner Over Pusan*, p. 24.

216) HQ, EUSAK, "Special Problems in the Korean Conflict", Sep., 1952, pp. 16-18, 군사편찬연구소 SN 340.

217)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2, 44면; 『위대한 장군 밴플리트』, 429-430면.

국군 사병들의 훈련기간도 연장되었다. 전쟁초기에는 10일 정도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1951년 4월부터 훈련주기가 4주에서 8주로 늘어났고, 이 해 7월부터는 다시 12주로 늘어났다.<sup>219)</sup> 전쟁시기 논산 제2훈련소의 8주간 육군 신병 교육내용은 화기 42%, 각개 전투·부대전술·공격·방어 등 전술 24.1%, 제식·총검술·독도 등 일반 27.1%, 지휘관 교육 등 5.4%로 편성되어 있었다.<sup>220)</sup>

유격전의 목표는 내륙에 있는 적 부대 기습, 교량과 철도 파괴 등을 통해 적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격대의 교육은 상대방의 전술과 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 야간전투 훈련, 기후 및 지리 파악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운용된 국군 통제하의 유격대와 달리 미 제8240유격대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해도서로 피난 나왔던 청년들은 고향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를 갈망했지만 게릴라전을 잘 몰랐다. 유격대원들은 군사훈련다운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실전을 통해 대원들의 희생을 치뤄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던 것이 현실이었다.

유격사령부에서는 미군과 백령도 주둔 한국군 해병대의 부사관들을 비롯한 국군의 지원을 받아 유격대 간부들에게 정보, 무전기 조작 및 정비, 개인화기, 전투집단 편성, 보급 및 공수 낙하, 파괴 등에 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sup>221)</sup> 백령도 작전기지사령부는 유격부대의 편성 초기에 각 부대 간부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동키 제10부대의 경우, 작전참모 이경남·통신대장 연두권 등 20여 명, 동키 제15부대도 부대장 이하 중견간부와 통신대원 30여 명이 백령도 작전기지사령부에서 각종 화기 사용법과 무전기 조작법, 게릴라전 폭파와 통신훈련 등의 훈련을 받았다.<sup>222)</sup> 그러나 간부들에 대한 재교육은 없었다고 한다.<sup>223)</sup>

218) 매튜 B. 리지웨이(김재관역), 앞의 책, 217면.

219) 박일송, 앞의 논문, 42-43면.

220) 교육총본부, 『교총사』 1, 1958, 16면, 181-182면.

221) 追月(D-13), 『당나귀를 찾아서』, 『당나귀』 2, 1952.12, 17면; “Col. 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51; Allan R. Millett, *Their War for Korea*, p. 53.

이러한 훈련 부족으로 전후 장교로 임관된 유격대 간부 가운데 ‘무능장교’로 몰린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격대가 해체된 후, 장교로 임용되어 보병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던 어느 유격대원은 유격대에서 교육과 훈련이 미흡했음을 자각했다고 한다. 부대 간부들이 실병 지휘경험이 없었고 전투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훈련에 관한 체계적 기록이 남아 있는 율곡 제2부대의 경우, 교육대를 설치하여 소대장·중대장 등 간부 및 대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제1기 간부 교육은 1952년 6월 20일부터 교동도에서 1주일간 교육을 받았다. 제4기는 공수중대 2소대장 장영석 등 18명이 1953년 3월 7일 수료했고, 제5기는 1연대 2중대 선임간부 최덕희 등 12명이 3월 22일 수료했다. 학과훈련으로는 통솔·교수·군법·위생·유격·독도법·지형학·정찰·화기 등을 실시했고, 전술 분야는 분대·소대·중대전투·포 훈련·방어배치 등이었다.<sup>224)</sup>

일반 대원들은 각 유격대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대원들은 고향과 실지회복을 위한 열의와 반공사상만 가지고 작전에 임했기 때문에 전투능력에 한계가 있었다.<sup>225)</sup> 실제로 피난 나온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느라고 교육훈련에 치중할 겨를이 없었던 대원들도 많았다.

유격군은 대개 15일부터 1개월 정도 전투훈련을 받았다. 청년방위대나 을지병단 출신들·국군 낙오병·북한군 귀순병·치안대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였다. 미 제8240부대로 편입된 후에는 각 부대 고문관이 주도하여 훈련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미 육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상등병 헤지스(Allen Hedges) 등의 특별 훈련이 있었다.<sup>226)</sup>

단위 유격대에 배속된 미군 기간요원이 크게 부족해서 장비정비와 사용법을 훈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유격대원들은 병기조작이나 장비의 손질, 정비 등의

222)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11, 80면; 이경남, 『구월산유격대혈전기』, 육본, 『전화속의 무훈』, 1985, 109면; “UN Partisan Forces” 1951-1952, p. 100.

223) 홍일표(동키 제7부대) 증언, 2003.11.7.

224) 『장교교육수료자 명단』, 1953; 『장교교육과목 급 시간』, 날짜 없음,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225) 이명재·오진환 등, 『W/P 5연대 전사자료』, 날짜없음.

226) 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타이거여단 제1기 장교교육(1952.6.20)<sup>227)</sup>

적절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평가되었다.<sup>228)</sup> 더욱이 미군 장병들이 유격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미군 가운데 일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격전의 경험이 있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유격전 훈련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유격전 교리나 전술에 능한 간부들이 거의 없었다.<sup>229)</sup> 이러한 요소는 유격전 성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실전 경험도 없는 무전사를 적 후방에 파견하는 일이나, 적절한 모의 훈련도 없이 후방에 침투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sup>230)</sup>

교육훈련은 체계적이거나 장기적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이었다. 대부분 미군 보병 소단위전술에 기초한 분대, 소대 및 중대훈련을 실시했다.<sup>231)</sup> 1953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군 장병에 대한 첩보활동, 도피와 탈출, 태업과 폭과활동, 비정규전, 독도법, 항공사진판독 등을 교육시키도록 했으나,<sup>232)</sup> 곧 휴전이 되

227) 해주고보·동중동창회, 『백세제봉』, 1992, 303면.

228) 『미군장병의 전투체험 보고서』 1954.3.21, 『유엔군 유격전』, 296-298면.

229)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2002.

230)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 p. 27.

231) 이진복(동키제7부대) 증언, 2003.11.8; "Archie's Letter", Oct. 21, 2002.



어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유격대의 한국인 교관들도 군사교육을 정식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술교육은 미흡했다. 작전에 나가지 않을 때나 겨울에, 각 유격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원들에게 조우전, 방어전, 참호구축 등 전투일반, 신호, 독도법 등을 교육시켰다. 겨울에는 내한(耐寒)훈련을 실시했다.<sup>233)</sup> 훈련 교재로는 육군교범을 활용하거나 시중의 유격전 관련 서적을 구입해 활용했다고 한다.<sup>234)</sup>

동키 제7부대의 경우 이정세 중사 등 낙오병을 중심으로 훈련대를 유지했고, 울퉁 제2부대의 경우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훈련을 이수한 최병태를 교육대장을 중심으로 청년방위대 출신 장교들이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미 고문관이 배치된 후 미 육군교범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2년 11월 1일부터 제1기 72명에 대한 교육이 1주일 정도 시작되었다.<sup>235)</sup> 제2기 76명, 3기 75명…13기 120명 등 총 1,120명에 대한 일반교육·첩보·화기·통신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과훈련으로는 진중근무·군인상식·군제·전술·병기 등이 실시되었고, 전술훈련으로는 각개 교련·밀집훈련·집중훈련·총검술·사격·전투교련·행군 등이었다. 공수중대원들에게 대한 낙하산 훈련은 1952년 3월 하순에 실시되었다.<sup>236)</sup>

울퉁 제4부대의 경우 국군 낙오장병인 최후석 소위, 김자선 상사에게 교육훈련 계획과 교재작성, 훈련을 위임하였다. 교육은 1개월 과정으로 제식훈련·각개 전투훈련·총검술·사격술·무술·TNT 조작법·독도법·조류 숙지법 등을 실시하였다.<sup>237)</sup> 울퉁 제8부대의 경우 대원들을 3개 대대로 편성하여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農道院), 삼성초등학교 등의 교육대에서 각각 1개월 남짓 제식훈련, 교량파괴, 유격전술 등을 실시하였다.<sup>238)</sup> 동키부대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동

232) 『장교 및 사병 고등정보반 과정』, 『유엔군 유격전』, 275-285면.

233) 이덕현, 『감사장』, 『당나귀』 5, 1953.3, 91-92면; 구월부대, 『군사학총결서』 2, 날짜없음,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이덕현, 『6.25참전 무공수훈 사실확인 청원서』, 1995.9.6; 김광려(동키제4부대) 증언, 2002.12.8.

234) 이명재·오진환 등, 『W/P5연대 전사자료』, 날짜없음.

235) 타이거여단, 『교육수료증: 홍명의』, 1952.11.18.

236) 『사진: 낙하산교육』, 1952.3.26, 전쟁기념관; 『총괄통계표』 날짜없음,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같은 책, 34면.

237) 『해주유격부대 전사』, 218-219면.

키 제4부대는 대원들에게 폭발물 투하, 차량 및 보급소 습격·소대 산개·지뢰 매설 및 제거·도화선 점화장치 설치 등을 교육시켰다.<sup>239)</sup>

유격대원들이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은 훈련과 전술(highly trained and skilled than the average soldier)을 익혔다고 기억하는 고문관도 있지만,<sup>240)</sup> 훈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다. 전 후에 어느 미군 지휘관은 유격대의 운용목적이 좀더 분명했으면, 그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강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sup>241)</sup>

동키 제4부대의 고문이었던 맬콤 중위는 565명의 백호부대원들이 1952년 2월까지만 해도 훈련이 제대로 안되었지만, 훈련을 통해 1인 침투임무에서 중대 규모의 작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단련되고 규율 있는 유격대원이 되었으며, 어떤 미군 부대 못지 않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부대라고 평가하였다.<sup>242)</sup> 또 다른 미군 고문은 1953년 모 부대에 배속되었을 때 유격대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not much training)고 회고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계획을



무전기 휴대증  
(정화섭, 1953. 9. 1)

238) 김기서, 『W/P 제8부대 창설배경과 그 특성』, 2003.7.

239) 이재균(울팩 제5부대), 『나는 이렇게 싸웠다』, 1999.6.14. 이종은(동키 제4부대), 2003.7.21; 김형태·홍일표(동키 제7부대) 증언, 2003.11.8.

240)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241)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1.

242) 벤 S. 맬콤, 『백호유격부대전사』, 370면.

세워 사격장을 만들고 소총과 기관총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sup>243)</sup>

훈련 가운데 특히 공중투하를 대비한 대원들에게는 낙하훈련과 무전사 교육은 강조되었다. 레오파드기지와 울팩기지에는 중대규모, 커크랜드기지에는 소대규모의 공수훈련을 실시했다. 공수훈련은 경험있는 미군 장병들로부터 받았다. 후방에 침투시킬 대원들은 희망자를 우선하여 덕소의 공수 제1유격대에서 낙하훈련을 받았다.<sup>244)</sup> 무전사 교육은 부대별로 선발하여 서울 무선전신학교(Radio School)에서 실시했다.<sup>245)</sup>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원들은 저격병 훈련, 낙하 기본동작·주야간과 산중 낙하 등을 마치고 ‘낙하산 뱃지’와 ‘저격병자격기장’을 획득하여 미군 특공부대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자부했다.<sup>246)</sup>

훈련과정에서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2월말경 공수낙하 훈련 중, 조종사가 낙하지역을 놓쳐서 언 논에 낙하하면서 11명이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9명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1953년 초 한국인 유격대원 7명이 낙하산 점프훈련을 받다가 사망했다. 원인은 공수낙하 지역의 변경, 안전수칙 무시 등이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다시 훈



낙하훈련(1952. 10)

243)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2002.

244) 이응문(D-16), 『적지낙하 훈련기』, 『당나귀』 3, 1953.1; 김두필(신천제13부대) 증언, 2003.12.8.

245) 『수료증: 김효수』 1953.5.2(동키 제15부대 전우회 제공); Guerrilla Section, 8240th AU, HQ FECLD(Korea),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il 11, 1952, 군편, SN 1963.

246)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2, 『세대』 1967.3, 205-206면, 209면.



올빼미부대 대전차포 교육

련하다가 6명이 더 희생되었다.<sup>247)</sup>

휴전 후 유격대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올빼미 제1부대에서는 ‘특수교육대’ 훈련을 실시하고 1953년 8월 9일 수료식을 했다. 동키 제11부대의 경우, 1953년 8월 3일 전대원이 교육대에 입소하여, 사령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8월과 9월에 제식훈련·집중훈련·사격자세·수류탄 투척·총검술 등을 받았다. 10월과 11월에는 각개 전투훈련에 중점을 두고 위장과 은폐·공격과 방어시 병사의 행동 등을 훈련하였다. 11월 셋째주부터는 각 대대별로 실탄사격훈련, 12월에는 야간위장·기도비닉·야간신호 및 표지·방향탐지 및 유지·야간공격 및 방어 등 주로 야간전투훈련을 하였다.<sup>248)</sup>

유격군사령부에서는 간부양성을 위해 부사관 교육을 실시했고, 1953년 11월경

247) 양재언(아벤리부대), 『참전사실확인신청서』 2002.1;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Operation Aviaary*, p. 27.

248) Col(R.), Charles W. Norton, 『사진: 제1기 특수교육대 수료기념』 1953.8.9; 이영재 편저, 앞의 책, 425-426면.



유격사관학교 졸업증



노튼(Charles W. Norton., Jr.) 대령(예) 제공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에 제8240부대 사관학교를 개설하였다. 교관은 미군장교와 부사관으로 편성하였다. 이 학교는 12월 6일부터 12주간의 교육계획표에 따라 각 유격연대에서 3명씩 총 45명을 선발하여 제1기생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동키 제11부대의 제1기생은 목영설·강철·신은양 등이었다. 주요 교육

과목은 보병전술(소대 및 중대전술), 공수훈련 등 초급간부에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1기생들이 교육을 받는 도중에 유격부대의 간부들이 국군 장교로 임관했던 까닭에, 1기생만 배출하는데 그쳤다.<sup>249)</sup>

## 나. 사기 고양

대원들의 사기는 반공이념이 매우 투철하였기 때문에 높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유격대의 행동규범은 대부분 유교 윤리에 근거를 두고, 한민족의 애국심·화랑도정신 등이 강조되었다. 간부들의 대화나 연설에서 정신무장과 상무정신이 강조되었다. 국난을 당해 일어섰던 수·당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민과 을지문덕 장군, 왜적의 침입시 국가를 보전하게 한 이순신 장군, 한말의 의병, 일제시기 독립정신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동키 제11부대는 행동지침으로 “우리는 화랑도 정신을 따르고 실현한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정신에 따라 생활한다”는 등 화랑정신을 본받아 상하와 계급을 초월한 동지와 전우애를 강조했다. 동키 제15부대는 “유격대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자유의 전사로서 자유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 선구적인 애국자로서 조국을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sup>250)</sup> 이러한 ‘유격대 정신’아래 대원들은 “총탄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로 투쟁했다.<sup>251)</sup>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된 데다가 한편으로 휴전이 모색되면서 유격대의 작전 목표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유격대의 간부들도 “미군의 반격은 없다”는 점을 점차 파악하고, 고향 수복이나 통일이 사실상 어려워짐을 알게 되었다.<sup>252)</sup>

249) 이영재편저, 앞의 책, 427-428면; 김병국(유격사관학교 1기생) 증언, 2002.7.25. 이 날을 기념해 2.16회를 결성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이원복 증언, 2003.11.8).

250) Military History Detachment, 8086AU,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p. 76. 109,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51) 이형우, 앞의 책, 288면.

252) 최진헌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7; D-10 아천, 『새해를 맞으며 나의 일언』, 『당나

유격전에서는 체계가 갖추어진 정규군 보다 지휘관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동키부대의 모 부대장은 용기와 능력을 지녔고 물질적 욕심도 없었으나,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급품을 탐내기 시작하였다.<sup>253)</sup> 어느 간부는 대낮에 술병을 손에 들고 큰길을 헤매는 경우도 있었다.<sup>254)</sup>

“어느 날 유격전이 끝나려노? 언제나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고향에는 언제 갈 수 있을까?”<sup>255)</sup> 특히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학생 출신들은 차라리 육지로 나가서 장교가 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날이 많을수록 유격대활동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이다.

유격대원의 사기 진작과 전투의 지고취를 위해 1952년 말경에 이르러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였다. 유엔유격사령부 심리작전국에서 유격대원들의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주간지로<sup>256)</sup> 『파라슈트』지를 발행하였다. 1952년 11월 이후, 백령도 표기지 유격대 합동참의부 정훈부에서도 월간지로 『당나귀』지를 창간했다. 백령도 국민회에서 주민홍보를 위해 용진군청의 협조를 받아 발간한 『백령일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당나귀』지는 권당 100부 정도 발행되어 대원들에게



『파라슈트』지

귀』 3, 1953. 1, 20면. 미군들도 마찬가지였다(폴 브레임, 『위대한 장군 벤플리트』, 육군본부, 2001, 414면).

253) “Un Partisan Forces 1951-52”, p. 61.

254) D-10 아천, 『새해를 맞으며 나의 일언』, 『당나귀』 3, 1953. 1, 21면; 신복현 증언, 2003.12.3.

255) D-10 양산대인, 『초설』, 『당나귀』 2, 1952.12, 94면; D-10 아천, 『새해를 맞으며 나의 일언』, 『당나귀』 3, 1953. 1, 20면..

256) 실제 한달에 1권을 발행했으나, 1954년 1월부터 한달에 2권을 낼 것을 약속했고, 발행부수도 1,000부에서 2,000부로 늘리기로 했다(『편집후기』, 『파라슈트』 14, 1954.1.15).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무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257)</sup> 이 외에도 『경향신문』, 『대한매일』, 『주간만화』와 미 제8군으로부터 받은 『자유세계 (Free World)』 등도 배포되었다.

또한 각 유격대에서는 일조점호와 일석점호를 할 때나 훈련이나 행군할 때 자체 부대가를 부르며 단결을 도모하였다. 대원들은 “날개없는 창공에 피뢰집단 위에 펼쳐진 낙하산에 KLO 용사야 힘차게 들리는 승리의 함성”을 강조하는 낙하산가, “전세계 공산당이 합쳐 덤벼도 강철같이 굳은 결심 누가 당하랴”의 극동군기대가 등을 부르면서 단결과 의지를 강화했다. 그 외에 “저 멀리 아롱지는 내 고향이여, 기다리는 부모형제 그립습니다. …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가도 그때도 못가나요” 등 대원들이 작사한 노래나 유행가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따라 서해의 외딴 섬까지 흘러 들어와 굳어져 있는 인성을 풀어주고 메말라 있는 감정을 적셔주었다고 한다.<sup>258)</sup>

사령부에서는 1953년 2월, 계정식 박사가 작곡하고 이영순 대령이 작사한 유격사단가 악보 10,000부를 각 유격대로 보냈다. “친다 친다 적구를 친다. 우리들은 유격사단 무적의 비호”를 부르면서 기상을 키웠다.<sup>259)</sup>

#### <결사대가><sup>260)</sup>

1. 뭉게 구름 흐르는 북쪽 하늘과 지평선을 넘어서  
흐르는 구름 소리없이 내리는 낙하산 용사  
피뢰집단 창공을 겁낼 소나  
용감하게 출전(하는) 아- 젊은 결사대
2.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다보며 우국에 꿰는 피는  
용솟음 친다 어서 가자 결전장 낙하산 용사  
모스크바 창공을 겁낼 소나  
용감하게 출전(하는) 아- 젊은 결사대

257) 김종규(동키 제4부대) 증언, 2003.11.15.

258) 최광국, 『유격전참전수기』, 1992.6, 15-16면; 『구월산유격부대전사』, 82-85면.

259) D-21 이덕현, 『희망의 봄』, 『당나귀』 6, 1953.4, 47면; HQ, Partisan Command, FEC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260) 이문수(커크랜드 부대) 제공.



**遊 壘 師 團 歌**

作曲 光 柱 恩 德 佛 士  
作詞 金 永 鍾 氏 頌

명쾌한 것은  
快活한 遊 壘

백 두 묘함 흰기름기 발을 굽은 언 산은림을  
다고 밟는 悠 閒 法 으 로 뛰 기 번쩍 처 기 번쩍  
적구름친다 천다친다 천다친다 적구름친  
다 우리들은 유격사단 무적비비 호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우 리 들 은

유격 사단가<sup>261)</sup>

261) 유격사단가의 가사를 “귀신도 올려주는 축지법으로, … 우리들은 대한의 빛나는 유격대원” 혹은 “태평양의 깊은 물에 기운을 뺏쳐 … 적구를 친다”라고 기억한 경우도 있다.(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2, 『세대』 1967.3, 207면; 유명범 채보).



원철희 대장, 명국환, 성애남 등 GDS 대원(1953. 3. 5)<sup>262)</sup>

각 유격대 본부에서는 대원들의 정신적 무장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교육, 웅변대회<sup>263)</sup> 등을 실시했다. 1953년 4월 경 유격사령부 산하에 군예대(G.D.S)를 창설하였고, 동키 제13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군예대를 만들어 운용하였다. 군예대장 원철희는 가수 명국환·성애남, 무용수 라복희, 연극배우 김명섭 등과 함께 전방 도서지구의 유격대원들을 위한 위문공연대를 결성하여 유격대원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지의 주민들에게도 공연을 했다.<sup>264)</sup>

## 2. 여가생활 및 주둔지 주민과의 관계

대원들이 작전에 나가지 않을 때, 부대에 따라서는 유격대원들에게 국어·영어·역사·지리·헌법·수학 등을 교육시키고 시험을 보았다. 이 외에 한글반을

262) 이원복 제공.

263) 백한규(송호부대), 『단결된 투쟁만이 승리의 길』, 『당나귀』 6, 1953.4, 33-34면.

264) 『웅진학도유격부대사』 ; 이원복 증언, 2003.11.8.

조직해 한글교육을 시키기도 했다.<sup>265)</sup> 올팩 제2부대 정훈실에서는 정훈요원들이 문맹 대원에 대한 한글교육을 시켰고, 1952년 말 병영학교를 운영하여 대원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쳤다. 이 때 후에 우리나라 무속연구의 권위자가 된 서정범 교수가 국어를 가르쳤다.<sup>266)</sup>



올팩 제6부대 1, 2소대 천막



병영학교(올팩 제2부대)

265) 구월부대, 『군사학총결서』 2, 날짜없음,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266) 『변대섭 공적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전투공적조사서』, 1953.12.

출동대원에 대한 긴장 해소,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대원들에 대한 오락회·체육행사 등이 있었다. 동키 제20부대의 1951년 11월 사업계획에 의하면, 3일·15일·29일에 각각 오락회가 계획되었고, 1952년 1월의 경우 9일·20일에 오락회가 계획되었다. 체육행사도 활발했다. 비록 기구가 부족했지만, 야구·배구시합을 개최했다. 울괘 부대에서도 해변가에서 씨름대회, 배구시합 등을 했다. 각 부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각 대대별, 대대별 대항전, 인근 부대 사이의 대항전이 있었다. 1952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한 후 오락회를 실시했고, 대청도에서 각 부대의 배구시합이 있었다. 1952년 10월 7일 어화도 초등학교에서 각 도서 운동대회가 열려 각 부대 배구시합에서 동키 제11부대가 승리했다.<sup>267)</sup>

1953년 4월 초 백령 초등학교에서 레오파드 기지사령부 예하 유격대의 춘계



백령도 기지사령부 유격대 체육대회 입장식 장면(1953. 4. 2, 이원복 제공)

267) 이영재 일기, 1952.8.11, 15, 10.7-8.

체육대회가 있었다. 배구·축구·마라톤·수류탄 던지기·군복입기·100m·800m 계주 등의 종목으로 치렀다. 동키 제13부대가 축구에서 우승하는 등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대원들은 그리운 고향에 찾아 온 듯 즐거워했다.<sup>268)</sup> 1953년 4월 3일 울팩 제8부대도 중대별 배구시합을 했다.<sup>269)</sup>

그 외에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공부나 독서를 하였다. 당시 대원들이 읽었던 도서는 『흙』(이광수), 『돌베개』(이광수), 『김유신』, 『조선명작선집』, 『이순신전』, 『25시』, 『민족』(박종화), 『햇세시집』이나 『다이제스트』, 『정훈』, 『희망』, 『자유세계』 등 잡지였다.<sup>270)</sup>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일요일에는 인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기도 했다.<sup>271)</sup> 일부 간부와 대원들은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씨름(울팩 제6부대) 및  
축구대회(울팩 제5부대)



268) 구월부대, 『사업계획서』 1951.11, 1952.1,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당나귀』 5-6, 1953.3-4.

269) 『이종암 일기』 1953.4.2, 3.

270) 이영재 일기, 1952. 7.4.5,9-10 1953.3.7, 14, 20.

271) 이영재 일기 1952.7.27.



결혼 사진  
(울택 제2부대 최병태, 1951, 교동도)

유격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각 도서에는 식수가 부족하여 목욕이나 세탁이 여의치 못했다. 옷도 단벌이기에 몇 달씩 입어 이가 많이 생겨 검은 옷이 흰 옷으로 바뀔 지경이었다.<sup>272)</sup> 여러 명이 작은 방에서 기거하니 자연히 이가 들끓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나면 양지바른 곳에 모여 앉아 이 사냥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내륙기지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생활은 섬에서 보다 훨씬 어려웠다.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려 발이며 손끝, 입술이 동상으로 부르터 있었다.<sup>273)</sup>

봄철에 장티푸스를 비롯해 학질 등 질병이 만연하여 사망자가 속출했다. 어제까지도 씩씩하게 근무하던 대원이 열병에 걸려 고열로 신음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부대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 “적탄보다 더 무서워했다”고 할 정도였다. 동키 제2부대에서만 김옥기·공대성·김치복 등 20여 명이 질병으로 희생되었다.<sup>274)</sup>

태풍피해를 입기도 했다. 1952년 9월초, 태풍 카렌호(Typhoon Karen)는 유격대의 작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비를 파괴했다. 커크랜드기지에서 배 2척이 침몰했고, 텐트 5개, 쌀 30포대, 담배 1,000곽, 밀 25포대가 유실되었다. 레오파드기지에서선 천막 2개가 무너지고 배 1척이 침몰했으며, 베이커기지에서선 많은

272) 『해주유격부대 전사』, 220-221면.

273) 김하영·이성하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3.8.

274) 임창수, 『나의 반공투쟁』, 날짜 없음, 육본 군사연구실, 27면; 『구월산유격부대전사』, 80-81면.

텐트가 피해를 입었다.<sup>275)</sup>

<표 4-10>에서 같이 각 섬에는 유격대, 첩보대를 비롯해 많은 피난민이 살았다. 초도의 경우 수월부대·평남부대·백호부대·안악부대·송호부대 등이 주둔했고, 여러 첩보대의 전진기지였다. 서해안쪽의 북한군 동향을 낱낱이 살필 수 있는 위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해 중공군의 움직임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구월산으로 들어간 유격대원들의 활동을 돕고 또한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기에도 좋은 위치였다.<sup>276)</sup>

<표 4-10> 서해 지역 도서의 유격대와 첩보대원 주둔 규모(1953. 5. 10)<sup>277)</sup>

섬	미 군	한국군	유격대/ 첩보대	주 민	피난민	
석 도	26	784	?	?	20	
초 도	566	712	4,000	2,112	2,500	1,977
월 내 도	-	-	556	70	1,110	120
육 도	-	-	165	15	60	45
기 름 도	-	1	260	612	387	210
창 름 도	-	-	254	580	912	111
마 합 도	-	1	185	28	58	6
어 화 도	-	2	332	575	561	72
순 위 도	-	3	1,425	1,573	1,406	361
무 도	2	-	500	128	100	
용 매 도	3	4	1,300	2,000	2,000	
소수압도	2	-	600	563	2,000	
대수압도	5	7	600	500	3,000	

275)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08" Sep. 4,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76) 『안악군지』, 417면; 『켈로』 2, 186면; 손정중(D-3) 증언, 2002.8.13; 정만수(수월부대 간부) 증언, 2003.11.3.

277) "List of Persons on Each Island", May 10, 1953, "Command Report", Ma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싸우는 나부니(초도 동남쪽 작은 섬)>278)

“서해의 모진 파도속에  
적지와 천여 척 사이를 두고  
멀리 초도를 바라보며  
용감한 선열들의 피자욱 따라  
대한의 운명을 기리 지키려 함을  
눈물로써 매서하는 나부니”

유격부대가 미군의 지원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주둔지의 주민들은 일부 유격대원의 탈선에 반발한 경우가 발생했다. 북한 지역으로 투입될 대원들은 술에 취해 ‘인민군의 노래’와 ‘김일성의 노래’ 등을 부르며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해병대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sup>279)</sup> 북한 지역에 투입되어 작전 활동을 마치고 귀환한 대원들은 휴가를 나가 행패를 부리거나, 부대 인근 지역에서 농작물 서리 등을 했다.<sup>280)</sup> 유격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 당국과 주민들은 유격대의 역할보다는 일부 대원들의 탈선 행위를 강조했다. 1953년 5월 21일 한국경찰 간부 3명이 스투어트 장군을 만나 제8240부대원이나 군속들이 행한 범규위반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sup>281)</sup>

특히 서울을 비롯한 후방에서 유격군이 아닌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려 ‘KLO’라는 명칭아래 일반 국민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52년 2월 21일 국회에서 각 정보기관이 난립하여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고 국군과 교체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격군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sup>282)</sup> 이에 대해, 무겔버그 사령관은 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인

278) 김두원, 『당나귀』 3, 1953.1.

279) 강동윤, 『어느 노 해병의 이야기』, 국방119, 1999, 80-81면. 기지사령부에서 보급을 받으면 보급품이 넉넉해서 대원들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 유격부대에서는 아침식사시 금주하라는 언명이 있었다고 한다.

280) 이회영(스톱부대) 증언, 2002.10.5.

281) “Combat Command Report No.5” June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

282) 『타이거여단 약사』, 24-25면; 『제8250부대 창설과 김완룡 준장의 취임사』, 『파라슈트』 12, 1954.1.15, 20-24면; 계인주, 앞의 책, 171면.



대청도 학생들, 동키 제11부대 위문

식이 없어서 유격대원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가혹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두둔했다.<sup>283)</sup> 1953년 1월 15일 백호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월내도로 이들 부대와 고향을 같이한 장연군 민들이 피난살이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돈을 모아 위문품을 준비해 부대를 찾아 격려했다. 1953년 2월 남으로 피난한 신천군민이 동키 제1부대와 13부대를 위문했다.<sup>284)</sup> 1953년 7월 유격사령부 정훈국에서 국군과 주민들과의 오해를 풀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sup>285)</sup>

283)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284) D-4 Z, 『전방과 후방의 긴밀성은 성전완수의 관건이다』, 『당나귀』 4, 1953.2, 40-42면; 『당나귀신문』 1953.2.5, 『당나귀』 4, 1953.2, 81면.

285) 『국중일기』, 『파라슈트』 9, 1953.8.15, 143면.

## 제 5 절 작전목표와 성과

### 1. 작전 목표

전쟁 당시 유격대원들은 유격전을 소규모적이고 독립적인 병력으로 보통 적 후방에서 적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분열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작전으로 이해했다.<sup>286)</sup> 그런데 유격대의 통제기구가 미 제8군사령부에서 극동군사령부로 바뀔 때 작전목표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유격대가 창설되었던 1951년 초기, 미 제8군의 최초 계획은 유엔군의 대규모 공세와 연관시켜 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격대의 작전목표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적 후방에 대한 전술적 차단과 교란작전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력을 주 전선에서 유격대 토벌임무로 전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287)</sup>

서해지역에 유격대를 창설할 초기,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주력전보다 섬을 방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과 미 공군 조종사가 북한지역 상공에서 추락할 때 조종사의 생존여부 확인과 구출 등을 지시했다.<sup>288)</sup> 이 무렵, 유격대원들은 1/50,000 군사지도도 없이 그들이 잘 아는 고향마을이나 이웃 동네를 작전 지역으로 삼았다.<sup>289)</sup>

1951년 12월까지 적 교란위주로 다음과 같은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① 적부대 공격(준 군사요원 전술시설 및 진지, 차량에 탑승한 부대공격), ② 전술시설 공

286) 차치루, 『유격전의 史實과 우리의 활약상』, 『파라슈트』 9, 1953.8.15, 23면; 김용제, 『유격전과 심리전』, 극동사령부주한연락처 심리작전과, 1953, 5-6면; D-11 웅진학도유격대전우회, 『웅진학도유격대전사』(초), 연도 없음, 14면.

287) 국방부장관 신태영, 『격려사』 1952.10, 『당나귀』 3, 1953.1, 11면; 『유엔군 유격전』, 21면;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88) 김종벽 증언, 1985.12.5, 육본 군사연구실.

289) 이형우, 앞의 책, 206면.

격(병커, 참호, 포상, 지휘소, 기타 유사표적), ③ 수송수단 및 수송시설 공격(마차, 차량, 기타 유격표적), ④ 보급 및 저장시설 공격(식량저장소, 탄약저장소, 창고), ⑤ 일반 행정시설 공격(내무서, 분주소, 공산당 시설 및 인원), ⑥ 정보활동(정찰, 척후활동, 첩자안내), ⑦ 관측, ⑧ 기타 활동(통신시설 및 장비파괴, 전단 살포) 등이었다.<sup>290)</sup> 이러한 작전목표는 유격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동키 제5부대의 첫째 임무는 적 사살과 수송수단의 파괴, 둘째 임무는 적 부대에 대한 위치, 병력이동 등 정보 수집이었다.<sup>291)</sup>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격대의 작전목표를 둘러싸고 기지사령부와 유격대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있었다. 즉 유격대가 가능한 독자적 운용을 원했던 것에 반해 기지사령부에서는 지시에 따른 이행을 요구했다. 그 사례를 보면,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동키 제2부대로 하여금 사리원 동쪽 산악지대로 부대를 이동해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당시 부대장 김종벽 대위는 그 지역은 자신의 부대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상륙작전시 대규모 작전보다는 5~6명 단위의 소규모 전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부대장은 규모있는 작전을 벌여 양곡이나 농우 등을 노획해야 대원들의 가족과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유격대에서는 지역적 특성, 조직의 배경 등 특수성을 띠는 유격대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인 준정규군(準正規軍) 체제로 묶으려 한다고 불만하였다.<sup>292)</sup>

그런데 1951년 7월 유엔군의 정책이 정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1951년 하반기부터 1953년 7월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줄곧 ‘전투와 담판’이 병행되던 시기였다. 1952년 9월 7일 한국을 떠나는 무초 대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완전 해방의지를 여전히 나타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 해 12월초에 한국을 방문하자, 한국군의 수뇌는 물론 정부당국도 “휴전협상반대”의 범국민 쟁기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당시 미 제9군단 부군단장이었던 정

290) 『한국전쟁과 유격전』, 129-132면.

291) 버크 중령, 『지시서』 1951.8.9(박상준 제공 문서); 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292) 이형우, 앞의 책, 217-218면; 『구월산유격부대전사』, 96면.

일권 중장은 만주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공세작전인 맥아더의 전략이 아이크의 당선으로 햇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한국전선을 방문하였던 아이젠 하워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93)</sup>

하지만 휴전회담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주전선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초기에 3개월간의 유엔군 공세, 휴전 직전 1개월간의 중동부전선의 금성돌출부에 대한 공세를 제외한다면 회담기간 중 전선은 변화가 거의 없이 교착된 상태에서 국지전 형태의 고지쟁탈전을 전개했다. 휴전협상이 교착되어 진전이 없을 때, 미군은 화전양면정책을 써서 지상·공중·해상작전을 시행해 주요 고지 확보를 위한 ‘밀치기 작전’, 공군에 의한 북폭 강화, 도서해안의 상륙작전 계획 등을 계획하거나 수행했다. 그러나 이 시기 기본적으로 휴전협상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캔자스선~와이오밍선의 이북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전면적인 공격을 금지함으로써 유엔군의 북진한계를 정했다.<sup>294)</sup>

휴전협상이 전개되면서 미군 장병들에게 공세작전의 타당성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sup>295)</sup> 대규모 공세작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유격전은 국군과 유엔군의 정규 작전과 연계되지 못했다. 미군의 작전목표가 전쟁승리에서 휴전협정 체결로 바뀌었으므로 유격전 목표의 변화도 불가피했다.

마침 1951년 7월 유격부대의 작전통제권이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로 이관되었다. 미 제8군이 인접지역의 전투를 중시한 반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전체적인 전략목표 아래 작전을 구상하였기 때문에 전선에 상륙하는 것보다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장기적인 성과 도출, 첩보수집을 강조했다.<sup>296)</sup>

그러나 극동군사령부도 유격전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채, 이전과 같이 적을 교란시키는 작전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이 시기에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수시로 각 유격부대에 특정작전을 부여했다. 그 임무는 내륙기지의 증강, 적

293) “DKB” 1952.9.12, 12.8, RCIA II, p. 585, p. 701; 정일권, 앞의 책, 345-348쪽.

294)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438-440면; 폴 브레이, 『위대한 장군 베프리트』, 육군본부, 2001, 412-418면; 온창일,

295) 폴 브레이, 『위대한 장군 베프리트』, 육군본부, 2001, 414면.

296) Col. Rod Paschall, “A Study in Command and Control Special Operations in Korea, 195101953”, US Army Mil. History Institute, June, 1988, pp. 53-54.

레이다 기지의 식별 및 파괴, 추락한 유엔군 조종사 및 탈출한 우군 포로의 구조 지원, 심리전 활동이었다.<sup>297)</sup>

1952년 가을 극동군사령부는 유격대의 공세활동을 증가하기 위해 상술한대로 병력을 1953년 3월 15일까지 2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7월 15일까지는 4만 명으로 배가시킬 계획이었다. 이 시기 대규모 유격전이 필요했을까? 이 정도 규모라면 정규전과 배합 작전, 근거지 확대 등과 같은 전략적 목표까지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원의 증강계획은 징집과정상 문제가 생기고 대원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작전이 비효율적이 되면서<sup>298)</sup> 곧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 연합정찰사령부에서 “철도와 도로에 대해 최대한 차단계획을 수행한다, 적 부대의 주요 작전을 방해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공수유격대를 투입한다”는 등 적극적인 작전계획을 극동군사령부와 미 제8군에 제출하였지만, 유격대의 임무는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sup>299)</sup>

결과적으로, 적 후방지역에 공수유격대의 투입을 강조하는 외에는 유격부대는 전반적인 계획없이 개략적으로 근거지 침투에 의한 소규모 습격전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다. 이 때문에 유격전이 사실상 소모적인 경보병 작전의 성격을 띤 채 계속되었으므로, 유격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었다.<sup>300)</sup> 이는 미군의 전략적 목표 부재와 지휘관들의 유격대 활동 경험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전후에 한 미군 장교는 미군 장병들이 좀더 많은 유격전을 경험하였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했다.<sup>301)</sup>

서해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대들은 미 제8군의 좌측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sup>302)</sup> 그러나 1951년 7월 이후, 휴전이 모색되면서 유격대의 작전 목표

297) 『한국전쟁과 유격전』, 131면.

298) Alfred H.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 p. 103.

299) 『한국전쟁과 유격전』, 131-134면; 『유엔군 유격전』, 22면.

30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18, p. 432.

301) 『유엔군 유격전』, 21-22면;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1.

302)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6-7.

가 불분명해졌고, 통일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유격대원들은 북한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들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자도 발생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의식이 불분명해져서 전의가 약화되어 부대 활력이 없어졌다. 한 간부는 부대의 성격이 정규군, 유격군 혹은 첩보대적 요소가 혼재한 모호했다고 회고하였다.<sup>303)</sup>

## 2. 작전 활동

### 가. 작전 형태

#### (1) 개요

유격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정규군보다는 훈련과 장비면에서 취약하므로, 전술이 정규군과는 달라야 한다. 유격대는 대병력이나 지원부대와 교전함이 없이 살그머니 치고 빠지는(hit and run) 전술을 구사했다. 이를 당시 대원들도 유격전의 묘책이라고 여겼다.<sup>304)</sup>

유격대원들은 체계적인 유격전술을 익히지 않았지만 작전 경험을 통해 적정을 입수하기 위한 첩보원 파견과 세포망 구축, 유인, 매복, 습격 등의 전술을 익혔다. 유격대는 적을 공격하고, 장비노획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 원칙으로 기습을 강조하였다. 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이를 철저히 검증한 후 기습공격할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였다. 또한 적군의 상호 지원체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적 진지 어느 한 곳만을 공격하는 것보다 소

303) 아천(D-10), 『새해를 맞으며, 나의 일언』, 『당나귀』 3, 1953.1, 20-21면; 이병근(D-20), 『승리의 신춘을 맞이하면서』, 『당나귀』 4, 1953.2, 9면; 『유엔군 유격전』, 25면;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1; 임영의(울팩 제1부대) 증언, 2002.8.29; 최병태 증언, 2003.11.26.

304) 이한중(D-7), 『어느 날의 싸움』, 『당나귀』 2, 1952.12, 51면; Alfred H.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 p. 101.

규모 병력으로 여러 곳을 공격한다든지, 공격 전 정확한 적정을 파악 분석하여 유리할 때 신속하게 공격하고 불리할 때 신속하게 철수하는 속전속결, 작전 중 분산, 낙오를 예상하여 필히 사전 집결지를 2개소 이상으로 정한다는 등의 전술을 터득해 갔다.<sup>305)</sup>

유격대의 구체적인 작전 활동 형태는 적 부대 공격 49.3%, 차량과 수송시설 파괴 13.1%, 첩보활동 10.1%, 일반행정시설 파괴 7.9%, 보급품 저장소 공격 5.1%, 함포사격 유도 4.3% 등이었다.<sup>306)</sup> 그 외에 심리전을 실시했다. 그러므로 게릴라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송수단이나 보급품 창고 파괴 등과 같은 공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적 부대 공격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경보병 전투 성격이 강했다.

유격전이 소규모 전투를 의미하듯이, 대부분 작전지역을 잘 알고 있는 소수의 대원을 차출하여 수행했다. 미군도 소규모 산발적인 게릴라전으로 적 병력을 물고늘어지는 작전을 강조했다.<sup>307)</sup>

1952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보고서에서 1~10명 이하 39.3%, 11~25명 32.4%, 26~50명 21.1%, 51~100명 4.7%, 100명 이상 2.5% 등으로 70%가 넘게 25명 이하로 유격대를 편성하여 작전을 전개했다. 동키 제4부대에서는 대개 15명 이상을 공격조로 조직하지 않았다고 한다.<sup>308)</sup> 출동하는 대원들은 상륙작전을 할 때는 상륙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선이나 정크선을 이용했다. 그 후에 선박엔진(Grey 225)을 달아 쓰다가 GM 트럭엔진을 장착해 활용했다.<sup>309)</sup>

작전규모가 적다고 성과가 적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울팩 제2부대의 대원

305) 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7.13; 이성화(D-3) 증언, 2002.8.13; 『백호부대 유격전사』, 83-84면, 132면. 좌익 빨치산의 경우, 모택동의 유격전술이 크게 강조되었다(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204-205면).

306) 『유엔군 유격전』, 14면, 29면.

307) 『박상준 회고담』,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목영설(동키제11부대 1대대장) 증언, 2003.11.14.

308) 『유엔군 유격전』, 29면;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Pak Choll”,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p. 66-72.

309)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44.





출동대원의 귀환(동키 제11부대, 1952년 겨울)

29 JUNE 0930  
 D to D-2 0935 Calc W1  
 21 98 79 71 75 [11 76 26 29 26]  
 18 83 59 82 10 43  
 mid-day check 1230  
 D-2 to D-3 0950

題目	22	工作	22
서, 0	21	工作費	83
司令官	22	情報	24
Joker 1	26	情報費	97
週末	93	中支筆	86
月末	94	女支筆	87
藥學材料	99	工作高	95
		裝備	92

암호통신문 : 미 고문관 뉴먼(M. E. Newman) 제공

2명이 북한지역으로 상륙하여 다리(BS490860)에 지뢰를 설치한 작전과 같은 경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동키 제4부대원 4명이 황해도 장연 남서쪽으로 10km 지점인 성주봉 좌단(XC778262)지역에 상륙하여 6일 동안 매복하여 21명을 사살하고 8명을 부상시킨 후 1952년 7월 26일 월내도로 귀환했다. 1952년 8월 11일 동키 제3부대에서 8명의 대원으로 황해도 과일 남서쪽으로 11km 떨어진 건지산(XC687478)에 있는 북한군 탄약고를 파괴하면서 북한군 15명을 사살하고 6명을 부상시켰다.<sup>310)</sup> 이어 반해 1952년 9월 13일 모 부대에서 대원 350명이 출동하는

대규모로 상륙작전을 펼쳤으나 중공군 8명을 사살하고 참호 2곳을 파괴하는데 그쳤을 뿐으로 작전규모가 성과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sup>311)</sup>

유격대는 유엔군 해군과 공군의 화력지원을 받았다. 유엔군은 항공기와 해상으로부터 웅진, 해주, 연안, 은율, 사리원, 황주, 함흥, 청진, 성진, 강계 등지를 체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sup>312)</sup> 항공기 지원은 해군부대를 통하거나 기지사령부를 거쳐 극동군사령부의 합동작전본부(JOC)에 요청하였다. 가끔 캐나다 공군의 지원을 받았다.<sup>313)</sup>

유격대 지도자들은 해군 포격지원을 선호하여 직접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해군 함정이 서해안 섬들을 초계하면서, 가끔 5인치 로켓포로 근접지원을 했다. 이들은 유격대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까닭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군지원의 대부분은 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의 함정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뉴질랜드 프리깃함 로토이티(Rotoiti)호가 자주 지원했고, 영국군 순양함 워싱턴(Worthington)호나 미군 미주리함은 포격 지원을 가끔 했다.<sup>314)</sup>

해안을 경비중인 해군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합동작전이 이루어졌다. 1952년 7월 9일 초도 근해를 경비중인 해군 513정은 동키부대 50명을 괄암동(KwalamDong)에 상륙시켰다가 무사히 철수시켰다.<sup>315)</sup> 해군 함포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을 경우, 대개 유격대원은 100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1951년 6월 27일 12시 유격대원 150명이 몽금포해안과 소순도 해안을 상륙할 때, 한국 해군 제62함·302정·503·507정이 포격을 지원했고 상륙한 후에도 북한군과 교전시 함포를 지원하여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고 30명을 포로로 했다. 7월 5일 서해도서 무장대원 650명이 몽금포 지역에 상륙하여 적 1개 대대와 대적할 때, 해군 제308정,

310) CCRAK Guerrilla, "Summary No. 90-91, 170" Aug. 17-18, Nov.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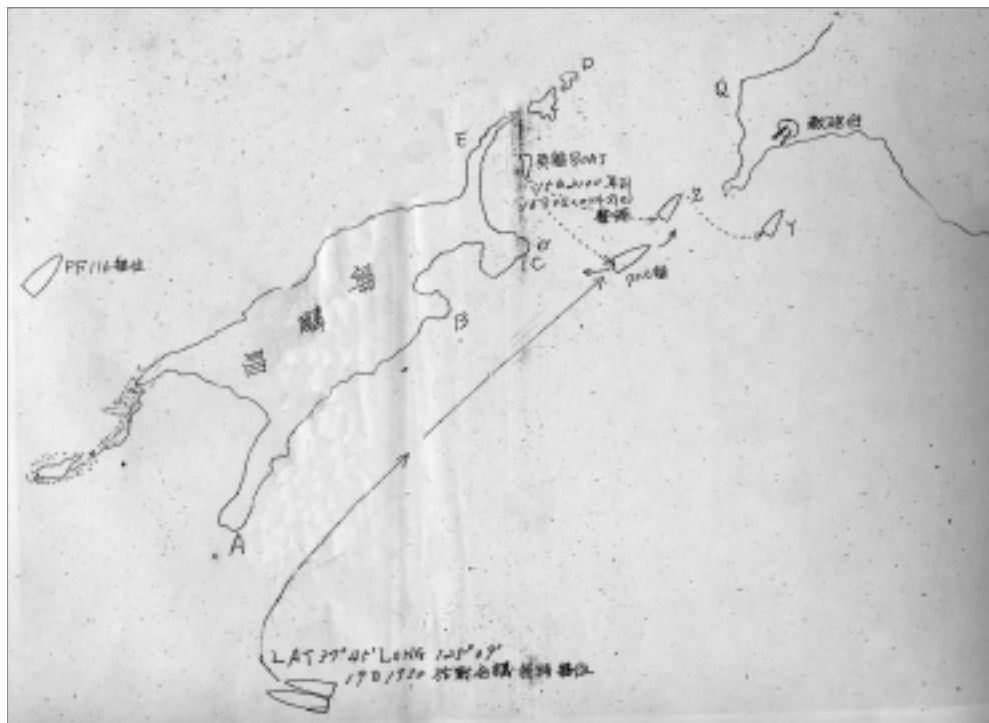
31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0" Sep. 1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12) 『6·25전쟁보고서』 2, 246-248면.

313) Guerrilla Section, 8240th AU, HQ FECLD(Korea),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il 1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25-26.

314) 매튜 B. 리지웨이(김재관역), 『한국전쟁』, 정우사, 1981, 247면;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군편, SN 1962), pp. 424-425.

315)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9, 77-78면.

<요도 4-4> 상륙전 당시 해군 지원 현황<sup>316)</sup>

영국구축함 F633과 합동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sup>317)</sup>

유격부대 사이에서도 협동작전이 전개되었다. 1952년 5월 25일 울퍽 제4부대와 제5부대 300명이 함께 강령군 가평리, 신평리, 재동(YB316958, 299919, 318935) 등지로 출동해서 적 230명을 사살하고 35명을 생포하였으나, 대원도 9명이 전사했다. 7월 5일 울퍽 제5부대와 제6부대가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강령군 개머리와 후렴동(YB304823, 267827)을 공격하여 적 124명을 사살했고, 그 외 해군과 공군의 폭격으로 75명이 더 죽었다.<sup>318)</sup>

1952년 9월 28일 울퍽 제3부대와 제7부대 대원 250명이 히스탠드 소령과 함께

316)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9, 151-2면.

317)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496면; 『작전경과보고서』 5, 16면.

318)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 17, 55, 93, 115, 119", May 27-28, July 9, Aug. 20, Sep. 11, 1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제미도(YB560903)를 공격했다. 해군과 공군의 지원은 받았지만, 적의 반격으로 2명이 전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고 히스탠드 소령도 전사할 뻔했다. 후퇴할 때 당시 통역병 유연표가 히스탠드 소령을 엄호하였다.<sup>319)</sup>

동키부대 사이의 협동작전도 발견된다. 1952년 6월 15일 동키 제1부대와 4부대에서 대원 15명이 태탄 북서쪽 약 12km 지점인 오류동(XC950273)에서 열리고 있는 인민위원회 회의를 공격하여 1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11월 1일 동키 제15부대 15명과 제16부대 12명, 첩보대(HID) 17명이 4척의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철산앞 해상에서 적 80톤급 2척의 함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57mm 무반동총으로 반격하여 적함 1척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동키 제15부대원 4명, 제16부대원 12명, 첩보대원 8명이 전사했다.<sup>320)</sup> 1953년 석도 부근 월사리 반도에 주둔했던 해병대는 북한군의 기습으로 많은 희생을 냈을 때, 북한지리를 잘 알고 있던 동키부대와 공동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sup>321)</sup>

## (2) 공중침투전

북한지역에 유격대원을 공중으로 침투시켜 철도와 도로파괴, 포로 구출 등을 비롯해 유격기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많은 부대가 무스탕작전, 허리케인 작전 등<sup>322)</sup> 암호명칭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부대가 작전을 실시했는지 불분명하다. <표 4-11>에서 보듯이 침투작전은 주로 제1공수유격대와 동해안부대의 아밴리부대와 토치라이트부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미 중앙정보국 산하에서 활동했던 영도부대에서도 실시되었다.

1951년 7월 14일 미 육군부는 피부색과 언어 장벽 때문에 극동지역에서 적 후방의 정찰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극동군사령부에서 모든 유격중대 혹은

319) 유연표는 이 공로로 충무무성훈장을 받았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유연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320) CCRAK Guerrilla, "Summary No. 41, 172", June 25, Nov.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21) 전세권 대령(예) 증언, 2003.7.3.

322) 맬콤은 이 작전들을 제1공수유격연대에서 수행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벤 S. 맬콤, 앞의 책, 282-283면).

<표 4-11> 유격대의 공중침투 작전팀<sup>323)</sup>

부 대 명	암 호 명	일 자	인원수	팀 수
베이커기지	버지니아 1	1951. 3.15	24명	1
베이커기지	스핏파이어	1951. 6.18	16명	1
전 동키 제11부대	무스탕 2	1951. 9.17		2
	무스탕 3	1952. 1.22	19명	1
	무스탕 4	1952. 5.14	16명	1
	무스탕 5-6	1952. 5.14	20명	2
	무스탕 7	1952.10.31	5명	1
	무스탕 8	1952.10.31	6명	1
아벤리부대	제시제임스1-3	1952.12.28~30	30명	3
제2유격연대	그린드래곤	1953. 1.25	97명	1
제1공수유격연대	복서 1-4	1953. 2. 7~11	48명	4
토치라이트부대	토치라이트 1-4	1953. 2. 5~11	44명	4
	허리케인	1953. 3.31	5명	1
제1공수유격연대	래빗	1953. 4. 2(예정)	50명	25

특공중대(Ranger Companies)의 활동을 중단하고, 공수대원들을 일본에 있는 제187공정대(187th Airborne RCT)로 이관하며 일부 병력은 제8군에 배속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해 8월, 제1, 2, 3, 4, 5, 8 특공중대가 각각 해체되었다.<sup>324)</sup>

기존 연구에서 1951년 3월, 베이커기지에서 철로와 도로파괴를 위한 버지니아 1(Virginia 1)을 비롯해, 1953년 4월까지 총 40개 팀 389명이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하나,<sup>325)</sup> 작전횟수와 규모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몇몇 사례를 들면 1951년에는 버지니아 1과 스피트파이어 작전 등 단 2회만 침투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으나,<sup>326)</sup> 북한기록에 의하면 미 제187공정대와 남한 유격대가 1951년 3월

323) 『유엔군 유격전』(136면)의 표 38)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324) HQ,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509, p. 59, p. 76; Robert W. Black, *op.cit.*, p. 202.

325) 『유엔군 유격전』, 30면, 137면. 이영순 대령은 침투 규모가 1,350명이었다고 회고했다(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2, 198면).

문산지역에서 낙하작전을 수행하였고,<sup>327)</sup> 1951년 9월 무스탕 작전(II)이 확인되고 있다. 무스탕 작전은 미 제8군에서 미 제24사단 사단장인 딘(William F. Dean) 장군이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전동키 제11부대 대원으로 하여금 편성된 2개의 공작팀이 구출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한 팀은 작전로를 개척하고 다른 한 팀은 딘 장군이 수용된 포로수용소로 침입하도록 했다. 작전 책임자는 베이커 기지의 헨(Hearn) 대위와 루이스(William Lewis) 소위로서,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1951년 9월 17일, 작전지역인 하리에 대한 지역 정찰을 실시했다. 헨 대위와 루이스 소위는 에반스(E. O. Evans) 대위가 조종하는 B-26을 타고 원산을 거쳐 하리로 향했다. 그런데 하리지역을 저공비행하다가 적의 대공포에 맞아 격추되면서 탑승자 5명 전원이 전사했다. 결국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sup>328)</sup>

1952년 3월 하순경 유격대원 45명이 C-119 수송기로 레인보우 작전을 위해 백두산·묘향산 등지로 투하되었고,<sup>329)</sup> 6월 16일 동키 제10부대의 유격대원들이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으나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2시간 동안 사투 끝에 귀환했다고 한다.<sup>330)</sup> 토치라이트부대에서도 침투작전이 실시되었다. 1953년 2월 5~10일경 토치라이트 I-IV 팀이<sup>331)</sup> 투하되었고, 3월 30일 11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후속 팀을 위해 안전기지 확보하기 위해 투하될 예정이었다.<sup>332)</sup> 개별작전의 구

326) 『유엔군 유격전』, 82면.

327)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323-324면.

328) *Dark Moon*, pp. 118-123. 동키 제6부대에서도 1951년 6월경 정향엽을 비롯해 30여 명을 선발해 백령도에서 15일간 낙하산 훈련을 시킨 후, 송림산 산악지대와 황주군 소재 정방산으로 투하했다고 한다(문승지 증언, 2003.11.5; 김덕전 증언, 2003.12.13).

329)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2, 197-198면.

330) CCRAK Guerrilla, “Summary No. 38” June 2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31) 작전일자와 규모가 비슷하고, 한 보고서에서 1953년 2월중 유격대의 공중침투 인원이 48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복서(Boxer) I-IV 팀과 동일한 작전일 가능성도 있다(『유엔군 유격전』, 136-137면; Intelligence Division, HQ, FECLD9K0, 8240AU,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332)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체적인 내용은 각 부대의 활동에서 다를 것이다.

그린 드래곤(Green Dragon)같은 철도파괴와 내륙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작전도 수행되었다.<sup>333)</sup> 이 부대는 800명 규모로 강화도의 제2유격연대(Green Dragon Able)와 제1공수유격연대(Green Dragon Baker)에 각각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 1월 25일 작전은 강화도의 청룡부대에서 수행하였다.<sup>334)</sup> 22시 45분 대원 97명은<sup>335)</sup> 북한군으로 위장한 후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C-119 수송기로 평양 서쪽 산악지역(Kockchang)에 B-26 폭격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5분 간격으로 3명씩 투하되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추가적인 유격대원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은거지 확보였다. 공산측은 이 작전을 평양 북서쪽 60km 지점에 있던 중공군과 북한군의 연합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유격정찰 인원이 투하된 것으로 인식했다.<sup>336)</sup>



공중침투대원 출동 준비  
(1952. 7) : 미 제8240부  
대 전우회 회장 딜라드  
(Douglas C. Dillard) 제공

333) 이병두, 앞의 글, 96면;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4-17.

334)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335) 당시 그린 드래곤 대원 가운데 정봉섭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작전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 대원이 있다(유병렬 증언, 2003.12.11).

336) 『유엔군 유격전』, 30면; 러시아 국방부편(김종국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344면.

투하된 그린 드래곤 대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부대 본부에서는 1953년 3월초 3명을 추가로 투입시킬 예정이었으나 3월 3일 비로소 첫 보고를 받았다. 대원들은 투하 당시 적의 소총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낙하된 대원 47명이 어렵게 집합하였으나, 5회에 걸친 교전 끝에 3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동안 북한군 초병과 총격전이 벌어져 6명을 사살했고 북한군 트럭을 공격하여 3명을 생포했으나 대원 7명이 전사했으며, 백산지역에 은거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식량·피복·의약품·탄약·지도·무전기 등을 요구했다.<sup>337)</sup> 그 해 4월 말경 침투대원들이 1951년 1월 격추된 B-29 승무원 5명이 생존해 있다는 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무전연락을 취했다. 본부에서는 미군 5명을 구하기 위해 5월 18~19일, 대원 56명을 침투시킬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구조작전은 적의 대공포화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투입된 대원들 가운데 단 1명도 복귀하지 않았고 미군 조종사 5명도 끝내 귀환하지 못했다.<sup>338)</sup>

대원들이 공중으로 침투하여 새로운 곳에 유격근거지를 만들고 동조자를 포섭하여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여러 작전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실패했다. 미군들은 한국인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한국인을 침투시키면 북한주민들이 그들을 쉽게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여겨 당장 내무서나 북한군에게 신고했다.<sup>339)</sup>

### (3) 심리전

북한지역에서 반공적 인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동시에 적군이나 민간인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하였다.<sup>340)</sup>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제8군사령부에서 라디오·전단·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심리전을 수행했다.

337) 『유엔군 유격전』, 303-304면;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338) 『유엔군 유격전』, 138면, 305면; In the Devil's Shadow, p. 104; Col(R). Douglas C. Dillard, *op.cit.*, p. 3, pp. 46-48.

339) 벤 S. 맬콤, 앞의 책, 269-270면, 281-282면.

340) Ellery Anderson, *Banner Over Pusan*, p. 62.



이미 제8군 정보참모부 아래 확성기·전단중대(Loudspeaker and Leaflet Company)를 설치하여 북한군이나 중공군에게 투항이나 귀순을 권고했고,<sup>341)</sup> 1951년 1월 24일 작전참모부 아래, 심리전과(Psywar Division)를 설치하여 기존의 확성기·전단중대를 배속했다. 1951년 2월 10일 국군에서도 육본 작전교육국에 신경전과(Psychological Warfare Section)를 두어 심리전 분야를 강화했다.<sup>342)</sup>

미 제8군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 전단살포를 했다. 195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군 지역을 포함해서 적 지역에 약 1억 6천만 장을 살포했다. 전쟁이후 1952년 1월초까지 총 8억 6천만 매 이상의 전단을 살포했다. 휴전까지 전 전쟁기간을 포괄하면 유엔군이 살포한 전단은 25억장에 이르렀다.<sup>343)</sup>

이렇게 활발한 미 제8군의 심리전 활동과는 달리, 유격부대에서는 선무공작 등 정치적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유격대의 선무공작대는 정훈실에서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의 귀순을 위해 활동했다. 그렇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격사령부는 점차 선전에 의한 주민과 공산군의 사기 저하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1952년 12월 각 유격대의 정훈요원과 대원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리전을 담당할 실무자 교육을 위해 학교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sup>344)</sup>

1953년 1월 유격군 사령부 심리작전국에서 서울 가회동에 심리전 학교를 설치하고, 각 유격대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했다. 심리전 학교는 후에 심리작전국이 정훈국으로 변경되자 정훈학교로 바뀌었다. 유격사령부 심리전 학교의 교장은 유격사령부 정훈국장인 강일희, 부교장 김용제, 교무주임 김영창 등이었다. 강사진은 최남선(사학자), 오제도 검사, 성인기(조선일보 편집국장), 김영상(서울

341) 1st Loudspeaker and Leaflet Company, Army, "Command Report # 5"(이하, CR로 줄임) 1951.5, Box 5369/Record Group 407, National Archives, USA.

342) 『육본 일반명령(육)』 제33호, 1951.2.11; 『육본 역사일지』, 1949. 8. 17~1951. 12. 31, 군편사료 280.

343) 정용욱, 『6.25전쟁과 뼈라의 정치학』,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논문집』, 2003.5.30-31, 156면;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1950.6.-12)』, 『군사』 50, 2003.12, 236면; "Psywar Operations, 2 through 8 Jan. 1952" 1952.1.12, PSB 387.4 Korean /HSTL, p. 8; "Korean Conflict Collec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on the Korean Campaign", 군사편찬연구소, SN 425.

344) 『遊擊戰과 心理作戰』, 極東司令部 駐韓連絡處 心理作戰課 1953. 1, 1면.

신문 편집국장), 홍종인(언론인), 윤석중, 이용만(서울대 교수) 등이었다. 민족사, 민주주의의 우월성,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공산당의 만행, 유격부대의 사명과 통일의 길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심리작전의 효과와 방법, 민심 동향의 파악과 대처, 포스터, 삐라의 중요성과 도안, 색상, 문구의 고안 배치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sup>345)</sup>

1953년 1월 심리전과에서는 『유격전과 심리작전』(Guerrilla & Psychological Warfare)이라는 팜플렛 1,000부를 발간하여 전략상 필요한 원칙과 방법을 소개했다.<sup>346)</sup>

1953년 1월부터 8월까지 매기마다 1개월씩 20명 규모로 교육을 시작하여 7기까지 양성했다. 1953년 2월 11일 심리전 학교에서 첫 졸업생 22명이 배출되었다. 각 부대에서 1~2명씩 선발했다. 예를 들면 동키 제11부대의 경우 이현순(1기생)·전지훈(2기)·김두수(3기), 권승훈·홍성구(4기) 등이 선발되었고, 동키 제13부대 이원복(2기), 동키 제20부대 김현(1기)·홍훈(2기), 동키 제6부대는 임배영(1기), 정궁렬(4기) 등이었다.<sup>347)</sup>



심리전 학교 제6기 졸업식과 졸업생

345) 김현(구월부대) 증언, 2002.7.15); 임수(울퓌 제1부대) 증언 2003.4.4;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9.6; 『웅진학도유격부대사』, .

346) 『遊擊戰과 心理作戰』, 極東司令部 駐韓連絡處 心理作戰課 1953. 1; HQ, Partisan Command, FEC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그 후 1953년 5월 중순, 연합정찰사령부 스타인벡(Steinbeck) 대령과 JACK 부대 하니(Haney) 대령 등 관련 지휘관이 모여서, 이 해 5월 14일부터 책부대가 심리전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그 책임자는 티온(Twyon) 중령이었다.<sup>348)</sup>

유격대에서는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 이 때 전단은 200부로부터 1만부까지 살포하였다. 예를 들면 동키부대에서는 구월산 등지나 해안의 북한군 주둔지에 귀순과 투항 전단을 뿌렸다. 7월 21일 2명의 동키 제4부대 대원이 150장의 선전전단을 장연고급중학교에 뿌렸다.<sup>349)</sup> 1952년 8월 15일 동키 제10부대에서 6명의 유격대원이 투항전단 200매와 포스터 20매를 온천과 안악 지역에 부착한 결과 학생 6명이 구월산에 있는 파견대에 합류했다. 9월 16일에도 공산당회의장을 습격한 후 선전전단을 살포했다.<sup>350)</sup> 1952년 9월 2일 전단을 살포한 결과, 같은 달 5일 웅진군 소한동(XB824981)지역에서 동키 제1부대로 북한군 2명이 귀순했고, 11일에도 북한군 1명이 선전전단을 보고 귀순했다.<sup>351)</sup>

1952년 6월 7일과 22일 울퍽 제4부대 용매대대와 정보과에서 연안읍과 해주시에 전단을 살포했다. 울퍽 제8부대에서 1952년 9월 14일 01시, 김일 등 특공조 대원 5명이 웅진군 웅정읍 냉정리에 있는 내무서 분주소를 습격하여 내무서원과 민청원을 사살한 후, ‘경고문’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sup>352)</sup>

그 후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형태는 전단, 라디오, 벽보, 포스터, 편지 등을 이용했다. 살포 방법은 아군 요원에 의한 직접 배포, 공중살포, 아군지역에서 방송, 내부지지세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sup>353)</sup> 곧 휴전

347) 『파라슈트』 6, 1953.6, 120면; 『국중일기』, 『파라슈트』 9, 1953.8.15, 143면; 『파라슈트』 별책 1호 화보, 1953.9; 『웅진학도유격부대사』, ; 『구월산유격부대전사』, .

348) “Black Psywar” May 1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349)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 전사』, 2003, 425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91” Aug.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50)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 644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92, 124” Aug. 19, Sep.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51)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11, 117” Sep. 7, 1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52) 울퍽 제8부대 전우회, 『분주소 기습작전』, 2002.9.

이 되었다.

당시 살포했던 전단은 1953년 2월의 경우, “인민군대에 끌려가지 말자, 대한민국 건설의 일꾼이 되자”는 내용을 담은 「학부형들에게」, “선량한 부모형제, 애국 지사를 억압하고 학살하지 말라”는 「하리면 서원들에게」, 「자위대원들에게」, 「옹진군 부민면 천상리 로동당원 및 자위대원들도 보아라」 등이었다.<sup>354)</sup>

1953년 5월, 전단 내용은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백군민들에게」,<sup>355)</sup> 「강제이주에 반대하고 내 고향을 사수하자!」, 「전선지구의 자위대원들이여 멋도 모르고 날뛰지 말라!」, 「중공 오랑캐를 몰아내자!」 등처럼 주민들이 강제이주에 반대하거나 토벌전에 참가를 거부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 북한정권의 노동력과 세금 착취, 부패 등을 고발하는 “어둔 밤에 맨손으로 땅파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증산에 죽어가는가!”, “부패한 괴뢰정권의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잔존한 공산주구들에게 보내는 경고문”, “살인적인 세금정책에 반대하여 불납동맹을 조직하자”는 “인민의 피땀을 착취하는 놈들의 세금을 내지 말라!” 등 김일성과 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밤낮으로 미국



전단 : 「누가 무공화를 짓밟을 쓰내!」

353) “Black Psywar” May 1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354) “Partisan & Psychological Warfare”, Psywar Section, FECLD/K, 8240th AU,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355) 당신들과 같은 연백사람으로부터, 「연백군민들에게」(날짜 없음),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과 대한민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상은 쏘련에서 명령으로 김일성의 군대가 먼저 38선을 넘고 공격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우리 북반부 어린이들도 태극 밑의 일꾼이 되자」, 북한군의 강제징집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유격대에 합류할 것을 강조하는 「애국청년과 학생동지들은 인민군대 강제모집에 결사반대하자!」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군 징집에 응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sup>356)</sup>

## 나. 작전성과

유격대원 개인적으로 보면, 전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신들의 부모 형제·친지 등을 북한지역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일 것이나,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속에 수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면서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 많은 전과를 올렸다. 작전에서 성공한 대원들은 배 안에서 우렁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귀환했다.<sup>357)</sup>

동키 제9부대 정보참모 손문식이 “적을 사살한 것만 하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다하며 작전이나 정보에 의하여 군수물자 집적소 파괴 또는 폭격한 것을 헤아린다면 말할 수 없는 통계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sup>358)</sup> 1951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격대는 4,445회의 작전을 보고했다. 월 평균 작전 횟수는 1951년 101회였으나, 1952년 1월부터 1953년 4월까지 221회로 늘어난 것처럼 1951년 7월 휴전협상이후에도 유격전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전이 다가옴에 따라 161회로 점차 감소하였다.<sup>359)</sup>

월별 작전을 살펴보면 여름과 가을시기에 활발했다. 보리와 쌀 등의 현물세를 징수하는 현장과 양곡을 수송할 때, 혹은 양곡창고에 대한 공격이 많았던 점이 특징이다. 1952년 6월 10일 동키 제4부대는 보리 1,500가마와 쌀 500가마를 불태

356) “Black Psywar” May 1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357) 김윤호(동키제4부대) 증언, 2002.8.

358) 손문식, 『서해유격용사들의 자랑』, 『당나귀』 2, 1952.12, 18면.

359) 『안악군지』, 413-414면; 『유엔군 유격전』, 28면.

왔다. 1952년 10월 8일 동키 제3부대 대원 16명이 현물세 징수 장소를 습격하여 경비대원 8명을 사살하고 벼 11,340kg을 파괴하였다.<sup>360)</sup> 대개 작전은 봄부터 다시 활기를 띠면서 자연적인 엄호가 가능한 여름시기의 공격이 활발하였다.<sup>361)</sup>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초까지는 혹독한 겨울 한파 때문에 작전활동이 축소되었다. 겨울 동안에는 소규모 매복작전과 첩보수집활동을 주로 했다. 이 시기 각 사령부에서 유격대에게 보급품을 제공했지만,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조바심이 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1953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과를 보면, 유격대는 해군과 공군의 지원으로 적군 5,450명을 사살하고, 1,430명을 부상시켰다. 유격대원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110명이 전사하고, 152명이 부상을 입었다.<sup>362)</sup>

#### <요도 4-5> 울택기지사령부 작전 요도(1952. 10. 1~5)



360) CCRAK Guerrilla, “Summary No. 36, 43, 150” June 20, 27, Oct. 1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61)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 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HQ, FEC LD(K),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11, 1952, 군편, SN 1963.

362) 『특별 주간작전보고서 제19호, 1953.2.23-3.1』,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유격대의 활동으로 적에게 입힌 인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격대는 69,094명을 살상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유격대가 요청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에 의한 전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51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09명에게 손실을 입혔고,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살 9,095명, 부상 4,809명 등이었고, 1951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사살 38,469명, 부상 9,602명이었다.<sup>363)</sup>

전과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살자의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1951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미 제8군의 전과통계에서는 사살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1.3:1에 그쳤던 점과 비추어 보면, 유격전이 기습적인 근접전투로 인한 사살자 비중이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과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요소도 되었다.<sup>364)</sup>

유격사령부 지침은 가능한 많은 포로를 획득하는 것으로, 특히 중공군 포로를 더 원했다. 동유럽인이나 소련인 생포에 특별히 노력했다.<sup>365)</sup> 그러므로 유격대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공군보다는 주로 북한군을 상대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작전목표에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66)</sup> 이를 독려하기 위해, 사령부에서는 1953년 4월말 자위대원과 같은 비정규군을 제외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유격대의 포로획득에 대한 상금 지급을 고려했다. 그 규모는 장군은 500달러, 대령급은 250달러, 야전 장교 150달러, 중대급 장교 100달러, 부사관 25달러, 사병 10달러 등이었다. 이러한 상금지급은 유격대원들에게 좋은 인센티브가 되었을 것이다. 1953년 1월부터 5월 14일까지 포로의 수를 고려하면, 매월 평균 100달러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sup>367)</sup>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휴전이 되면

363) 『유엔군 유격전』, 31면, 79면, 142면.

364) 『유엔군 유격전』, 14면, 143면.

365) HQ, FECLD(K), 8240th AU, “Guerrilla Operation Outline, 1953”, Jan. 22,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366)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42-43.

367) “Reward for the Capture of POWs by Partisan Regiments” Apr. 30,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Combat Command Report No.5” June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같은 문서.

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포로의 수는 385명에 이르러 매월 평균 55명에 이르렀고, 1952년 1월부터 1953년 3월까지 총 552명으로 월 평균 35명이었다. 이 통계에는 귀순자는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로 통계 가운데,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구분하지 않아 양자의 비중을 알 수 없다. 유격대원들이 획득한 포로들은 제네바협정에 따른 포로대우를 받았으므로 포로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격대로 편입되거나 첩보대로 간 포로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북한에 있는 유엔군포로 수용소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려는 팀(‘Project Wasp’)을 편성했으나, 파견된 대원들이 1953년 1월과 2월 보고를 일체 하지 않자 1953년 2월 28일자로 해체했다.<sup>368)</sup>

미군의 보급을 받기 전 식량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좌익 빨치산들의 ‘보급투쟁’과 같은 양곡이나 재봉틀 등 다른 물품을 노획하기 위한 ‘소도(小盜) 작전’을 시행했다. 이를 ‘김일성보급’이라고 불렀다. 추석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누룩, 쌀, 소, 돼지, 향목도 있었다. 모 부대에서는 웅진의 가게를 공격하여 옷과 옷감을 노획했다.<sup>369)</sup>

다른 유격전의 경우처럼, 제8240부대 본부에서는 적으로부터 보급품을 획득할 것을 계획했다. 공산군측으로부터 더 많은 보급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이는 미군의 보급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적들에게 보급부족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370)</sup> 특히 중국이나 소련에서 보급된 물품은 적들의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차단시키려고 하였다. 사령부에서는 유격부대에게 적의 보급

368)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369) 이형우, 앞의 책, 307면, 324-325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83” Aug. 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70) 이러한 방침은 현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중공군은 국민당과 내전시기 “군중으로부터는 바늘 하나 실 하나라도 취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북한군도 군대와 빨치산들에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민의 이해관계에 사소한 손해라도 끼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들에게 노동력을 지원하는” ‘혈연적 유대’를 강조했다(『인민과 혈연적 관계를 긴밀히 하라』, 『조선인민군』 1950년 11월 28일자 사설; 김순규, 『중공군의 전략전술 변천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311면).



품을 노획할 수 없거나 지역 협조자들에게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파괴하도록 지시하였다.<sup>371)</sup>

이러한 방침아래 가축과 식량도 많이 노획했다. 특히 농우의 노획이 두드러진다. 1952년 6월부터 1953년 3월까지 597두의 소를 노획했다. 이러한 ‘약탈’ 행위로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심리작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당시 유격대에서는 ‘인민군의 트럭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북한군들은 기동력이 없어서 소달구지로 탄약과 식량 등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이용되는 소를 노획하거나 없애는 것은 그들의 주요한 수송수단을 파괴한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군이 우차 동원령을 내리면 많은 양민들이 우차로 일선까지 군수물자를 수송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탓으로 주민들 사이에 소가 원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sup>372)</sup> 소·쌀 등을 빼앗으나, 이것은 가족부양이나 부를 축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sup>373)</sup> 이 때 북한 주민들에게 양곡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측은 양곡을 받은 주민들을 사살하는 등 처벌을 했기 때문이었다.<sup>374)</sup>

이외에도 피난민과 추락한 아군 공군 조종사 구출도 중요한 성과였다. 일부를 들면 1952년 6월 8일 동키 제15부대에서 추락한 미군 조종사 쉰츠(Albert W. Schinz) 대령을 구출했다. 같은 달 14일 울팩부대에서 미 공군 조종사 1명과 한국인 1명을 구출했다.<sup>375)</sup> 많은 피난민도 구출했다. 대원들이 작전을 나가면 탈출을 원하는 현지 주민들은 해안가로 몰려왔다. 예를 들면 1951년 9월 유격대원들이 들어온다는 연락이 며칠 전에 전해지자, 무장대원 가족 20세대가 그들을 따라서 함께 초도로 나왔다.<sup>376)</sup>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기지별 전과는 <표 4-12>에서처럼 레오파드 기지가

371) HQ, FEC LD(K),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 Apr.11, 1952(군편, SN 1963).

372) 이형우, 앞의 책, 218-219면.

373) 그런데 이러한 노획품을 간부들이 임의로 처리해서 부대 내의 갈등요소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374) 『부대장 김웅수 증언』, 1952.11.5,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375) CCRACK Guerrilla, “Summary No. 34, 36” June 18,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76) 김귀옥, 앞의 책, 254면.

<표 4-12> 1952년 11월 1~7일 제8240부대 전과<sup>377)</sup>

(단위 : 명)

	레오파드기지	올팩기지	스캐논기지	총 계
사 살	826	350	0	1,176
부 상	65	50	0	115
포 로	0	2	0	2
총 계	891	402	0	1,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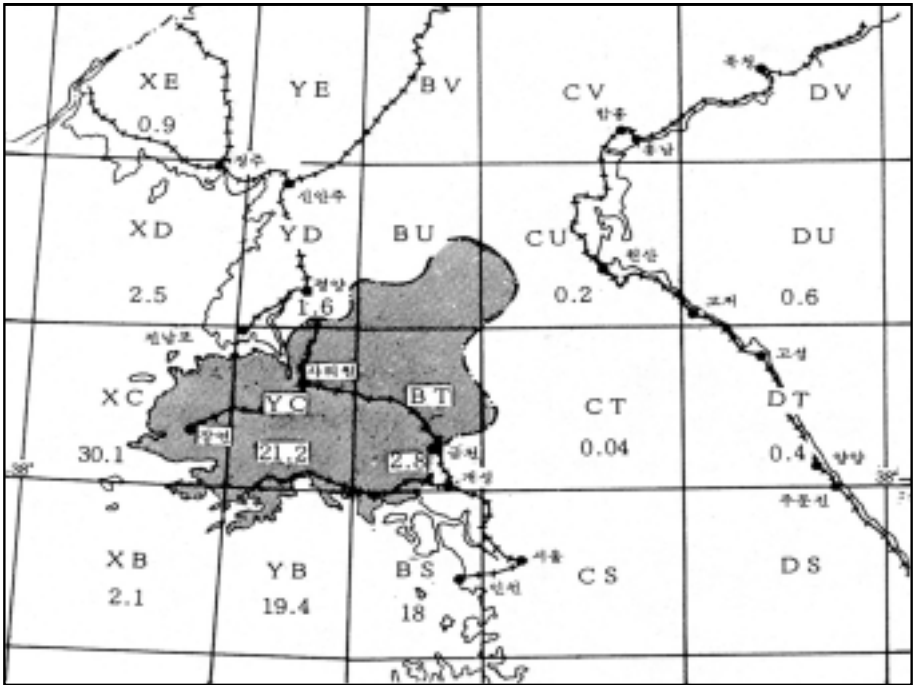
올팩 기지보다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부대별 전과통계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각 기지사령부에서는 매월 부대별 전과보고를 기초로 순위를 매기고 작전활동을 독려하였다. 예를 들면 레오파드기지사령부에서는 1952년 10월 전과 평가에서 동키 제11부대의 경우 동키 제3, 20부대 보다 부대규모가 훨씬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왜 전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전과에 따라 보급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전과 획득이 중요하였다.

지역별 작전은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황해도 지역이 압도적이다. 1951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4,326회의 작전 가운데 서해안의 황해도 지역이 총 4,040회, 서북해안 215회, 동해안은 62회에 불과했다.<sup>378)</sup> 사령부에서는 내륙기지를 구축하여 적 후방을 교란할 것을 원했지만, 공산측의 토벌, 보급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1951년 황해도내 전체 작전 중 내륙 활동비율은 1951년 5월 0.46%, 10월 0.26%였고, 겨울이 되면 더욱 낮아져서 11월의 경우, 0.19%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비슷했다. 1952년 7월 0.35%, 1953년 3월 0.33%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록 일부 작전이지만, 휴전시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sup>379)</sup>

377)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378) 『유엔군 유격전』, 259면. 그런데 섬에 작전기지를 둔 부대가 내륙에서 수일간 작전했을 경우를 내륙작전으로 분류하면 작전횟수가 크게 늘어난다(같은 책, 183면).

379) 『유엔군 유격전』, 75면, 125면.

<요도 4-6> 구역별 유격대 활동 비율<sup>380)</sup>

#### 다. 전과평가와 훈장수여

유격대의 활동이 정규전과 배합되어 수행되지 못한 점은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셈이었다. 유격부대 미군 지휘관들은 유격대원들이 미 제8군의 측면을 방어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미 제8군에서는 유격대들의 활동을 알지도 못해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았다. 협조채널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활동에 대해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고 무시했다.<sup>381)</sup> 1952년 10월 신태영 국방장관이 서해안 유격부대의 주요 활동으로 신천의거, 구월산탈환작전, 웅진습격작전 등을<sup>382)</sup> 지적한 것은 유격대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

380) 『유엔군 유격전』, 27면, 75면.

381)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6-7;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같은 문서, p. 21.

382) 국방부장관 신태영, 『격려사』 1952.10, 『당나귀』 3, 1953.1, 10면.

로 보인다.

백령도 기지사령관인 다이 소령은 유격대의 활동으로 중공군 1개 군단이 해안선 경비를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sup>383)</sup> 미 제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Partridge) 장군은 유격부대의 활동으로 전선의 북한군 2개 군단의 병력을 묶어 놓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유격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유격대활동으로 인해 공산군측이 약 2만 명~5만 명의 병력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다.<sup>384)</sup>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도 북한연안의 섬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의 역할을 인식했다.<sup>385)</sup> 대원들도 최소한 1개 야전군을 견제한 것으로 여겼다. 즉 북한군 제17사단, 23사단, 22여단, 16여단, 15사단 및 중공군 제3야전군을 견제했다고 평가했다.<sup>386)</sup>

그러나 미군측에서 유격전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군 지휘관들은 유격대원들이 용감하고 부지런했지만, 유격전 활동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유격대의 운용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어서, 유격대를 좋게 평가하거나 긍지를 가진 자가 적었다. 유격대의 임무를 미군 보병과 특공중대에게 맡겼으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유격작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었다.<sup>387)</sup>

이렇게 미군 고문관들이 낮게 평가한 이유는 유격대의 작전목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작전결과를 믿지 못한 데 있었다. 고문관들은 유격대의 적 살상 혹은 공산주의자의 제거, 교통과 통신시설 및 보급물자 파괴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적군에 크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했지만, 전과를 검증해보면 눈에 띄만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sup>388)</sup> 사령부에서는 전과가 부정확하고 과장되어

383) 소령 토마스 A. 다이, 『훈장추천: 장재화』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384)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면; 『유엔군 유격전』, 33면; “The John Hugh Mcgee Papers” Mar. 24, 1986, 군사편찬연구소, SN 1961, p. 23.

385) 매튜 B. 리지웨이(김재관역), 앞의 책, 247면

386)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면.

387) 『미군장병의 전투체험보고서』 1954.3.21, 『유엔군 유격전』, 300-301면;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0;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편, SN 1958, p. 2.

388)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20.

있다고 믿었다. 극동군사령부의 작전 지침에 의하면, 미군은 유격대원이 출동할 때 공격대원과 함께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트에 머물러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미군들이 작전결과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작전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유격대장은 다음 작전에서 사람의 귀를 잘라 가지고 왔다. 그런 경우도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 혹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경우에는 고문관이 작전에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고문관의 안전이나 내륙으로 너무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위험하다거나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sup>389)</sup>

미 제8군 정보장교인 퍼셀 중령은 제8240부대의 유격대가 제출한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과장되었다고 확신했다. 유격대가 보고한 적 희생자 수를 종합해 보면 작전지역의 북한 주민 대부분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었다.<sup>390)</sup> 유격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미 육군의 평가의뢰를 받은 존스 홉킨스대학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에서는 1억 달러의 비용에 비해 성과가 약했다고 평가를 했다.<sup>391)</sup> 그 평가에 따르면, 유격대가 보고한 사상자 수는 실제보다 3~10배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는 7,000명으로부터 23,000명의 범위라고 추산했다.<sup>392)</sup>

유격대의 전과가 크게 과장된 점을 가감한다 해도 유격대를 통제하는 미군들이 유격대 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지 않는 유격대가 적들에게 1만 명 이상을 살상케 하였으며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분산시켰던

389)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451;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 421.

390)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391) 미군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군이 소비한 유격전 비용은 1952년도 2,500만 달러, 1953년도에는 7,150만 달러였다. 특히 1953년도는 유격대가 거둔 성과에 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연도였다고 하나, 이는 1953년 초부터 대원의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392) 『유엔군 유격전』, 32면. 전우회에서조차 적 1개 사단 이상에 해당하는 병력과 장비에 출혈을 강요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면). 이러한 평가를 따르면 후술할 제5장 부대별 활동에서도 전과부문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과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자료를 그대로 따랐다.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sup>393)</sup> 또한 공산군측이 동서 연안지역을 장악했다면 아군 해군작전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어로를 허용함으로써 적의 보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을 것이다.<sup>394)</sup>

더욱이 작전 기간중 유격부대의 운용비용 약 1억달러는 미 육군 약 200명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다.<sup>395)</sup> 이처럼 미 육군 200여 명의 비용으로 유격대 1만여 명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유격대 운용이 얼마나 경제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sup>396)</sup> 미군이 유격대를 운용한 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비교적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격대원들은 미 국병력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편 유격대원들은 유격대의 작전이 비밀히 수행되었기 때문에 미군 당국이나 한국정부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데에 불만을 가졌다.<sup>397)</sup> 그러나 한국군연락장교단의 역할로 국군 당국에서도 유격대의 성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신태영 국방장관은 제8240부대원의 임무가 임무인 만큼 현재 나타낼 수 없는 공을 세우고 또 세우는 중이라고 평가했다.<sup>398)</sup>

연락장교단장 이영순 대령의 건의로 1952년 11월 하순, 국방부에서는 제8240부대원 22명에게 각 지구 전선에서 세운 공을 기려 무공훈장을 수여토록 결정하여 신태영 국방장관, 윤치영 의원, 장호강 대령 등이 훈장을 달아주었다.<sup>399)</sup> 이경남(동키 제10연대 참모장)에게 금성총무무공훈장, 임원빈(울팩 제1연대장), 박상준(울팩 2연대장), 이현우(울팩 3연대장), 이증기<sup>400)</sup>(울팩 4연대장), 이명로(울팩 5연대장), 이영순(울팩 6연대장), 안승두(울팩 7연대장), 공성로(울팩 8연대장),

393)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사편찬연구소, SN 1962, pp. 420-421.

394)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37.

395) 『한국전쟁과 유격전』, 138-1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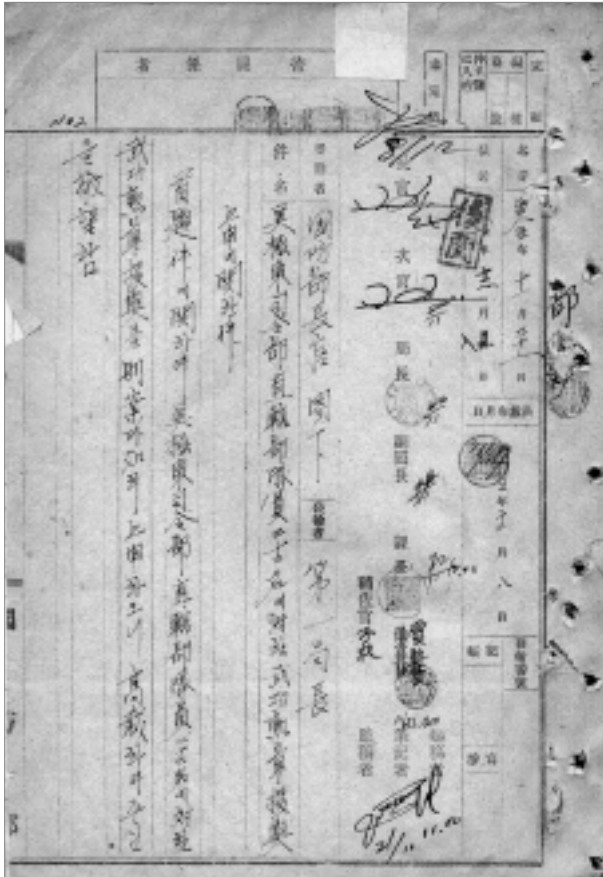
396) 전쟁 당시 미군 1명의 유지비용은 국군 28명의 유지비가 될 수 있었던 주장(『민주청년』 1952.2.27)에 비추어 보아도 경제적이었다.

397)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398) 국방부장관 신태영, 『격려사』 1952.10, 『당나귀』 3, 1953.1, 11면.

399)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29면. 당시 공적서대로 연대로 표시했다.

400) 원문에는 이정기로 기술되었으나, 이증기이다.



무공훈장수여 상신문서

장재화(동키 1연대장), 장예규(동키 3연대장), 최문려(동키 4연대장), 김정태(동키 7연대장), 홍석우(동키 10연대장), 김응수(동키 15연대장), 박동호(동키 20연대장) 등에게는 충무무공훈장, 이진호(울팩기지 사령부 통역)·김정민(8240부대본부 통역)·홍갑목(8240부대본부 보조장)·유호순(울팩기지 사령부 수석 통역)·이유진(울팩기지 사령부 통역)·유연표(울팩기지 사령부 통역겸 연락병) 등에게는 금성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sup>401)</sup> 이에 대해 그동안 성과를 거두고 돌아와도 꽃다발 하나 주는 이 없더니, 이제 ‘유격대의 공든

담’에 대한 평가로 간주하여 간부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유격대 전체의 공동서훈으로 받아들여 매우 큰 긍지로 여겼다.<sup>402)</sup>

무공훈장 수여자는 연대장 15명, 참모장 1명, 통역 4명 통역 겸 연락병 1명, 보조장으로, 미군과 의사소통에 기여한 통역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미군 산하에서 많은 작전 및 정보보고를 알림으로써 연합군 작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401) 국방부 제1국장, 『미국동사령부직할부대원 22명에 대한 무공훈장수여』 1952.11.21(군편 소장, 『공적서철』 304); 『당나귀』 2, 195.12, 93면.

402) 杜人, 『공든 담-유격대 무공표창의 보를 듣고』, 『당나귀』 2, 1952.12, 4-5면;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29면.



김응수 동키 제15부대장 등 훈장수여



동키 제7부대장 김정태  
충무무공훈장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훈장수여권을 위임하여 전공수립시 즉시 포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유격대에서도 각 부대에서 일부 대원들에게 용감증, 표창장, 훈장 등을 수여했다. 예를 들면 커크랜드부대에서는 해상특공대원들에게 ‘해상침투 훈장’을 주었다. 그러나 대원들은 이러한 표창장이 한국군 당국에서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제 6 절 북한군과 중공군의 대응

### 1. 주민통제와 격리

1951년 말 국군 당국은 지리산 좌익빨치산의 토벌을 위해 전선의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뽑아 작전에 투입했다.<sup>403)</sup> 전시에 최전선의 2개 사단을 후방작전에 투입했던 것은 그 만큼 그들이 골치 아픈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군 유격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때 지리산지역에서 밤에는 ‘인공기’, 낮에는 태극기가 나부끼듯이 황해도 지역에서도 밤에는 태극기, 낮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야간에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피습을 우려하여 방공호로 피난하여야 했다고 한다.<sup>404)</sup> 이렇게 황해도 지역에서 유격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현지 반공인사들의 지하조직이 편성되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유격대원들에게 첩보를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했다. 1951년 7월 중순경 동키 제4부대원으로 장연군 대거면 중평리 내무서를 습격하려 했다가 오히려 적의 매복에 걸려 모대원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탈출해 온 한 유격대원은 현지 주민들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준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유격대의 활동이 가능했다고 회고했다.<sup>405)</sup>

전쟁당시 북한지역에 수용되어 있다가 탈출했던 한 국군포로는 “1951년 하반기, 황해도 신천지역에는 국군특공대가 자주 출몰하였다. 특공대원이 모두 이 고장 출신으로 짜여져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들에게 협조하니 인민군으로서는 잡을 수도 없었다”고<sup>406)</sup> 회고했다. 여기에서 말한 ‘국군특공대’는 다름 아니라,

403)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219면.

404) 김용철(탈북자) 증언, 2002.8.30.

405) 김천일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3.7.21.

서해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격대들이다. 1952년 유엔군의 대규모 공습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유엔군이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대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여겨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군 유격대를 지원하거나 북한군의 노력 동원정책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sup>407)</sup>

중공군도 이 지역 주민들이 유격대원을 지원해주는 현상이 아주 많았다(通敵資敵現象甚多)고 평가했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곧 북진해 중공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세울 것으로 믿었던 까닭에, 일부 공산당 당원들까지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sup>408)</sup> 소련 군사고문단도 미군이 1952년 중반기 이후 강화반도에 유격집단과 첩보집단의 상륙을 끊임없이 시도했다고 파악했다.<sup>409)</sup>

아군의 유격대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나 중공군은 병사들이나 북한주민들에게 “적은 반드시 패하고, 아군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선전교육을 강화했다. 북한측은 주민들에게 ‘민주선전실’을 통해 “원쑤에 대한 전 인민적 경각성과 불타는 적개심을 더욱 높이라! 적의 간첩 정탐 파괴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라!”고 선전활동을 강화하거나 청년,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했다. 그들은 행정기관들의 힘으로만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사상적 각성을 강조했다.<sup>410)</sup> 또한 중공군 자료에 의하면, 병사들이 국민당계 공작원을 생포하게 되면 후방지역의 경우 3개월간, 전방지역에서는 6개월간 후방으로 전출시켜 쉬도록 할 것이고, 현지 주민이 생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406) 조창호, 『돌아 온 사자』, 지호출판사, 1995, 158-159면. 다른 귀환 포로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김형일 진술, 2003.7.20).

407) “CINCUNC, Tokyo to DA” Sep. 1, 1952, FECOM, “Command Report”,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66.

408) 차치루, 『유격전의 史實과 우리의 활약상』, 『파라슈트』 9, 1953.8.15, 23면; 강동윤, 『어느 노해병의 이야기』, 국방119, 1999, 83-85면;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676면.

409) 『주 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이 불가닌에게』, 1953.1.21,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2, 2001, 288면.

410) 『안악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황해일보』 1952.9.18; 『적 간첩 파괴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라!』, 『민주청년』 1953.1.20;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676면.

널리 알렸다고 한다.<sup>411)</sup> 아울러 유격대가 자주 출현한 지역의 인민위원회나 당 간부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남한에서 보낸 유격대를 ‘해상의 무장비적’, ‘해적’, “패잔병으로 규합된 허수아비 부대”, ‘밀정’, ‘테러단’ 등으로 규정하고,<sup>412)</sup>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1951년 2월 하순 북한 내무성 부상 겸 경비국장 박훈일이<sup>413)</sup> 제6군단장에게 황해도 지역에서 “적들이 인민군 북으로 가장 출몰하여 상호간 충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군 암호와 부대표시 및 신임장과 외출증을 주민과 부대원들에게 확인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통행금지 시간을 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 통행금지시간에는 전체 주민과 개별적 군의 통행을



『황해일보』 1952. 10. 5.

411) “Rules of Encouragement of Capturing the Wanted American Imperialist Agents Through Reward” May 15, 1952, Douglas C. Dillard, op.cit., p. 93.  
 412) 『황해일보』 1952.9.4, 17; 『해적 80여 명 섬멸』, 같은 신문 1952.10.5; 같은 신문 1953.2.13; 『전선지구의 자위대원들이여 멋도 모르고 날뛰지 말라!』, “Black Psywar” May 1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413) 박훈일은 일제시기 독립동맹에 가담한 후 중국 팔로군에서 항일유격전에 참전하였고, 해방이 되자, 황해도 노동당위원장, 북한군 제4군단장 등을 역임하였다(『육본, 『인민군 특보』, 251면).

엄금토록 했다.<sup>414)</sup> 유격대에서 선전전단을 살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그 전단을 읽은 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지시했다.<sup>415)</sup>

유격대에 협조한 주민들에 대한 견제와 처벌도 강화했다. 이미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기 평남 중화군에서 치안대를 조직하여 활동했던 전봉인과 한윤석은 노동당 간부와 당원을 살해하고 식량을 국군에게 제공한 혐의로 현지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교수형을 받고 재판당일 공개 집행되었다.<sup>416)</sup> 북한 지역 내에서 협조를 했던 연락대원들이 하나둘씩 북한측에게 발각되어 일정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두문벌(杜門罰)’을 받거나 심한 경우 처형을 당했다. 1951년 4월 초 동키제1부대가 신천지역에서 출동했을 때, 신천 버스정거장에서 자동차 기술자로 일하던 김창근은 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이유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sup>417)</sup>

또한 유격대의 공격으로 주민희생이 발생한 경우 현지 주민의 반발도 생겼다. 유격대가 전투 중 북한주민을 사살하거나 우마차 등을 파괴했을 때는 주민들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한다. 공산주의자의 집회소를 공격할 때, 북한 관리나 공산당 간부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모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sup>418)</sup>

북한당국은 북한지역에서 비공산주의적 요소에 대한 감시와 처벌로 아군 유격대원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저지해 유격전을 제한했다.<sup>419)</sup> 북한 당국은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강제로 100~150리 정도 내륙으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sup>420)</sup> 전쟁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

414) 내무성 부상 겸 경비국장, 『황해도 경비포고』 제1호, 1951.2.20(정보사, 『필름대장』 1, 1968).

415) “Effectiveness of Psywar Support of Yonan Raid” Sep. 8, 1952, HQ, CCRAK, 8240th AU, 군사편찬연구소, SN 1158.

416) 『로동신문』 1951.7.27.

417)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1, Chang Jae Hwa”,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p. 48-49.

418) CCRAK Guerrilla, “Summary No. 172” Nov. 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5.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419) 『유엔군 유격전』, 18면.

여 월남가족들을 격리조치했다. 유격대원 가족들을 반동분자의 가족으로 분류하여, 원산지방 주민을 신의주로, 평양지방 주민을 무산으로, 강원도 지방 주민을 재령과 안악으로, 황해도 주민들을 자강도로, 함경도민을 황해도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은율군 출신의 유격대원의 가족을 함경북도 명천으로, 평안북도 선천으로 축출했다.<sup>421)</sup> 그러므로 ‘적지 침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친지나 주민들의 협조가 없어지자 유격대원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sup>422)</sup> 또한 유격대원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타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자, 적지에서 가족을 구출하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sup>423)</sup>

유격대에 동조한 현지주민들은 전후에도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28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회의에서는 ‘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반국가적 범죄’는 제외했다.<sup>424)</sup> 전쟁 후 북한당국의 조사에서 숨겨 놓은 무기가 발견되면서 유격대에 협력했거나 의혹이 가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되었다.<sup>425)</sup>

아군 유격대에 대해서는 선무공작을 강화하여 자수하면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책을 널리 선전했다. 벽보·표어·만화 등을 제작해 살포하고 유격대 가족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투항하거나 생포된 유격대원들에게는 귀향조치를 통해 유격대원들을 자수시키거나 유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모 부대 유격대원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가 체포된 후, 적에게 회유되어 다른 대원들을 생포하기 위해 협조했다고 한다.<sup>426)</sup>

한편 북한군은 은율 등지에 첩자학교를 운영하여 수백 명의 첩자를 훈련시켜

420)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339면.

421) 이춘복, 앞의 책, 150면.

422) 당신들과 같은 연백사람으로부터, 『연백군민들에게』(날짜 없음),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이형우, 앞의 책, 289면; 임봉익(동키 4부대) 증언, 2002. 8.13; 김연준(함남 고원 출신, 1969년 탈북) 증언, 2002.10.11.

423) 이익호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7.21.

424) 『조선중앙년감』 1954-55(상), 49면.

425) 김용철(탈북자) 증언, 2002.8.30.

426)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會編』, 676면; 임봉익(동키 제4부대) 증언, 2002. 8.17; 김후석(영도유격대) 증언, 2003.11.29.

동력선과 정크선으로 어로를 가장하여 연안도서에 침투시켜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다. 모 유격대의 경우, 한번은 이중첩자의 함정에 빠져 대원 25명이 전사했다.<sup>427)</sup> 1952년 10월 상순 3명의 청년이 뗏목을 타고 은율군 해안에서 자유세계를 동경하여 탈출하는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침투하였으나, 동키 제7부대의 정보참모와 군기반에 의하여 첩자임이 밝혀졌다.<sup>428)</sup> 이처럼 북한측이 유격대 기지에 첩자를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유격대원들은 같은 마을이나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원들의 신상을 서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sup>429)</sup>

## 2. 해안 경비강화와 유격대 근거지 공격

공산군측은 유격대의 상륙을 저지시키기 위해 침입로를 봉쇄하면서 해안경계를 강화했다. 옹진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제23여단 제4대대 1중대는 대원들에게, 감시 근무와 중대의 야간근무를 강화할 것, 반간첩(反間諜) 투쟁에서 더욱 더 경각성을 높일 것 등을 강조했다.<sup>430)</sup> 중공군은 주둔지 인근 도서에 공안파출소를 두고 선박으로 각 도서를 경비했다.<sup>431)</sup> 유격대원들이 발동선이나 범선으로 해안으로 접근하면, 북한측은 해안에 ‘똑딱선 사냥군’을 배치하여 침몰시켰다. 1952년 9월 중순 북한측 서해지역 해안 경비대원들은 해상과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상륙하려는 아군 유격대원을 공격하여 10여 일 동안 36명을 살상 혹은 포로로 했으며, 10월 초 장연군 해안면 몽금포리에서 지역 자위대원들이 유격대원 80여 명이 탄 배를 발견하여 섬멸했다고 한다.<sup>432)</sup>

427)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451면, 476면; 임영의 증언, 2002.8.29.

428) 배덕성(D-7), 『근무생활의 하루』, 『당나귀』 4, 1953.2, 36-39면.

429)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18.

430) 『창린도 전투시 노획한 북한군 문서』, 이영재, 앞의 책, 321면.

431)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676-677면.

432) 서휘, 『적들의 소위 ‘기술적 우세’와 우리의 전술적 우월성』, 『로동신문』 1951.7.24; 『가릴 처절한 해안방어전투』, 『황해일보』 1952.9.17; 『해적 80여 명 섬멸』, 『황해일보』 1952.10.5.

북한지역내 유격대 토벌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안 지역의 한 지방 소도시의 내무서에서는 유엔군 동조자의 체포와 ‘산 토벌’을 실시하면서, 내무성에게 보안대 병력지원을 요청했다.<sup>433)</sup> 공산군측이 구월산이나 수양산 등지 아군 유격대의 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자, 유격대원들은 섬으로 철수했다. 1952년 7월 하순 울팩 제3부대의 수양산 그린하우스 기지는 중공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거의 와해되었다.<sup>434)</sup> 이 해 10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북한군이 동키 제10부대의 구월산 기지를 공격하자, 유격대원들은 섬으로 철수했다.<sup>435)</sup>

동서해안에서 아군의 유격대 활동이 활발해지자, 공산군측은 아군의 상륙을 대비해 해안과 지역경계 부대를 증강시켰다. 김일성은 미군의 상륙기도를 지적하면서 동서해안지대의 방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1951년 3월 중순 서해안에서 해안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군 제657부대를 찾았다. 이어서 동년 4월



중공군의 해안 참호 구축

433) “The Korean Situation” April 26, 1951, 『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한국전쟁 자료총서 16), 1997, p. 595; 김연준(함남 고원 출신, 1969년 탈북) 증언, 2002.10.11.

434) CCRAK Guerrilla, “Summary No. 78, 91” Aug. 4,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43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2, 153, 155, 159, 164” Oct. 18-3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하순 동해안에서 해안방어를 하고 있는 북한군 제851부대를 찾아 해안방어를 강조했다.<sup>436)</sup> 물론 이러한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한 것이지만, 해안에서의 유격대 활동이 기여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격대를 진압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격대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소요된다. 공산군측도 유격대 활동의 견제와 토벌을 위해 1951년 7월부터 9월 사이 황해도 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을 늘려서, 동년 10월에는 북한군 제1군단과 제4군단의 총 77,000명이 주둔했다. 1952년 10월에도 북한 제4군단이 황해도 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했고, 북한 제9여단 제81부대와 중공군 제42사단, 63사단, 64군이 해안 및 지역 경계와 관련된 부대라고 추정한다면 황해도 인접

<요도 4-7> 적 해안부대 배치 현황(1953. 6)



436)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337-343면.



지역에 있는 방어부대의 총 병력은 163,300명에 이르러 1951년 보다 8만여 명이 증가한 셈이다.<sup>437)</sup>

공산군측은 유격대의 근거지였던 서해안의 유격대 기지를 공격했다.<sup>438)</sup> 1952년 말 중공군과 북한군이 울퓌크 제8부대가 주둔했던 순위도를 공격할 때, 유격대원들은 참호 속에서 반격할 수 있었고 아군 공군기들의 도움을 받아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sup>439)</sup> 그러나 공산군측의 기습으로 유격부대는 여러 근거지를 상실했고 대원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북한군은 포사격으로 자주 위협해왔는데, 특히 울퓌크지역에서 빈번했다.<sup>440)</sup> 예를 들면 순위도는 홍미면과 근접해 있어서 적의 박격포 사거리에 있었다. 1952년 12월 13일 순위도에 대한 북한군의 포사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대원들은 정신을 분간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12월 26일에도 17시 경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울퓌크 제8부대의 이강옥 대원이 전사했다. 29일에도 부대 본부에 대한 포사격이 있었다.<sup>441)</sup> 1953년 2월 1일 순위도에 있는 울퓌크 제8부대로 북한군 포탄이 164발이 날아 왔으나 다행히 아군 피해는 없었다.<sup>442)</sup>

월내도 유격대원들도 맞은편 육지에 있는 북한군 포대로부터 빈번하게 쏘대는 76밀리 직사포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sup>443)</sup> 초도에도 1952년 9월 5일, 북한군이 76.2mm와 122mm 포 125발을 발사하여 유격대원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6일 동키 제7부대 주둔지에 북한군이 76.2mm 포 60발을 발사하여 대원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9월 16일 북한군이 상취라도에 76mm 포 16발을 발사하여 유격대원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sup>444)</sup>

437) 『유엔군 유격전』, 83-84면, 147-148면, 191-192면.

438)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204면, 226면; 『中國人民支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676-677면.

439) 『백호부대 유격전사』, 296-298면.

440)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5, 132-134” Sep. 21, 28-3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441) 『조남혁 일기』, 1952.12.17, 26-29; CCRAK Guerrilla, “Summary No. 31, 56, 96, 109” June 12, July 10, Aug. 23, Sep. 5,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442) 이종암 일기, 1953.2.1.

443) 이종은(동키 4부대) 증언, 2002.9.12.

444) CCRAK Guerrilla, “Summary No. 111, 112, 126” Sep. 7-8, 2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유격대에 대한 공산군의 공습도 있었다. 1951년 10월 13일 15:00시경 대형 폭격기 8대가 MIG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신의주 방면으로부터 대화도 상공으로 날아올 때, 백마부대원들은 아군 항공기로 알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폭격기들은 대화도 상공에 이르자 부대본부는 물론 해안의 군사방어 시설물에 대한 폭격을 가했다. 이날 그들의 공습으로 유격대원 76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부상을 입었다.<sup>445)</sup> 1951년 11월 6일 북한군 TU-2 경폭격기가 대화도(XD3866)를 공격하였다.<sup>446)</sup> 1953년 7월 휴전조인식 날, 북한의 야크 전투기가 밤 9시경 백령도 상공에 나타나 진촌리 민가를 폭격했을 때, 동키 제13부대장 김장성의 자녀 김찬옥 등 3명이 사망하였다.<sup>447)</sup>

적은 유격대기지를 점령하고자 했다. 특히 휴전협상에서 연안의 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부터, 공산군측은 연안도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1951년 11월 27일, 28일 적은 동해의 원산 앞 황토도 공격을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서해안이었다.<sup>448)</sup>

이미 1951년 11월초 대동강 어귀에 있는 제도가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탈당했고, 이어서 신도가 무너졌다. 북한군이 피도, 청양도, 옹진반도의 용호도, 창린도, 순위도 등을 차례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격대원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1951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군 제23여단의 산하부대에서 약 600명의 병력이 대동강 하구의 석도 근처 2개의 섬을 탈취했다. 이로써 남측의 유격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용호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새벽부터 포성과 함께 북한군이 공격을 해왔다. 북한군이 이곳을 침입할 것이라는 정보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1951년 말 북한군의 공세로 10여 일간 주야로 긴장과 초조 속에 시달린 데다가, 마침 12월 31일 대원들이 망년회로 느슨한 가운데 기습을 당했다.<sup>449)</sup> 유격대원 20여 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납치되었다. 나머지 대원들은

445) 백마부대,

446) GQ UNC/FEC, "Command Report" Nov.1951, 2/407, p. 26.

447) 송효식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2.8; 이원복 증언, 2003.11.8; 강기천, 앞의 책, 124-125면.

448)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S Naval Operations: Korea, Hawaii*: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1, pp. 423-424.

449) 이영재, 『교훈담: 경계』, 1965.6.15; 권승훈, 『용호도 철수 상황』, 1987.

어화도로 피난을 갔으나, 2일 북한군의 계속된 포사격으로 결국 창린도로 철수했다. 이어서 1월 9일 창린도 마저 습격을 당해, 웅진유격대는 약 40여 명의 전사자와 30여 명의 피납 등의 피해를 입고 보리섬과 기린도로 철수했다.<sup>450)</sup> 1952년 1월 4일 한국 해군 801함이 출동하여 어화도 피난민 2,500명과 순위도 피난민 840명을 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과 교전 중 해군 삼조 홍대선이 전사했다.<sup>451)</sup>

1952년 2월 4일 동키 제4부대의 전초기지인 육도가 북한군에 포섭되면서 대원 26명이 포로가 되었다. 3월 북한군 제23여단 병력 일부가 용매도 유격기지를 탈환하기 위해 수 차례나 공격하였고,<sup>452)</sup> 6월 11일 북한군 90명이 직사포의 지원을 받아 용매도를 공격하여, 유격대원 1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유격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부상을 당했다.<sup>453)</sup>

울퉁 작전부대들은 적 지역 해안의 작은 섬에 근거지를 두고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썰물 때는 적군이 걸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습격을 받을 위험성이 훨씬 더 많았다. 울퉁 제6부대는 무도라는 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섬은 내륙에서 300여 미터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었다. 1952년에서 1953년 사이 북한군이 울퉁지역의 섬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이 빈번했다.<sup>454)</sup> 이에 대해 유엔군 해군의 강력한 함포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유격대원들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중공군도 서해연안 도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의 측후방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판문점 협상에서 ‘도서지역 부대 철수문제’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1951년 11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중공군 제50군은 팽덕회 사령관이 지시한 “가까운데부터 멀리, 섬에서 적을 몰아내는 작전” 방침에 의거하여 4차례의 공

450) 이영재 일기, 1952.1.1-12; 이종암, 『一生日誌』 1952.1.1; 조남혁 일기, 1952.1.12; 강석인, 『웅진학도유격대 투쟁사 증언』 1986.8.25, 육본 군사연구실; 『북측 반유격전과 방첩작전』, 『경향신문』 2000.7.19; Josephs Bermudez, Jr.(육본 군사연구실역), 『북괴군 특수부대』, 1989, 226-227면; 『북위40도선』, 264-267면; 『학도유격부대전사』, 241-28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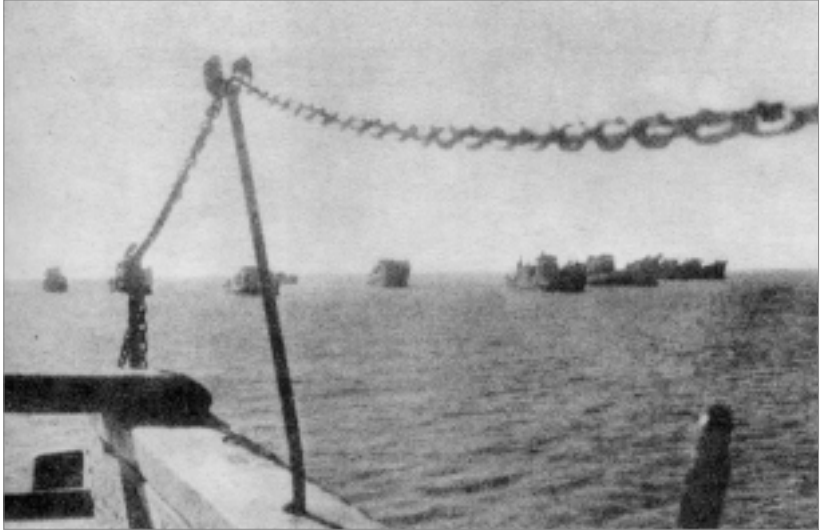
451) 국방부 상전과, 『제801함장 중령 윤영원(尹英遠; 군번 80054) 공적서(무성 2등무공훈장) 1, 군편 사료 304.

452) Josephs Bermudez, Jr.(육본 군사연구실역), 『북괴군 특수부대』, 1989, 227면.

453) CCRAK Guerrilla, “Summary No. 31” June 1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454) 『백호부대 유격전사』, 296면.

격을 단행했다. 단도, 애도, 탄도, 대·소화도, 대·소가차도, 우리도, 운무도 등 10여 개 섬을 공격해 유격부대 570여 명을 섬멸했다고 주장했다. 단도를 공격할



대화도와 소화도로  
향하는 중국 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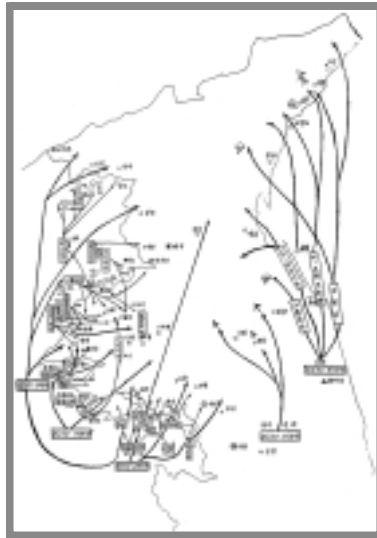
때, 중국 공군이 직접 지원을 하여 선박들의 집결과 귀항을 엄호했다. 단도 점령 후 폭격기 9대가 출격하여 대·소화도를 폭격했다.<sup>455)</sup>

유격대 근거지에 대한 이러한 잦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유격대 주둔 도서지역을 공격하여 유격대에게 타격을 입히고 육지로 돌아가는 작전을 펼쳤다. 왜냐하면 당시 아군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유격대의 반격작전으로 그들이 점령한 섬을 유지하려면 많은 희생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sup>456)</sup>

455)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196-197면.

456) 이형우, 앞의 책, 322면.

제 5 장  
제8240유격부대의 활동과 해체



부대별 작전활동지역

# 제 5 장

## 제8240유격부대의 활동과 해체

### 제 1 절 동키부대

#### 1. 동키 제1부대(신천부대)

##### 가. 창설배경과 편성

서해안에서 미군이 통제하던 유격부대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설된 동키 제1부대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진함에 따라 구월산 일대에서 반공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중 1950년 10월 13일 신천반공의거의 주역들인 청년과 학생들이 규합하여 조직한 유격대이다.

전쟁 전부터 황해도 신천군에서는 대한광복회·반적대(反赤隊)·반공구국동지회·구국기독동맹 등이 조직되어 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남침 이후 북한당국의 감시를 받던 전 민주당원·반공적인 학생들이 북한군의 징병을 피해 구월산으로 도피하였다가, 1950년 7월 중순<sup>1)</sup> 반공단체의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1) 전쟁 직전인 6월 7일 반공구월산유격대를 조직했다는 기록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 제8240부대약사』 1975. 9). 그러나 김장성은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징집 혹은 탄광이나 노무자로 징발되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즉 어떠한 단체를 조직할 기회는 갖지 못하고 유엔군이 진격할 때까지 징집을

‘구월산반공유격대’를<sup>2)</sup> 결성하였다. 입산하지 않는 학생들도 각 면, 읍내 학교와 단체를 포섭하였다. 이들은 유엔군의 참전사실을 알고 남한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서로 연락체제를 갖추고 지하 조직을 강화하여 전단살포·총기 탈취·경비 초소 습격 등을 해 나갔다. 특히, 1950년 10월 9일 사리원에서 해주 방면으로 가는 무기수송 트럭이 재령을 통과하게 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정자환·호순검 등이 북한군 복장으로 가장하고 재령무장대와 함께 북한군 트럭을 급습하여 소련제 장총 100여 정을 노획하였다.<sup>3)</sup>

유엔군이 해주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12일 대원들은 무장봉기를 위해 총지휘관 신상규, 구월산유격대 김욱, 북부대 홍태환 등을 조직별 책임자로 결정하고 13일 신천과 재령에서 동시에 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2일 야간에 대원을 배치한 후 10월 13일 오전 9시,<sup>4)</sup> 내무서를 공격했으나 공산군의 저항이 강해서 이튿날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14일 정오 무렵 내무서를 점령했다. 맥주 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내무서에 투척하여 전소시켰다. 내무서원들이 도망가자,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반공청년 80명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틀 동안 적들에 의해 살해된 수많은 시체를 발견했다.<sup>5)</sup> 반공무장대원들은 이에 흥분하여, 마을에서 공산주의자를 찾아내 사살했다.

민가에 대한 가택수색과 거리검문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연행당했던 신천 시가지에서 남산에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면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무장한 의거대원이 3개 대로 나누어 시가지로 돌격해 왔다. 의거대는 검찰청·내무서·인민위원회·정치보위부 등을 점령한 다음 문화극장의 유선방송을

피해 살아남는 것뿐이었다(“The Narrative of Mr. Kim Chang Song, Leader of Donkey 13”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이하, 『김장성 동키 제13부대장 증언』 1952. 11. 3으로 줄임).

2) 구국동지회 내에 유격대를 편성했다(조동환, 『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89-97면).

3) 『구월산』, 1955, 3-4면; 조동환, 『항공의 불꽃』, 262면;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256-257면. 김장성은 무기획득 시일을 10일이고 무기의 수도 108정도로 기억했다(『김장성 동키 제13부대장 증언』 1952. 11. 3). 214정도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

4) 14일 오전 5시 봉기군이 시가지로 공격을 개시했다는 기록도 있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413면).

5) 신천여고, 정치보위부 지하실, 군당방공호 등에서 발굴된 시체는 1,000여 구가 넘었다(조동환, 앞의 책, 369-371면).

통해 의거대가 시가지로 진입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각 면에서도 동시에 봉기하여 내무서 분주소와 면 인민위원회를 점령했다.

이에 맞서 공산당 군당본부로 집결한 내무서원과 공산당원들이 의거대를 공격해 왔고 해주로부터 22대의 트럭을 타고 반격해 왔다. 마침 이 때 아군 전투기 4대가 적측에 기총사격을 가해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의거대는 일제히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10월 17일 적을 물리치고 18일에 입성한 유엔군에게 기간 중 활동사항을 보고하였다.<sup>6)</sup>

의거대를 경찰대(대장 김장성)로 조직하여 치안유지를 하였으나,<sup>7)</sup>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산천 무장치안대는 향토 사수를 다짐하고 구월산에 잠복해 있다가 하산하는 북한군 공비와 항전을 벌이는 한편, 재령 방면에서 공격해 온 북한군과 맞서 신천읍을 세 차례나 빼앗기고 빼앗았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였으나, 신천 무장치안대는 향토사수를 결의하고 잔류했다. 하지만 구월산으로 숨었던 북한군 패잔병들이 신천읍을 거듭 공격하여, 무장대원들이 이를 방어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자 1950년 12월 6일<sup>8)</sup> 신천무장대 본대는 섬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신천군 북부면, 노원면, 산천면, 용문면, 용진면, 두라면 등 면 단위 무장치안대는 철수를 거부하고 구월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각 면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무장대를 하나의 조직체로 결속시키기 위해 구월산을 중심으로 한 구월산전투사령부(사령관 이춘근)와 신천군 남부지역에 있는 두라산(斗羅山)을 근거로 한 두라전투사령부를 각각 창설하였다. 구월산전투사령부는 무장대원 800명과 비무장대원 400여 명이 있었고, 두라전투사령부는 무장병력이 400명에 비무장 대원 300명으로 이루어졌다.

전투사령부는 산악지대에 구축한 공작아지트를 근거지로 하여 정보수집, 애국

6) 『한국전쟁과 유격전』, 155-157면; 『김장성 동키 제13부대장 증언』, 1952. 11. 3. 김장성은 유엔군이 19일 입성했다고 진술했다.

7) 김장성, 『신천 10·13의거』, 『파라슈트』 13, 1953. 12. 25, 58면.

8)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1, Chang Jae Hwa” Nov. 4,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이하, 『장재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로 줄임).



반공인사 구출, 교란작전을 수행하였다. 구월산전투사령부의 주요 전과로는 1950년 12월 18일, 김장성이 북부면에서 무장대원을 지휘하여 좌익 빨치산 17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한 전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천읍을 빼앗기고 무장대원도 7명이 전사했다. 이듬해 북한군 창설 기념일인 2월 8일 북부면에서 북한군을 초대하여 개최한 위안회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두라전투사령부에서는 1951년 1월 18일 특공대원 25명이 신천읍을 기습공격하여 내무서원 16명을 생포하였으나, 24일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후 북한군의 토벌이 강화되자 대원들은 대부분 인근 섬으로 철수했으나, 잔류한 김호영 등 12명은 1951년 말까지 구월산으로 산발적인 유격전을 전개했다.<sup>9)</sup>

한편 신천 무장치안대원들은 다시 백령도로 이동하여 이 곳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의용대를 조직하였고, 일부는 해군 정보대에서 활동했다. 1951년 2월 백령도에 미 극동사령부 소속 정보장교 버크 소령이 한국인 유격대 조직에 착수하면서, 그 동안 백령도지구 해병대의 의용대로 백령도 방위를 담당했던 신천 무장치안대와 제일 먼저 연결되었다.<sup>10)</sup> 그러나 김장성 대장은 1951년 2월 23일 300명으로 서해지구 해군의용대를 창설하고, 서해지구 전투사령관 해군 중령 강기천 휘하에 ‘진달래유격대’로 편성하여 도서방위·선박입출항 검열·첩보수집 등을 하였다.<sup>11)</sup>

1951년 2월 15일 신천 10.13의거 당시 주동 역할을 한 장재화가 대원 37명으로 제1부대를 창설했다.<sup>12)</sup> 3월 3일 장재화·홍태환·박주경 등 38명이 구월산과 두라산으로 침투하여 신천내무서·군당·안악내무서·삼천 모나자이트광산 등을 기습하다가, 공산군의 토벌로 2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7월 23일 장재화 등 8명이<sup>13)</sup> 귀환했다. 귀환한 대원과 해군의용대, 현지에서 모집한 대원 150명으로

9) 구체적인 활동은 『항공의 불꽃』에 자세하다.

10) 김용서, 『당나귀의 유래』, 『당나귀』 6, 1953. 4, 65-66면.

11) 『왕찬균 진정서』 1993. 12, 육본 부관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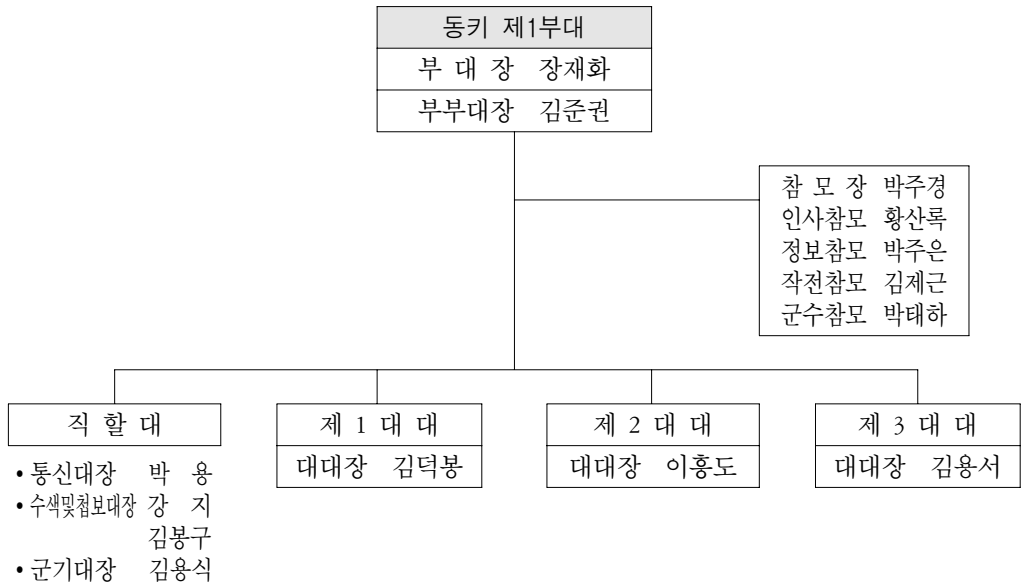
12) 소령 토마스 A. 다이, 『훈장추천: 장재화』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첩』,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장재화 동기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김장성은 2월 5일로 기억했고(김장성, 『신천 10·13의거』, 『파라슈트』 13, 1953. 12. 25, 59면), 1월 25일 혹은 2월 25일, 3월 7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신천군지』, 1984, 156면; 『한국전쟁과 유격전』, 158면).

부대를 재편했다.<sup>14)</sup> 부대본부는 용호도에 두었다가, 1952년 1월초 용호도를 빼앗긴 후 기지를 기린도로 옮겼다.

1952년 11월 부대편제는 1~3대대 외에 수색대대가 편성되어 수색중대와 특공중대를 두었다. 수색 및 첩보대장으로 김봉구는 마합도를 중심으로 웅진 반도 연안일대를 담당하고, 강지는 장거리 수색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sup>15)</sup> 각 대대 아래 1, 2중대가 있었고, 중대 아래 1, 2소대가 있었다. 군기대 대신에 감찰부가 있었고 산하에 수사·방첩·선박 담당이 있었다. 또한 참모장 직속으로 통신대와 마합도 독립대를 운용했다. 마합도 독립대는 첩보대 45명, 제1~3공작대 각 30명씩으로 편성되었다.

부대본부에서 내륙기지를 구축하려 했다. 1952년 하반기 작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공작대(SOG)를 창설했다. 유격활동과 첩보활동 경험이 풍부한 대

#### <지휘관 및 참모>



13) 5명이 귀환했다는 진술도 있다.

14) 『김장성 동키 제13부대장 증언』 1952. 11. 3; 김장성, 『신천 10.13의거』, 『파라슈트』 13, 1953. 12. 25, 57-59면; 조동환, 앞의 책, 565면.

15) 박승길 증언, 2003. 12. 13.

원으로 대장 아래, 무선팀 6명 유격팀 10명, 첩보팀 8명 등으로 구성하고 첩보팀에는 군사첩보 외에도 지하세포를 구축하려고 했다. 공작대는 철도·교량·수송수단 등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수송체계 방해·보급기지와 행정기관 파괴 등을 주 임무로 했다. 구월산과 신천군 남부 지역에 있는 두라면(斗羅面) 일대의 산악지대에 구축한 공작아지트를 근거지로 하였다. 첩보망으로 팔봉산과 달마산 사이, 홍여울, 송조리 봉화탑 등에 기지를 건설했다.<sup>16)</sup>

창설 대원의 규모는 800여 명이었다고 하나,<sup>17)</sup> 1952년 하반기에는 250명 정도였다.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10월 전과에 따라 400명까지 대원을 늘리도록 승낙을 받아, 11월 대원의 규모가 425명으로 증가했다.<sup>18)</sup> 대원들 가운데 웅진출신이 절반 정도였다.<sup>19)</sup>



신천 10·13 반공의거 기념 쫓기대회(대청도, 1953.10)

16) Donkey 1 Unit, "Plan of Intelligence Operation" 1952 (날짜 없음), 군편 SN 1963.

17) 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18)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28; "Records of Discussion" Nov. 2, SN 1400-1; "Table of Organization Donkey 1" Nov. 1952, 군편, SN 1963. 그런데 전후에 대원의 규모가 800명, 1,200명 혹은 1,800명이라는 기술도 있다(『8250제1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156면).

19) 이들은 부대나 전우회가 신천출신 중심으로 운용됨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박승길 증언, 2003. 12. 13).

휴전협정 조인이 가까워지자,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유격대를 후방지역 도서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원들은 대청도로 철수하여 내동에서 임시 충혼탑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이후 제8250부대 제1연대로 재편되었다가 육군으로 편입되었다.

## 나. 주요 작전활동

동키 제1부대는 기지사령부가 있는 백령도 방어임무를 담당하면서 수 많은<sup>20)</sup> 침투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원들은 같은 고향출신으로 단결이 잘 되어 전투력이 강했다. 작전 지역이 웅진반도였기 때문에 웅진출신 대원들의 역할이 컸다.

먼저 첩보활동을 살펴보면, 용호도에 파견된 첩보대에서는 재령·안악·신천·황주 등지에 첩보원을 파견하여 정보를 입수했다. 평양에 파견된 홍태환은 북한군 소좌 1명에게 통신자료를 입수하여 귀순토록 설득시켜 함께 귀대했다. 그들은 북한군의 통신체계와 레이더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1952년 9월 3일 공작원 1명과 유격대원 2명이 공습 결과를 확인하려고 창린도 봉곶도(XB 856935), 웅진군 서면 읍저리 남문외(XB894934)로 상륙하였다. 이 때 공작원은 상륙 지점에서 발각되어 북한군의 수류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귀환하였다.<sup>21)</sup> 9월 16일 대원 25명이 공작원을 구하기 위해 어둠을 이용하여 태탄 선대리(XC825166)에 상륙하였으나, 북한군의 매복에 걸려 교전 끝에 철수하면서 대원 2명이 실종되었다.<sup>22)</sup>

전투활동의 성과는 부대본부에서 기지사령부에게 보낸 보고서가 남아 있는 1952년 5월 전후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부대 편성 후 파괴와 통신훈련을 마치고, 1951년 3월 3일 대원 37명이 신천·황주·사리원 주변의 적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무전기를 가지고 구월산과 두라산으로 침투했다. 첫 작전이어서 무전기를 절벽이나 산비탈에서 수 차례나 떨어뜨려 고장이 났기 때문

20) 장재화 부대장의 공적서에는 수십 회의 상륙작전이라고 언급되어 있다(소령 토마스 A. 다이, 『훈장추천: 장재화』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절』,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2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10" Sep. 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이하, 출처 생략).

2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2" Sep. 18, 1952.

에 기지사령부와 접촉없이 게릴라활동을 했다. 신천 내무서·군당·안악 내무서·모나자이트 광산 등을 공격, 그곳 산악 지대에서 전 치안대원과 현지 반공 청년들을 규합했다. 이 병력으로 천봉산에서 약 4km 거리의 남부면 부정리의 내무지서를 공격했다. 이 작전에서 내무서원 7명과 인민위원회 군 대표·선전원·행정요원 20명 등 모두 27명을 사살했다. 4월 3일 신천역에 버스가 있다는 정보를 부대장 친구 김창근으로부터 입수하여 버스 3대를 폭약으로 파괴했다.

1951년 4월 18일 문홍주·차현무 등 37명과 현지에서 입대한 대원 등 60명은 현물세 보관창고 4곳을 습격했다. 당시 창고에는 1,700~1,800명도 함께 억류되어 있었다. 이들은 유엔군이 점령할 당시 경찰서나 치안대에 근무했거나 그 가족들이었고, 유격대원들의 가족들도 있었다. 창고를 공격하자 약 400명이 탈출했으나, 중공군 토벌대가 도착하여 반격할 때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피살되었다고 한다. 이 전투과정에서 대원도 50명이 희생되었다.<sup>23)</sup>

5월 11일 야간 신천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삼천 온천에 있는 모나자이트를 채굴하는 광산 노동자 숙소를 공격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채굴작업에 동원된 약 800명의 주민을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신천 북쪽 4km 지점에 있는 우령산을 공격해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곡식 800가마를 화염병으로 불태웠다.<sup>24)</sup>

7월 하순 황해도 장연군 용천반도에 북한군 2개 중대병력이 진주하여 도서로 탈주하는 피난민들을 저지하는 한편, 도서에 있는 반공 무장대의 침투를 봉쇄하기 위해 해안 경비에 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 본부는 이들을 기습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백령도 주변 해상에 상주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에 함포지원을 요청하고 28일 야음을 이용하여 김제근 작전참모가 지휘하는 대원 200여 명은 용천반도 금두동 해안으로 상륙하여 계획대로 적의 숙영지를 포위했다. 새벽 4시 공격을 개시하여 북한군 28명을 사살하고 소좌 김윤문 외 16명을 생포했으나, 김호영·김운연 등 대원 9명도 전사했다.<sup>25)</sup>

23) 『장재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Col., Rod Paschall, "A Study in Command and Control Special Operations in Korea, 1951-195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1988, pp. 7-8.

24) 『장재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25) 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 제8240부대 약사』, 1975. 9.

1951년 9월 21일 강지 외 8명의 특공조는 북한군이 웅진군 동남면 사곶(沙串) 우측 고지에 구축한 병커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 이 진지때문에 유격대가 내륙으로 침투하거나 이 지역 피난민들이 식량이나 의류 등을 반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공조는 TNT를 휴대하고 이날 밤 자정에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사곶으로 침투했다. 경비병 10명을 사살하고, 병커에 TNT를 설치하여 폭파시킨 다음 신속히 철수했다.<sup>26)</sup> 10월 27일 해주에서 웅진 인민병원으로 의약품을 수송중인 4대의 우마차를 해주와 웅진 사이의 강령에서 공격했다. 그 결과 의약품과 함께 1명의 외과 의사와 보조원 1명을 생포했다. 이와 같이 용호도를 근거지로 해서 1951년 12월말까지 많은<sup>27)</sup>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을 사살했다.<sup>28)</sup>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용호도에서 철수했다.

1952년 새해를 맞이한 첫날 제1부대는 용호도를 침공한 적과 접전을 벌여 약 2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했으나 용호도를 빼앗김으로써 제11부대와 함께 섬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다.<sup>29)</sup> 1951년 12월 27일 유격대를 공격하기 위해 고무 보트를 비롯해 선박 27척이 용호도에서 2km 떨어진 내륙 해안에 집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첩보를 백령도 기지사령부로 보내자, 유격대에게 용호도 철수를 지시했다. 이 때 1부대와 이곳의 많은 반공 주민들을 철수시켰다. 그런데 1952년 1월 1일 06시경 북한군이 용호도로 상륙했다. 유엔 전투기 8대의 지원아래 15시 30분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32명이 전사하고 40명이 중상을 당했다. 순위도·어화도·창린도도 적에게 함락되면서 기린도로 이동해야 했다.<sup>30)</sup>

미군 보고서가 남아 있는 1952년 작전활동을 소규모 작전과 대규모 작전을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소규모 작전은 10명 내외의 대원들이 공산주의자의 집회를 공격하거나, 전선줄 절단, 현물세 창고 공격 등을 수행했다. 1952년 7월 5일

26) 전우회, 『동키 제1연대』, 2002. 8.

27) 부대장 장재화는 900명 이상으로 진술했으나, 그 기간에 그가 언급한 주요 작전활동을 비추어 보면 그러한 규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28) 『장재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29) 김제근 증언, 2003. 11. 16.

30) 『장재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대원 15명이 태탄 서쪽 15km 떨어진 포두동(XC855175)에서 약 30명의 북한군 순찰병을 기습하여 16명을 사살한 전과를 올렸다.<sup>31)</sup> 10월 9일 04시 대원 5명이 강령 북쪽 10km 광산(YC150056)에 있는 양곡창고를 공격하여 양곡 3,000석을 불태웠다. 13일 대원 10명이 적 후방 지역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선천 남쪽 6km 송계동(YC175402)과 신천 남동쪽 사건리(YC207419) 사이에 있는 전봇대 10개와 전선 약 1,100미터를 절단했다.<sup>32)</sup> 21일 적지로 상륙한 대원 2명이 기지로 귀환하면서 삼천 남쪽 9km 지점인 애천리(YC039385)에서 전화선을 연결하는 북한군 제239부대 통신대원을 발견하여, 그 날 밤 운전병 2명을 사살하고 트럭 2대를 불살랐으며 전선 274미터를 절단했다.<sup>33)</sup>

30명 이상의 중대 단위 작전으로는 1952년 9월 5일 대원 50명이 웅진군 하가촌(XB853965)에 있는 북한군 1개 중대를 포위 공격하여 4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외에 북한군 신분증·민청깃발 등을 노획했다. 9월 21일 대원 30명이 교정면 당골(XC906041)에 있는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공격하여, 공산주의자 9명을 사살하고 소 2마리와 쌀 등을 노획했다.<sup>34)</sup> 10월 3일 대원 40명이 웅진군 운산동 지역(XB806988)을 습격, 북한군 18명과 공산주의자 9명을 사살하고 쌀 363kg과 문서를 노획했으며 리 선전실을 파괴했다.<sup>35)</sup> 1953년 7월 20일 웅진군 서면 읍거리 부근 포구에 중선 몇 척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작전참모 김제근이 대원 60명을 데리고 2척의 소형 선박으로 선박폭파대원을 침투시켜 5척을 완파하고 2척을 반파하여 1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36)</sup>

대원이 100명 이상이 참가한 작전에는 미군 고문이 함께 출동한 경우가 많았다. 1952년 8월 14일 01시,<sup>37)</sup> 웅진군 용천면 용문리 전투는 그 지역으로 잠입하여 활동 중이던 수색대원이 용문리에 북한군 40여 명이 주둔해 있고, 그 후방 4

31)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7" July 23, 1952.

32)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6-167" Nov. 1-2, 1952;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33)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8" Nov. 3, 1952.

3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84, 113, 127" Aug. 10, Sep. 9, 23,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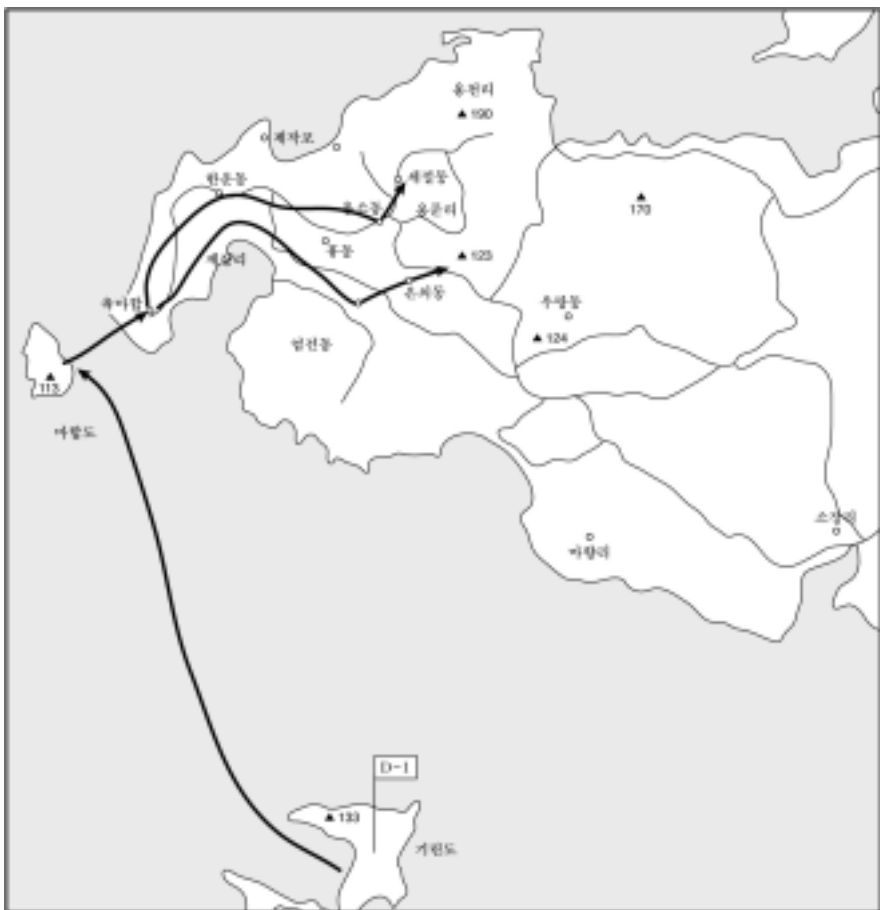
35)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40" Oct. 6, 1952.

36) 전우회, 『동키 제1연대』, 2002. 8.

37) 김병현(당시 중대장)은 6월 20일로 기억했지만 작전경과가 유사한 미군 보고서를 따랐다.

km 가제봉에 이들의 주력이 있다는 첩보를 제공했다. 부대 본부에서는 용문리에 있는 적을 타격하기 위해, 왓슨 중위(Watson)가 지휘하는 대원 120명이 유엔군 함포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육마합(XC744009)으로 상륙했다. 이곳에서 이미 침투한 수색대원의 유도를 받아, 제1중대는 한운동·거리동·용소동을 거쳐 세절동으로, 제2중대는 염전동(XB783999)·은의동을 거쳐 123고지 일대로, 제3중대와 특공대는 용소동으로 각각 이동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대원들은 용문리를 삼면으로 포위하고 적이 가설해 놓은 비상전화선을 모두 절단하고 공격을 개시했다. 증원군이 오자 서둘러 그들의 추격을 물리치면서 육마합으로 철수했다. 용천면 운산동·용소동(XB797984, XC794012) 등 마을 6곳을 불태우고 철

<요도 5-1> 용천면 용문리 작전경로





수했다. 이 때 병기관 박승길이 추격해 오는 적에게 75mm 무반동총으로 반격하여 그들을 저지시켰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36명을 사살하고 소총·다발총·기관총 등을 노획했다. 유격대원은 미 고문관 1명을 포함해 참모장 박주경, 수색대장 강지 등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 전투마다 참전하여 많은 성과를 냈던 강지는 제1부대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sup>38)</sup>

1952년 9월 20일 대원 115명이 과일 남쪽 약 8km 떨어진 사기리(XC695514)로 접근하여 교전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반격이 강해서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28명·내무서원 3명·공산주의자 7명 등을 사살하고 소총 8정과 탄약 800발 등을 노획했다. 다리 2곳과 우마차 7대를 파괴했으나,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sup>39)</sup> 27일 새벽 6시 믹스(Donald Meeks) 상사가 지휘하는 대원 150명이 마합도 동북쪽 세절동(XC795020)을 공격하여 용암리·우랑동 등지(XC813035, 835998, 821035, 784009)에 있는 북한군 230명을 발견, 3시간 동안 접전했다. 그 결과 북한군 11명을 생포하고 78명을 사살하였으며, 노동당원 62명을 사살하였다. 양곡 185포대를 전소시키고 수류탄 50발·북한군 신분증 15매·선전책자 21권·북한군 피복 9착 등을 노획했다.<sup>40)</sup>

1952년 10월 29일 새벽 3시 대원 200명이 용진군 용천면 제작포(XC770028)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발했다. 미군 고문 믹스 상사가 150명을 지휘하고, 세이버르트(Seibert) 대위가 나머지 50명을 지휘하여 병몰, 용천면 휴동(XC784009)에 있는 적을 공격했다. 상륙지점인 휴동(XC738997)에 심한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지나쳐 북한군 초병에게 발각되어 전투가 벌어졌다. 총격전은 06시에 시작되었다. 유엔 해군함(HMS Ocean·Iroquois)에서 공중 지원을 했다. 아군 함정 1척이 지원사격을 위해 대기 중에 있었고, 5~6기의 아군 항공기도 공

38) 전우회, 『동키 제1연대』, 2002. 8; CCRACK Guerrilla, "Summary No. 88", Aug. 1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CCRACK Guerrilla, "Summary No. 89" Aug. 16, 1952, 같은 문서. 미 고문이나 참모장 박주경, 수색대장 강지 등이 전사했다는 기록은 미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지가 1952년 12월 31일 용호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술도 있지만(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 제8240부대약사』 1975. 9), 박승길의 증언에 따랐다.

39)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28" Sep. 24, 1952.

40) HQ, FECLD(K), 8240th AU, "Report of Guerrilla Operations" 22-30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1963; "Donkey 1 → Donkey: Report Concerning Result of Operation" Sep. 28, 1952, 같은 문서.

중지원을 위해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항공기와 교신할 수 없었다. 이 때 북한군은 부근(XC785009)에 170명이 있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과 중공군 총 350명이 추가로 증원되었다. 이에 대원들은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면서 모섬도로 후퇴했다. 이 작전에서 북한군 134명과 중공군 67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10명이 전사했으며 5명이 중상을 입었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와 별도로 공군작전으로 북한군 50명과 중공군 21명이 사망했다.<sup>41)</sup> 이 전투에서 믹스 상사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항상 최전선에서 대원들과 함께 행동했다. 그를 포함한 10명으로 특공대를 편성해 적진 깊숙이 공격을 했다. 그는 여름 한 전투에서도 자살특공대를 지휘했다. 한국인 대원들은 그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안전보다도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최전선에서 작전지휘를 했다고 기억했다.<sup>42)</sup>

휴전을 앞두고 있던 1953년 7월 초, 1개 대대병력이 상주하고 있던 기린도(麒麟島)에 대한 적의 대대적인 침공작전이 감행되었다. 적은 상륙에 앞서 각종 화력으로 기린도를 강타하고 상륙했으나 이러한 적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던 대대는 미 해군 함정에 함포사격을 요청하고 당시 기린도에 나와 있던 김준권 부부대장의 지휘 아래 150명의 대원이 항전을 계속한 끝에 적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군 소위 1명 외 20명을 생포하고 식량 100가마를 노획했으나, 오창휘·김유형 등 8명이 전사했다.

중공군을 공격한 작전도 있었다. 1952년 6월 21일,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원들(elements)이 신천 남쪽 약 21km 지점인 부정리(YC172440)에서 중공군 2명을 사살했고, 쌀 150가마를 파괴했다. 7월 2일 태탄 북쪽 약 15km 거리인 상산동(YC077318)에서 중공군 1개 소대를 공격하여 13명을 사살하고 8명을 부상시켰으며 군복 5벌·M-2 카빈 등을 노획했으나, 중공군의 추격으로 철수했다.<sup>43)</sup>

41) “Donkey 1 → Donkey: Report Concerning Result of Operation” Nov. 1, 1952, 군편 SN 1963;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같은 문서.

42) 박승길 증언, 2003. 12. 13.; “D-1 to Donkey” Nov. 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장제화 동키 제1부대장 증언』 1952. 11. 4.;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8” Nov. 3, 1952, 군편 SN 146; “Donkey to Donkey: Report Concerning Result of Operation” Nov. 1, 1952, 군편, SN 1963;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Nov. 1-7, 1952, 같은 문서.

---

43) CCRAK Guerrilla, "Summary No. 44, 65" June 28, July 20, 1952.

## 2. 동키 제2부대(구월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2부대<sup>44)</sup>는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殷栗郡 長連面)과 이도면(二道面) 등의 반공 청장년들로 조직된 부대로서 처음에는 연풍부대(連豐部隊)라고 부르다가 구월부대(九月部隊)로 개칭되었다.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장련에 입성하는 날, 북한군 강제 징집을 피해 숨어 있거나 저항하던 각 지역 유지와 청년들이 치안위원회와 무장대를 구성하여 치안 유지와 빨치산을 토벌했다. 치안위원회에서 박종택·백기택·이도일 등이 활동했고, 이진호를<sup>45)</sup> 중심으로 이태영·홍현택 등이 무장대를 편성하여 활약했다. 10월 16일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에게 반공인사 60여 명이 신흥리 냇가로 끌려가 총살을 당하자 이를 목격한 청년들이 약간의 소총·장대·각목 등으로 싸웠다. 이미 1950년 11월 1일 장련을 습격한 구월산 좌익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이정선·최성국 등이 전사했다.<sup>46)</sup> 내습하는 적과 교전을 벌여 전과를 올리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소련제 소총과 기관총, 따발총, 막심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을 하였고 무장대원의 수도 점점 늘어났다. 구월산 주변의 주민들은 북한군과 빨치산의 습격을 피해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장련으로 모여들었다.

마침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첩보장교 대위 김종벽이 복진중 육본 업무연락차 후방으로 왔다가 다시 부대에 복귀하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부대의 위치를 잃고 은율군 장련면 고향에 왔을 때,<sup>47)</sup> 당시 장련면·일도면·이도면 등지에서 활

44) 이 부대사를 정리하는 데에는 『구월산』(1955),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후』(1967), 『구월산유격부대전사』(2002) 등을 주로 참고하였으나, 전투일자과 전과 등은 구월부대가 사실상 해체된 다음 2개월 후인 1951년 10월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정리한 『구월부대 연혁』(백기택 외,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을 따랐다.

45) 조동환, 앞의 책, 567면. 그는 1951년 3월 22일, 월사리 반도에서 전사했다(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46) 북한측 기록에도 1950년 11월 초순부터 아군측 토벌대에 의해 구월산좌익빨치산 토벌작전이 실시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으나, 12월 이전까지 자신들의 투쟁활동을 위주로 정리했다(『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110-116면).

동하고 있는 무장대들이 그에게 유격대를 창설하여 투쟁할 것을 요청하여 1950년 12월 7일, 연풍부대를 창설했다. 당시 간부진은 부대장 김종벽,<sup>48)</sup> 인사참모 이진호, 정보참모 이명철, 작전참모 신준균, 후방참모 신문숙, 정훈부장 김구영, 감찰부장 박태희 등이었다. 대원의 규모는 150명 정도로, 소총 46정, 경기관총 2정, 수류탄 약간을 보유했다. 이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진남포를 철수한 후에도, 구월산 일대에서 북한군 잔류병 및 빨치산들과 대항하여 싸웠다.

부대장은 유일한 기동력인 지프로 안악·재령·사리원·은율·석탄·풍천·송화·장연·용진 등지로 가서 무기와 실탄을 구해 오고 그 곳의 반공무장 대원들과 공동 방위와 상호 협력을 논의한 후 돌아왔다. 연풍부대는 신규 대원에 대한 훈련을 병행하면서 북한군이 버리고 간 말 11필을 확보하여 기마소대를 창설하여 기동대와 통신대의 역할을 담당했다. 안악군 대행면 출신 신중호를 중심으로 새로 편성한 유격대를 연풍유격대 제4독립중대로 편입하여 제도에 주둔시켰다. 기존의 연풍유격대를 2개 대대로 개편하여 제1대대는 장련에 주둔해 있던 무장대, 제2대대는 일도면 치안대를 중심으로 이도면과 북부면 출신으로 각각 편성했다. 1951년 1월 10일 이정숙이 안악군 서하면 무장대 40명을 인솔하여 합류했고, 19일 재령군 무장대원이 합류했다.<sup>49)</sup> 이윤숙 교관이 중심이 되어 대원들에게 사격의 명중률을 높이고 탄환의 낭비를 줄이며 효과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제식훈련·사격훈련·공격훈련을 실시했다.

1951년 1월 11일 1,000명의 빨치산(400명 무장, 600명 비무장)의 공격을 받아, 유격대는 장련읍을 포기하고 은율읍으로 후퇴했다.<sup>50)</sup> 다시 1월 20일<sup>51)</sup> 북한군의

47) 김종벽 증언, 1985. 12. 5, 육본 군사연구실. 그가 용진첩보대장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전우회에서는 “부대의 모체는 육군첩보부대”라고 주장하고 있다(구월산유격대 전우회, 『구월산 유격대원의 억울한 포로생활 진상규명 요청』 2003. 3. 24). 1951년 4월 15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부대장 김종벽에게 수여된 표창장에 “특수 임무를 띠고 단신 적진에 잔류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나, 그 출발은 자생적으로 투쟁했던 무장대원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육본에서는 김종벽 대위를 실종자로 처리했다가, 1951년 12월 26일자로 실종복귀 명령을 내렸다.

48) 부대장이 육군 대위였으므로 ‘김 대위부대’라고 칭했다(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272면).

49) 재령무장대원 200여 명은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합류를 거부한 후 용문면으로 이동하였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냈다고 한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71면).

공격으로 은울 지역을 포기하고 응도와 석도로 철수했다. 이 곳에서 1개월간 피난생활을 하면서 훈련은 계속했다. 부대 장비는 대부분 적으로부터 노획한 소련제 81mm 박격포 3문·76mm 야포 3문·막심 중기관총 6정·소련제 경기관총 26정·다발총 320정·소련제 소총 622정 등이었다. 유격대원들은 노획한 소련제 무기의 탄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격대의 활동을 알고 있는 한국 해군 함정 제303정과 제304정이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 주었다.<sup>52)</sup>

서해안의 각 도서로 철수했던 평북 지방 출신의 백마부대,<sup>53)</sup> 은울 지방 출신의 수월부대, 송화의 송호부대, 재령부대<sup>54)</sup>가 합류하면서 통상 명칭을 구월부대로 바꾸고 부대 역시 확대 개편했다. 1951년 3월 14일<sup>55)</sup> 부대장과 간부들이 백령도 레오과드 기지사령부와 접촉하여, 동키 제2부대라는 호출부호를 받았다.

구월부대는 대원을 1개 연대 300명 단위로 1연대부터 8연대까지 7개 연대로 편성하고<sup>56)</sup> 본부를 석도로 옮겼다. 개편 당시 대원의 규모는 최대 2,500명이었다.<sup>57)</sup> 제1연대는 구월부대의 주력 부대로 연풍부대의 제1~3대대가 주축이 되어 취라도·피도에 주둔했다.

제1연대는 주로 은울군 장련면·일도면·이도면 출신이 많았으나, 그 외에 이봉주·임대성 등이 송화군 출신이었고 박지형·신중선 등이 안악군, 공대성은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이었다.<sup>58)</sup>

제2연대는 제5대대(안악), 제6대대(송화), 제7대대(장련) 제9대대(재령)으로 이루어

50) 『한국 해군 제61함 보고전문』 1951.14,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51) 1951년 1월 22일 응도(은울 금산포 앞바다)로 철수했다(『구월산』, 104면).

52) “The Narrative of Mr. Lim Jong Duk, Sub-Leader, and Mr. Lee Byong Gun, Chief of Staff, Donkey 20” Nov. 3, 1952(이하, 『임종덕·이병근 증언』 1952.11.3로 줄임),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53) 3월 8일, 백마부대는 이미 구월부대로 편입되어 석도로 이동했다는 기술도 있다(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면).

54) 『북한민주통일운동사』, 570-571면.

55) 임종득과 이병근은 11일경이라고 진술했다.

56) 『임종덕·이병근 증언』 1952. 11. 3.

57) 그 규모를 3,700명이라고 한 진술도 있다(『임종덕·이병근 증언』 1952. 11. 3).

58) 민사군정감실 운영과, 『구월산부대전사자명부』 1955. 12. 12, 육본 부관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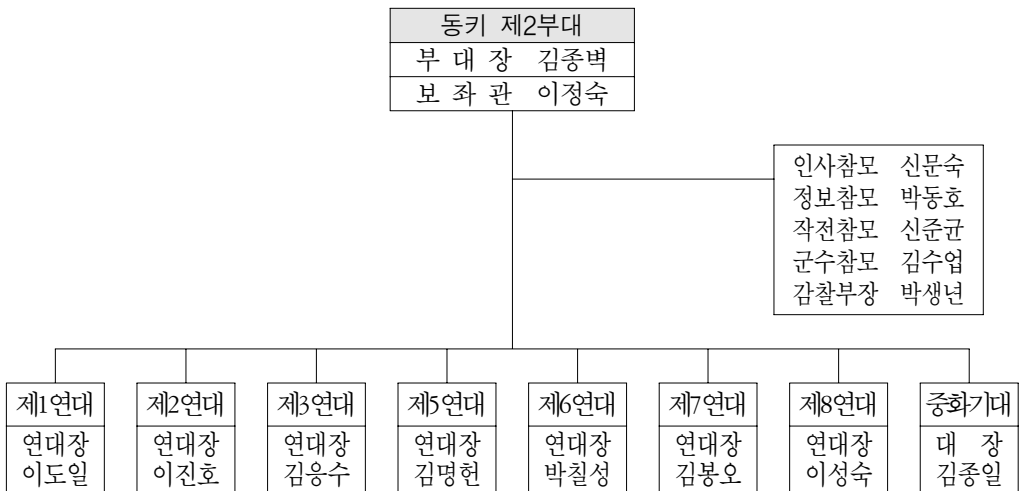
어진 부대로 석도에 주둔하였다. 제3연대는 평북 안주·박천·정주 지방 치안대원 출신으로 백마부대를 조직하여 합류했다. 백마부대의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작전은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구월부대 제3연대로 편입하여 석도에 주둔하였다.

제5연대는 송화 출신 무장대로 석도에 주둔하였다. 제2차 월사리 상륙작전에서 김명현 연대장이 실종되자 대원 가운데 일부는 남하하고, 120명이 제2연대로 배속되면서 해체되었다. 그 후 송화출신 노순하가 동키 제21부대를 창설하자, 1951년 11월 12일 제2연대 소속 송화 출신 전원이 송호부대로 이적하였다.

3월 10일 은율무장대가 구월부대의 제6연대로 편입하여 응도에 주둔하였다. 제7연대는 연풍부대가 섬으로 철수할 때 낙오한 대원과 공산당의 검문을 피해 구월산으로 숨은 신천·재령·안악·은율 청년들로 편성되었다. 1951년 4월, 초유삼근·김봉오가 석도로 들어와 구월산의 현황과 애로를 보고하면서 도움을 청해오자, 이들을 제7연대(오봉부대, 五峰部隊)로 편입하였다.

부대의 예하 연대가 여러 섬으로 나뉘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도서간의 연락은 봉화를 사용하였다. 서해를 초계 중인 한국해군 함정들은 각 도서에 유격대가

<지휘관 및 참모>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적의 박격포사격이 있을 때는 육지에 접근, 함포사격을 해 줌으로써 섬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유격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또 어느 때는 서해를 초계 중인 영국기함 캔야호로부터 페니실린 등 많은 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병상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대장은 대원들에게 소속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스티프(W. Steffe)의 전승가(戰頌歌)에 맞춰, 그가 직접 작사를 한 부대가를 보급했다.

### <부 대 가>

- |                     |                   |
|---------------------|-------------------|
| 1. 황해연봉 구월산의 정기를 받고 | 2. 무궁한 대한의 자유를 위해 |
| 서해바다 노한 파도 감도는 곳    | 용감히 싸우는 구월의 건아    |
| 그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난 우리   | 백만의 원수인들 두려울소나    |
| 이름도 무서운 구월산부대       | 승리의 정통있는 구월산부대    |

(후렴) 구월 구월 우리 구월  
 구월 구월 우리 구월  
 민족의 간성인 우리 용사들  
 그 이름 장하다 구월산부대



김종벽 부대장, 이정숙  
보좌관 등



## 나. 조난사건과 부대개편

구월부대는 부대장이 국군 대위였던 까닭에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육군본부와의 연락을 하거나 혹은 작전 수행방식을 둘러싸고 미군들과 갈등이 있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는 동키 제2부대로 하여금 1951년 4월부터 사리원 동쪽 산악 지대로 부대를 이동해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하고, 상륙작전시 대규모 작전보다는 4~5명 혹은 7~8명 단위의 소규모 전투를 요구했다. 그런데 부대장 김종벽 대위는 그 지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작전규모에 대해서도 규모있는 작전을 벌여 양곡이나 농우 등을 노획해야 대원들의 가족과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sup>59)</sup>

1951년 5월 5일 백령도 기지사령부 버크 사령관이 김종벽 대위와 이정숙·이도일 등 간부 수명을 소환하여 김종벽 부대장과 이정숙을 후방으로 이송시켰다. 김종벽 부대장은 육군 첩보대로 원대 복귀하게 되었다. 해임 이유는 내륙으로 침투하여 작전을 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명령없이 전투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주민 약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sup>60)</sup> 당시 석도에 주둔에 있던 한국군 해병대로 하여금 그를 축출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sup>61)</sup>

5월 6일 버크 사령관은 김종벽 대위가 동해로 진출갔으니, 간부 중 부대장을 선택하라고 지시했다. 제1연대장 이도일이 작전참모 신준균을 상실했으나, 버크는 이도일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도일이 이날 석도에 있는 부대 본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작전참모 보좌관 이병근이 김종벽 부대장의 행방도 모른 채 서둘러 선임하는 것보다 대리체제로 가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버크 사령관이 이도일을 책임자로 여기고 있다

59) 이형우, 앞의 책, 216-218면; 임종성 증언, 2003. 11. 4.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작전지역을 신계·곡산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고(『증언록: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김종벽 부대장이 현역장교였기 때문에 그를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정채호,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 화정문화사, 2000, 204면).

60) 김종벽 증언, 1985. 12. 5, 육본 군사연구실; 이형우, 앞의 책, 217면; 『증언록: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61) 이동호 장군 증언, 2003. 7. 7; 고우상 증언(예, 대령), 2003. 7. 8.

는 백령도 분위기를 전하자 이도일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대를 통제하지 못했다.<sup>62)</sup>

김종벽 대위가 해임된 후 부대는 축소되었다. 5월 초 평북 지방 청년들로 편성되었던 제3연대가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로 독립되어 대화도로 이동했으며, 같은 달 12일 옹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수월부대)가 동키 제7부대로 독립하여 초도로 이동했다. 다른 대원들도 부대를 이탈하여 남하하였다.<sup>63)</sup>

5월 8일 한국 해병대가 석도에 상륙하자,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해병대로 하여금 구월부대를 지휘하게 함으로써 해병대와 유격대간에 잦은 충돌이 발생했음은 물론 유격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6월 3일 부대원들이 김종벽 대위를 다시 부대장으로 오게 하자는 진정서와 서명 날인한 문건을 미 제8군사령관, 국회, 육군본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7월 13일<sup>64)</sup> 마침 김종벽 대위가 가족 인솔차 석도에 도착했다. 부대장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부재 중에 일어난 부대의 혼란이 곧 회복되리라 믿은 대원들은 그를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모시고 남하하려는 개인 용무로 왔으며 배편이 되는 대로 곧 떠난다고 말했다.

김종벽 부대장은 기지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부대의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고 육군 총참모장의 명령을 불복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니, 신임 이도일 부대장의 지휘 아래 구월부대의 전통을 계승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대장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자고 요구했다. 대원들은 전술적으로 능한 김 대위를 다시 부대장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백령도 버크 사령관에게 제의했으나, 그 제안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대원들은 버크 사령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족적 견지나 유격부대의 특성을 내세워,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김 대위를 다시 부대장으로, 이도일을 부부대장으로 선출하였다.<sup>65)</sup> 이러한 보고를 접한 백령도 기지사령관은, 한국군 현

62)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63)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SN 1273.

64) 9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구월부대 연혁』, 1953. 8; 김종벽 증언, 1985. 12. 5, 육본 군사연구실).

65) 이에 대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종벽은 육군정보국과 첩보대의 명령에 의해 구월부대원을 지휘하고, 부대원을 평북 개마고원과 묘향산에 침투시켜 유격전과 첩보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김종벽, 『나, 이제 말한다』 2003. 3. 24, 구월산유격대 전우회, 『구월산 유격대원

역장교의 유격부대장 취임은 절대 불가라고 하면서 김종벽 대위의 구월부대 복귀를 반대했다. 하지만 대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자, 백령도 기지사령관은 구월부대를 ‘반란부대’로 낙인찍어 식량과 의약품 등 모든 보급을 중단시켰다.

이와 같이 백령도 기지사령부와의 갈등으로 당시 식량사정이 대단히 궁핍하여 지자, 김종벽 부대장은 구월부대의 제3연대였다가 동키 제15부대로 독립한 백마부대에 도움을 청하여 새로운 작전을 도모하려고<sup>66)</sup> 청천강 대안의 이북까지 북상하여 우선 백마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화도에 상륙했다. 7월 24일 대원 330명은 중선 2척에 분승하고 KLO 고트대(이지녕)의 기선에 예인되어 취라도를 경유하여 25일 대화도에 도착했다.<sup>67)</sup> 그곳에서 신미도 작전을 함께 실시할 것을 협의했으나, 버크 사령관은 대화도로 북상한 구월부대원들을 ‘반란부대’로 규정하고 백마부대로 하여금 무장 해제시키도록 했다. 27일 석도에 있던 30명도 해병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했다.<sup>68)</sup>

7월 30일 백마부대에 억류된 군악대 17명을 제외한 173명과 140명은 각각 2척의 중선에 분승하여 해병대의 호위아래 운양호에 예인되어, 남쪽으로 압송을 당하였다. 이동 중 173명이 탄 중선(머구리배)은 풍랑으로 무인도인 덕도(德島) 근해를 표류하여, 박찬우·윤현식 등이 돛을 달려고 노력하였으나 암초에 걸려 뱃바닥이 크게 부서져서 가라앉고 말았다. 김용택·나동현·백동건 등 171명의 유격대원들은 적탄에 맞아 전사한 것이 아니라 파도와 싸우다 익사하였다.<sup>69)</sup> 1955

---

의 억울한 포로생활 진상규명 요청』 2003. 3. 24). 그런데 이미 미군 관할아래 있는 구월부대를 육군 첩보대에서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66) 김종벽 증언, 1985. 12. 5, 육본 군사연구실.

67) 최근 김종벽 부대장은 국군 첩보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는 주장도 있다(최일성 증언, 2003. 11. 4).

68)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정재호,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 204-205면.

69) 1952년 11월 3일, 부대간부의 미군과 면담에서는 이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The Narrative of Mr. Lim Jong Duk, Sub-Leader, and Mr. Lee Byong Gun, Chief of Staff, Donkey 20”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당시 백령도 기지사령관 버크 소령도 이 사실을 부인했다(the letter of Wm A. Burke, Maj Gen (R), USA, Aug. 7/11, 2002). 그는 잘못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으나(이병근, 『약전』, 날짜



조난사건 중 생존자 박찬우·이용휘

년 12월 20일 육군본부에서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인정하였다.<sup>70)</sup>

나머지 140명이 탄 중선은 사령부의 쾌속정으로 옮겨 탄 10명을 제외한 130명을 태우고 석도에 도착하였다. 사령부로 간 간부들은 해군 유치장에 구금되고 나머지는 피난민으로 내려보냈다. 이들은 해군헌병대 인솔 아래 왜관호를 타고 인천에 도착한 후 영등포 수용소를 거쳐서 13일, 부산 포로수용소로 옮겨갔다. 조난시 살아났던 2명도 9월 1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모두 149명이 수용되었다.

이들은 포로번호도 없이 포로와 별도로 수용되었다.<sup>71)</sup> 이들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김일환(金一煥) 장군의 도움으로 억류생활 13개월 만인 1952년 8월 15일, 부산 거제리 제10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sup>72)</sup>

김종벽 부대장은 원대 복귀하고<sup>73)</sup> 대원들이 포로가 되자, 많은 대원들이 동요하여 이탈함으로써 부대는 와해될 형편이었다. 유격대의 주력이 대화도로 복상할 때 웅도, 청양도, 취라도, 피도 등에 잔류했던 대원은 비록 다수가 분산되었지만 구월산 유격대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김정수·이명철 등

없음), 전후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델리(A.S. Daley) 중령은 대화도 사건을 언급했고(『델리 중령 면담』,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당시 석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독립 제41중대장 이동호 대위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풍랑으로 인한 조난사실을 확인했다(이동호 장군 증언, 2003. 7. 7; 한봉덕·김찬수 증언, 2003. 7. 9).

70) 『구월산부대 전사 인정의결서』 1955. 12. 20, 육본 부관감실; 강기천, 앞의 책, 95면.

71) 거제도 포로명부에 이들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72) 『동아일보』 1952. 8. 15;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구월산유격부대전사』, 2002, 107-113면; 배인선 증언, 2003. 11. 4.

73) 그는 육군 헌병사령부의 심사 결과, 미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해 실종복귀수속을 받은 뒤, 원대 복귀했다. 이듬해 1952년 3월 소령으로 진급했고 도미 유학을 거쳐 육군첩보대 제1교육대 대장이 되었고, 1954년 2월 9일 중령으로 제대했다.

이 잔여 대원들을 옹도로 집결시켜 1951년 8월 4일 백령도 기지사령부 예하의 동키 제20부대로 재편하여 유격전을 재개하였다.<sup>74)</sup>

## 다. 주요 작전활동<sup>75)</sup>

### (1) 연풍부대 시기

연풍부대는 일부 해군의 함포지원을 받기도 했지만,<sup>76)</sup> 크고 작은 작전을 대부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1950년 12월 7일<sup>77)</sup> 대원들은 장련읍 학리로 출동해 4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같은 달 13일 오전 6시 30분 구월산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패잔병과 빨치산 2개 중대병력이 장련읍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연락을 받고 김 대위는 적정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장련 시가를 중심으로 흐르는 개천을 방어선으로 하천 제방에 유격부대를 배치하여 적을 기다렸다. 오전 8시가 지나면서 적이 공격해 오자, 유격대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즉각적인 반격으로 적을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적 28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으며, 소총 17정·수류탄 15발·실탄 등을 노획하여 부족했던 부대 장비를 충당했다.<sup>78)</sup>

12월 23일 제2대대는 제1대대의 지원 아래 구월산 신암리와 수삼과 고개의 적을 기습하여 16명을 사살하고 23명을 생포했으며 소총 3정, 경기관총 1정 등을 노획하였다. 1951년 1월 7일 새벽 제도(猪島)에 상륙한 북한군 제26여단 해안경

74) 『구월산 유격작전』, 『군사평론』 89, 40면. 그런데 동키 제20부대로 개편된 부대 외에 동키 제2부대가 새로 편성되어 계속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미군 문서에는 1952년 7월 25일, 8월 14일(37명 출동), 9월 2일, 18일(45명 출동) 등 동키 제2부대의 작전활동이 언급되었다(CCRACK Guerrilla, "Summary No. 95-96, 113, 129" Aug. 22-23, Sep. 9, 2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75) 전과에 대한 기록은 작성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부대규모, 전과 등 숫자에 대해서는 『구월부대 연혁』(1951. 10, 1953. 8)을 우선했다.

76)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4, 1993, 60면.

77) 다른 기록에는 11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임종득,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78)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구월부대 연혁』 1953. 8. 적의 규모에 대해 3개 연대, 혹은 2개 연대 등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과장된 것으로 보임.

비대와 접전을 벌여 적을 섬멸하고, 대위 1명을 포함한 포로 28명은 월사리반도 해상을 경계 중인 한국 해군 제303함정에 인계했다.<sup>79)</sup> 이 전투의 승리로 시민의 환호 속에 장련으로 개선했으나, 12일 북한군의 추격을 받아 장련읍을 포기하고 은울읍으로 후퇴했다. 15일 제703함정의 함포지원을 받아 월사리를 향해 접근해 오던 북한군을 격퇴하였다는 기록도 있다.<sup>80)</sup> 이와 같이 여러 전투가 있으나, 주요 전투는 서부면(西部面) 전투와 장련읍 기습작전, 월사리반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도 상륙전 등이다.

서부면 전투는 북한군 제26여단 제3대대와 연풍부대(제26여단 제5대대와 제7대대) 제2대대와의 전투였다. 1951년 1월 12일 밤 무장대를 추격하여 온 북한군 약 700여 명은 은울을 장악한 후 무연산을 점거하고, 1월 14일<sup>81)</sup> 오후 3시 적 정찰대가 연풍부대의 동정을 살피려고 서부면 신흥리에 접근해 왔다. 이 때 제2대대는 사격거리까지 적을 유인하여 거의 섬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무연산까지 공격하여 적을 은울 방향으로 격퇴시켰다.

그러나 연풍부대의 화력을 감지한 북한군은 반격을 했다. 대원들은 대조리 요소 요소에 매복하여 적들이 사정거리까지에 근접했을 때,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전열을 곧 수습하여 재차 반격을 가해와 2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그들을 거의 괴멸시키고<sup>82)</sup> 소련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12정, 소총 13정 등을 노획했다. 그러나 배두서·이재섭 등 20명의 대원이 전사하고, 백연모·나종삼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sup>83)</sup>

서부면 전투에서 승리한 대원들은 적을 추격하여 장련읍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장련읍에 있는 북한군 제26여단 본부를 기습했다. 이를 위해, 전 대원을 3개 병단으로 나누어 1병단은 남산에, 제2병단과 제3병단은 주산

79)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북한군의 상륙일자가 1월 8일이었고, 포로의 수를 32명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임종득·이병근 증언』 1952. 11. 3).

80) 『한국 해군 제703함 보고전문』 1951. 1. 16,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81) 부대사에는 13일에 기습했으나, 『구월부대 연혁』(1951. 10, 1953. 8)에는 14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임종득과 이병근은 12일로 진술했다.

82) 223명을 사살했다는 주장도 있다.

83)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에 포진케 하였다. 1월 17일 오전 7시 남과 북에서 일시에 협공하니 식사 중이던 적은 불의의 급습으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 날 오후 2시경 도주했던 그들은 병력을 증원시켜 역습해 옴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57명을 사살하고 막심 중기 2정 등을 노획하였지만, 김원배·송유근 등 10명의 대원이 전사했다.<sup>84)</sup>

도서로 철수한 후 약 1개월이 경과하면서 유격대는 식량에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화군 월사리반도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1951년 2월 22일 야간에, 대원들은 석도로 집결하여 23일 오전 5시 범선(帆船)에 승선한 대원들은 KLO 고트대(이철)의 기선 ‘준호’에 예인되어 목적지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월사리반도에 상륙하여 월사리, 학계리, 석탄리에 있는 적을 기습하여 31명을 사살하였고, 포로 17명은 해군 62함에 인계하였다. 기습을 받은 적은 시체와 장비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sup>85)</sup> 적이 도망가자, 대기하고 있던 정해권·김성렬 등 비무장대원들이 양곡과 무기를 수집하여 선박에 가득 싣고 옹도로 철수하였다. 이 작전으로 많은 장비와 물자를 노획한 유격대는 부대 정비와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각지에서 모여드는 반공청년들을 규합, 부대를 증편해 감으로써 전투력은 증강시켰다.

이러한 성과로, 1951년 4월 15일 김종벽 부대장은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구월산중 깊이 근거지를 두고 구월부대를 편성 교육하여… 주도 면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 적을 유도하여 이를 섬멸하고 때로는 적중에 침투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는 점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sup>86)</sup>

## (2) 구월부대 시기

동키 부대로 개편된 후, 유격대는 식량획득과 적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그 가운데 주요 작전은 제2차 월사리반도 상륙작전, 이도면 상륙작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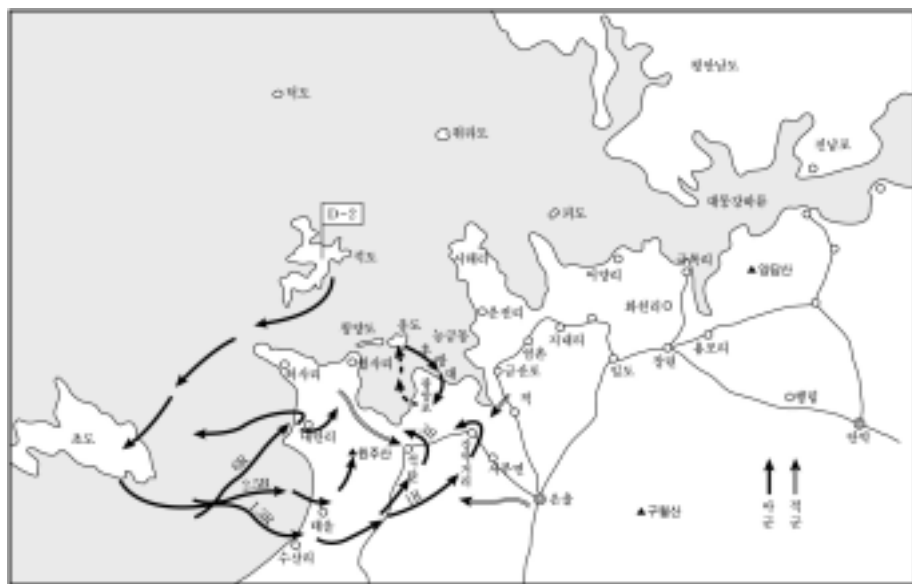
84) 유격대의 피해는 없었다고 기술되었다(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85)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86) 김종벽,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114면.

월사리반도 상륙작전은 송화군 석탄 지역에 있는 양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87)</sup> 1951년 3월 20일<sup>88)</sup> 오후 11시 초도의 소사 해변에 전 대원이 정렬하여 부대장의 작전 훈시를 듣고, 주로 백마부대의 선박에 나누어 타고 적지를 향해 출범했다. 조수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상륙하다보니 적에게 노출되었다. 이 때 해군 704함과 702함에서 상륙작전을 엄호했다. 내안리(內安里)로 상륙하던 제6연대는 적의 사격을 받아 연대장 박철성이 중상을 입었으나,<sup>89)</sup>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륙에 성공하였다. 태을리(太乙里)와 수산리(修山里)에 무사히 상륙한 제2연대와 제5연대가 합세하여 학계리(鶴溪里)에 주둔중인 적을 포위하고, 태을리에 상륙한 제3연대는 과수원과 늪지대에 포진하여 협공 작전을 펴 적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현지 유격대와 합류했다.<sup>90)</sup> 중화기 중대장 김종백과 최용환·박영태 등이 적 29명을 생포하고, 보좌관 이정숙과 근무대대(대대장 배인선)가 그 포로들을 앞세우고 월사리를 거쳐 청양도로

#### <요도 5-2> 제2차 월사리반도 상륙작전 경로



87) 이를 ‘식량토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구월산』, 146면).

88)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89) 그는 낙오군 국군 상사로 부산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90)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261면, 263면.



들어왔고 박격포 2문 등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제1연대는 운성리(雲城里) 능선에 방위선을 치고 있다가 마침 석탄에서 송화로 현물세 양곡을 운반하는 소달구지 50여 대를 발견하여 월사리 포구에서 700여 가마의 양곡을 배에 싣고 청양도로 들어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월 22일 오후 6시 청양도를 경유하여 월사리에 도착한 부대장은 상황 파악을 한 후, 제6연대를 김현태의 지휘 아래 봉화산(烽火山) 고지에, 제5연대를 연대장 김명헌의 지휘아래 서부 해안선에 배치하였다. 원주산(遠周山)에 고립되어 있는 제2연대의 철수로를 열어 주기 위해 작전참모 신준균이 직접 결사대 1개 소대를 편성하였다. 제2연대도 원주산에 머물러만 있을 수 없어 제5대대를 선발대로 월사리로 이동 중 학계리에서 적과 마주쳐 혼전이 벌어져 제5대대장 임상훈이 전사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작전참모 일행과 합류하여 제6연대가 포진하고 있는 봉화산으로 집결하였다.

3월 23일 오전 11시 제2연대와 제6연대는 적을 포위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돌격, 군관 11명을 포함하여 적 사살 67명·포로 56명의 전과를 올리고 박격포 4문을 포함 각종 무기와 탄약을 노획했는데 뒤따라오던 적이 박격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추격해 왔다. 아직 간조가 되지 않아 진퇴유곡에 처해 있을 때, 옹도 앞 바다에서 경비 중이던 해군 제302정이 함포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자 옹도·청양도로 철수했다. 이 때 끝까지 데리고 온 포로는 25명뿐이었다.<sup>91)</sup> 이 전투에서 제5연대장 김명헌과 제7대대 중대장 이영섭은 실종되고, 제2연대장 이진호, 제3연대 백남빈 중대장 등 20여 명이 전사하였다.

이도면 상륙작전 역시 양곡확보가 목적이었다. 월사리반도 상륙작전을 통해서 무기와 실탄은 비교적 많이 노획하였으나 식량 양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 무렵 내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이도면 감정리 인민위원회 식량창고에 양곡이 2,400가마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1951년 3월 27일 오후 11시 제1연대가 어양리(漁陽里)에 상륙, 일부는 가당리

91)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263면, 272-273면. 전과에 있어서 해군 기록은 사살 100명, 생포 59명으로 구월부대의 기록과 차이가 약간 있다.

(柯堂里), 생팔리(生八里)로 이동하고 일부는 감정리로 진격하였다. 제2연대(연대장 유덕선)와 제6연대(연대장 김유황)는 운전리(雲田里)에 상륙하여 문성리(文城里), 간담리로 진격하고 제3연대는 서해리(西海里)에 상륙하여 감정리로 향했다.

3월 28일 이른 아침 제1연대와 제3연대가 감정리에 주둔중인 적을 협공하여 기습했다. 대원들이 감정리를 완전 장악하자, 이도포로 상륙한 후방대원은 현물세 창고의 양곡 500여 가마를 배에 가득 싣고 섬으로 들어왔는데, 이 때 빈 가마니 속에 숨어 있던 적 군관 2명을 생포하였다.

이 때 많은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이고 지고 대원을 따라 섬으로 들어왔다. 지내리에 은신해 있던 부대장 부친도 대원들의 안내를 받아 섬으로 들어왔다. 이 작전에서는 한 명의 대원도 희생됨이 없이 적 57명을 사살했고, 포로(장교) 2명을 해군에 인계하였다.<sup>92)</sup>

김종벽 부대장이 떠난 후, 1951년 6월 10일 13시 구월부대 대원 120명은 해군 함정의 함포지원을 받아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군의 반격으로 4명을 사살하고 토치카 3개소와 군수창고 1개소를 파괴한 후 철수했다.<sup>93)</sup> 6월 초부터 북한군은 계속하여 응도에 대대적인 포사격을 가해 왔다. 간조기인 20일 새벽 적이 2개 대대의 병력으로 일시에 섬을 공격해옴으로써 유격대는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분산되었다. 27일 송화군 운유면 상륙작전은 영국군 순양함 1척과 해군 제308정의 엄호아래 상륙하여 21명을 사살하고 53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하여 초도로 귀환했다.<sup>94)</sup>

식량 부족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하루 소요 양곡은 25가마 정도였으나, 사령부로부터 오는 보급량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적지에서 양곡을 수집해 자급자족해야 했다. 7월 5일 새벽 제1연대와 제2연대가 운유면에 상륙하여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적의 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추격하여 적 21명을 사살하였다. 고지 탈환전에서 제1대대 김원교가 전사했으나 그 사이에 후방 대원은 많은 양곡과 소를 싣고 들어올 수 있었다.

92)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93)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373-374면.

94)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 3. 동키 제3부대(백호부대)

#### 가. 창설배경과 편성

동키 제3부대는 처음 중화군 출신으로 편성했으나 곧 와해되고, 장연군 신화면 출신으로 재편성되었다. 즉 1951년 3월 첫 부대는 이 모를 부대장으로 하여 중화군 용하(龍下) 출신 대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게릴라전의 경험이 없어서 내륙 작전 중 무전기를 분실하는 등 전술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무전기의 분실로 그들의 위치와 다른 기밀사항들이 노출되어 3월 중순경,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큰 타격을 입었다.<sup>95)</sup>

동키 제4부대를 창설한 장석린 부대장은 대원이 증가하자 작전구역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유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1개 유격대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 1951년 5월경<sup>96)</sup> 동키 제4부대는 제3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김영복으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했다.<sup>97)</sup> 김영복 제3부대장은 장연군 해안면 출신으로 치안활동을 하다가 불타산중에 숨어 생활하여 오던 중 동키 제4부대가 불타산에 상륙하여 오동골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유격대에 가담하였다. 그는 일제말 학도병 출신으로 장교로 복무한 경험과 산악지리에도 능통하여 장석린 부대장으로부터 지휘력과 용감성을 인정받아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 무렵 최동하가 무전기 1대와 12명의 대원을 이끌고 제3부대에 합류해 36명으로 늘었다.

처음에 북한 내륙 박석산에 기지를 구축하고 부대장도 그 곳에 머물렀다. 즉 부대장 김영복을 비롯한 장천석·장봉익·손창언·허환·주신직 등 19명은 제4

95) Pak Choll, D-4 Leader,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Rewarding Captain of Abuse-2 on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Jan. 28,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96) 7월 20일이라는 기억도 있다(『부대장 박철 증언』 1952. 11. 3); 5월 20일 혹은 26일이라는 기술도 있다(손창언(참모장),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97)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4, Pak Choll",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이하, 『김영복 부대장 증언』 1952. 11. 6으로 줄임).

부대장 장석린의 인솔아래 육도 기지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박석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활동 중인 동키 제4부대 박석산 제2지대(지대장 홍병수)를 대신하여 유격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박석산에 기지를 구축했으나, 1951년 7월 하순 백령도 기지사령부는 초도를 근거지로 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 때 대원의 규모는 200명으로 늘었으나, 특별한 편제는 없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중 한 그룹으로 정성룡이 대원 26명을 이끌었다.<sup>98)</sup>

박석산 기지가 9월 17일 적의 급습을 받았다. 장석린 부대장은 대규모 적과의 교전은 피해만 자초한다고 판단하여 초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화 무장훈련대장 정성룡에게 김영복 부대의 구조를 요청하여 이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초도로 귀환하였다. 장석린 부대장의 중재로 김영복 부대장과 초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성룡 신화 무장훈련대장 사이의 협의 아래 동키 제3부대를 새롭게 편성했다. 이 때 대원의 규모가 750명이었다고 한다.<sup>99)</sup>

정성룡을 따르는 대원들은 신화무장대 출신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한 후 평양을 향해 북진을 감행하자,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은 구금 중인 반공인사와 반공 성향의 주민들을 학살한 후, 박석산을 경유하여 구월산으로 도주했다. 이 후, 산중에 숨어 있던 허완, 정성룡, 이범만 등은 다발총과 소련제 소총을 휴대하고 은신처에서 나와 고향인 신화로 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국군이 진격해 올 때까지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안대장 정성룡, 면장 이범만, 한청단장 김준걸, 무장대장 김승찬 등으로 하는 임시 치안기구를 조직하였다. 치안 행정조직을 각 리 단위까지 체계화하여 점차 치안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후퇴하고 서울이 또 다시 공산군에 의해 함락된 며칠 후인 1951년 1월 13일 장연읍도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신화치안대는 실탄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죽창과 수류탄으로 무장

98) 『김영복 부대장 증언』 1952. 11. 6. 부대 창설 당시 대원의 규모가 550명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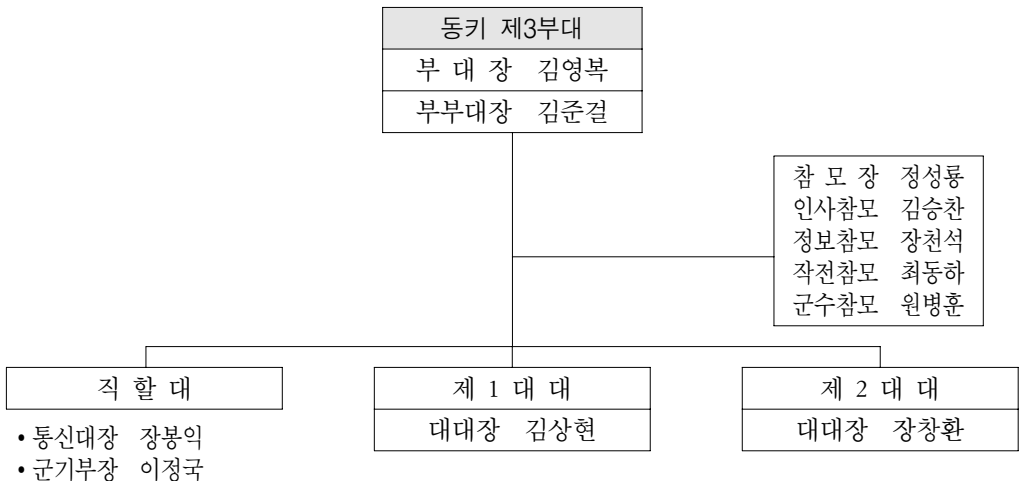
99) 손창언(참모장),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한 청년들과 합동으로 경계를 강화했다. 1월 18일 장연읍을 점령한 북한군 1개 중대병력과 구월산에 입산해 있던 좌익빨치산 150명이 치안대가 집결해 있는 효제리를 목표로 양면 공격을 가해 왔다. 이에 맞서 치안대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과의 전투가 희생만을 자초하는 무모한 작전이라고 판단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면서 주민들과 초도로 철수하였다.

초도로 철수한 신화 무장치안대원들은 반공 주민들을 하루 속히 적지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신화치안대 출신들이 1951년 1월말 동향 청년 300여 명을 규합, 신화 무장훈련대를 발족하여 2개 대대와 5개 중대로 편성했다. 훈련대장 정성룡, 제1대대장 김승찬, 제2대대장 김영관 등이 간부진이었다.

무장훈련대가 발족한 이후 식량과 무기조달 등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훈련에 경주하였으나, 1951년 3월 10일경 서해 북부지역의 초계임무를 담당하던 한국해군소속 제308함정의 장교 5명이 정성룡 훈련대장을 찾아와 훈련대는 사설단체일 뿐 아니라 특히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무기를 즉각 압류하겠다고 했다. 무장대의 설득으로, 해군 제308정장 김정호 대위는 대원들의 뜻을 이해하고 훈련대의 적지 상륙작전시에는 해상지원을 받아 합동작전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지휘관 및 참모>





소대장 이상 간부  
(1951)

박석산 부대가 초도로 철수한 후, 작전 지역에 대한 적정파악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그 동안의 전과를 높이 평가하여 각종 무기와 실탄, 의약품을 비롯하여 무전기(SCR-300) 6대를 지급하였다. 부대는 적 병력의 이동사항, 주민들의 민심동향과 생활상을 수집보고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조의 적지 고정첩보대를 조직하여 박석산 지구(박충영 외 2명), 어두니골 지구(조양삼 외 2명), 칠봉산 지구(정문옥 외 2명), 살래골 지구(박창근 외 2명) 등 4개 지구에 무전기를 휴대시켜 침투시켰다.

1952년 1월초 동키 제4부대장 장석린(장석린)이 대원들에게 암살된 후, 이 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제3부대가 분리 독립했다. 그런데 1952년 2월 참모장 정성룡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부대장 김영복을 불신임하자 김영복은 사임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 맥킨 소령이 그의 사정을 알고 그를 기지사령부의 친위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원들은 부대장이 떠난 후 투표로 최동하를 지도자로 뽑았다.<sup>100)</sup> 이 때 정성룡은 부대를 떠났고, 부부대장·군기부장·제2대대장 등이 동키 제4부대로 옮겨갔다. 손창언이 참모장으로, 김두평과 강동환이 대대장으로 되었다.<sup>101)</sup>

100)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4, Pak Choll”,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01) 장예규·강동환 증언, 2003. 11. 19.

1952년 5월 전투에서 최동하 부대장이 전사하자, 같은 달 30일<sup>102)</sup> 그 후임으로 신화면 휴동 인민학교 교사였고 감찰대장인 장예규가 추대되어 위기를 극복하였다.<sup>103)</sup> 1952년 11월 28일, 보고에 따르면 이 시기 부대는 제3대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36명으로 구성된 첩보대도 운용되고 있었다. 1개 소대원의 규모는 9명으로 1개 중대는 27명 수준이었다. 당시 장비현황을 보면 M1 165정, 칼빈 32정, 소련제 소총 76정, 단발 99식 28정 등으로 무장 가능한 대원은 300여 명이었다.<sup>104)</sup>

휴전이 다가오자, 1953년 6월 12일 철수명령에 따라 대원들은 발동선 3척과 각종 목선 20여 척에 장비를 선적하고 초도를 출항했다. 그들은 대청도에 도착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야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장차 유격부대원들의 전도가 어떻게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 아래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였다. 대청도에 도착한 지 며칠이 안 되어 충청남도 안면도로 이동하였다. 안면도에서 미 고문관의 감독 아래 교육훈련을 2개월 정도 받다가, 1953년 8월 13일 경기도 부천군 용유도로 다시 이동하였다. 8월 17일 용유도에 도착하여 교육훈련을 받다가, 국군에 편입되었다.<sup>105)</sup>

## 나. 주요 작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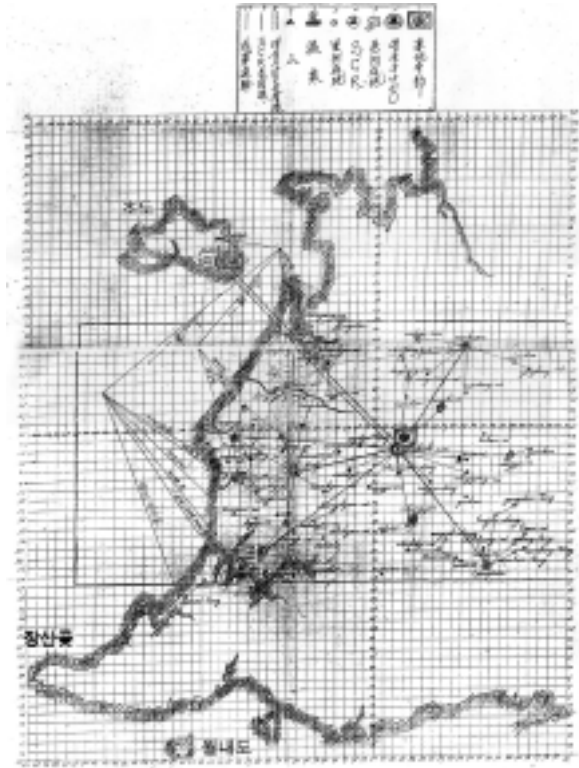
작전 활동은 신화무장대 시기, 김영복·최동하·장예규 부대장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화무장대로 편성한 훈련대는 1951년 3월 중순, 송화군 운유면 사기리(砂基里) 일대 해안 산중에 많은 피난민들이 집결하여 초도로부터 구조선을 고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20일 정성룡 훈련대장은 난민구조대를 편성하여 한국 해군 제308정의 호위 아래 적전상륙을 감행하여 250명의 난

102) 그의 공적서에는 5월 14일로 기술되어 있으나(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장예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최동하 전임 부대장이 5월 21일경 전사했으므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103) 『백호부대유격전사』, 365면. 장예규 연대장이 1952년 5월 14일부터 연대장으로 활동한 기록도 있다(Thomas A. Dye, Maj., HQ Operation Leopard, "Award of Medal of Freedom" Nov. 13, 1952,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104) 『T/O Donkey-3』 1952. 11. 28,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105) 『백호부대유격전사』, 368면.



D-3 동계 작전 도면

쌀 등 곡식 150가마·소 130두 등을 노획하였으며 건물 14개 동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피난민 구출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한 마을 23가구 어린이와 노인 등 140명을 일시에 피난시킨 적도 있었다.<sup>106)</sup>

박석산에 기지를 설정한 후, 1951년 5월 3일 조령리 매복작전을 비롯하여, 6월 25일 김준걸이 대원 10명을 이끌고 운유면 내무분주소를 습격했고, 7월 14일<sup>107)</sup> 김영복 부대장이 대원 10명과 함께 송화 온천을 공격했다. 같은 달 29일 김영복 부대장이 대원 40명을 이끌고 풍천에 있는 북한군 1개 중대를 공격했다. 이 가운데 송화 온천작전은 온천에서 반공인사들이 분주소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실시되었다. 김영복 부대장은 대원 11명을 데리고 출발했다. 도중에 사냥꾼 1명을 생포해 대원으로 편입시켜 지역 사정을 정탐하고,

민을 무사히 초도로 구출했다. 25일에도 김영관 대대장이 2개 지대로 편성된 대원과 함께 신화면 내무서 분주소를 습격하여 피난을 원하는 주민 100여 명을 구출하고 현물세 양곡을 노획했다.

김영복 부대장 시기인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대규모의 기습공격 6차례와 20곳 이상에서 매복공격을 감행했다. 김영복 부대장은 북한군을 비롯한 280명을 사살하고 23명을 설득 귀순시켰으며 그 외에 약 410명의 피난민을 구출하고, 소련제 소총 55정·따발총 12정·선박 4척,

106) 『부대장 김영복 증언』 1952. 11. 6, p. 122.

107) 『백호유격부대전사』에는 작전일자를 8월 중순으로 기술했다(335면).



이 지역에 남아 살고 있던 전 청년단 간부 원병훈을 설득해 대원으로 편입했다. 공격목표는 내무분주소, 노동당 사무실, 면 인민위원회, 북한군 경비대 등이었다. 대원 13명을 4개 조로 나누었으나, 노동당 사무실에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 공격 목표를 내무분주소로 정했다. 대원 6명이 공격하여 내무서원 6명을 사살하고 권총 1정·일제 99식·38식 소총 7정 등을 노획했다. 뒤뜰에 있는 방공호에 수감되어 있는 주민 32명도 석방시켰다. 면 인민위원회를 공격했던 대원들은 7명을 사살하고, 건물을 불태웠다.<sup>108)</sup>

1951년 11월 초순 부대 본부에서는 송화군 운유면 서의리 부락에 북한 해안경비대 약 100여 명이 주둔하여 진지구축 작업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칠봉산 첩보대로부터 입수하였다. 즉시 적을 기습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sup>109)</sup> 서의리는 칠봉산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초도와 근거리에 있었다. 7일 20시 3개 지대로 편성된 유격대 80여 명은 제1대대장 김상현의 지휘 아래 범선 4척에 승선, 초도를 출항하여 8일 새벽 3시에 상륙지점인 대감바위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곳에서 첩보대원의 안내를 받아 서의리 부락 주변의 야산에 당도한 유격대는 즉시 진지편성을 하였으나, 적에게 발견되어 예정 시간보다 빨리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느닷없는 총성에 놀라 집집마다에서 뛰쳐나오는 적병들을 사살했으나 일부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도주했다. 날이 밝으면서 도주했던 적들이 반격해 오자 대원들은 약 10여 분 동안 맹공을 가하였다. 그 결과 이날 전투에서 북한군 16명을 사살하였으나 대원 3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유격대는 철수할 때 주민 150여 명을 구출하여 초도로 귀환했다.

최동하 부대장은 1952년 5월 적지로 들어가 장기적인 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두평 대대장을 비롯하여 대원 70명을 선발한 다음 5월 중순<sup>110)</sup>

108)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p. 123-125; 손창언(참모장),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109) 김영복 부대장은 1952년 11월 미군의 인터뷰에서 서의리 전투와 1951년 11월 중순 70여 명의 대원이 출동했다는 지경리 전투를 언급하지 않았다.

110) 부대사에는 19일 밤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미군 보고서에는 15일, 장연군 참촌(XC688371) 지역에서 교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밤에 직접 지휘하여 적지로 침투, 광석산(光石山)에 작전거점을 확보했다. 삼은리(三隱里)에 중공군 1개 소대병력이 주둔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부대장은 현지 정찰을 철저히 실시한 다음, 3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1정·소총 2정을 노획했다.

이 전투를 끝낸 공격대는 신속하게 광석산 기지로 귀환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중공군 2개 소대가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삼은리로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부대장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광석산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도화산(桃花山)으로 이동하여 그 주변 일대에 매복조를 분산 배치시켰다. 5월 21일 장연 서북쪽 약 14km 지점인 고읍동(XC723425)에서 중공군 2개 소대의 공격을 받았다.<sup>111)</sup> 순택면 학현리 학림사 부근을 이동하던 중 북한군·중공군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대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 20여 분간의 격렬한 교전을 벌이던 중 최동하 부대장이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12명을 사살했으나, 유격대는 진두지휘를 하던 부대장을 비롯하여 김정국·박충예 대원을 잃었다.<sup>112)</sup>

장예규 부대장의 공적서에 의하면, 1952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유격대는 수십 차례의 작전을 수행했다. 그 내용은 현물세 수집사업을 방해하고, 내무서 습격, 북한군과 중공군 공격, 피난민 구출 등이다.<sup>113)</sup>

20명 미만의 소규모 작전이 많았다. 적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소규모 특공조가 1952년 4월 하순부터 42일간 내륙에서 활동한 후 6월 2일 귀환했다. 이 기간 중 5월 16일 장연 서남쪽 약 12km 지점인 녹촌(XC734294)에서 내무서원 2명을 사살하고, 같은 달 26일 장연 서쪽 12km 떨어진 도감동(XC712326)에서 중공군 4명을 사살했다.<sup>114)</sup> 10월 10일 대원 7명이 과일 동북방 약 8km 지점인 대야리(XC813603)에서 활동하는 자살특공대에게 보급을 전하다가, 북한군 9명을 조우

111) 부대사에는 5월 27일 아침, 굿고개를 향해서 행군해 오던 북한군 40여 명을 기습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112) 이정수 증언, 백호부대전우회, 2003.8; CCRACK Guerrilla, "Summary No. 36" June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13)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장예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11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24" June 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하였으나 매복으로 모두 사살하였다.<sup>115)</sup>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자살특공대 15명이 장연 남동쪽 11km 지점인 나장동 부근(XC928301)에서 매복으로 북한군 7명을 사살했다. 또 다른 자살특공대 20명은 10월 18일, 장연 남쪽 9km 떨어진 조합리(XC708490)에서 현물세 운송 우마차 18대를 공격하여 우마차 12대와 버 100가마를 파괴하고 황소 3마리를 노획했다.<sup>116)</sup>

1953년 4월 14일 강덕원 등 5명이 황해도 송화군 온천면 분주소 파괴를 위해 초도 소사 부두에서 부대 호송선을 타고 출발하였다. 12시간을 항해한 후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순길리 해변에 상륙하여 장연군 장련면 칠북리 야산에 도착했다. 온천분주소를 공격하기 위해 분주소 자위대 소속 이기훈을 포섭하여 그 내부구조를 파악하였다. 14일 22시 2개 조로 편성하여 1조는 분주소장과 면 당위장 숙소를 습격하고, 2조는 분주소를 기습하였다. 보조병을 무성 무기로 사살하고 수류탄을 숙소와 지하 병커에 던져 기습에 성공했다. 그 결과 내무서원 9명과 자위대원 30여 명을 살상하고, 소총 30정을 노획하여 소이탄 3발로 소각하고, 다발총 2정, 각종 서류를 증거로 가져왔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안남미 100포를 포상으로 받았다고 한다.<sup>117)</sup>

중대 혹은 대대 규모의 작전도 활발했다. 1952년 7월 9일 대원 45명이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25명과 20명 등 2개 조로 나누어 매복했다. 하휴동(XC655402)에서 북한군 15명을 습격하여 12명을 사살하고 소총 2정을 노획하였고, 20명으로 편성된 조는 대쾌동(XC653394)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13명을 사살하였다.<sup>118)</sup> 9월 19일 24시 대원 45명이 상호동(XC666354)에 있는 북한군 소대를 공격하였으나 증원군이 오자 철수하였다. 이 때 북한군 26명과 공산주의자 3명을 사살하고, 건물 5개 동을 파괴하였다.<sup>119)</sup>

1953년 6월 2일 장예규 부대장 지휘 아래 대원 70여 명이 적지에 상륙하여 광석산으로 입산했다. 이곳에서 적정을 살피던 중 적이 삼은리를 통과하고 있다는

11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4" Oct.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16)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4" Oct. 30, 1952.

117) 강덕원 증언, 2003. 12. 12.

118) CCRAK Guerrilla, "Summary No. 59" July 13, 1952.

119)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0" Sep. 26, 1952.

첩보를 입수한 후, 부대장은 그들이 통과할 도로변에다 병력을 배치해 놓고 적군을 기다렸다. 6월 3일 오전 8시경 적들이 우마차 3대에 식량과 탄약 등을 적재하고 나타나자 유격대는 근접해 온 적에게 기습을 가하여 27명을 사살하고, 일봉산으로 이동하던 중 중공군 20여 명과 조우하여 10여 분 동안 교전 끝에 중공군 6명을 사살했으나, 윤두섭 등 3명이 전사했다.

부대 단위의 대표적인 전투로는 풍천읍 작전이 있다. 1952년 7월 중순경 유격대는 송화군 풍천읍에 북한군 중대 병력이<sup>120)</sup> 주둔하여 해안경계를 강화하고 유격대의 상륙 봉쇄와 토벌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풍천은 해안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초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작전상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구비한 지역이다.

7월 20일<sup>121)</sup> 김두평 대대장이<sup>122)</sup> 지휘하는 대원 160명은 야간을 이용하여 초도와 사기리 중간 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초도 지구 미 고문관 댄드 소령으로부터 해상지원을 약속받았다. 새벽 4시경, 대원들은 시내 외곽 3면을 둘러싼 50여 미터 고지 능선에 배치되었다. 능선에는 군데군데 옛 성지가 있어 공격대기 지점으로서 최적지였다. 21일 새벽 5시 제1지대는 북한군 중대본부로, 제2지대는 내무서를 기습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능선 요소에 방어부대를 배치한 후 수색전을 개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20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였으며, 소총 13정을 노획하였다. 또한, 내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반공인사 8명도 구출하였다. 이 때 많은 주민들이 해안으로 향했다. 난민들은 약 1km 밖 해상의 미 해군 함정으로 목선을 이용하여 이송하였고, 양곡 300여 가마도 선적하였다.

유격대는 풍천 시내를 약 7시간 동안 완전히 장악하였다. 정오경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유격대가 모두 철수하려 할 때, 도망갔던 북한군과 지원병력이

120) 북한군 1개 소대가 주둔하였으나, 인근에 중대 병력이 있었다고 한다(이철영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 8).

121) 이 작전은 미군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7월 22일, 대원 50명이 하효동 부근(XC672348)에서 매복하여 북한군 30명을 공격하여 21명을 사살했다는 보고는 있다(CCRACK Guerrilla, "Summary No. 73" July 1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22) 이철영과 김광협은 중대장으로 참가했다(이철영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 8).

합세하여 해안 약 300m 고지에서 포진하고 기관총과 소화기로 공격을 가해 왔다. 대원들은 양곡 가마니를 얽매물로 삼아 적군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하며 해안으로 빠져 나왔다. 때마침 미군 함정이 함포사격을 계속하고 동안 적의 유효 사거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김용국·김기준·이석순 등이 전사했다. 경계병으로 배치되었던 박성호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탈출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폭하였다고 한다.<sup>123)</sup>

내륙기지에서든 전과가 있었다. 박석산 기지를 비롯해 적지 고정첩보대에서 주요 군사목표 탐지, 적 병력의 이동사항, 주민들의 민심동향 등을 수집 보고하는 한편, 부대작전을 위한 정보수집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적의 토벌을 받았다. 1952년 9월 17일 17시 유격대원 12명이 장연 동남쪽 8km 떨어진 도습산(XC918307)에서 적의 토벌대 24명과 교전하여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 10월 1일 06시 같은 지역에서 내륙기지 대원 25명이 도습산에 있는 유격대 토벌대 정찰소대를 기습하여 18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소총 2정을 노획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24)</sup> 같은 달 9일 대원 25명이 북한군 토벌대 80명과 교전을 벌였으나 북한군 70명이 증원되자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20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20발·다발총 1정 등을 노획했으나, 대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25)</sup>

## 4. 동키 제4부대(백호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4부대는<sup>126)</sup> 황해도 장연군 출신 반공청년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장연

123) 『민족의 증언: 백호부대』, 『중앙일보』 1972. 7. 10; 손창언(참모장),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이철영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 8.

124)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1, 155" Sep. 27, Oct. 2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2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2" Oct.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26) 이 부대사를 정리하는 데에는 『백호부대유격전사』(1992)와 동키 제4부대 전우회(회장 민중선)에서 실시한 증언청취 자료에 크게 힘입었다.

부대라고도 했다. 유엔군이 복진하자, 장연중학교 지하조직 대표 강성려와 박창훈은 농민은행 부지배인 노승효, 경리원 오종식과 아군 입성에 대비한 환영준비와 과도기 치안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하였다. 이들은 비밀본부를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은행금고 건물로 정한 후 북한군 탈영병으로부터 입수한 소총 2정과 수류탄 수발을 금고에 은닉하고 태극기와 전단, 프랭카드를 제작하였다.

1950년 10월 14일 밤 내무서원과 공산당원들은 후퇴준비를 서두르면서 반공인사의 가옥을 수색하여 사살하고 내무서와 낙영광산에 감금되어 있던 반공인사에 대한 집단학살을 한 후 구월산으로 도주하였다.<sup>127)</sup> 주민들은 공산당의 후퇴소식이 전해지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자위대책을 위한 치안조직의 결성이었다. 이날 오후 학생과 일반 대표가 치안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0월 16일 장연 극장에서 합동치안대 발족대회를 논의하고 있을 때, 북한군의 습격을 받았으나 즉시 무장대가 반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치안대장으로 최문려가 추대되었고 각 면 단위별로 치안대가 조직되었다. 19일 최문려 치안대장은 해주 주둔 미군부대를 찾아가 황해도 서부 지역의 치안공백 상황과 북한군 패잔병의 만행을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하였다. 미군 부대장은 지원을 약속하고 노획 무기 및 탄약 일부를 제공하였다. 무기와 탄약을 획득한 치안대는 군내 치안유지와 공산당 색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젊은 학생 70명으로 2개 소대의 무장대를 편성하였다.

무장대를 편성한 치안대는 북한군을 유인하여 소탕하거나, 박석산과 송화군 율리의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자, 치안대는 유엔군이 곧 반격하여 평양 이북으로 진격할 것으로 믿고 향토 사수를 결의한 후 12월 6일부터 구월산 빨치산토벌 지원작전을 비롯한 많은 작전을 수행하였다.

1951년 새해를 맞이한 치안대는 목마르게 기다리던 유엔군의 진격소식은 커녕 1월 4일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풍문과 8일에는 장연읍 동쪽 목감면에 적의 대병

127) 『백호부대유격전사』, 54면.

력이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획득하였다. 장연·송화·신천군의 무장대원으로 급히 편성된 200여 명의 무장대가 적을 일제히 공격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거세어 피아간 사상자만 늘어 갔고, 실탄의 부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 때 장연 경찰서장 장석린이 8일 저녁 덕동포(德洞浦)로 달려가 한국군 해군 함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실탄이 고작 천여 발뿐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함장은 치안대가 덕동포로 집결하면 백령도로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일부 치안대는 항전을 고집하며 계속 전투를 수행하였으나, 1951년 1월 13일<sup>128)</sup> 새벽 적의 대규모 공격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백령도로 철수하였다. 1월 중순까지 몰려드는 적과 항전을 하던 장연무장대는 후일을 기약하고 서둘러 백령도로 피난하였다. 당시 서울 지역 시민들도 1월 4일 피난을 떠났는데, 무장대가 1월 중순까지 적 후방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은 장연이 지리적으로 후미진 곳이어서 가능하였다. 안악, 신천 출신도 이곳으로 몰렸다.

백령도로 철수한 무장대원과 반공청년들은 유격대를 편성하기 위해 미 제8군 산하 백령도 기지사령부와 접촉하였다. 장석린·최원봉·오종국·박창훈·최한철·최경현·민중선·최창규 등 26명은 미 육군 중령 버크(W. A. Burke) 휘하에서 군사훈련을 받아 오다가, 1951년 3월 6일 무전암호 당나귀-4(AN/GRC-9)로 무전기 1대를 배정받아 동키 제4부대를 창설하였다. 백호부대(White Tiger Unit)로도 호칭했다. 이 가운데에는 후에 동키 제3부대장이 된 김영복도 있었다.

당시 대원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몇 개의 지대로 편성하였다. 이 때 무기라고는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소련제 소총 10정과 카빈 10정·실탄 2,000발·폭약 500파운드·무전기 1대가 전부였다.<sup>129)</sup> 1951년 3월 중순 당시 백령도 주둔 해군부대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일부 공급받았다.<sup>130)</sup>

128) 14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4, Pak Choll”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이하,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로 줄임), p. 57}.

129) Pak Choll, D-4 Leader,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Rewarding Captain of Abuse-2 on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Jan. 28,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130)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256면.

부대 창설 후 장연군 대구면 선대리 해안에 상륙하여 불타산 오동골로 잠입하였다. 그러나, 적의 계속된 공격으로 대원 10명을 불타산에 남겨둔 채 초도로 철수하였다. 보급과 작전기지로 섬을 활용하기 위해, 1951년 4월 13일 월내도로 갔다가, 다시 육도, 웅진반도 등지로 옮겼다. 7월경 월내도·육도·마합도·초도 등 4개의 섬 기지를 운용했다. 섬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송수단이 필요했으나 선박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내륙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육도를 섬 기지로 활용했다. 육도에는 50여 명의 대원이 주둔하고 있었다. 육도는 내륙으로부터 1.4km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썰물시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기 쉬운 약점이 있었다. 또한 장산곶과 장연 북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초도를 거점으로 삼았다.

주력 병력은 월내도에 주둔하였다. 이는 월내도가 장산반도를 위시한 그 일대의 작전을 주로 수행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이 도서 지역 공격을 시도하자 효과적인 방어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내도 부대본부에 주력병력을 집결시켰다. 육도에는 통신대 등 전초부대만 남겨 두고, 나머지 도서에는 소수의 전초부대만 주둔시켜 작전활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였다.<sup>131)</sup>

당시 간부진은 부대장 장석린, 참모장 송성일, 독립대대장(월내도) 최희화, 제1대대장(육도) 이준규, 특공대대장(육도) 박시택 등이었다. 내륙에 남겨 두었던 대원 10명을 토대로 박석산을 작전 기지로 삼아 제1지대장 김번성, 제2지대장 홍병수 등이 지휘하였다. 1951년 6월 부대를 재편하면서, 본부를 육도로 다시 옮겼다. 육도에 200명, 월내도 500명이 주둔했고 초도에 파견대가 있었다. 마합도는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품을 보관한 기지로 활용했다.<sup>132)</sup>

부대 창설 후, 장석린 지도아래 대원들은 불타산을 내륙의 근거지로 삼고자 하였다. 이곳에서 적정을 수집하고, 산에 숨어 있는 반공 청년들을 규합해 대원들이 60명으로<sup>133)</sup> 늘어났다. 그 후 3월 28일경 보급문제가 여의치 않아 30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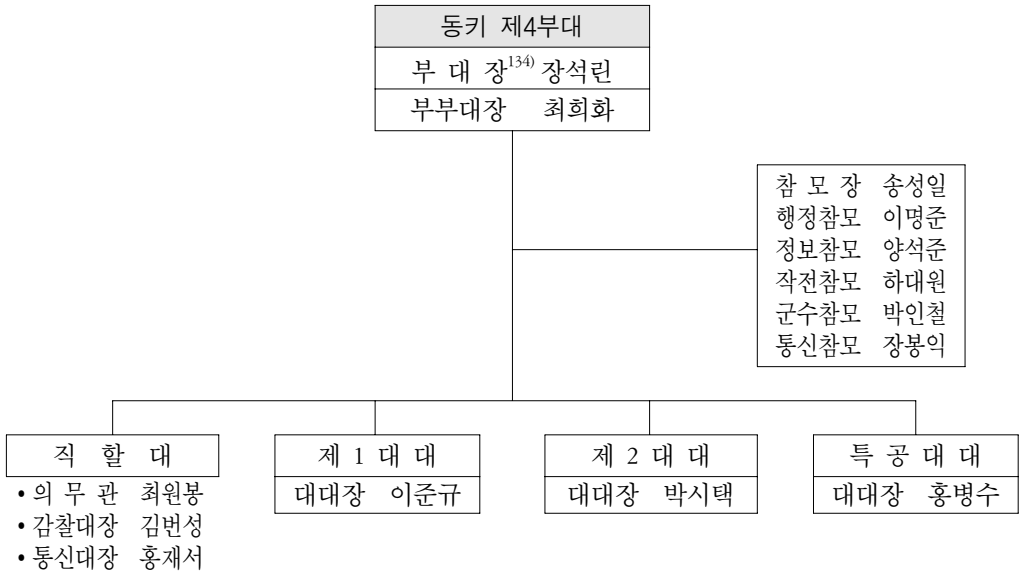
131)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이호진 증언, 전우회 제공, 2003. 8.

132)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133) 15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술도 있다(『백호부대유격전사』, 85면).



<지휘관 및 참모>



대원을 남기고 월내도로 철수했다.<sup>135)</sup> 박석산·불타산 등 내륙 기지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유격전의 교두보로 장산 기지의 빨찌굴은 휴전 무렵까지 유지 운용하였다. 박석산, 낙도면 보석산, 성주산, 장산곶 국기봉 등의 많은 적중 기지가 있었지만 유격전 시초부터 휴전 직전까지 원활하게 가동되었던 곳은 빨찌굴 기지, 즉 장산곶 기지뿐이었다.

빨찌굴은 창남동에서 300m 서쪽 해변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 거주자조차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별로 없는 천혜의 자연요새이다. 좌우 해변에서는 시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오직 간조 시에 배를 타고 입구 쪽으로 돌아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 20여 명의 대원을 상주시키고 작전 요충지로 활용하였다.<sup>136)</sup>

1951년 8월경 대원의 규모는 800여 명으로 늘었고, 1951년 말경에는 1,2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sup>137)</sup> 대원이 부족할 때, 간부들을 목포, 영산포 등지로 파견하여

134) 사령관이라는 기술도 있다.

135)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36) 김하영·이성하·박창훈 증언, 동키제4부대 전우회, 2003. 8.

137)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이 무렵 대원의 규모는 400명 수준이라는 진술도 있다(『김

---

영복 증언』 1952. 11. 6). 『백호부대유격전사』에는 1951년 6월 중순경, 1,000명을 돌파하였다고 기술했다(130면).



부대창설 1주년 기념행사(월내도, 1952. 3. 6)

고향에서 피난 온 청년들로 보충하였다.<sup>138)</sup> 대원들 가운데, 박홍선, 백기주, 백연탄 등 여자대원들은 현지 주민으로 가장하고 내륙까지 침투하여 적정을 수집하여 작전활동에 기여했다.

1952년 2월경 대원의 규모는 565명이었다가,<sup>139)</sup> 11월 초 총 규모는 657명으로 늘었다. 동키 제4부대는 1~2대대까지 편성되었고, 대대 인원은 150명 수준이었다. 그 외에 육도대대 78명, 빨찌굴대대 40명, 통신대 22명, 선박대 37명, 의무대 9명, 감찰대 14명 등이었고, 부상자 15명으로 구성된 부상대도 있었다.<sup>140)</sup>

#### 나. 장석린 부대장의 피살과 부대 재편

장석린은 초대 부대장으로서 부대를 확대하고 작전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대의 기틀을 확립했다. 기지사령부로부터 그는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판단력도 정확하며 계획한 일이나 명령을 받은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부대지휘

138) 민중선·임봉익 증언, 2002. 8. 13.

139) 벤 S. 맥콤, 『백호유격부대전사』, 370면.

140) 『D4 백호부대 기구편성표 및 장비배치표』,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대원의 규모가 1,145명 혹은 1,700명이라는 기술도 있다(『8250제1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대원의 규모는 보급을 위해 약간 부풀려졌다고 한다.

에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그는 돈과 물품을 탐내기 시작하더니 지휘 방식도 독재자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령부로부터 지원받은 보급품이나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자를 관리하는 일에 임명했고, 행정참모에 동생, 장인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러 대원으로부터 불평불만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sup>141)</sup>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1월 1일, 신년 행사 직후에 박석산기지의 김 모가 장석린과 행정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42)</sup>

기지사령부에서는 장석린이 부대를 정예부대로 만들었고 많은 전과가 있어서 동키부대 중 제일 유능한 지도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이유없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이 부대를 경계하여 일시적으로 병력과 작전 지역을 제한했다. 대원들 가운데도 장석린을 따르는 통신병이 내륙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이탈하는 등 일부 대원들이 남으로 떠났다. 이 혼란시기를 송성일 참모장이 부대장직을 승계하고 수습했다.<sup>143)</sup>

한편 장석린 부대장의 사망 직후부터 추진해 온 최문려 부대장 취임 교섭이 성사되어, 3월 12일 부대가 대청도로 철수함과 때를 같이하여 부대장으로 취임하였다.<sup>144)</sup> 그는 30대 중반으로(1917년 생) 유엔군 북진시 장연군수<sup>145)</sup>를 지냈다. 신임부대장은 강력한 정예부대로 재편하기 위하여 고령자, 신체 허약자와 남하를 희망하는 대원 200여 명을 설득하여 유격대를 떠나도록 조치하고 백령도까지 수송하였다. 이 때 일부 간부들이 바뀌었다. 군기참모 최원봉, 의무관 장세진, 통신대장 김효선, 대대장 오종국·박창훈·임종실·최한철 등이다.

휴전을 한달 앞두고, 대청도로 철수하게 된 부대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141) 『백호부대유격전사』, 100면;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p. 122.

142) 홍병수, 김준걸 대대장은 기린도에 도착하자 정보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백령도사령부 헌병대로 압송되었으나 유격대는 정규군 아닌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으로 수송되어 동년 8월 재판결과 무죄판결로 석방되어 원대 복귀되었다.

143) 『백호부대 유격전사』, 182-183면;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144) 1952년 1월 1일부터 혹은 3월 8일부터 부대장으로서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다(대위 도날드. A. 세이버,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 11. 6,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최 부대장은 ‘박철’로 불리웠다(벤 S. 맬름, 『백호부대유격전사』, 100면).

145) 장연경찰서장을 지냈다는 기술도 있다(장연군민회, 『감사장』 1966. 6. 12, 전우회 제공).

1954년 2월 20일 국방부 장관을 대리한 고급 장교단이 대청도에 도착하여 대원들에게 일등병으로부터 일등중사의 계급과 군번을 부여하고 장교임관자에 대해서는 소위로부터 대위 계급의 임관사령장이 수여되었고 1954년 2월 16일로 소급 발령되었다. 1954년 2월 대원들이 국군으로 편입될 때 장교 46명, 사병 460명, 현지 제대 106명 등이었다.

1954년 3월 3일 대원들은 무기를 모두 사령부에 반납하고,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대기중인 특별열차로 춘천 보충대에 도착한 사병들은 제5사단, 9사단 등으로 분산 배치되었고, 장교로 임관된 간부들은 22일 대구 제3보충대로 가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방부대에 배속되어 한국 육군의 정규군으로 복무하였다.<sup>146)</sup>

#### <백호부대가>

- |                     |                      |
|---------------------|----------------------|
| 1. 불타산 서기 속에 자라난 우리 | 2. 내 겨레 내 고향을 다시 찾고자 |
| 황해바다 푸른 물의 정기를 받아   | 피로써 굳게 맺은 서해의 건아     |
| 위립한 박석암에 투지를 닦으니    | 진격의 발굽소리 지축 울리니      |
| 승리의 새 역사는 길이 빛나리    | 불멸의 새 역사는 길이 빛나리     |

(후렴) 우리는 게릴라 백호부대  
우리는 게릴라 백호부대  
반만년 역사의 피를 받은  
우리는 게릴라 백호의 용사

## 다. 작전활동

### (1) 개 요

동키 제4부대의 작전은 부대 창설 후 내륙에 침투했다가 그 곳에 남겨진 10명의 대원이 박석산을 기지로 삼아 활동하기 시작했다.<sup>147)</sup> 1951년 3월 23일 부대 창설 후 본격적인 작전은 불타산에서 오동골 근처에서 교통호를 파고 있는 주민들을 감독하고 있는 북한군 8명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작으로,<sup>148)</sup> 1953년 7월 초

146) 임결순 증언, 2003. 12. 8.

147)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민종선 증언, 2002. 8. 29.

순 기지사령부로부터 휴전을 대비하여 대청도로 철수했던 대원들에게 육도를 재탈환하라는 명령에 따른 상륙작전을 마지막으로 수행하였다.<sup>149)</sup>

1952년 1월부터 11월까지 1,832명을 살상하고 포로 8명을 생포한 것을 비롯하여, 건물 32곳, 교량 8곳, 선박 4척, 트럭 40대 등을 비롯해 쌀과 기타 곡물 40여만kg, 소 310마리, 수레 349대 등을 파괴했다. 또한 선박 1척, 쌀 590kg, 곡식 4,037kg, 수류탄 156개, 소 87마리 등과 다수의 소총도 노획하였다.<sup>150)</sup>

물론 1952년 2월 2일 북한군이 육도를 공격해 왔을 때처럼 위기를 맞은 경우도 있었다. 마합도의 피습에 연이어 육도기지의 피습으로 많은 전우들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를 치루다가, 대대장 허성룡과 정보과장 오선국은 생포되기 전에 수류탄으로 자결했다.<sup>151)</sup> 상륙작전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10월경 북한군 30여 명이 주둔하였다는 정보를 대사리에서 입수하였다.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배를 타고 출동하였으나 파도가 너무 높아 겨우 상륙할 수 있었다. 해변에서 대사리까지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곳 북한군을 소탕하고 귀대하려 하였지만 기후가 나빠 배를 띄울 수 없어 귀대에 실패하였다. 산으로 도망하여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며 2, 3일 정도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부대로 귀대하였다.<sup>152)</sup>

작전 형태는 첩보수집, 지뢰매설, 전선절단, 집회 공격, 현물징수 방해 등이었다. 부대는 내륙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서해안 지대의 북한군과 중공군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령부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과 해군이 목표지점에 대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sup>153)</sup> 그 사례로, 첩보대원이 해안면 봉화봉에 위치한 북한

148)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Honor Guard, Kim Yong Bok”, Nov. 6,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부대사에서는 1951년 3월 6일, 장연 해안 상륙작전을 첫 작전으로 간주하였다(82면). 박석산기지에서 전택면을 공격한 작전을 첫 작전으로 기억하였고, 오동골 작전일을 3월 11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149) 임봉익 증언, 2002. 8. 13.

150) 대위 도날드. A. 세이버,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 11. 6,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사료 304.

151)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전후에 부대장은 69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억했다(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백호부대유격전사』에는 대대장 허성룡이 육박전에서 전사했고 정보과장 오선국 등은 생포되기 전에 절벽으로 몸을 날려 죽음을 택했다고 기술했다(186면).

152) 김정환 증언, 2003. 7. 21.

군 레이더 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군 전투기 3대가 로켓포로 기지를 폭격하였다.<sup>154)</sup>

격추된 유엔군 조종사를 구출한 사례도 있었다. 1951년 9월초 오후 2시경 장산반도 상공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쌍발전투기 1대가 월내도를 향해 저공으로 접근하다가 월내도 서남쪽 약 500여 미터 해상에 추락하였다. 부대 본부에서는 즉각 발동선을 보내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그는 영국 전투기 조종사로서 사리원을 폭격하고 장연읍 남대천 철교를 급강하 폭격하려다가 적탄에 맞아 격추되었다. 또한 1952년 8월 22일 대원 11명이 장연 서쪽 5km 지점인 장재동(XC785357) 지역으로 추락한 아군 전투기 조종사 유해와 그 잔해를 수거하기도 했다.<sup>155)</sup>

작전활동은 대개 대원 15명 이상을 공격조로 조직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소규모 작전을 많이 수행했다.<sup>156)</sup> 1951년 7월 용연면 분주소에 내무서원이 20여 명으로 증강되고 당원들까지 무장시켜 수시로 북한군과 함께 불타산 대경골의 유격대 중간 기지로 통하는 출입로에 대한 매복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격대 가족을 비롯한 반공인사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13일 한택수·주재련 등 12명으로 편성한 홍병수 특공대는 육도를 출발, 불타산 대경골에 도착하여 15일 새벽 1시경 분주소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특공대는 3면을 포위하고 20~30미터까지 접근하여 기습 공격으로 13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권총 2정, 소총 10정 등을 노획하고 수감된 반공인사 20여 명을 구출하였다.

7월 하순경 성주산 정보대(대장 이인영)는 대구면 송천리 서쪽 야산 배나무골에 위치한 북한군 무선통신소를 탐지하고 곧 부대본부로 연락하였다. 부대장은 통신소를 폭파시키기 위해 민중선과 김성수(17세) 대원을 선발하여 카빈 소총과 폭약 20파운드의 배낭 1개씩을 휴대시켜 출동시켰다. 8월 2일 밤 폭파대는 육도를 출발하여 배나무골 통신소가 위치한 뒷산에 올라 폭약상자 2개를 초가집 아

153) Ben S. Malcom, Intel. Officer, HQ Op. Leopard, "Certificate" Nov. 6, 1952(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154) 오세훈 증언, 전우회, 2003. 8.

15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2" Aug.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56) 『유엔군 유격전』, 29면; 『박철 부대장 증언』 1952. 11. 3.

궁 속 깊이 투입하여 통신소를 파괴했다.

9월 20일 최태식·고준섭 등 9명의 특공조가 대구면 용반리 교회에서 당 간부·내무서원·북한군 등이 모여 회식하고 있을 때 급습하여 북한군 5명을 사살하고 정치보위부원 2명을 생포 귀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10월 15일 최태식 특공조는 장연 남대천 장군 철교가 우군기 폭격으로 파손되었으나, 적의 긴급복구로 열차가 계속 통과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다량의 화약을 교량 동단에 설치하고 폭파시킨 후 육도 기지로 귀대하였다.

1952년 7월 15일 대원 3명이 노동당 집회를 공격하여 간부 14명과 북한군 3명을 사살하고, 귀대하던 중 7명을 더 사살했다. 10월 22일 북한군이 유격대 토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연 남서쪽 약 10km 지점인 서촌(XC755304) 지역에 있는 제108부대 본부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원 11명이 당촌(XC742302)에 매복하여 그들이 개울을 건너려는 찰나에 기습하여 38명을 사살하였다.<sup>157)</sup>

여름과 가을에는 현물세 징수현장을 공격하거나, 현물세의 수송, 창고 등을 공격했다. 1952년 10월 15일 대원 12명이 출동하여 용연 동남쪽 오반동 해안가(XC725168)에서 시행하는 현물세 징수를 방해하였다. 같은 달 26일 대원 11명이 송천리(XC754175)에서 현물세를 싣고 해변으로 수송하는 우마차 13대를 공격하여 북한군 6명과 황소 13마리를 죽이고 150가마를 파괴하였다.<sup>158)</sup>

중대규모 작전이나 다른 부대와 협동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1952년 8월 30일 02시 대원 60명이 미군 장교 2명의 지휘아래 용연군 선교리 해안가(XC540243)로 상륙하려다, 북한군의 반격을 받아 교전 중 6명을 사살하고 피난민 11명을 구출했다. 미군 장교 2명과 대원 20명이 백석동(XC579194) 지역으로 진격하여 다른 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을 공격하여 8명을 추가로 사살했다. 10월 3일 대원 46명은 장연군 서의동(XC815365)에서 북한군·전쟁미망인·당원 등이 잔치를 벌인 장소를 습격하여 북한군 87명과 공산주의자 31명 등을 사살하고 우마차 8대와 쌀 6,804kg 등을 파괴하였다. 1952년 6월 15일 동키 제1부대와 함께 태탄 북서쪽

157) CCRAK Guerrilla, "Summary No. 72, 163" July 28, Oct.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58)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5, 168" Oct. 21, Nov. 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이외에도 많은 공격이 있었다.



약 12km 지점인 오류동에서 열리고 있던 인민위원회의를 공격하였다.<sup>159)</sup>

## 라. 주요 작전

### (1) 후남전투

작전 규모나 성과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전은 후남 작전, 몽금포 개성촌 작전, 제작리 작전, 육마합 작전, 웅진 북교정 전투, 덕동포 작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후남 작전과 덕동포 작전을 다루었다.<sup>160)</sup>

<요도 5-3> 주요 작전기지와 지역



159) CCRAK Guerrilla, "Summary No. 41, 105, 144" June 25, Sep.1, Oct. 10, 1952.

160)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9.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백호부대 유격전사』 참조.

후남 작전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951년 6월 20일<sup>161)</sup> 후남면 ‘남창 분주소’를 기습하여 북한군과 내무서원을 사살하고 30여 명의 소화기를 노획하고, 반공인사 35명을 석방시켰다. 10월 중순 첩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후남면 중평리에 식량과 각종 부식물이 술밭에 야적되어 있고 북한군 1개 중대와 내무서원 30여 명이 불타산 출입로와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2~3일 내로 위문 공연대가 도착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작전목표는 북한군 중대와 내무서 분주소를 기습하여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식량을 노획하려는 데 있었다. 1951년 10월 28일 마합도와 육도 대원 200여 명으로<sup>162)</sup> 공격부대를 편성하고 육도 기지로 집결하였다. 참모장 이하 대부분 지휘관이 참전한 특공대는 하대원 작전참모가 지휘하였다.

28일 일몰과 동시에 발동선 대영호를 모선으로 8척의 선박이 구미포를 멀리 돌아 중평리 남방 도지리 해안에 도착하였다. 후남이 고향이어서 지리조건에 능통한 작전참모와 이장호 대원 이하 10여 명을 선두로 상륙을 개시하였다. 29일 새벽 4시경, 해안의 갈대숲을 통과하여 목표지점인 중평리 1km 지점인 고현리 뒷산에 완전 집결하여 분주소의 북한군 주둔지를 완전 포위한 후 5시 정각을 기하여 기습공격을 하였다.

새벽 잠에 취해 있던 적군은 대항할 겨를도 없이 도주하였다. 적의 퇴각 예상로인 향초리로 향하는 계곡에 매복 중이던 대원들은 패주하는 적에게 집중공격을 가했다. 북한군 막사·분주소·노동당·인민위원회 등 각 기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날이 밝자 중평리 좌우측 동산동 능선과 선저동 고지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수색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 25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2명과 내무서원 3명을 생포하였으며, 소총 30여 정을 노획하였다. 보급대는 우차를 이용하여 야적된 군량미를 남창포구에 대기 중이던 선박단에 싣는 수송작전을 신속하게 전개하였다. 이 때 우군의 작전을 기다리고 있던 듯이 남부여대한 주민들이 포구를 향해 줄을 이었

161) 4월 30일과 5월 26일에 작전이 있었다는 기억도 있다(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162) 작전일자를 1952년 12월, 대원 규모를 170명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민족의 증언: 백호부대』, 『중앙일보』 1972. 7. 10).

다.<sup>163)</sup> 우익인사와 그 가족 100여 명을 비롯해 양곡 300여 가마와 농우 130여 두를 싣고, 대원들은 부대가를 부르면서 마합도와 육도 기지로 귀환하였다.<sup>164)</sup>

## (2) 덕동포 북한군 포대 공격작전

월내도 맞은편 덕동포에는 북한군 중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는 산이 하나 있었다. 북한군이 그 곳에서 유격대를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부어, 유격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북한군 1개 중대병력이 유격대의 기슭에 대비하여 150m 고지에 함포사격에 대비하여 견고한 땅굴 막사를 구축하고, 포대까지는 교통호로 연결하여 4문의 포로 경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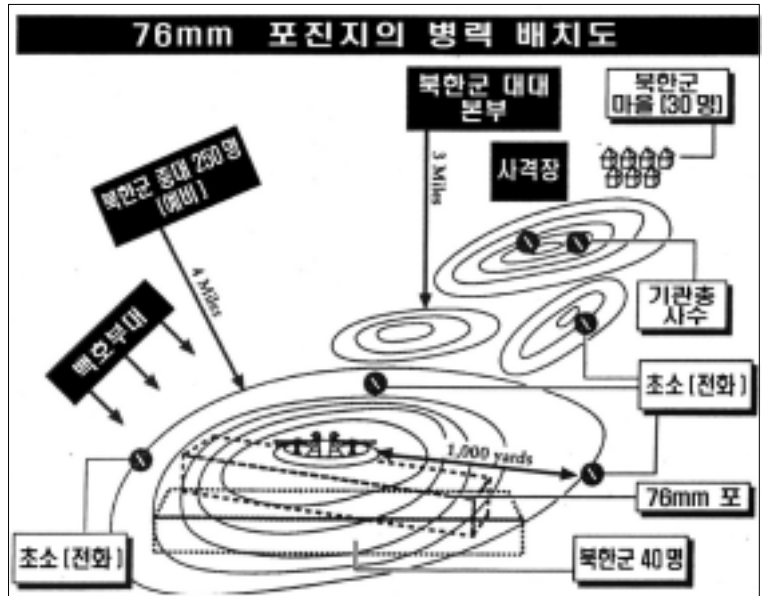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지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공중폭격과 함포사격을 계속하였으나 탄약만 낭비할 뿐 효과가 전무하자 유격대가 상륙작전을 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14일 덕동포의 북한군 포대를 공격하였다.<sup>165)</sup> 이 작전은 백호부대가 유엔군의 함포사격과 공중지원을 받아 실시한 첫 합동작전이었다. 미 고문관 맬콤(Ben S. Malcom) 중위는 백령도 기지사령관 다이(Thomas A. Dye) 소령의 승인아래 동행하였다. 그는 사격조정을 협조해 주는 것 외에 유격대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1952년 7월초 김영신·정응환·강만영으로 구성된 정보대를 적 포대 서북방 1km 지점인 287고지에 잠입시켜 적정을 수집한 후 기습작전계획을 세웠다. 지휘

163) 20명을 사살했고, 2명이 전사했다는 기술도 있다(최문려, 『유격대전적 개황보고』, 1975. 9).

164) 이 작전에서 마을을 장악하고 공산당원을 색출할 때, “나는 공산당이 아니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한 청년이 옛 친구임을 확인하고 함께 섬으로 철수했다. 그는 종전 이후 해병대 10기로 입대하였다. 그를 구했던 대원은 “죽고 죽이는 끔찍한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비극의 시절, 친구의 얼굴을 그 때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친구가 그때 내 눈에 띄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친구는 평생동안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나 역시 그때 그 친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친구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도 했다는 것. 그 기억이 내 평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백성옥 중언, 전우회, 2003. 8).

165) 이미 1952년 5월 1일, 13일에도 덕동포에 대한 상륙작전이 있었다(『대한민국해군사-작전편』 2, 51면).



덕동포 진지 단면도

부는 송성일 참모장을 비롯해 오종국 대대장·여성순 통신대장·오종환 중화기 중대장 이하 15명으로 구성하고, 공격대를 3개 조로 편성하였다.<sup>166)</sup> 150고지 적 지하 벙커 공격대는 최경현·김선엽 중대장이 각각 맡고, 적 포대 공격대는 최한철 대대장이 지휘하였다. 박창훈 대대장이 담당할 예비대는 공격작전 후 철수로 확보와 적군의 반격에 대비한 지원부대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7월 14일 새벽 1시, 대원 120명<sup>167)</sup>이 5척의 선박으로 월내도 북방 5km 지점 백사동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 날은 습격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밤으로 반달이 떠 있었지만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불과 7~8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배들도 윤곽만 겨우 보일 정도였다.

전일 오차봉에 침투하여 백사동 상륙지점에 대한 경비 상황을 확인한 3명의 정보원이 보낸 안전신호를 받고 해안에 무사히 상륙한 공격부대는 능선을 따라 공격목표 150고지와 연하는 북방 800m 거리인 259고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집결지를 편성하고 공격개시 시간을 기다렸다. 일부 대원들은 북한군 진지를 연

166) 박철 부대장은 맬콤 중위와 같은 조로 편성하여 참가하였다(맬콤, 앞의 책, 184면).

167) CCRAK Guerrilla, "Summary No. 63" July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부대사에는 200명으로 기술되었다(206면).

결하는 4개의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04시 30분부터 30분간 영국 해군에서 북한군 포진지에 대한 함포 사격을 한 후, 이어서 미 해병대 커세어(Corsair) 전투기 3대가 로켓포와 기관총 사격을 한 뒤 참모장의 사격명령과 함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sup>168)</sup> 함포와 전투기 공격을 받았지만, 북한군은 진지 속에서 응전했다. 공동구 기관총 사수의 지원을 받아, 김상진 분대장 외 3명은 수류탄을 양손에 들고 교통호를 향해 돌진하여 적 수명을 쓰러뜨렸으나 김상진이 적의 총격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를 목격한 김선엽 중대장을 선두로 10여 명의 결사대는 엄호 사격하에 돌진해 갔다. 피아간의 수류탄이 교차되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김선엽 중대장과 이만복 대원은 적군이 교통호에서 던진 수류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포대공격대는 포대를 방어 중인 적 20여 명과 교전 끝에 적 전원을 섬멸하고 지하에 숨겨 놓은 직사포를 파괴하고 고지의 적 공격에 합류하였다. 30분 이상 교전이 계속되었으나 북한군 모두 토치가 안으로 숨어 들어간 채 응사를 해올 뿐이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유격대는 작전이 길어지면 전투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 진지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교통호까지 진입하였다. 그러나 흥가리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지원병력이 공격을 감행해 왔다. 송성일 참모장이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무전기 2대 중 1대가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파괴되자 후퇴하였다.

대원들은 함포와 전투기의 지원 아래 해안 선박대기 지점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고지로부터 빗발치는 적의 사격으로 후퇴 중 수명이 전사하였다. 기지로 되돌아가는 항해는 상륙할 때만큼이나 어려웠다. 대원들이 배에 모두 승선한 뒤에도 북한군이 계속 쉬지 않고 공격을 해 와 바다로 나가면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sup>169)</sup>

대원들은 적의 76mm 포·맥심중기·참호 2곳·탄환 수천 발 등을 파괴시켰고, 북한군 63명을 사살하였으며 수류탄 65발·북한돈 43,000원·황소 5마리 등을

168) 부대사에는 6시에 공격한 것으로 기술되었다(206면).

169) 김영신·최한철·문인학 증언, 전우회, 2003. 8.

노획했다. 노획한 무기 가운데 몇 정은 1952년형 소련제 경기관총(PPSH)이었다. 이 총은 중공이 만든 따발총(50형 경기관총)과 같은 모델로 소련에서 제조한 신 품이었다.<sup>170)</sup> 함포와 공중 폭격 지원으로 별도로 북한군 162명을 사살하고 대대 본부·통신장비·막사 등을 파괴했다. 따라서 지상공격·함포사격·전투기 공습을 종합하면, 북한군 약 225명을 사살하고 2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대원 가운데 김선엽·조남식 등 8명이<sup>171)</sup> 희생되었고, 송성일·정응환 등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송성일 참모장이 대퇴부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효과적인 지혈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었다.<sup>172)</sup>

맬콤 중위는 이 작전으로 유격대가 전쟁터의 외곽에서 활동하는 오합지졸이 아니며 정규군만큼이나 유능하고 헌신적인 군대임을 알려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투의 전과로 미 은성훈장을 받았다.<sup>173)</sup>

## 5. 동키 제5부대

### 가. 부대연혁

처음 창설된 동키 제5부대는 타이거여단 전신으로 백령도 작전 기지사령부 통제아래 활동하던 중 울퉁기지가 창설되면서 울퉁 제2부대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편제상 1개 부대가 부족하자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새로 제5부대를 창설 하였다.

1952년 2월 15일<sup>174)</sup> 동키 제2부대에서 감찰부장을 지냈다가 제20부대로 개편

170) 『백호유격부대전사』, 218-219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3” July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71) 6명 혹은 19명이 전사했다는 보고도 있다.

172) 이종은 증언, 전우회, 2003. 2. 21.

173) 벤 S. 맬콤, 『백호부대유격전사』, 174-175면, 2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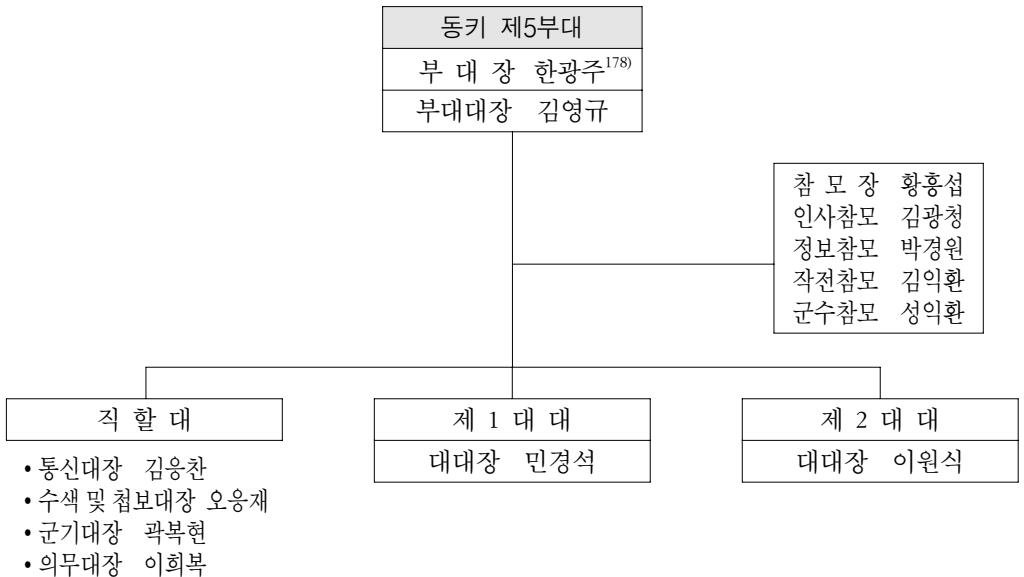
174) 『8240부대 5연대』, 1975. 그런데 창설시기에 대해 1951년 4월 혹은 10월 13일 등 여러 의견이 있다(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157면; 전우회, 『동키 제5연대』, 2003. 4; 박

되었을 때 이탈하여 백령도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국군 낙오병 박생년과<sup>175)</sup> 신천 10·13의거에 참가했던 한광주(해군 헌병대 문관)·황홍섭·이병렬, 백령도 출신 박경원(해군 정보대 문관)·김영규 등이 150여 명의 대원을 모아 백령도에서 동키 제5부대를 창설했다. 동키 제1부대장 장재화·해군의용대 김장성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키 제1부대로부터 이병렬·김영환·민경석 등이 합류했다.<sup>176)</sup> 부대장 고향인 평북 철산군 천마산의 이름을 따라 천마부대라고도 했다.

당시 간부는 부대장 박생년, 부부대장 한광주, 인사참모 김광청, 정보참모 김영규, 제1대대장 박경원, 제2대대장 김영환 등이었다. 이들은 백령도에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1952년 6월말경 초도로 이동했다.<sup>177)</sup>

그런데 부대장 박생년은 부대 기지인 초도로 올라가지 않고 백령도에서 가족과

<지휘관 및 참모>



경원 증언, 2003. 12. 11).

175) 『구월산』, 129면; 김중벽,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1967, 114면.

176) 『동키 제13부대장 증언록』 1952. 11. 3; 전 우회, 『동키 제5연대』, 2003. 4; 민경석 증언, 2003. 12. 7.

177) 박경원 증언, 2003. 11. 8; 황홍섭 증언, 2003. 11. 13. 동키 제5부대를 구월산 내륙기지 부대로 편성했다는 서술도 있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53면).

178) 한영호라고도 했다(『당나귀』 1, 1952. 11, 16면).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부대 지휘를 소홀히 하였다. 1952년 9월경 대원들 사이에 부대장을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자, 일부 간부들이 평북 출신을 다시 부대장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신천 지역 출신들이 신천중학교 교사출신으로 부부대장인 한광주를 부대장으로 추대했다. 이 때 대원의 규모는 170여 명 정도로 2개 대대로 개편했다. 대원들은 신천 출신이 주로 많았으나, 백령도 현지인과 평안도 출신도 있었다.<sup>179)</sup>



부대장 한광주와 인사참모 김광청(부대본부앞)

1953년 5월경<sup>180)</sup> 동키 제5부대는 작전지역이 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보를 제때에 수집하기 어려워 다른 부대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인데다, 보급관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보급품을 인천으로 빼돌려 도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즉시 인원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원이 보고인원 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자 부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따라 황홍섭, 이병렬 등은 신천출신으로 편성된 동키 제1부대와 제13부대로 갔고, 일부는 제4, 8부대 등으로 가서 합류하였다.<sup>181)</sup> 정보참모 박경원은 미군 첩보대로, 군기대장 곽복현은 친지가 있던 봉부대로 갔다.<sup>182)</sup>

179) 1952년 말까지 1,106명까지 늘어났고, 대원들은 대부분 옹진출신이었다는 기록은(『유엔군 유격전』, 67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원의 규모를 600명 혹은 670명이라고 한 기록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157면).

180) 6월말이라고 기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53년 2월 보고서에서 동키 제5부대는 누락되었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9면).

181) 한광주·한홍섭 증언, 2003. 12. 16.

182) 곽복현 증언, 2003. 12. 9; 한광주 증언, 2003. 12. 16.



## 나. 주요 작전활동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부여받은 작전지역은 평안북도 지역으로, 부대본부인 초도에서 평북 지방까지는 1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평북 청천강 앞 납섬, 신미도 등까지 출동하려면 동력선으로도 이틀 이상 항해해야 했으므로 배멀미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해상의 기상이 나쁠 때에는 육지에서 작전을 끝내고 귀환하지 못해 적지에서 고립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부대장이 교체되면서 평북 출신의 간부와 대원이 이탈한 후 신천이나 백령도 출신 대원들은 작전 지역의 지리에 밝지 못해 첩보수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sup>183)</sup>

따라서 부대는 소규모의 공작대원을 파견하여 적 부대위치와 이동 등 첩보수집과 항공기 목표물 탐지, 철도 및 교량파괴, 내무서 기습, 피난민 구출 등을 수행했다. 대표적인 첩보수집 사례로는 1952년 8월 16일, 소규모의 대원을 침투시켜 용천 남쪽 약 5km 지점인 북현동(XE220224)에 있는 북한군 수류탄 공장에 대한 B-29 공습 결과에 대해, 수 천명의 노동자 사망·공장, 8곳의 창고, 13대 트럭, 15대 우마차 등을 파괴했다는<sup>184)</sup> 보고를 했다. 같은 해 10월 중순 기지사령부의 명령으로 부대 본부에서는 공작대원을 파견하여 용암포와 천마산 일대의 군사기지 위치, 병력 규모 등을 탐색하여 보고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11월 2일, 영국 구축함이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용암포 일대의 탄약, 군수품 창고 등에 대해 큰 타격을 입혔다. 이 공로로 서울 제8240부대 사령부에서는 11월 20일 한광주 부대장, 박경원 정보참모를 본부로 불러 부대표창과 선박구입 대금 1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한다.<sup>185)</sup>

소규모 대원으로 양곡 창고, 내무서 등을 공격하여 적 후방을 교란했다. 1952년 4월 7일, 박경원 정보참모가 김창수 등 공작대원 9명과 함께 평북 철산군 지역으로 침투하여 철로 2곳과 군 수송차량을 파괴하고, 양곡 창고 3개소에 방화하는 전과가 있었으나, 신익순·오두항 등 5명이 전사했다.<sup>186)</sup> 8월 9일 대원 4명

183) 전우회, 『동키제5연대』, 2002. 8.

184)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0" Sep. 1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보고서에는 노동자 3,000명의 희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185) 전우회, 『동키 제5연대』, 2003. 11; 박경원(정보참모) 증언, 2003. 12. 5.

이 평북 용천군 인흥리 부근(XE280230)에서 공산주의자 2명을 생포하여 기지로 귀환 중 내무서원들의 공격을 받아 포로 2명과 내무서원 2명을 사살하였다. 11일 대원 4명이 조선소에 잠입하여 3톤 짜리 정크선 1척을 폭파하였다. 12일 역시 대원 4명이 용천군(XE203363)에서 7m 길이의 시멘트 다리를 폭파하였다.<sup>187)</sup>

주요 작전으로는 납섬, 신미도, 용암포 기습이었다. 1952년 2월 하순 평북 철산군 백량면 대화도 동남쪽 해상의 무인도인 납섬에 북한군 1개 소대가 진주하여 해안을 경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6일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작전 참모 김익환·제2대대장 김영환은 대원 100명을 동력선 2척에 분승시켜 백령도를 떠나 초도를 거쳐 이틀 후인 28일 22시경 납섬에 상륙하였다. 대원들은 섬마을을 포위한 후 기습공격으로 북한군 18명을 사살하고 김만섭 외 11명을 생포하는 한편, 소총 8정·다발총 3정·경기관총 1정 등을 노획하고 섬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 때 김천수·김영진 등 대원 3명이 전사했다. 부대 본부에서는 납섬을 첩보공작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제2대대와 교대한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을 1953년 4월까지 잔류시켰다. 이 기간 중 중대는 기상 악화와 해상 결빙으로 보급이 중단되어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공중보급을 받았다.<sup>188)</sup>

1952년 3월초 평북 선천군 연안에 있는 신미도(身彌島) 동담동에 북한군 70여 명이 주둔해 있고, 섬 북쪽 길사 부락에도 수 미상의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영환 제2대대장은 동담동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약 100명의 대원을 이끌고 출동했다. 이 작전에는 미군 고문 맬콤 상사도 수행했다. 7일 자정 무렵 신미도 진상곳으로 상륙한 대원들이 적의 증원병력의 접근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병력은 동담동 마을을 포위하여 기습공격을 했다. 이 전투에서 취침 중에 있는 북한군 59명을 살상하고 여운성을 생포했으며, 소총 37정·경기관총 2문·권총 2정·양곡 50가마 등을 노획했으나, 김영환 대대장, 김홍중 등 5명이 전사했다.

1953년 3월 초 적지에 잠입하고 있는 공작원으로부터 용암포에 중공군 약 1개

186) 신천부대, 『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187) CCRAK Guerrilla, "Summary No. 96" Aug. 2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88) 신천부대, 『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약사』에 따르면, 출동 대원을 200명이라고 기술했으나 부대규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다른 작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대 규모가 주둔하여 대천강 하구 일대의 해안을 경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3일 부대장 한광주는 초도기지에 있는 대원 100여 명을 동력선과 범선으로 분승시켜 용암포로 출동했다. 5일 야음을 이용하여 상륙한 대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용암포 북쪽으로, 다른 1조는 용암포 남쪽 백양산 기슭에서 상륙했다. 이 때, 중공군은 용암포 남쪽의 내다봉 서쪽 기슭의 민가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명탄을 발사하면서, 그들의 막사를 기습하여 중공군 30여 명을 사살했다. 철수하는 도중에 용암포 포구에 있는 그들의 보급선 1척을 파괴하고 범선 1척을 노획했으나, 김의영·노원모 등 1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sup>189)</sup>

## 6. 동키 제6부대(송림부대)

### 가. 창설과 개편

송림(松林)유격대는 황해도 송림시에서 활동했던 치안대와 반공청년들로 조직된 부대이다. 이미 전쟁 전부터 활동했던 반공단체인 애국학생회가 발각되어 검거된 후에도 안태섭이 중심이 된 무궁회(無窮會)로 이어졌다. 무궁회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서 연유된 것으로 자유와 조국을 위해 무궁토록 무궁무진한 투쟁을 전개하자는 지하 반공조직이었다. 이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맞아, 1950년 10월 9일 일제히 봉기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아군의 북진이 지연되면서 북한 정치보위부에 의해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다행히 일부는 10월 16일 밤에 탈출을 하여 숨어 있다가 며칠 후 유엔군이 진주해 음에 따라 무궁회, 삼천리회(박영선), 대한청년회(김능원) 등이 주축이 되어 치안대(치안대장 박영선)를 조직하였다.<sup>190)</sup>

송림치안대는 조직과 동시에 치안업무에 전념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북한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인 1950년 12월 5일, 송림에서 활동이 불

189) 전우회, 『동키 제5연대』, 2003. 11.

1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62-563면.

가능해지자 초도로 피난을 나왔다. 그러나 이곳에 이미 무장조직이 있어서 무장 해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약 700여 명의 대원들은 다시 광양만을 거쳐 장연군 몽금포에 도착했다. 마침 장연군 일대는 무장치안대들이 곳곳에서 공산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림치안대는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장연치안대와 합류했다. 장연군 소재 불타산에 은거하고 있던 좌익빨치산 토벌, 목감면에서 북한군과의 전투 등 약 1개월 동안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황해도 서부지역을 장악하자, 1951년 1월 중순 송림치안대는 백령도로 철수하였다.

당시 미 제8군사령부에서 서해안 도서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장대를 규합하여 유격기지를 창설하였다. 1951년 3월 송림치안대는 동키 제6부대로 편성되어 식량과 무기를 보급받았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에 산재해 있는 송림무장대와 평북지역 등 반공청년 등 100여 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당시 송림제철소에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대원들도 비교적 출신지가 다양했다고 한다.<sup>191)</sup> 부대 간부로 부대장은 박영선, 보좌관 이원걸, 참모장 문승지, 정보 및 작전참모 정일엽, 보급참모 이선경, 통신대장 안태섭, 제1대대장 권하룡 등이었다. 부대본부는 초도에 두고, 송림과 황주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했다.<sup>192)</sup>

그런데 1951년 5월경 부대장 박영선이 출신지역에 의한 간부들 사이의 내분으로 사망하자 기지사령부에서 송림부대를 해산함에 따라 대원들은 안악부대·평남부대 등으로 흩어졌다. 그 후 1951년 10월경, 종전 고유명칭을 월봉(月峰)부대로 바꾸고 문승지 참모장이 부대장이 되었다. 월봉은 송림에 있는 월봉산 혹은 월봉리라는 지명을 따온 것이다. 이 때 재편된 간부는 참모장 정의호, 정보참모 김휘성, 작전참모 정숙경, 군수참모 김정엽, 대대장 권하룡 등이었다. 그러나 대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규모 있는 부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원들을 동키 제13부대로 보내 훈련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1952년 2월 중순경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부대개편 방침에 따라 월봉부대가 해산되자,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일부는 인천·부산 등지로 남하했다.

191) 문승지 증언, 2003. 11. 5.

192) 송림유격대전우회 전적사편찬위원회, 『송림시 반공무장대와 유격활동』, 1995. 12;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35면.



기지사령부의 사열기념(1953. 10. 24)

그 후 1952년 5월경<sup>193)</sup> 문승지·손성석이 월봉부대를 재차 창설했다. 대원들은 평남출신이 많았다. 부대는 초도에 본부를 두고 송림·황주·평양 등지까지 공작원을 침투시켜 첩보·파괴·심리전에 주력했다. 그 해 연말에 동키 제8부대가 해

산되면서 그들이 합류하여 대원이 340명이었다.<sup>194)</sup>

휴전 후 용유도로 이동해 전투훈련과 낙하훈련을 등을 하다가,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7대대로 재편되었다가, 1953년 11월 정공렬이 부대장이 되었다.<sup>195)</sup> 대원들은 제대하거나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 나. 주요 작전활동

부대의 작전기지가 대동강 하구로부터 깊숙이 들어간 곳이어서 어느 유격부대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거점을 초도에서 청양도(靑洋島)로 옮겼다. 부대의 작전활동은 송림·황주·사리원 등지까지 첩보 수집, 파괴, 반공인사 구출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951년 5월 중순경 전초 기지인 상취라도와 호염도에서 김정엽, 김덕전 등 3명이 작전수행중 대공포에 의해 격추된 미군 조종사 각각 1명씩을 구출해 미군 헬리콥터에 인계했다.<sup>196)</sup>

193) 1952년 가을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황해도지』, 344면).

194) 『8250제6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안악군지』, 417면; 김덕전 증언, 2003. 12. 13.

195) 『8250제6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송림유격부대 전우회, 『정공렬 전우의 무공수훈 사실확인 청원서』 1994. 10.

196) 김덕전 증언, 2003. 12. 12.

1951년 4월 22일 구월부대와 함께 영국 순양함의 엄호지원을 받아 월사리 반도 상륙하여 해안포대를 파괴하는 등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sup>197)</sup> 5월 8일 은율군 이도면 전투에서 북한군 2개 중대와 공방전을 벌여 대공포대와 진지를 파괴한 후 철수했다. 9월 초순 송화군 풍천리 출신 신모로부터 정치보위부 선전실에 반공인사들이 억류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작대원 5명과 대원 40여 명이 풍천에 상륙했다. 경비대원 6명을 사살하고 반공인사 30명을 구출하여 월남을 원하는 주민과 함께 초도기지로 복귀했다.

1952년 8월 25일 대원 45명이 진남포 염곡리 해안가(YC050879)에 있는 북한군 2개 소대를 공격하였으나 35분간 교전 끝에 증원군이 오자 철수했다. 전과는 7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으며 1척의 정크선을 노획했으나 대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sup>198)</sup> 9월 24일 02시 대원 23명이 온천 서남쪽 약 10km 지점인 화도(XC853975)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북한군과 교전하여 북한군 7명을 사살하고 초소를 파괴하였다. 철수하면서 대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99)</sup> 10월 25일 대원 35명이 진남포 서쪽 2km 떨어진 염곡리(YC049885)로 상륙하여 북한군 1개 소대와 교전하여 3곳의 토치카를 파괴하고 16명을 사살했으나, 대원도 1명 전사하였다.<sup>200)</sup>

공중침투작전도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다. 1952년 6월경<sup>201)</sup> 정황엽을 비롯해 30여 명은 베이커기지에서 15일간 낙하산 훈련을 받은 후, 인민군 복장으로 변장하고 송림시 송림산 산악지대와 황주군 소재 정방산으로 투하되었다. 그러나 투하 직후 적에게 노출되어 일부 대원은 투항하고 사살되었다고 한다.<sup>202)</sup>

197)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63면.

198)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4" Aug. 3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CCRAK Guerrilla, "Summary No. 114" Sep. 10, 1952, 같은 문서.

199)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9" Oct. 5, 1952.

200) CCRAK Guerrilla, "Summary No. 170" Nov. 5, 1952.

201) 증언자에 따라 1951년 6월 혹은 8월경으로 기억되었다.

202) 문승지 증언, 2003. 11. 5.

## 7. 동키 제7부대(수월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7부대는<sup>203)</sup> 황해도 은율군 읍내 치안대와 특공대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이 지방에 진주하기 직전, 그 동안 지하에서 활동하던 김정태·채용기·고명희 등 10여 명이 북한군 패잔병으로부터 탈취한 소련제 소총 2정, 군 내무서를 수색하여 획득한 엽총 2정과 수류탄 10발 등으로 은율 읍내를 장악했다. 이들은 곧 치안대를 조직하고 대장에 김정태, 부(副)대장에 채용기를 선출하는 한편, 북한군 패잔병과 빨치산 토벌을 위한 특공대를 조직하고 장선우를 대장에 임명했다.

은율군이 구월산으로부터 1~2km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월산으로 도주한 북한군·내무서원·노동당원 등은 빨치산이 되어 식량과 의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10월 22일부터 은율읍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치안대를 4개 중대와 특공대로 편성하여 전투대대(대대장 김정구)로 확대 재편하였다. 당시 대원이 200여 명이었으나 무장 대원은 46명에 불과하였다.

연이은 구월산 빨치산의 기습으로, 치안대 본부에서는 인근 지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해주경찰대로부터 1개 소대, 장연무장대 29명, 청년방위대 50명 등을 비롯해, KLO 위스키대의 곽한영이 편성한 금강대(金剛隊)도 유엔군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여 치안대를 지원했다. 각 면에서도 북한군으로부터 탈출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들어 치안대 병력이 500명이 이르렀고, 장비도 크게 보충되었다. 이에 따라 은율치안대는 읍내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대(대장 김정태)와 빨치산과의 전투를 맡는 ‘서해지구 경비사령부’(사령관 이동운, 부사령관 채용기)로 조직을 이원화하였다. 면 단위별로 조직된 치안대로부터 적정을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3) 이 부대사는 『은율유격전사』, 『한국전쟁과 유격전』 등을 주로 참조했다.

1951년 1월 중순까지 이들은 향토를 지키며 기습해 오는 좌익빨치산과 북한군과 맞서 싸웠다. 그 후 서부면의 평야전투와 허사리전투 등의 격전을 치렀으나, 그들의 힘만으로 은울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육로 이동이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1월 17일, 한국 해군함정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서해안의 석도를 거쳐 초도로 철수했다. 이곳에서 무장대원은 남고 일반 피난민은 남쪽으로 내려갔다.<sup>204)</sup>

3월 10일 초도로 철수했던 치안대원들과 피난민을 규합하여 조직된 은울무장대는 구월부대의 제6연대로 편입되어 웅도(熊島)에 주둔했다.<sup>205)</sup> 이 때 부대명칭은 구월산에서 은울읍 내의 중앙을 통해서 서쪽으로 흐르는 ‘수다리개울(수월천)’이<sup>206)</sup> 은울을 상징하고 있었으므로 수월부대(水月部隊)라고 불렀다. 당시 간부진은 연대장 박철성, 부연대장 이정세, 부관 정만수, 인사참모 이순근, 정보참모 홍보현, 작전참모 김현태, 후방참모 김학선, 병기참모 장원모, 의무참모 황하영, 대대장 김정구 등이다. 1951년 3월 석탄리와 학계리 인민학교에 주둔한 적을 공격할 때 박철성 연대장이 전사하자, 대원들은 웅도에 도착한 후 김유황을 새로운 연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종벽 구월부대장이 부대를 떠난 후,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동키 제7부대라는 명칭과 초도방위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초도는 38도선 이북 해역에서 그 규모가 크고 소사포라는 좋은 포구가 있어 진남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요충 도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때 다음과 같이 기구를 재편성하였다.<sup>207)</sup>

간부들 가운데 특히 군 경력자가 많았다. 초대 부대장 박철성과 작전참모 김현태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낙오병 출신(이등중사)이었고, 부부대장 이정세, 이시훈 역시 남한 출신의 낙오병이었다. 또한 인사참모 김정구와 훈련대장 이재구는 일본군 출신이고 부관 정만수는 북한군 장교 출신이며 중대장 박인서는 북한군 포병 출신으로, 이들의 군경험은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sup>208)</sup>

204) 『은울유격전사』, 71-73면; 『구월산』, 100면.

205) 『구월산』, 128-129면.

206) 맑은 물 위에 달이 뜬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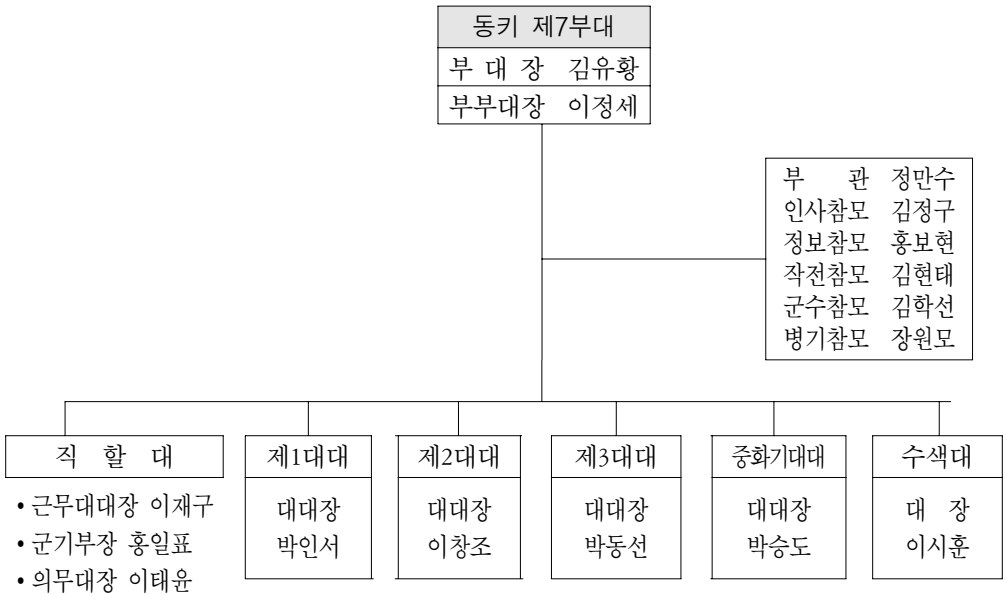
207) 조동환, 앞의 책, 568면. 1951년 3월 15일부터 동키부대로 편입되었다는 기억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

208) 홍일표 · 김현대 증언, 2003. 12. 11 ; 김정구 증언, 2003. 12. 12.

## &lt;지휘관 및 참모&gt;



1951년 10월 18일 대원의 규모가 늘어났으나, 부대장 김유황과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 지도력에 문제가 드러나자, 간부 연석회의를 통하여 은울에서부터 치안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활동하였던 김정태를 새로운 부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때 개편된 간부진은 부부대장 김현태, 작전참모 정백호, 후방참모 이순근, 군기부장 이진, 훈련대장 정만수 등이었다.<sup>209)</sup> 1952년 11월경, 부대편제 가운데 참모부서중 앞에서 나타난 병기참모라는 직제를 없애고 병기관으로 하고 군수참모 대신에 후방참모로, 의무대장도 후생부장으로 편성되어 있었다.<sup>210)</sup> 대원의 규모가 1951년 말경 전투원 600명·적지 상주 공작원 50명·비전투원 150명 등 800명에 이른 적도 있으나,<sup>211)</sup> 1952년 11월경 기지사령부에 보고할 당시 대원은 500명이었다.<sup>212)</sup>

209)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김정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조동환, 앞의 책, 568면; 『은울유격전사』, 100-101면.

210) 『T/O D-7』,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211) 『은울유격전사』, 102면. 부대 전성기 때 700명, 혹은 1,000명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 제8240부대약사』 1975. 9; 조동환, 앞의 책, 568면).

212)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김정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휴전협정의 조인이 가까워지자, 1953년 6월 12일 부대는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전사한 대원들을 초도 상동의 '수월묘지'에 남겨 둔 채, 가족들과 일반 피난민들과 함께 초도에서 대청도를 거쳐, 안면도로 이동하여 주둔했다. 7월 10일, 적지에서 철수하는 공작대원을 인솔하기 위해 초도에 잔류해 있던 김정구 정보참모와 공작대원이 합류했다. 안면도에서 다시 부대를 재편하였을 때, 간부진은 부대장 김정태, 부부대장 이순근, 인사 강용일, 정보 김정구, 작전 홍일표, 군수 김병철, 군기부장 이재구, 통신대장 김덕찬, 병기관 김영환, 정훈관 이진복, 제1대대장 박인서, 제2대대장 박동선, 제3대대장 이창조 등이 었다.<sup>213)</sup>



김정태 부대장 훈시(1952. 12. 10)



부대사열(초도)

1953년 8월 용유도 덕교리로 이동하여 동키 제21부대와 합쳐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2대대로 편성되었다. 이미 나이 많은 대원들과 비전투원들이 부대를 떠났고, 1954년 2월 유격대가 해체되면서 부대장 김정태<sup>214)</sup>를 비롯한 19명이

사료 304. 대원의 규모가 473명이라는 기록도 있다(『D-7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213) 『8250부대 제6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214) 그는 1916년 생으로 40세에 이르렀다(K.D 생, 『우리 부대장의 푸로필』, 『당나귀』 4, 1953. 2, 17면).

장교로 임관되는 등 275명이 군번과 계급을 받아 육군 각 사단에 분산 배치되어 복무하였다.<sup>215)</sup>

## 나. 주요 작전활동

### (1) 개 요

#### (가) 은울시기와 구월부대 시기

1950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은울에서 벌인 주요 전투는 5~6차례 빨치산과의 전투를 비롯해 정곡사 토벌작전, 서부면 평야전투, 허사리전투 등이었다. 송화군 치안대가 송화읍의 위급함을 알려와 1개 중대와 직사포 2문을 지원한 적도 있었다.

치안대와 특공대를 편성한지 3일만에 좌익세력에게 습격을 받았다. 1950년 10월 22일 구월산 좌익 빨치산들이 싸리재목과 풍산리 풍동으로부터 공격해 와 주민들과 장영욱 등 2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후 연이어 4~5차례 공격을 당했지만, 치안대원들은 전투를 치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치안대 지휘부에서는 구월산을 평정해야 읍내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월산 토벌을 구상했다. 마침, 구월산으로부터 귀순한 이찬중 대원이 좌익 빨치산의 본부인 구월산 정곡사에서 마침 일부 북한군이 신천·송화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전투대대로 편성된 치안대는 김정구 대대장의 지휘아래 1950년 12월 18일 새벽, 제1중대는 풍산리에서 싸리재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정곡사로 진격하고, 제2중대는 하오개 능선 방면으로, 제3중대는 산동리에서 정곡사 쪽으로 진격했다. 대원들이 능선을 따라 정곡사를 포위 기습하자, 빨치산들은 신천군 달천 방향으로 도주했다. 예비대 제5중대를 투입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공산당원 30여 명과 북한군 20명을 살상하는 동시에 소총 20정·차량 2대·대전차포 2문 등을 노획했다. 이 전투에서 임태섭 대원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sup>216)</sup>

유엔군의 철수 후, 북한군 제26여단 제3대대와 5대대는 장연읍을 점령한 후

215) 『8250부대 제6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1916년 생)는 40세에 이르렀으므로 제대.

216) 김택근, 『은울유격전사』, 2002. 7, 39-42면.

은울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남진하면서 유격대를 추격했다. 유격대는 대원과 피난민의 철수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서부면 평야와 허사리에서 북한군과 대적했다. 1951년 1월 13일 북한군 2개 중대규모가 야음을 이용하여 서부면 소재지 앞 평야 지역으로 진입했다. 유격대는 북한군이 서부면 대조리에 배치되어 있는 제5중대 정면을 지나, 석탄리와 허사리 지역에 있는 제2·3 중대 정면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기습하였다. 제2중대는 무연산 능선을 따라 후방과 측면에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sup>217)</sup> 서부면 평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 허사리에 집결하여 각 중대를 침투로에 배치하는 등 적의 추격에 대비하였다. 1월 18일, 북한군이 석탄리 방향으로 진출하여 당고개 능선의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 때문에 유격대는 앞에는 북한군이, 뒤에는 바다를 두고 있어서 일전을 피할 수 없었다. 이동운 ‘사령관’이 이끄는 제1중대는 당고개 좌측을, 제2중대는 당고개 중앙을 맡아 공격했다. 북한군이 정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격대가 정상으로 진격할 때 박응신·홍용택 등 12명의 대원이 전사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해군 제301정과 제303정에 전투지원을 요청하여 당고개 정상에 대한 함포사격으로 적의 기세를 약화시켜 승리하였다.

1951년 3월 22일 진풍면 석탄리 일원과 은울군 서부면 석교리·학계리 인민학교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후, 박철성 연대장은 각 중대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석탄리와 학계리 인민학교에 주둔한 적을 독재 포구까지 유인하여 섬멸하기 위해, 범선 20여 척과 발동선을 동원하여 부대 단위의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격대는 상륙하기 전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연대장이 중상을 입고 초도로 귀환하였다. 김정구 인사참모가 당황한 대원들을 인솔하여 제1중대는 석탄리 내무서를 공격하고, 제3중대는 학계리 인민학교, 제2중대와 중화기 중대는 월사리 봉화산으로 이동시켜 제1중대와 제3중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적 100여 명을 살상하고 유격대를 추격해 온 30여 명을 생포하였다. 감금된 반공인사 50여 명을 구해 탈출시켰다. 이 작전에서 박철성 연대장이 중상을 입고 마산 육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그 외에 여석주·김용선 등 6명이 전사하였다.<sup>218)</sup>

217) 대원들은 130명을 사살한 것으로 기억했다.

---

218) 김정구 증언, 2003. 11. 14.

## (나) 동키부대 시기

동키 제7부대의 기본임무는 초도방어·첩보수집·적지침투 등이었다. 특히 1952년 초도에 해병대가 주둔한 이후, 방어임무를 벗어나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219)</sup> 풍천상륙 작전·문현리 거무내 작전·몽금포상륙 작전·나브니 작전 등 50여 회에<sup>220)</sup> 걸친 전투를 치르면서 기습 공격을 가한 후 혼란 중에 포로를 획득하는 등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한편으로 박철성 부대장과 이정세 부대장을 비롯하여 많은 전사자를 내었다.<sup>221)</sup>

대개 소규모 대원이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했다.<sup>222)</sup> 1952년 9월 13일 대원 8명이 환관 부근(XC800584)에 총격을 가한 후 북한군이 조사하러 나가자, 이들을 따돌리고 인민위원회를 기습하여 북한군 7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3정·소련제 소총 9정·탄약 800여 발 등을 노획했다.<sup>223)</sup> 10월 10일 이도면 서해리 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포 진지의 위치와 축성 구조를 비롯하여 송화군에 주둔한 부대 등을 탐지하기 위해 2개 조가 출동하였다. 제1조는 중대장 한찬섭 외 7명으로 제2조는 소대장 호승하 외 7명으로 편성되었다. 제1조는 먹산 도사당 고개 8부능선까지 접근하여 지뢰를 매설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북한군이 매복 지점을 통과할 때 지뢰를 폭파시키고 동시에 2개 분대에 타격을 가했다. 제2조는 서해리 반도 석관산까지 침투하여 포진지의 위치와 구조를 확인하였다. 귀환시 피난민 15명을 구출하여 돌아왔다.

30명에서 100명 정도의 대원이 참가한 작전도 활발했다. 1952년 7월 11일 대원 95명이 해안가의 상촌(XC600280)에 있는 북한군 2개 소대를 공격하여 17명을 사살하고 우마차 11대를 파괴하였으며 소련제 소총 5정 등을 노획했다. 대원들도 4명이 부상을 당했다.<sup>224)</sup> 10월 2일 대원 57명이 송화군 권달동부근(XC774602)

219) 조동환, 앞의 책, 568면.

220) 『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공작활동까지 합하면, 150여 회의 작전이라고 기술된 경우도 있다(『은울유격전사』, 95면).

221) 이한중(D-7), 『어느 날의 싸움』, 『당나귀』 2, 1952. 12; 『은울유격전사』, 95면; 이춘복, 앞의 책, 5면.

22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18" Sep.14,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2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3" Sep. 19, 1952.

224) CCRAK Guerrilla, "Summary No. 61" July 15, 1952.

에서 북한군 1개 소대와 30분간 교전을 벌였다. 이 때 철수하면서 교량 2곳과 우마차 5대 등을 파괴하여 총 20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sup>225)</sup> 같은 달 31일 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조로부터 송화군 진풍면 덕정리에 북한군 2개 분대가 해안선 측량과 진지구축을 위해 마을에 주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홍일군 외 15명의 경계조와 박승도 대대장 외 15명의 기습조를 편성하여 공격하였다. 북한군이 자고 있는 가옥을 포위하여 9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3정과 소총 4정을 노획하였다.

1953년 4월초 은율군 남부면 구왕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첩보공작대로부터 은율에서 송화에 이르는 남부면 청계리에 적의 보급수송부대들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정보를 무전으로 접수했다. 부대는 이 수송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이재구 대대장 지휘 아래 30명을 기습조로 선발, 4월 10일 초도를 출발하여 무인도인 청양도를 경유, 은율군 서부면 강운리 지역으로 상륙했다. 기습대원들은 강행군을 계속하여 구왕산에서 첩보공작대와 합류한 후, 적의 보급마차를 기습하기 위해 청계리 고갯길에 지뢰를 매설해 놓고 적의 보급마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대원들이 잠복한 지 이틀만에 적의 보급 우마차 대열이 고갯길로 들어섰다. 우마차 대열이 지뢰 매설지대로 완전히 들어서자 기습대는 전기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10m 간격을 두고 7개소에 매설해 놓았던 대전차 지뢰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보급 우마차는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졌다. 도로 양쪽을 차단하고 있던 기습대원들은 도망가는 적을 사살했다. 이 기습전을 성공시킨 대원들은 구왕산으로 일단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적지 침투 5일만에 초도로 개설했다.

출동 대원의 규모가 100명이 넘었던 전투도 있었다. 풍천 상륙작전은 북한군이 서해안 지역의 각 부락에서 한우와 양곡을 강제로 징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실시되었다. 1951년 10월 5일 이를 노획하기 위해 해군 함정의 지원 아래 김유황 부대장이 직접 지휘하여 초도를 떠나 진강포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여 송화군 상리면 풍천으로 나아갔다. 부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풍천에서 송화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여 적의 증원을 저지하고, 제2대대는 석탄리 방면에서 풍천으로 이르는 도로를 통제하도록 했으며, 제3대대는 문헌리 방면에서 침투하는

225)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40" Oct. 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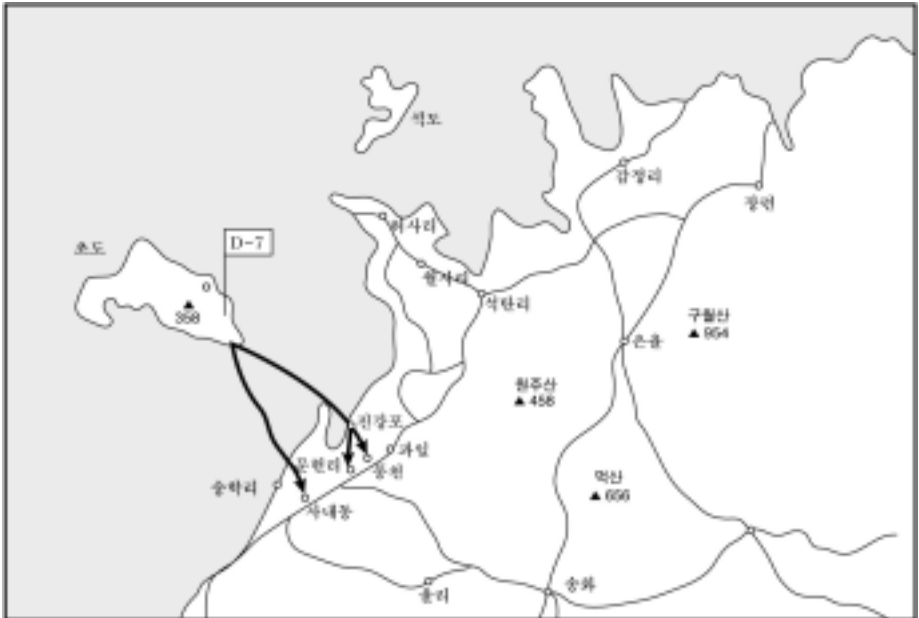


적을 저지토록 배치하였다. 중화기대대는 화력지원을 했고, 근무대대와 수색대는 풍천시가지로 돌입, 내무서를 기습하고 감금되어 있는 반공인사를 구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0월 6일 새벽 4시 제1·2·3대대는 외곽 지역을 경계하면서 시가지에 위협사격을 하였다. 근무대대와 수색대는 시가지로 돌입하여 내무서를 기습하여 내무서원 14명을 사살하고 감금되어 있던 반공인사 60여 명을 구출했다. 한우 90두와 양곡을 노획했으며, 진강포구에 몰린 피난민 1,000여 명을 한국 함정의 지원 아래 철수시켰다.

그 후 6월 17일, 유격대원 220명이 풍해면 사내동 부근(XC708523)에서 북한군과 농민자위대를 공격하여 북한군 47명과 공산당원 1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획득하였으나, 200명 정도의 증원군이 오자 철수하였다. 이 때, 동키 제3부대원 3명과 피난민 21명을 구출하였다.<sup>226)</sup>

<요도 5-4> 풍천, 사내동, 문헌리 작전경로



226) CCRAK Guerrilla, "Summary No. 36" June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25 남침일을 맞이하여 문헌리에 대한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유격대는 송화군 풍해면 문헌리에 약 1개 중대의 적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6월 24일 밤,<sup>227)</sup> 김정태 부대장 지휘 아래 200여 명의 대원이 유엔군 함정 및 한국군 함정의 지원을 받으며 진강포에 상륙했다. 새벽 4시, 제1·2대대로 하여금 문헌리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중기와 박격포를 설치하고 대원을 배치하였다. 제3대대는 월곡동 및 송학리 일대에 주둔해 있는 적에 대하여 일제히 공격을 가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적이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자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제1대대는 정면에서 적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각 대대의 수색조들이 부락을 수색하여 도망하지 못했던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1개 중대를 거의 섬멸하고 5명을 생포하는 큰 전과를 얻었으나, 아군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원들이 철수를 개시하여 해안선에 도착했을 때 적의 지원부대가 송화 방면에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부대장은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함정에 연락하여 함포사격으로 적의 진출을 저지시키고 대원을 무사히 철수시켰다.<sup>228)</sup>

7월 10일 대원 165명이 청룡동·유곡동 등 4곳으로 출동하여 북한군 41명과 공산당원 5명을 사살하고 막사 3동·우마차 7대 등을 파괴하였다. 그 외에 소련제 소총 4정·농우 10마리 등을 노획하였으나, 대원 1명이 전사하였다.<sup>229)</sup>

1952년 8월초 유격대의 기습공격으로 계속 피해를 당한 북한군이 서해 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 기지를 습격하기 위해 장연군 해안면 해안 지역에서 작전에 이용할 선박을 수리 또는 건조하고 있다는 첩보를 첩보공작대로부터 입수했다. 8월 5일 한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부대장 직접 지휘 아래 제1대대는 해안면 동쪽 능선을 점령하여 장연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였고, 제2대대는 삼은리 남쪽 야산을 점령하여 건지산에 있는 적의 진출을 차단하도록 배치했다. 그리고 제3대대는 송화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여 적의 증원을 저지할 준비를 하였다. 또한 근무대대와 중화기중대는 부대본부를 경계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227) 6월 25일 밤이라는 기록도(『은율유격전사』, 133면) 있으나, 당시 일기를 따랐다.

228) 祚鉉, 『6·25반격기』 1952. 6. 27, 『당나귀』 3, 1953. 1, 64-69면.

229) CCRAK Guerrilla, "Summary No. 59" July. 1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특공조를 편성, 작업 중인 선박을 파괴하고 해안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경계초소를 수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5일 새벽 5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여 건조하고 있던 선박과 수리 중인 선박 그리고 위장시켜 놓은 수리시설과 도구들을 TNT로 파괴하는 한편, 부근에서 경계하고 있는 초소를 기습하여 18명의 적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했다. 이처럼 수색 및 소탕전을 완료한 후인 오전 9시경에 제1대대 정면으로 적 지원병력이 약 2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장연 방면에서 진공해 오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연대는 즉각 함포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중화기 중대의 화력지원 하에 철수를 감행하여 본대로 무사히 귀환했다.<sup>230)</sup>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몽금포지역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몽금포 지역에 북한군 2개 중대가 조업용 선박과 모종의 선박들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8월 14일 밤 12시, 유엔군 함정과 한국 해군 함정의 작전지원을 받으며 200여 명의 대원은 몽금포 북방 해안에 상륙했다.

각 대대는 상륙과 동시에 적의 지원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각 도로를 차단하고 별도로 편성된 공격기습조가 임무 지역으로 잠입하여 공격명령을 대기했다. 공격은 5시 정각에 개시되었고 기습조는 북한군이 숙영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 연



인민군 소좌를 생포해 오는 사진<sup>231)</sup>



전공에 대한 감사장 수여

230) 미군 보고서에는 8월 6일 20시, 대원 107명이 송현리(XC726528)에 있는 북한군 2개 소대를 공격하여 40명을 사살하고 주민 18명을 구출한 후, 증원군이 오자 새벽 3시에 철수하였다고 기술되었다(CCRAK Guerrilla, "Summary No. 82", Aug. 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231) 대원들은 중좌로 기억했다(『은율유격전사』, 162면).

속적인 수류탄 투척으로 약 50명의 적을 사살하는 한편, 포구를 수색하여 은닉시켜 놓은 선박 5척을 파괴 및 방화하고 많은 어망을 노획했다. 8월 15일 정오 무렵, 아군 함정의 보호를 받으며 피난민 80여 명과 함께 철수했다.<sup>232)</sup>

한편 중공군을 기습하여 전과를 올렸다. 1951년 8월말 부대는 중공군과 북한 주민 자위대가 합동으로 유격대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탄약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우마차 대열이 주기적으로 송현리의 당고개를 통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대한 기습작전을 위하여 대원 40명을 선발했다. 9월 2일 밤 대원들은 박인서 제1대대장 지휘 아래 용수리 해안에 상륙하여 목적지인 송현리 야산까지 침투한 후 적의 수송대가 숙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1대대장은 대원들을 수 개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임무를 부여했다. 각 조는 지정한 가옥들을 포위하고 있다가 새벽 2시 정각에 대대장의 기습신호와 함께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고 집중사격을 가해 30분만에 작전을 종료했다.

1952년 7월 17일 무당리 작전을 전개했다. 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첩보공작 대로부터 중공군 1개 중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 송화읍 북쪽 4km 지점에 있는 무당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이진(李辰)을 대장으로 한 대원 20여 명이 야음을 이용하여 적지에 상륙하였다. 무당리가 해안선으로부터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거리를 행군해야 했으므로, 대원들은 모두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한 다음 경무장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행군을 계속했다. 이들은 첩보공작조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무당리 뒷산에 도착했다.

이 때 무당리에서 휴식을 취한 중공군들은 야간이동을 위해 행군대열을 갖추고 막 마을을 떠나려 하였다. 기습조는 신속하게 중공군 대열에 집중사격과 함께 약 30여 개의 수류탄을 투척하자, 불의의 기습을 받은 중공군들이 미처 응전하지 못하는 사이 70여 명을 살상하고 서둘러 철수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기습조 전원이 ‘인민군 복장’으로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남은 중공군들

232) 대원들은 8월 14일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하나(『은울유격전사』, 154면), 미군 보고에 의하면, 8월 11일, 이 작전과 비슷한 작전이 실시되었다. 대원 225명이 몽금포 북쪽 산내천(XC675518)으로 상륙하여 간촌리(XC685500)를 포위한 후, 북한군을 기습한 결과 66명을 사살하고, 소총 9정과 소 4마리 등을 노획하는 전과가 있었나, 대원 2명도 전사했다(CCRACK Guerrilla, "Summary No. 89" Aug. 1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은 자기들을 기습한 것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때마침 송화읍에 있던 북한군 지원부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중공군들은 북한군이 다시 기습하는 것으로 알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두움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부대간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서로가 적으로 오인하여 이 교전에서 쌍방간에 많은 피해를 냈다고 한다.

1952년 8월 20일 백령도 사령부로부터 송화군 지역의 적정탐지와 중공군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3일 밤 김현태 부부대장 지휘 아래 대원 32명을 기습조와 공작조로 편성하여 덕산 지역까지 무사히 침투했다. 이튿날 적정을 수집한 결과 문촌내 부락에 중공군 부대본부와 예하 지원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인 1개조로 기습조를 편성했다. 27일 새벽 1시를 기해 각 기습조들은 계획에 따라 각 민가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중공군들은 우왕좌왕 도주하다가 기습조에게 사살되었다. 이 작전에서 중공군 1명을 생포하여 중공군 연대규모의 부대가 송화 지역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령부에 보고하여 공군기의 폭격목표로 제공하였다.

1952년 10월 19일 대원 55명이 해평촌(XC867722)에 상륙, 은거지를 구축하고 척후조를 파견하여 이 지역(XC942727)에 있는 중공군 1개 기병소대와 북한군 2개 소대와 교전했으나, 20일 13시 그들의 추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3명과 북한군 31명을 사살하고 피난민 10명을 구출했으나 대원 2명도 전사하였다.<sup>233)</sup>

## 8. 동키 제8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8부대에는 소수압도로 피난했던 해주출신이 결성한 해주부대와 이들이 울퉁 제4부대로 재편된 후, 별도로 송림 출신으로 구성된 송림호남(松林虎南)부

233)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5" Oct. 3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대가 있었다.<sup>234)</sup>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해주 지역에서 이중기·김덕빈 등은 향토방위대·대한청년단 등을 결성하여 치안확보에 협력했다. 그러나 유엔군이 후퇴하자, 1950년 12월 15일 평양 지역 주민들이 남으로 피난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19일에 황해도 주민들도 해주 쪽으로 피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군이 웅진반도를 차지하자, 해주를 위시한 웅진군 동부지역, 벽성군 천결면·내성면 지역에서 무장치안대 활동을 하던 반공청년과 학생들은 용매도를 비롯해 해주만에 위치해 있는 소수압도(小睡鴨島)로 피난했다. 소수압도는 행정 구역으로는 웅진군 송림면에 속해 있는 작은 섬으로 해주로부터 2.5km에 불과한 해주항의 관문이었다. 웅진군 송림면 도화리와의 1km 거리에 있었다.<sup>235)</sup> 이들은 봄이 되면 유엔군이 곧 반격해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 곳으로 남하하지 않았다.

당시 소수압도에는 섬을 지키고 피난민을 돌볼 기관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민들은 물론 피난민들에게 굶주림과 추위보다도 북한군의 침공이 더 두려웠다. 1951년 1월 10일 이중기·최명규·김상환 등 12명은 섬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고향 수복을 모색하면서, 해주지구결사대(대장 이중기,<sup>236)</sup> 부대장 김덕빈)를 결성했다. 피난 나온 많은 반공청년들이 자진 참여하여 대원이 500명에 이르자 해주연대로 확대했다.<sup>237)</sup>

대원이 늘어나자 보급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중기를 비롯한 간부들이 백령도에 창설된 미 제8군 유격기지를 방문하여 무기와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51년 2월 12일 해주연대는 동키 제8부대로 편입되었다. 부대는 작전지구를 배정받아 무기와 기타 보급품을 수령하는 한편, 간부들에게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실시하는 기간요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부대 체제도 새로 갖추어 정보참모 아래 정보소대와 공작소대를 형제섬·닥세미섬·육세미섬에 파견하여 적정을 수집했고, 대원이 늘어나면서 부대 내의 질서확립과 의

234) 해주유격부대전우회, 『전사기록』, 1984; 『황해도지』, 343면.

235)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 전사』, 2003, 182-183면, 40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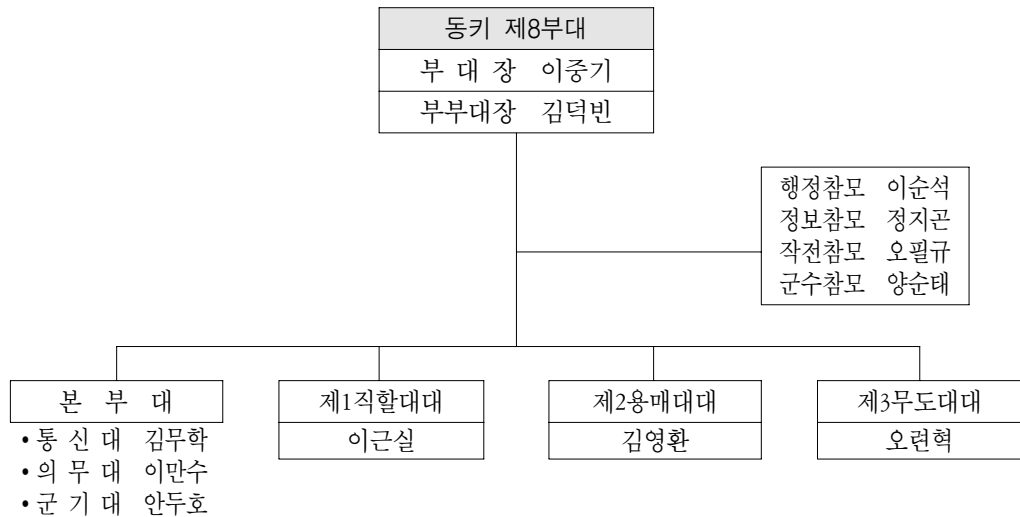
236) 그는 일제시대 황해도청 산업과와 국군 수복 후 해주시청에 근무했다고 한다.

237) 『해주유격부대전사』, 22면, 205-207면, 216-217면.

부로부터 내왕하는 피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군기대를 설치했다. 대원들은 직할대대·용매대대·무도대대 등 3개 대대로<sup>238)</sup> 편성되었다. 직할대대는 소수압도 방어임무를 담당하면서, 공병특수중대를 운용하여 교량 등의 폭파작전을 지원했다. 용매대대는 특공대·결사대·육탄대·공작대 등을 조직하였고, 무도대대는 정보중대와 특공중대를 편성하여 유격전을 전개했다.

1952년 5월 율령 제4부대로 변경된 후, 동키 제8부대는 송림의 무궁회(無窮會) 회원이 주축이 된 송림호남부대로 재편되었다. 당시 간부는 부대장 안태섭, 인사참모 이병호, 정보참모 권오운, 작전참모 전세은 등이었다. 본부는 소청도로 하였지만, 웅진지역 출신 대원이 많아서 전초기지를 웅진반도 지역인 순위도에 두었다.<sup>239)</sup> 참모부서로 인사과, 정보과, 작전과, 군수과로 편성되었다. 작전과에는 중대 규모의 1개 대대와 1개 분대 규모의 특수공작대를 두었다. 정보과에는 1개 소대 규모의 공작대와 2개 소대로 편성된 첩보대가 있었다. 1952년 11월 초 대원

#### <지휘관 및 참모>



238) 이전 기록에는 1951년 4월, 3개 중대를 편성하여 1중대 누이고지, 제2중대 깊은 구미, 제3중대 긴장수리 등으로 방어지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239) 송림유격부대 전우회 전적사 편찬위원회, 『송림시 반공무장대와 유격활동』, 1995. 12.





이중기 부대장과 간부들  
(1951. 5)

규모는 117명으로 약간의 여성대원도 있었다. 대원의 규모가 적어서 첩보작전과 소규모 작전을 많이 수행했다. 작전과에 소속된 인원이 53명, 정보과 소속이 50명으로 첩보수집 활동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sup>240)</sup> 첩보수집을 위해 일부 대원은 북한 지역에 기지를 구축했다.<sup>241)</sup>

본부는 소청도에 있었으나, 1952년 10월초 대원 대부분이 내륙으로 침투하기 용이한 순위도로 이동했다. 그러나 기지사령부의 다이(Thomas A. Dye) 소령이나 왓슨(William O. Watson) 중위로부터 부대 이동을 승인받지 못했다. 왓슨 중위는 이들 부대를 용호도로 이동시킬 것을 고려 중이었다.<sup>242)</sup> 그런데 보고 인원과 실제 인원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서, 1952년 12월경 부대는 해체되었다.<sup>243)</sup> 해체 후 대원들은 평남부대나 안악부대로 또는 백령도의 월봉부대로 갔다.

240) 『D-8 연대 T/O표』 1952. 11, SN 1963. 대원의 규모를 80명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30.

24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5”, Oct. 2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42)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30.

243) 김택전 증언, 2003. 12. 11.

## 나. 주요 작전활동

소수압도를 근거지로 하여 해주시 수양산을 중심으로 벽성군 일대, 용진군 동강면과 봉구면, 연백군 청룡면·일신면·내성면 등이 작전대상 지역이었다.

해주결사대가 창설된 후 1951년 1월 중순, 용진군 동강면 화산리와 금산리 일대의 피난민을 구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하순, 해주에서 토성 사이를 운행하는 해·토선을 이용하여 적군이 야간에 보급품을 수송한다는 정보에 따라, 허성범·채상룡 등 대원 4명이 잠입했다. 허성범과 이계성이 경비초소에 접근하여 경비대원을 처치하는 동안, 채상룡과 김호철이 교각 상단 목침과 접촉 부분에 TNT를 장치하여 광석천 철교를 폭파시키는데 성공했다. 6월 중순 북한 당국이 연백군에서 징수한 군량미를 평양으로 이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래필·김지운 등 4명을 선발하여 폭파교육을 시킨 후 임무를 부여했다. 18일 김지운과 신현형 대원이 월계철교 좌우측 경계를 맡고, 조장과 유영구 대원이 교각 상단에 TNT를 장치하여 청단역을 향하여 철교로 들어선 열차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폭파했다. 8월 6일<sup>244)</sup> 벽성군 서정면 문정리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파괴조를 편성하여 야간에 침투시켰다. 대원들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침투하여 경비병 1명을 사살하고 TNT로 철교를 폭파시킨 다음 무사히 귀대했다.

1951년 8월 28일 미 전투기 1대가 용진반도 술구미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형제도 파견대(대장 모덕현)에서 김성현 외 13명을 파견했다. 미 조종사를 포위하고 있는 북한군을 공격했으나 역부족으로 구출하지 못한 채 전원 전사했다. 많은 피난민을 구출한 사례도 있다. 1951년 4월 16일 동강면 덕현리에서 피난민 83명을 이송했고, 5월 3일과 10월 16일 청룡면 피난민 112명과 45명을 각각 구출했으며 11월 초에 동강면 안고잔의 피난민 35명과 이듬해 3월 중순 현지포 피난민 45명을 소수압도로 후송했다.

소규모 작전으로는 1951년 1월 28일, 김인권 등 대원 16명이 출동하여 해주시

244) 5월 16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00면). 이하, 작전일이 다른 경우는 『해주유격부대전사』를 따랐다.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국과 외인주택에 주둔해 있는 내무성 경비여단 본부를 기습하여 북한군 경비원 12명과 방송국 요원 3명을 사살하고 증거품으로 인민방송국의 간판과 북한군 경비대원 명부 및 계급장을 가지고 귀대했다. 1951년 6월 금산·신막 남천 지역 내륙 지방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봉산군 출신 강문성을 소대장으로 하여금 불무리특공대를 조직했다. 같은 달 12일, 해주 수양산에서 투쟁하고 있는 반공청년단(일명 번개돌격대)의 협조를 받아 중공군 18명과 북한군 2명을 사살했다.

여러 작전 가운데 규모 있는 전투는 동강면 전투와 다른 부대와 합동작전이 있다. 1951년 4월 7일 이중기 부대장의 지휘아래 3개 대대를 동원하여 용진군 동강면과 해남면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을 기습했다. 당시 동강면 금산리에는 약 2개 소대의 병력이 주둔하고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현지 포 일대로 상륙하여 제1 목표인 금산리로 나아가서 북한군 군관 1명과 병사 12명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다음 목표인 해남면 삼봉리, 삼거리까지 진격하여 이 일대를 점령했다. 유격대가 이 곳까지 진격했던 이유는 현지 주민들과 적들에게 유격대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음 날 중공군 지원병력이 징·북·피리를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공격해 오자, 대원들은 한국 해군 제505경비정의 지원 아래 200여 명의 피난민을 철수시켜 기지로 귀환했다. 포로 가운데 군관 1명은 이송하던 중 지뢰를 밟아 자폭하고 나머지 12명은 후송했다.<sup>245)</sup>

9월 18일 용매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주부대·타이거여단 제3연대(울퍽 제7부대 전신)·해군 방첩대가 합동으로 청룡면 해안으로 상륙했다. 해주부대가 좌측을, 타이거여단이 중앙을, 해군방첩대가 우측을 각각 담당했다. 해주부대는 청룡면에 상륙하여 제1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제2목표 지점인 일신면을 향하여 전술대형으로 진격하던 중 아군 후방에서 적의 신호탄이 오르면서 타이거여단과 함께 대응했다. 대대장은 서둘러 대원들을 해안으로 이동시켜 해변을 따라 700m까지 우회하고 각 중대를 재편하여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는 고지를 공격했다. 그

245) 이전 기록에는 작전 결과에 대해 북한군 15명을 사살하고 9명을 생포했으며 대원 1명이 전사했다고 기술했다. 새로운 부대사에서는 31명을 사살하고 12명을 포로로 했으며 대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수정했다.

런데 북한군이 유개호에서 경기관총으로 유격대원을 제압하자 유개호를 파괴하기 위해 이종립 소대장과 최종식 소대장이 특공대원을 이끌고 좌우측면에서 공격했다. 이 때 강성일 대원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수류탄으로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10여 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1정을 노획했으나,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sup>246)</sup>

작전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9월 하순경 용진군 봉구면 부포리 108 고지 전투에서 위장 귀순한 북한군에 속아 진금룡 대대장, 서성관 중대장, 선종현·김해중 등 10여 명의 대원이 전사했다.<sup>247)</sup>

송림호남부대의 경우, 북한의 농작물 현황·여론·부대이동 등에 관한 첩보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 행정기관에 침투하는 등 정보활동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이 수집한 첩보는 서울 부대사령부로 보내졌다.<sup>248)</sup>

작전활동은 대개 20명 내외의 소규모 작전이다. 1952년 8월중 몇몇 작전 활동을 살펴보면, 3일 대원 7명이 재령군 창천리(YC485410)에서 민가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1개 소대를 포위하여 14명을 사살했다. 11일 대원 12명이 재령군 관적동부근(YC362392)역에서 북한토벌대를 공격하여 17명을 사살했다. 13일 대원 20명이 YB782084 지역을 공격하여 북한군 4명을 사살했으나, 유격대원 1명이 전사하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sup>249)</sup>

8. Twelve D-8 partisans attacked 1 NKA anti-guerrilla platoon on 11 August 52 at YC362392 killing 17 NKA. There were no friendly casualties.

9. Twelve D-8 partisans on 3 August 52 at YC359401 ambushed 20 GCP whose mission was to mop up guerrillas in that locality. Thirteen GCP were killed with negative friendly casualties.

10. The following delayed reports were received 19 August 52:

a. Twelve D-8 partisans ambushed 1 NKA platoon on 6 August 52, killing 11 NKA.

b. Seven D-8 partisans were ambushed by a NKA patrol at YC485415 on 5 August 52. The friendlies escaped individually to their mountain base. As a result of this action 9 NKA and 2 friendlies were killed.

c. Seven D-8 partisans surrounded a NKA platoon billeting at civilian houses at YC485410 on 3 August 52. Fourteen members of the company unit were killed with negative friendly casualties.

d. Seven D-8 partisans were ambushed at YC455422 on 26 July 52. Seven GCP were killed with negative friendly casualties.

1952년 8월 작전보고(일부)

246) 이전에는 작전일이 9월 20일이었고, 전과도 22명을 사살한 것으로 기술했다(해주유격대 전우회, 『전사기록』, 1984).

247) 『해주유격부대전사』, 296-300면, 428면, 457면.

248)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30.

소규모 전투활동 가운데 작전참모 전세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52년 9월 20일 새벽 작전참모 전세은 등 15명이 북한군과 중공군에 관한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옹진읍 지역으로 침투했다. 이동 중 옹진군 향가리에서 북한군 1개 소대의 추격을 받아 교전하던 중 북한군 소대장·분대장 등 다수를 살상했다. 그러나 대원 10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고 전세은을 비롯한 나머지 대원 5명은 등산리 반도의 절벽 동굴에 피신하였지만 곧 포위되고 말았다. 북한군은 대원들에게 투항할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집중사격으로 위협했다. 이 때 3명은 투항하고, 전세은 참모는 1명의 대원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수류탄으로 자폭했다. 당시 그는 23세였다.<sup>250)</sup>

좀더 규모가 큰 작전도 있었다. 1952년 7월 21일 대원 35명이 홍미반도 남단 관리 해안가(YB041758)에 있는 북한군 해안 경비중대와 교전하여 2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2명이 전사했다.<sup>251)</sup>

중공군과도 대적하여 성과가 있었다. 1952년 8월 9일 대원 12명이 매복하여 중공군 13명을 사살했다. 9월 16일 대원 8명이 채령시(YC281532)에 있는 중공군 25명을 공격하여 4명을 사살하였으나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sup>252)</sup> 같은 달 23일 대원 12명이 황주 남쪽 6.5km 지점인 신대(YC395766) 지역을 순찰하는 중공군·북한군·내무서원 등 32명과 교전한 결과, 북한군 6명·중공군 2명·공산주의자 1명을 사살했다. 이 전투에서 대원 1명도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sup>253)</sup>

249) CCRAK Guerrilla, "Summary Summary No. 90, 93", Aug. 17,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50) D-8, 『고 작전참모 전세은의 분전』, 『당나귀』 2, 62-63면. 당시 그의 부인은 임신으로 만삭이었다고 한다.

251) CCRAK Guerrilla, "Summary No. 73", July 29, 1952.

25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6", Sep. 22, 1952.

25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5", Oct. 1, 1952.

## 9. 동키 제9부대(평남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9부대는 평안남도의 평양시, 진남포시, 용강군, 강서군 등에서 치안활동을 하였던 인사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편성된 유격대였다. 일부 황해도 출신도 있었지만, 평안남도 남부 지역 출신들이 많았으므로 평남부대로 불렀다.<sup>254)</sup>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철수할 때,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치안대원과 반공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후퇴하는 유엔군을 따라 남하하지 않고, 진남포에서 어선을 타고 서해의 백령도를 비롯한 초도와 석도 등지로 탈출했다.

이들은 적지를 드나들며 식량확보와 미처 탈출하지 못한 반공인사 및 피난민을 구출하면서 무기를 노획하여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무장을 갖춘 치안대는 안악, 은율부대 등과 합동으로 적지에 상륙하여 적의 내무서 및 적 주둔지 등을 기습하는 듯 교란작전을 전개했다.

1951년 2월 중순 미 제8군 아래 유격기지가 백령도에 창설되면서 서해 연안으로 철수한 치안대 및 무장대원들이 유격부대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평남 지방에서 철수해 온 많은 반공인사와 청년들도 유격전을 전개하여 향토를 수복하고자,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대원들을 규합했다. 동년 3월 중순 백령도 기지사령부와의 협의 끝에 400여 명의 병력으로 동키 제9부대를 백령도에서 창설했다.

부대편성을 완료한 부대는 미 제8군으로부터 식량, 무기와 탄약, SCR 무전기 1대 등을 받아 작전 기지인 초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본부를 설치했다. 취라도와 덕도를 비롯해 운무도에 파견대를 보냈다. 이 때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254) 황윤걸 증언, 통일회관, 2002. 7. 25.

<지휘관 및 참모>



그런데 1951년 9월경 작전활동 중 북한군 중위를 귀순시켰으나, 포로로<sup>255)</sup> 보고하여 그 해 연말에 백령도 기지로부터 안남미를 포상으로 받았다.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대 내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 때 대원들이 평남 강서군 함종면 치안대원 출신으로 취라도 파견대에서 활동하던 이태훈을 부대장으로 추대하면서, 일부 간부들이 부대를 떠났다.<sup>256)</sup> 다른 간부진은 참모장



이태훈 부대장 외 미 고문들  
(용유도, 1953)

255) 중화군 출신인 강기봉 중위라고 한다.

256) 『한국전쟁과 유격전』을 서술할 때, 개편 전 부대장(최국성)·참모장(정의호)의 증언을 토대로 했으나, 이번에 강용주·황윤길 등의 증언을 추가했다.

박재희, 인사참모 이종화, 정보참모 손문식, 군수참모 김창수, 제1대대장 안병기, 중대장 강용주, 취라도 파견대장 김기덕 등이었다. 정보참모 손문식은 강원도 출신으로 석도에 있던 해병대 문관이었고, 안병기 대대장과 강용주 중대장은 전쟁 당시 진남포고급중학교 3학년 동창생이었다고 한다.<sup>257)</sup>

1952년 11월 7일자의 기록을 보면, 부대의 편제는 부대장 아래 부부대장 없이 참모장, 후방참모, 군기관, 의무관 등으로 되어 있다. 후방참모는 군수참모로서 산하에 보급관과 수송관이 있었다. 그리고 1, 2대대가<sup>258)</sup> 편성되어 그 아래에 3개 중대가 있었다. 1개 소대의 규모는 11~12명 정도에 그쳤다. 대원의 규모는 작전과 218명, 정보과 22명, 후방과 8명, 군기부 6명, 의무대 3명 등 257명으로 보고되었고, 1953년 2월 443명으로 늘었다.<sup>259)</sup> 당시 부대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부대장 이태훈이 동키부대의 연합조직인 합동참의부 상무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부대 활동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 4월경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 소재 덕도과견대에서 새로 지급된 신무기인 무반동포를 시험발사를 하던 중 사수의 조작 잘못으로 제1대대장 안병기, 김정택 등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제1중대장 강용주가 대대장이 되었다.<sup>260)</sup>

대원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지역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기피자, 전 치안대원 등을 귀순시켜 청장년들을 부대원으로 보충했다. 즉 1952년 5월, 김득찬 소대장의 15명의 대원이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 석성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양민들을 감시하는 북한군을 생포하는 작전 중 최병두·김종실 등 9명을 구출하여 대원으로 편입시켰다. 그 후 강용주 중대장 외 30명의 대원이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면 이합도 부근에서 조개를 잡으로 온 강성엽, 강윤숙, 강유숙 등 5명을 구출해 역시 대원으로 편입했다.<sup>261)</sup>

이들은 휴전이 될 때까지 첩보수집과 전투활동을 수행하다가, 1953년 8월 국

257) 손문식, 『서해유격용사들의 자랑』, 『당나귀』 2, 1952. 12, 18면; 전우회, 『전사자료』 2003. 11. 7 ; 강용주 증언, 2003. 12. 11.

258) 실제 1개 대대와 수색중대로 편성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259) 『D-9 병력편성표』 1952. 11. 7, SN 1963 ;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9면.

260) 전우회, 『전사자료』 2003. 11. 7 ; 황윤걸 증언, 2003. 5. 17 ; 정덕권 증언, 2003. 12. 11.

261) 전우회, 『전사자료』 2003. 11. 7.



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연대장 이태훈)로 재편되었다. 용유도로 철수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다음해 2월 육군에 편입되었다.

## 나. 주요 작전활동

평남부대의 작전구역은 진남포 하구의 취라도, 덕도 등을 전진 기지로 하는 진남포에서 청천강 사이였다. 파견대를 주둔시키고 적정을 수집하는 한편, 평양과 진남포에 근접한 용강군 오석산 일대로 첩보원을 상륙시켜 북한군 제4군단의 상황을 수집했다.<sup>262)</sup> 특히 작전구역내에 평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남포가 위치하고 있어 적의 경비가 어느 지역보다 삼엄했기 때문에 대규모 작전활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

부대는 첩보대원들을 진남포, 송림, 멀리는 평양까지 침투시켜 적정을 수집하면서 북한군과 공산당 간부들의 귀순공작에 주력했다. 1951년 9월 김성덕 대원이 평남 강서군 함종면 계산리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26여단 소속 중위 강기봉을 귀순시켜 백령도사령부로부터 쌀을 포상으로 받았다. 그는 10월, 다시 북한군의 귀순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한다. 이 무렵 북한에 낙오되어 있던 육군 중위 박종주, 김대식 등을 구출했다. 귀순공작이 실패하기도 했다. 1952년 5월 김관도·김용극 대원이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26여단 군의관을 귀순시키기 위해 침투했다가 발각되어 김관도는 전사했고, 김용극은 부상을 입고 영국 해군 함대에서 치료를 받았다.<sup>263)</sup>

부대의 작전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해변가 초소공격, 군수물자 집적소 파괴 또는 폭격 유도 등을 했다. 작전 방식은 필요에 따라 특공대를 편성하여 기습공격 후 철수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시켰다.<sup>264)</sup> 또한 작전 지역이 가까운 백마부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1952년 8월 18일 백마부대와 평남부대 대원17명이 온천군 안석리 부근(XD939138)의 다리를 완전히 파괴시켰다.<sup>265)</sup>

262) 『안악부대의 구월산 전투』, 육본, 『전사연구』 10, 1979, 159면; 황윤걸 증언, 2002. 7. 25.

263) 전우회, 『전사자료』 2003. 11. 7.

264) 손문식, 『서해유격용사들의 자랑』, 『당나귀』 2, 1952. 12, 18면.

1952년 7월 14일 중공군 소대가 유격대원 20명을 공격하자, 총격전 끝에 대원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유격대의 반격으로 중공군 12명을 사살했다.<sup>266)</sup> 8월 17일 대원 15명이 북한군 대위를 생포하기 위해 온천군 마석리 부근(XD983148)까지 진출하였으나 실패하자, 안석리(XD933148)에서 열린 공산당 세포 회의장을 습격하여 당 위원장과 청년연맹 위원장 등을 사살하고, 가옥 2채와 마차 5대를 파괴한 후 무사히 귀환했다.<sup>267)</sup>

이처럼 대체로 소규모 작전을 전개했으나, 대원 70~80명이 출동한 작전도 있었다. 1952년 7월 22일 유격대원 80명이 원리(XD898026)에서 북한군 중대를 공격해 2시간 동안 격전 끝에 22명을 사살했고, 15명을 부상시켰으며 3곳의 소금공장을 파괴하고, 소련제 소총 등을 노획했다.<sup>268)</sup> 8월 21일 대원 70명이 증산군 선돌(XD950205)에 있는 북한군 2개 소대를 공격하여 21명을 사살하고 7명을 부상시켰다. 이 때 공산당원 9명도 사살하고, 농업시험소 건물 1동을 파괴했다. 같은 달 23일 70명의 대원이 큰세곳 부근(XD924153) 지역과 봉황두(935177) 사이에서 참호를 증축하고 있는 북한군 1개 중대와 민간인 150명을 공격하여 북한군 20명과 주민 30명 사살, 5명의 반공주의자를 구출했다.

9월 3일 대원 45명이 온천 서남쪽 약 9km 지점인 흑곶리(XC889973)에서 북한군 공병 1개 소대를 공격하여 30분간 교전 끝에 철수했다. 이 때 북한군 17명과 공산당원 7명을 사살하고 인민위원회 선전실을 파괴했다.<sup>269)</sup> 10월 19일 대원 70명이 숙천군 육리 근방(YD035650)에 있는 중공군 1개 중대를 공격하여 90분간 교전 후, 다른 중공군이 증원되어 오자 포위망을 뚫고 철수했다. 이 때 중공군 24명을 사살하고 3대의 보급트럭을 파괴하였으나, 대원 2명도 부상당했다.<sup>270)</sup>

1953년 4월경 강용주 대대장이 대원 100여 명과 함께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면 하청리와 강서군 증산면과 연결된 수리조합 제방을 폭파하기 위해 강서군 신정

265) CCRAK Guerrilla, "Summary No. 93" Aug. 2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66) CCRAK Guerrilla, "Summary No. 65" Jul. 20, 1952.

267) CCRAK Guerrilla, "Summary No. 93" Aug. 20, 1952.

268) CCRAK Guerrilla, "Summary No. 73" Jul. 29, 1952.

269) CCRAK Guerrilla, "Summary No. 98-99, 110" Aug. 25-26, Sep. 6, 1952.

270)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1" Oct. 2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면 해안의 이합도에 상륙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안성찬과 안응모가 부상을 당하여 철수한 작전도 있었다.<sup>271)</sup>

## 10. 동키 제10부대(안악부대)

### 가. 창설 배경 및 편성<sup>272)</sup>

동키 제10부대는 안악군 대행면·서하면·은흥면 등의 무장대로부터 비롯되었고, 구월산에 근거지를 건설하여 활동하였다. 안악군 출신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악부대로 불렸다.

안악군 일대의 반공청년들은 유엔군의 진격으로 국군을 통해 얻은 무기와 노획한 적의 각종 화기 등을 가지고 구월산의 좌익빨치산 토벌과 치안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안악군은 지정학적으로 안악읍 배후의 양산을 사이에 두고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진 까닭에 1·4후퇴 당시 북부 안악무장대는 그 지역에서 연풍부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였고,<sup>273)</sup> 남부 안악무장대는 신천으로 후퇴하여 신천읍 방어전에 가담하였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웅진반도로 철수하였다.

웅진에 도착한 안악 무장대원들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일찍이 월남하여 웅진지구 청년방위사령관으로 있는 왕혁(본명 김이준)의 도움으로 연안 도서인 순위도와 어화도로 철수할 수 있었다. 1950년 12월 하순 김유성은 왕혁 웅진지구청년방위사령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어화도에 부대본부를 마련하고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위해 부대편성과 훈련을 서둘렀다. 1951년 1월 2일 안악부대는 웅진청년방위대와 협동작전으로 웅진읍을 재탈환하였으나 걱정이 어두운 탓에 공산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적에게 포위됨으로써 전멸위기에 놓이게 되

271) 전우회, 『전사자료』 2003. 11. 7.

272) 이 부대사를 정리하는 데에는 『안악군지』(1976)에 수록된 이경남(참모장)의 글이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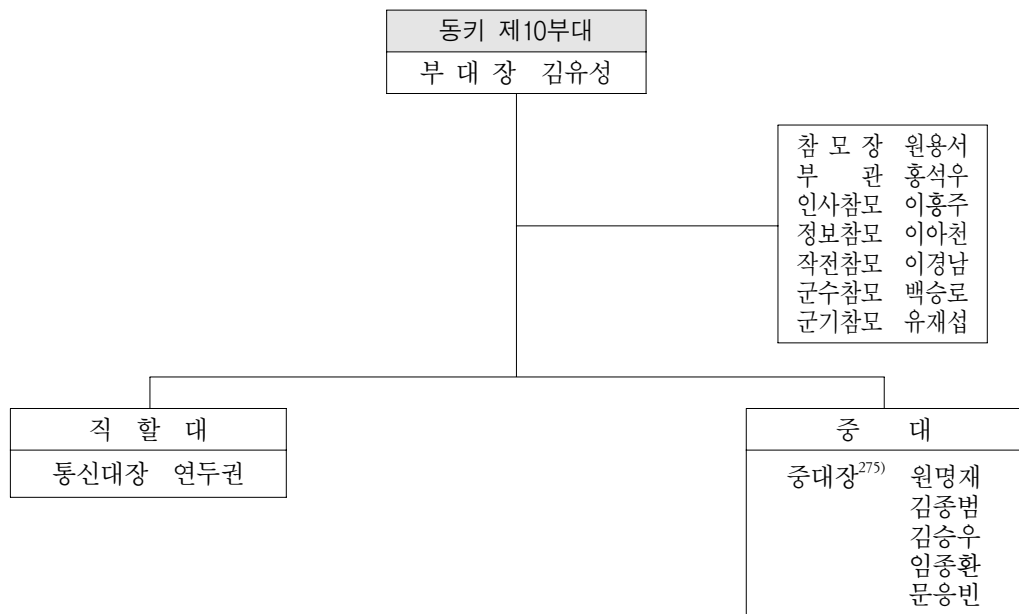
273) 북부안악무장대 가운데 일부만 안악부대로 합류했고, 안악군 서하면 치안대(대장 이정숙)를 비롯한 나머지는 연풍부대로 갔다(이경남 증언, 2003. 12. 8).

었다. 이 때 김종범 중대에 속해 있던 김정식을 비롯한 은흥면 청년들이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하여 큰 손실없이 용호도와 어화도로 철수할 수 있었다. 웅진반도의 상륙작전이 무위로 끝나자 실의에 빠져 있던 대원들은 부대장 김유성의 리더십에 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 용호도에 주둔하고 있던 신천무장대가 유엔군 산하 동키부대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51년 3월 김유성 부대장은 이경남·연두권·김영준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원과 함께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버크 소령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함으로써, 같은 달 25일 안악부대는 레오파드기지사령부 예하 동키 제10부대로 정식 발족되었다. 당시 규모는 200여 명 정도였다.<sup>274)</sup> 이 무렵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백령도 사령부 예하로 편성된 안악부대는 내륙기지를 구축하여, 구월산 적지

#### <지휘관 및 참모>



274) 이경남, 『구월산유격대혈전기』, 육본, 『전화속의 무훈』, 1985, 109면; 『안악군지』, 384면. 제10부대 창설시기를 1951년 5월로 기록한 경우도 있다(조동환, 『항공의 불꽃』, 552면).

275) 김승우·김범·홍정의 등이라는 기술도 있다(이경남, 『구월산유격대혈전기』, 육본, 『전화속의 무훈』, 1985, 109면).



강광훈·문호식 대원 등  
(1951. 11)

속에 부대본부를 설치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부대장은 구월산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선발대로 이어천 정보참모 이하 20명의 대원을 출동시켰다. 선발대는 초도~석도를 거쳐 4월 15일 피도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섬들은 김종벽이 지휘하는 연풍부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어서, 4월 20일 김유성 부대장을 위시한 대원 150명이 어양리 반도로 상륙하여 구월산 진입을 시도했으나 적의 매복에 걸려 구월산으로 입산하지 못하고 피도로 철수했다. 많은 대원이 집단적으로 입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수 몇 명씩 조를 나누어 침투하는 한편, 무전기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두권 통신대장을 비롯한 호위대원들이 선발대로 침투하여 구월산 오봉(五峰)에 무사히 도착하였다.<sup>276)</sup> 뒤이어 6월 초순에는 김유성 부대장도 구월산으로 입산하여 전방 지휘소를 개설하였다. 내륙기지의 명칭은 사자부대로 많을 때에는 100여 명의 대원이 3개 중대와 9개 소대로<sup>277)</sup> 편성되어 활동하였다. 북한 적지 내륙에 작전지휘부를 설치하고 부대장이 상주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 기지는 북한군

276) 1951년 5월초 구월산으로 침투하기 위해 어양리 반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안, 야간에 마침 구월산으로부터 철수하는 구월부대 제7연대 대원과 교전이 일어나 구월부대원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경남 증언, 2003. 11. 8).

277) 표(豹), 곰, 호(虎) 등 3개 중대, 양, 마(馬), 우, 견(犬), 원(猿) 등 9개 소대로 편성되었다(D-10 양산대인, 『초설』, 『당나귀』 2, 1952. 12, 95면).

의 토벌을 받아 상실한 적도 있지만, 공중으로 보급을 받으면서 전쟁 내내 유지되었다.<sup>278)</sup> 이처럼 적지에 작전기지를 두고 활동하였던 점이 높이 평가되어, 1952년 11월 국방부가 유격대 간부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때 부대장 홍석우와 함께 유격대 참모장 가운데 이경남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금성총무무공훈장을 받았다.

1952년 5월 김유성 부대장이 해상침투를 위해 속력이 빠른 기관선의 필요성을 느껴 선박의 조립과 시공을 위해 원용서 참모장과 함께 인천으로 떠났다. 수일 동안 인천에서 선박을 준비한 연대장과 참모장, 선박계장 등 10여 명의 대원들은 부대로 귀대하던 중 웅진군 홍미반도 남쪽에서 태풍을 만나 선박이 적지 해안에 표착하는 바람에 모두 적에게 생포되었다.<sup>279)</sup>

이 소식을 백령도 사령부로부터 듣고, 곧 구출반을 편성하여 김종범 대대장인솔 아래 조난지점 근처의 어화도에 도착하였다. 어화도에는 동키 제11부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는 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이미 김유성 부대장 일행이 해주로 압송중이라 작전을 실시하지 못하고 귀대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 작전을 감행했으나 3차례나 격퇴당해 50명이 넘는 대원이 희생되었다.<sup>280)</sup>

부대장과 참모장을 잃은 후, 재기를 위하여 곧바로 부서를 정비했다. 부대장은 홍석우, 부부대장 이아천, 참모장 이경남, 인사참모 백승로, 정보참모 김종범, 작전참모 김승우, 군수참모 장원주, 정훈참모 유종국, 군기대장 함영섭, 제1대대장 문응빈,<sup>281)</sup> 제2대대장 곽인택, 독립중대장 박치록, 수색중대장 임명호 등이다. 이때 간부진은 20대로 바뀌었다.<sup>282)</sup> 1952년 가을 부대 내 이아천 등이 부대장에 대한 불만으로 배척운동이 발생하였으나,<sup>283)</sup> 곧 수습되었다.

278) D-10 리원열, 『상처』, 『당나귀』 2, 1952. 12, 100면; 이경남, 『서해유격전의 사상적 근거』, 14면, 같은 책. 1952년 11월, 보고서에는 내륙기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D 10연대 편성표』 1952. 11. 7, SN 1963).

279) 전우회에서는 부대장 김유성, 참모장 원용서가 전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안악군지』, 421면).

280)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p. 425-426.

281) 휴전 후, 그는 첩보수집을 위해 출동했다가 월북했다.

282) 『한국전쟁과 유격전』의 편성표에 기초하되, 1961년 제출 문건을 보완했다(D-10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이경남, 『구월산유격대혈전기』, 육본, 『전화속의 무훈』, 1985, 114면.

283) 정만수 증언, 2003. 12. 15; 이경남 증언, 2003. 12. 17.

1952년 11월 초 편제에는 정훈참모가 아니라 교도참모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군기관·정훈관·훈련관이 있었다. 수색대는 1개 소대가 10명 정도로 편성되어 3개 소대 29명이 있었다.<sup>284)</sup>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소대병력이 10명 정도로 제1·2대대가 각각 104명, 제3대대는 74명이었다. 전체 대원의 규모는 394명이라고 보고했고,<sup>285)</sup> 이후 1953년 2월에는 45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sup>286)</sup> 대원들의 소속의식과 전우애 함양, 훈련 지원을 위해 이경남 참모장이 부대가를 보급했다.

1953년 6월 중순 백령도 사령부로부터 초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유격부대에 게 38선 이남의 대청도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대원들은 충남 서산군 안면도로 철수했다가 용유도로 이동하여 훈련을 받았다.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3대대로 재편된 후 육군으로 편입되었다.

#### <부 대 가>

화랑도의 높은 기상 가슴에 안고  
 구월산 단군대(檀君臺) 바라보며  
 굳세고 씩씩하게 자라난  
 전우들아 비호같이 나가 싸우자  
 자유를 위해 청춘의 피를 조국에 바쳐  
 행복한 새 나라를 세워나가자  
 우리들은 반공구국 제1선에서  
 승리의 기세높은 안악유격대

284) 호도(胡島)에 대원 20명 가량이 파견되었다(김용우, 『석도에서 겪었던 일들』, 정채호편저, 『영원한 해병』, 성동출판사, 1992, 138면).

285) 『D 10연대 편성표』 1952. 11. 7, SN 1963. 그런데, 이 무렵 국방부에 제출한 공적서에는 부대 규모를 1,200명이라고 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 10. 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286)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9면; 『유엔군 유격전』, 104면. 전쟁 당시 대원의 규모가 간부 26명과 대원 415명 등 441명이라는 보고도 있다(『D-10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또한 1,200명 규모라는 보고도 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 10. 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대원의 규모에 대해 초창기는 250명, 활동기 600명, 휴전시는 350명 정도라는 회고도 있다(『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안악군지』, 420면).

## 나. 주요 작전활동

부대가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받은 작전 지역은 아사봉-오봉-보광리를 잇는 구월산 동쪽의 신천·안악·사리원·재령·황주 일대였다. 그 임무는 이 지역에서 공산군에 대한 기습·시설물 파괴·심리작전 등을 전개할 것, 해당 책임 지역에 유엔 공군기가 격추되면 조종사를 신속히 구출할 것 등이었다.

참모장 이경남의 공적서에 따르면, 안악부대는 1950년 12월 6일부터 1952년 11월경까지 67회의 상륙 및 기습작전을 하였다.<sup>287)</sup> 첩보활동·귀순공작을 수행했는데, 대원가운데 첩보수집을 위해 서평양에 위장취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288)</sup>

1952년 7월 중순 진남포 상공에서 공중전 중 미그기 1대가 유엔기에 의해 격추되자, 추락 지점으로 공작대원들이 북한군복을 위장하여 접근하여 파편 2점을 회수하여 돌아왔다. 그 후 8월 5일 신천 지역에서 유엔기와 공중전을 벌이다가 추락한 미그기 조종사를 생포하려고 했으나 공산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지만, 죽천리(YC095703)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잔해를 파괴하였다. 10월 15일에는 2일에 추락한 미 공군기(USMC 020964) 조종사의 시체를 회수하였다.<sup>289)</sup>

심리전도 수행하였다. 1952년 8월 15일 대원 6명이 온천(YC118707) 지역에 투항전단 200매를 살포하고 포스터 20매를 부착하였다. 이 때 학생 6명이 구월산에 있는 파견대에 합류하였다.<sup>290)</sup> 고남산(高南山)에 공작대원을 침투시켜 온정리(溫井里)와 제도(猪島)사이를 내왕하는 북한군 차량을 파괴하고 보광리(寶光里) 뒷산에 파견되어 있는 다른 공작대와 합세하여 야음을 이용, 온정리 시가지에 침투하여 인민위원회를 습격, 방화한 다음 2백여 매의 전단을 살포했다.

대부분 작전은 전투활동이었다. 동키부대로 편입된 후, 안악읍 판육리(板六里)에

287)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 10. 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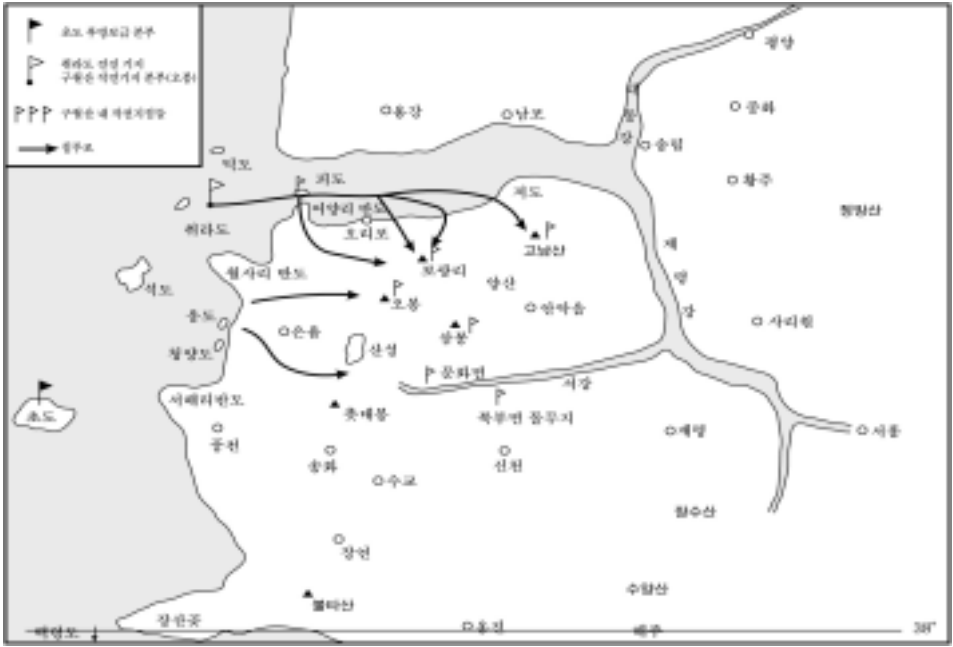
288) 이봉준 증언, 2003. 12. 16.

289) CCRAK Guerrilla, “Summary No. 86” Aug. 1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2” Oct. 18, 1952.

290) CCRAK Guerrilla, “Summary No. 92” Aug. 19, 1952.



<요도 5-5> 구월산 지구 유격기지와 상황도



건설중인 적의 간이비행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유엔군 사령부에 제보하여 폭격을 유도한 다음, 공작조 5명을 침투시켜 보급창고에다 TNT를 매설, 폭파시키는 등 작전을 전개했으나 특히 1951년의 경우 구체적인 작전상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1952년 6월 21일 대원 30명이 발동선과 정크선을 타고 출동하여 대동강 남포 앞(YC065863)에서 북한 선박 1척을 공격하여 적 30명을 사살했으나 대원도 2명 전사했다. 6월 26일 정크선 1척을 노획하였고, 북한군 1명을 생포하였다.<sup>291)</sup> 8월 25일 대원 60명이 양담산 235고지(YC043798)에서 북한군 100명의 공격을 받아 교전하여 13명을 사살했으나, 대원도 3명 전사했다. 그 외에 인민회의장·인민위원회·소비조합 등을 공격했다. 9월 29일 대원 35명이 북한군 1개 소대에 의해 남포 남서쪽 6km 떨어진 염곶진(YC031839)의 현물세를 수송하는 우마차를 공격한 결과, 북한군 11명과 리 인민위원회 위원 7명을 사살하고 양곡 5,216kg을 파괴하였다.<sup>292)</sup>

291) CCRAK Guerrilla, "Summary No. 43, 48" June 27, 1952.

---

29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2, 138" Aug. 29, Oct. 4, 1952.

규모있는 주요 작전으로는 제도 상륙작전, 광풍리 작전, 용강 상륙작전을 비롯해 구월산 오봉에서 적지내 기습작전 등을 들 수 있다.<sup>293)</sup> 1952년 7월경 24일 대행면 광풍리(大杏面 光楓里) 작전은 농우획득이 목표였다. 광풍리는 해변가의 평야지대로 협동농장에는 1백여 마리의 농우가 사육되고 있었다. 이 농우를 탈취하기 위해 상취라도의 해상특공대가 출동하여 구월산 특공대와 합류, 적지를 4시간이나 장악하고 있는 동안 13두의 농우를 탈취하여 상취라도까지 끌어 오는 데 성공했다.

구월산 내륙 기지를 건설하여 활동하였다.<sup>294)</sup> 돌무지는 행정상으로 신천군 북부면에 속하지만 안악부대의 중요한 공작거점이었다. 구월산에 입산한 대원들은 즉시 공작활동에 착수하여 신천군 북부면 돌무지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정치군관인 박치록 대위를 구월산으로 귀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귀순한 박 대위의 제보에 따르면 적은 구월산 지구의 반공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안악·신천·은율·송화군 내의 내무서원과 북한군을 동원하여 낙엽기인 10월 24일을 기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구월산 토벌작전으로 대원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1951년 10월 11일 강봉집·강광훈·임두량 등 9명이 곰염 섬에서 서해리 반도로 상륙하다가, 지뢰 폭발로 김화진이 전사한 후 귀환한 적도 있다. 24일 새벽 중공군과 북한군이 구월산의 3면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 왔다. 부대는 1시간도 안되어 지휘소가 적에게 유린되었으며 통신대장 연두권이 후방지휘소로 상황을 타전하고 무전기를 폭파함으로써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대원 120명은 10명 이내로 조를 편성하여 아사봉·산성·오봉·상봉 등으로 흩어져 공산군과 조우하는 대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로부터 8일 후 연두권 통신대장을 비롯한 42명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웅도·청양도 등으로 탈출했으며 30여 명은 구월산의 고향으로 산화하고, 나머지 40여 명의 대원들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내륙으로 잠입하여 ‘아지트’를 구성해 은신

293) 『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294) 전우회에서는 내륙기지의 활동이 200여 회라고 주장하였다(『미 극동군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하였다.

구월산 기지를 상실한 부대본부는 도서로 철수하여 다음 작전을 대비하여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임했다. 다음 해인 1952년 봄 다시 구월산 지구로 대원을 해상으로 침투시키려 했으나 제도로부터 대행면을 거쳐 오리포(梧里浦)·서해리 반도에 이르는 해안선에 대해 적의 경비가 삼엄한 것을 고려하여 공중침투작전을 계획하였다. 김정식·전로봉·김승두·이봉준 등 10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백령도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동년 4월 15일, 대원 6명이 미 공군 수송기에 의해 구월산에 공중 침투했다.<sup>295)</sup> 침투 후 기지구축에 성공한 이들은 1951년 10월 공산군의 토벌작전 당시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안악군 내에 있는 아지트에서 활동하던 대원 40여 명과 합세하여 구월산 작전기지를 구축하였다. 1952년 6월 16일에도 대원들이 공중으로 침투하였으나, 투하 당시 노출되어 북한군에 의해 2시간 동안이나 포위된 후 이를 타개하고 기지로 귀환했다.<sup>296)</sup>

구월산에 공중침투가 이루어짐으로써 유격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북한군은 신천군 용진면 유촌리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중대를 폐엽사(貝葉寺)로 파견했다. 그들은 이곳을 구월산 토벌의 전방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북한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TNT와 지뢰를 폐엽사 앞 냇가 바위틈에다 매설하고 대기하다가 북한군이 기상과 함께 세수를 하려고 냇가로 접근하는 기회를 이용, TNT와 지뢰를 폭발시켜 북한군 20여 명을 폭사시켰다. 대원들은 민심 교란을 목적으로 대낮에 장터·국영백화점·소비조합 등을 습격하여 순찰 중이던 내무서원을 사살하고 반공태업을 촉구하는 전단 100여 매를 살포하였다.<sup>297)</sup>

<표 5-1>에서와 같이 1952년 7월중에 작전활동이 활발했다. 10일 대원 20명이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구월산 저수지 북쪽 2km 지점(YC090616)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27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1정·소총 2정 등을 노획하였으며 건물 3개소와 우마차 8대를 파괴하였다. 15일 대원 75명이 장련리 북쪽 4.5km 떨어진 동곡동과

295) D-10 양산대인, 『초설』, 『당나귀』 2, 1952. 12, 94면; 『용진군지』, 398-404면.

296) CCRAK Guerrilla, "Summary No. 38" June 2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297) D-10 양산대인, 『초설』, 『당나귀』 2, 1952. 12, 95면

<표 5-1> 1952년 7월 작전 성과<sup>298)</sup>

(단위: 명)

일시	3일	4일	10일	11일	15일	16일	23일	24일	25일	30일
인원	2	30	20	25	75	?	45	50	23	13
전과 (사살)	철교 폭파	27	27	12	29	6	?	28	17	11

광풍리(YC020785, 032790) 등 4곳을 공격하여 북한군 29명을 사살하고 공산당 지도자 3명을 생포하였으며, 소 9마리를 노획하였다.<sup>299)</sup> 이 가운데, 16일·24일·30일 작전은 중공군과의 교전이였다.

8월 중에도 14일, 대원 54명이 장련리 동남쪽 7km 떨어진 내동과 미산동 저수지 부근(YC040692, YC044708)에 있는 마을을 포위한 후 북한군 토벌 중대를 기습하여 40명을 살상하였고, 기관총 1정, 수류탄 23발 등을 노획했다.<sup>300)</sup> 17일 대원 30명이 안악군 공산당 간부 160명이 교육중인 온천 남쪽 궁촌 근방(YC107694)의 회의장에 지뢰를 매설하여, 31명을 사살하고 20명을 부상시켰으며 건물 3곳을 폭파하였다. 소 2마리를 노획하여 구월산으로 돌아왔다.<sup>301)</sup> 29일 내륙 기지에 있던 대원 70명이 본부로 돌아오면서 염곳진 해안가(YC038836) 지역에 있는 내무서 진지를 습격하여 내무서원 40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소총 6정과 제복 등을 노획했다.<sup>302)</sup>

9월 25일에는 100명의 토벌대가 대원이 있는 구월산 637고지(YC005686) 지역을 공격해 오자, 8시간 동안 교전을 하여 24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2정·수류탄 22발 등을 노획하였다. 28일 35명씩 2개 조로 소비조합 2곳을 공격하여 각각 공산당원 3명과 15명을 사살하였다.<sup>303)</sup>

298) CCRACK Guerrilla, "Summary No. 55, 58, 65, 69, 72, 74, 76, 81", July 9-Aug. 7, 1952.

299) CCRACK Guerrilla, "Summary No. 58, 69" July 12, 2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00) CCRACK Guerrilla, "Summary No. 92" Aug. 19, 1952.

301) CCRACK Guerrilla, "Summary No. 93" Aug. 20, 1952.

302)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07" Sep. 3, 1952.

303)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31, 135, 136" Sep 27, Oct. 1-2, 1952.

1952년 10월 10일 오전 9시 북한군 300명이 안악부대의 구월산 기지를 공격하자, 대원들은 교전 후 구월산 483고지에 있는 기지(YC025683)로 철수했다. 11일 북한군 토벌대와 재차 교전을 벌였고, 16일에도 구월산에서 산발적인 교전으로 내무서원 21명, 자위대원 4명을 사살하는 등 13일부터 16일까지 토벌대와의 교전에서 북한군 58명을 사살했다. 17일 600명 이상의 토벌대원이 12곳에서 공격해 왔으나 대원들은 43명을 사살하였다. 18일 북한 내무서원과 자위대들이 2곳에서 공격해 왔다. 유격대원의 기만으로 적들끼리 교전하다 철수했다. 이 때 내무서원 23명과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4일 토벌대가 있는 백학동 남쪽 1km 지점(YC067689)의 인민위원회를 공격하여 15명을 사살하고 여맹원 3명을 생포했다.<sup>304)</sup> 이후 겨울을 나기 위해 대원들은 구월산 기지에서 철수하였다.

휴전이 임박해지자 미 제8군 당국에서는 유격부대의 적지 침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1953년 5월경 대행면과 은홍면 출신 이만영 등 ‘7인의 특공대’를 구월산으로 침투시켰으나, 결국 귀환하지 못한 채 휴전이 되고 말았다.<sup>305)</sup>

## 11. 동키 제11부대(옹진학도유격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옹진학도유격대는<sup>306)</sup> 1951년 2월 옹진에서 피난 나온 학생들로 조직된 유격대였다. 옹진반도의 대부분이 38선 남쪽 20km 이내에 있고, 특히 옹진읍이 불과 7km 남쪽에 위치한 관계로 전쟁 전부터 38선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의 아군초소 습격·주민 납치·은파산 전투 등이 발생할 때마다, 옹진 군민들은 물론 학생들은 국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 탄약을 운반하거나 참호를 파고 부상병들을 후송했

30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52-153, 155, 159, 164” Oct. 18-30, 1952.

305) 강봉집·강봉훈 증언, 2003. 12. 8.

306) 이 부대사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영재편의 『학도유격부대 전사』에 크게 힘입었다.

으며 여학생들도 야전병원에서 간호활동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웅진 지역 주민들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여 웅진반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이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은 치안대를 조직하여 지방 공산당원을 심사 및 처단하는 등 치안과 선무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자, 군내 경찰과 행정기관은 모두 철수했다. 1950년 12월 중순 중공군의 주력이 해주를 통과했고 북한군도 전선에 집중했으므로, 웅진 지역은 국군과 북한군이 모두 없는 진공상태였다. 학생들은 유엔군의 재진격을 기다리면서 치안활동을 계속했으나, 전세는 호전되지 않고 1951년 1월 중순부터 적 후속부대와 공산당원들이 웅진반도의 구석구석까지 차지하기 시작하자, 주민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일부 학생들은 소강(蘇江)으로 피난가서 서면 출신 학생들과 서울과 인천으로 유학했던 학생들이 함께 서부학도대(대장, 목영설)를 결성하여 자치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1월 하순 공산군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이곳에서 약 8km 남쪽에 위치한 창린도로 피난했다.

웅진반도 서북부 각 지역으로부터 서해 앞바다의 여러 섬으로 피난 온 학생들은 각 섬에서 학도대를 편성했다. 기린도에서는 이치영이 학도대장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창린도에는 웅진중학교 학도호국단과 서부학도대 요원들이 활동하였다. 어화도에는 김일수, 용호도에는 유명환, 순위도에는 권승훈 등이 학도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의 무장은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소총류와 해군 함정으로부터 지원받은 탄약이 전부였다.

학생들은 라디오를 청취하여, 신문도 없고 방송도 들을 수 없었던 피난민과 주민들에게 전황을 벽에 부치거나 전단을 등사하여 배포했다. 한편,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집총 및 제식훈련을 하고, 야간에는 청년방위대를 도와서 도서경계·순찰활동을 했다. 당시 각 섬에서 편성된 청년방위대는 일제 99식·38식 구식무기로 무장한 채 치안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향토애와 구국정신이 투철했으나, 지휘체제와 지도자를 갖추지 못했고 무기도 없었다. 또한 도서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방위대는 결혼한 많아 세대 차이 등으로 그들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융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학생들이 백령도에 있는 미군부대를 찾아가서 유격대에 참가할 것을 탄원했으나, 미군들은 어린 학생들의 요구를 미더워 하지 않아서 거절했다.<sup>307)</sup>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나의 명령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단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웅진학도호국단과 서부학도대의 권승훈·김용길·김용훈·목영설·신중근·안인기 등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웅진 학도의용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지도자를 영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학생을 통합해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웅진군 교정면에서 피난 나온 이종학(당시 27세)<sup>308)</sup>을 찾아 학생들의 뜻을 전달하고 같이 일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학은 피난생활이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므로 학생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결국 동의하였다.

이종학과 학생들은 각 섬에 흩어져 있는 학도호국단원들을 모두 규합하기 시작했다. 1951년 2월 4일<sup>309)</sup> 웅진군 서면 창린초등학교에서 창린도, 기린도, 어화도, 용호도, 순위도 등에 있는 학생들을 통합하여 웅진학도의용대로<sup>310)</sup> 명명하고 결단식을 가졌다. 당시 간부는 대장 이종학·부대장 김용훈·목영설이었고, 제1지대는 지휘본부와 함께 창린도에 두고 제2지대는 기린도에, 제3지대는 마합도에 각각 위치했다. 당시 규모는 400명이었으나, 1951년 3월초 어화도·순위도·용호도에 있는 학생들을(용호도 지대장:유명환, 어화도 지대장:김일수, 순위도 지대장:권승훈, 기린도 지대장:이치영) 포함해서 대원이 800명으로 늘었다. 학생들의 연령은 18~23세였다.<sup>311)</sup>

초기에 의용대는 몇 자투의 칼빈총과 수류탄 10여 발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학도의용대 시절처럼 뉴스를 전파하거나 섬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였

307) 신은양, 『나의 회고록』, 날짜 없음.

308) 그는 해방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해방 후 조선민주당에 가담하여 활동했다.

309) 2월 1일, 혹은 5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고, 2월 11일, 창설기념행사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이영재 일기 1953. 2. 11; 『부대역사』 1953. 9. 20; 『웅진학도유격부대 편성 및 인원』 1975).

310) ‘서해지구 학도의용대’라는 기술도 있다(『부대역사』, 전 8250부대 서해지구학도유격대, 『청원서』 1962. 7).

311) 경기도교육연구원, 『D-11 웅진학도유격대』, 1981, 14면; “The Narrative of MR Lee Jung Hok, Leader of D 11”, Nov. 4, 1952, 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1953, SN 1400(이하, 『부대장 이종학 증언』으로 줄임). 그런데 2월 1일 혹은 5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고, 2월 11일 창설기념행사를 했다는 일기도 있다(이영재 일기 1953. 2. 11; 『부대역사』 1953. 9. 20; 『웅진학도유격부대 편성 및 인원』 1975).



으며, 학원을 만들어 국어·영어·수학·국사 등을 강의했다.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을지병단 제26연대로부터 백령도에 유엔군 기지사령부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51년 3월 23일 이종학 등 7명의 간부가 백령도에 있는 유엔군 기지사령부를 방문하여 기지사령관 버크 소령을 만났다. 이 날짜로 그의 승인을 획득하여, 4월 1일 동키 제11부대가 창설되었다. 이 때 14정의 일제 99식 소총과 쌀 2~3가마를 지급받았고, 4월 중순 버크 소령을 다시 방문해 소총 20정을 추가로 지급받아 부대의 규모를 갖추어 나갔다.<sup>312)</sup>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되자, 부대장 이종학은 본격적인 부대 편성에 들어갔다. 버크 소령은 부대의 인원을 최초 200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각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800여 명이었던 까닭에 연령과 학력을 고려하여 저학년을 제외하고 적어도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 가운데, 1개 단위대에서 20명씩 선발했다.<sup>313)</sup>

부대본부를 용호도에 두고, 청룡대(용호도), 백호대(창린도), 맹호대(기린도), 비호대(순위도), 용마대(어화도), 특수공작대(파도) 등을 두었다.<sup>314)</sup> 이들은 행동지침으로 학도호국단의 선서문에 의거하여 3개의 방침을 세웠다. 첫째, 우리는 3·1 정신과 화랑도정신을 따르고 실현한다. 둘째, 우리는 순수한 민족정신에 따라 생활한다. 셋째, 우리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끝까지 학생으로 남는다 등을 채택하여,<sup>315)</sup> 학도유격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여 대원들이 주둔하고 있던 섬의 초등학교에서 피난민과 현지 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했다. 용호도에는 중학교, 창린도에서는 그 분교를 운용하여 작전이 없을 때에는 대원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미군 기지사령부에 편입되었지만 백령도 주둔 해군사령관(문기섭 소령)의 지휘도 받았고, 1951년 4월 중순 교정 작전의 실패 이후 희생된 대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한국 해군함정 제61함과 제507함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1951년 6월부터는 미군

312) 『부대역사』, 1953. 9. 20.

313) 신은양, 『나의 회고록』, 연도 없음.

314) 『부대역사』, 1953. 9. 20.

315)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기지사령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16)</sup>

이 무렵 이종학 부대장은 대원들의 전투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부대본부를 용호도로 이동했다. 당시 부대는 5개 단위대로 편성되어, 용호도·순위도·창린도·어화도·기린도 등에 각각 1개 단위대씩 배치되었다. 더욱이 1951년 7월 5일,<sup>317)</sup> 을지 제2병단의 제21~23, 26~27연대가 3개 연대로 재편되면서 제26연대가 동키 제11부대의 특별대로 편성되었다. 당시 을지 제26연대에서는 백령도 작전기지사령부에 유격부대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지역에 이미 동키 제11부대가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들과 통합할 것을 제의하여 유격부대의 특별대로 편입시켰다.<sup>318)</sup> 이 때 병력의 규모가 1,700명에 이르렀다.<sup>319)</sup> 부대장 이종학, 부부대장 이문호 등을 비롯한 학도유격부대의 편성표는 다음과 같다. 청룡대·비호대 등은 각 섬에 있는 대원들로 편성되었으므로 규모가 서로 달랐다. 특별대는 을지병단 제26연대로 용호도 복단을 방어하도록 했다.<sup>320)</sup>

그런데, 을지병단 대원을 편입함으로써 부대가 1,700여 명의 대부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지휘 및 통제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필요했고, 행정 및 군수지원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보수집과 공작활동 위주로 활약하던 소규모의 유격부대가 각 도서의 방어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별대가 장악하고 있는 대소의 단위부대가 각 도서에 분산되어 있어 지휘의 이원화와 복잡성 그리고 병력 수에 비해 많은 간부들로 인하여 비능률적인 운용 등이었다.

1951년 8월 10일<sup>321)</sup> 이종학 부대장은 부대를 현역군과 유사하게 재편하고, 그

316)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부대역사』, 전 8250부대 서해지구 학도유격대, 『청원서』 1962. 7.

317) 을지 제2병단 보고문서에 따르면 1951년 7월 중순에 이미 제26연대 전과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나(육군을지제2병단사령부, 『업무보고의 관한 건』 1951. 7. 15), 백령도기지사령부의 지시 문서에는 8월 중순 제26연대를 포함한 여러 연대를 3개 연대로 재편하도록 했다(버크 중령, 『지시서』 1951. 8. 9, 박상준 제공 문서; 페리 소령, 『지령서』, 1951. 8. 11, 같은 문서).

318) 『부대역사』, 1953. 9. 21,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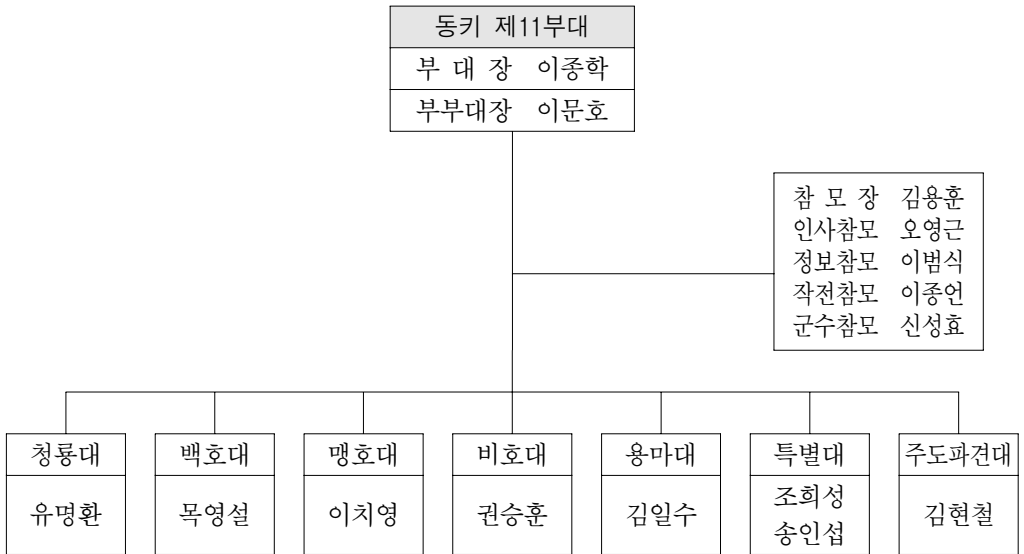
319)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320)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부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룡대, 백호대 등으로 표현되지 않고, 제1유격대대장(Guerrilla Battalion Co.) 유명환, 제2유격대대장 목영설, 제3유격대대장 이치영, 제5유격대대장 권승훈, 제6유격대대장 김일수, 특별대대장 송인섭 등이었다.

---

321) 『부대역사』 1953. 9. 20. 그런데 9월 10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

## &lt;학도유격부대 편성표(1951.7.5~8.10)&gt;



규모는 연대 규모로 잠정 결정하고 6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고, 전투경험이 있는 학생 등으로 제한했다. 특별대는 해체하여 정규편성으로 흡수했다. 청년방위군 출신들 중 상당수는 이탈해서 율령 제8부대로 간



이종학 부대장과  
부대본부 요원들(1952. 3)

경우도 있었지만, 한삼불 등은 계속 남아 있었다. 600명의 대원을 동·서 2개 대대로<sup>322)</sup> 구분했다. 서부 대대장은 목영설,<sup>323)</sup> 동부대대장은 이종언이었다.

동부대대는 지휘소를 파도에 두고, 순위도와 순위도 동쪽의 섬들인 용호도·어화도·파도·위도·닥세미·신도·연평도·무도 등을 맡았다. 서부대대는 창린도에 주둔하면서 기린도·마합도를 통제했다. 동·서 대대는 각각 3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각 대대장이 단위대를 편성했다.

부대 본부는 용호도 어업조합 사무실에서 수산중학교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동부대대의 대대본부는 용호도에 두고, 제1중대는 위도, 제2중대는 파도, 제3중대는 신도에 주둔했다. 서부대대의 대대본부와 4개 중대는 모두 창린도에 주둔했다.<sup>324)</sup> 이상과 같이 편성함으로써 지금까지 다원화되어 있던 지휘체제의 단일화를 기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51년말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북한군의 공격으로 용호도·어화도 등을 연이어 빼앗기자, 창린도로 집결하였다가 그들의 공격으로 1월 9일, 기린도로 이동하였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지시로 공작대원 일부만 남겨두고 백령도로 갔으나, 다시 대청도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이 때가 최악의 시련기였다. 용호도에서 철수 당시 700여 명이었던 대원이 불과 2주간의 전투로 약 61%의 전투손실을 입어, 백령도에 집결된 인원은 270여 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많은 전투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전사상자도 상당수였지만 계속되는 후퇴와 철수시 부대원들이 낙오되거나 행방불명으로 복귀하지 못한 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1월 중순, 이택규·오덕수·전홍복 등 49명이 미 제8240부대의 서울 본부에 있는 정보학교에서 TLO 교육생을 모집하자 이에 응시해서 떠났다.

322) 동·서부대대 대신에 동·서부지구전투지휘소라고 진술한 경우도 있다(신은양, 『1952년 1월 1일 용호도 피습사건』, 1987. 1. 3).

323) 『부대역사』 1953. 9. 21. 서부대대장으로 김용훈이 임명되었다는 기록도 있다(『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324)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이 시기의 부대간부진으로, 고급부관 金容薰을 참모장으로, 李鍾彦을 작전참모, 인사참모 韓澈, 정보참모 權勝勳, 군수참모 申盛孝, 군기대장 吳德壽로 임명했다는 기술도 있고(이영재, 앞의 책), 서부대대장이 목영설이라는 진술도 있으나(신은양, 『1952년 1월 1일 용호도피습사건』, 날짜 없음), 1952년 11월 인터뷰 내용을 따랐다.

대원의 많은 손실로 사기가 저하된 부대를 정비하고 재편성하기에 백령도는 여건이 적절치 못하였다. 특히 식수 부족과 대원들이 숙영할 장소가 마땅치 못하자, 부대장은 인접 도서인 대청도로 이동할 것을 사령부에 건의하였다. 1952년 1월 20일 부대본부는 일부 부대를 백령도에 잔류시킨 채 대청도로 이동하였다.

대청도에서는 민가가 가장 많은 내동(XB495875)에 부대본부를 두고 서부대대는 고주동(庫柱洞)에서 천막생활을 하였으며, 동부대대의 일부는 내동에, 군기대와 선박계는 선진포(船津浦)에 두었다. 이곳에서 부대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민가의 좁은 사랑방에서 많은 인원이 생활해야 했으며 세탁이나 식사 문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1952년 2월초 부대장은 그간 흩어진 부대의 전열을 정비하고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창린도 철수시까지 학도유격부대는 서부대대와 동부대대로 지역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데 이번에는 서부대대를 제1대대로, 동부대대를 제2대대로 개칭하였다. 장차 부대운영을 고려하여 제2대대는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였다. 이때 개편된 간부진은 인사참모 신은양, 정보참모 권승훈, 작전참모 강철, 군수참모 임청, 군기대장 이종언, 정훈참모 강석인, 통신대장 은준관 등이었다.

이러한 정규편성 외에 부대본부와 각 대대 예하에 5명에서 20명 규모의 공작대를 편성해 운용했다. 본부에는 화랑공작대, 국사봉공작대, 이종률공작대 등이 있었고, 제1대대에는 정보관 김현국이 운용한 5명 규모의 전병학 공작대와 20명 규모의 비호공작대(대장 오병준) 등이 있었으며, 제2대대에는 까치산공작대 등이 있었다.<sup>325)</sup> 공작대는 때로는 특공대로 편성되어 적군에 대한 기습공격을 하거나 도로파괴 활동도 하였지만, 주로 첩보수집을 했다.

1951년 말까지만 해도 용호도와 순위도에는 동키 제1부대가 일부 주둔해 있었는데 1952년에 이르러 새로 동키 제13부대가 순위도 일부를 기지로 확보할 움직임이 있었다. 새로 제13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타 부대와 협조관계도 있고 대의 활동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2대대에는 강력하고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1대대장은 목영설, 제2대대

325) 이종학, 『전병학 공작대의 활동』, 날짜없음; 경기도교육연구원, 『D-11 용진학도유격대』, 부록; 이영재, 앞의 책, 370-377면.

장을 장하상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을 임명하는데 그의 신분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대장 추천에 논란이 있었으나 부대운명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재편된 부대로 창린도를 재탈환한 후 어화도, 순위도, 용호도를 공격하여 차례로 재탈환하였다. 이에 따라,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부대 규모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아 병력을 550명으로 늘렸다.<sup>326)</sup>

1952년 중반기에 이르면, 체제·사기·전투경험 면에서 유격부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sup>327)</sup>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제1대대와 제3대대에 정보중대를 두었던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제1대대는 창린도, 제2대대는 순위도, 제3대대는 용호도에 각각 주둔했다. 대대의 병력규모는 제1대대는 130명, 제2대대 100명, 제3대대 80명, 제5대대는 130명이었다. 1952년에는 부대의 규모가 2,500명이라는 기술도 있으나,<sup>328)</sup> 유격대 본부에서 보낸 보고에 따르면, 부대의 규모는 550~588명 정도였다.<sup>329)</sup> 이후 대원이 약간 늘어나서 1953년 1월, 800명이었다.<sup>330)</sup>

휴전 직전 1953년 6월 13일<sup>331)</sup>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고, 웅진반도 연안의 부대기지를 떠나 대청도의 고주동으로 집결했다. 이후 기지사령부의 지시로 어화도 기지를 다시 확보할 목적으로 어화도와 창린도에 출동했으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어화도에서 철수하여,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부대원은 교육대로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다. 정규군 수준의 교육훈련이 강화되면서, 일부 부대개편이 있었다. 본부 중화기 중대와 3개 소대규모의 수

326) 1952년 4월경으로 동키 제1부대와 함께 공격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327) 강석인, 『웅진학도유격대 투쟁사 증언』, 1986. 8. 25, 육본 군사연구소.

328) 『웅진학도유격부대 편성 및 인원』, 1975. 이 외에 5,237명이라고 기술된 경우(『8250제1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는 제1연대 전체 인원으로 보인다.

329) 『D-11부대 편성표』 1952. 11. 7,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29.

330) D-11 망랑, 『우리의 부대장』, 『당나귀』 3, 1953. 1, 44면. 1953년 2월, 930명이라는 보고도 있다(『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9면). 같은 해 11월 보고에서는 901명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간부 59명, 유격대원 599명, 군속 243명이라고 했다(국방부제8250부대 제1연대 11대대, 『총인원명부』 1953. 11. 25, 특전사역사관).

331) 10일 대청도로 이동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이영재 일기 1953. 6. 10).

색중대가 창설되었다.<sup>332)</sup>

제8250부대 제1연대 제11대대로 개편되었다가, 1954년 2월 한국군으로 편입되었다. 3월 3일 각 중대별로 송별회를 가진 후, 대청도를 떠나 제6사단, 제8사단 등으로 분산 배치되었다.<sup>333)</sup> 이로써 어화도, 순위도, 창린도, 기린도 등지에서 많은 대원들이 희생을 당하면서<sup>334)</sup> 반공투쟁을 했던 용진학도유격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나. 주요 전투

### (1) 개 요

용진학도유격대는 그들의 거점인 용호도, 순위도, 어화도, 창린도 등이 차례로

<요도 5-6> 동키 제11부대 활동지역



332) 이영재 일기 1953. 7. 11, 31, 8. 1.

333) 전인수 일기, 1954. 3. 6-11; 이영재, 앞의 책, 435면.

334) 1962년 전사자로 인정된 인원이 129명이었고, 이후 누락자가 143명이었으며 실종자 100여 명, 부상자 130여 명 등이라고 한다(『학도유격부대전사』, 436면, 490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실패되었을 때 위축된 적도 있었으나,<sup>335)</sup> 창설 직후인 1951년 4월 14일, 30명의 대원이 용천면 용암리 전투에서<sup>336)</sup> 첫 작전을 벌인 이래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21일 어화도 재주둔을 위한 작전까지<sup>337)</sup> 신천으로부터 해주를 잇는 서남쪽 지역에서 활발한 전투활동을 하였다.<sup>338)</sup> 1952년 7월 15일 창린도 재탈환작전시 동키 제1부대원 50명의 지원을 받았다.<sup>339)</sup>

작전활동은 각 대대별로 소규모 작전을 전개했다. 5명에서 10여 명 규모의 이중률 공작대, 국사봉 공작대 등의 활동이 활발했다. 1952년 8월 5일, 5명으로 구성된 전병학 공작대는 웅진읍에서 서면과 용천면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동평야의 방조제 수문으로 역할을 하는 수동대교를 폭파했다.<sup>340)</sup>

1952년 8월 4일 밤 전병학 공작대장은 대원을 이끌고 폭약(TNT) 100파운드와 대전차지뢰 M7 2개를 휴대하고 창린도를 출발하여, 8월 5일 01:30경 목표 지역에 접근하였다. 다행히 대교 근방에는 경계병은 고정 배치되지 않았다. 다른 대원이 엄호를 하는 동안, 대원 2명이 2개 소의 수문에 폭약을 장치하고 대전차지뢰를 교량 위에 설치하였다. 폭약의 뇌관은 압력식과 전기식을 각각 2중으로 장치하였다. 그 이유는 폭약설치가 끝난 후에 수시간 내에 적의 차량이 통과하면 압력식에 의해 차량과 교량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고 만약 차량이 그 시간까지 통과하지 않고 날이 밝아지면 전기식 뇌관으로 교량만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였다.

폭약을 설치한 후 약 2시간이 경과하자, 웅진읍 방면에서 트럭 1대가 교량을 향하여 달려왔다. 차량이 교량에 들어서려는 순간 지뢰의 폭발로 북쪽 교각 일부

335) “Records of Discussion” Nov.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336) 전사자 명부에는 용암리 전투에서 전사한 날짜를 1951년 5월 14일(김천만)로 기록하거나 1951년 4월 10일(임춘호)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D-11학도유격대원 전사자증 원부와 대조확인자명부』, 1962. 8).

337) 이 작전에서 미 고문관 페리 중위와 경안국 등 3명이 전사하고, 부대장 이중학이 부상을 입었다. 부대장 이중학은 무모한 작전으로 기억하였다(이중학, 『휴전 몇일 앞두고 어화도 재주둔』, 날짜없음).

338) 『부대장 이중학 증언』 1952. 11. 4; 이영재 일기; 『D-11학도유격대원 전사자증 원부와 대조확인자명부』, 1962. 8; 『이중학 증언』, 『민족의 증언』 5, 283면.

339) 올팩 부대원이 지원한 것으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CCRAK Guerrilla, “Summary No. 67” July 2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40) 이중학, 『전병학 공작대의 활동』, 날짜없음.

가 파괴되면서 제방 밑으로 굴러 전복되었다. 이 때, 공작대원들은 은거지에 은신했다가 무사히 귀대하였다. 이 대교 폭파로 인하여 적은 8일간이나 50번 도로를 왕래할 수 없었으며, 약 500헥타르의 농토에 바닷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주었다.

1952년 8월 10일 대원 11명이 용연리(YB222953)의 인민위원회를 공격하여 공산주의자 13명을 사살했고, 10월 1일 대원 13명이 서장교(YC178077)에 있는 내무지서를 공격하여 내무서원 5명을 사살했다. 6월 10일에는 50명 대원이 안현리(YC015093)에서 매복하여 북한군 120명을 공격하여 70명을 사살했으나, 이 때 대원 2명도 전사하였다.<sup>341)</sup>

동키 제11부대는 100명 이상의 대원이 출동한 작전을 많이 수행했다. 『부대역사』나 부대사에서 언급되지 않는 규모있는 전투도 많았다. 1952년 8월 30일 200명 대원이 미군 장교 1명과 함께 갈항리(YB010885)로 상륙하여, 이 지역(YB003895, YB023893)에 있는 북한군 1개 소대와 북한군 120명을 각각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진지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명의 증원군이 동원되자 철수했다. 대원들이 북한군 46명을 사살하였고, 항공기와 함포에 의해 60명이 더 사살되었다. 10월 5일 대원 150명이 XC712597<sup>342)</sup>지역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1개 중대를 공격하였다. 100명은 후방으로 습격하고 나머지 대원은 정면에서 공격했으나, 증원군이 오자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25명과 공산당원 5명을 사살하고 25,000파운드의 쌀과 5척의 범선을 파괴했다. 대원도 2명이 전사했다.<sup>343)</sup>

10월 30일 대원 183명이 이 지역의 현물세 징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화산리(YB013989)와 수동리(XC950007) 등 두 곳을 공격하였다. 70명의 대원이 화산리에서 북한군 100명, 내무서원 27명, 주민 500명 등이 참가한 집회를 공격하고, 나머지 대원은 우마차 27대를 경비하고 있던 북한군 70명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 150명, 내무서원 13명, 좌익 인사 다수를 사살하였고, 소 80마리도 죽였다. 쌀 500가마, 우마차 38대 등도 노획하였다.<sup>344)</sup>

341) CCRAK Guerrilla, "Summary No. 34, 90, 144" June 20, Aug. 17, Oct. 10, 1952.

342) 좌표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343) CCRAK Guerrilla, "Summary No.65, 107, 144", July 20, Sep. 7, Oct. 1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44) 8240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1952년 10월 29일부

이 글에서는 주요 전투로 학도유격대의 편성 직후 실시한 제1, 2차 교정 전투와 같은 해 7월 창린도 전투 등을 다루었다.<sup>345)</sup>

## (2) 교정(交井面 松林里) 전투

교정 전투는 동키 제11부대로 개편된 지 10여 일밖에 경과되지 않는 시기에 실시한 작전이었다. 1951년 4월 전황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로 문산, 철원, 화천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용진군 교정면 일대는 용진 반도의 서쪽 끝인 데다 당시 도로망도 발달되지 않아 교통이 매우 불편한 관계로 전선상황과 관계없이 북한군도 상주하지 않고 기동대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었다. 부대 본부에서는 이러한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숨어서 탈출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피난민을 구출하는 동시에 부대의 전투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작전을 계획했다.

4월 18일<sup>346)</sup> 이종학 부대장은 기린도(麒麟島)에 주둔하고 있는 맹호대원과 창린도 주둔 백호대원 가운데 주로 교정면 출신으로 68명을 특공대로 선발하여 마합도(麻蛤島)에 도착했다. 피난민 구출과 양곡운반을 목적으로 작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수송수단 지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부대가 보유한 선박이 없었으므로, 어민들의 범선을 지원받아 사용해야만 했다. 수송책임은 김영직 쌍호대(雙虎隊) 선박계장이 기린도와 마합도에서 동력선 1척, 중선 3척, 주낙배 10척 등을 동원하여 작전에 임하였다.

예상 상륙지점은 교정면 월암리(月岩里)로 마합도에서 약 17km 거리였다. 밤새

---

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계속된 동남면 기습작전에는 250명이 투입되어 북한군 410명 사살, 100매 우마차 파괴, 30두 황소, 소총 노획, 11명 전사, 13명 부상당했다고 한다(『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345) 이외에 1952년 6월 홍미면 안악골 전투도 이미 1975년 전우회에서 작성한 『미국동사령부 제8240부대약사』나 『용진학도유격대 약사』(목영설, 1982. 10. 8) 등에서 강조되었다(『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부대역사』, 1953. 9. 21, 5면; 장하상, 『전우여, 역전의 유격용사여』, 1967. 6. 5).

346) 교정 작전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다. 1951년 4월 15일, 혹은 20일로 진술된 적도 있고(『부대역사』, 1953. 9. 20; 제2대대, 『전사약사』, 날짜 없음;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1951년 5월 8일 혹은 12일과 18일로 기술된 적도 있다(『부대약사』, 1962. 7; 장하상 증언, 『민족의 증언』 5, 279면; 『D-11 부대 투쟁사초』, 연도 없음, 1-2면).

도록 동력선 1척에 범선을 예인하여 목적지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는 04:00경이었다. 그곳부터는 동력선의 시동을 끄고 범선을 분리하여 각자 노를 저어서 육지에 접근하였다. 선두 범선에는 정태호 감찰부장 외 7명이 척후조로 탔다. 이들은 모두 이 고장 출신이어서 지형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친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종학 부대장 역시 교정면이 고향이었다.

유격대는 교정면 면사무소 소재지인 송림리를 장악하기 위해 광대산(廣大山, 159고지) 7부 능선에 소련제 경기관총 1정을 배치하고, 또 1정은 난천리(蘭泉里) 좌측 131고지에 송림리 방향을 겨냥하여 배치하였다. 대원들은 마을로 들어가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유격대 상륙을 알리고 아울러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 곳 면민과 이북에서 피난 온 많은 피난민들은 탈출의 기회만 엿보던 터라 유격대의 상륙을 크게 환영했다.

당시 섬에는 식량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곡 수송은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피난민들은 우차와 등짐으로 양곡을 운반하여 왔고, 월암리에 정박한 피난민과 양곡 수송을 위해 계획해 놓은 선박들을 이용해서 수송작전에 들어갔다. 김영직 선박계장은 선박이 부족하자, 현지의 어선을 총동원하여 여러 차례 마합도를 왕복하면서 피난민과 식량을 수송하였다.

한편 척후조는 국봉리(國峰里) 뒷산에서 송림리로 접근하는 적의 접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4월 20일 14:00경 80여 명의 북한군 순찰대가 염불장(念佛場) 방면에서 송림리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대장은 대원들을 수습하여 송림리 외곽 수 개소에 매복조를 배치하고 그들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기동대가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경기관총 사격을 신호로 일제히 소총사격을 가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격부대는 피해 없이 북한군 17명을 사살하고 쌀 1,500가마를<sup>347)</sup> 노획했고, 피난민 1,200명을 마합도와 기린도로 무사히 구출하였다. 노획한 쌀은 부대원의 보급과 부대운영비로 썼으며,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피난민들에게도 배급하였다.<sup>348)</sup>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민위원장 등 열성 공산당원 10명

347) 1,000가마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극동8240 표기지 학유대, 『부대역사제출』(유학본발 제255호), 1953. 9. 21).

348)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을 사살하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였다. 비로소 유격대는 중대 규모의 전투 경험을 얻었으며, 성과도 많아 부대원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다.

이 후, 북한군이 교정면에 중대 규모의 병력을 상주시켜, 유격대 활동을 지원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고향에 가족이 남아 있는 대원도 있어서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재차 북한군 중대본부를 기습하는 한편 대원 가족과 피난민들을 구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5월 16일,<sup>349)</sup> 이종학 부대장은 창린도와 기린도에 있는 1차 전투에 참가했던 대원들을 다시 동원하여 마합도로 집결시켰다. 이 곳에서 75명의<sup>350)</sup> 대원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1차 전투의 성공으로 많은 대원들이 자원해서 출전하기를 희망하였다.

같은 날 오후, 일몰 약 1시간 후에 마합도를 출발하였다. 3척의 동력선과 범선 16척을 동원하여, 교정면 흑두포(判井里 黑頭浦)에 상륙했다. 마합도로부터 흑두포까지는 약 22km 거리로 병력수송은 개인 소유인 어선을 동원했고, 어부들의 협조로 이동했다. 동력선에는 지휘부가 승선하고 소형 범선(낙배)에는 무장한 대원 15~20명이 승선하였다. 5월 17일 04:00경에 흑두포에 상륙하여 목표 지역인 송림리까지 저항없이 도착했다.

그곳에서 적의 방어진지를 포위하고 집중사격을 했다. 적의 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13명의 시체를 남겨 놓고 도망갔다. 이번에도 기습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원의 일부가 외곽을 경계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피난민들과 곡물 500가마를 마합도로 수송했다.

판정리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 송림리에서 패주한 적이 벽성군 대거면(大車面)에서 온 지원병력과 합세하여 약 1개 대대규모로 송림리 방면으로 이동중이라고 주민들이 알려 주었다. 부대장은 즉시 대원들을 수습하여 송림리에서 철수하여 판정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미 추격해 오고 있었다. 5월 18일 05:00경, 적의 정찰대가 판정리에 도달하였다.

판정리에서 흑두포까지는 불과 3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 북한군의 추격을

349) 1951년 4월 18일(제2대대, 『전사약사』, 날짜 없음;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혹은 1951년 5월 5월 18일로 기록되었다(『부대역사』 1962. 7; 이영재, 앞의 책, 147면).

350) 1952년 11월 4일 진술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다.

피해 이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려 했으나, 흑두포에 도착한 부대장과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선박들이 피난민과 곡물수송에 동원되어 떠나고, 바다 멀리 정박중인 동력선 1척과 범선 1척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적은 공격해 오고, 타고 떠나야 할 선박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적에게 저항했으나 탄약이 떨어지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안인기 훈련부장을 비롯해 김민경, 박덕표 등 19명이 전사하고<sup>351)</sup> 배동윤 중대장을 비롯한 12명이 피납되거나 실종되었다. 제2차 작전은 출동인원 75명중 40%가 넘는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끝이 났다. 크게 실패한 전투였다.<sup>352)</sup>

그 결과 웅진군 일대에 주둔하였던 북한군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유격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작전에서 김영철·현덕천 등 유격대원 8명이 전사했고, 작전 보좌관을 비롯하여 제2대대 의무관 등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 (3) 창린도(昌麟島) 탈환전투

창린도 전투는 유격대가 유엔군의 함포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합동 작전이었다. 1952년 1월 초, 북한군에 의해 피탈된 창린도에 대한 탈환은 1952년 2월초, 북한군이 철수했다는 정보에 따라 제1대대가 재주둔하였고, 이어서 어화도·순위도·용호도를 다시 장악하면서 방어계획도 수립되었다.<sup>353)</sup>

창린도 북쪽 대안[邑低半島]에 1952년 4월 중순까지 웅진 반도에는 중공군 사령부 예하 제8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황해도 신천으로 복귀하고, 7월 송화 지역에 위치했던 북한군 제23여단(제233부대) 제4대대가 이동해 왔다. 북한군 제23여단은 방어진지 공사작업이 끝나자, 곧 도서 지역의 유격부대에 대한 침공계획을 준비하여, 7월 15일 02:00시 야음을 이용하여 유격대가 확보중인 창린도로 북한군 약 300명이 일제히 기습상륙을 감행하여 왔다.<sup>354)</sup>

351)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부대장은 20명이 전사했다고 진술했다.

352)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부대역사』, 1953. 9. 20, 2면; 장하상 증언, 『민족의 증언』, 5, 279면.

353)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학도유격부대전사』, 294-297면.

354)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2, 107면; CCRAK Guerrilla, "Summary No. 61" Jul. 1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이 전투에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제1중대 인원 61명,

이미 7월 10일경 소강 방면으로 입산 체류중인 소강공작대의 대원이 공격일시는 알 수 없으나, 북한군이 곧 창린도를 침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목영설)는 매일 소강 방면과 갈항리(葛項里) 일대의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였다. 14일 소강 방면으로 정보 수집차 출동하던 제1대대 제1중대 소속의 안태진·박순경 등은 망해동 청련사(靑蓮寺)에 적의 대병력이 집결하여 연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해상에서 목격하였다. 공작대원들은 즉시 귀대하여 적이 곧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보고를 하였다. 14일 22:00경이었다.

북한군 정규군과 접전하면 불리하므로 일단 창린도에서 철수하여 섬을 내주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으면 이를 기습하자는 방침에 따라,<sup>355)</sup> 대대장은 즉시 비상을 발령하고 철수를 서둘렀다. 이 사실을 부대본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어화도 부대본부를 무전으로 호출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고지에 봉화를 올리고 기다렸으나 역시 무전은 불통이었다. 7월 15일 03:30 경, 제1대대는 전원 철수준비를 하여 대기했던 선박에 승선하였다.

15일 02:00경 북한군 제1중대는 망해동에서, 제2중대는 소강방면에서 목선 상륙정과 발동선을 동원하여 창린도로 상륙하였다. 6문의 박격포, 4정의 맥심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과 대원들이 전투를 벌이다가 어화도로 후퇴했으므로, 창린도는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 때 대원중 일부가 낙오되었다가 각자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정덕준<sup>356)</sup> 외 수명은 포로가 되었다.

05:00경<sup>357)</sup> 제1대대의 창린도 철수상황을 보고 받은 부대본부는 백령도 기지사령부에 그 상황을 보고하였고, 백령도 사령부에서는 반격작전을 실시하도록

---

중기중대 26명, 대대간부 5명, 뱃사공 19명, 제3중대 25명 등 131명이었고, 조공인 제2중대도 유사한 병력규모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55) 강석인, 『웅진학도유격대 투쟁사 증언』, 1986. 8. 25, 육본 군사연구실. 그러나 북한군의 기습에 대한 대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신중근 증언, 『민족의 증언』 5, 282면). 미리 기지사령부에 첩보를 제공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56) 그는 포로가 된 후, 주민들 가운데 유격대원을 가려내라는 명령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았으나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357) 이영재의 일기에 의하면, 7월 16일 오전 5시 창린도에서 기습을 당했다는 무전이 연결되었다(이영재 일기 1952. 7. 16).

지시하면서 맥브라이드(McBride) 중위로 하여금 함포지원 및 함재기의 근접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7월 15일 창린도 근해에는 영국 순양함 1척과 ABUSE 2[PF 116]함이 해안 경비에 임하고 있었고, 연평도 근해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던 제702함이 창린도 근방으로 이동해 왔다.<sup>358)</sup>

16일 새벽 기지사령부와 연락하여 영국 함정과 한국 함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탈환작전을 벌였다. 부대본부에서는 상륙부대로 제1, 2대대, 직할공작대로 편성하였다. 해군 702함정은 창린도 남쪽 해상에 이르러 어화도에서 출항한 상륙부대 범선과 합류하였다. 상륙부대는 범선 9척과 동력선 1척으로 모두 10척이었다. 이들 범선은 제702함이 예인하여 상륙지점으로 이동하고 05:30경 범선 전부를 다시 상륙부대 동력선에 인계하여 상륙지점까지 동력선이 예인하였다.<sup>359)</sup>

상륙지점에 도착한 제1대대(대대장 목영설)는 중간목표인 64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중대 제1소대(소대장 안테진)를 상륙예상 지점에 정찰차 침투시키고 상륙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교두보는 적의 저항없이 무난히 확보하였으나 지상 공격을 시작하자 적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64고지 8부 능선에서 적의 맹렬한 기관총 사격을 받아 공격이 저지되었다. 대원들은 계속 전진을 꾀하였으나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 제2대대(대대장 장하상)는 별다른 저항이 없어서 무난히 중간고지를 탈환하고 평촌을 확보하였다. 11:15, 제1대대



창린도로 향해 출동한 선단

358)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2, 53면.

359) 이영재 일기 1952. 7. 16; 『D-11 부대 투쟁사초』, 연도 없음, 10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2" July 1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전면 목표지역 84고지 8부 능선의 참호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다시 강력해지고 기관총 진지에서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함포지원을 받았으나, 적의 저항이 약화되지 않자 이번에는 근접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때 근접 항공지원을 하려해도, 전투기가 피아를 구별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와서,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대원들이 상의를 벗고 T셔츠만 입어 아군의 진출선을 표시하였다.<sup>360)</sup> 약 10분이 경과하자 미 해군 함재기 1개 편대가 날아와 아군 진출선 5m 전방까지 기총사격을 가하여 참호 속에 있던 적을 소탕하였다. 12:35에 84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하니 완전히 소탕되었다고 판단했던 적의 일부가 남아 있다가 아군과 백병전이 벌어졌다. 철수와 반격을 3회 반복한 격전 끝에 창린도를 완전 점령했다.<sup>361)</sup>

창린도 전투의 성과로 『부대사』에서는 사살 70명, 포로 41명, 중기관총 3정, TT 권총 4정, 소총 60여정, 무전기 1대 기타(군복 외 수개 품목)의 전과를 얻어, ‘창린도 대첩’이라고 평가했다.<sup>362)</sup> 창린도 작전시 동키 제1부대원 50명이 지원하여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고 13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대원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군 제702함도 상륙작전 지원사격 및 유엔 함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도주하는 적을 수색하여 북한군 대위를 포함하여 4명을 생포하였다.<sup>363)</sup> 그 외 영국군의 함포와 공중지원의 도움도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미군 보고서에는 북한군 110명을 사살하고, 장교 4명을 포함한 38명을 포로로 하였다고 기술했다. 북한군 중 일부는 바다로 도주하는 중 30명이 익사했다. 이 작전에서 크게 승리해 그 동안의 패배를 설욕했다. 작전이 종료된 후, 부대본부와 제2대대는 기지인 어화도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로 대원의 피해는 김명진·김영극 등 16명이 전사하고, 중경상자 11명이 발생했다. 부

360) 목영설 증언, 2003. 11. 14.

361) 이영재 일기 1952. 7. 16-18; 『해군사 작전편』 2, 1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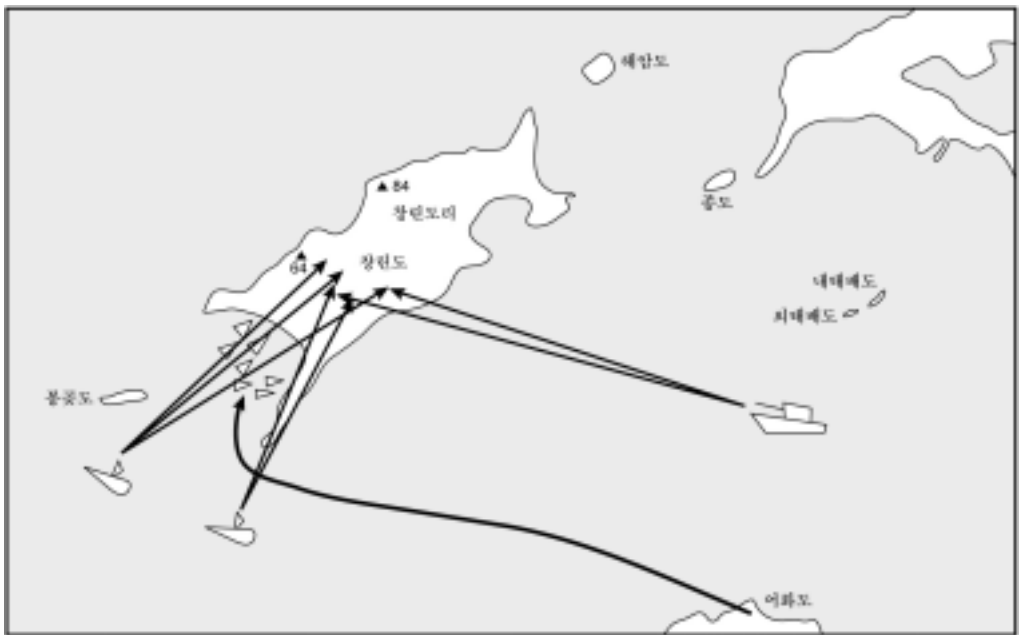
362) 『부대역사』 1953. 9. 21; 『웅진학도유격부대전사』, 335면; 『황해도지』, 342면.

363) 『부대장 이종학 증언』 1952. 11. 4;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2집, 110면;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7” July 2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당시 해군 함장 소령 한문식은 포로 4명 생포와 적사살 10여 명에 전과에 대하여 무성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다(국방부 상전과, 『제702함장 소령 한문식(韓文植) 공적서(무성 을지무공훈장)』, 군편 사료 304).

상자 가운데, 미군 데니 중사도 기관총탄으로 목에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함재기 1대도 적의 대공포를 맞아 격추되었다.<sup>364)</sup>

전투가 끝난 후 영국 순양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목영설 제1대대장과 김용훈 참모장이 함장에게 학생으로 편성된 유격대라는 점과 전투경과를 설명한 후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sup>365)</sup> 이 작전의 성공으로 창린도를 재탈환하여 휴전이 될 때까지 이곳을 근거로 유격전을 전개했다.

<요도 5-7> 창린도 작전 상황도



36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2, 65" July 17, 20, 1952, SN 146. 전과에 대한 유격대원의 진술은 차이가 있다. 당시 제3대대장이었던 신중근은 180명을 사살, 120명을 생포했다고 한다(『민족의 증언』 5, 283면). 제1대대장이었던 목영설은 사살인원 400명, 포로인원은 80여 명이라고 했다(『목영설 증언』, 연도 없음, 육본 군사연구실; 목영설, 『웅진학도유격대 역사』, 1982. 10. 8).

365) 목영설(창린도 1대대장) 증언, 연도 없음, 육본 군사연구실.

## 12. 동키 제12부대

### 가. 연혁과 편성

동키 제12부대는 두 번 존재했다. 첫 부대가 1952년 2월 울팩 제5부대로 변경되자, 10월경 안용부대가 새로 창설되었다.

1951년 3월 10일 1·4후퇴 당시 해주만(海州灣) 앞 웅진군 송림면 대수압도(大睡鴨島)로 피난 나온 벽성군과 웅진 동부지역의 무장치안대원과 반공청년 박승익·한영철 등 33명이 주축이 되어 백령도 기지사령부 산하 동키 제12부대로 발족했다.<sup>366)</sup>

대원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닭섬·용매도·삼산·솔미산 등에 파견대를 보냈다. 그러나 1951년 8월 11일 북한군의 닭섬 기습으로 그곳의 파견대원들이 대수압도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 박승익 부대장을 위시한 간부들이 대수압도 현지인과 피난민을 대상으로 모병활동을 전개하여 부대병력이 120명으로 늘어나면서 부대규모를 갖추었다.<sup>36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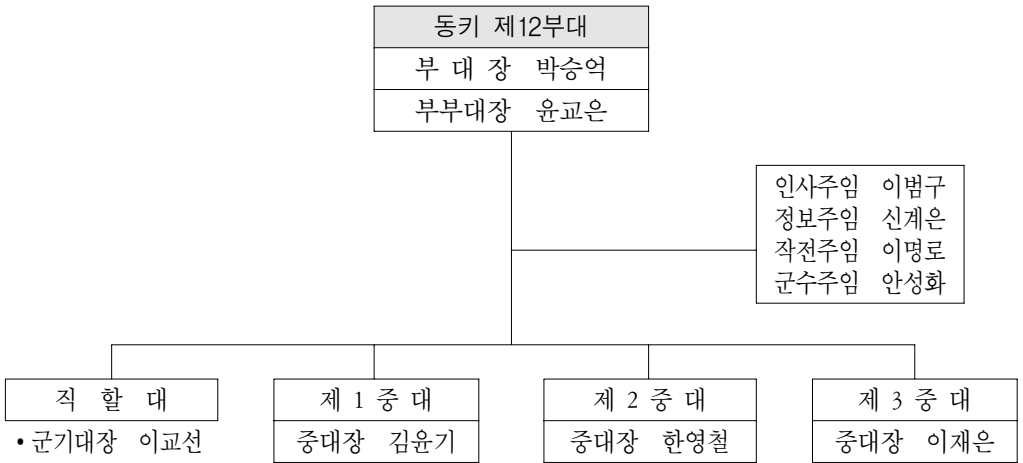


대수압도와 대원

366) 이명재·오진환 외, 『W/P 5연대 전사자료』, 날짜 없음.

367) 방인준 증언, 2003. 11. 28.

## &lt;지휘관 현황&gt;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1951년 9월 봉구면 작전으로 많은 대원들이 전사하고 부대장 박승억이 돌아오지 않자, 부대를 해체하여 동키 제8부대로 합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후 10월경 박승억은 귀환했지만, 대원의 불신임을 받아 아예 부대를 떠났다. 이에 따라 작전주임 이명로<sup>368)</sup>를 부대장으로 하고, 부부대장 김일우, 정보과 원명선, 작전과 신호식, 군수와 한학수, 대대장 김윤기, 특수공작대 이세인 등으로 간부진을 재편했다.<sup>369)</sup> 그러나 1952년 2월 10일 부대가 주둔해 있는 대수압도가 강화도 기지사령부 예하 부대의 기지로 편입될 때, 울פק 제5부대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동키사령부 산하 제12부대가 편제상 부족하게 되자, 1952년 10월경 고문관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울팩 제1부대를 떠났던 안일채 전 부대장 등이 초도에서 안용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계승했다. 서울 관철동에서 그를 따랐던 대원들과 모병관을 연고지로 보내 서울·전라도·경상도·황해도 지역 출신도 모집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었다. 대원들 가운데 여자대원도 있어서 주로 첩보수집 활동을 했다.<sup>370)</sup>

368) 이명재라고도 불렸다.

369) 이명재·오진환 외, 『W/P 5연대 전사자료』, 날짜 없음; 이명재 증언, 2003. 9. 16.

370) 『안용부대 8240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48면; 안용

부대 간부는 부대장 안일채, 부부대장 조명희, 부관 김인식 인사 노용서, 정보 이근학, 작전 박영환, 군수 조여흠, 제1중대장 신용환, 제2중대장 이봉한, 제3중대장 양용대, 중화기 중대장 안용호, 군기대장 양희목, 의무대장 장호 등이었다.<sup>371)</sup> 중화기중대는 중기관총 소대(LMG), 박격포소대(81mm), 무반동총 소대(75mm) 등으로 편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76mm 곡사포로 이루어진 야포대(대장 변철석)가 있었다고 한다. 대원의 규모는 62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들의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군 고문관은 파렌스키(Parenskey) 중위였다. 휴전 무렵, 안일채 부대장이 그만두면서 많은 간부들이 이탈하자, 야포대장 변철석이 부대장이 되었다.<sup>372)</sup>



안용부대 대원들(용유도, 1953. 11. 19)

호 증언, 통일회관, 2002. 7. 25 ; 이인택(울퍽 1부대 부관) 증언, 2003. 3. 19.

371) 제2중대장 양용대, 제3중대장 김영집이라는 경우도 있다(안용부대전우회, 『안용부대 역사』 2002. 8).

372) 『안용부대 8240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 안용부대전우회, 『안용부대 역사』 2002. 8 ; 안용호 증언, 2002. 7. 25.

휴전이 다가오자, 대원들은 용유도로 철수한 후 213명이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로 재편되었고, 연령 미달자 혹은 연장자를 제외하고는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변철석 부대장은 대위, 김인식과 안용호는 중위, 김희석 등 소위 5명이 장교로 임관했고, 대원들은 제26사단과 수도사단 등으로 편입되었다.<sup>373)</sup>

## 나. 주요 작전활동

주요 전투를 살펴보면, 먼저 1951년 3월에 작전참모 이명로가 대원 33명을 인솔하고 해남으로 침투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철도와 내무서를 폭파하려다가 적군에 발각되어 교전 끝에 지영철·황상협·장기철 등 20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구월산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대했다.<sup>374)</sup>

1951년 4월 5일 웅진군 송림면의 닭섬으로 이동하여 이곳을 임시 기지로 정하였다. 닭섬에 주둔한 부대는 동년 4월 26일, 첩보수집 및 수색정찰을 위해 부대장 박승익의 직접 지휘 아래 대원 32명이 적지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벽성군 가좌면의 까치산을 경유, 검단면의 솔미산으로 침투하던 중 4월 28일, 북한군 토벌대 1개 소대와 조우하여 교전을 전개한 끝에 많은 적을 사살하고 침투에 성공했다. 5월 5일, 북한군 2개 소대와 조우하여 다시 교전을 벌인 끝에 20여 명의 적을 사살했으나, 이재록·윤교환 등 대원이 전사했다.<sup>375)</sup>

6월 20일 본대가 내륙으로 침투한 후, 닭섬에 주둔해 있던 이범구 등 3명의 대원은 인민군으로 가장하고 닭섬 대안의 적지로 잠입하여 대담하게 대낮에 기습전을 전개하여 내무서원 4명을 사살하고 소총 4정·수류탄 5발 등을 노획했다.

1951년 7월 2일 홍세인이 지휘하는 특공대 19명은 적의 주둔지를 교란시키기 위해 웅진군 동구면으로 상륙하여 적진 깊숙하게 침투 도중에 적에게 포위를 당해 6시간 동안의 격전을 벌이다가 야음을 이용하여 전원 무사히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7월 15일 봉구면 무투지 전투에서 지상선·김광우 등이 전사했다. 8월

373) 『안용부대 8250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변철준 증언, 2003. 9. 16.

374) 방인준, 『울팩5부대 전사자료』 2002. 4.

375) WP 5연대 전우회, 『전사자명부』, 1995. 5.

11일 부대는 적의 기습을 받아 교전중 7명의 대원이 전사하고 15명의 대원이 실종되는 피해를 당해 더 이상 내륙작전이 불가능하여 일단 닭섬 기지로 귀환했다.

1951년 9월 10일 박승억 부대장은 3개 소대병력을 직접 지휘하여 봉구면 개머리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제82군 제9지대 제6중대 주둔지를 기습했다. 이 기습전에서 중공군 7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51년 12월 특수공작대 이세인 외 5명은 내성면 인민위원회 인근에 내무서원과 보위부원이 투숙하고 있는 곳을 급습하여 이들을 사살하고 건물을 파괴했다.<sup>376)</sup>

한편 안용부대는 “나라와 겨레 위해 적진 속에서 강철같이 싸우자”는 부대가 처럼 작전을 전개했을 것이나, 그 전과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휴전 결렬에 대비하여 1952년 말, 멸악산 지역을 목표로 야포대를 포함한 상륙작전을 계획했으나,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그 후 1953년 5월 대원을 송화군 해안으로 침투시켜 북한군 30여 명을 살상한 전과가 있었으나, 대개 소규모 대원을 구월산 혹은 대련 지역까지 파견하여 적정, 군수기지 등을 위한 첩보수집을 주로 했다.<sup>377)</sup>

#### <부 대 가>

- |                     |                    |
|---------------------|--------------------|
| 1. 피끓는 젊은 가슴 단군의 자손 | 2. 용감한 유격정신 화랑도 정신 |
| 자유와 평화 위해 싸운 용사들    | 나라와 겨레위해 싸운 용사들    |
| 무엇이 두려워서 못나갈 소나     | 오늘도 적진 속에 이 몸 다 바쳐 |
| 전 세계 공산당이 합쳐 덤벼도    | 멸공의 그 날까지 싸워 나가자   |

(후렴) 강철같은 굳은 결심 누가 당하랴  
대한의 유격군 안용대 용사

376) 이명재·오진환 외, 『W/P 5연대 전사자료』, 날짜 없음.

377) 안용부대전우회, 『안용부대 역사』 2002. 8.; 안용호 증언, 2002. 7. 25.; 김인식 증언, 2003. 12. 8.

## 13. 동키 제13부대(신천부대)

### 가. 연혁과 편성

1951년 4월 15일 용매도에서 청년방위대 웅진여단 해남 제2편대, 벽성군 치안대와 용매도 향토방위대를 주축으로 창설했던 동키 제13부대가 작전구역 변경으로 1952년 3월 17일 강화기지 예하 울팩 제3부대로 편입되자, 1952년 8월 31일 신천 출신으로 백령도 해군의용대에서 활동했던 김장성을 중심으로 새로 편성되었다.

신천부대의 창설 배경에 대해서는 동키 제1부대편에서 이미 기술한 대로, 동키 제13부대도 10·13 신천의거의 주역들이 조직한 부대이다. 이 때문에 ‘황해 10.13부대’라고 불리우기도 했다.<sup>378)</sup>

중공군의 내려오자 용호도로 철수한 신천 무장치안대는 어화도를 거쳐 백령도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무장대원 400여 명을 주축으로 1951년 2월 동키 제1부대를 편성했고, 나머지 300여 명의 대원들은 같은 달 23일 서해 주둔 해군 기지사령관의 지휘아래 김장성을 대장<sup>379)</sup>으로 한 해군(후에 해병대)의용대를 창설하여 한국 해군과 함께 백령도 방어임무를 수행했다.<sup>380)</sup>

당시 대원들은 동키부대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했으나, 백령도에는 약 100명의 한국 해군이 있었을 뿐이어서, 백령도를 방어하는 데에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령도 방어부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 해군에 의해 통제를 받다가, 해병대가 백령도의 방어임무를 인계받은 이 후에는 그들의 통제를 받았다.

그 후에도 대원들은 게릴라부대인 동키부대로서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1952년 4월 부대창설이 인가되었으나, 해병의용대가 해체되지 않자 해병의용대를 떠난 일부가 동키 제13부대를 창설하고, 순위도로 이동하여 본부를 설치했다. 1952년 5월<sup>381)</sup> 벽성군 동북 지역과 평산군 아산면과 적암면 북

378) 『김광섭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995. 1. 10, 육본 부관감실.

379) 부대장 김덕운, 참모장 최인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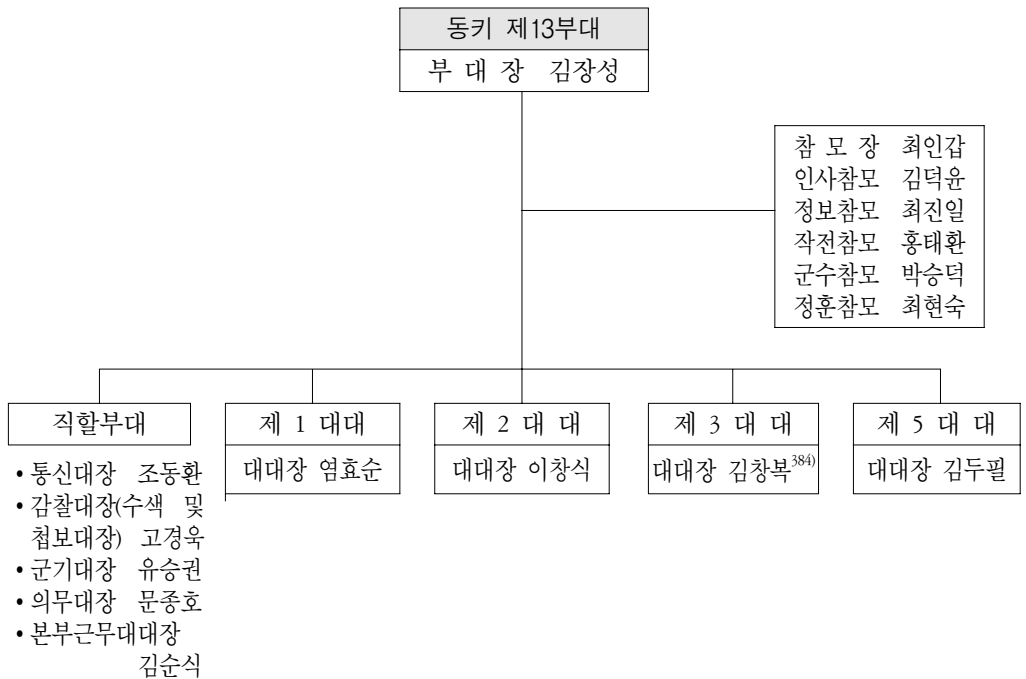
380) 전세권 대령(예) 증언, 2003. 7. 3.



부지역에서 미 공군특무대 소속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가 철수하여, 용매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원복 등 40여 명이 합류했다.<sup>382)</sup> 그런데, 이 부대의 주력이 될 해병의용대가 해체되지 않자, 부대는 임시체제로 운영되었다. 당시 간부진은 부대장 대리 박승덕, 인사참모 최현숙, 정보참모 최진일, 작전참모 홍길, 군수참모 김종성, 통신대장 조동환 등이었다.<sup>383)</sup>

1952년 10월 20일 한국 해병의용대가 해체되면서 대원 200명이 합류하여, 부대는 대원의 규모가 600여 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이 증강되었다.

<지휘관 및 참모>



381) 1952년 8월 15일, 부대를 창설했다는 주장도 있다(김장성, 『신천 10·13의거』, 『파라슈트』 13, 1953. 12. 25, 59면. 이미 1951년 7월 20일 혹은 8월 15일 부대를 창설하였다는 기술도 있고(신천부대, 『미극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신천군지』, 1984, 157면), 1952년 6월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조동환, 앞의 책, 566면).

382) 이원복, 『동키 제13연대』, 2002. 8.

383) 이원복, 『동키 제13연대』 2002. 8; 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157면.

384) 통신대장 이지택, 본부 근무대대장 김창복, 제1대대장 김복봉, 2대대장 이득용, 3대대장 김창복 등으로 개편이 있었다.



‘1013부대 김장성 부대장 외 간부’(이원복 제공)

이 가운데 500명 정도가 순위도에 주둔했다.<sup>385)</sup> 이 때 비로소 부대 편성이 갖추어졌다.

부대편제상 특징적인 것은 정보참모 아래 특수공작대가 있어서, 대수압도(15명)·용호도(13명)·마합도(13명)·창암리(13명) 등지에 공작원을 보냈고 별도로 적지 침투공작원(88명)을 운용했다.<sup>386)</sup> 간부 가운데 특징적인 요소는 30대 초반이 많았다. 홍태환·고경욱·염효순·이창식 등이 일본군 지원병이나 징병 출신으로 전투경험이 있었고, 김창복은 10·13 항쟁의 주동자였다.<sup>387)</sup>

385) 조동환, 앞의 책, 566면; 『동키 제13부대장 증언록』 1952. 11. 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편 SN 1400-1, p. 129. 1952년 11월 7일, 동키 제13부대의 규모는 625명이었다(『유격대관련자료』, 군편 SN 1963). 그런데 1,200명, 1,600명 혹은 1,800명이라는 주장도 있다(『8250제1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신천부대, 『미극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157면).

386) 『D 13부대 조직편성 급 화력배치도표』, 1952. 10. 31, 『유격대관련자료』,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휴전이 다가오자, 1953년 6월 12일 동키 제13부대는 동키 제1부대와 함께 대청도로 철수해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1954년 2월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대청도로 이동 후, 대원의 사기 고취와 교양함양을 위해 정훈참모 최현숙·박철·이원복 등이 부대회보인 『13주보』를 발간했다. 또한, 군예대를 편성하여 노래·연극활동으로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했으며 백령도 주둔 해병대를 위문하기도 했다.<sup>388)</sup>

## 나. 작전 활동

동키 제13부대는 순위도 중앙부에 있는 염전 이남의 남부 지역을 방어하면서 강령 반도를 포함한 웅진군 동남부 지역을 작전 구역으로 부여받았다. 그런데, 부대는 늦게 창설된 데다 대원들의 고향이 아니어서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첩보 확보가 어려워 기습작전보다 적정 탐색 등 정보수집을 주로 했다. 공작대를 편성, 내륙으로 침투시켜 적의 이동상황 및 주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유엔 공군기의 폭격을 유도하거나 포로수용소에 대한 첩보를 획득했다. 이를 위해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에 약 100명의 대원을 파견하여 세포망을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sup>389)</sup> 그들의 구체적인 성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952년 10월 21일 내륙 기지에서 활동하던 대원 5명이 첩보와 작전보고를 위해 부대 본부로 귀환 중 해주 북쪽 13km 마산동(YC397272)에서 북한군과 교전하여 북한군 17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2명도 전사했다.<sup>39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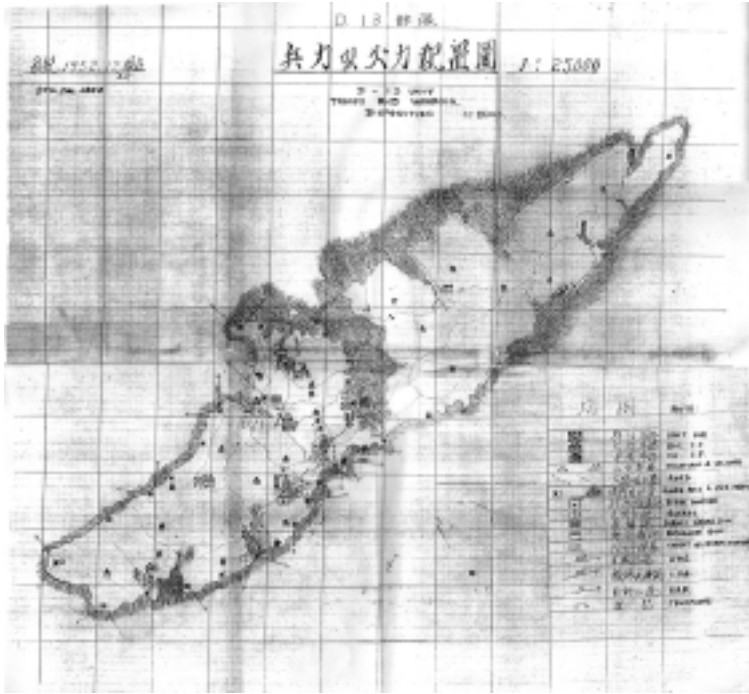
전투활동은 대개 10명 내외의 규모로 이루어진 소규모 작전이었다. 1952년 7월 20일 대원 9명이 재령군 하성면으로 침투했다. 이들은 신원에서 금천 사이의 도로를 따라 야간에만 군수품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군수차량을 폭파하기 위하여 장수면에 있는 장수산 기슭으로 이동하여 잠복을 했다. 마침 재령에서 전선으로

387) 김두필 증언, 2003. 12. 11.

388) 『당나귀 신문』 1952. 12. 6, 『당나귀』 2, 1952. 12, 92면.

389) 이원복 증언, 2003. 11. 8; 『동키 제13부대장 증언록』 1952. 11. 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211

390)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7” Nov.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D-13부대 병력 및  
화력배치도

이동하던 5대의 트럭이 날이 밝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장수산 계곡에 대피시켜 놓자, 이를 기습하여 경비병 2명을 처치하고 5대의 트럭을 폭파했다. 그리고 재령군 상성면의 백락산으로 이동하여 상성면 내무서 분주소와 상류면 분주소를 기습하여 내무서원 8명을 살해하는 등 후방을 교란한 후, 10월 중순 순위도로 귀환했다.<sup>391)</sup>

1952년 10월 중 작전활동을 정리하면 11일 대원 7명이 봉산 서쪽 10km 지점인 진저(YC382587) 지역에서 북한군 13명에 의해 호송되고 있는 37대의 우마차를 공격하여 북한군 11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부상시켰으며 권총과 소총을 노획했다. 또한 소 27마리를 죽이고 양곡 280가마를 파괴했다.<sup>392)</sup> 13일 23시 35분 대원 12명이 동남면 당장리(YC060950)의 경비초소를 공격하여 자위대원 1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3발과 군화 1족을 노획했다.<sup>393)</sup> 17일 대원 13명이 강령 지역(YC34362

391) 고경욱(첩보대장) 증언, 이원복, 『동키제13연대』, 2002. 8.

39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7" Nov.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39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70" Nov. 5, 1952.

5)<sup>394</sup>)에 있는 내무분주소를 공격하여 내무서원 3명과 자위대원 7명을 사살하고 건물을 방화했다. 권총과 소총 등도 노획했으나,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대원 6명이 강령 지역(YC249674)에 있는 현물세 보관창고를 공격하여 곡식 750가마를 파괴했다.<sup>395)</sup>

대원들은 대표적인 전투로 홍미반도 상륙전과 덕동포 상륙전을 기억했다. 1952년 9월 중순<sup>396)</sup> 옹진군 홍미 반도에 있는 홍미면 월계리와 회천마을 일대에 북한군과 중공군의 혼성부대가 해안선 경비를 위해 새로 배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월 18일 야음을 이용하여 250명이 출동했다. 이날 작전은 인사참모 김덕윤이 지휘하여 해군 함정의 지원 아래 홍미 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등산리로 상륙하여 적이 숙영하고 있는 마을을 3면으로 포위하고 공격명령을 대기했다.

9월 19일 새벽 4시 30분 사격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되자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은 일제히 집중사격을 하자 잠에서 깬 적병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으나 모두 현장에서 사살했다. 이 기습작전에서 적 120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소총 15정, 82mm 박격포 1문을 노획했다. 그러나 저항하던 적과 교전하던 중에 김세창·한준기 등 13명이 전사했다.

휴전을 앞두고 백령도 기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이 부대는 순위도로부터 대청도로 이동하여 부대정비를 끝내고 교육훈련을 하였다. 1953년 7월 11일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옹진군 덕동포에 주둔해 있는 적을 기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휴전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나, 부대에서는 덕동포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 고경욱 작전참모의 지휘 아래 대원 150명이 7월 25일 야간에 대청도를 떠나 덕동포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무사히 상륙한 부대는 적의 숙영지를 완전히 포위한 후, 04시를 기하여 해상의 유엔 해군 함정에 함포 사격을 요청했다. 유격대원들은 함포사격을 피해 도망쳐 나오는 적병을 공격했다. 일부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으나, 그들의 반격으로 피아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전

394) 좌표가 불명확하다.

39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7" Nov. 2, 1952.

396) 이 시기는 부대가 본격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때가 아니었으므로 10월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개되었지만 열세에 몰린 적은 교전 20분만에 완전히 도주했다. 그러나 적 증원 부대가 오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영국 해군<sup>397)</sup> 함정의 함포 지원 아래 해안까지 철수하여 대기하고 있던 선박으로 적지를 빠져 나왔다. 이 기습작전으로 대원들은 북한군 31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소총 29정·권총 2정·양곡 150가마 등을 노획했으나, 최성호·황락서 등 4명의 대원이 전사했다.<sup>398)</sup>

## 14. 동키 제14부대(평북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해체

동키 제14부대는<sup>399)</sup> 1951년 3월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高安面) 출신이 중심이 되어 창설된 후, 부대 기지인 애도(艾島)에서 활동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백마부대로 편입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의 반공청년 및 학생들은 산 속, 또는 서해안에 있는 도서 지역 등으로 숨어서 국군의 북진시기를 기다리던 중, 1950년 9월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10월초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해 을 무렵 고향으로 돌아와 치안대를 조직하고 질서유지와 북한군 패잔병 소탕에 전력했다. 그러나 중공군이 밀고 내려옴에 따라 서해안의 초도, 석도, 백령도 등으로 피난했다.

1951년 2월 3일 백령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고안면 출신의 김찬근(金贊根)이 평북출신이면서 오산중학교 졸업생이자 당시 해군 주둔부대장인 이희정(李熙鼎) 중령에게 자신의 반공투쟁 의지를 밝히자, 이 중령은 그를 백령도의 미군 모중

397) 미군 함정이라는 기술도 있다.

398) 신천부대, 『미국동사령부제8240부대약사』, 1975. 9.

399) 이 부대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애도피습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해 줄 간부들이나 대원들이 거의 생존하지 않아, 『한국전쟁과 유격전』의 내용을 토대로 『정주군지』(정주군지 편찬위원회, 1975)의 『유격 평북부대 혈전약사』를 보충하는 데 그쳤다.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에 수록된 내용도 동일하다.

위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 자리에서 미군 중위는 김찬근에게 앞으로 공산당과 싸울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한 후, 반공청년 4명을 대동하고 적지로 침투하여 달천강(撻川江) 철교와 오산(五山)에 있는 철도 터널을 폭파하고 돌아온다면 정주 출신 반공청년들로 1개 부대를 창설하여 정주 지역에서 유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찬근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약 1주일 동안 폭발물 조작법을 비롯해 적지에 상륙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1951년 2월 15일 김찬근을 비롯한 김상화, 김태화, 이덕엽, 강상혁 등 5명의 폭파대원은 북한군의 후방 군사시설 가운데 중요한 군수물자와 병력수송 노선인 경의선 철도의 철교와 터널폭파 공작임무를 띠고 TNT와 M2 칼빈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백령도에서 평북 정주군 방면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해안선이 가까워지자 상륙지점에 대한 적의 경비상황 등을 정찰하기 위하여 일단 운무도에 기항하여 그 날 밤을 그곳에 정박했다. 적의 동태 파악을 마치고, 2월 17일 저녁 운무도를 출발하여 이 날 야간에 상륙하여 고덕면 운평동 뒷산에서 2개조로 나누어 김태화와 김상화는 오산 터널을, 이덕엽과 강상혁은 달천강 철교를 폭파하기로 하고, 김찬근은 두 지점의 중간에 은신하여 양쪽의 연락과 지휘를 맡기로 했다. 2개 조의 대원들은 야음 속에 각각 목표지점에 도착해 폭파임무를 완수하고 석도를 거쳐, 3월초 백령도로 무사히 귀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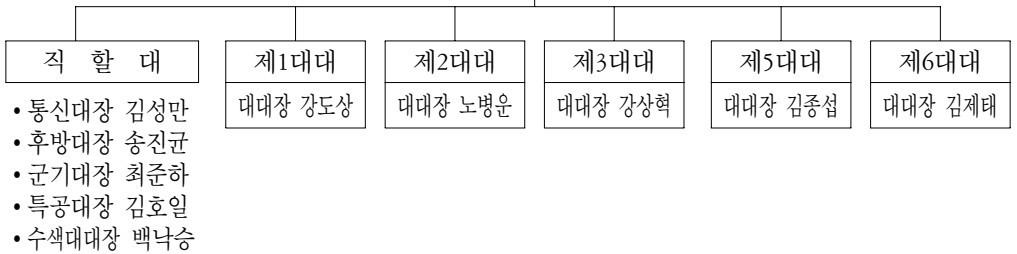
그들이 한국 해군 이회정 중령과 미군이 동석한 자리에서 경과보고를 하였고, 미군은 그들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여 약속대로 약 100명의 반공청년을 중심으로 유격부대를 조직하라고 통고했다. 이에 따라, 1951년 3월 26일 김찬근·강상혁 등은 정주군의 각 면 출신 83명을 선발하여 백령도에서 동키 제14부대를 창설했다. 평북 출신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평북부대로 불렸다. 부대기구와 간부는 편성표와 같다.

부대편성 후, 간부들은 백령도에서 미군 장교의 지도아래 통신, 3주 동안 폭발물 취급과 폭파방법, 사격훈련 등을 교육받고, 각종 무기와 보급품을 수령했다. 1951년 3월 26일 부대 기지로 정해진 애도(艾島)로 출발했으나, 애도와 해안선 일대의 적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갈도(葛島, 츠리섬)에 상륙했다. 갈도에서 임시 본부를 개설하고 섬의 요소 요소에 감시초소를

<지휘관 및 참모>

동키 제14부대	
부대장	김찬근
부부대장	김수정

인사참모	김홍규
정보참모	김은하
작전참모	박병린
군수참모	이덕엽
민사참모	최홍태
의무실장	김은식



평북부대 간부

설치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적과 전투를 한 차례 치른 후 애도의 상황을 파악하여 1951년 4월 중순에<sup>400)</sup> 상륙할 수 있었다.

육지에서 미처 도서로 철수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원, 청우당원 그리고 기타 반공인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애도로 들어왔고 백령도에서 36명이 보충되어, 대원의 규모는 360명으로 증가했다. 부대는 45mm 직사포 1문, 경기관총 35정을 비롯하여 대원 1인당 1정의

400)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 645면. 하지만 5월경, 혹은 6월경이라는 기록도 있다(『북위40도선』, 239면; 임응화: 백마부대 참모장) 진술, 『민족의 증언』 5, 288면).



소총과 이 밖에도 TNT 등 여러 종류의 폭발물도 보유했다.

그런데 1951년 11월 15일<sup>401)</sup> 애도섬이 중국군의 수중에 들어갈 때, 정보참모 김은하, 제1대대장 강도상, 제3대대장 강상혁, 수색대대장 백낙승 등의 간부들과 많은 대원이 희생되었다. 이에 따라, 백령도까지 무사히 귀환한 애도 생존자와 운무도에 파견되어 있던 대원 30여 명 가운데 일부는 인천 등지로 내려갔고, 1951년 12월 보급 수령을 위해 백령도에 있던 부대장 김찬근 등이 동키 제15부대에 합류함으로써<sup>402)</sup> 이 부대는 해산되었다.<sup>403)</sup>

## 나. 주요 전투

주요 작전으로 미군 조종사 구출을 비롯해 갈도, 농바우, 애도전투 등이 있다. 1951년 6월 15일 외장도에 북한군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특공대를 결성해 적군을 기습하기로 했다. 특공대는 운무도를 지나 외장도로 가는 도중 임포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물체가 멀리 갯벌에서 출현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수색했다. 그 결과 그는 미 공군 조종사였다. 그는 특공대를 북한군으로 오인하고 신분을 감추려 했으나 그를 운무도로 호송하여 신분확인 결과, 미 제5공군 소속 공군 중위 ‘전’이라는 장교임이 판명되었다. 즉시 백령도에 무전으로 타전해 기지사령부로 인계하고, 기지사령부로부터 많은 보급품을 받았다.

1951년 4월 2일 갈도에 주둔하고 있던 대원들이 북한 지역에서 애도를 향하는 7~8척의 범선을 발견하자, 부대장은 곧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간부회의를 열어 정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정 부부대장은 대원 2명을 데리고 전마선에 경기 관총 1정을 장착하고 애도와 갈도 사이에 있는 돌섬으로 접근해 갈 때, 갈도 기

401) 이유근(통신대장) 증언, 2003. 12. 5. 10월 15일이라는 기록도 있다(임응화 진술, 『민족의 증언』 5, 291면).

402)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 649면. 1952년 초에 백마부대로 편입되었다는 기술도 있다(『북위40도선』, 239면).

403) 생존한 일부 대원들이 부대를 정비하여 독자적으로 정보대를 계속 운용하여 휴전될 무렵까지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정주군지』, 514면, 517면).

습이 목적이던 적선 3척에서 사격을 해왔다. 김 부부대장이 경기관총으로 그 중 1척을 격침시켰으나, 나머지 2척은 갈도로 달아났다. 본부에서는 비상연락을 받고 전투대세를 갖추고 있다가, 그들이 해안선에 접근하자마자 집중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대원들은 8정의 경기관총을 휴대하고 고지로 집결하여, 공격해 오는 적에게 방어사격과 TNT를 투척했다. 이 전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자, 불리한 위치에서 공격하고 있었던 북한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숨었다. 대원들은 수색전을 전개하여 해안 일대에 숨어 있는 많은 적병들을 생포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89명을 사살했고 27명을 생포했으며 소련제 소총 60여 정 등 많은 무기 및 탄약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대원 2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포로 가운데 13명은 사령부로 보내고, 조선민주당원 출신 5명은 대원으로 편입했다.

농바우 작전은 북한군이 정주군 길산면 서남동 농바우 해안에 동굴포대를 설치해 놓고 유격대원들의 적지 침투와 반공인사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자주 20발 이상의 포탄을 애도에 퍼부었다. 이 때문에 부대의 방어진지가 파괴되고 애도에서 조기잡이를 나갔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부대 본부에서 1개 중대병력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그들의 포대를 파괴하기로 했다. 1951년 6월 22일 조경하(趙敬河)를 대장으로 한 특공대원은 애도항을 떠나 농바우 해안으로 침투하여 포대를 기습, 포대 일부를 파괴하고 경비병 2명을 사살했으나, 이 전투에서 조경하 특공대장이 전사했다.

적의 포대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으므로, 동년 8월초 제2차 농바우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이 때 작전참모 박병린, 군수참모 이덕엽, 특공대대장 김호일, 수색대대장 백낙승, 제3대대장 강상혁, 제5대대장 김종섭 등의 간부를 포함한 60여명은 다량의 TNT와 경기관총, M1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서남동 해안으로 상륙하여 먼저 그들의 통신선을 절단한 후 약 4시간 동안에 걸친 공격으로 포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0월 중순경 내륙에 침투했던 공작대원들로부터 곧 적군의 대규모 공격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부대 본부는 기지사령부에 내륙의 해안선에

밀집해 있는 적군 선박과 군사시설 등에 대한 공중폭격을 요청하여 3회에 걸쳐 적군 진지를 강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함께 뗏목을 이용하여 애도 부근으로 집결하여 공격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짐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 적군 집결지에 대한 폭격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11월 11일 미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대원 26명이 죽거나 다쳤고, 방어진지가 대파되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 피해를 수습하면서, 사령부에 의약품과 군수 보급물자를 긴급히 요청했다. 사령부에서 1951년 11월 15일 밤 12시 보급물자와 의약품을 공수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군수참모 이덕엽, 의무대장 김은식 등 간부들과 대원 10여 명이 모여서 신호불을 올리고 있는 순간 농바우와 장도 사이에서 적의 신호탄이 오고 가면서 애도 침공이 시작되었다.

2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중공군은 수십 척의 배와 뗏목으로 지상포격의 지원을 받으며 사면에서 공격해 왔다. 맹렬한 포격이 중단되자, 그들이 총격을 가하면서 상륙을 개시했다. 해안선 방어진지에 포진하고 있던 유격대원들은 모든 화력을 동원한 총력전과 수류탄공격으로 맞서며 필사적인 격전을 벌였으나, 새벽 4시경에는 거의 전멸한 상태에 이르렀고 탄약마저 바닥나면서 평북부대는 완전히 유린되고 말았다.<sup>404)</sup> 당시 부대에서 통신을 담당한 김원제 여자 무전사가 그 날 밤 백령도 기지사령부에게 적군 대병력이 침공하여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상사태를 보고하면서, 애도에 대한 공중지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이 전투에서 간부와 많은 대원들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고<sup>405)</sup> 생존자는 겨우 7명이었으며 이들은 작은 뗏목을 이용하여 섬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평북부대가 붕괴된 후, 유엔 공군기는 때늦은 폭격으로 애도에 상륙해 있던 북한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404)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196-197면.

405) 그 규모가 170여 명에 이른다는 진술도 있다(『북위40도선』, 240면).

## 15.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sup>406)</sup>

1950년 10월 하순 평북 정주에서 후퇴하던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이 패잔병들을 재편성하여 반공세력에 대한 보복전을 감행해 왔다. 당시 백벽산으로 피해 있던 반공청년들은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무기도 제대로 장비하지 못한 상태라 희생자가 속출하자 갈산면 약물산으로 일시 후퇴했다. 이 때 적이 노인·부녀자들을 아군의 동조자로 몰아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지 며칠 후 평안북도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해 오자, 반공청년들은 무장대를 조직하여 인민위원회를 접수하여 공산주의자를 찾아내어 보복을 가했다. 또한 북한군 패잔병들을 상대로 다수의 무기를 획득한 청년들은 면, 리·동 단위로 향토치안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각 치안대원들은 향토를 끝까지 사수할 것을 결의하고 다시 침공해 온 적의 대소 부대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전을 벌였다. 치안대원들의 미약한 장비로 적과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치안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2일 갈산면 치안 유지회장 문유도, 대전면 대표 안찬두, 고덕면 치안대장 김제익, 육군본부의 정보요원이었던 김응수, 김덕수 등이 정주군 갈산면 해안인 번좌리에 모여 통합 지휘관으로 김응수를 추대했다.<sup>407)</sup> 그리고 만일의 사태로 부대가 애도로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쌀 500가마도 준비했다.

1950년 12월 6일, 중공군이 대병력으로 공격을 가해 오자, 다음 날 치안대원들

406) 이 부대사를 정리할 때, 별도의 주를 명기한 부분 외에는 『유격전』(김찬수편, 2002. 12. 25), 『북위40도선』, 『한국전쟁과 유격전』 등을 주로 참고했다.

407) 김응수는 일본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었고, 기독교인이며 서북청년단원이었다(『증언록: 김응수』 1981. 1. 9, 전사편찬위원회; “The Narrative of Mr. Kim Ung Soo, Leader of Donkey 15”, “UN Partisan Forces” 1951-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이하,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으로 줄임). 1950년 11월 5일부터 그가 간부로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다(“Award of Medal of Freedom” Nov. 13, 1952,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그는 이 때 백마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증언록: 김응수』 1981. 1. 9, 전사편찬위원회) 사실과 다르다.

은 애도(艾島)로 후퇴했다. 이 곳에서 유격전을 펼칠 것을 결의하여, 12월 11일 130명의 대원으로<sup>408)</sup> ‘애도합동전투지휘소’를 창설했다. 애도에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애도부대’라고도 했다. 갈산면 출신 대원들은 제1중대, 고덕면 출신은 제2중대, 대전면 출신은 제3중대로 편성되었다. 당시 간부는 고문 정현삼, 대대장 김응수, 정보과장 승석균, 작전과장 김억수, 경비과장 장민경 등이었다. 장비는 소련제 경기관총 2정과 보총 40정, 다발총 20정 등이었다.<sup>409)</sup>

애도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애도에서는 내륙으로부터 식량이나 탄약을 확보할 수 없었고 정보도 입수할 수 없었다. 식량 결핍으로 “3식은 2식으로 밥은 죽으로 변했으며, 죽은 굴과 조개로 배를 채우고 칩뿌리로 기아를 면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1951년 2월 24일 전 피난민들을 데리고 애도를 떠나 초도로 옮겼다.<sup>410)</sup> 애도부대는 석도로 남하하여 연풍부대와 합류했다. 그 후 연풍부대가 구월부대로 바뀌자, 애도부대는 구월부대의 제3연대가 되었다. 간부진은 연대장 김응수, 부관 장치경, 인사참모 김대성, 정보참모 승석균, 작전참모 김덕수, 군수참모 김상희, 제1대대장 유태영, 제2대대장 정광남, 제3대대장 임응화 등이었다.<sup>411)</sup>

1951년 4월초 서해리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후, 부대 명칭을 평안북도 의주군 피연면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싸움터인 백마산성의 지명을 빌어 ‘백마부대’로 명명했다.<sup>412)</sup> 백령도 레오파드 기지사령관 버크 소령과 구월부대장 김종벽

408) 당시 병력 규모를 180명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09)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78-79면.

410)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79-80면. 부대장이었던 김응수는 2월 26일 이동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언록: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411)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면; “UN Partisan Forces” 1951-1952, p. 99. 그러나, 백마부대장 김응수는 구월부대로 합친 것이 아니므로 구월부대의 3연대로 칭한 것은 사실 무근이고, ‘합동작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증언록: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백마유격부대 전투사』(김응수 증언록), 1987, 육본 군사연구실 소장, 24면; 『북위40도선』, 94-95면). 하지만, 그도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때 ‘구월부대 제3연대장 김응수’였다고 말했다(『증언록: 김응수』 1969. 7. 4, 전사편찬위원회).

412) 김응수 증언, 『민족의 증언』 5, 284면. 이미 1950년 11월 22일을 기하여 백마부대(白馬部隊)를 창설했다고 한다(『북위 40도선』, 49-51면. 김낙형 소대장). 혹은 1950년 12월 7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 11. 13, 국방부, 『공적

대위와 갈등이 일어난 과정에서, 1951년 5월 1일<sup>413)</sup> 백마부대는 제3연대로부터 독립하여 백령도로 갔다. 이 곳에서 기지 사령부의 통제아래 폭파와 통신훈련을 받은 후 무전기 1대를 비롯해 무기와 식량을 지급받았다. 당시 규모는 300여 명이였다.<sup>414)</sup>

이들은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평안북도 서해안 일원을 백마부대 작전지역으로 하라는 명령을 받고, 5월 8일 정현삼이 선발대로 평북 철산군 대화도로 복상했다. 이 때 첩보부대인 고트대(Goat Net)가 그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미리 확인했다. 5월 25일 부대장 이하 중견간부와 통신대원 30여 명은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통신교육·폭발물 취급법·유격전술 등을 훈련받은 후 무기와 탄약, 식량을 가지고 대화도로 왔다.<sup>415)</sup>

부대본부를 대화도에 두고 인근에 산재해 있는 12개의 도서를 1개월만에 장악했다. 특히 신미도(身彌島)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섬으로 중앙에는 해발 533m의 삼각산이 있고 남쪽으로 원시림과 같은 숲지대를 이루었다. 내륙 작전을 위해, 외순도·가도·가차도·소화도·탄도·가도·접도 등에 병력을 파견했다.<sup>416)</sup>

이 무렵 가도와 가차도 맞은 편 내륙에 있는 모나자이트 광산에 강제로 수용되어 노동을 하고 있던 청년을 구출하여 그들을 신병으로 훈련시켜 대원의 규모는 900명으로 늘어났다.<sup>417)</sup> 대원들 가운데 이유크·김종선·김명근 등을 비롯한 오산학교 출신이 많았다. 1951년 8월 중순 간부진은 다음과 같았다. 1951년 11월 중순 미군 케스틸링거(Kestlinger) 중위와 1명의 하사관이 고문으로 왔다.<sup>418)</sup>

서철, 『군편 사료 304』.

413) 5월 9일이라는 기술도 있다(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414)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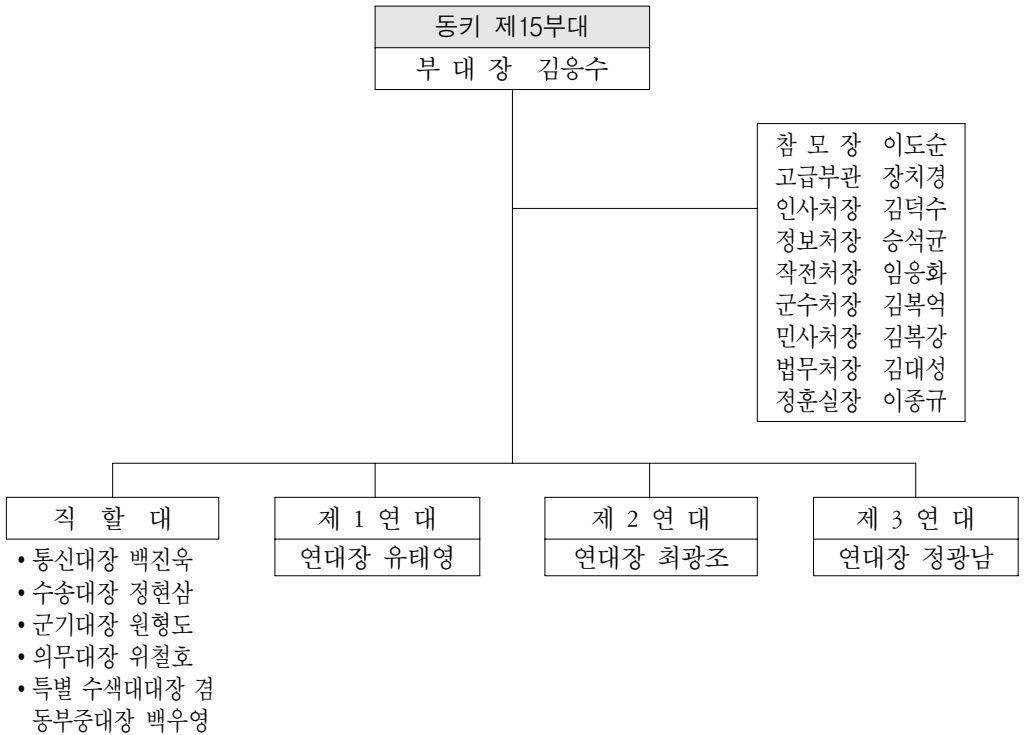
415)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면;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16)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D-15 김상희, 『적중대본부 기습실전기』, 『당나귀』 2, 1952. 12, 53면.

417)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81면. 1951년 8월말경 700명에서 대화도 피습 직전, 대원의 규모는 1,000여 명이었다고 한다(D-15 김상희, 『적중대본부 기습실전기』, 『당나귀』 2, 1952. 12, 52면;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18)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지휘관 및 참모>



부대기구 가운데, 정보처는 정보과, 공작과, 특무과 등으로 편성되어, 공작과에 복한 내륙으로 파견하는 공작원을 두었다. 민사처는 각 도서의 피난민을 보호하고 원주민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등 지방행정을 담당했다.<sup>419)</sup> 또한 당시 대화도에는 원주민과 많은 피난민이 있어서 취학 연령의 아동이 1,000명을 헤아리게 되자 1951년 7월 1일부로 부대직영 대화도 초등학교를 개설하여, 정훈실장 이종규를 교장으로 하고 교사로 작전과장 정운경의 여동생 정금실 등을 채용하였다. 대화도 초등학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대의 적극적인 배려로 유지되었지만, 11월 30일 중공군의 폭격을 맞아 불타버리고 부대마저 철수하자 사라졌다. 이 외에 탄도와 소화도에도 초등학교를 개설했다. 후에 간호사, 교사 등의 역할을 한 여군부도 편성되었다.<sup>420)</sup>

419)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1면.

420) 김응수, 한봉덕 외 증언, 2002. 9. 25.



김응수 부대장 외

1951년 11월 중공군이 탄도와 대화도를 침공하였을 때, 백마부대는 주력을 잃고 대청도로 후퇴했다. 이 때 유태영·정광남·최광조 등 3개 연대장이 모두 전사하거나 자폭했으며<sup>421)</sup> 100여 명의 대원들은 유격활동에 커다란 좌절을 느끼고 부대를 떠나기도 했다. 김찬수나 안응백 등은 육군 간부후보생으로 장교가 되었고, 이해평 등은 미군 첩보대로 갔다.<sup>422)</sup>

다행히 대화도 피습시, 인접 도서인 소화도에 주둔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2연대 대원들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벌이다가 고립되었으나, 승정현·홍성조(통신대원)·전성준·김정도 등 14명은 적의 보초병을 사살하고 배를 탈취하여 섬을 탈출했다. 또한, 대화도를 빼앗긴 후, 약 6개월이 지난 1952년 4월 28일 백운현·함동일·강영춘 등 8명이 백령도 기지로 돌아왔다. 그들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각기 분산하여 은닉장소를 찾아 굴속으로 숨었다가, 탈취한 배를 타고 삼차도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해동으로 얼음이 녹자, 중공군

421) 이태규 진술, 『민족의 증언』 5, 291면.

422) 한봉덕·김찬수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3. 2. 21, 12. 8.





대화도 탈출 8용사  
(1952.4)

포로 1명을 데리고 백령도 기지로 귀환하였다.

대화도에서 참패한 후, 김응수 부대장은 부대를 재편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대청도에서 부대 전통을 되살려 부대를 재편하였다. 마침 애도를 빼앗긴 동키 제14부대(평북부대)가 편입되었다. 평북부대장 김찬근을 참모장으로 하고 평북부대 작전참모였던 박병린을 작전참모로, 그 외 정보참모 김묵전, 군수참모 김대성, 제1대대장 한봉덕, 제2대대장 백우영, 제3대대장 송헌배 등으로 개편하였다.<sup>423)</sup>

1952년 5월 11일 대화도를 재점령하기 위해 부대장과 미군 고문이 함께 출동하여 16일 운무도를 장악했고, 6월 8일<sup>424)</sup> 대화도를 확보했다. 8월 27일 대화도 방어를 위하여 일부 병력만을 그곳에 잔류시키고 부대 지휘본부는 대화도와 운무도 중간에 위치한 납섬(납도)으로 이동했다.<sup>425)</sup> 그 이유는 적의 피습에 대비하는 한편 인근 섬들 가운데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납섬은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어서, 대화도나 영국 함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초도로 철수하여 본부를 두고 일부 대원을 봄에 납섬으로 파견하였다. 1952년 11

423) 임영, 『우리 부대장의 푸로필』, 『당나귀』 4, 1953. 2, 19면; 『북위40도선』, 272-273면.

424) 부대사에서는 7월 20일로 기술했다(314면).

425)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3면.



총훈탑(용유도, 1953. 10. 13)

월경 대원의 규모는 200명 내외였다.<sup>426)</sup>

납섬은 지리적으로 39도선 이북지역에 위치해서 항상 북한군과 중공군의 기습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의 보호를 받았다.<sup>427)</sup> 휴전협정이 임박해 오자 기지사령부의 철수명령을 받고 납섬에서 초도드래곤기지 사령부로 집결하였다. 1953년 7월 22일 초도기지를 출항하여, 같은 달 25일 경기도 부천군 용유도 왕산리(현재 인천직할시)에 도착했다.

1953년 8월 중순경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제8250부대 소속 유격대원을 육군으로 전속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1954년 2월 국군으로 편입되거나 제대하면서, 부대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 나. 주요 작전활동

### (1) 애도부대와 구월부대 시기

부대장의 공적서에 의하면, 부대는 1950년 12월 7일 이래 적 7,000명을 살상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군량미를 노획하거나 파괴했다.<sup>428)</sup> 물론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sup>429)</sup> 1951년 11월 15일 밤 9시경 2

426)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한봉덕 증언, 2003. 12. 8. 그러나, 대원의 규모가 1,000여 명 혹은 2,430명이라는 진술도 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8250 제6연대 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427) Douglas C. Dillard, *op.cit.*, pp. vii-viii, p. 12.

428) 토마스 A 다이 소령, 표기지 사령부, 『훈장 수여의 건』 1952. 11. 2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429) 부대창설이후 해체시기 까지 총 전사자의 규모는 55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북위40도선』,

개 연대 규모의 적이 지상포화의 지원을 받으며 유격대의 전초진지인 가도를 침공했을 때, 대원 33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달 30일, 대화도 피습시에도 많은 희생을 냈다. 이 때문에 김응수 부대장은 주둔지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쉬웠다고 회고했다.<sup>430)</sup> 1952년 5월 10일 22:00시, 제1대대장 한봉덕 지휘 아래 정주 앞 하강과 장동사 사이에 있는 중공군의 레이더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침투했다가 포로 1명을 잡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부대는 대대장 승헌배 이하 83명의 특공대를 전원 어부로 가장시켜 21일 밤 0:15분 정주군 남서면 보산동 해안으로 침투시켰다. 대원들은 상륙한 후 모두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진하던 중 레이더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경계를 하고 있던 중공군 매복조에게 발각되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장 승헌배가 전사하고 대원 5명이 부상을 입어 기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이 기지 폭파작전을 시도했으나 중공군의 경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동키 제15부대의 주요 전과는 애도부대, 구월부대, 백마부대 시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애도부대 시기 주요 전투는 1950년 12월 하순에 일어났다. 21일 대낮에 북한군 25명이 침공한 것을 물리쳤으나, 23일 북한군 300명이<sup>431)</sup> 재차 박격포와 다른 중화기로 사격하면서 접근하였다. 이날 하오 3시경 적의 선발대가 애도 앞의 봉어리 고지 대안까지 와서 투항하라고 소리치더니 적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자, 이들은 대대적인 엄호사격과 함께 공격을 개시했다. 이에 대항하여 대원들은 경기관총 3정과 소총 130정을 총동원하여 적을 100m 지점까지 유인한 다음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 결과 적은 약 3분의 1정도의 병력을 잃고 갯골까지 후퇴했다가 대오를 정비한 후 병력을 나누어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해 왔다. 유격대가 이번에도 적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개 방향에서 집중사격을 가하자, 적은 많은 희생자를 낸 후 후퇴했다. 이 때 밀

339면). 그런데, 1952년 11월 7일, 희생자 356명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다(『당나귀 신문』 1952. 12. 6, 『당나귀』 2, 1952. 12, 92면).

430)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31) 1950년 12월 17일, 북한군 1개 대대 500~600여 명이 애도를 공격해 왔고, 1월 16일 포격이 있었다고 기술되었다(『북위40도선』, 69-88면). 그러나, 김응수 부대장은 12월 27일경 북한군의 침략이 있었고, 그 규모는 400명이라고 진술했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물이 시작되면서 갯골에 조수가 밀려오자 그들은 철수길이 막혀 우왕좌왕하다가 익사했다. 이 전투에서 박격포와 대전차포를 비롯한 많은 무기, 실탄, 식량을 노획하여 새로운 대원 30명을 흡수할 수 있었다.<sup>432)</sup>

이 때 180명의 병력으로 300여 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조시 섬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하나 뿐인 데다, 적은 갯벌에 몸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대원들은 참호나 바위에 엄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응수 부대장이 작전을 가장 효과적인 소규모 부대작전으로 높이 평가했다.<sup>433)</sup>

구월부대로 편입된 후, 1951년 3월 21일<sup>434)</sup> 다른 연대와 함께 황해도 구월산으로 연결되는 월사리 반도 상륙작전을 수행했다. 대원들은 초도를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에 상륙목표 지점인 은율군 태우리 해안에 아무런 저항없이 무사히 상륙했다. 구월산 바로 밑에 있는 원주산(遠周山)고지를 점령한 후, 이 고지의 방어임무를 제3대대에 맡기고 제1·2대대는 석탄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진격했다. 이 전투에서 55명을 사살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1951년 3월 25일 서해리에 상륙했다가 철수한 후, 4월 5일 대원 56명이 재차 침투하여 북한군 1개 대대와 교전하여 2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sup>435)</sup> 1951년 4월 이태규 등 10명을 운무도로 파견하여 피난민을 구출했다.<sup>436)</sup>

## 나. 백마부대 시기

대화도로 이동한 후, 이 부대는 정주·안주·청천강 일대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 11월 1일, 백마부대 15명·동키 제16부대 12명·HID 요원 17명이 정크선 2척과 동력선 2척으로 출동한 경우처럼 다른 부대와의 협동 작전을 수행했다.<sup>437)</sup> 그러나 대개 백마부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432)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79면.

433)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34) 3월 27일경으로 기억되기도 했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35)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0면;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36) D-15 김상희, 『적중대본부 기습실전기』, 『당나귀』 2, 1952. 12, 53면.

백마부대는 적의 최전방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여 귀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438)</sup> 또한 철산 모나자이트 광산에 수용된 반공청년들과 안주·박천 등지의 피난민을 구출하여 백령도 등 후방으로 이송시켰고, 이외에 작전 중 추락한 유엔 공군 조종사를 구출했다.

유엔군이 후퇴한 후, 북한측이 유엔군 점령시기 국군과 연합군에 협조하였거나 혹은 우익진영에 가담하여 활약하였던 8,000여 명을 철산반도에 있는 모나자이트 광산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대에서는 가도와 가차도 파견대를 파견하여 광산 주변에 첩보망을 구축하고 이들과 접선하여 상당수를<sup>439)</sup> 부대의 전초 기지로 유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대원으로 편입했고, 나머지는 대화도로 후송하였다.

대화도가 적 수중에 넘어간 지 7개월이 되는 1952년 6월 7일, 대화도를 재차 8명이<sup>440)</sup> 출동하여, 8일 대화도에 상륙했다. 이들은 이전 부대본부가 있던 부락 확보하기 위하여 전초부대로 제2대대장 백우영의 지휘 아래 이용섭·전용호 등에서 목화송이로 쓴 ‘SOS’, ‘MAY DAY’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또한, 수색대는 어느 집의 앞마당에서 장작불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집을 4면으로 포위했다. 방문을 열어 보니 한 사람이 자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노랗고 코가 큰 것으로 보아 소련인으로 알았으나, 확인한 결과 미군 조종사였다. 수원비행단 단장이던 쉰츠(Albert W. Schinz) 대령은 1952년 5월 1일, 세이버 전투기(F-86 Sabre)로 신의주 상공에서 미그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리다 격추되어 해상에 추락하여 표류하다가 대화도로 상륙했다고 한다. 그는 대화도에서 37일간 공포와 고독과 싸우며 외로운 섬에서 반기아 상태로 겨우 생명만을 유지해 오다 6월 9일 새벽에 백마부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sup>441)</sup> 그 후 1952년 8월 15일 대원 9명을 운무도에서 신미

437) CCRAK Guerrilla, “Summary No. 172” Nov.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438) 소령 토마스 A 다이, 기지사령관, 『훈장수여의 건』 1952. 11. 13,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439) 『부대장 김우수 증언』, 1952. 11. 5. 그 규모를 2,000명 정도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440) 백우영 대대장을 비롯해 5명은 1952년 7월 중순 우리도 탈환전에서 전사했다(조오균, 『세이버버지기 미공군 대령 구출기』, 『당나귀』 2, 1952. 12, 61면).

---

441) 『다이제스트』 1952. 『한국의 로빈슨 크루소』, 『당나귀』 3, 1953. 1; Clay Blair Jr, “Robinson Crusoe of Schinz-do”, *Life*, Jul. 28, 1952.



대원들에 의해  
구출된 윈츠 대령

도로 파견시켜 추락한 B-26 조종사를 구출하려 했으나, 납도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포기하고 말았다.<sup>442)</sup>

전투활동의 성과 가운데 소규모 작전이 많았다. 일례를 들면 1951년 11월 17일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중공군을 생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3개 소대를 3척의 배에 나누어 파견했으나 영하 20도의 혹한과 역풍으로 인하여 1척은 실종되고 1척은 대화도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문경삼 소대장이 지휘하는 주형근·김찬수 등 11명의 특공대원들은 7시간의 항해 끝에 적진 가도에 상륙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중공군 경비초소를 기습한 후 분대장 1명을 생포하여 기지로 돌아왔다.

대원들은 여러 작전 가운데, 제1·2차 신미도 작전과 본토공작대, 해상특공대의 활동을 주요 작전으로 여겼다. 신미도 작전은 백령도 기지사령부 작전장교 제이콥슨(Jacobson) 소령으로부터 신미도의 현물세 창고에 다량의 양곡이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공격하기 위해, 신미도 내의 적군 방어진지와 병력배치 현황 및 상륙지점에 관한 지리적 특성 등을 탐지한 후, 1951년 5월 27일<sup>443)</sup> 부대장 지휘 아래 신미도를 향해 출발했다. 부대는 우리도(牛里島: 신미도 남쪽에 위치)에 작전지휘부를 설치하고 각 단위대는 목적지를

442) CCRACK Guerrilla, "Summary No. 91-92" Aug. 18-1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443) 부대장은 1951년 6월 7일로 기억했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향해 전진했다.

이 날 새벽 3시 각 단위대가 일제히 그들의 공격목표를 향해서 기습을 감행하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적은 도망치는 자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장교들이 저항했을 뿐이었다. 작전 결과, 60여 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1명이 희생되었다. 작전 후 대원들은 ‘악질 공산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면(面) 현물세 창고를 수색하여 양곡 3,500가마와 광목·무명·명주 등을 대화도로 수송하고 6월 19일 1,100여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대화도 기지로 귀환함으로써 15,000여 명의 대가족이 형성되었다.<sup>444)</sup>

<요도 5-8> 제2차 신미도 작전 경로



444)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80-81면;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제2차 신미도 작전은 1951년 8월에 있었다. 26일 신미도에 중공군 2개 중대 병력이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진지의 요새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대장은 적의 방어진지 구축을 저지하고자 병력을 우리도와 삼차도에 집결시켰다. 이 날 밤 10시를 기해 신미도 북쪽을 제외하고 동쪽과 남쪽, 중앙의 3개 방면으로 상륙하여 새벽 03시, 대원들은 기습공격을 했으나 제3연대만이 ‘고라치’에 있는 중대본부 기습전에서 중공군 3명을 생포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전연 적군을 찾지 못했다. 영국 해군 함정이 하오 2시 20분경에 비로소 신미도 남쪽 해역에 나타났다. 부대장이 해군 함정에 승선하여 함포사격을 요청함으로써 사격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힘을 얻은 아군은 계속 포위망을 압축하여 공격을 강화하였다. 전투개시 2시간 후, 2개 중대 병력의 적군을 섬멸하고<sup>445)</sup> 18명을 생포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대원들은 영국 해군이 신미도 북쪽으로부터 적의 지원부대가 상륙하는 것을 봉쇄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포위 공격에만 몰두하였다. 그 사이에 적의 증원부대가 북쪽으로부터 야간에 몰래 상륙하여 박격포로 제1연대를 공격하여 장석춘 외 8명이 전사하고 부상자 36명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고 서둘러 철수하였다.

육지에 공작대를 여러 차례 파견하여, 경의선과 지선(支線)·정삭선(定朔線)을 통해 적의 서부 전선으로 수송되는 보급을 봉쇄하는 한편, 적 본토내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1951년 7월 8일 최기식 제5대대장 지휘 아래 36명으로 편성된 제1차 본토공작대는 작전기간을 3개월 기한부로 정하고 가차도를 출발하여 무사히 본토로 침투했다. 이들의 임무는 평북 구성군에 위치한 구봉산으로 침투하여 수풍(水豊)에서 정주에 이르는 적의 철도를 파괴하는데 있었다.

구봉산에 도착한 공작대는 7월 20일 밤에 구성을 경유하여 정주로 향하고 있는 화물열차를 발견했다. 공작대는 철로 밑에 TNT와 콤포지션 등의 폭약을 장치하고 양쪽 능선으로 은폐하였다. 얼마 후 적의 화물열차가 능선의 고갯길을 내려가는 순간, TNT가 폭발하면서 기관차를 비롯한 화차 13량이 전복되어 화염에 쌓였다. 일부 전복되지 않은 화차는 공작대가 직접 폭파시켰으며 호송병들도

445) 400여 명을 살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원 사살하였다. 1주일 후 정주읍 뒤에 있는 터널 폭파작전과 8월 3일 정주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자동차 수송로를 마비시키는 작전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sup>446)</sup>

28일, 박순배를 대장으로 한 16명의 제2차 본토공작대를 침투시켜 양책에 있는 철도 터널과 양책과 비현 사이에 있는 철교를 폭파시켜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의주의 백마산성 근처로 기지를 이동, 8월 21일 밤 백마 수영장 위의 철교에 40개의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하는데 성공했다.

7월 29일 이태규를 대장으로 한 15명의 제3차 본토공작대를 본토로 침투시켜 철도 및 열차를 폭파시키는 전과를 세웠다. 이처럼 3차에 걸쳐 침투시킨 공작대는 임무를 완수하고 10월 3일까지 철산 반도를 거쳐 전원 무사히 대화도로 귀환했다.<sup>447)</sup> 그 후 1951년 10월 중순, 이태규는 대원 58명을 이끌고 철산 모나자이트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소련인 검사관을 생포하기 위하여 출동했다. 이동하던 중 중공군에 발각되었으나 오히려 적의 중대본부를 기습하여 1명을 생포하고 무전기 1대를 노획했다.

이태규 분대장은 이미 치안대 시절부터 많은 공을 세웠다. 대화도로 상륙하기 전 전마선으로 적의 보급선을 나포한 공로로 김응수 부대장의 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태규호’라고 불렀다. 부대장을 비롯해 대원들은 그를 가장 용감한 유격대원으로 기억했다.<sup>448)</sup>

한편 부대 본부는 중공의 뤼순(旅順)과 따련(大連)에서 출발하여 대동강 하구로 들어오는 북한군의 해상보급 루트를 방해하기 위해, 대원을 압록강 입구에 잠복시켰다가 적의 선단을 기습 나포 또는 격침시켜 적의 후방을 교란시켰다.

1951년 7월 30일 메추리도 파견대장 백금룡 지휘 아래 28명의 특공대를 압록

446) 김천일 등 72명을 구봉산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대화도를 빼앗긴 후, 내륙에 파견된 대원들과 연결을 할 수 없었다. 1952년 여름, 구봉산으로 파견한 72명 중 47명이 오봉산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대장은 파견대의 구체적인 전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47) 부대장은 1951년 9월 하순, 무전기 1대와 대원 42명을 신의주 부근의 천두산으로 파견한 사실을 기억했다(『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448) 김상희(D-15), 『적중대본부 기습실전기』, 『당나귀』 2, 1952. 12; 임응화 진술, 『민족의 증언』 5, 291면; 『부대장 김응수 증언』, 1952. 11. 5, 123면; 이태규 증언, 2003. 12. 11.

강 입구로 출동시켰다. 이날 오후, 특공대는 압록강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공의 보급선 3척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기 위해 적의 선단을 앞질러 신도 북방 만주 해안으로 서둘러 이동하였다. 대원 12명은 범선에 옮겨 타고 적의 선단이 통과할 지점에 잠복하고 모선인 발동선 북진호도 발동을 끄고 대기했다. 31일 새벽 2시 적이 공격 예정지점을 통과하자, 북진호에서 집중포격을 가해 3척 중 2척을 격침시키고 1척만을 예인하여 귀환했다. 이 작전으로 특공대는 중공선원 63명을 생포하고 밀가루 12,000포대·광목 200필·수수 3,600포대, 이 밖에 돼지고기·비단 등 많은 양을 노획했다.

해상특공대는 1952년 6월 대화도를 재차 장악한 후, 압록강 입구를 통하여 북한으로 수송되는 군수품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한편, 그들의 해상 수송로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sup>449)</sup> 1952년 8월 30일 한봉덕 대대장이 지휘하는 특공대는 운무도를 출항하여 압록강 입구를 거쳐 31일 21시경 만주 연안의 ‘따똥거우’ 앞 바다에서 적의 수송선단을 기다리며 해안선에 접근하여 잠복하고 있었다. 24시경, 3척의 정크선으로 구성된 적의 수송선단이 약 200m 거리 내로 근접하였을 때, 선두에서 항해하는 정크선을 향해 사격을 가하며 정지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중공군 경비병이 특공대의 선박을 향해 사격을 가해 오자, 특공대는 중기관총으로 응사하였다. 이에 적들은 전의를 잃고 닳을 내렸다. 특공대는 정크선에 승선하여 중공군 2명과 선원들을 생포한 후, 정크선을 예인하여 남도에 도착하였다.

1952년 9월 19일 중공 어부 13명을 생포하였고, 10월 5일에는 대원 8명이 중공 정크선을 공격하여 어부 8명을 생포하고 선박을 파괴했다. 10월 6일, 대원 25명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북한군 선박을 파괴하기 위하여 용천군 각시리(XE175204) 지역에 상륙하였으나,<sup>450)</sup> 적에 노출되어 철수하면서 북한 해군 2명을 사살하고 중공 어부 2명을 생포하였다. 10월 17일, 대원 14명이 비행장 건설 자재를 싣고 안통에서 따똥거우로 가는 중국선박 2척을 노획하고 선원 11명을 생

449) 이태규 진술, 『민족의 증언』 5, 291면.

450) 보고서상으로 선박이 있는 위치는 용천군 중흥동(XE164204) 부근으로 해안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어서 좌표 표시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했다. 10월 29일, 정크선을 타고 순찰하던 대원들이 적 정크선을 공격하여 1척을 침몰시켰다. 또한, 북한군 선박을 공격했다.<sup>451)</sup>

1953년 6월 26일 특공대장 박순배를 비롯한 대원들은 남섬을 출발하여 안동성 연안에 있는 따루또우(大鹿島) 섬으로 향하였다. 항해를 계속한 특공대는 밤 10시경 따루또우와 쏘루또우 사이의 지점에 이르러 적의 정크선단이 약 2km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 정크선 12척을 발견했다. 특공대는 적 선단이 약 500m 근방까지 접근했을 때 일제히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때 특공대장 박순배는 예인 중이던 엔진 보트에 분승하고 적 선단의 좌측에서 공격했다. 특공대의 강력한 집중사격으로 정크선 3척이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다. 재차 특공대장 박순배가 선단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공격을 하자 중간에 숨어 있던 경비정이 달려 들면서 역습을 해 왔다. 선두에서 지휘하던 특공대장이 적탄에 맞아 전사했으나, 대원들은 즉시 57mm 무반동총으로 응사하여 적 경비정을 침몰시켰다. 이러한 격전 중, 나머지 정크선 7척은 압록강 쪽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대원도 5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공군 정크선 3척 나포

45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6, 144, 146, 171" Sep. 22, Oct. 10, 12, Nov. 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16. 동키 제20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동키 제20부대는 동키 제2부대로부터 재편되면서, 구월부대 혹은 구월산부대로<sup>452)</sup> 불렸다. 동키 제2부대 김종벽 부대장과 백령도 기지 버크 사령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171명의 대원이 조난을 당하였고, 149명이 포로가 되어 부산 거제리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후, 유지춘 등 55명이 해병대에 입대하였으며, 황석·김성섭 등 60명이 이탈하여 인천 등지로 남하함으로써 부대가 와해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대원들은 부대의 전통을 살려 유격전 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도일을 중심으로 석도·응도·청양도·취라도·피도에 남아 있던 대원들이 동키 제20부대로 개편작업을 했다. 하지만, 사령부로부터 부대장에 임명된 이도일은 대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얼마 후 유격대를 떠났다.<sup>453)</sup> 이에 따라, 1951년 8월 4일 응도지구 작전지휘관인 김정수를 중심으로 백령도 기지사령부 신임 사령관 맥킨(Elroy H. McKean) 소령과 협의하여 부대를 재편했다. 이 때 김정수가 부대장이 되었다.

점차 대원이 늘어나면서 체제를 갖추어 나갔으나, 1951년 11월 송화 출신 노순하가 동키 제21부대를 창설하자, 송화출신 대원이 이 부대로 옮겨 갔고, 12월 11일 북한군의 피도 피습 이후, 연이어 청양도, 응도를 빼앗기자, 이들 지역에서 탈출한 대원들이 모두 초도로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부대가 괴멸되자”,<sup>454)</sup>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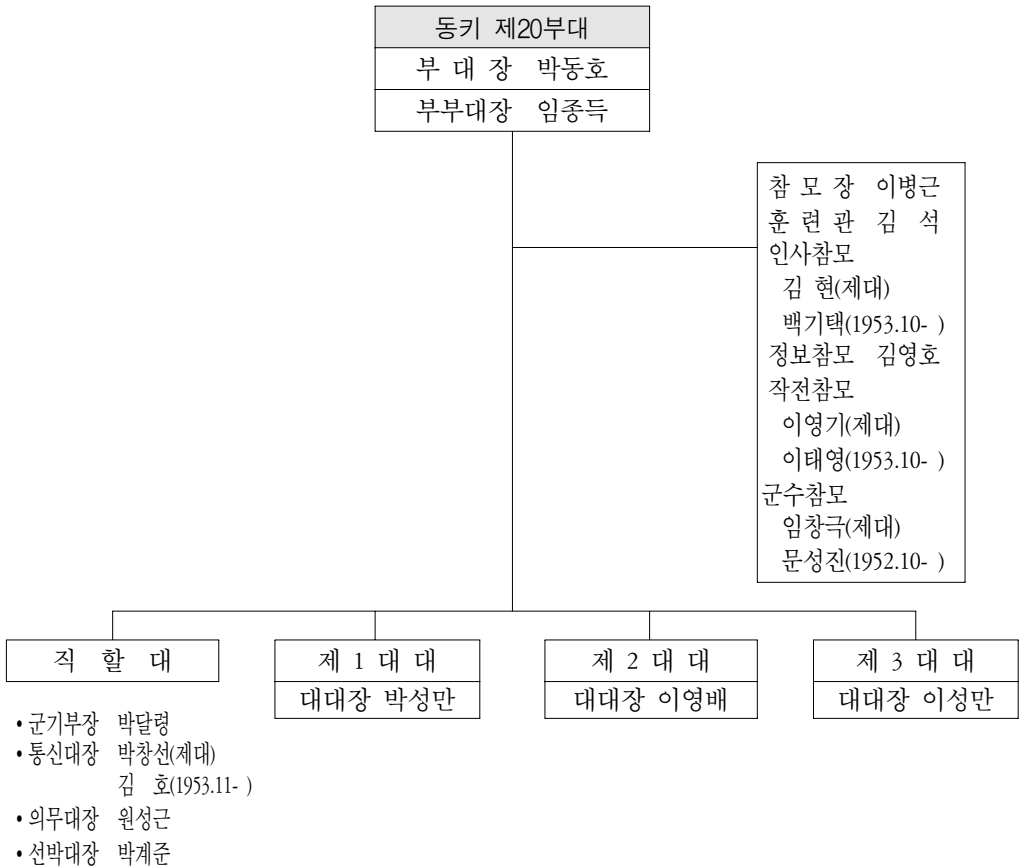
452) 대원들은 당시 구월산부대로 결의했으며, 휴전 후 1954년 7월 ‘구월산부대기념사업회’를 조직하는 등 줄곧 구월산유격부대로 불렸다고 한다(『구월산부대 환영회』, 『동아일보』 1952. 8. 16; 『구월산부대 전사자명부』, 1954. 7. 1; 『구월산』 머리말; 『구월산유격부대전사』, 115면, 215면). 그러나 1952년 11월 7일 보고서, 『당나귀』 지에 나타난 소속이나 1961년 전우회에서 제출한 기록에도 ‘D-20 구월부대’로 명기되어 있다(『D-20 병기통계 급 배치표』 Nov. 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이용삼, 『N도의 회상』, 『당나귀』 6, 1953. 4, 67면; 임중득,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 1961. 4. 13, 정무기록보존소). 또한 『구월산』에서도 ‘구월부대’, ‘구월산부대로’로 병행하여 사용했다(239면, 243면).

453) 백기택 외, 『구월부대 연혁』 1951. 10, 군사편찬연구소 SN 1273; 『항공의 불꽃』, 567면; 『구월산』, 234면; 박부서 증언, 전쟁기념관, 2003. 11. 19.

---

454) 임종득, 『D-20』, 1975.

<지휘관 및 참모>



크게 좌절한 대원 38명이 간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대를 떠나 남하함에 따라, 부대장 김정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하고 부대를 떠났다.

1951년 12월 23일 남은 대원들은 간부회의를 통해, 부대장으로 박동호 고문을 추대하고, 170명으로 2개 대대를 편성했다. 그 후, 북한군에 납치되었던 20명의 대원과, 1952년 8월 15일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10월 26일<sup>455)</sup> 부대에 복귀한 70명의 대원 그리고 남하했던 50명의 대원이 다시 합류하여 3개 대대로 부대를 확대 개편하였다.<sup>456)</sup> 1953년 휴전 후<sup>457)</sup> 박동호 부대장이 신병으로 사임하자, 부

455) 9월 중순이라고 기억한 경우도 있다(이병근, 『약전』, 날짜 없음).

456) 이 무렵 간부는 부부대장 임종득, 참모장 이병근, 인사참모 김현모, 정보참모 김영택, 작전

---

참모 이영기, 군수참모 문성진 등이다(임종득,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 1961. 4. 13, 정부기록보존소).

- 457) 임종득이 부대장이 된 시점을 1952년이나 7월 15일로 기록한 경우도 있으나(『항공의 불꽃』, 567면; 『구월산유격부대전사』, 138면), 1953년 8월 14일 부대장 박동호 명의로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배 대대장,  
한창관·이성만 대원 등

부대장 임종득이 부대장으로 취임하면서 참모장 이병근, 인사참모 백기택 등의 변동이 있었다.

1952년 11월 초 대원의 규모는 <표 5-2>와 같이 총 413명이었다.<sup>458)</sup> 구월산에도 기지를 계속 유지시켜,<sup>459)</sup> 10명 안팎의 대원이 필요에 따라 교체, 상주하며, 정보망 확장, 첩보활동 및 유격전을 전개했다. 구월산파견대의 구성은 대장 아래 특별분대·중화기분대·3개 소대가 있었고, 오석산 파견대의 구성은 파견

458) 이 무렵 대원의 규모가 600명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박동호』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미 고문관은 그 규모가 약 600명으로 초도에 300명, 나머지 300명 정도는 구월산 지역에 있었다고 회고했다(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1961년 조사에서 대원의 규모를 2,500명이라고 한 것은(『8250 제6연대 편성표』 1961.4, 정부기록보존소), 1951년 3월경 동키 제2부대 시기의 경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459) 이 기지를 강조해, 부대가 구월산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The Narrative of Mr. Lim Jong Duk, Sub-Leader, and Mr. Lee Byong Gun, Chief of Staff, Donkey 20" Nov. 3,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표 5-2> 병력 배치표(1952. 11. 7)<sup>460)</sup>

(단위 : 명)

공작지구	초도	취라도	구월산	왕황산 (은율군 이도면)	오석산 (평남 용강군)	
파견대	본부	제3대대	수색대대	수색대대	제3대대 3중대 50소대	
파견지구 책임자		김영호(S-2) 이영기(S-3)	수색대장 최원섭	부관 김봉오	제50소대장 박대성	
인원수	214	79	82	29	9	413

대장 아래 2개 분대가 편성되었다.<sup>461)</sup>

휴전이 다가오자, 김종식이 연락이 끊긴 구월산 잔류대원과 접촉하기 위해 장련면 하대진으로 침투하는 등 귀환공작을 시도하는 한편, 1953년 6월 8일<sup>462)</sup> 전 대원은 초도 중간동 광장에 모여 휴전반대 쫓기대회를 갖고 행진했지만, 휴전반대 구호는 파도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사령부에서는 부대장에게 주둔지인 하취라도의 모든 병커를 파괴하고 초도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대원은 초도로 철수했다가 다시 용유도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지연되자, 일부 대원을 다시 하취라도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원들은 영국 해군 항모 글로리호(HMS Glory)로부터 발진한 공군의 지원과 뉴질랜드 프리깃함(HMNZS Kanarie)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륙하여, 휴전 당일까지 이곳에서 주둔했다.<sup>463)</sup>

휴전이 성립된 날, 대원들은 취라도를 떠나 7월 30일 용유도에 도착했다. 이곳

460) 『D-20 병기통계 급 배치표』 Nov. 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이 무렵 부대병력이 970 명이라고 기술된 적도 있다(임종득,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 1961.4.13, 정부기록보존소).

461) 구월부대 문서, 1954, 구월산유격대전우회. 그런데, 구월산 기지에 파견된 대원이 82명이라고 보고한 것은 보급관계를 이유로 다소 과장된 수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석산 파견대장이 임용득이고 3개 분대로 편성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1952년 말 이후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구월부대 대원 명단』 날짜없음).

462) 『구월산』, 249면.

463) 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최일성·홍재근 등 5용사 귀환사진(1953. 11)

에서 그 해 12월 30일까지 미 고문의 지도 아래 공중낙하, 무전기 조작, 전투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기강과 규율을 유지했다. 1953년 12월 3일 용유도 을왕리 백사장에서 제8250부대 사령관 김완룡 장군이 사열을 받은 후, 대원들에게 6·25 종군기장과 유엔종군기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당한 대원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였다.

1954년 1월 19일 육군 편제에 의한 개편에 따라 제8250부대 제6연대 제1대대로 개편되고 임종득 부대장이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규모는 370명이였다.<sup>464)</sup> 1954년 2월 20일 계급과 군번이 부여되었고, 2월 16일자 국방장관 명의의 임명 사령장이 수여되었다. 이 때 부대장 임종득은 대위, 작전참모 이태영은 중위 등으로 임관했다. 1954년 3월 5일 대원들은 모든 무기와 장비를 반납하고 용유도를 출발하여 춘천에 도착함으로써, 육군으로 편입되었다. 하사관 33명과 사병 200명은 육군 제7사단에 배치되었고, 임관된 장교는 육군보병학교에서 16주간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전후방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다. 1954년 7월 8일 정 호·이덕호 등 부상자들은 대전 제63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했다.

464) 『8250부대 제6연대편성표』, 1961.4, 정부기록보존소.

한편 1952년 4월 12일 구월산에 침투했던 7명과 4월 29일 침투했던 5명 가운데, 이영배·최일성·배보양·박동점·홍재근은 북한 주민과 ‘인민군’에게 쫓기다가, 1953년 10월 14일 중부 휴전선을 뚫고 돌아왔다. 이들은 조사를 받은 후, 11월 3일 용유도에 도착해 전우들의 환영을 받았다.

## 나. 주요 작전활동

동키 제20부대는 1951년 10월 13일, 천동면 포정리에서 농우 29두를 노획하는 것을 비롯해 현물세 창고와 내무서 습격 등 후방 교란을 했다.<sup>465)</sup> 또한 심리전을 전개해 북한 주민의 월남이나 북한군의 귀순공작을 했다. 그 결과 남한으로 피난을 원하는 많은 북한 주민을 탈출시켰고, 1951년 9월 10일 서해리 주둔 북한군 포병 제582부대의 분대장 등 4명이 응도로 귀순했다. 25일 부대 공작원 임상복·신선준 등의 노력으로 북한군 포병 중좌 김운봉, 부소대장 김용섭, 분대장 2명이 응도로 귀순했고, 11월 8일 북한군 제17사단 제34연대 특무장 등 4명이 응도로 귀순하는 성과가 있었다.<sup>466)</sup>

그 외에도 1951년 8월 10일 서해리 반도의 포대를 폭격하는 미군 전투기 한대가 지상 포화에 격추되어 금산포(金山浦) 뒷산으로 떨어지고, 낙하산 하나가 퍼지면서 금산포 해안 쪽으로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부대에서는 즉시 공작선을 띄워 금산포 해상으로 달려가 인민군이 도착하기 전에 비행사를 구출하고, 미 고문관에게 인도했다.

이 부대는 북한 지역과 가까운 하취라도와 석도에서 야간에 적지에 상륙하여 기습공격을 주로 하였다. 때로는 57mm 무반동총을 동원하고 60mm 박격포를 선박에 장착하여 공격하였지만, 4~5명으로부터 20여 명의 대원들이 공격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52년 7월 8일, 21명의 유격대원들이 내금복리(XC996809)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여 2명을 사살했고, 정크선 2척을 침몰시켰다. 이 때 유격대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12일, 대원 12명이 답평리(XC953717)를 공격

465) 『구월산』, 237-238면.

466) 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하여 북한군 22명을 사살하였고 건물 1동을 파괴했다. 7월 22일, 대원 4명이 장련리 부근(XC992756)에 있는 북한군 대위 숙소를 기습, 사살하고 문서를 탈취하였다.<sup>467)</sup> 특히 1953년경의 작전은 10여 명이 참가하는 소규모 작전이 주로 이루어졌다.<sup>468)</sup>

여러 전투 가운데,<sup>469)</sup> 1951년 12월 18일 북한군 제23여단 제7대대의 응도의 피습으로 정삼양·박은서 등 32명이 전사했고, 작전참모 임종득과 대원 주용현 등 75명이 포로가 된 경우도 있었으나, 주요 전과는 다음과 같다.

1951년 10월 9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해, 10월 10일 석교리(石橋里)에<sup>470)</sup> 주둔해 있는 북한군 제23여단 제7대대 소속 보병 1개 소대의 진지를 포위하고, 날이 밝아올 때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는데 적들도 강력히 저항하여 3시간 넘게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맨 앞에서 포복 전진을 하던 제6대대 제1중대장 최봉신과 대원 김덕환이 쓰러졌으나, 대원들은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적의 진지 위에 올라간 최홍표와 박한옥이 수류탄을 호(壕) 안으로 던지자,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항복했다. 북한군 21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생포하여 백령도 기지사령부에 인계한 후 많은 보급품을 수령하였다. 부상당한 정용진·박원익 등은 대전 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1952년 4월 2일, 장연군 신화면 지구에서 교전한 결과 31명을 사살한 것을 비롯해, 1952년 6월 27일, 대원 42명이 운유면(YC944801)에 있는 76.2mm 포진지를 공격하여 북한군 35명을 사살하였고, 포대를 파괴하였다. 귀환 도중 그들의 경비정을 파괴하는 등의 전과가 있었다. 대원도 2명이 전사를 했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sup>471)</sup>

467) CCRAK Guerrilla, "Summary No. 58" Jul. 1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CCRAK Guerrilla, "Summary No. 63" Jul. 18, 1952, 같은 문서; CCRAK Guerrilla, "Summary No. 74" Jul. 30, 1952; CCRAK Guerrilla, "Summary No. 76" Aug. 1, 1952.

468) Merrill E. Newman's letter, Sep. 13, 2002.

469) 그들의 전과록에서 수십 차례의 전과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470) 1953년 8월 국방부에 제출한 문건에는 이 전투가 수록되지 않았다.

471) 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구월부대,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 1961. 4. 13; CCRAK Guerrilla, "Summary No. 49" Jul. 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1952년 7월 11일 대원 58명이 구월리(XC 965707)에서 중공군 100명과 북한군 200명을 대복하여 기습했다. 그 결과, 중공군 28명과 북한군 13명을 사살하였지만, 대원도 7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sup>472)</sup> 8월 8일 대원 31명이 울리(XC994715)에서 취침하고 있는 북한군 토벌대를 기습하여 23명을 사살하고 1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sup>473)</sup> 1953년 4월 4일 은율군 이도면 서해리에 상륙하여 교전한 결과 17명을 사살하였으나, 대원 5명이 전사했다.<sup>474)</sup>



부대 전과록(1953. 8)

## 17. 동키 제21부대(송호부대)

### 가. 연혁과 편성

동키 제21부대는 송화군 천동면·연방면·진풍면 등의 반공청년들로 조직된 부대로, 연풍부대와 구월부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1951년 11월 12일에 독립한 부대이다.<sup>475)</sup>

송화군은 북쪽의 은율군과 남쪽의 장연군과 마찬가지로 황해도 서안의 해안선

472) CCRAK Guerrilla, "Summary No. 65" Jul. 20, 1952.

473) CCRAK Guerrilla, "Summary No. 86" Aug. 13, 1952.

474) 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475) 『구월산』, 235면. 1951년 12월 중 독립했다는 주장도 있다(이두원, 『D-21』 1975).

에 있는 지역이다. 유엔군의 북진으로 미처 도주하지 못한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이 구월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치안확보가 시급했다. 송화군 역시 구월산 줄기를 동북부에 끼고 있어 적들의 습격을 자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미 결성된 ‘의혈반공동지회’와 ‘3·1동지회’에서는 치안대와 협력하여 질서유지, 주민보호, 좌익 빨치산토벌과 피습에 대한 방어전을 수행했다.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경의선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므로 송화도 적지로 간주되어 유엔군의 공습이 강화되었으나, 동지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반공청년들은 향토 사수를 결의하였다. 1951년 1월 초순 북한군이 송화읍에서 5km 지점의 낙산리를 점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개 중대로 편성한 기동전투대원들은 북한군 주둔지를 기습하여 10여 명을 사살했다. 적들이 박석산으로 도주하자, 이튿날 이를 추격하여 추가로 30여 명을 사살했다. 그러나 도주한 북한군이 병력을 재편하여 1월 10일 공격해 오자, 치안대는 무기와 탄약 부족으로 경찰간부 김상설과 차도순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sup>476)</sup>

따라서 송화무장대는 범선, 기관선, 해군 함정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들을 먼저 초도로 철수시키고 비상식량도 상당량을 초도로 운반하여 월동에 대비했다. 대원들은 연풍부대와 더불어 서부면 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 제38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다가 1951년 1월 21일 밤 ‘허세뿌리’ 전투를 끝으로 고향 땅을 적에게 내주고 초도로 철수했다. 초도로 철수한 무장대는 며칠 후 김종벽 연풍부대 부대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풍부대 제2연대 6대대(대대장 이영호)로 편입했다.<sup>477)</sup>

1951년 3월 16일 송화군 출신 청년들을 보강하여 구월부대 제5연대로 확대 재편되어, 연대장으로 김명현이 취임했다. 그러나 원주산 전투에서 연대장 김명현을 비롯한 많은 대원이 전사하자, 연대는 종전대로 제2연대 6대대로 재편성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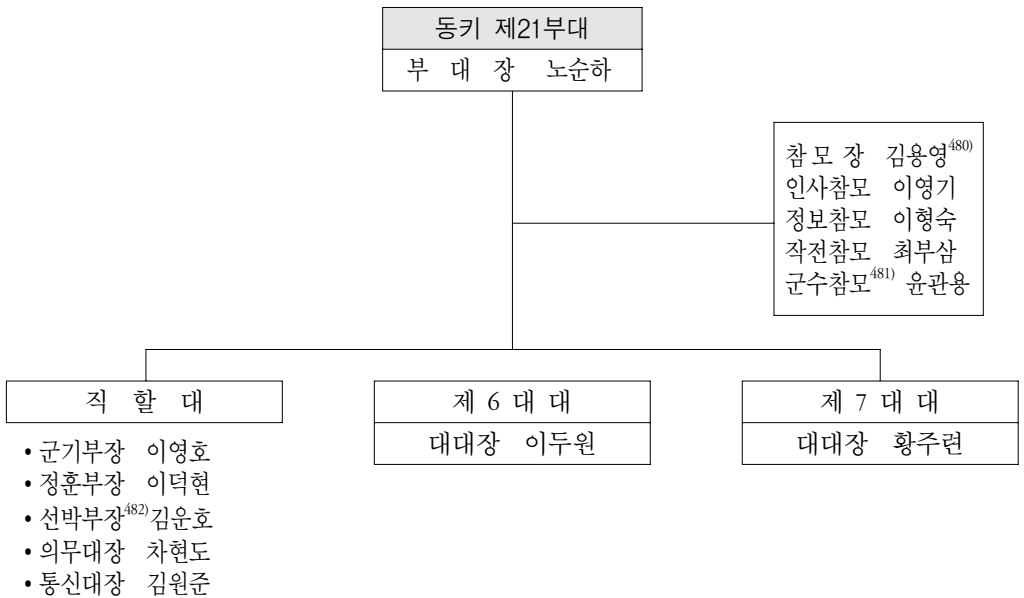
476) 『황해도지』, 301-304면 ; 『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501-507면.

477) 당시 간부는 대대 부관 이두원, 제1중대장 송근설, 제2중대장 황주련, 제3중대장 최부삼 등이다.

다. 이 과정에서 이영호 대대장은 미군으로 편입되어 그들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 구왕산으로 대원 9명과 함께 들어갔고, 대대장은 이두원으로 바뀌었다.<sup>478)</sup>

1951년 11월 백령도 레오파드 기지사령부에서는 구월부대를 개편하면서, 송화 출신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대대를 동키 제21부대로 창설하도록 했다. 대원의 규모는 430여 명으로, 이 때부터 송호부대(松虎部隊)로 불렸다.<sup>479)</sup>

### <지휘관 및 참모>



478) 최봉진, 『통쾌하던 그날』, 『파라슈트』 4, 1953. 5. 24; 이형우, 앞의 책, 332-333면; 이두원 증언, 2003. 8. 26. 이영호는 후에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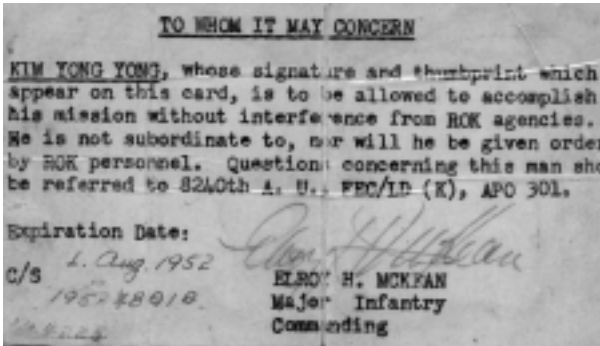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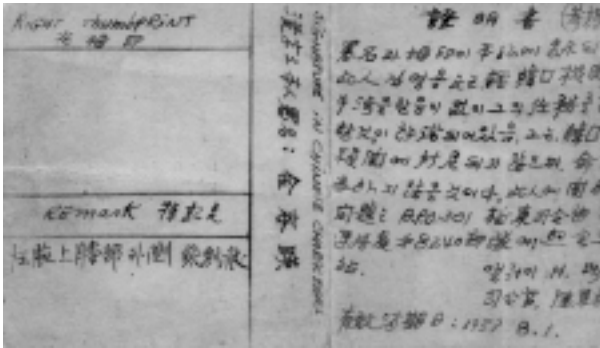
479) 『황해도지』, 346면.

480) 『한국전쟁과 유격전』에는 이용영으로 되어 있으나, 부상으로 인한 보훈수혜를 요망하는 민원제출 서류에 따르면 김용영임(1988. 3. 18). 그는 송화군 북내면 출신으로 북한군에 징집되었으나 해주 수양산으로 도주하여 유격대활동을 하다가 합류했다.

481) 후방참모라는 표현도 있으나, 편제표에는 군수참모로 되어 있다(『Donkey 21 편제표』, 1952. 11, 군사편찬연구소 SN 197).

482) 운수부장이라는 표현도 있으나, 김운호의 참전사실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선박부장이다(1995. 8. 5).





김용영 참모장 신분증명서(1952. 8. 1)

부대편제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1·2대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6·7대대로 편성했다는 점이다. 정훈부에서는 전투부대의 사기 양양에 노력하는 한편, 초도와 석도에 주둔하고 있는 후방부대에 대해 나태와 의욕의 상실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반공의식을 고취했다고 한다. 작전이 줄어들 겨울에는 교양사업을 강화했다.<sup>483)</sup> 1952년 4월 초순경 부대는 조명선·문명섭 등의

적지 잠복조를 침투시켜 구왕산에 기지를 설치하여 적정을 탐지하고, 항공폭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52년 말경 부관 황주련·참모장 김운봉·작전참모 이영호·군기부장 김학선·정훈처장 양길선·통신대장 양상익·제7대대장 장창덕 등으로 개편되었고, 제8대대(대대장 이동수)도 증편되었다.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중대 아래에는 2개 소대씩 두었다. 각 대대의 규모는 6대대가 53명, 7대대 52명, 8대대 54명 수준이었다. 참모장은 1951년 9월 25일 가족과 함께 귀순한 북한군 포병대대장 김운봉(金雲峰) 중좌였다.<sup>484)</sup>

대원의 규모는 연풍부대 시기 100명 정도에서 구월부대 제5연대의 시기 300명

483) 이덕현, 『감사장』, 『당나귀』 5, 1953. 3, 91-92면; 이덕현, 『6·25참전 무공수훈 사실확인 청원서』, 1995. 9. 6.

484) 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그는 초도로 피난나와 대민활동을 하고 있던 민사처 박동화의 조카 사위였던 관계로 신원이 보장되었다. 휴전 후 HID 활동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두원·최부삼 증언, 2003. 8. 26).

정도로 늘어났고, 1952년 11월 경 443명이라고 보고되었다. 실제 기지사령부에서 인정한 규모는 270명 정도였다. 대원들 가운데 무장 인원은 165명에 불과하고, 무기 부족수가 278정이었다.<sup>485)</sup>

휴전 후 안면도로 철수했으나 다시 인천 앞바다 용유도로 이동하여 교육훈련을 하다가 1953년 8월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8대대로 전환되었으며, 1954년 2월 연령이 많거나 부상자 등은 제대하고 나머지 대원은 육군으로 편입되었다.<sup>486)</sup>

## 나. 주요 작전활동

송호부대의 작전은 구월부대 시기와 독립된 이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동키부대보다 창설이 늦었지만 초도에 본부를 둔 송호부대는 그 건너편이 대원들의 고향인 송화군이었으므로 지형과 지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잔류하고 있는 반공청년들이 존재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기에 유리했다. 피난민을 후방 지역으로 철수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sup>487)</sup>

연풍부대 시기, 옹도에 주둔하여 정찰대 요원으로 대대의 천동면 석탄리 출신 장충원과 유포리 출신 김유선·신정호를 적지에 침투시켰다. 이들 정찰대원들은 1951년 2월 19일 심야에 유포리 이형우 집에 도착하여 은신하면서 적정을 수집하여 귀대했다. 그들의 정찰 보고에 따라 22일 연풍부대는 석도·옹도·청양도에서 출동하여 월사리 해안에 상륙했다. 월사리에 상륙한 제6대대는 원주산 기슭을 타고 밤새 행군하여 다음 날 새벽에 석탄 근방에 도착하여 제1중대는 운성, 제2중대는 신돈촌, 제3중대는 원주산 풍천쪽에 포진하였다. 아침 7시 전투개시 신호탄에 따라 진풍 월사리·학계리·천동 석탄리·서부면 광암포 등에서 기

485) 『Donkey 21 편제표』, 1952. 11, 군사편찬연구소 SN 197; 『D-21연대 편성표 및 무기통계표』, 1952. 11, SN 1963; 김추사, 『우리 부대장의 푸로필』, 『당나귀』 6, 1953. 4, 17면. 대원의 규모를 489명으로 주장한 경우도 있다(『제6연대 제8대대 중 D-21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486) 『송호부대 명부』, 1953. 1. 21, 특전사 역사관. 그런데 군대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연령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487) 이덕현, 『감사장』, 『당나귀』 5, 1953. 3, 92-93면; 강기천, 앞의 책, 101면.

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북한군 1개 소대를 격멸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경기관총사수 이덕환이 전사했다.

구월부대 제5연대로 개편된 후, 1951년 3월 중순 해군 소해정의 지원 아래 초도를 출발하여 진풍면 수산리 해안에 상륙하여 적과 교전중 북한군이 송화로 운반하던 양곡 700여 가마를 노획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연대장 김명헌을 비롯한 많은 대원이 전사했다. 1951년 3월 27일 이도면 감정리 제3차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4월 12일, 은율군 서부면 제4차 상륙작전에서 야간에 기습을 감행하여 기관총과 소총 다수와 양곡 50가마를 획득하였다.<sup>488)</sup> 8월 24일 피난민들로부터 북한군 제23여단 소속 고사포 1개 소대가 강운리(姜雲里)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연대장 김정수가 대원을 데리고 다음 날 새벽에 기습 공격하여 소대장과 사병 등 2명을 생포하고 나머지 적을 사살하였다.

1951년 10월 10일 제6대대는 대대장 이두원의 지휘로 은율군 석교리(石橋里)를 습격하여 수류탄공격으로 토치카를 점령하여 12명을 생포하였다.<sup>489)</sup> 12월 18일 응도와 청양도에 있던 인접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철수하자, 연대는 12월 24일 밤에 응도와 청양도 탈환작전을 실시하였지만 적의 반격으로 김유선 이하 5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철수하였다. 이 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장창덕·오승현·최기현 등을 후에 월사리로 상륙하여 호염심을 경유 귀대했다.

동키부대로 독립한 이 후에는 구왕산 기지에서 적정을 탐지하여 항공폭격을 유도하는 작전을 했고, 1953년 1월 대원 21명이 황해도 송화로부터 장연읍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열차를 파괴했다고 한다.

전투활동으로는 1953년 5월까지 대규모 상륙작전은 자제하고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했다. 1952년 6월 5일 정찰조가 송화 동남쪽 8km 떨어진 봉래면 수교리(XC939421)에서 북한군과 접전하여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부상시켰다.<sup>490)</sup> 23일 01시 대원 35명이 과일 동북쪽 2km 지점인 하평동(XC775576)에서 북한군 2개 소

488) 최부삼, 『6·25 참전 무공수훈 사실확인청원서』, 1995. 9.

489) 최봉진, 『통쾌하던 그날』, 『파라슈트』 4, 1953. 5. 24, 48-53; 이두원, 『6·25참전 무공수훈 사실확인청원서』 1995. 8.

490) CCRACK Guerrilla, "Summary No. 35", June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대와 30분 동안 접전하여 32명을 사살하고 무반동총 3정을 노획했으나, 대원 4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7일 대원 15명이 송화 북쪽 25km 떨어진 구왕리(XC863609)의 북한군 70명을 공격하여 무전기 1대와 다발총 1정을 노획했다.<sup>491)</sup> 8월 2일 대원 30명이 과일 서남쪽 5.5km 지점인 사내동(XC710523)에서 북한군 1개 소대를 공격하여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다. 이를 추격해 온 북한군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하고 도주하려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사살했으나, 유격대원 3명도 부상당했다.<sup>492)</sup>

60명이 넘는 전투규모도 있었다. 1952년 8월 26일, 대원 60명이 옹진 서쪽 3km 지점인 낙안동(YC038007)에서 토벌대와 교전하여 북한군 8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무전기(SCR 300)가 고장났다. 10월 24일 대원 70명이 초도 건너편에 있는 송화군 박산동 해안가(XC756645)로 상륙하여 박산동(XC774646)에 있는 북한군 중대본부를 기습했다. 증원군을 막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고, 25일 1시 40분 본부를 공격했다. 1시간 30분 동안 교전 끝에 북한군 9명과 공산주의자 15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5명을 생포했으며, 우마차 12대와 쌀 35포대 등을 파괴했다. 대원도 2명이 전사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sup>493)</sup>

## 18. 기타 부대

백령도 기지사령부 아래 소속되어 있었지만, 기록이 없거나 생존 대원마저 연

491) CCRAK Guerrilla, "Summary No. 43, 49", June 27, July 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생존 대원들은 6월 15일 혹은 7월 2일에 옹도와 청양도 탈환작전을 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군 보고서에서 나타나지 않아 간단히 서술한다. 부대본부는 선박이 부족한 여건에서 옹도·청양도를 탈환하여 작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탈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오승현 중대장, 김학준 소대장, 최찬국 대원을 선발대로 하여 옹도와 청양도 탈환작전에 성공하여 은울 안악 사리원 방면으로부터 나오는 피난민을 구출하였다. 이 전과로 백령도 유격기지사령부에서는 많은 보급품을 보내와 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고 한다(오승현, 『6·25참전 무공수훈 사실확인 청원서』, 1995. 5. 4; 『한국전쟁과 유격전』, 283면).

492) CCRAK Guerrilla, "Summary No. 81, 107", Aug. 7, Sep. 3, 1952.

49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7, 167", Sep. 3, Nov. 2, 1952.

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규모가 작아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대로, 동키 제16부대, 동키 제19부대, 동키 제22부대, 수도부대, 천용부대, 황해부대, 방카부대 등이 있었다. 이 부대들은 대부분 초도에 주둔했다. 각 부대의 규모는 황해도 재령출신으로<sup>494)</sup> 구성된 봉부대 250명, 수도부대 180명, 천용부대(부대장 김기렬, 정보 권태훈 등) 252명, 황해부대 160명, 방카 부대 230명 등이었다.<sup>495)</sup>

동키 제16부대(맹호부대)는<sup>496)</sup> 다른 부대와 같이 규모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한국군 첩보대 소속 양창렬 등 장교 4명을 파견받아, 백령도에서 주로 평양 인근 출신 대원 27명을 모집하여 창설했다.<sup>497)</sup> 대원들은 백령도에서 첩보와 유격훈련 외에 낙하산 교육을 받고, 1951년 5월 말경 애도로 상륙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1951년 11월 중순 애도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동키 제14부대와 달리 부대본부가 해안가에 있었던 까닭에 철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후 1952년 봄 다시 애도로 상륙하여 활동했다.<sup>498)</sup> 평안남도 안주 출신의 양창렬 부대장 아래 참모장이 있고, 4명의 참모 외에 군기관과 의무관도 있었다. 처음에는 1개 대대로 편성되었다가 대원이 늘어나면서 제2대대까지 있었다. 제1대대는 3개 중대, 제2대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되었다.<sup>499)</sup> 당시 부대 본부는 외순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 8월 21일 23시경 중공군 300명이 정크선에 박격포와 기관총을 장착하여 외순도에 포격을 가한 후 상륙하였다. 대원들은 그들과 맞서 150명을 무력화시켰으나, 22일 새벽 2시 중공군 150명이 추가로 상륙하여 부대의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대원들이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숫적 열세와 탄약이 고갈되어, 부대장

494) 광복현(군기대장) 증언, 2003. 12. 9.

495) 『8250제6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496) 이 부대의 관련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다행히 이응문의 회고가 남아 있다(『고귀한 양 중위는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당나귀』, 1952. 11).

497) 강동환은 황해도 출신이어서, 결국 동키 제3부대로 옮겨갔다고 한다(강동환 증언, 2003. 11. 19).

498) 강동환(제1대대장) 증언, 2003. 11. 19. 강동환은 한국군에서 파견한 장교들이 임시 중위였던 것으로 기억했다.

499) 『당나귀』 2, 1952. 12, 81면. 간부들 가운데 제1대대장 강동환, 통신대장 한상일, 제1중대장 유명운 등이 기억되는 외에, 어느 섬 상륙전에서 소대장 신병수, 이도수가 특공대를 조직하여 탈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이응문, 앞의 글, 53면; 강동환 증언, 2003. 11. 20).

은 철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부대장은 도망하기보다는 자결을 택했다. 전투결과 비록 외순도는 빼앗겼으나, 중공군 229명을 사살하는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결사대원 5명이 적의 동력선 1척을 파괴했다. 그러나 부대장을 포함한 대원 151명이 전사하고 동력선 1척이 침몰했으며, 생존 대원은 53명에 그쳤다.<sup>500)</sup> 양창렬 부대장이 전사한 후 통신대장 전응세가 지휘했다. 1952년 11월경의 기록에는 대원의 총 규모는 143명이라고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무장대원이 74명에 불과하여 부대장이 전사한 후 전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01)</sup>

<동키 제16부대 부대가>

즐기찬 묘향산맥, 정기를 받아  
기세도 억세어라, 관서남아들  
떨공에 끓는 마음, 한데 뭉쳐서  
나아가는 우리 대, 맹호부대다  
날려라 파라슈트, 북쪽 하늘로  
우리는 향도탈환 급선봉이다.

동키 제16부대는 ‘부대가’에서 나타난 대로 관서지방 출신이었던 까닭에 주로 평안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1952년 6월부터 9월 사이 작전활동의 기록이 일부 남아 있다. 1952년 7월 7일 유격대원 3명이 숙천군 남삼리(YD073674)에서 북한군 2명을 공격한 전투나, 8월 1일 대원 3명이 오교리(YD130567)에 지뢰를 매설하여 우마차 5대와 탄약 60상자를 파괴했지만, 대원 1명이 전사한 경우처럼<sup>502)</sup> 소규모 작전도 많은 것 같았다.

기록에 보이는 규모 있는 전과로는 1952년 6월 4일, 문덕군 서하리(YD058739)에서 선원 6명과 정크선 1척을 노획한 사례가 있다. 또한 7월 6일 대원들이 삼차도 근방(XD0560)에서 북한군 경비정 1척과 정크선 5척에 의해 포위를 당했으나

500) CCRAK Guerrilla, “Summary No. 97”, Aug. 24, 1952.

501) 『D-16 부대편성 급 장비배치표』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502) CCRAK Guerrilla, “Summary No. 81” Aug. 7, 1952.

나, 경비정 1척과 정크선 2척을 침몰시키고 정크선 3척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503)</sup>

1952년 7월 30일 대원 37명이 숙천군 육리 해안(YD024655)에서 중형 탱크를 파괴시키고 탱크에 타고 있던 북한군 4명을 사살했다. 폭파 소리를 듣고 추격해 온 중공군 50명과 교전하여 5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8월 9일 정주군 축섬(XD8977) 방향에서 11척이 동원된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쳤다.<sup>504)</sup> 그렇지만 1952년 10월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추궁을 당했다.<sup>505)</sup>

동키 제16부대 외에는 자료가 극히 한정되어 그들의 자세한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다른 부대의 경우처럼 소규모 기습작전이나 첩보 수집활동을 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동키 제19, 22부대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다. 동키 제19부대 대원 4명이 1952년 8월 17일, 안주군 용호리 저수지(YD205752)를 파괴했다. 동키 제22부대 대원 8명이 1952년 7월 6일, 은율 북쪽 13km 떨어진 장련리(XC991747)에서 북한군 보급창고의 경비초소를 습격하여 11명을 사살하고 쌀 500가마·콩 200가마·밀 100가마 등을 불태웠다.<sup>506)</sup>

503) CCRAK Guerrilla, "Summary No. 26, 62" June 7, July 17, 1952.

504) CCRAK Guerrilla, "Summary No. 81, 85" Aug. 7, 11, 1952.

505) "Records of Discussion" Nov.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506) CCRAK Guerrilla, "Summary No. 58, 96" July 12, Aug. 23, 1952.

## 제 2 절 울팩부대

### 1. 울팩 제1부대

#### 가. 부대 편성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는 정식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제1사단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이었으므로 사병화(私兵化)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보급문제도 겪었다. 더욱이 미군이 이 지역에 유격기지를 창설했으므로 1951년 7월경 제5816부대 직속유격대는 미 제8군 제8086부대로 편입되었다가 11월경<sup>507)</sup> 극동군 사령부 주한연락처가 강화도에 설치한 울팩기지의 제1부대로 되었다. 대원들은 ‘강화독립부대’로 불렸다. 간부들은 국민방위군 출신이 주를 이루었다.<sup>508)</sup> 안일채 부대장이 노획품처리 등 부대운용상 갈등으로 물러나고 방위군 소령출신인 임원빈이 대신하였다. 이 때 전 부대장을 따르던 간부들이 소대장, 중대장의 직위에서 대원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일부는 축출되어 대원들 사이에 갈등요소가 되었다.<sup>509)</sup>

을지 제2병단 특별연대가 해산된 후 일부 병력이 합류하면서<sup>510)</sup> 1951년 10월 초 대원이 1,300여 명으로 증가되자, 부대를 3개 대대·1개 중화기중대·박격포중대·수색중대·첩보대 등으로 편성하였다.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부대본부를 강화읍 관청리에 두고, 본부 예하에 교육대·의무대·통신대·수송

507) 정도현 외, 『경고문』 1989.5.1; Commanding 2nd PIR, “Memo” Nov. 30, 1953(임원빈 제공문서). 1952년 3월 1일 미 제8240부대로 편입되었다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이규학, 『추억』, 1953<최용무 제공>, 102면).

508) 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7.13.

509) 안 부대장은 1951년 11월 중순 구급되었다가 이듬해 2월초에 복직된 후 4월 하순 부대를 떠났다(『추억』, 95, 100, 103면).

510) 박상준 증언, 2003.11.7.





부대본부(강화도)



부대창설 2주년 기념식에서 열병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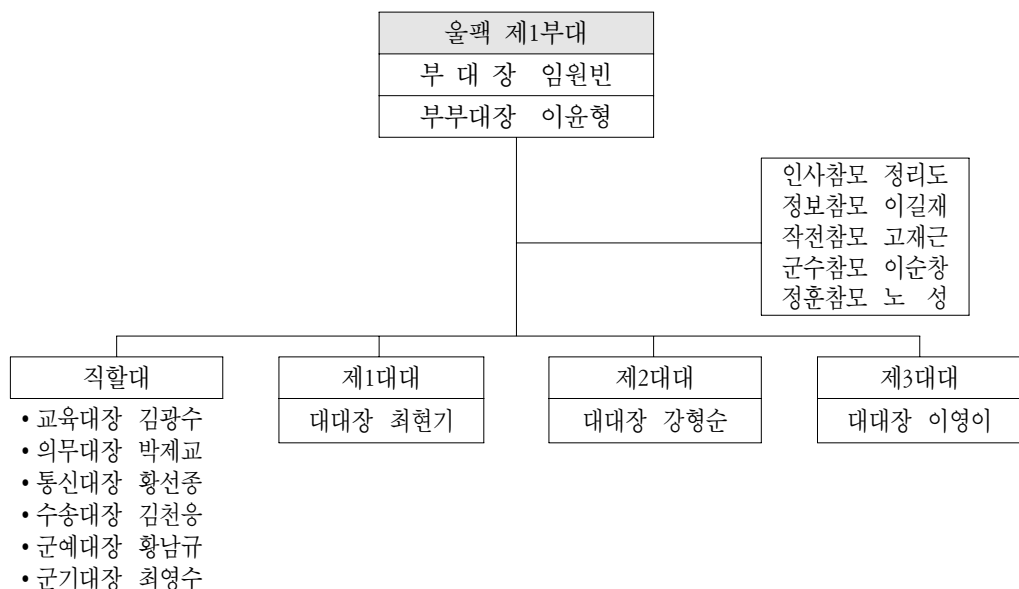
대·군기대·군예대 등을 두었다. 제1대대는 하점면, 제2대대는 내하면, 제3대대는 하점면과 내하면 경계선에 배치했다. 중화기중대는 60mm에서 81mm 박격포, 75mm 무반동포, 57mm 대전차포까지 갖추었다.<sup>511)</sup> 미 고문관은 웰스(J. N. Wells), 존슨(L. S. Johnson) 대위, 존스톤(D. F. Johnstone) 대위, 노던(R. C. Northern) 대위 등이었다.<sup>512)</sup>

511) 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7.13.

1952년 11월경 대원의 규모는 1,500여 명이였다.<sup>513)</sup> 대원들은 황해도 연백, 봉산 출신과 경기도 개풍 출신이 많았다. 그 외에, 평안남도 안주와 강서, 평안북도 철산과 정주 출신들이 있었으며, 일부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담양 출신도 있었다. 대원들 가운데 우국형 15세, 김명환·김영열 16세, 강종진·최성진 17세 등 ‘소년유격군’도 다수 있었다.

휴전 후 유격대원들은 국방부 제8250부대 제2연대 제1대대로 재편되었다가, 육군 제1사단 등으로 정식 편입되었다.

### 『지휘관과 참모』<sup>514)</sup>



512) Commanding 2nd PIR, "Memo" Nov. 30, 1953(부대장 임원빈 제공문서).

513) 한국군과전장교단장, 『훈장추천: 임원빈』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 같은 문서철. 그러나 1953년에 부임한 미군 장교는 부대의 규모를 1,000명 정도로 회고하였다(Col(R.), Charles W. Norton, Jr.' S Letter, Oct., 2002). 이 외에 1,750명(『8250 제2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혹은 3,500~4,000명 규모로 주장한 경우도 있다.

514) 『독립부대 본부, 8240』, 1961, 정부기록보존소; 임원빈, 『강화독립부대 편성표』, 2003. 11. 21. 그런데 1951년 12월 중순 부부대장 박봉룡을 부대장으로, 제3대대장 임원빈을 부부대장, 3대대장 김택균으로 임명했고, 1952년 4월 26일 임원빈이 부대장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이규학, 『추억』, 96-98면, 103면).

## 나. 주요 작전 활동

부대의 임무는 주둔지인 강화도의 방어와 치안을 유지하여 강화군민의 생업 보장과 민심수습에 기여하는 동시에, 연백·연안·백천·개성·개풍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적정 수집과 후방 교란이었다.<sup>515)</sup>

부대장 임원빈의 공적서에 의하면, 이 부대는 1951년 5월 19일부터 1952년 11월 1일까지 23회의 작전을 수행했다.<sup>516)</sup> 부대의 규모에 비해 작전수행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당시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북한군과 중공군이 해안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용이하지 않는 데다가, 미 제8군사령부에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개성 주위 반경 5마일 지역은 공격이나 상륙하지 말도록 지시했기 때문이었다.<sup>517)</sup> 이러한 여건 아래, 부대장은 인명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은 하지 않고, 소규모 탐색전·매복작전·첩보활동을 주로 하여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sup>518)</sup>

1951년 7월 유엔 공군기 1대가 추락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관 웰스와 강화도 밤축말로 출동하여, 미군 조종사 1명을 구조하고 기체 일부는 해체 후 수송했다. 1951년 8월초 평북 창성군 출신 북한군 특무장 1명이 귀순하여 여현지역에 소련군 300명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기지사령부는 소련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오거나 생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정욱 등 30여 명 대원이 차출되어 1개월 정도 훈련을 받은 후, 9월초 강화도 양사면 산이포에서 범선 1척으로 개풍군 당두포에 상륙하여 예성장 줄기를 따라 토성을 거쳐 북상하던 중 북한군에 발각되어 쌍방이 치열한 교전 끝에 3명만이 귀환하고 나머지는 전사했다.

515) 강화경찰서장 김연화, 『감사장』 1953.3.1; 강화군수 윤갑로, 『감사장』 1953.4.4; 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7.13.

516)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R.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같은 문서철).

517) 임영의 증언, 2002.8.29; 이인탁(부관) 증언, 연구소 회의실, 2003.3.19; 남정욱 증언, 2003.4.23; HQ,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509, pp. 52-53.

518) 임원빈 증언, 2003.4.25, 11.11.

침투작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휘관은 제1대대 제1중대장을 거쳐 부관과 부부대장이 된 이윤형이었다. 1951년 8월 26일, 개성에서 벽란도에 이르는 주변 일대의 적정을 탐색하기 위해, 제1중대장 이윤형은 1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개풍군 당두포에 상륙하여 개성과 연백을 잇는 나루터인 벽란도에 제1분대를, 개성으로 가는 도로변에 제2분대를 배치했다. 제3분대는 벽란도로 가는 도로변에 매복시켜 적정을 탐색하도록 했다.<sup>519)</sup>

적을 기다리던 중 개성 쪽에서 벽란도로 오는 2대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유격대는 이들이 벽란도 나루터에서 나룻배로 옮겨 타려고 할 때, 기습하여 전원 생포하려 했으나 내무서장과 정치보위부원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들을 사살하고 나머지 8명을 생포했다. 이들로부터 ‘로동당 황해도 연백군 및 개풍군 조직편성표’, 지령서 등을 노획하였다.<sup>520)</sup>

1951년 9월 6일 제1중대장 이윤형은 창릉(昌陵)까지 나아가 북한군 중대장 1명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개풍군



1951년 10월까지  
노획한 무기

519) 예성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를 수색하던 중 벽란도 셋강에서 적 선박을 발견하여 공격했다고 기술한 적도 있다(박봉룡·임원학, 『전투약사』, 1980).

520) 박찬석(1중대 1소대 1분대장), 『벽란도 기습작전』 2003.4.22.

풍덕(豊德)에 있는 중공군 1개 대대와 치열한 교전 끝에 2개 소대의 적 병력을 사살하고 중공군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특히 이 전투에서 생포한 중공군 포로의 진술에 의해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전선으로 이동하고 대신 중공군 제4야전군 제12병단 예하 제119사단이 연백지구예, 중공군 제1야전군 제19병단 예하 제194사단 및 제195사단이 개풍군 일대에 각각 포진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 박창호가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sup>521)</sup>

이후 성과가 컸던 작전으로는 1952년 6월 4일, 대원 62명이 배천군 하포동 해안(BS657949)으로 상륙하여, 중공군 31명을 사살하고 10명을 부상시킨 작전을 들 수 있다. 이 때 대원도 3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sup>522)</sup> 그러나 <표 5-3>에서처럼 일부 기록에 남아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1952년 6월과 9월 중 작전활동은 대개 10명 내외 소대단위 규모로 한강 어귀 순찰 혹은 상륙하던 중 교전하다가 곧 철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1952년 9월 중 작전활동 가운데 9월 1일 11명, 5일 7명, 18일 11명, 19일 10명과 14명, 21일에는 11명이 출동하였다. 이 가운데 좀더 자세히 서술하면, 9월 5일 대원 7명이 개풍 남쪽 약 15km 지점인 간오지(BS735952)로 상륙하여 기관총과 소총으로 중공군과 한 시간 동안 교전하다가 중공군 4명을 사살한 후 철수했다.<sup>523)</sup> 1953년에는 소규모 대원으로 첩보

<표 5-3> 1952년 6월, 9월 작전 성과<sup>524)</sup>

(단위 : 명)

일 시	6월			9월				
	4일	18일	24일	1일	5일	18일	19일	21일
인 원	62	불명	6	11	7	11	14/10	11
전과 (사살)	32 (중공군)	1 (중공군)	정크선 격침		4 (중공군)	전과 확인 안됨	전과 확인 안됨	전과 확인 안됨

521) 박찬석(1중대 1소대 1분대장), 『개풍군 창릉전투』 2003.4.22.

522) CCRAK Guerrilla, “Summary No. 31” June 1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23) CCRAK Guerrilla, “Summary No. 31, 111” June 12, Sep.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24) CCRAK Guerrilla, “Summary No. 31, 36, 42, 106, 110, 111, 125, 129, 132” June 12,-Sep.28, 1952.

수집 외에 주로 북한군 진지와 내무서 등을 공격했다.<sup>525)</sup>

실패한 작전도 있었다. 1951년 12월 27일 제1대대의 제1·2중대가 출동하여 개풍군 당두포(堂頭浦)로 상륙하여 전진하다가 중공군과 교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철수했다. 이 때 안연호·이영찬이 전사했다. 1952년 11월 24일 산이포에서 제1대대 부관 이윤형은 제1대대를 인솔하고 중형 목선 2척과 범선 1척으로 개풍군 삼달리포(三達里浦)에 상륙했으나 중공군에게 완전 포위되었다. 밀물과 썰물 시기를 무시하고 거기다 엔진까지 가동한 채 상륙작전을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후퇴하던 중 배가 침몰하여 적진지로부터 맹렬한 사격을 받아 발동선이 적의 포탄에 명중되자 제1중대장 추봉구와 제2중대장 진교배를 비롯해 27명이 전사했다.<sup>526)</sup>

## 2. 율백 제2부대(타이거여단)

### 가. 창설배경과 편성

율백 제2부대는 육군 을지 제2병단에서 재편될 때 동키 제5부대로 편입되었다가, 1952년 1월 1일 율백 기지사령부로 편입되었다. 율백부대 중 대원이 제일 많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한 황해도 38선 일대의 반공청년들은 유엔군이 북진하기 전에 이미 지하활동을 전개했다. 연백지역에서는 박정복, 양석호, 마용일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탄(韓國彈), 최봉옥과 최병태 등이 결성한 연백 학생동지회, 유우범을 지휘자로 한 온천치안대(溫泉治安隊) 등이 있었다. 이들은 반공테러는 물론 북한 청년조직체인 ‘민주청년동맹’ 등에 침투하여 활동하

525) Col(R), Charles W. Norton, Jr.' S Letter, Oct., 2002.

526) 육군제5816부대유격군전우회, 『6·25참전 무공수훈자청원서: 이윤형』, 1998. 8. 31; 『추억』, 105-108면. 전우회의 ‘전사자 명단’에는 추봉구 중대장의 전사일자가 1951년 1월 24일로 정리되었으나, 이는 오류이다.

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자유를 얻은 이들은 대한청년단, 치안대, 청년방위군 등의 이름아래 치안확보와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한 후 1950년 12월 하순 연안의 각 관공서 관리들이 철수함에 따라, 2개월 동안 학도의용대(최봉옥·최병태·홍은철), 청년방위군(최현기·노병식·공성로), 연백치안대(황천성), 연안치안대(이현서), 해병특공대(김병식), 구국결사대(유우범), 동운치안대(안승두), 연백소년단(원철희), 천태치안대(김상연) 등은 유엔군이 다시 진격할 것으로 믿고 치안 공백상태에 놓인 연백지방의 치안을 유지했다.<sup>527)</sup>

그러나 1951년 2월 하순 밀려오는 중공군으로 인하여 여러 청년대원들은 강화도·교동도·용매도 등으로 철수했다. 이들은 식량조달을 위해 적지에 상륙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중 육군 첩보대와 연결되어, 1951년 3월 27일 육군 을지 제2병단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간부진은 사령관 소령 차동준, 참모장 및 정보참모 이상훈, 인사참모 이은장, 작전참모 김병식, 군수참모 원철희, 군기대장 최만산, 의무대장 이충연, 정훈실장 오일환, 특별연대장 최중석, 제21연대장 황천성, 22연대장 이현서, 23연대장 김상두, 25연대장 안승두, 26연대장 공성로, 27연대장 라창묵 등이었다.<sup>528)</sup> 부대 본부는 교동도에 있었다.

을지 제2병단이 된 이들은 청년방위군 장교들 및 낙오된 국군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교육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 지역에서 미군이 유격대를 창설하려고 하자, 1951년 3월 28일부로 육군본부는 을지병단을 미군 예하로 편입시켰다.<sup>529)</sup> 즉 을지병단은 미 제8군 통제하의 백령도 기지사령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동키 제5부대로 편성되었다.

1951년 4월 말경 순위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26연대는 지역상 백령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백령도 기지사령부 지휘아래 편입되어 동키 제11부대로 편입되었다. 나머지는 5개 연대로 재편되어 제21연대(연대장 황천성)·22연대(연대장 이현서)·23연대(연대장 김상두)·25연대(연대장 안승두)·특별연대(연대장 최중석) 등

527) 주한국제연합유격군, 『타이거여단 역사』 1953.7, 5-9면.

528) 『8240 타이거여단』 1961, 정부기록보존소. 당시의 병력은 5,000명 규모라고 한다.

529) 『육본훈령 제11호』 1951.3.28, 『한국전쟁사료』 65, 1064면.

이었다.<sup>530)</sup> 출신지를 보면 제21연대는 흥현과 평산치안대, 제22연대는 연백군의 치안대 및 학도대, 을지 제23연대는 연백군 ‘구국결사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강화도에 주둔했던 특별연대가 백령도 기지사령부 직속부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동준 사령관은 이들을 교동도로 이동하도록 지시했으나 특별연대 대원들은 대부분 강화도 출신이어서 명령에 불응했다. 1951년 6월 20일 강제로 해산되었다.<sup>531)</sup>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제8240부대)가 창설된 후, 1951년 8월 그 동안 백령도 기지사령부 통제를 받던 부대는 강화도에 창설된 울팩(Wolfpack) 기지의 통제를 받았다. 이 때 타이거여단으로 개편되면서 을지 제2병단 제22연대장 이현서가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전 차동준 사령관은 한국 육군본부와 연계를 유지하다가 미군 기지사령부와 갈등을 일으켜 동키 제5부대 ‘사령관’에서 해직되어 육군본부로 복귀했다.<sup>532)</sup> 울팩 기지에는 8개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울팩 제2부대는 타이거여단을 주축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대명을 계속 타이거여단으로 호칭했다.

교동지구 지휘관이었던 페리(E. M. Perry) 소령은 이현서 부대장에게 1951년 8월 17일, 제21~23, 25, 27연대를 3개 연대로 재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부 인원을 줄여 3개 연대로 재편하면서 대원의 규모가 1,000명 규모로 축소되었다. 제1, 2연대는 교동도로 이동하였고, 제3연대는 용매도로 이동하도록 했다.<sup>533)</sup> 이때 간부진은 참모장 박상준, 행정과 이은장, 정보과 유우범, 제1연대장 라창목, 제2연대장 황천성, 제3연대장 안승두 등이었다.<sup>534)</sup>

1951년 8월까지도 대원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직사포 2문, 대전차포 2문, 중기관총 5대 등을 비롯해, 개인화기로는 칼빈 36정·M1 97정·M3 46

530) 제21연대장 김상두, 23연대장 황천성으로 기록된 적도 있다(『약사』 1953.7, 14면).

531) 『약사』 1953.7, 16-17면. 이에 대해서, 당시 강화도 보름도에서 활동하였던 이상연은 특별연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하여 무단으로 적지를 출입한다는 명령위반으로 대원을 각 연대로 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이상연 증언, 2002.9.6).

532) 버크 중령, 『지시서』 1951.8.9(박상준 제공 문서).

533) 버크 중령, 『지시서』 1951.8.9(박상준 제공 문서); 페리 소령, 『지령서』, 1951.8.11(같은 문서).

534)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28면.





타이거여단 신분증(이원근, 1952.9.20)

직명을 여단장으로 바꾸었다.<sup>537)</sup> 그는 연안중학교 교사를 지냈고 수복이후 유엔군 황해도 군정사령부(UNCAC)에서 치안활동을 했다. 당시 대원 신분증에는 ‘UN 제8240유격군타이거여단’으로 명기되었다.<sup>538)</sup> 이 때, 용매도에 주둔하던 제3연대가 올팩 제7부대로 독립했다.

각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이루어졌다. 연대의 규모는 제1연대 266명, 제2연대 284명, 제3연대 291명이었고, 이 가운데 제2연대는 연대장 황천성이 40세가 넘었으나(1910년생) 군 경험이 있어서 전투력이 강했

정 외에 일제 99식 소총 53정·소련제 소총 77정·소련제 장총 394정·다발총 119정 등 대부분 노획무기가 많았다.<sup>535)</sup>

이현서 부대장은 곧 해임되었다. 차동준 소령이 국군으로 복귀한 후 부대는 국군과 연계가 없어졌다. 그런데 당시 대원들의 보급실정이 여전히 나쁘고 법적 신분보장이 불확실하였으므로, 그가 육군본부로 가서 법적 신분보장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사실을 두고, 미군측에서는 군사기밀 누설과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그는 해임과 동시에 48시간 내 추방을 명령받았다.<sup>536)</sup>

1952년 3월 2일부터 박상준이 부대장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사령관으로 부르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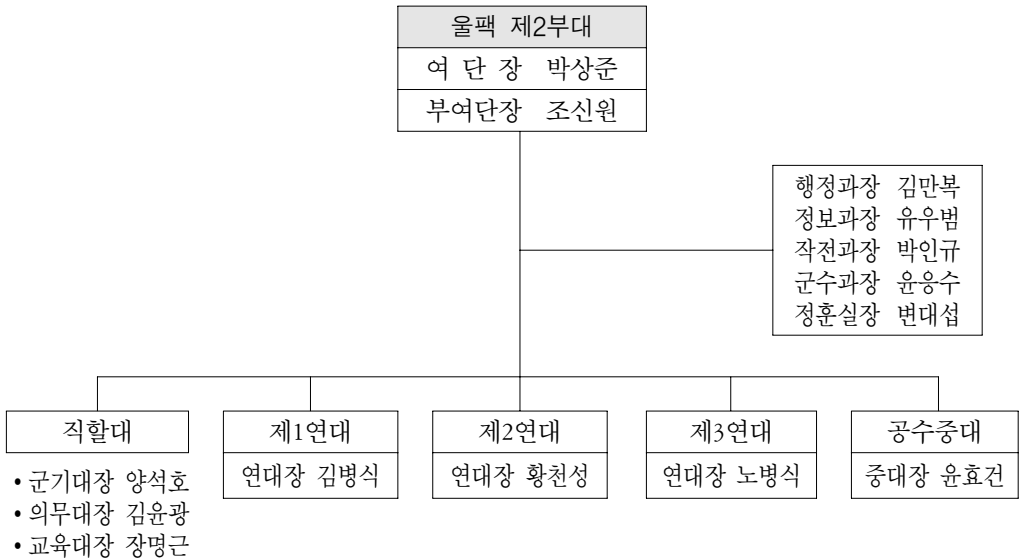
535) 『병기총계표』 1951.8.1(전우회 제공).

536) 박상준 증언, 2003.11.7.

537)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Nov.11, 1952(같은 문서철). 박상준이 여단장으로 임명된 시기를 4월 1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제2유격연대 제2대대, 『간부급 직위표 작성 제출에 관한 건』, 1953.9.30, 전쟁기념관; 『올팩 제7부대 유격전사』, 2002.4.30).

538) 『이원근 신분증』 1952.9, 전우회 제공.

## &lt;지휘관 및 참모&gt;539)



다.<sup>540)</sup> 간부들 가운데, 유우범(1916년생), 변대섭(1926년생), 장명근(1927년생), 김운광(1921년생), 정기배(1921년생), 중대장 손영기(1924년생) 등은 20대 후반으로부터 30대였다. 대원들의 연령 분포는 40세 이상 18명, 30대 252명이었고, 18~19세 240명, 17세 이하도 72명이었다.<sup>541)</sup>

본부에는 정훈실을, 각 연대에는 정훈부를 두고 육본 정훈감실의 지원을 받아 대원들의 정신무장교육을 하였다. 특히 대원의 대내교양을 위해 『타이거시보』, 대민용으로 『자유순보』를 월 3~4면씩 발행하였다. 농번기에는 노획한 농우를 무상으로 농가에 제공하거나 대원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원하였다.

정보과는 100여 명의 첩보원을 5개의 지대(支隊)로 편성하였고, 이들과 별도로 ‘첩자’와 적지의 ‘세포원’을 이용하여 첩보를 수집했다.<sup>542)</sup> 그 외에 내륙침투를 위해 특별히 공수중대와 파괴공작대를 두었다. 공수중대는 1951년 8월 중순부터

539) 『8240 타이거여단』 1961, 정부기록보존소.

540) 『여단편성인원표』 1952.6.10(전우회 제공문서); 조일권 증언, 2002.9.5.

541) 『총괄 통계표』,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542) 『G-2 편성표』 1952.6(전우회 제공문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마선홍(첩보관) 공적서』 1953.12.



공수소대 사진(1952. 3)

각 연대에서 10명씩 차출하여 백령도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페리 소령은 각 연대에서 8월 17일까지 기지사령부에 선발인원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을 토대로 공수중대가 창설되어 144명 규모의 낙하산부대로 성장했다. 파괴공작대는 100명 정도로 편성되었다.<sup>543)</sup>

전체 대원 규모는 1952년 11월 1일, 할당규모(T/O)를 1,530명으로부터 1,650명으로 늘릴 수 있었고 1953년 4월초에는 그 규모가 1,823명으로 늘릴 수 있었으나, 휴전 후 종군기장을 신청할 때 1,537명이었다.<sup>544)</sup> 1953년 11월 조사에서 1,311명 대원들의 출신지별 구성은 황해도 연백군 1,064명·경기도 및 기타 황해지역 196명·경남 1명·경북 6명, 전남 4명, 전북 4명·충남 1명·충북 1명·평남 23명·평북 9명·함북 1명 등으로 황해도와 경기도가 많았으나, 평안남도, 함

543) 『타이거여단 약사』, 24면; 『타이거여단(8240)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8250 제2연대 편성표』, 1961, 같은 문서; E. M. Perry Major, “Letter of Instructions” Aug. 14, 1951(박상준 제공 문서).

544)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Nov.11, 1952(같은 문서철); 국방부제8250부대 제2유격연대 제2대대, 『종군기장신청』 1953.11.25, 전우회 소장; 『타이거여단 약사』, 30-31면;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여단편성표’에도(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1,654명 혹은 1,570명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3,372명 혹은 3,429명이라는 주장은(『8250 제2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타이거여단(8240)』 1961, 같은 문서), 제25연대, 제26연대 등이 다른 부대로 편입되기 전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강원도 지역에서 온 경우도 있었다.<sup>545)</sup> 황해도 출신 가운데 연백군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동열은 경기도 파주군 출신으로 강화도에 피난왔다가 을지병단을 거쳐서 합류했다고 한다.<sup>546)</sup>

휴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53년 12월 국방부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대대장 황천성)와 9대대(대대장 노병식)로 개편되어 한국군의 군적을 갖게 되었다. 1954년 2월, 이 부대도 해체되어 한국군 각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다.<sup>547)</sup>

## 나. 주요 작전활동

타이거여단은 본부를 교동도에 두고 석모도·민법도·서검도·주문도 등 임진강, 예성강,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도서들을 방어하면서 연백군·개풍군 일부, 더 나아가서는 이북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즉 전투 지역을 보면 해변에 면한 호동면을 비롯하여 해성면·호남면·송봉면·해룡면 등 연백군 전역과 벽성군 청룡면·일신면, 평산군 일대까지 이르렀다. 침투 작전 외에도 공군으로 하여금 폭격을 할 수 있는 첩보수집 활동이 활발했다.<sup>548)</sup>

1951년 6월 18일 개풍군 청교 청장고개(BS845996)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고재훈·장홍덕 등 29명이 포로가 되었고, 11월 3일 호남면에 상륙하다가 북한군의 반격을 받아 상륙에 실패하고 철수한 작전도<sup>549)</sup> 있었지만 많은 전과가 있었다. 부대의 작전활동을 동키 제5부대 시기와 울팩 제2부대 시기로 나누었다.

동키 제5부대 시기의 전과는 1951년 4월 15일, 최승학 등이 청룡면에 상륙하

545) 제2유격연대 제2대대, 『각 도별 병적 등록부』, 1953(전쟁기념관). 다른 통계에 따르면, 연백군 1,110명·기타 황해도 401명·경기도 230명·평남 28명 등이었다(『총괄 통계표』,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546) 이동열 증언, 2002. 9.7;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부록, 2003.11.

547) 『제2연대 간부명단』, 1961, 정부기록보존소; 을지·타이거旅團戰友會(WP-II), 『乙支·타이거旅團遊擊軍戰史』(프린트판), 2002.

548) 『약사』, 31면;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유우범의 공적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이래 4,900건의 정보를 사령부에 보고했다고 한다(『유우범 공적서』, 1953. 12).

549) 제8250부대 2연대, 『실종자명부』 1953.11.12, 전쟁기념관; 『김홍목 공적서』, 1953.12(전우회 제공).

여 북한군 8명을 살상했다. 6월 15일 황천성 제2연대장이 대원을 지휘하여 연백군 해월면 고미포에 상륙하여 봉태산 16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작전에서 중대장 손영기, 분대장 이운재 등의 활약으로 북한군 37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하였으며, 소련제 자동소총 6정, 권총 1정 등을 노획하였다. 황천성 연대장도 수류탄 1개로 북한군 17명을 살상시키는 전과를 세웠다.<sup>550)</sup>

1951년 6월 14일 을지병단은 해군 301정의 엄호사격아래 고아도에 상륙했다. 15일 09시 어리산(221고지)에 진출했으나, 북한군의 반격으로 16시 03시 연백군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 때 해군의 지원이 가능했던 까닭은 을지병단 미 고문이 원호사격을 의뢰했기 때문이었다. 1951년 7월 1일에도 해군 제304정은 해주 근해에서 을지병단의 함포지원 요청에 의해 함포사격과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sup>551)</sup>

1951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원 200명이 봉화리에 상륙하여 토미산을 점령하고 북한군 2개 소대를 소탕하였다. 유격대원이 연안온천까지 진출하자, 북한군은 연안읍 서쪽에서 1개 대대병력과 예성강 서안에서 2개 중대병력을 동원하였다. 대원들은 동쪽의 적을 토미산으로 유인하고 서쪽의 적을 술미산으로 유인한 후 7월 1일 야음을 이용하여 기지로 후퇴하였다. 적들은 이를 모르고 서로 교전하여 많은 희생을 냈다.<sup>552)</sup>

1951년 6월말까지의 전과를 종합하면 북한군 6명·기관원 4명 귀순, 북한군 사살 4명·자위대원과 간첩 6명 생포, 북한군 214명·내무서원 22명, 교량 3개소·화물자동차 9대 파괴·통신선 5개소 절단 등이었다.<sup>553)</sup>

1951년 8월 29일 연백군 호남면 석천리 해안에서 상륙하려다가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교전 중 7명을 살상하였으나, 이재삼 등 유격대원도 부상을 입고 철수해야 했다. 9월 14일 연백군 해성면 해남리에 상륙하여 적을 기습하고, 10월 2일 연백군 해월면 술미산 고지 전투를 수행했다. 10월 14일 연백군 온정면 창동리

550) 『최승학 공적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전투공적조사서』, 1953.12; 『황천성 공적서』, 같은 문서; 『손영기 공적서』, 같은 문서. 특히, 손영기는 123회나 출동했다고 한다.

551)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소, 『작전경과보고서』 3·4, 405면, 416면, 422면; 『작전경과보고서』 5, 1면.

552) 『약사』, 36-37면.

553) 소령 차동준, 육군을지제2병단사령부, 『업무보고의 관한 건』 1951.7.15.

전투에서 서종환 등이 고지 전방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북한군 20명 사살하고 봉화리 고지를 점령했다. 이 때 3명을 생포하고 소련제 단총 16정 등을 노획하였다.<sup>554)</sup>

울팩 제2부대로 개편된 후 작전성과는 부대장 박상준의 공적서에 따르면, 1952년 3월 2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126회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기술되었다.<sup>555)</sup> 매주 10~14개 소대 또는 중대 단위의 유격전을 전개했고, 정보과에서는 적진에 200명 이상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이 기간 동안 2,500명을 살상하여, 울팩부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대로 평가받았다.<sup>556)</sup>

1951년 4월 이래 첩보원들은 적지 침투 혹은 귀순병 심문 등을 통하여 적정(敵情)을 비롯한 4,900여 건의 정보를 사령부에 보고했다.<sup>557)</sup> 첩보원들은 북한군 장병과 내무서원 등을 선무하여 귀순시키기도 했다.<sup>558)</sup> 1953년 휴전을 전후하여, 비 하이브(Bee Hive)와 캐멀(Camel)작전이 연백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비 하이브 작전은 제2유격연대 대원 102명이 1953년 5월 26일부터 1954년 2월까지 연백군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수집을 한 작전이었다. 1953년 12월 13일 송봉면 송현리 등지로 침투한 대원(T 122, 151, 153)이 계획(No. 58-59)을 완수하고 말도로 귀환하였다는 문서가 남아 있다.<sup>559)</sup> 캐멀작전 역시 제2유격연대의 82명이

554) 『양찬석 공적서』, 1953.12; 『이재삼 공적서』, 1953.12; 『이재희 공적서』, 1953.12; 『서종환 공적서』, 1953.12; “Report on the Result of the Operation Oct 13-14” Oct. 14, 1951(박상준 제공문서).

555) 이전시기까지 포함되면 작전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박상준은 총 845회로 기록한 적이 있고, 부대 전체 통계에 따르면 950회에 이르렀다. 1951년 4월 5일 입대한 이재철 소대장은 총 230회의 작전에 참가했고, 또 다른 소대장 성병무는 210회를 치렀다고 한다(『전과 및 피해 통계』, 『을지·타이거여단유격군전사』, 2003.11; 『박상준 공적서』 1953.12; 『이재철 공적서』 1953.12; 『성병무 공적서』 1954.1.8, 같은 문서).

556)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전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Nov.11, 1952(같은 문서철).

557) 『유우범 공적서』, 1953.12; 『마선홍 공적서』 1953.12.

558) 정보과장 유우범의 공적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이래 북한군 120여 명, 북한내무서원 등 39명을 귀순시켰다고 한다. 부대 전체 전과에서는 북한군과 중공군 귀순자 100여 명, 내무서원과 관리 귀순자 60여 명으로 정리했다(『생포 급 귀순통계그래프』 1953.6.30 현재).

559) “Yoo U Bum(S-2) to Commanding Officer, HQ 2d BN, 2d PIR, UNPIK, 8240th AU: Behive Activities” Dec. 15, 1953(박상준 제공문서).

1953년 7월 27일부터 1954년 2월까지 첩보수집을 하였다.<sup>560)</sup> 이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의 주요기관과 군 부대에 침투하여 첩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첩보대원들은 휴전 시까지 절반 정도가 생환하였고, 일부는 휴전 후에도 활동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사리원에서 개성으로 내려오는 적 보급차량 1백여 대를 영국 연방 해군 함재기들이 출격하여 대파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전투활동은 대부분 1952년 10월 주요 작전의 경우를 정리한 <표 5-4>처럼 50명 내외의 대원이 참가했다. 일명 ‘딱정벌레 작전’이라는 소규모로 산발적이고 기습적인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3월 22일 성병무 소대장과 대원 4명이 봉화리에 상륙하여 한 집에 모여있는 북한군 1개 소대를 수류탄 4~5발로 공격했다. 7월 5일 대원 15명이 연백군 반이포 근방(BS402853)으로 출동하여 북한군 5명을 사살했다. 같은 달 16일 대원 30명이 해성면 갈현동 해안(BS492882)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순찰병 8명을 포함한 12명을 사살했다.<sup>561)</sup> 1952년 11월 18일 1개 중대가 교동 월산포를 떠나 해성면 반위포에 도착하여 용매중리(BS412884)로 상륙하였다. 대원들은 북한군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미동(BS417888)을 기습하여 9명을 살상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81mm 박격포를 파괴하고 경기관총 2정을 노획했다.<sup>562)</sup> 11월 26일 2개 분대가 선박 2척을 이용해 눈보라가 날리는 날 해성면 염전을 기습공격하였다. 15분간 교전하여 북한군 3명을 사살하고 소금 50가마를 노획하였으나, 지원군이 오자 철수하였다.<sup>563)</sup> 1953년 6월 초 연백군 호동면 봉화리 전투에서 분대장 4명이 결사대로서 고지에 참호를 수류탄으로 파괴하고 3명을 사살하고 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직사포를 파괴하였으나, 한상봉 등 분대장 4명도 부상을 당했다.<sup>564)</sup>

시설물을 파괴하기도 했다. 1952년 8월 11일 박용운 소대장은 소수의 대원과 함

560) 『유엔군 유격전』, 185-187면; *Dark Moon*, pp. 166-167.

561) 『성병무공적서』, 1954. 1. 8; CCRAK Guerrilla, “Summary No. 56, 60, 64, 99” July 10, 14, 19, Aug. 2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62) 『이은장 공적서』, 1953.12.25.

563) 『박태준 공적서』, 1953.12.

564) 『김병욱 공적서』, 1953.12; 『한상봉 공적서』, 같은 문서.

<표 5-4> 1952년 10월 작전 성과<sup>565)</sup>

(단위 : 명)

일 시 (일)	2	7	8	12	13	14	17	18	19	20	24	25	26	29	31
출 동 인 원	55	50	40	85/49	20/41/50	63	53/55	31/50	30	24/50	35	26	25	30/25	45
전 과 (사살)	12	2	14	13/13	17/14/10	4	15/6	10/7	11	8/2명 부상	10	2	5	7/6	11

계 해성면 회동 교량을 파괴했고<sup>566)</sup> 9월 6일<sup>567)</sup> 공수중대 1개 분대가 평양~원산 선 연변 산악지대에 낙하하여 병력을 수송하는 열차를 폭파시키기도 했다.<sup>568)</sup>

부대의 규모가 컸으므로 대원들은 같은 날 다른 지역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표 5-4>에서처럼 1952년 10월 13일 경우 각각 20명·41명·50명씩 3개조로 출동하였고, 12일·17일 등에는 2개조가 상륙하였다. 각 연대에서 가능한 하루에 한번씩 작전을 전개하려고 했다고 한다.<sup>569)</sup>

100명 내외의 작전도 있었다. 1952년 7월 10일 23시 30분, 대원 100명이 배천군 가릉리 앞(BS585927)으로 상륙하였으나 북한군 3개 중대의 공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이 때 북한군 10명을 사살하였지만, 대원 2명이 전사하였다. 8월 4일 대원 90명이 무반동총과 박격포로 무장하여 연안군 불당포(BS502848) 40고지를 공격하여 북한군 17명을 사살하였다.<sup>570)</sup>

대규모 작전의 경우로는 1952년 6월 1일, 대원 300명이 유엔군함(HMS Amoythist·HMS Ocean)에서 항공기 20대의 지원과 75mm 무반동총을 장착한 한국 해군(JML 308)의 지원을 받아, 배천군 동벼리·가릉리(BS635932, 583934, 607915) 등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중공군 10명과 북한군 89명을 사살하고 병커 4개를 파괴하였다. 이 때 대원 1명도 전사하였다.<sup>571)</sup> 1952년 8월 4일 01시 대원 90명이

56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41-171" Oct.7-Nov.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66) 『박용운 공격서』, 1953.12.

567) 8월로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미군 보고서에서는 상륙전에 관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568) 부대 역사에는 연대병력을 전멸했다고 기술되었다(『타이거여단 역사』, 37면).

569) 『약사』, 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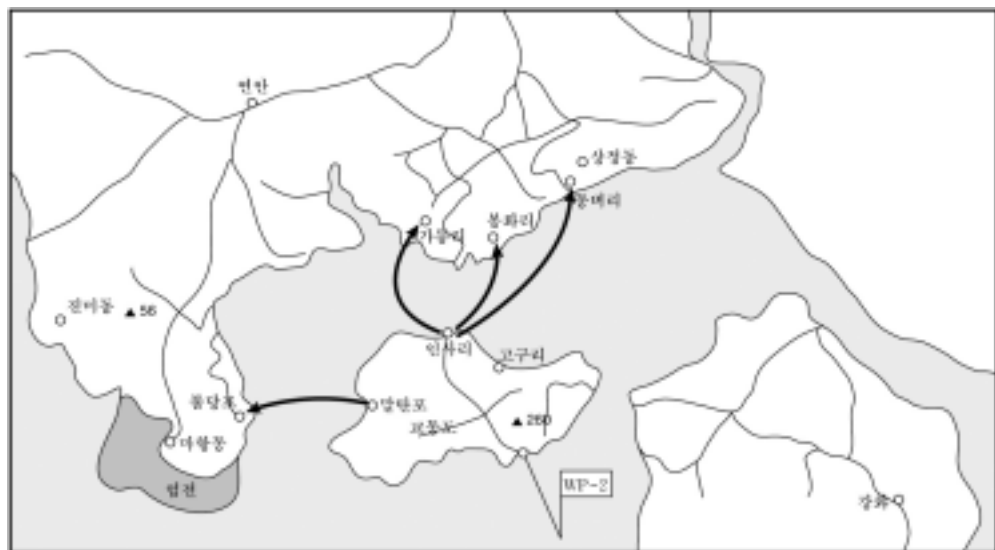
570) CCRAK Guerrilla, "Summary No. 60, 83" July 14-Aug.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571) CCRAK Guerrilla, "Summary No. 30, 34" June 11, 1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lt;요도 5-9&gt; 주요 작전지역도



박격포와 무반동총을 동원하여 연안군 간동 부근(BS502848)을 공격했다. 그 결과 북한군 17명을 사살했다.<sup>572)</sup>

중공군을 상대로 교전한 경우도 있다. 1952년 9월 12일 대원 60명이 해주만 연안 학산리(YB617913) 지역의 중공군 진지를 교전 끝에 점령하여 5명을 사살하고 진지 2곳을 파괴했다. 9월 13일 350명이 상륙하여 해안 돌출지역 3곳을 공격하여 중공군 8명을 사살하고 진지 2곳을 파괴했다. 이 때 교동도 근해를 경비중인 해군 제202정이 이날 12시 24분부터 13시 5분까지 봉화리 적 진지에 함포사격을 가해 7명을 사살하고 참호 4개소를 파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sup>573)</sup> <표 5-4>에서 보이는 1952년 10월 작전성과에서 7일과 12일에 중공군 포로 1명이 있었고 19일 사살자 11명 가운데 중공군 3명이 포함되었다.

572) CCRAK Guerrilla, "Summary No. 83" Aug. 9, 1952.

573)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9, 579면; CCRAK Guerrilla, "Summary No. 120, 126" Sep.16, 2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3. 울팩 제3부대

#### 가. 창설 배경과 재편



부대표지 : 미 제8240부대  
전우회 제공

1952년 3월 17일 울팩 제3부대는<sup>574)</sup> 청년방위대 웅진여단, 벽성군 치안대, 용매도 향토방위대 등을 주축으로 창설했던 동키 제13부대가 강화도 작전기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새로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북한지역에 내륙기지를 구축해 적에게 타격을 준 울팩부대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았다.<sup>575)</sup>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후 황해도 벽성군·평산군 등 고지에서 치안활동과 북한군 패잔병 토벌작전을 하다가, 1·4 후퇴로 인해 더 이상 적지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치안대원들은 피난민들과 함께 서해의 인근도서인 용매도·대수압도·소수압도·연평도 등으로 철수했다.

해주에서 청년운동을 하였고, 서북청년회 웅진군 해남면에서 활동한 김완식과 청년방위대 제2편대장 이성 등이 주동이 되어 공산군과 대항하여 연평도 수호와 고향 수복을 목표로 부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950년 12월 24일 대원 160명이 연평초등학교 교정에서 1개 본부소대와 3개 전투 소대로 청년방위군 제2편대를 재창설했다. 간부는 편대장 이성, 고문 김완식, 중대장 오현중, 소대장 조남신·오필부·김현강 등이었다. 이성·오현중 등은 방위장교였고, 김완식·오필부 등은 청년단 간부들이었다. 부대는 연복중학교 교실 1동을 숙영장소로 사용하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원들은 사복을 주로 입었고, 간혹 국군작업복, 인민군복 등을 입은 채, 치안대에서 사용하던 칼빈 소총·일본군 구구식 소총·다발총 등으로 무장했다.

당시 대원들은 무기와 실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구호미와

574) 이 부대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전우회, 『WP# 부대 유격전사』, 1988; 전우회, 『유격전사』, 1990; 『한국전쟁과 유격전』.

575)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보리쌀을 받았을 뿐이어서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 백령도에 창설된 미 제8군 산하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기지에서 유격대를 창설하고 있었으므로, 1951년 4월초 김완식 고문을 위시한 유만근·김현강 등 몇몇 간부들이 백령도기지 사령관 버크 소령을 방문하여 부대를 동키부대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백령도 기지사령부로부터 안남미 70포·보리 80포의 식량, M1 소총 12정과 탄약, 무전기 1대를 수령하였다.

1951년 4월 15일 동키 제13부대를 창설하면서, 부대 지휘본부를 연평도에서 용매도의 ‘온동(溫洞)’으로 이동하여 기구를 개편했다. 간부진은 부대장 이성, 부부대장 김완식, 인사참모 박영진, 정보참모 박이일, 작전참모 이종택, 군수참모 유만근, 감찰참모 윤주경, 통신대장 김승만, 제1중대장 오현중, 제2중대장 조남신 등이었다. 대원 규모는 450여 명이었고,<sup>576)</sup> 당시 미군 고문은 램(George Lamm) 대위였다.<sup>577)</sup>

증산도와 반위도에 파견대를 보냈으며, 또한 북한지역 2곳에도 내륙기지를 구축했다. 1951년 6월 황해도 평산군 내산(혹은 안산)에 그린하우스(Green House)대, 1952년 5월 해주 수양산에 파인트리(Fine Tree)대를 편성하여 내륙에서의 유격작전을 수행했다.

1951년 4월 평산군 멸악산에 북한군 탈영병과 반공 청년 수 백명이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sup>578)</sup> 부대 본부에서는 이들을 규합하여 적 후방 유격작전의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백령도 기지사령부에 요청했다. 버크 소령은 이에 동의하여 거점부대 명칭을 ‘그린하우스’라고 명명했다.<sup>579)</sup>

5월 9일 선발대장 이호철은 대원 32명과 함께 침투를 개시하여, 증산도를 거쳐 해안으로부터 40km 이상이나 내륙에 위치한 내산기지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

576) 대대를 중대로 바로 잡았다(유격군 율령 3부대전우회, 『유격전사』, 1990, 16-17면).

577) 『WP#3부대 유격전사』, 1988.12, 31면.

578) 김병준·조철성·최동기·최태·우준모 등이 멸악산에서 ‘멸악산 유격대’를 결성하여 내무분주소와 수송트럭 습격, 토벌대와 교전을 벌이다가 1951년 11월 초, 용매도로 철수하여 20여 명이 율령 제3부대 제2대대로 편입되었다고 한다(김병준, 『6·25전투록』, 1995,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579) 박충암, 『전투약사』, 2003.11.4.

시 선발대는 평산 출신으로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철 외 15명을 접선하여 그린하우스대에 편입시켰다. 5월 30일 새로 선출된 이현우 부대장이 추가로 대원을 이끌고 6월 2일 내산에 도착함으로써 내산은 전방지휘소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그린하우스대의 간부는 부대장 이현우·부관 오세부·정보계장 박충암·작전계장 이두수·의무대장 홍순학·통신대장 김진환 등이다. 여성대원도 3~4명이 있었다고 한다.<sup>580)</sup> 후에 이현우 부대장이 용매도로 복귀함에 따라 박영철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파인츠리대는 벽성군 월록면 방면 멸악산맥으로 침투시킬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1952년 5월<sup>581)</sup> 김윤환 대장이 대원 10명과 함께 용매도 부대 본부를 떠나 소수압도를 거쳐 용진군 해남면 해안선으로 상륙하여 목적지까지 침투하여 거점기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부대 본부에서는 내륙기지와 연락과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1대대 병력을 증산도로 이동시켰다. 이 섬은 행정구역상 연백군 송봉면으로 적지와는 약 1km 떨어져 있었다.

1952년 3월 작전지역이 강화도 기지사령부 산하로 변경됨에 따라, 동키 제13부대는 울팩 제3부대로 개편되었다. 이 때 홍순근·최명석이 이끄는 용매도 향토방위대가 편입되어 제3대대를 새로 편성했으며, 1개 대대는 3개 중대와 보급계로 이루어졌다. 부대본부도 용매도 내에서 ‘진동’으로 옮겼다.

1952년 말경 대원의 규모는 600명이었다.<sup>582)</sup> 간호사로 활동한 여성대원도 있었



신분증(최광일)

580) 이두수 증언, 2003.11.8. 이때 전임부대장 이성은 기지사령부로부터 안산내륙기지에 침투할 것을 지시받고 침투하려다 적에게 발각되어 퇴각후 부대를 떠났다. 그후 그는 타이거여단 제3연대 3대대장이 되었다(『8240타이거3연대』 1961, 정부기록보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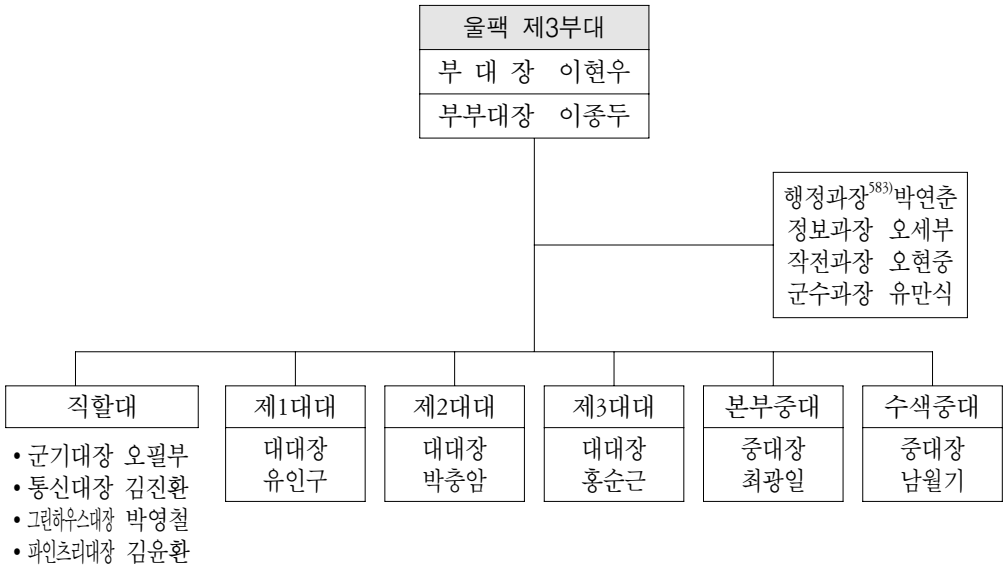
581) 1951년 7월부터라는 기술도 있다(김근일, 『6·25 참전 무공수훈자 사실확인 청원서』, 1994).

582)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0.25,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

304);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같은 문서철). 대원의 규모를 850명 혹은 864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8250 제6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율팩 제3부대 전우회, 『부대 주요 유격전사』, 날짜없음), 550명 규모였다(『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 1961.4.23, 정부기록보존소).

<지휘관 및 참모>



다.<sup>584)</sup> 이 당시 미군 고문은 필립(Philip) 중위 외에 부사관 4명이 담당했다.<sup>585)</sup>

휴전 후 울퍽 제3부대는 인천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대무의도로 이동했다가,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5대대(대대장 이현우)로 개편되었다. 1954년 2월, 박영철, 김윤환 등 270명은 연장자나 연소자 등을 이유로 제외되고, 280명이 국군으로 편입되었다.<sup>586)</sup>

583) 『한국전쟁과 유격전』에는 참모로 되어 있으나, 『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1961.4.23, 정부기록보존소)와 『유격전사』(18면)에 따랐다.

584) 이명숙, 『참전무공수훈자 사실확인 청원서』, 1994.

585) 『WP#3부대 유격전사』, 1988.12, 31면.

586) 『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 1961.4.23, 정부기록보존소. 제5연대 제1대대로 기억한 경우도 있다(박충암, 『전투약사』, 2003.11.4).



제2대대 제2중대 대원들(1953. 3. 31, 박충암 제공)

## 나. 주요 작전활동

### (1) 용매도 기지

부대의 기본임무는 용매도 방어를 비롯해 청룡면과 용도면 지역 내에서의 유격전을 전개하여 후방교란·보급로 차단·첩보수집 등이었다. 이현우 부대장의 공적서에 따르면, 그는 1951년 1월 1일부터 1952년 11월 1일까지, 49회의 작전을 지휘했다.<sup>587)</sup>

청년방위대와 동키 제13부대 시기 주요 전투는 옹진반도 동부지역 상륙작전, 용도면 난계리작전 등이다. 청년방위대 제2편대로 창설된 부대는 공작대를 편성하여 옹진군 동부지역으로 침투시켜 적정을 파악한 후, 1951년 3월 30일 새벽 옹진반도 동남부의 동강, 해남, 송림면을 목표로 3개 소대가 각각 해안으로 상륙했다. 제1소대는 동강으로 상륙하여 적의 해안 초소를 기습하고 이어 면사무소, 분주소 등을 공격하였으며, 제2소대는 송림 해안으로 상륙하여 해안초소의 경계 부대를 공격한 후 송림면 인민위원회와 내무서 분주소를 기습했다. 제3소대는

587) R. M. Ripley Major,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



동강으로 상륙한 후 국도를 따라 북진하여 해남으로 진출하여 분주소를 점령했다. 적의 증원부대가 출현하자, 대원들은 월남을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한국 해군함정 제301정·302정의 엄호 아래 철수하였다. 이 작전에서 36명을 사살하고<sup>588)</sup> 5명을 생포하는 한편, 소총 30정을 비롯한 실탄 여러 상자와 상당한 식량도 노획하여 무사히 섬으로 귀환하였다.

대원들이 도보로 적지 내륙에 침투하거나 적지에서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루트는 2개가 있었다. 제1루트는 청룡면 해안에 있는 저미도를 거쳐 부대 주둔지인 용매도에 이르는 길이었다. 제2루트는 부대가 전초기지로 확보하고 있는 증산도 앞 해안에서 난계리에 있는 수로 약 4km를 따라 용도면에 있는 ‘나무깨’를 연하는 루트였다. 이 두개 루트는 모두 연백평야의 가장자리 지역으로 넓은 개활지로 형성되어 침투하기에 불리한 지형이었다.

북한군이 침투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나무깨’ 지역에 적 1개 소대가 배치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1951년 6월 초<sup>589)</sup> 증산도 대대에서 이두수를 정찰타격 대장으로 한 소대병력을 해안에 상륙하여 조순구 분대장을 침병으로 하여 난계리 수로를 따라 나무깨에 침투하여 적 초소를 기습하였다. 경계병을 사살하고 뒤따라오던 본대가 공격대형을 갖추고 적 주둔지에 사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적이 4-5개 지역에서 응사해왔다. 이에 따라 적의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소대를 수습하여 해안까지 철수하여 부상대원 12명을 안전지대에 옮기고 잔여 대원은 갈대 뺨 밭에 은신하였다가 다음날 복귀하였다. 그 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은 대대규모였으며, 이 작전으로 3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울팩부대로 재편된 후, 1952년 5월 2일 청룡반도 상륙작전은 적의 후방 지역으로 투입시킬 그린하우스대의 침투 및 기지 사이의 연계를 위하여 청룡반도에 설치한 적의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증산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1대대는 연대 우일선 대대로 청룡반도 최남단인 구두끝으로 상륙하였고, 제2대대는 연대 좌일선 대대로 적의 최전방 전초기지가 구축되어 있는 저미도를 목표로 상

588) 사살 인원이 12명이라고 기억한 경우도 있다(조남신, 『6·25 참전 무공수훈자 사실확인 청원서』, 1994).

589) 6월 하순으로 기술된 적도 있다.

특했다. 제3대대는 부대 예비로서 적의 후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상륙하였으며, 이 작전은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았다.

각 대대는 해·공군의 지원 아래 적을 공격하면서 적이 해안선에 설치한 철조망 및 지뢰지대, 초소와 진지를 격파하고 내륙지역에 있는 적의 주둔시설 및 화기진지도 파괴하면서 반도 깊숙한 곳까지 공격한 후 지형상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한편으로는 제3대대가 점령지역 내에서 미처 도주하지 못한 공산당들을 색출하는 작전을 전개하면서 많은 군수물자도 노획하였다.

5월 6일 01시 30분에는 대원 38명이 마항동 염전(BS450850)을 공격하여 소금 73포대를 탈취했고, 03시에 재차 15명이 출동해 소금 18포대를 노획했다. 7일 23시에도 35명이 소금 70포대를 탈취하고 중공군과 북한군을 살상했다.<sup>590)</sup>

전투성과는 <표 5-5>에서 보듯이, 1952년 7월 작전의 경우를 보면 5명에서 30여 명의 대원이 출동해 10명 내외를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22일 16명이 해주만 연안의 어남(YB548937) 지역에서 북한군 순찰대원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했고, 같은 날 대원들이 청단 남쪽 10.5km 지점인 돌섬(YB636963)에서 매복, 보안대원 7명을 공격하여 3명을 사살했다.<sup>591)</sup> 이후의 전과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1952년 10월 13일 00시 대원 32명이 강령 동쪽 14km 지점인 대죽동(YB355966)에 상륙하여 2개 조로 나누어 북한군 10명, 50명을 각각 포위해 1시간 30분 동안 교전하다가 철수했다. 북한군 10명을 사살하고, 소총과 탄약을 노획했다.<sup>592)</sup>

<표 5-5> 1952년 7월 작전 성과<sup>593)</sup>

(단위: 명)

일 시	4일	8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30일	31일	
인 원	?	15	32	16	?	5	?	8	18	12
전 과 (사살)	지뢰 매설	5	2	1	3	2	3명 (6명 생포)	7 (중공군 1명)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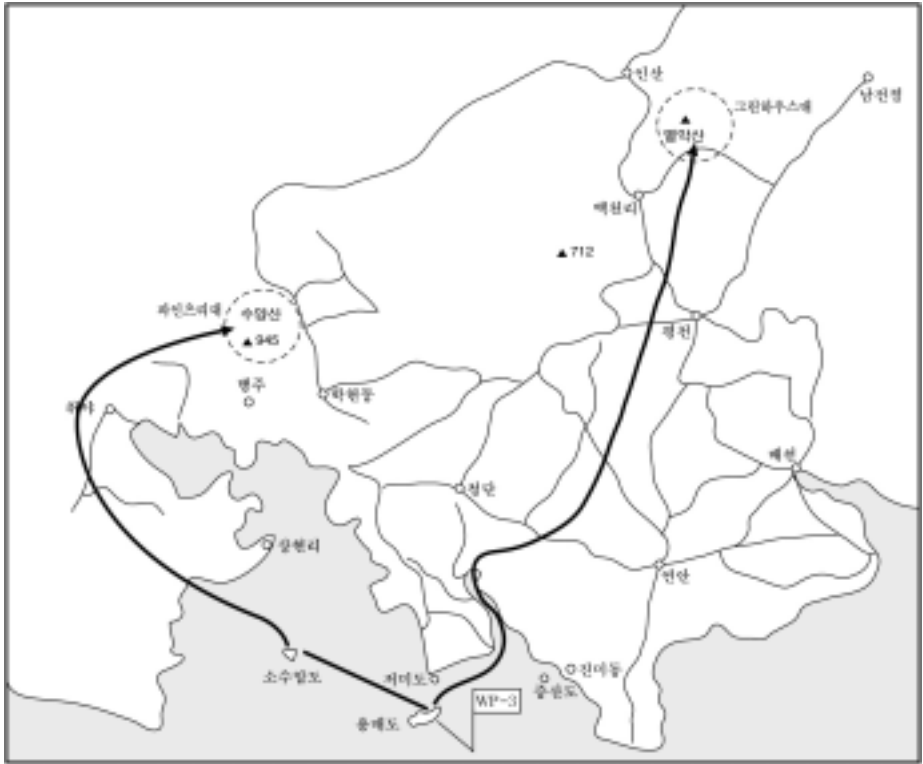
590) CCRAK Guerrilla, "Summary No.7, 35, 39" May 16, June 18, 23,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591) CCRAK Guerrilla, "Summary No. 69-70", July 24, 26, 1952.

592) CCRAK Guerrilla, "Summary No.152" Oct. 18, 1952.

59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41-171" July 18, 1952.

## &lt;요도 5-10&gt; 내륙기지 위치



## (2) 내륙기지 전과

## (가) 그린하우스대

그린하우스대는 적정 보고와 폭격 요청 외에 적의 보급차량을 기습하는데 주력했다. 1952년 5월 하순 안산 본대 외에 마산면 각호산(角胡山)에 오웅삼, 세곡면 멀악산에 이성근, 목단면 목단산에 오필용, 동운면 운달산(雲達山)에 서경환 등으로 지대를 파견했다.

적의 주 보급로인 평양에서 사리원, 남천, 개성에 이르는 국도의 병력이동을 정찰하기 위하여 거점을 사리원 근처로 설정하고 1개 분대병력으로 정찰토록 했다. 1951년 6월 중순 그린하우스대 본부는 정찰대로부터 약 10여 대의 보급차량이 일몰시 사리원을 출발하여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부대에서는 적 보급차량의 통과 예상지점과 시간을 검토하여 부대가 작전을 수

행하고 용이하게 귀대할 수 있는 지점을 결정한 후 1개 소대병력이 부대장 지휘 아래 출동하였으며, 선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대원들은 폭약을 곳곳에 매설하고 매복한 다음 적의 차량이 출현하기를 기다렸다.

매복한지 약 1시간 후에 적의 차량대열이 나타나자 대원들은 적이 매복지점까지 완전히 진입할 때를 기다렸다가 폭파 스위치를 눌렀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선두차량을 위시하여 수대의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를 신호로 대원들은 적병들을 사살하고 폭파되지 않은 차량들을 수색했다. 차량에는 군수물자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대원들은 이중 일부를 노획하여 기지로 귀대했다. 그린하우스대가 입산 후 처음 실시한 이 작전에서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7월 중순 주민들 가운데 포섭한 ‘첩자’로부터 면(面) 전체의 군중대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군중대회는 유엔 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개최하며 당 간부들도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기지에서는 이를 기습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세부 행동지침을 고정첩자들에게 하달하고 대회가 개최되는 날 1개 소대를 출동시켰다. 대회가 개최되자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포위망을 압축, 회의장을 급습하여 간부들을 생포했다.

작전 후 소대장은 단상으로 올라가 ‘유엔군 유격대’임을 밝히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는 고위 당간부, 내무서원, 지방 약질 당원들을 처단하였다. 대원들은 적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지로 귀대했다. 1951년 8월 초 대원들이 정찰 중 북한군 장교 1명을 생포하여 암호철을 입수하여 즉각 용매도 부대본부에 보고했다.

1952년 3월 새로 임명된 박영철 그린하우스대장은 지리를 잘 아는 평산군 출신 대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유격활동을 강화하였다. 1952년 4월 중순 대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 용산면 평촌리 고방동에 북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대본부에 폭격을 요청하여 15일 13시 미군기가 폭격하여 타격을 입혔다. 5월 11일에도 마산면 도평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폭격을 요청하였다.<sup>594)</sup>

594) 전우회, 『WP-3 유격전사 보충자료』, 날짜없음.

내산 지역으로부터 사리원에 이르는 후방 지역에서 유격활동이 빈번하자, 적은 많은 정규군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유격대의 기지인 내산 일대를 포위하여 ‘토벌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내산의 험한 자연조건과 지리에 익숙한 대원들은 산세를 잘 이용하면서 방어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적의 토벌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린하우스대는 적이 ‘토벌작전’을 가해 올 때마다 용매도의 부대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출격한 항공기들의 지원을 받았다.

적은 내산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은 피해만 자초할 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과 보급로를 봉쇄하는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식량과 탄약이 부족한 사실을 부대 본부에 보고하자 기지사령부에서는 2회에 걸쳐 중공보급을 실시하였으나 보급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적이 전혀 알지 못한 천연 동굴의 기지본부가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

1952년 5월 17일 북한군 토벌대 150명이 추봉 우측(BT405298) 지역에 있는 대원 25명을 공격해 왔다. 대원 1명이 포로가 되고 무전기 1대를 탈취당했다. 5월 말 분산되었던 대원 12명이 다시 모였다.<sup>595)</sup> 7월 하순부터 그린하우스 기지는 중공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어 거의 와해되었다. 7월 26일 숫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이 기지(BT462296)를 공격해 대원들이 분산되었다. 이 접전에서 중공군 18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13명도 전사했다. 27일 북암산 484 고지(BT460280)에서 대원 51명이 채집결해 있는 동안 중공군 1개 대대가 추격을 하자 교전을 벌여 중공군 37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10명이 추가로 전사했다.

8월 1일 백천리 옥동(BT510359) 지역으로 도망했으나 중공군이 계속 추격해 왔다. 이들과 교전해서 적 20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7명이 전사했다. 2일 살아남은 대원 34명이 2개 조로 분산해 운봉리 후동(BT585283) 지역에서 합류하기로 했으나, 1개 조가 북한군 1개 소대와 만나 교전을 벌여 20명을 사살했다. 이때 대원도 9명이 전사했다. 계속된 피습으로 대원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9일 대원 20명이 연안 서북쪽 8km 지점인 신내동(BT425015) 지역에서 북한군 40명의 매복에 걸려 3명을 사살했으나, 대원 4명이 희생되고 14명이 실종되었다. 8월 13일 생존 대원들이 용매도에 도착했다. 대원들은 철수할 때까지 중공군과 직접적

595) CCRACK Guerrilla, “Summary No. 29” June. 1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내산 호랑이들(박충암 ·  
오세부 · 이두수 등, 1951)

으로 싸우거나, 혹은 적의 위치를 사령부에 알려 공군으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타격을 주었다.<sup>596)</sup>

1952년 8월 중순 철수한 후에도 일부 대원을 파견해 내륙기지를 계속 유지했다. 월동기에 소수 대원을 잔류시켰다가 1953년 봄에 대원을 다시 파견하여 휴전 전까지 활동했다.

#### (나) 파인츠리대

파인츠리대는 해주·벽성·옹진·연백 등 각 지방 출신들을 골고루 선발했다. 예를 들면 김윤환·박한동·오필화·김근일 등은 벽성 출신이고, 김낙현·이장세·설은식·이희수 등은 옹진출신이었다. 북한군 귀순병 1명과 해주와 연백 지역의 북한주민을 현지 입대시키기도 했다.<sup>597)</sup>

파인츠리대는 월록면 장둔리 일대에 거점을 마련한 후 계속 한곳에서만 활동할 경우 기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정해 두었던 벽성군 나덕면과 채령군 하유면 접경에 위치한 겹산 계곡으로 기지본부를 이동했다.

작전 임무는 그린하우스대처럼 적 후방 교란, 적정 수집과 항공폭격 요청, 보

596) CCRACK Guerrilla, "Summary No. 78, 91" Aug. 4,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597) 김근일 증언, 2003.11.28.

급수송로 차단 등이었다. 첫 작전은 사리원 지역에 건설중인 비행장 건설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이었다. 이 작전은 1952년 5월 중순, 김윤환 대장이 직접 지휘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도중에 이때 북쪽에서 해주 방면으로 남하하는 군용차 1대를 탈취했다.

대원들은 이 차를 기습하여 군관 1명과 전사 2명을 처치하고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한 다음 신천을 향하여 계속 이동하였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한 이들은 사리원 비행장 건설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산으로 올라가 정보를 수집하여 기지로 무사히 귀환하여 보고했다.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자급조달하기 위해 1952년 6월 중순, 적의 식량운반 달구지가 자주 통과하고 있는 수양산 동쪽의 하고개로 출동하여 잠복했다. 밤 10시경에 3대의 달구지가 양곡을 만재하고 2명의 무장군인 호위아래 고개를 올라왔다. 대원들은 호위병 2명을 처치한 다음, 이 달구지를 장둔리 계곡 입구까지 몰고 가서 양곡 10가마와 소 3마리만 기지로 운반하고 달구지와 나머지 양곡을 계곡에 버렸다. 그리고 동행한 달구지꾼들을 포섭하여 현지 입대시켜 함께 활동을 했다. 이 후에도 파인즈리대는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량운반 우마차를 기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기습작전도 활발했다. 1952년 7월 16일 21시 대원 35명이 강령 동북쪽 12km 떨어진 오금리(YC333006)로 진출하여 북한군 30명과 교전하여 6명을 사살하였다. 23시 죽골(YC318016)에 있는 중공군 10명을 기습하여 3명을 사살하고, 24시 인근 지역(YC310318)<sup>598)</sup>에 있는 중공군 8명과 교전했다. 같은 달 20일 대원 20명이 강령 서북쪽 7km 지점인 관현(YC140015)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여 통과하는 트럭이 폭발하고 북한군 20명이 사망했다. 7월 25일 대원 20명이 황암 부근(YC160018) 내무분주소를 습격하여 내무서원 10명을 사살했다.

8월 4일 대원 23명이 강령 북쪽 8km 떨어진 성도리(YB206058)에 있는 북한군 30명을 기습하여 10명을 사살했다. 8일 대원 15명이 까치산동(YC220066)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 1개 소대를 공격하여 7명을 사살하였다. 13일 대원 13명이 취야 서쪽 5km 지점인 함촌(YC190123)에 있는 북한군 45명을 공격했으나 전과는

598) 좌표가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았다. 9월 27일 대원 20명이 소천 근방(YC161017)에서 중공군 30명과 북한군 20명이 회의하는 곳을 기습하여 중공군 15명, 북한인 14명을 사살하고 철수했다.<sup>599)</sup>

1952년 11월경 벽성군 노동당 열성자대회가 취야(翠野)에 있는 군당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윤환 대장은 1952년 10월 중순 경계대원 수명만을 기지에 잔류시키고 전원을 지휘하여 출동했다. 취야 북쪽 변두리에 위치한 군당청사 회의장 정문에는 무장 내무서원이 경비를 하였으며 민청단원 2~3명이 출입자를 안내하고 있었다.

열성자 대회가 시작되고 얼마 후 청사 가까이까지 접근해 있던 김윤환 대장이 보초에게로 접근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무성무기로 처치하자 이를 신호로 회의장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던 대원들이 신속한 동작으로 회의장 출입구와 창문걸으로 달려들어 수류탄을 회의장 안으로 던졌다. 순간 수십발의 수류탄이 계속 폭음을 내며 폭발했다. 이 기습전으로 회의실은 반파되고 수십 명의 공산당원이 폭사하였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1952년 9월 20일 04시 취야 서쪽 6km 지점인



파인츠리 김윤환 대장,  
박한동 외 수색조 일동  
(1952.5)

599)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06, 136" Sep. 2, OCT.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오봉산(YC173126)에서 중공군 300명과 북한군 60명의 공격을 받았으나, 야간에 역습하여 북한군 17명을 사살했다. 29일 대원 18명이 강령 서북쪽 7km 지점인 광동(YC161043)에서 북한군 70명과 10분간 교전했으나, 적이 우세하여 은신했다. 이 때 2명을 사살하였다. 10월 12일 03시 강령 동북쪽 7km 지점인 두곡동(YC260038)에 있는 기지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이동하였다. 17일까지 북한군이 계속 추격하자, 강운봉 등 7명을 잔류시키고 소독골 해안가(YB330970)에 있는 북한군 귀순병, 대원가족 등을 데리고 철수했다. 이 때 유격대원의 희생없이 북한군 12명을 사살했다.<sup>600)</sup>

1952년 11월초 기지에 잔류해 있던 대원으로부터 북한군 귀순병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김윤환을 재차 파견했다. 돛단배를 타고 가다가 포를 맞아 김낙현이 사망하고 김근일·오응근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4월경 이희수 등 대원을 파견하여 잔류대원과 피난민을 데리고 철수했다.<sup>601)</sup>

## 4. 울팍 제4부대

### 가. 창설 배경과 편성



울팍 제4부대는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 예하 동키 제8부대(해주부대)로 창설되어, 유격전을 전개해 오다가 미 제8240부대에서 강화기지를 창설함에 따라 1952년 5월 중순 울팍 제4부대로 재편된 부대이다.<sup>602)</sup> 부대는 소수압도에서 계속 주둔했다.

600) 박한동·김근일 증언, 2003.11.28;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7, 138, 158" Oct. 3-4, 24,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01) 박한동 증언, 2003.11.26; 김근일 증언, 2003.11.28.

602)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 전사』, 2003, 332면. 그러나, 부대장의 공훈기록에는 1952년 1월 20일부터 기점으로 했다(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재편될 때 당시 44세이던<sup>603)</sup> 이중기 부대장이 명예부대장으로 추대되고 김영환이 부대장으로 선임되었다. 나머지 간부는 부부대장 이순석, 행정과장 김영상, 정보과장 정지곤, 작전과장 최일봉, 군수과장 차근만, 통신과장 허형 등이었다.

용매도와 무도에 파견대를 주둔시켰다. 특히 무도파견대는 옹진군 봉구면을 담당하면서 많은 소규모 유격전을 수행하다가<sup>604)</sup> 올해 제6부대에 무도를 인계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위해 1952년 7월 중순<sup>605)</sup> 황해도 해주 북쪽의 멸악산맥(BT4030)에 낙하산과 육상으로 강한성 등을 침투시켜 근거지를 건설했다. 이곳에서 후퇴하지 않았던 반공치안대 잔류자들이 합류하여 대원이 130명에 이르렀고, 인근 농민들도 이들에게 협력했다고 한다. 대원들은 보급품을 공중보급과 현지 조달을 했으나, 중공군이 내륙기지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이 되자 인근 지역 청년들만 남기고 철수해야 했다.<sup>606)</sup> 1952년 10월말 경 전체 대원 규모는 600명이었다.<sup>607)</sup>

~~.....A-W-4 interior unit established base on a hill in the~~  
BT 4030 area. This unit consists of:

(1) 130 full time guerrillas who live in mountain areas and procure their needs through pillage of communist elements and friendly logistical airdrops.

(2) 350 friendly farmers who are contacted by the aforementioned group when need<sup>d</sup> for large scale raids. This farmer-partisan element also furnishes tactical information to guerrilla group.

b. Large concentrations of CCF moved into this locality and unknowingly surrounded the friendly base.

c. Friendlies have remained undetected; however, since they are restricted to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ir base and the numerous CCF in the area preclude a supply drop, the food situation is critical.

내륙기지 설치보고  
(1952. 7. 24)

603) R. M. Ripley, Major,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604) 해주유격부대전우회, 『전사기록』, 1984.

605) 5월 5일경이라는 주장도 있다(『해주유격부대 전사』, 425면).

606)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해주부대유격전사』, 349-350면; 김익성 증언, 2003.11.17; CCRAK Guerrilla, "Summary No. 68, 73" July 24, 29,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07)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전우회에서는 대원의 규모가 800여 명으로 기억했다(『해주유격부대전사』, 458면).

1953년 4월 초 부대는 백령도 작전기지 사령부에서 분리된 드래곤 기지사령부(Dragon Command)로 편입되었다. 휴전이 다가오자 철수명령에 따라, 용매도 파견대와 적지 은신중인 대원들을 귀환하게 했다. 1953년 6월 7일 휴전협정일까지 도서를 방어하고 적지로부터 대원을 귀환시키기 위해 옥찬문 중대장 지휘아래 1개 소대병력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대원들은 2년간을 지켜왔던 소수압도에서 철수하여 대무의도로 남하했다. 김영환 부대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고, 부대 명은 드래곤 제15부대(부대장 김무학)로 바뀌었다. 1954년 2월 국군으로 편입되어 국방부 제8250부대 제2연대 제3대대로 개편되었다.<sup>608)</sup> 김무학·허형 등 8명은 장교로 임관되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부산동래의 국군 제2보충대대로 배속되어 부산지구 각 부대로 편입되었다.

#### <해주부대가>

반만년에 역사어린, 단군 피를 받은 우리  
 가슴속에 뛰어난, 열렬 애국동지여  
 나가자 보호하자, 국가민족 있을 곳  
 싸워라 용감하게, 남아 이십대 장부  
 통일을 이루자, 해주지구결사대



김영환 부대장과  
간부들(1952.6)

608) 『해주유격부대 전사』, 401면, 420면.

## 나. 주요 작전 활동

이중기 명예부대장의 공적서에 의하면, 1952년 1월 20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부대는 49회 작전을 수행했다.<sup>609)</sup> 사령부에 보낸 보고서에 나타난 월별 작전 횟수는 1952년 7월 7회, 8월 4회, 9월 11회, 10월 12회 등이다. 내륙기지 작전은 부근 도시와 마을에 출동하여 적병과 내무서원 살상, 화물차 공격, 북한군 귀순 공작 등 적 후방 교란이 주를 이루었다.<sup>610)</sup> 1952년 7월 4일<sup>611)</sup> 북한군 생포를 위해 웅진군 동구면 개머리에 상륙하였지만, 최후석 대대장이 전사함으로써 작전 목적을 달성치 못한 채 철수한 경우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작전은 규모가 작았다. 1952년 6월 4일 대원 7명이 벽성 북서쪽 32km 지점인 덕고개리(YC189291)에서 매복하여 북한군 4명을 사살하였고, 7월 7일 대원 7명이 청단 북서쪽 24km 떨어진 공해리(YC460087)의 적 초소를 습격하여 2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1정을 노획했다.<sup>612)</sup> 9월 23일 대원 55명이 강령 동북쪽 24km 떨어진 담월리(YB325998) 해안가로 상륙한 후 중계동(YC327017)까지 진출, 북한군 40명을 기습하여 24명을 사살하고 7명을 부상시키고 다발총 1정과 소 두 마리를 노획했다.<sup>613)</sup>

1953년 5월 1일 동강면 물고리 마을에 북한군 1개 소대가 새로 주둔하자, 부대 본부에서는 1개 중대 규모로 대원을 선발하여 출동시켰다. 옥찬문 중대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제2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예비대를 배치하고, 이영복 부중대장이 이끄는 이강덕·이근호 등 특공대는 북한군을 기습하여 20명을 사살하고 12명을 포로로 했다.<sup>614)</sup>

609)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당시 부대장은 김영환이었으나, 1952년 5월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중기 명예부대장이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610)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이중기』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CCRAK Guerrilla, "Summary No. 68" July 24,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11) 4월 16일 혹은 17일이라는 기술도 있으나(『해주유격부대 전사』, 425면, 429면), 이른 여름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7월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612) CCRAK Guerrilla, "Summary No. 38, 63" June 22, July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1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2" Sep. 28, 1952.

---

614) 『해주유격부대 전사』, 358면. 이전에는 작전일이 5월 3일이었고, 작전지역이 금산리 솔기미 마을이었으며 전과도 적 4명 사살이었다고 기술했다(해주유격대 전우회, 『전사기록』, 1984; 『한국전쟁과 유격전』, 307면).

<표 5-6> 1952년 10월 작전 성과<sup>615)</sup>

(단위 : 명)

일 시	1일	3일	5일	6일	9일	15일	17일	19일	20일	28일		
인 원	20	25	23	23	28	31	28	27	31	30	42	58
전 과 (사살)	12	5	9	4	3	6	다리 폭파	8	30	8	12	25

작전이 가장 활발했던 1952년 10월의 경우, <표 5-6>처럼 출동 대원의 규모는 대개 20~30명 수준이었다. 때로는 10월 3일과 28일 작전처럼 같은 날 2개조를 출동시켰다. 특히 28일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많은 42명과 58명의 대원이 동원되었다.

보다 큰 규모의 작전도 있었다. 1952년 9월 20일 새벽 대원 80명이 청단 서남쪽 20km 지점인 동지미(YC494005) 지역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60명과 교전하여 32명을 사살하고 참호 1곳을 파괴했다. 1953년 4월 4일 북한군이 동강면 덕현리 부채바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해안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유격대의 선박을 제압하려고 했다. 적의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부대장은 제1대대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제1대대의 3개 중대, 2개 특공소대를 동원하여 출동하였으나, 돌풍을 만나 착륙이 지연되면서 날이 밝아 적에게 노출되었다. 부채바위로부터 날아오는 적의 총탄 속에 갯벌이라 은폐물이 전혀 없어서 신속하게 육지로 상륙했다. 화기 중대는 진지를 확보하여 60mm와 81mm 박격포로 부채바위를 조준하여 적을 제압하는 동안, 공격제대가 정면으로 전진하고 특공소대가 부채바위 진지의 측면을 공략하여 북한군 4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나, 대원 2명도 전사했다.

중공군과 싸운 작전도 있었다. 1952년 6월 21일 대원 40명이 웅진군 해성면 마향동 염전으로(BS420826)<sup>616)</sup> 상륙하려다 중공군 90명과 교전하여 2명을 부상시켰다. 9월 26일 23시 대원 56명이 강령 동남쪽 11km 떨어진 흰바우(YB306925) 지역으로 상륙, 중공군 30명을 공격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교전하다가 증원군이 오자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3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2명도

61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8, 141, 145, 147, 153, 157-58, 167-68".

616) 좌표상으로는 염전 앞 바다이다.

부상을 입었다.<sup>617)</sup>

유엔 해군과 공군지원을 받기도 했다. 1952년 6월 14일 새벽 대원 269명이 해군(Abuse-4)과 항공기 8대 지원을 받아 강령군 형제섬 옆 술금동·동산촌 등(YC405015, YB373983·365990·365993)을 공격해 북한군 75명을 사살했으나, 이때 대원 1명도 전사했다. 9월 22일 03시 대원이 325명이 유엔 해군의 지원을 받아 YB445940 지역<sup>618)</sup>으로 상륙하려다가 파도 때문에 철수하였다. 10월 20일 대원 30명이 재동(YB318931)으로 상륙, 북한군 60명을 포위했으나 그들에게 발각되어 해군 함포 지원을 요청해 30명을 사살하고 21여단 2대대 병사 1명을 생포했다.<sup>619)</sup> 1953년 5월 22일 봉구면 후렴동-부포리-평화리 일대에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하여, 제4부대는 닥세미섬, 울팩 제5부대는 육세미섬, 제6부대는 무도에서 출동하여 합동작전을 실시했다. 미 해군의 함포지원과 공군지원으로 봉구면 당고지를 공격하여 적 30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7명과 중공군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sup>620)</sup>

## 5. 울팩 제5부대

### 가. 연혁과 편성

1952년 2월 10일 울팩 제5부대는 서해안의 기지사령부 재편과정에서 동키 제12부대로부터 확대 재편되었다. 이 때, 피난민과 현지 주민을 추가로 모집하여 대원을 170명으로 증가시켜 부대를 1개 대대로 조직했다. 대대 아래 6개 중대로 편성하여 산하에 각각 3개 소대를 두었다. 1952년 11월경 대원의 규모는 600명

617) CCRAK Guerrilla, "Summary No. 45, 133" June, 29, Sep.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18) 좌표 표시가 불분명하다.

619) CCRAK Guerrilla, "Summary No. 34, 132, 158" June 16, Sep. 28, Oct. 24,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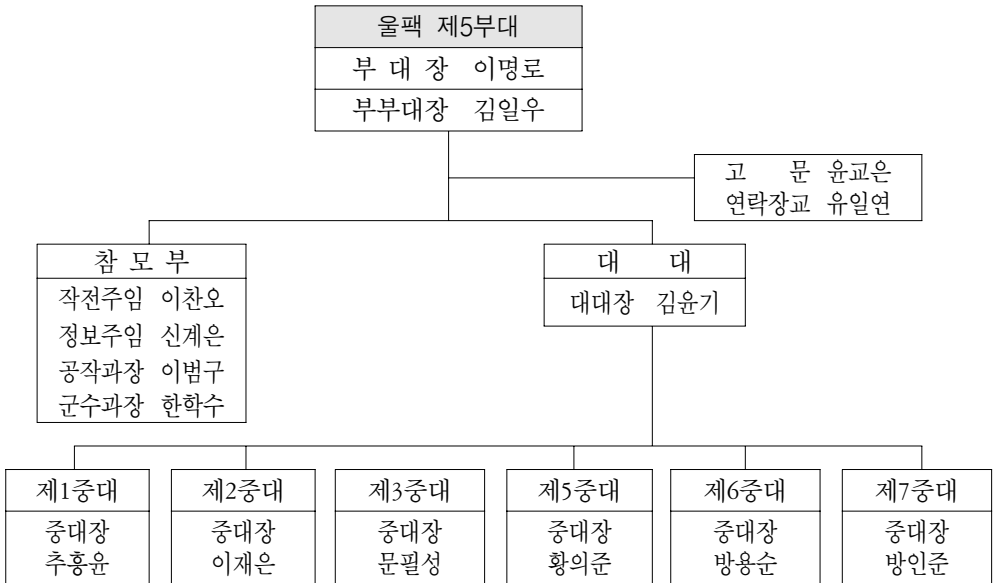
620) 『해주유격부대 전사』, 378-381면, 426면. 작전일이 5월 20일이고, 동원된 다른 부대 중 울팩 제6부대가 아니라 제7부대라거나, 적들이 미리 퇴각하였기 때문에 전과없이 철수했다는 기술도 있다(『한국전쟁과 유격전』, 308-309면).



부대표지

정도였다. 벽성군 출신이 많아서, ‘벽성부대’라고 불렸다. 이 가운데 차덕순·홍승표 등 ‘KLO’ 첩보대에서 온 대원도 있었다. 강신옥이라는 여성 대원은 대원과 섬 주민들에게 간호활동을 했다.<sup>621)</sup> 부대 간부진은 다음과 같았다.

<지휘관 및 참모>



부대기구 가운데, 정보과의 임무는 해안의 적정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으로 평균 2~3개월마다 한번씩 대원 2~3명이 한 조가 되어 적지에 들어가 첩보를 수집했다. 또한 용매도·형제도·해주 수양산에 기지를 건설해 대원들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수양산에는 무전기(SCR 300) 1대를 지급하여 본부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sup>622)</sup>

621)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울팩5부대’의 여성 유격대원』, 『향방』 1994.8, 60면; 차덕순 증언, 2003.8.6, 11.28.

622) 이명로 증언, 2003.11.18; CCRAK Guerrilla, “Summary No. 77” Aug. 2, 1952.





방용순 중대장 등 대원  
(무의도, 1954. 1. 29)

그런데 1953년 1월 초 간부들 사이에 알력이 일어나서 이명로 부대장이 사임하고<sup>623)</sup> 김일우가 취임했다. 이후 휴전이 되자 국방부 제8250부대 제5대대로 편입되었다. 동년 10월 10일 경기도 용진군 대무의도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다가, 1954년 2월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230여 명이 보병 제26사단과 수도사단에 편입되었다. 1990년 4월 전우회가 창설되었고, 1994년 5월 서울 정릉에 위치한 벽성군 망향의 동산에 ‘벽성지구유격전 전몰자 위령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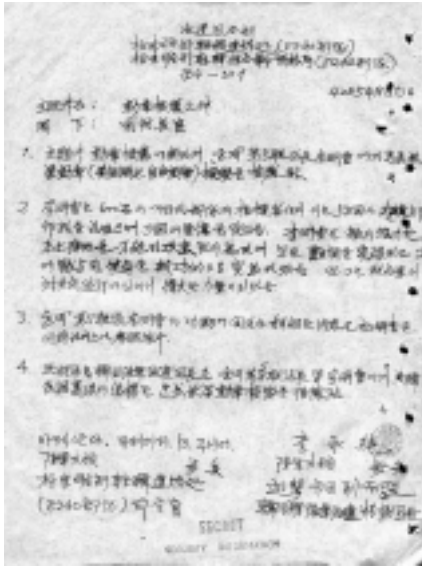
## 나. 주요 작전 활동

이명로 부대장의 공적서에 의하면, 58회의 작전이 실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sup>624)</sup> 많은 작전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대 간부들은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어 전투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상세한 전과기록이 없고, 생존 대원들 또한 여러 전투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용매도에 주둔했던 제7중대는 적지로 침투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작전지원을 위한 첩보수집을 주로 했다. 첩보활동 가운데 1952년 3월경, 유중

623) 부대장이 울팩기지사령부에 출장을 갔을 때, 부부대장이 반기를 들었고 이를 사령부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한다(이명로 증언, 2003.8.6).

624)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전장교단,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이명로 부대장 공적서

병화(제2중대 2소대장)·이충세·송승호 등이 전사하고<sup>627)</sup> 7명이 부상을 당하는 격전을 치렀다.

1952년 7월 10회의 작전이 있었다. 몇몇 작전을 살펴보면, 16일 대원 30명이 청단 서남쪽 연봉(YC464030) 지역에 있는 북한군을 기습해 20분간 교전을 했다. 적의 증원병력이 왔으나 3시간 동안 격전 끝에 고지를 점령하여 참호 2곳을 파괴하고 북한군 10명 사살한 다음 철수했다.<sup>628)</sup> 7월 31일 내륙기지인 해주 북방 7.5km 지점에 있는 북송산(YC350210)에서 약 400명의 북한군과 보안대원들과 교전하여 북한군 40명과 보안대 2명을 사살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sup>629)</sup>

8월 9일 대원 30명이 청단 남쪽 10km 떨어진 소무동(YC491023)을 공격하여 북한군 8명을 사살하고, 참호 2곳과 건물 12동을 파괴했다.<sup>630)</sup> 9월의 경우 작전횟

림·민홍식 대원이 황해도 해주 부근 비행장 일대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벽성군 영천면을 통해 상륙하던 중 발각되어 전사한 경우도 있었다.<sup>625)</sup>

1952년 5월 25일<sup>626)</sup> 이명로 부대장이 제2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용진군 송림면의 제비산에 적이 구축한 참호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미 해군함정과 공군기의 엄호 아래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유격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제비산을 점령한 다음 적 병커수 개 소를 완파하고 기지로 귀환했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적 수십 명을 사살했으나 민

625) 『민영옥(정보과) 편지』 1990.2.6; 육본, 『유종림 전사망심사의결서』 1990.6.25; 차덕순 증언, 2003.8.6; 방인준 증언, 2003.11.28.

626) WP 5연대 전우회, 『전사자명부』, 1995.5.

627) 11명 혹은 15명이 전사했다는 기술도 있으나, 1995년 5월 현재, 전우회에서 파악한 전사자 명단에는 3명이 수록되었다.

628) CCRAK Guerrilla, “Summary No. 63” July 1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29) CCRAK Guerrilla, “Summary No. 77” Aug. 2, 1952.

630) CCRAK Guerrilla, “Summary No. 86” Aug. 13, 1952, SN 146;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표 5-7> 1952년 10월 작전 성과<sup>631)</sup>

(단위: 명)

일 시	1일	7일	8일	9일	12일	17일	18일	20일	24일	25일	26일	27일	29일	30일
인 원	30	32	25	31	38	139	31/115	58	139	31	21	31	30	23
전 과 (사살)	12	36	7	16	13	23	30/60	29	55	12	16	4	14	8

수가 16회가 넘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표 5-7>는 1952년 10월 중 작전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개 30명 규모의 대원이 출동했으나, 때로는 100명이 넘는 대원이 출동했다. 10월 7일 23시 30분 대원 32명이 재령군 새말(YC38047)로 출동하여 적 36명을 사살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농민자위대원이었기 때문이었다. 10월 18일 대원 31명과 115명이 각각 광암리와 향교골(YB318931, YB276935)로 출동하여 각각 북한군 30명과 60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했다. 그 외에 적의 막사 3개소를 파괴하고, 많은 농우를 죽이고 우마차도 파괴하는 전과를 냈다.<sup>632)</sup>

중공군과도 교전을 벌여 타격을 입혔다. 1952년 6월 1일 대원 30명이 중공군을 공격하여 30명을 사살했다. 이후 강화도 기지사령부에서 적을 생포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리자, 6월 17일 중공군이 주둔해 있는 웅진군 송림면 일대의 지리를 잘 아는 오문근 외 특공대원 5명이 출동했다. 이들은 야음 속에 송림면으로 침투하여 3일 동안 잠복해 있다가 순찰 중에 있는 중공군 2명과 격투 끝에 그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여 귀환했다. 8월 12일 대원 14명이 청단군 무정리 앞(YC480005)에서 매복하여 적 6명을 사살하고 그들의 첩보원인 북한인 10명을 생포했다.<sup>633)</sup>

1952년 10월 2일 부대장 이명로는 벽성군 내성면에 주둔해 있는 중공군 중대 본부를 기습하여 이를 섬멸할 목적으로 부대장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내성면 파라개로 상륙했다. 상륙 후 내륙으로 약 5km를 진격하여 적의 막사를 완전히 포

63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41-171" Oct. 7-Nov. 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3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44, 158" Oct. 10, 24, 1952.

633) CCRAK Guerrilla, "Summary No. 90" Aug. 17, 1952.

위하여 기습했다. 이 때 적 20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24일에는 대원 139명이 적진에(YC408065)<sup>634)</sup> 상륙하여 중공군 85명을 기습하여 55명을 사살했다. 그 외 공산주의자 58명을 사살하고 가옥 18채를 파괴하는 한편 철도 일부를 파괴한 후 해주로부터 증원군이 오자 철수했다.<sup>635)</sup>

1953년 3월부터 해주 수양산·가좌면의 까치산 등지에 특공조를 수시로 침투시켜 특수첩보 수집활동은 물론, 적군의 귀순공작 및 납치·통신선로 절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SCR 무전기를 휴대한 공작조도 수시로 침투하여 공중폭격 및 함포사격의 목표물을 탐색하여 부대에 보고하여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등 여러 작전을 전개하다가 휴전을 맞았다.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에는 작전을 중단하고 첩보수집 활동에만 주력했다.

작전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1952년 9월 박성옥 등 대원 27명이 벽성군 금단면 지남리 지남산에 침투했다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9명이 전사하고 18명만 귀대했다.<sup>636)</sup> 동년 11월 25일에는 형제섬에 파견되어 있던 이범구 외 대원 15명이 적을 생포하기 위해 웅진군 동강면으로 침투하여 매복했으나, 그 다음 날 적에게 발견되어 포위당했다. 이 때 형제섬에 주둔해 있던 같은 다른 대원들이 이러한 급보를 받고 급히 출동하여 적과 치열한 전투 끝에 포위 당한 동료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원 7명이 전사했다.

## 6. 울팩 제6부대

### 가. 연혁과 편성

울팩 제6부대는 1951년 12월 중순<sup>637)</sup> 타이거여단 부관 홍은철이 연안농업학교

634) 좌표 표기가 오류인 듯하다.

635)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6, 163" Oct 2,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36) 방인준, 『울팩5부대 전사자료』 2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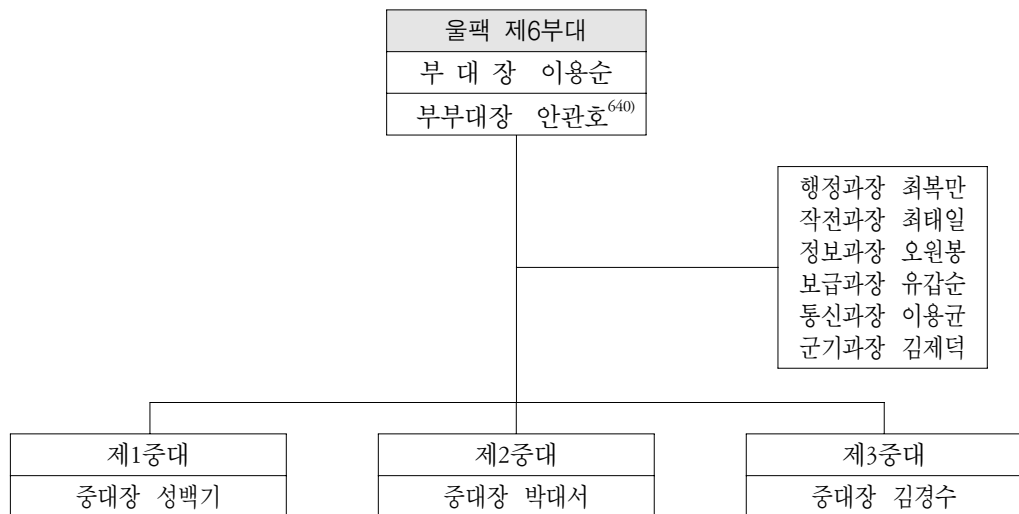
637) 연백군민회, 『연백군지』, 1986, 499면. 1952년 12월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북한민주통일운동



출신을 중심으로 교동도에 주둔하고 있는 타이거 여단에서 차출된 병력과 웅진군 지역에서 피난 나와 연평도에 거주하고 있던 반공청년과 학생들을 규합하여 연평초등학교에서 기본훈련을 마친 다음 창설되었다. 처음 부대를 이끌던 홍은철이 주로 교동에서 생활하는 등 부대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자, 울퓌크 기지사령부에서 1952년 8월부터 이용순을 부대장으로 교체하였다. 그 역시 을지 제2병단 출신으로 당시 32세였다.<sup>638)</sup>

초기에는 부대를 2개 중대로 편성하여 연평도와 무도에 배치하였고 중화기소대도 따로 편성했다. 1952년 6월 장재도 탈환 후 3개 중대로 증편되었다. 제3중대 40여 명은 웅진군 출신으로 장재도에 주둔하여 첩보수집 활동을 했다.<sup>639)</sup> 미고문관으로는 램(George Lamm) 대위, 핫셀 중위, 아취 대위 등이 부대의 보급과

#### <지휘관 및 참모>



사-황해도편』, 615면.

638) 박종극, 『유격대원에게 남기고 싶은 글』, 2002.6.25. 초대 부대장이 최병태라는 기록도 있으나(『연백군지』, 500면), 주재관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639) 『연백군지』, 499면; 박종극 증언, 2003.11.2.

640) 그는 제7부대 군기대장출신이었다.



제2소대 기념사진

작전을 지원했다.<sup>641)</sup> 1952년 2월 무도를 점령한 후, 파견대를 상주시켰다가 부대 기지를 무도로 옮겼다.

무도는 내륙으로부터 불과 2km도 못 미치는 거리로 북한군의 포격 사정권 내에 있었으나, 내륙으로 침투하는데 유리한 지점이었다.<sup>642)</sup> 당시 부대편성은 다음과 같았고, 1952년 11월경 대원의 규모는 250명이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연백군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해주시·벽성군·용진군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간부들과 대원들의 이탈이 잦은 편이었다고 한다.<sup>643)</sup>

휴전이 되자, 부대는 무도에서 후방으로 이동했다. 이 때 대원들은 미국으로 간다느니, 아니면 일본으로 간다느니 하는 소문으로 마음이 몹시 설레였으나 인천 앞 바다 조그마한 대무의도에 도착했을 때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국방부 제 8250부대 제6연대로 재편될 때, 규모가 적어서 중대로 편입되는데 그치자 일부 간부를 비롯해 대원들이 이탈했다.<sup>644)</sup> 이 부대가 해체되면서 부대장 이용순은 중위로, 부부대장이나 중대장 등은 소위로 임관되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사병으로 편입되었다.

641) 송태욱 증언, 2002.10.15;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642)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0.2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Lt. Col(re), Archie’s Letter” Oct. 4, 2002.

643)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0.26,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안병두(부관) 증언, 2003.12.13.

644) 박종극, 『유격대원에게 남기고 싶은 글』, 2002.6.25; 송태욱 증언, 2002.10.15.

## 나. 주요 작전

대원들은 잘 훈련되었고 사기도 높았다고 하나<sup>645)</sup> 당시 문서가 남아 있지 않는 데다가, 국방부 제8250부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여 다른 부대와 달리 전우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들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대원들은 ‘비호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호같은 용사들이었음을 자부했다.<sup>646)</sup>

제6부대는 무도의 방어를 비롯해 KLO 첩보대원의 출입지원이나, 북한지역에 주기적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작전 사례로는 1952년 5월 6일, 유격대원 30명이 연안군 오암리 염전(BS450840)을 공격하여 소금 50가마를 탈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 24일 81mm 박격포 40발을 부포항 서남쪽 간동 해안가(YB275825)에 발사하여 정크선 2척을 파괴하여 북한군 5명을 사살했다. 7월 27일 12명 대원이 북한군 제21여단 2대대 소속 병사 1명을 생포하기도 했다.<sup>647)</sup> 1952년 제8240부대 사령부 밴더풀 중령이 북한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대원 14명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비밀경찰복(SS uniform)을 입혀 해주 인근지역으로 투하했을 때, 제6부대 미 고문관 램 대위<sup>648)</sup> 대원 40명을 인솔해 이들을 안전하게 철수시켰다.<sup>649)</sup>

제6부대의 작전활동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군에게 올린 보고를 검토해 보면 1952년 6월 4회, 7월 6회, 8월 5회, 9월 6회, 10월 6회 등 1주일 한번 정도의 작전이 있었다.<sup>650)</sup> <표 5-8>에 의하면, 1952년 8월과 10월 중 각각 5회 내외의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작전규모는 10여 명으로부터 60여 명까지 출동하여, 북한

645) *Dark Moon*, p. 169.

646) 박종극, 『유격대원에게 남기고 싶은 글』, 2002.6.25.

647) CCRACK Guerrilla, “Summary No. 53, 73” July 7,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48) 그는 1952년 11월초에 떠났다(송별 기념 사진).

649) *Dark Moon*, pp. 168-169. 이 작전으로 소련은 유엔에서 독일군이 개입했다는 항의를 했다고 한다.

650) 이용순 부대장의 공적서에 의하면, 그의 주요 작전은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였다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장, 『훈장추천: 이용순』 1952.10.26,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lt;표 5-8&gt; 1952년 8, 10월 작전 성과

(단위 : 명)

일 시	1952. 8				1952. 10					
	7일	9일	20일	28일	3일	5일	7일	8일	23일	27일
출동대원 규 모	32	22	64	34	25	21	26	32	13	8
전 과 (사살)	5	3	4	2	2	12	5	5	14	5

군과 자위대원들에게 10명 내외에게 타격을 입혔다. 대원들이 적진에 상륙하여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10월 중 작전 가운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52년 10월 27일 유격대원 8명이 부포항 서쪽 2km 지점인 가늘골(YB281857)에 추락한 유엔기를 폭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30명과 조우하여 5명을 사살하고 4명을 부상시켰으나, 유격대원 1명도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sup>651)</sup> 같은 해 9월 21일, 대원 74명이 강령군 회화촌 해안가(YB245845)로 상륙하여 북한군 19명을 포위 섬멸하고, 증원군과 교전하여 결국 총 32명을 사살했다.<sup>652)</sup>

대원들이 평가하는 주요 작전으로는 무도 탈환과 방어작전, 장채도 탈환작전, 29고지 기습작전, 웅진군 봉구면 기습작전 등을 들 수 있다. 무도는 웅진군 봉구면 서남단 육지로부터 약 2km 떨어져있는 섬으로 박격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였고,<sup>653)</sup> 북한군 분견대가 상주해 있었다. 1952년 2월초 부대장의 직접 지휘 하에 미 해군의 수송함에 승선하여 연평도를 출항했다. 그리고 미 함정은 유격대원들을 승선한 채 연안을 오고 가면서 적지와 무도에 함포사격을 가한 후 야간에 기습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아군의 피해없이 무도를 탈환했다. 이후 부대는 이 무도에 파견대를 상주시켜 웅진반도 내의 정보수집 기지로 활용했다. 그러다가 부대는 무도에 주력부대를 주둔시켜 수시로 웅진반도로 상륙하여 적의 주요시설과 통신선을 파괴하고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수행해 나갔다. 1952년 6

651)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652) CCRAK Guerrilla, "Summary No. 132" Sep. 28,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53)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월 11일 북한군 300명이 6척의 동력선과 6척의 범선으로 120mm 박격포와 직사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도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해 왔다. 유격대원들은 6문의 기관총으로 방어하여, 북한군 150명을 살상시키고 4척을 침몰시켰으나 80여 가옥 대다수가 파괴되었다. 북한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첩보를 획득하는 루트로 이용되었던 무도의 사수는 올팩 제6부대의 주요한 공적이었다. 이 성과로 올팩 기지사령부로부터 무반동총 3문을 받았다. 부대장은 전투 중 중상을 입으면서도 무도를 사수했다.<sup>654)</sup>

무도 사수를 위해, 부대는 연평도 해안을 경비중인 해군 제702함, 제703함에게 함포지원을 요청했다. 1952년 7월 3일 제703함은 무도 대안(YB267829·304824·287834 등)에 있는 적 중대본부·포대에 맹포격을 가했다. 7월 21일 제702함은 북한군 1개 소대가 집결하고 있는 고지에 이날 20시 22분부터 23시 35분까지 함포사격을 했고, 7월 22일 유엔 함대(Abuse 4)와 함께 다시 함포사격을 가해 북한군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때 북한군도 120mm 해안포로 반격을 했다.<sup>655)</sup>

1952년 6월 중순 북한군이 자주 드나들고 있던 장재도에 대한 기습작전을 실시하였다. 장재도는 웅진군 봉구면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무도와 약 5 km 정도 떨어져 있다. 1개 중대 규모의 대원들이 기습적으로 상륙했다. 저항하는 약 1개 분대의 적을 완전히 섬멸한 후,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켜 적의 침투병력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어했다.

9월 7일 북한군의 해안 경비초소가 있는 웅진군 봉구면 최서남단에 위치한 29 고지를 기습했다. 이 고지는 무도와 마주 바라다 보이는 곳으로, 야음을 이용하여 소대장 박철규가 기습상륙작전을 했다. 이 섬에는 북한군 약 1개 소대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상륙하여 적이 숙영하고 있는 민가 4동을 완전 포위하고 기습 공격을 가해 10여 명을 사살하고 그들이 설치해 놓은 해안경비초소를 파괴시키고 포 2문과 소총 다수를 노획하여 귀환했으나, 이 과정에서

654)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0.26,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31" June 1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Lt. Col(re), Archie's Letter" Oct. 4, 2002.

655)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9, 47면, 186면, 192면; 『대한민국해군사-작전편』 2, 51면.

안도훈 대원이 중상을 입고 대전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sup>656)</sup>

1953년 4월 18일 북한군 부대가 웅진군의 봉구면 해안도로를 따라 야간에 이동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용순 부대장은 대원들을 공격하기 좋은 지점에 매복시켰다. 북한군 행군대열이 나타나자,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던 대원들은 사격명령과 함께 집중사격을 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100여 명을 살상하고 소련제 소총 30여 정을 비롯한 무기와 탄약을 노획했으나, 대원도 사상자가 발생했다.<sup>657)</sup>

## 7. 울팩 제7부대

### 가. 연혁과 편성

울팩 제7부대는<sup>658)</sup> 육군 을지제2병단 예하 제25연대로 있다가 타이거여단 제3연대로 재편된 후 1952년 4월 독립했다. 부대장 안승두의 고향이 벽성군 동운면 출신이어서 동운부대(東雲部隊)라고도 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지하에 숨어서 반공활동을 해오던 애국청년들은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하였고, 공산당과 패잔병 소탕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던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자 미처 남하하지 못하였거나 끝까지 고향을 떠날 수 없었던 치안대원들과 반공청년들은 아군의 재북진을 기다리면서 산중에 은거하여 항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공산군의 병력이 날로 증가하여 압력이 가중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던 가운데, 1951년 1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등 유엔군의 재북진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이미 서울로 통하는 예성강 철교가

656) 안병두 증언, 2003.12.13.

657)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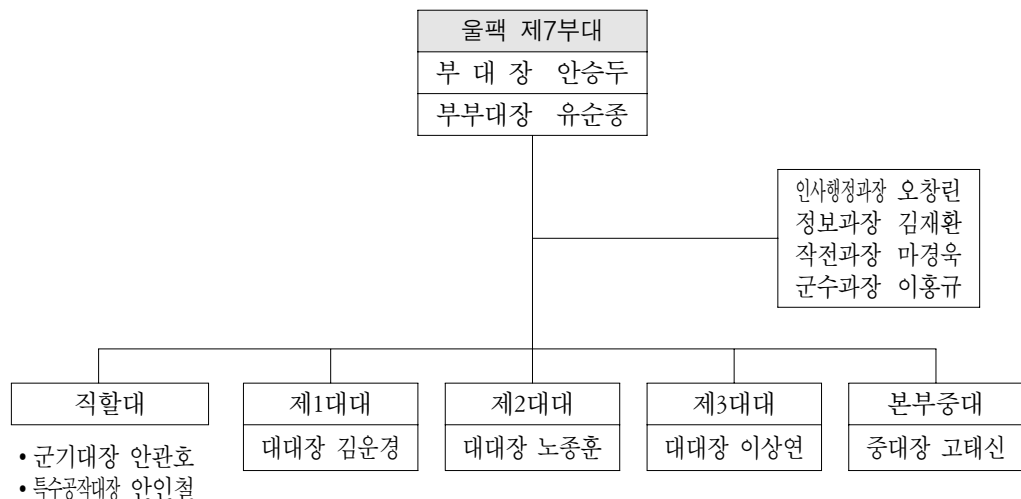
658) 부대사와 관련된 문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리하는 데에는 『한국전쟁과 유격전』과 전우회에서 제공한 『유격전사』(2002.4.30)에 의존했다. 양자는 거의 대동소이하나, 차이가 나는 내용은 후자를 따랐다.

폭파되어 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벽성군·평산군·연백군 등 38도선을 면하고 있는 해변근처의 반공청년들은 부득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는 황해도 인근 근해 도서인 백령도, 연평도, 용매도 등으로 탈출했다.

벽성군 청룡면 용매도에 집결한 단체는 벽성군 동운면 치안대(대장 안승두), 평산군 마산면 치안대(대장 이백수), 연백군 용도면 치안대(대장 이상연) 등이었다. 이들 치안대 간부를 중심으로 향토수복을 위해 조직을 갖춘 부대를 편성하기로 하여, 반공청년 가운데 지원자 300여 명을 포섭하여 1951년 3월 27일 육군 을지 제2병단 제25연대를 창설하고 벽성군 동운면 치안대장 안승두를 연대장으로 추대했다.

1951년 8월 제25연대는 타이거여단 제3연대로 개편되었고, 이어서 1952년 4월 1일 타이거여단에서 분리되어 울퍽 제7부대로 독립했다. 부대장 아래 특수공작대와 3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특수공작대는 30명으로 편성하여 5명을 1조로 공작반을 조직하였고, 공작요원은 피난민 중에서 포섭하여 활용하였다. 대원의 규모는 타이거여단 제3연대 시절에 500명 정도였고 1952년 11월경에는 600명으로

#### <지휘관 및 참모>659



659) 타이거여단 제3연대시절, 간부는 정보과장 마경욱, 작전과장 이상연, 군수과장 신여순, 3대대장 이성 등이었다(『8240타이거 3연대』, 1961, 정부기록보존소).



본부 중대장 고태신과 대원들(오동수 제공)

늘어났다.<sup>660)</sup>

휴전 성립 직전인 1953년 6월, 부대는 용매도 주둔지에서 철수하여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대무의도로 이동해 1954년 2월 국방부 제8250부대 제6연대 제5대대 제2중대로 재편되었다. 이 때 행정과장 민풍기, 작전과장 이상연 등 간부진에 변동이 일부 있었다.<sup>661)</sup>

### 나. 주요 작전활동

부대의 임무는 주둔지인 용매도가 육지와 약 2km 떨어져 있어 쌀물 때 적이 습격해 올 것을 대비한 방어작전과 해주~개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적 보급로에 대한 교란작전과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북한주민과 북한군에 대한 선무공작과 탈출하는 피난민을 지원했다.

660)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견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타이거여단 역사』, 27면. 『8250 제6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대원의 규모가 1,300명이라는 주장도 있다(『유격전사』 2002.4.30,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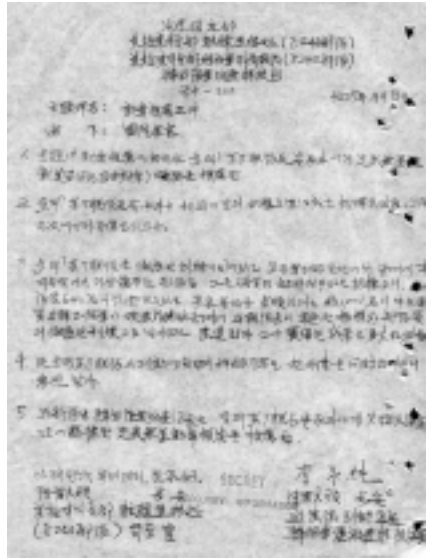
661) 『8250 제6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그런데, 전우회에서는 2연대로 재편되었다고 정리했다(울팩 7부대전우회, 『울팩 제7부대 유격전사』, 2002.4.30).

부대장 안승두의 공적서에 의하면, 제7부대는 1951년 3월 27일부터 1952년 11월 1일까지 상륙작전을 46회 수행했다. 이는 울퉁 제7부대로 재편되기 전의 을지병단과 타이거여단 시기의 전과를 합한 것이었다. 이 부대는 많은 전과를 올려 군사적 견지에서 울퉁 기지사령부 산하 부대중 가장 우수한 부대로 평가되었다.<sup>662)</sup>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지역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작전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sup>663)</sup> 을지 제2병단 제25연대 시기부터 성과가 있었다. 첩보공작은 대원들이 연고지의 가족 친지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그 외에 피난민 가운데 공작요원을 선발하여 적지로 침투시켜 정보수집과 선무공작을 통해 북한군 40여명을 귀순시켰다고 한다. 그 중 주요한 성과로 1951년 5월 20일, 대수압도에 파견된 윤세찬 외 2명이 용진군 동강면 덕현리 거주 이강성과 3개월 동안 선무공작을 실시하여 8월 초 북한군 최광연 외 2명을 귀순시켰다.

제25연대 시기의 주요 전과는 화전리전투와 용도면전투이다. 내성면 화전리전투는 연대 창설 후 첫 작전이었다. 작전목적은 용매도기지 전면의 적지인 연백군 청룡면·일신면·내성면·추화면 일대의 적을 소탕하고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부대기지인 용매도 기습을 기도하고 있는 적에게 타격을 주어 기지방어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식량조달과 미처 피난하지 못한 반공인사들을 구출하는데 있었다.

당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각 면에 있는 내무분주소에는 20여 명의 내무서원과 이에 협력하는 공산당원들, 그리고 해안선을 경비하는 북한군이 상당수 배치



안승두 부대장 공적서

662)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전장교단장,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663) 이종기 증언, 2003.5.25.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안선이 광범위하여 북한군은 어느 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51년 4월 5일 새벽 김운경 제1대대장의 지휘아래 대원들은 연백군 청룡면 해안으로 상륙하여 적의 해안 감시초소를 기습하자 적이 분산·도주하였다. 대원들은 그들을 추격하면서 청룡면 내무분주소와 일신면 내무분주소를 기습점거한 후, 이날 오전 중에 2개 면을 장악한 다음 일신면 제산리에 대대 지휘부를 설치했다. 일신면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내성면 내무분주소 또한 점령했다.

1951년 4월 6일 정찰대가 적정을 탐색한 결과 유격대의 공격을 받고 도주한 해안경비대와 내무서원들이 추화면 청단(靑丹)내무분주소에 집결하여 지원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김운경 대대장은 추화면 경계선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동태를 경계하도록 한편, 일부대원들에게 식량 확보와 은신 중에 있는 피난민들을 구출하여 용매도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4월 8일 03시 추화면 청단내무분주소에서 유격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적을 먼저 기습하기 위해 화전리까지 이동하다가 불의의 적의 공격을 받았다. 유격대는 즉시 반격하였으나 3면의 고지로 포위된 상태여서 대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개 중대씩 교대로 엄호사격을 하면서 대기중인 선박으로 철수하였다. 이 작전으로 3일간이나 일신면·내성면·청룡면 지역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적의 역습으로 한준모·길장근 등 4명이 전사했다.

용도면 전투는 제3대대가 수행한 작전이었다. 1951년 3월초부터 6월말까지 제3대대가 연백군 용도면 일대에서 정찰임무, 양곡 조달, 후방교란, 피체된 애국인사 구출 등을 수행했다. 증산도와 연백군 용도면까지의 거리는 해안에서 상당한 거리였으므로 용도면 난물 부락에 비밀 아지트를 구축하여 근거지로 활용하였다.

3월 초 제3대대는 연백군 송북면 증산도로 이동하여, 이달 중순경 북한군 1개 소대가 용도면 남유리에서 주민들로부터 식량 150가마를 징발하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소년대원을 침투시켜 이를 확인했다. 제1중대장 차연호를 비롯한 중대원들은 남유리를 기습하여 벼 150가마와 우차 15대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대원들이 해변에 도착하는 순간에 적에게 노출되었으나, 적을 격퇴하고 식량을 증산도로 운반하였다. 1951년 4월초 용도면 난계리에 양곡이 야적되어 있다는 정

보에 따라 이를 탈취하려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차연호 중대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3월 하순경 용도면 옥야리 내무서에 반공인사 10여 명이 구금되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제3대대장 이상연은 천광운을 대장으로 한 소년단을 2개 소대로 편성하여 용도면 내무서를 급습했다. 이 때 구금된 인사는 이미 해주로 이송된 후였으므로 구출하지 못했지만 내무서원 7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2정·기관단총 1정 등 무기를 노획했다.

6월 초순경 부대본부로부터 중공군 생포지시를 받고 제3대대장 이상연은 각 중대에서 5~6명씩을 선발하여 50여 명을 직접 인솔하여 출동했다. 용도면 난골 부락 비밀 아지트를 거점으로 중공군 생포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 중 주민으로부터 중공군 2명이 출현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대원 10명을 인솔하여 매복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6명이 전사했다. 또한 대원들의 아지트가 누설되어 적의 습격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대원들이 끝까지 항전하다 죽거나 자폭하는 등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sup>664)</sup>

울책 제7부대로 개편된 후 많은 소규모 전투와 다른 부대와의 협동작전을 수행했으며, 또한 유엔군 해·공군의 지원을 받았다. 1952년 6월 27일 구혼리로부터 금천 지역(BT390130~790260) 36곳의 전신선 절단 작전이 있었다. 7월 26일에는 청단 동남쪽 18km 지점인 거래포(YB601964) 지역에 있는 다리를 파괴했다.<sup>665)</sup>

1952년 5월 7일 대원 8명이 청단 동남쪽 약 30km 지점인 학산리 해변(YB 620907)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해안경비대 3명을 생포하려고 교전하였으나 2명을 사살했다. 8월 31일 대원 50명이 청단 서남쪽 25km 떨어진 안골 해안(YB547933)에 상륙하여 북한군 20명과 교전한 결과 8명을 사살했다.<sup>666)</sup> 하루에 두 곳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9월 1일 대원 30명이 강령군 박산골 앞 바다(YB347945)에 상륙하다가 해안경비대와 접전을 벌여 7명을 사살했고, 같은 날 대원 5명이 청단 동남쪽 7km 지점인 새터(YC587023)으로 상륙하여 북한군 3명을

664) 전우회에서는 48명이 전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665) CCRAK Guerrilla, "Summary No. 60, 73" July 14, 2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66) CCRAK Guerrilla, "Summary No. 106" Sep. 2, 1952.



사살했다.<sup>667)</sup>

1952년 10월경 작전지역 내에 북한군과 중공군이 증강 배치되어 해안경비가 더욱 강화되자 작전을 거의 중단하고 첩보대를 편성하여 정보수집에 주력했다고 생존대원들은 기억했지만, <표 5-9>에서 보듯이 상륙작전은 꾸준히 수행되었다. 10월 21일 0시 35분경 대원 35명이 청단 서남쪽 27km 떨어진 덕령리 해변(YB550926)으로 상륙하여 안골(YB559934)까지 진출, 북한군 40명이 두 곳의 민가에서 자고 있는 그들을 급습하여 32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18발 등을 노획했다.<sup>668)</sup>

규모있는 전투로는 웅진반도 상륙전, 저미도 공격작전 등이 있다. 웅진반도 상륙작전은 1952년 5월 중순, 울팩기지 사령부로부터 소수압도에 주둔하고 있는 울팩 제4부대와 함께 웅진반도에 상륙하여 중공군을 생포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대장은 제1대대를 이 작전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고 5월 19일 김운경 제1대대장이 지휘하는 대원 150명은 선박편으로 제4부대 기지인 소수압도로 이동했다.

공격목표는 부포리 포구 서쪽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1개 중대였다. 울팩 제4부대의 1개 대대가 해안선을 담당하고 제7부대의 1개 대대는 부포리로 상륙하

<표 5-9> 1952년 10월 작전 성과<sup>669)</sup>

(단위 : 명)

일 시	5일	13일	15일	17일	21일	25일	28일	31일
인 원	30	19	29	32	35	25	35	35
전 과 (사살)	17	26	20	7	32	13	15	14

667) CCRAK Guerrilla, "Summary No. 7, 110" May 16, Sep. 6, 1952. 그런데 보고서상으로는 YB347945 지역이 상륙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좌표상으로는 해상이다. YC587023 지역도 해안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5-6km 지점이어서 좌표표시가 불명확하다.

668) 20일경, 검정개 지역으로 북한군이 민간인을 인솔하여 조개잡이를 나온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기습하기 위해, 최광국 소대장을 비롯한 1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여 조개잡이 주민으로 행세한 후 북한군을 습격하였다. 도주하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일부 민청 간부들을 처치했다고 한다(최창국, 『유격전참전수기』, 1992.4.30).

669) CCRAK Guerrilla, "Summary No. 141, 152, 153, 157, 160, 168, 169, 172" Oct. 7-Nov.7, 1952.



259명이 항공기와 함포(HMS Belfast, Iroquois, USS Sicily) 지원을 받아, 해주만 연안 저미도(YB 582900, 537900)로 상륙하여 북한군과 한 시간 동안 교전하였다. 율팍 3부대 123명이 학산리 갈정골(YB606917) 지역으로 상륙하여 동시에 공격했다. 미군 고문 램 대위, 졸모아(Jolemore) 상사, 레인(Lane) 일등병 등이 공중 폭격과 함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상륙했다. 율팍 제7부대에서 39명을 사살하고 50명을 부상시켰고, 제3부대는 6명을 사살하고 참호 3곳을 파괴했다.<sup>670)</sup>

해상에서 유엔군 해군의 지원을 받아 큰 성과가 있었다. 1952년 6월 2일 대원 216명이 유엔군 함정(HMS Whitesand Bay)의 함포 지원을 받아, 청단 남쪽 8km 지점인 현암리(YB602908 · 628990 · 610900) 등을 공격하여 북한군 37명을 사살하고, 전신선 7곳을 파괴했다. 19일 대원 250명이 해군(Abuse-4 함)의 함포 지원을 받아 저미도(YB560902)를 공격하여 북한군 20여 명을 살상했으며 4곳 참호 파괴했다.<sup>671)</sup>

1952년 6월 하순 북한군이 한국전쟁 2주년을 맞아 용매도에 대한 ‘해방작전’을 계획하고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부대본부는 총비상 사태로 돌입하여 삼엄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강화기지 사령부와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 공군과 함대에도 지원을 요청하였다.

안승두 부대장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에 있다는 원칙에 의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용매도 북쪽 약 6km 지점에 있는 적의 전초기지인 저미도를 공격하기로 했다. 28일 부대장은 병력을 직접 지휘하여 저미도(YB560903)로 향했다. 작전은 제1대대로 저미도를 동남쪽에서 공격하고 제2대대는 동쪽해안으로 상륙, 해당 방면으로부터의 적 지원병력을 차단하는 한편 저미도 고지를 제1대대와 협동으로 공격하기로 했다.<sup>672)</sup>

부대장 지휘하에 각 대대는 작전을 개시했다. 제1대대가 해안선을 돌파하여 저미도 고지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도착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적의 방어병력에 대한 오산으로,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며 적은

670) CCRAK Guerrilla, “Summary No. 115, 119” Sep. 11, 15,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671) CCRAK Guerrilla, “Summary No. 24, 39” June 5, 23, 1952.

672) 미군 보고서에는 작전일이 29일로 되어 있고, 출동대원의 규모는 300명이었다(CCRAK Guerrilla, “Summary No. 47” July 1,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지원부대의 지원 아래 맹렬히 반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는 중과부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미 해군함정(Abuse 호)이 함포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견제하고 있는 사이에 철수하여 기지로 귀환했다.<sup>673)</sup>

그 후에도 저미도에 대한 공격을 3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본부 행정요원을 제외한 전 부대가 출동하기로 했다. 당시 저미도에는 북한군 제21여단 1개 대대가 해안선 일대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 후방에도 많은 병력이 집결하고 있어 유격대의 병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실정에 있었다.

1952년 8월 초순<sup>674)</sup> 유격대는 미 고문관 램 대위의 지원아래 후방에 집결되어 있는 적을 해안선으로 유인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안승두 부대장이 미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직접 지휘했다. 3개 대대 중 2개 대대는 해상에 분산하여 포진을 하고, 1개 대대는 해안으로 상륙하여 적을 공격하면서 유인했다. 쌍방간에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후방에 있던 적이 직사포로 응사하면서 공격해 왔다. 적을 유인하는데 성공하자, 유격대는 서둘러 해상으로 탈출하고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함포는 폭격을 실시했다. 적은 은폐물이 없는 해안에서 거의 전멸되었다.

## 8. 울팩 제8부대

### 가. 부대 연혁과 편성

울팩 제8부대의 모체는 8·15 해방 후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웅진군으로

673) 전우회에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서술했으나, 미군 보고서에는 적 200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으며 유격대원 2명도 전사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674) 미군 보고서에는 저미도 작전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대신 다른 작전이 보고되었다. 7월 28일, 7명의 대원이 북한군 2명을 사살했고, 다른 조가 북한군 30명을 매복하여 4명을 사살했다. 8월 1일, 대원 15명이 북한군 10명을 공격하여 2명 사살하고 쌀 100가마를 파괴했다. 8월 6일, 대원 15명이 북한군 순찰대를 습격하여 10명을 사살했다. 다만, 8월 3일, 부대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울팩 대원 153명이 BS454815지역으로 상륙하여 13명을 사살한 기록은 있다(CCRACK Guerrilla, "Summary No. 75, 78, 80, 83" July 31, Aug.4, 6, 1952).



월남한 반공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편성된 청년방위대였다. 이들은 전쟁이 나자, 국군 을지 제2병단 제26연대로 편입되었다가 일부는 동키 제11부대로 배속된 후, 1952년 6월<sup>675)</sup> 울팩기지 사령부 아래 제8부대를 창설했다.

웅진 지역은 38선 이남으로부터 고립된 지형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반공운동이 활발했다. 박봉추를 중심으로 서북청년단 웅진군단을 조직하고 반공활동을 하던 중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자, 청년방위대 간부훈련학교를 이수한 일부 단원들이 웅진읍에 청년방위대 독립 제1단을 조직했다. 초대 단장인 오민엽을<sup>676)</sup> 중심으로 편성한 제1지대(지대장 박근 방위 소령)는 웅진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강령(康翎)에 편성된 제2지대(신규목 방위 소령)는 동부지역을 맡았다. 대원들은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지역 시설 보호 및 웅진지구 전투사령부 제17연대의 참호구축, 탄약과 보급품 수송 등을 지원했다.<sup>677)</sup>

전쟁이 발발한 후, 웅진반도에서 철수했던 청년방위대원들은 9·28 수복과 함께 되돌아가 지역 내는 물론 각 도서에도 나가 치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후퇴할 때, 일부 대원들은 그들과 함께 남으로 내려갔다.<sup>678)</sup> 일부 대원들은 웅진지구 국민방위군으로<sup>679)</sup> 재편성되어 향토방위와 피난민 구출에 노력하다가 섬으로 철수했다. 이들 방위군은 용호도 수산중학교에 도서방위사령부(단장: 왕혁 방위 중령)를 설치하여<sup>680)</sup> 순위도, 어화도, 연평도 지역에 각각 파견대를 두고 방위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하거나 버려진 무기와 탄약 등으로 무장했다.

675) 1951년 6월 혹은 1952년 4월 중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1953년 6월 15일, 부대 창설 1주년 기념행사를 강화도 군수, 각 기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했다는 기록을 따랐다(이종암 일기, 1953.6.15;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17면; W/P 8부대, 『연혁』, 2002.3).

676) 강민엽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육본 특별명령(갑) 제70호』 1950.3.16, 남정옥,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0, 군사편찬연구소, 176면).

677)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3-5면.

678) 이종암의 경우는 인천을 거쳐, 충남 당진까지 후퇴했다(이종암, 『일생일지』 1950.12.14- 1951.2.12).

679) 남정옥, 앞의 논문, 186-187면.

680) 울팩제8부대 전우회, 『연혁』, 2002.3; 김일 증언, 전우회 사무실, 2003.1.29.

1951년 2월경<sup>681)</sup> 왕혁 부대장은 직접 적정을 탐지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대원들과 적지에 침투했다가 철수하던 중에 웅진군 홍미면 봉강리 나루터 부근에서 적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뢰의 폭발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방위군은 새로 추대된 공성로(孔聖魯) 부대장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 제61함, 301정, 309정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도서지역으로의 피난민 수송과 도서방위에 힘썼다.<sup>682)</sup>

3월 하순 육군 작전교육국은 당시 서해지역에서 여러 무장대원들이 유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해군으로부터 입수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육군 을지 제2병단을 창설하면서 웅진방위군을 제26연대(연대장 공성로)로 편입하였다. 연대본부와 제1대대(대대장 송인섭)는 용호도에 위치하면서 인근 주요 도서인 순위도, 어화도, 소수압도, 무도 등을 방위했고, 제2대대(대대장 김영준)는 창린도에 주둔시켜 기린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 방어를 담당했다.<sup>683)</sup>

그러나 을지 제2병단이 재편되면서, 제26연대는 동키 제11부대 특별대대로 편입되었다. 이 때 일부는 동키 제13부대에 가담했고, 이종간을 비롯한 10여 명은 ‘공군특무대’에서 활동했으며, 혹은 생업을 위해 인천 등지로 나갔다.<sup>684)</sup>

이후 인천에서<sup>685)</sup> 청년방위대 출신 간부들이 독자적인 부대의 재건을 위해 자금마련과 대원을 모집하여 1952년 6월 15일<sup>686)</sup> 울팩기지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제8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때 동키 제11부대를 비롯해 웅진출신으로 다른 부대에 있던 을지병단 제26연대 대원들이 다시 합류했고, 여기에 일부 연백출신들과 인천에서 모집한 성봉영(서산), 황순규(화성) 등 경기도와 충청도 출신들이 소수

681) 신인수(제3대대장)·김영준(제1대대장) 증언, 2003.8.7.

682) 이종암, 『일생일지』 1950.11.20, 12.10;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11면.

683) W/P 8부대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투쟁사』, 1991, 12-13면.

684) 이종암, 『일생일지』 1952.516; 『타이거여단 역사』 1953.7; 『학도유격부대 전사』, 199-200면, 205면; 김기서 증언, 2003.8.8; 이종암 증언, 2003.8.9.

685) 경동 싸리재 신라유기 상점에서 태동했다는 진술이 있다(황형근 진술, 2003.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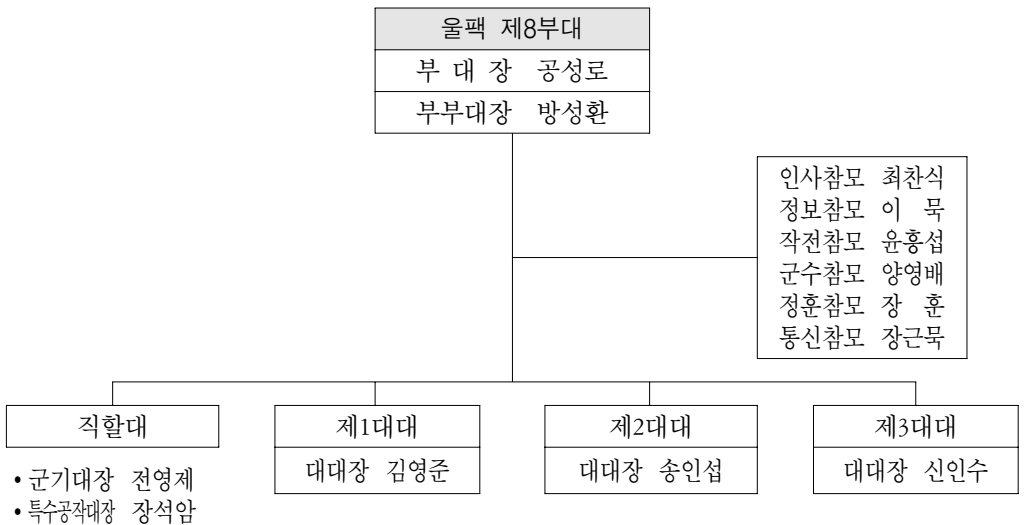
686) 1951년 6월 혹은 1952년 4월 중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1953년 6월 15일, 부대 창설 1주년 기념행사를 강화도 군수, 각 기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했다는 기록을 따랐다(이종암 일기, 1953.6.15;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17면).

포함되었다.<sup>687)</sup>

부대는 이전 을지 제2병단 제26연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모진과 3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각 대대에 3개 중대가 있었다. 4~5명의 미군 고문이 이 부대를 담당했다. 특히 특수공작대(K.S.R.)는<sup>688)</sup>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부대의 공격과 방어작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작전에 방해가 되는 지뢰제거와 북한군과 민청 간부 등을 귀순시키는 공작도 했다.<sup>689)</sup>

부대본부는 울팩기지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웅진군 순위도에 있었다. 순위도에 진리의 부대본부를 중심으로 제1대대는 창암리, 제2대대는 장대동, 제3대대는 해재에 위치했다.<sup>690)</sup> 그런데 순위도에는 동키 제13부대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sup>691)</sup> 부대의 규모는, 1952년 11월경 공성로 부대

<지휘관 및 참모>



687) 조남혁, 앞의 책, 53면; 황순규 증언, 2003.8.8. 유장준은 동키 제11부대 본부 제2중대장을 거쳐 울팩 제8부대 수송계장을 했다(건국회 황해도본부편, 『유장준 비망록』, 2003.10).

688) K.S.R.은 부대장 공성로의 명문 이니셜을 따온 것으로 그의 신임을 크게 받았다.

689)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 1991.8, 118-121면; W/P 8부대, 『전사록』, 2002.4; 김영준(제1대대장), 『특수공작대의 임무』, 2002.4.

690) 강화도기지사령부 명에 의해 강화군 주문도(注文島)로 옮겨갔다는 진술도 있으나(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투쟁사』, 1991, 17-18면, 31면), 다수의 대원들이 순위도를 주장했다.

691) 조남혁 일기, 1952.10.13; 김기서 증언, 2002.8.8; “Lt. Col(R), Archie’s Letter” Oct. 4, 2002.

장의 공적서를 보면 1,000명이었고, 1953년 2월경 862명이라는 기록도 있어서 대개 1,000명 내외였을 것으로 보인다.<sup>692)</sup>

순위도가 울퉁기지사령부의 관할구역으로부터 레오파드기지사령부로 변경되면서, 1953년 3월 중순 대원들은 해운호를 타고 말도(栗島)로 이동했다.<sup>693)</sup> 이 곳에서 본부, 연병장, 천막 등 부대 시설을 새로 닦는 한편, 제5대대(대대장 최승안)가 추가로 편성되었다. 이 때 부부대장 이종간<sup>694)</sup> 인사참모 윤홍수, 정보참모 한여섭, 작전참모 오연빈 등으로 간부 개편이 이루어졌고, 미군 고문은 노튼 중위, 매가피 하사와 코쓰(Coats) 상사였다.<sup>695)</sup>

휴전 직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원들은 다시 주문도(注文島)와 불음도로 이동했다.<sup>696)</sup> 동서 해안의 유격대가 한국군으로 소속이 변경될 때, 국방부 제 8250부대 제2연대 제8대대로 개편되었다. 대원들은 제식훈련, 총검술, 소총·3.5인치 로켓포·무반동총 사격 훈련, 소대전투, 상륙전법, 유격전법 등의 훈련과 유도·배구시합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sup>697)</sup> 1954년 2월 제8250부대의 해산과 더불어 전 대원은 육군의 각 사단으로 분산 배치되어 유격군이 아닌 정규군으로 복무를 했다.

692)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파견장교단,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 군편 사료 304; 김기서 증언, 2002.11.7, 2003.7.31; 『유격전』, 104면). 이 시기 부대원의 규모가 425명 혹은 800명이라는 기록도 있다(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29; 『백호부대 유격전사』, 297면). 그런데 부대규모가 1,820명 혹은 2,820명이라는 기술도 있으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8250 제2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황해도지』, 350면).

693) 이종암 일기, 1953.3.14-16;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4, 2002.

694) 4월 17일, 제2대대 부관이 부부대장이 되었다고 한다(이종암 일기, 1953.4.17).

695) 이종암 일기, 1953.3.19-26, 5.19; 김기서·박두현 증언, 2003.8.6;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4, 2002. 개편 배경에는 과별, 보급품 분배 등으로 인한 부대장 배척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제8250부대로 개편시 정보과장 한여섭, 작전과장 오연빈, 군수과장 황형근, 정훈실장 박현세, 통신대장 우문국 등으로 구성되었다(『8250 제2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그런데, 군수과장이 황형근이 아니라, 김용순이었고, 공성로, 김용순 등은 육군편입에 반발하여 도망갔다고 한다(한여섭 증언, 2003.12.7).

696) 이종암 일기, 1953.7.31-8.4.

697) 이종암, 『북진록』 1953.8-11;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2002.





공성로 부대장, 방성한  
부부대장 외 간부들  
(말도, 1953. 5)



주문도로 이동(1953. 12)

## 나. 주요 작전 활동

### (1) 교육훈련과 전투개요

울팩 제8부대는 전쟁이전부터 활동한 청년방위대 간부와 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뛰어났다. 1951년 3월 중순 이미 을지 제2병단 제26연대 시절, 한국군 해군 제309정의 지원을 받아 용진군 홍미반도에 있는 이름난 포구인 구월포(九月浦)에 주둔한 북한군 약 1개 중대 병력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

울팩 부대로 재편된 후, 대원들은 3개 대대로 편성되어,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農道院)·삼성초등학교 등에서 각각 2개월 남짓 제식훈련·유격전술 등의 훈련을 받았다. 화기소대원들은 57mm 무반동총, 61mm 박격포 훈련을 강화도에 있는 울팍 제1부대로 가서 1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훈련된 대원 가운데 선발하여 작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대원들이 훈련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698)</sup> 당시 대원들이 매일 점호 때나 훈련할 때 혹은 오락 시간에 애창했던 부대가는 그들의 기상을 가늠할 수 있다. 부대가는 초대 정훈참모였던 장훈이 작사·작곡했다.

<부대가><sup>699)</sup>

- |   |   |
|---|---|
| <p>1. 이 내 몸과 나의 정성 다 바쳐서<br/>구국정신 일념으로 나라에 충성<br/>다 같이 우리의 나아갈 사명,<br/>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8부대 용사</p> | <p>2. 이 내 목숨 나의 피를 다 바쳐서<br/>구국통일 일념으로 나라에 충성<br/>이것만이 우리들의 지상의 사명<br/>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8부대 용사</p> |
|---|---|

부대가 순위도에 주둔할 때에는 웅진군 흥미면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했고, 말도로 이동한 후에는 연백군 해성면 61고지, 염전 일대 등에 대한 기습 상륙작전을 펼쳤다.<sup>700)</sup> 1952년 11월, 부대장 공성로가 32회의 상륙작전을 수행했다는 훈장 추천서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작전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sup>701)</sup> 작전 규모는 대개 2인 1조, 혹은 5~6명 단위로부터 200~300명이었다.

웅진읍 인민위원장의 횡포가 심하다는 첩보에 따라, 1952년 8월 12일 22시 최효식·송근영 등 7명을 특공조로 편성하여 인민위원장 집을 습격하여 민청원 2명과 북한군 3명을 사살하고 인민위원장을 생포했으나, 북한군이 추격하여 오자 철수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최효식과 김충식 대원이 총을 맞아 전사했다.<sup>702)</sup> 1952년 10월 23일 23:00시 대원 8명이 흥미반도 끝 돈지

698) 조남혁 일기 1952.9.6; 조남혁, 앞의 책, 52면; 황순규 증언, 2003.8.8; 이종암 증언, 2003.8.9; HQ Operations Wolfpack, “Commendation” Sep. 7, 1952.

699) 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 1991.8, 122-123면; 김기서 제공, 2003.8.

700) 울팍제8부대 전우회, 『연혁』, 2002.3.

701) 대령 이영순, 한국 육군과전장교단, 『훈장추천』 1952.11.13,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YB054780)에 상륙하여 149고지(YB063787)를 점령한 후 적의 순찰병 12명을 공격하여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시켰다. 같은 달 25일 20시 대원 15명이 홍미반도 끝 판리 해안가(YB046756)로 상륙하여 판리 부근(YB051758)에서 매복하기 위해 이동 중 발각되는 바람에, 20분간 교전을 벌여 북한군 2명을 사살했다. 27일 23:00시 대원 25명이 동남면 갈항리 가셈이골(YB010860)의 북한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기습하여 5명을 사살하고 7명을 부상시켰으며, 정크선 1척, 쌀 1가마 등을 노획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다른 대원 12명은 홍미면 당골(YB090850)로 상륙한 후 양촌(YB105839)까지 진출하는 도중 북한군 20명과 중공군 20명과 교전을 하여 북한군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부상시켰다.<sup>703)</sup>

1952년 11월 21일 옹진군 홍미면 안악리에 북한군 1개 소대가 주둔하면서 양곡을 냉정리 비행장까지 이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기습했다. 7명의 대원이 출동하여 소 달구지로 양곡을 운반하는 북한군 10명을 사살하였으나, 대원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sup>704)</sup> 해안가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많은 피난민을 순위도로 안전하게 인도했다.<sup>705)</sup>

이러한 소규모 전투 외에 규모가 있는 전투 사례도 많았다. 1952년 10월 중순 5일간의 간헐적인 공격에서 대원 200여 명이 출동하여 적군 300명 가량을 살상했던<sup>706)</sup> 작전이 가장 큰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대원도 3~4명이 전사했다. 17일 대원 98명이 홍미반도 끝 돈지(YB054781)로 상륙하여 25명을 사살했고, 19일 대원 154명과 미군 2명이 함께 돈지 부근(YB053777)에 상륙하여 138명을 사살하는 등 전과가 있었다.<sup>707)</sup> 1953년 3월 30일 제1, 2대대가 합동으로 무반동총을 동원하여 적의 차량 2대를 파괴했으나 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7월 20

702) 이기수, 『인민위원장 생포작전』, 2002.9.

703) CCRAK Guerrilla, "Summary No. 163-165, 167, 174" Oct. 29-31, Nov. 2,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704) 전우회, 『기태봉 전적 사항』, 2002.9.

705) 전우회, 『옹진군 옹진읍 노호리 지역 난민 구출작전』, 2003.1.28.

706) 당시 보고서에는 사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원들도 과장된 것으로 이해했다.

707) 2nd Lt. William O. Watson, Jr., "Project Spook" Nov. 2, 1952,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p. 130;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8, 160" Oct. 24, 26,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일 밤 11시 30분 4개 대대가 출동하여 새벽 2시에 상륙했다. 제2, 3대대가 주공이 되고, 제1, 5대대는 방어 예비군이 되어 61고지를 휩쓸고 오전 10시 30분에 귀대했다.<sup>708)</sup>

공산군으로부터 반격을 받기도 했다. 1952년 말 중공군과 북한군은 울퉁 제8부대를 순위도에서 축출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대병력을 동원해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조 시간대에 야간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대원들은 이미 방어 목적으로 55갤런 짜리 드럼통에 네이팜탄 화약을 넣어 방어진지 밖에 무수히 깔아 놓은 상태였다. 대원들은 참호 속에서, 물이 빠져 바닥이 드러난 갯벌지대에 대해 집중사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사정거리 내로 진입하자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공격을 했다. 공군의 지원을 받아 조명탄을 투하한 다음, 갯벌 위를 선회하면서 적군에게 폭격과 기총사격을 실시했다. 결국 그들은 다수의 피해를 내고 철수했다. 그 후 그들은 순위도를 다시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sup>709)</sup>

## (2) 흥미면 전투와 해성면 전투

울퉁 제8부대의 여러 전투 가운데, 자세한 전투 경과를 알 수 있는 흥미면 전투와 해성면 전투를 통해 그들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다.<sup>710)</sup> 부대기지인 순위도에서 가장 가까운 흥미면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수 차례 작전을 벌였다. 부대 본부에서는 웅진군 흥미면 식여리(食餘里)에 있는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이<sup>711)</sup>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이 지역 내 유격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부대로서, 부대 본부에서 대원의 공작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1952년<sup>712)</sup> 11월 28일 22시 송인섭 제2대대장이 지휘하는 대대 병력이 출동하여 식여리 해안으로 상륙한 후, 대대

708) 이종암 일기, 1953.3.27, 30, 5.17, 25, 28, 7.20-21.

709) 『백호부대 유격전사』, 296-298면.

710) 주요 전투는 『한국전쟁과 유격전』의 내용을 정리했다. 이는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1991.8)에 기초한 것이다.

711) 한동근, 『전투기록, 잊을 수 없는...』, 2002.8.

712) 전우회 제출 기록에는 1951년으로 기술되어 있으나(W/P 8부대 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 투쟁사』(초록), 1991.8), 울퉁 제8부대가 1952년 6월에 창설되었으므로 1952년일 것이다.

장은 상륙지점에 일단 병력을 배치해 놓고 정찰을 위해 일부 병력만 마을로 잠입시켰다.

이 때 순찰중인 자위대원 4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생포하기 위해 잠복해 있다가 기습하여 그중 2명이 저항하자 무성무기로 처치하고 2명을 생포했다. 그들의 심문을 통해, 북한군 주둔 병력의 대부분이 찬우물과 사꾸지 등에 파견되어 있고 식여리 마을에 1개 소대 병력만이 남아 있음을 알아냈다.

대원들은 북한군 소대 병력이 숙영하고 있는 기와집을 포위한 다음 기습사격을 가했다. 집안에 있던 적병들 가운데 일부는 저항하기도 했으나 유격대의 강력한 공격에 저항력을 잃고 뒷산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했으나 칠혹같은 어둠 속에 숲까지 울창하여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어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를 서두르는데 찬우물 쪽에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찬우물에 주둔해 있는 적이 지원차 출동한 것으로 대대는 그들의 반격을 저지하면서 생포한 두 명의 자위대원을 앞세우고 해안까지 철수한 다음 무사히 귀대했다.

그 후 부대는 북한군이 웅진군 홍미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양곡을 징수하여 강령 방면으로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의 작전을 방해하고 대원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12월 28일 야간에 1개 중대병력을 침투시켰다. 무사히 적지에 상륙한 대원들은 적의 수송차량을 기습하기에 적합한 ‘배넘이’ 지역에서 매복했다. 얼마 후 지프를 선두로 보급차량이 라이트를 켜 채 나타나자 사격유효거리 내까지 접근하길 기다렸다가 로켓포로 선두 지프를 명중시켰다. 포탄에 파괴된 지프가 좁은 도로상을 가로막자 뒤따르던 3대의 트럭과 우마차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당황하는 사이에, 대원들은 수송차량 대열을 향해서 집중사격과 수류탄으로 트럭을 폭파시킨 후 식량을 획득하여 귀대했다.

이 외에 해성면에 있는 탄약고 파괴 등<sup>713)</sup> 여러 상륙작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말도로 부대가 이동한 다음, 가장 규모있는 전투는 1953년 3월 연백군 해성면 해안 가까이 위치한 ‘60고지’<sup>714)</sup> 작전이었다. 60고지는 이 지역 일대를 감

713) 이강성 편지, 2002.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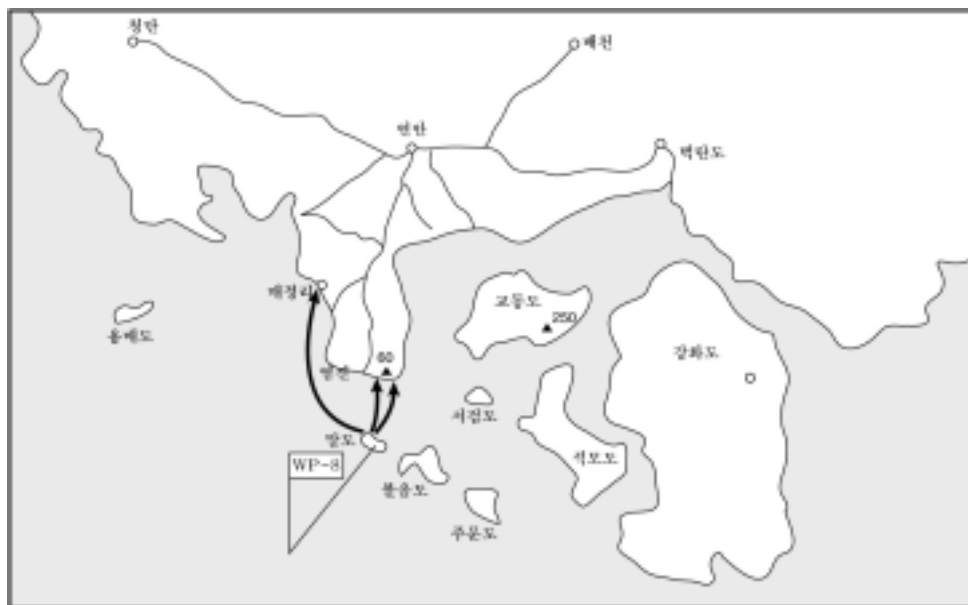
714) 대원들은 61고지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60고지이다.

제할 수 있는 요지로, 이 부근 해안 일대의 유격대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격대로서는 해상 침투공작에 커다란 장애요소였다. 더구나 이 고지에는 포대뿐만 아니라, 폭격이나 포격에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참호가 잘 구축되어 있고 통신망과 교통로가 갖추어져 있어 산 전체가 동굴화 된 요새진지 같은 곳으로, 이곳에 북한군 1개 중대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부대 본부에서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진포 방면으로 수차에 걸쳐 기만작전을 전개하면서, 신인수를<sup>715)</sup> 지휘관으로 60고지 침투작전을 준비해 왔다. 이때 특수공작대장 장석암은 작전개시 20일 전부터 대원을 침투시켜 적정을 정확히 파악했다.<sup>716)</sup>

3월 6일 신인수 제3대대장을 비롯한 대원은 야간에 행동을 개시하여 해성면 해안에 상륙하여 목표인 60고지 7부 능선까지 접근했을 때 전방에서 수하소리가

<요도 5-12> 연백군 해성면 작전 상황도



715) 『한국전쟁과 유격전』에서는 박두현으로 기록되었으나, 참전자의 증언(조남혁, 김기서 등)에 따라 신인수로 바로 잡았다.

716) 김영준, 『특수공작대의 임무』, 2002.4.

들려 왔다. 대원들은 자신들이 적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예광탄을 신호로 박격포와 무반동총을 비롯한 중화기를 동원하여 일제히 공격을 했다. 대원들의 맹렬한 집중사격으로 적의 일각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자, 기회를 포착한 대대는 60고지를 점령했다.

대원들은 적의 추격을 우려하여 TNT와 수류탄 등으로 포대와 참호를 파괴하고 철수를 서둘렀다. 해성 일대에서 긴급 출동한 그들의 지원부대가 사격을 하면서 해안까지 추격해 왔으나, 대기하고 있는 배에 승선을 완료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부대본부에서는 1953년 5월 초순에 해성면 매정리(梅井里)에 적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유격부대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여 약 1개 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로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수립했고, 강화기지 사령부에서도 사령관 스파이 중령이 직접 부대 본부를 방문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했다. 스파이 중령은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 함정과 미 제5공군의 전폭기까지 동원시켜 주기로 약속했다.

5월 13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해성면 앞 해상에 있는 무인도로 집결시켜 공격준비를 하고 이날 밤 10시에 제1대대 제1중대(중대장 이봉석)로 하여금 부대의 작전기도를 숨기기 위해 해성면 염전 쪽으로 출동시켜 양동작전을 감행시켰다. 14일 아침 6시 대원들은 매정리 해안으로 상륙한 다음 해안선을 따라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제2대대를 좌일선 부대, 제3대대를 우일선 부대로 제1, 5대대는 중앙에서 그들의 주진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도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십여 문의 각종 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총 등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저항해 왔다. 이 때 해상에서는 미 함정이 함포지원 사격을 하였고, 미 제5공군 전폭기 1개 편대가 공중을 선회하면서 폭격을 가했으므로, 이 전투는 유격전이라기 보다는 정규전이나 다름없는 육·해·공군의 입체작전이 되었다. 해·공군의 지원으로 용기를 얻은 각 대대는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서 적진으로 전진하여 공격목표의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작전에 참가한 미군 카스트로 소위 외에 송병원 등이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sup>717)</sup> 피아간

---

717) W/P8 부대전우회, 『서해지구 W/P 8부대투쟁사』, 1991.8. 이역 만리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군들의 시신은 최우선적으로 후송했다고 한다(신인수 증언, 2003.8.8).





매정리 전투후 제2대대장  
송인섭과 간부들

에 공격이 더욱 치열해졌으나 전투기 편대와 해상의 함정에서 함포지원 사격으로, 대원들은 수 시간의 격전 끝에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증원부대가 백석포와 나진포 방면에서 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을 목표로 직사포와 박격포 사격을 하면서 유격대의 좌측 해안선을 따라 반격을 해왔다. 이때 마침 새로운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여 적의 지원부대를 공격하자, 대원들은 해안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매정리 해안으로 모여든 피난민들을 우선 승선시켜 출항시킨 다음 차례로 철수하여 기지로 귀환했다.

## 제 3 절 동해안 유격부대

### 1. 창설배경과 각 부대편성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지구전과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서해안 유격기지와 상응하는 작전기지로 커크랜드부대(Task Force Kirkland)를 창설했다. 이 부대는 스캐논부대(Task Force Scannon)로 바뀌었다가, 1952년 11월 말 미 극동군사령부 제8240 부대의 유격부대가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PFK)로 명명되면서 스캐논부대는 제3유격보병연대(3d PIR)로 개칭되었다.

1951년 2월 미 제8군은 서해안 지역의 유격부대를 통합 지휘하기 위해 백령도에 윌리엄 에이블기지를 창설한데 이어, 동해안에도 한국군 지휘아래 있던 동해안지역 유격부대인 육군 을지 제1병단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찰리기지(Charlie Section)를 계획했다. 그런데 동해 지역에는 근거지로 이용할만한 도서가 많지 않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유격부대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잭부대(JACK)를 운용하고 있던 미국 중앙정보국이 작전지역의 중복을 이유로 유격대를 조직하는데 반대하여 어려움이 있었다.<sup>718)</sup>

1951년 4월 15일<sup>719)</sup> 주문진에 작전기지를 설치하면서 당시 이 부대의 창설을 위해 앞장섰던 맥기(John McGee) 대령이 해리슨 기동부대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해리슨(William S. Harrison) 중위는 이를 거절하고 하바드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정대원으로 구성된 서클의 이름을 따서 커크랜드부대로 명명했다. 당시 대원의 신분증에 표시된 부대명칭은 ‘미 제8군 기동부대 커크랜드사령부’였고,

718) 앞서 ‘명부대’에서 서술한 대로, 한국인 대원들은 명부대로부터 대원이 승계되었다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719) 『유엔군 유격전』, 53면. 1951년 2월 4일 혹은 초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39).

당시 대원들은 ‘검은 셔츠’ 부대로 기억했다.<sup>720)</sup>

서해안의 레오파드 작전기지는 적의 내륙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백령도를 근거지로 하여 작전을 수행했지만, 동해안 쪽에는 해안에 가까우면서 유격대 기지와 커크랜드사령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섬이 없

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섬은 울릉도인데 이 섬은 해안에서 120여 km나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38도선에서 남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주문진을 기지로 하면서, 1951년 5월 19일, 24일 각각 고성(高城)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알섬(난도)과 솔섬(송도)에 전진기지를 설치했다.<sup>721)</sup>

당시 동해안지역에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격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함흥이나 원산으로부터 부산으로 피난한 북한청년들이 국군의 징병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원을 모집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1951년 4월 중순 육군본부에서는 결사유격 제11연대, 제13연대, 15연대, 16연대, 특별연대, 17연대, 18연대 등 동해안지구 유격부대의 작전과 행정을 미 제8군사령부 해리슨 중위의 지휘 아래로 편입시켰다. 이 외에도 국군이 북진할 때,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에서 활동하다가 제1군단 정훈부 학도의용대로 배속된 대원일부가 학도병들에게 귀가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동해안유격사령부에 일시 합류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제대하거나 국군에 편입되어 호남지구 전투사령부에 합류하였다.<sup>722)</sup>



신분증 : 임병화 1951. 7(전쟁기념관)

720) 지창훈, 『거목의 큰 그늘이자 산맥처럼 우뚝하신 분』, 『만주 박창암장군 논설집』, 2002, 922면; *Dark Moon*, p. 75.

721) 『백호부대 유격전사』, 294-296면; Pak Chang Oon's Interview, July 12, 1985; <http://www.korean-war.com/specops.html>(2003. 9. 16 열람).

1951년 6월초 커크랜드부대로 모집된 신규 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1·4후퇴 시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에서 피난 나온 청년들이었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 신경륜은 춘천에서 피난생활 중이었으며, 박정일·이재성 등은 함남 정평·단천, 함북 성진이 고향이었다. 의무대에 활동했던 대원은 국군병원 보다 좋은 근무조건이라는 제안으로 옮겼다고 한다.<sup>723)</sup> 지방으로도 모병관을 파견하여 대원모집에 주력하였다. 경북 영천에서 서덕일·이문수, 경주에서 이상원·정재문 등이 모집되어 포항에서 길야호를 타고 묵호를 거쳐 속초로 갔다고 한다.<sup>724)</sup>

새로 모집된 대원들은 속초 동명동에서 천막 3동을 치고 주둔하였다가 장소가 비좁아서 원암리로 이동했다. 이들을 ‘용호부대’라고 불렀고, 부대장은 이승근,<sup>725)</sup> 부부대장 유춘재였다.<sup>726)</sup> 이승근 부대장은 당시 35세로 강원도 통천 출신이었고, 유춘재도 고향이 같았다. 또 다른 대원들은 ‘동해지구 구국의용대’라고 기억했다.<sup>727)</sup>

커크랜드부대는 한국 해군과 협의하여 제514정과 소형선박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해군 묵호경비사령부의 지시로 제503정은 1951년 6월 5일, 커크랜드사령부 유격대 전덕렬(全德烈) 대위를 비롯한 대원 10명과 탄약 및 기타 군수품을 묵호로부터 주문진까지 수송했고, 같은 달 14일에도 제514정은 해리슨 중위와 병력 120명 및 탄약, 식량 등을 수송했다. 또한 묵호경비사령부 공작대(대원 40명)와 협력해 첩보수집활동을 했다.<sup>728)</sup>

그런데 1951년 말에 이르면 대원들이 도망가서 실제 대원은 몇 백명에 불과했

722) 전인식,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 건설연구사, 1999, 26면; 지창훈, 『거목의 큰 그늘이자 산맥처럼 우뚝하신 분』, 『만주 박창암장군 논설집』, 2002, 922면; 김복형 증언, 2003. 11. 29; “War Record of Cockland Unit”, Apr. 11, 1967, 육본 부관감실.

723) 스캐논 이주민, 『금란상륙작전기』, 『파라슈트』 8, 1953. 7, 111-114면; 원혜숙 메모, 2003. 2. 13; 『유엔군 유격전』, 67면; 박정일 증언, 2002. 10. 19; 신경륜 증언, 2003. 10. 21.

724) 이문수, 『내가 겪은 유격대』, 2002. 7. 18; 이문수 증언, 2003. 12. 6.

725) 스캐논 사령부에서 발행한 그의 제대증에는 1951년 8월 15일부터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제대증서: 이승근』, 1954. 3. 5).

726) 그러나, 그의 제대증에는 1952년 7월 15일부터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727) 안철성, 『적 후방 난도 3년간 전적 경위서』, 2003. 10; 백광열, 『경위서』, 2003. 11; 김병국 증언, 2003. 10. 21; 김원형·김원형 증언, 2003. 12. 3.

728)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3·4, 해군본부, 2001, 339면, 406면, 414면, 420-421면.

고 작전성과도 미흡했다.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격부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서해안지역의 유격부대활동이 97%를 차지하고, 강원도 38선 이북지역, 함경남도 원산 인근 등에 총 9회의 작전이 있었을 뿐이다.<sup>729)</sup>

이에 따라, 미 제8240부대에서는 유격대 활동이 미약한 동해안 지역에서 유격대를 활성화하여 적의 후방지역을 교란시킴으로써 적의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지방으로 모병관을 파견하여 대원모집에 주력했다. 이 때문에 부대원들의 출생지가 다양했다.<sup>730)</sup> 1952년 3월 커크랜드부대 외에 아벤리, 스톱, 토치라이트 등이 새로 창설되었다.<sup>731)</sup> 커크랜드, 토치라이트 및 스톱부대는 속초 학사평에서<sup>732)</sup> 서로 인접해 있었다.<sup>733)</sup>

동해안 지역의 유격부대가 증설되면서 4개 부대를 통합하는 특수 임무부대인 스캐논부대(부대장 스캐논 중령; Anthony J. Scannon)로 재편되었다.<sup>734)</sup> 스캐논기지사령부가 위치한 속초 척산리 지역은 한국군 제1군단사령부와 횡적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고, 속초항을 이용한 해상수송이 편리하고, 대포리 비행장을 공수작전 발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sup>735)</sup>

1952년 11월 말 스캐논부대는 제3유격연대(3d PIR)로 바뀌었다. 이들을 블루보이(Blue Boy)라고도 불렀다.<sup>736)</sup>



스캐논부대 표지

729) 『유엔군유격전』, 74-75면.

730) 이러한 요소 때문에, 유격대가 해체된 후 전우회의 결성이 순조롭지 못해, 동해안지역의 유격부대의 활동이 알려지지 못한 점도 있다(이규철, 『동해해역 주름잡은 스캐논 기동부대』).

731) *In the Devil's Shadow*, p. 51.

732) 미시령에서 속초로 내려가는 지점(현재, 척산온천).

733)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9. 6.

734) HQ, FECLD(K), 8240th AU, "Assigned Officers",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이때 한국인 부부대장은 학도경찰대 출신 김시제가 기용되었다고(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 2, 196면) 하나, 후에 김시제는 커크랜드부대의 제3대대장이 되었으므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735) 이규철, 『동해지역 유격부대 개요: 아벤리부대』, 1994. 3. 3; HQ, FECLD(K), 8240th AU, "Assigned Officers", 1952, SN 1963.

736) 『유엔군 유격전』, 218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최동하·황호·  
스웨링언(Swearingen) 중령·  
전덕상·원제우

1952년 12월 해체된 영도부대원 가운데 김기덕, 황철수 등 일부 대원들이 함경 남북도 출신들을 모아 활민부대(부대장: 金培基)를<sup>737)</sup> 창설하여, 동해안 지역의 유격부대는 5개 부대로 늘어났다.<sup>738)</sup>

전체 대원 규모는 전우회에 의하면, 아벤리부대(3,054명) 스톱부대(1,372명), 토치라이트부대(1,882명), 커크랜드부대(2,036명), 활민부대(432명) 등 9,535명이라고 한다.<sup>739)</sup> 그러나 미군측 기록에 의하면 대원 규모는 1951년 12월경 290명에서,<sup>740)</sup> 1952년 8월 275명, 10월 300명 수준에 그쳤다. 그 후 유격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짧은 기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 12월에는 1,589명으로 증가되었다. 1953년 2월말에 이르면, 커크랜드부대 1,108명, 아벤리부대 1,151명, 토치라이트부대 684명 등 산하 부대를 모두 합치면 3,500명 정도였다.<sup>741)</sup> 이 때 모집된 대원들은 대개 남한출신으로 한국군 징집을 피해서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탈자가 자

737)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국제연합한국유격군』(팜플렛), 2001.

738) 김기덕, 『활민부대 역사』, 2002. 6; 김태은·전하립(영도유격부대) 증언, 2003. 11. 12.

739)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9면; 『8240동해지구 스케논기동부대 T/O』, 1961, 정부기록보존소.

740) 『유엔군 유격전』, 103면;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53”, p. 15.

741) 『유엔군 유격전』, 104면, 218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1953년 3월경 유격대원의 규모는 4,793명이라는 기록도 있다(『유엔군 유격전』, 164면; 벤 S.맬콤, 『백호부대유격전사』, 295면).

주 발생했고 사기도 낮았다. 1952년 말경 20일간 30회의 탈영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sup>742)</sup>

레오파드와 올팩기지에 배정된 미국병력도 매우 적었지만, 커크랜드기지의 경우에는 그 보다도 더 적은 자원이 배정되었다. 사령부에서는 동해안 작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크랜드기지에는 처음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2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후 2년 동안 그 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 올라토스키(Joseph R. Ulatoski) 중위, 해리슨(Bucky Harrison) 하사, 트리쯔(Cyril Tritz) 상병 등 미군 요원들은 주로 공수부대(Airborne Rangers) 출신이었다. 올라토스키 중위는 자신이 소속된 공수부대가 활동을 중단한 후 맥기 대령의 권고로 동해안 유격대로 왔다. 1952년도에는 장교 4명과 사병 6명을 포함하여 단 10명의 미군만이 배치되어 있었다. 1953년도에는 약간 증가해 장교 11명, 사병 21명이었다.<sup>743)</sup> 1953년 7월 연합정찰사령부(CCRAK)의 동해안지역 업무조정을 림(Ellis A. Ream) 소령이 담당했다.<sup>744)</sup>

그런데 1952년 11월 중과 1953년 2월 중 보고서에서 스캐논기지의 전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sup>745)</sup> 이는 이 무렵에 이르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와 함께 그 활동 역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원은 미군 사단 TLO 대원으로 차출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부대의 확대 및 훈련에 치중했다.<sup>746)</sup>

휴전 무렵 산하 유격대원들은 속초 원암리로 철수하여 ‘부대가’, 낙하산대가 등을 부르면서 교육훈련을 받았다. 당시 미군은 동해안 유격부대를 일괄해서 여단급 규모로 편입시키려 했으나, 국방부 제8250부대 제3연대로 재편되었다. 이때 3개 대대와 1개 공수대대로 편성되었다. 당시 간부는 연대장 전덕상, 부연대장

742) 『유엔군 유격전』, 113면; 벤 S. 맥콤, 앞의 책, 362면.

743) 『유엔군 유격전』, 103면; 『백호부대 유격전사』, 294-296면; Shadow Warriors, pp. 172-173.

744) “CCRAK Coordinator, East Coast”, July 14, 1953, “Command Report”, Jul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70.

745)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746) 이정구 증언, 2003. 10. 21; CCRAK Guerrilla, “Summary No. 154, 156, 158-165, 172”, Oct. 20, 1952-Nov. 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박창운, 제1대대장 원제우, 제2대대장 황호, 제3대대장 이동석, 공수대대장 최동하 등이었다.<sup>747)</sup> 서해안지역 유격부대에서 규모가 있는 부대장 3명을 소령으로 대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해안의 커크랜드 부대장 전덕상은 소령 대우를 받았다.<sup>748)</sup>

<T.F.S.부대가><sup>749)</sup>



1. 설악산 골은 줄기 화랑도의 슬기로운 승리의 깃줄뛰는 우리들은 T.F.S.다. 태극기 깃발아래 모여 든 용사들이 모두 바쳐 공산군 힘있게 쳐부수자 (후렴) 아--- 삼천만 동포들이 대한의 청년 T.F.S.다
2. 대한의 청년들이 우리의 승리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은 T.F.S.다. 오랑개 물리치고 모여든 용사들이 불타는 애국열에 힘있게 뭉치자

## 2. 커크랜드(Kirkland)부대의 활동

커크랜드부대는 국군 결사유격대원들이 소속되어 있을 때, 해리슨 중위아래 인사참모 윤철섭, 정보참모(강백열), 작전참모(전인식), 군수참모(권영철) 등과 다들레(결사 제11연대), 스탠튀시(결사 제12, 13연대), 단스터(결사 제15연대), 엘리웃(결사 제16연대), 썬울(특별연대) 등으로 편성되었다.<sup>750)</sup> 당시 병력은 714명이었

747) 『8250 제3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당시 규모는 2,971명 수준이었다.

748) 권영철·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9. 6.

749) 커크랜드부대 대원인 이문수, 박정일, 심재국 등의 노력과 타이거여단 출신 유명범의 채보로 복원되었다.

으나, 1951년 6월말 혹은 7월 15일 이들은 귀향하거나 전투 경찰 혹은 국군으로 편입된 후<sup>751)</sup>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들이 떠날 무렵, 부대는 새로 모집된 대원으로 3개 대대와 공수대대로 편성되었고, 대대 또한 3개 중대(A, B, C)로 이루어졌다. 부대장은 강웅범이었으나 미군과 같등



이승근 대대장 외

으로 부대를 떠난 후, 공수대대장이었던 전덕상이 대신했다.<sup>752)</sup> 부부대장 원재우, 제1대대장은 이승근, 2대대장 송수원, 제3대대장 김시제 등이었다.<sup>753)</sup> 해상특공대는 30여 명으로 편성되어, 알섬과 솔섬에서 주둔하면서 해상침투 공작을 했다. 이를 수행한 유춘재, 서희숙, 백광열, 안철성 등이 ‘해상침투 훈장’을 받았다.<sup>754)</sup>

이 부대의 작전지역은 동해안 방면의 38선 이북이었다. 소규모의 기습과 특공

750) 부대장 박창암 소령, 고문 해리슨 중위, 부관 김한철 대위, 인사참모 장무열 등과 엘리엇 대신에 에리올로 정리된 경우도 있고(『조직도표』 날짜없음, 당시 사령관으로 미군측은 해리슨 중위, 한국인측은 박창암 소령이라는 기술도 있으나(김한철, 앞의 책, 315면; 지창훈, 『50년 만에 드리는 답장』, 삼연, 1998, 162면), 박창암 소령은 4월말 이미 부대를 떠났다는 주장도 있다(전인식,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 23-24면).

751) 이익재·안병희, 『탄원서』, 1999. 8. 19; 전인식,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 33-36면, 75면. 부대가 해체된 이유로 상륙작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채명신, 앞의 책, 246면)과 제16연대장 최 모가 알섬에서 반란을 일으켜 처형된 사건이 여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사유격대원들이 1951년 9월초에 커크랜드부대를 떠났다는 주장도 있다(김한철, 앞의 책, 315면). 대원들 가운데 일부는 휴전 후 다시 복무한 경우도 있었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대원들은 1960년대 초 ‘종군자복무조정’시 356명이 신청하여 대부분 부적격자로 처리되었고 73명이 인정받았다(국방부, 『종군자복무조정 종결보고』, 1966, 정부기록보존소).

752) 강웅범이 처형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최성국 증언, 동해안부대 연말 총회, 2003. 12. 3).

753) 『제8240부대 제3연대』, 1961, 정부기록보존소. 제1대대장 전덕상, 제2대대장 원재우였다는 회고도 있다(이규철, 『동해지역 유격부대 개요: 아벤리부대』, 1994. 3. 3).

754) 원호 증언, 2003. 12. 3; 서희숙 증언, 2003. 12. 3, 8. 이 외에 김희준, 김기만, 진경훈 등으로 구성된 특수공작대(SOU)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김보형 증언, 2002. 9. 28).



해상침투 훈장(서희숙)

고성 남강 등의 북한 내륙에 기습상륙했다.<sup>755)</sup> 특히 솔섬은 내륙과 가까워서 적 정 파악과 대원들의 침투 징검다리가 되었다.<sup>756)</sup>

그런데 이 지역은 험한 산이 많아서 유격대원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침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선에 근접되어 있었고 원산을 기점으로 하여 주요 도로와 철도가 발달되어서 북한군과 보위부원의 경계 병력이 대규모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유격대원들이 침투에 성공했어도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또한 지역 내 CIA의 작전과 상충하자, 커크랜드부대는 38선으로부터 원산 인근으로 한정하고, CIA는 원산이북으로부터 소련 국경선까지 작전지역으로 합의를 보았다.<sup>757)</sup>

본격적인 작전은 1951년 6월초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군 제1군단 및 제2군단의 공격을 전선 후방지역에서 지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1951년 6월 6일<sup>758)</sup> 다들레, 스탠튀시, 썬올대원 250여 명이 출동하여 솔섬에서 원산 남방 두백리에 상륙했다. 먼저 2명을 1개조로 한 특공대 4명이 북한군의 해안 경계초소와 포대를 파괴한 후, 나머지 대원이 전부 상륙했다. 대원중 일부

755)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벤 S.맬콤, 앞의 책, 295면.

756) 안철성, 『적 후방 난도 3년간 전적 경위서』, 2003. 10.

757) 『백호부대 유격전사』, 294-296면;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39-140.

758) 첫 상륙작전은 1951년 6월 3일에 실시되었다는 기록도 있다(『유엔군 유격전』, 215면; 벤 S. 맬콤, 앞의 책, 294-296면).

조를 적 후방으로 침투시켜 무전기의 최대 도달거리까지 침투하여 유엔군의 함포사정거리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주 보급로상의 교량폭파, 보급차량 기습, 적의 소부대 주둔지를 공격하는 등 후방 교란작전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솔섬, 알섬을 근거지로 양도(洋島), 여도(麗島) 등 동해안 연안섬과 통천, 금란(金蘭),

는 내무분주소를 습격했고, 다른 대원들은 동해 북부선의 북쪽 철도교량과 통천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의 교량을 폭파하기 위해 출동했다. TNT 폭약 약 1파운드 짜리 3~4개씩 묶어, 교량 2개소를 파괴하고, 피난을 원하는 두백리 주민 300명을 주문진으로 후송했다.<sup>759)</sup>

‘결사유격대’ 대원이 떠난 후, 새로 편성된 대원들은 오대산 대관령 등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는 좌익 빨치산 토벌에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고저(庫低)지역과 원산 지역으로 자주 침투했다. 이들의 작전목표는 적 보급열차 및 차량의 운행방해, 내무 분주소 기습, 고위 공산당원과 북한군 장교 납치 등이었다. 그중 일부는 적 후방인 간성·고성까지 침투했다.<sup>760)</sup> 이에 맞서 북한군은 전방기지인 솔섬과 알섬에 대해 포격과 기습을 자주 단행했다. 1951년 8월 초 커크랜드부대 전방작전기지인 솔섬이 적의 공격을 받아 빼앗겼다. 이 때 5명의 유격대원이 전사하거나 실종했다. 북한군이 돌아간 후 다시 전진기지를 재건했다.<sup>761)</sup>

소규모 작전으로, 1951년 7월 해상특공대원들은 통천군 인남면 동자원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원하는 한국청년단 자위대 출신 31명을 구출했고, 1952년 1월 30일 빅 보이(Big Boy)팀은 미 해군 조종사를 구출했다.<sup>762)</sup> 5월경 안변지역 혁곡을 기습하여 3명을 생포하고, 소 두 마리와 우마차에 실려 있던 명태를 노획했다. 5월 25일 23시 커크랜드 대원 13명이 솔섬 서쪽 6km 염성리 해안가(DU133013) 지역에 상륙한 후, 26일 03시 북한군 경비병들과 교전하여 1정의 기관총을 폭파했으나, 무전기 1대를 잃었다.<sup>763)</sup> 6월 28일 21시 소규모 대원들이 고저항에 침투하여 어망 200평방 야드를 파괴했다.<sup>764)</sup> 9월 27일 솔섬 앞 두포리 해안(DT195999) 지역에서 대원 12명이 포로를 획득하려는 작전을 폈으나, 적이 자동소총으로 반

759) 전인식,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 43-58면, 125면.

760) 스키는 이주민, 『금란상륙작전기』, 『파라슈트』 8, 1953. 7, 111-114면.

761) 『유엔군 유격전』, 215면; *Dark Moon*, p. 83. 북한군의 피습시기에 대해 8월 3일, 혹은 7일이라는 주장이 있다(<http://www.korean-war.com/specops.html>, 2003. 8. 23. 열람).

762) *Dark Moon*, p. 169; <http://www.korean-war.com/specops.html>(2003. 8. 28. 열람).

763) 백광열, 『경위서』, 2003. 11;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 May 27,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764) CCRACK Guerrilla, “Summary No. 46”, June 30, 1952.

격하자 후퇴했다. 같은 달 28일 스탠필드(Stanfield) 소령, 셔만 중위, 맥기 소위, 필립스 하사 및 6명의 대원이 무반동총과 기관총을 동원하여 적의 보급로인 솔섬 남서쪽 4km 지점의 문암교(DT161999)를 2시간 동안 공격할 때 해군 함포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 전과는 알려지지 않았다.<sup>765)</sup>

소규모 인원이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미군기와 해군함정에 함포 사격을 요청하여 진지와 어항 등을 파괴하는 작전을 자주 수행했다. 1952년 5월 24일 5명의 대원이 해군 함정에 칠보리(CV999234) 지역에 포격을 요청하여 적의 122mm 포, 75mm 포와 선박 3척을 파괴했다. 26일 03시 또 다른 대원 13명이 죽도(DU009177)로 상륙하여 황석리 해안(DU008162) 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해군 함정에 포격을 요청하여 기관총 1대, 진지 6개소를 파괴하고 15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766)</sup> 7월 10일 커크랜드부대가 제공한 첩보에 의해 미 해군 서더랜드(Southerland)함이 통천 남쪽 9km 지점인 회산리(DU040022)의 레이더기지를 포격하여 2~3곳의 진지를 파괴했다.<sup>767)</sup> 함정의 함포사격의 전과 확인도 그들의 몫이었다.<sup>768)</sup>

규모있는 상륙작전으로 금란지구, 칠보리 작전 등이 있었다. 1951년 7월 4일 새벽 제1대대가 북한군 해군기지와 보급창고를 파괴하기 위해 알섬에서 출발하여 짙은 안개를 뚫고 금란지구에 무사히 상륙했다. 이 지역 여맹위원장을 체포하여 금란지역에 북한군 약 10명·해군 1개 소대·중공군 수명·자위대원 20여명·노동당원 20명 등이 지키고 있고, 통천에는 북한군 1개 연대와 중공군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대원들은 박격포 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적의 보급로를 기습하여 적 2개 중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이 때 12명을 생포하고 식량과 무기를 노획했다. 그러나 중공군 지원병력이 다다르자, 대원들은 서둘러 후퇴하면서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선박 5척을 불살랐다.<sup>769)</sup>

765) 안철성, 『적 후방 난도 3년간 전적 경위서』, 2003. 10; HQ, FECLD(K), 8240th AU, “Report of Guerrilla Operations”, 22-30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34”, Sep. 3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766) CCRACK Guerrilla, “Summary No. 16-18”, May 27-29, 1952.

767) CCRACK Guerrilla, “Summary No. 65”, July 20, 1952.

768) CCRACK Guerrilla, “Summary No. 38”, June 22, 1952.

769) 스케는 이주민, 『금란상륙작전기』, 『파라슈트』 8, 1953. 7, 111-114면; 이월빈, 『유공사실확인 신청서』, 2002;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금란지구 작전에서 전사했을 것

1953년의 전과기록은 더욱 없으나, 헨드리(James B. Hendry) 중위의 일기에 의해 1953년 5월 중 작전 일부가 알려졌다. 9일 유격대원 135명과 미군 5명이 칠보리에 상륙하여 북한군 75명을 사살하고 교량 3곳, 참호 3곳, 19대의 우마차 등을 파괴했다. 12일 대원 155명과 미군 7명이 해안에 상륙하여 북한군 74명을 사살하고, 임봉리 다리와 4대의 트럭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얻었다. 이때 대원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16일 다시 칠보리에 상륙하여 북한군 60명을 사살하고 참호 10곳과 보트 14척을 파괴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전사했다.<sup>770)</sup> 휴전 전에 공산측의 레이더기지가 있는 원산에 대한 수륙·공수 합동작전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sup>771)</sup>

내륙근거지를 구축하려는 작전도 수행했다. 1951년 9월 초 빅보이(Big Boy, 일명 BB대)라는 암호명으로 금강산지역에 내륙기지를 세우기 위해 50명의 유격대원을 두 번에 걸쳐 파견했다. 그러나 대원들이 이 지역출신이 아니어서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지 못해 오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9월 하순에 이르면 일부 사상자와 도망자가 생기면서 대원이 15~6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대 본부에서는 대원들에게 이해 겨울동안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첩보대의 귀환을 원조하도록 했으나, 곧 체포되거나 투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52년 2월에도 내륙기지건설이 재차 시도되었지만, 역시 실패했다.<sup>772)</sup>

내륙에 상륙한 유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켄트(William A. Kent) 중사는 압록강 유역이나 북동지역의 유격대원들에게 여러번 공중 보급을 나갔다가 C-47 수송기가 공산군의 대공포에 맞아 꼬리부분이 크게 파손된 적도 있고, B-26기 역시 대공포 파편에 비행기 앞 유리가 깨져 간신히 귀환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루이스(William Lewis) 중위는 유격대원의 투하지점을 물색하기 위해 정찰비행을

---

으로 추정되는 김기석의 유가족(배두연)은 이미 1967년 고인의 전사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미 8군 당국에서는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그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War Record of Cockland Unit”, Apr. 11, 1967, 육본 부관감실).

770) *Dark Moon*, p. 165.

771)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48.

772) *Dark Moon*, pp. 83-84, p. 169 ; <http://www.korean-war.com/specops.html>(2003. 7. 25. 열람).

하다가 격추되어 포로가 되었다.<sup>773)</sup>

<커크랜드 연대가>

찬란하다 유구반만 역사에 강토 태백산  
 뺨어 나온 설악산 밑에 멸공투지 충천한 우국 청년들  
 황폐한 데 차고 넘는 유격비호들  
 힘차게 처부수자 공산 오랑캐 몽쳐서 쟁취하자  
 남북통일로 그 이름 유격군 커크랜드 연대



대원훈련  
(난도, 1951)



커크랜드 제1대대 A중대  
1소대 이동(김진하  
소대장, 김원형 대원 등)

미국동 사령부 8240부대  
제 1대대 4중대 1소대 이동

773) *Shadow Warriors*, pp. 173-174.

### 3. 아밴리(Avanlee Regiment) 부대

#### 가. 부대의 창설 배경과 규모

커크랜드기지 활동이 서해지역의 동키와 울팩기지에 비해 미약하자 동해안 지역의 유격부대를 확대할 의도아래, 1952년 2월말<sup>774)</sup> 아밴리 부대가 창설되었다. 이 부대의 명칭은 당시 한국군으로 미 제8240부대 유격사령부 부사단장이었던 이영순(李永純)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미군 지휘관인 아이베스(Ives) 대령의 이름 첫 자인 ‘아’자와 밴더풀(Jay D. Vanderpool) 중령의 이름 첫 자인 ‘밴’자 그리고 리영순 대령의 성인 ‘리’자를 따서 ‘아밴리(Avanlee BGD)’ 부대로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sup>775)</sup>

부대 창설 당시에는 여단급의 규모로 편성하려고 했으나,<sup>776)</sup> 2개 연대에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부대장으로 이인명(李寅明), 부부대장 및 참모장 황호(黃虎), 정보참모 서용선, 작전참모 이병정, 군수참모 박충근, 정훈참모 김재용, 제1연대장 정상현, 제2연대장 김동식,<sup>777)</sup> 그리고 제1대대장 이규철, 제2대대장 박두하,<sup>778)</sup> 제3대대장 김능환 등이 간부진이었다. 각 대대마다 4개 중대가 있어서, 제1중대(중대장 유한일)로부터 제12중대(중대장 윤철구)가 있었다. 그런데 황호·김도전 등 간부급은 전쟁이전 반공활동을 하였고 서해에서 유격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부대운용과정에서 부대장인 이인명과 갈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인명이 곧 사임하고 황호가 부대를 이끌었다.<sup>779)</sup>

774)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2, 『세대』 1967. 3, 205면. 1951년 10월 18일 창설되었다는 기록도 있다(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775)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 2, 196면.

776) 이 때문에 당시 부대장은 별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1961년 조사에서도 여단장, 부여단장으로 정리되었다.

777) 이와 달리 참모장 박병양(朴秉陽), 작전참모 김도전, 정보참모 박휘, 군수참모 이수업 등으로 기억되기도 했다. 이는 개편되면서 변경된 간부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778) 정두화라고 기술되기도 했으나, 박두하로 정정했다.

779)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1, 『세대』 1967. 2, 196면; 김문기 증언(교동도, 2002. 9. 7); 김관수 증언, 2003. 11. 5; 박휘 증언, 2003. 11. 6; 엄광섭 증언, 2003. 11. 6. 황호의 본명은 전원



서울 돈암장에 모병소를 두고 서울과 지방에서 대원을 모집했다. 1952년 2월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의 한국인과 미군이 나와서 대원을 모집했다. 당시 서울에서 공업학교를 다니던 김문기는 동네 친구 8명과 함께 응했으나, 낙하산 훈련 등 힘든 유격훈련으로 친구 7명은 1주일도 못되어서 이탈했다고 한다. 1953년 2월 중순 임모 모병관은 자신의 고향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화양면 등에서 30여 명을 모집했다. 한 대원은 대전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에서 하우스 보이를 모집한다고 하여 이에 응했다고 회고했다.<sup>780)</sup> 이 때문에 아벤리 부대원들은 남한출신이 많았다.

대원 규모는 1953년 1월말 경 속초에서 952명이 훈련을 받았고 2월말 경에는 1,400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텐트와 장비부족 등으로 작전은 연기되었다. 대원들에 대한 훈련이 완료된 후 1953년 5월경 작전을 추진하려 했으나,<sup>781)</sup> 곧 휴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했다.

대원들은 강원도 속초 학사평 주변에 있는 105고지에서 훈련을 받았다. 일반 전투훈련은 물론, 낙하산투하·폭발물·통신 등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풀기 없는 안남미 식사로 배가 고파서 더욱 힘들었다고 기억했다.<sup>782)</sup> 군복은 일정한 제복이 아닌 작업복 수준으로 오히려 국군의 경우보다 못했다. 이처럼 훈련은 힘들고 대우 또한 열악해서 이탈자가 많았다. 대원들은 미군 산하이므로 잘 먹고 영어도 배우는 등 보다 나은 대우를 기대해 입대했으나, 군번도 없는데다가 신분보장이 안되어 이탈자가 많았다. 낙하산 훈련 중 부상을 입어 귀향한 경우도 있었다.<sup>783)</sup>

강으로 국방부 제4국 공작과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육군 제3139부대, 앞의 책, 517면; 이연길 증언, 2003. 12. 13).

780) 엄광섭 증언, 2003. 11. 5.

781) 『유엔군 유격전』, 104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HQ Partisan Command, FEC LD(K), 28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782) 김문기 증언(교동도, 2002. 9. 7); 정화섭, 『8240 아벤리부대 근무상황 및 배경』(메모), 2003. 2. 8; 육군제3139부대, 앞의 책, 547면.

783) 양재언, 『참전사실확인신청서』, 2002. 1.

휴전 후에도 대원들은 교육훈련을 받아오다가, 1954년 2월 국방부 제8250부대 제3연대 2대대로 재편되었다.<sup>784)</sup> 부대해체 후 대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수부대로 입대하여 활동하였고, 미 극동군 소속의 다이아몬드특수공작대 대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sup>785)</sup>

<부 대 가(이규철 작사, 최봉조 작곡)><sup>786)</sup>

- |                      |                     |
|----------------------|---------------------|
| 1. 설악산 기슭에 태어난 우리    | 2. 군세계 피어라 파라슈트     |
| 빛나는 승리를 가슴에 그리며      | 우리가 가는 곳에 적군은 없다.   |
| 날개없는 창공에, 푸른 하늘 헤치면서 | 날개없는 창공에 푸른 하늘 헤치면서 |
| 낙하산에 아벤리 용사여!        | 낙하산에 아벤리 용사여!       |
| 최후전의 승리를 우리 손으로      | 최후전의 승리를 멸공통일로      |

## 나. 주요 작전 활동

부대편성을 완료한 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 공정부대에서 파견한 교관의 지도 아래 부대가에서 나타나듯이, 대원들에게 낙하산훈련을 실시하여 낙하산 회장을 수여했다. 기지사령부는 대원들을 공수특전 요원으로 양성한 후, 전황에 따라 적 후방에 투입하여 동부전선의 북한군 주력부대에 대한 심리전에 주안을 두고 후방교란, 공산군 생포, 보급로 차단, 주요 군사시설 파괴활동 및 첩보활동,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의 작전지원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국지적 유격전을 병행하려고 했다.

아벤리부대의 작전지역은 강원도 회양, 함남 원산·고원·함흥, 평남 영원·영흥 등이었다. 대원들은 연안의 섬을 위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철도 파괴를 비롯해 첩보전, 심리전을 전개했다.<sup>787)</sup> 그러나 자료부족으로 일부 작전활동만 그

784) 당시 간부는 대대장 황호, 부대대장 이규철, 인사 최봉상, 정보 허덕진, 작전 안명환, 정훈 김명석, 제1중대장 정수용, 제2중대장 유한일, 제3중대장 김정연, 제5중대장 이길운 등이었다(『8250 제3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785) 김문기 증언, 2002. 9. 7; 박휘 증언, 2003. 11. 4.

786) 이규철, 『동해지역 유격부대 개요: 아벤리부대』, 1994. 3. 3.

---

787) 이규철, 『동해지역 유격부대 개요: 아벤리부대』, 1994. 3. 3;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낙하산 휘장  
(정화섭, 1953. 4. 22)

흔적이 남아 있다. 1952년 7월부터 약 1개 중대 규모의 특공대는 알섬을 전진기지로 설정하고 미 해군함정과 미 제5공군의 지원 아래 통천 북방지역으로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 차단, 관측소 및 주요 군사시설 파괴, 공산군 생포 등의 기습 작전을 전개했다.

공중침투작전을 위해 1952년 12월 하순, 10명씩 3개 팀이 구성되었다. 미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속초읍 대포리 비행장을 발진기지로 했다. 이들은 수송기관을 무력화시켜 보급물자 차단을 위해 황해도 평산지역(BT)에 있는 경의선 철도를 절단하려고 했다. 암호명은 제임스 I, II, III(Jessie James I, II, III)로서 1952년 12월 28일 2개 팀이 투하되었고 1952년 12월 30일 3번째 팀이 투하되어 1주일간 활동 후 귀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이들은 작전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노출되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sup>788)</sup> 1953년 4월경 대원 11명이 선발대로 구월산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중으로 투하되었으나, 곧 휴전이 되어 귀환하지 못했다. 그들은 1954년 2월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무전연락을 보냈으나, 그 후 두절되었다고 한다.<sup>789)</sup>

788) 『유엔군 유격전』, 136-137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789) 박휘 증언, 2003. 11. 4. 미군측 기록에는 공중침투 작전의 주체가 암호로 처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유엔군 유격전』, 136면).

## 4. 스톰(Storm)부대

스톰부대 혹은 폭풍부대는 1952년 2월 말<sup>790)</sup> 창설된 부대 중의 하나다. 커크랜드부대에 이어 미군의 유격군 증설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전쟁 초기부터 KLO 첩보대에서 활동을 한 박진효(朴鎭孝)를 초대 부대장으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주선했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2층 양옥을 모병대기소로 삼아 모병을 했다.<sup>791)</sup>

1952년 2월 중순부터 부대 창설에 착수하여 처음 1개 중대를 편성했다가, 대원이 모집되면서 1개 대대로 확장되었고 차례로 2개 대대까지 늘어났다. 부대의 간부는 부대장 박진효, 부부대장 최동하, 인사 박영호, 정보 최승국, 작전 노상렬, 군수 김도근, 정훈과 정민, 제1대대장 김홍택, 제2대대장 김충근, 수색중대장 표익수, 중화기 중대장 윤희환, 제1대대 산하 제1중대장 예광일, 제2중대장 이상렬, 제3중대장 김기환<sup>792)</sup> 등과 제2대대 산하 제1중대장 김광구, 제2중대장 김경호 등이었다.<sup>793)</sup> 최동하 부부대장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50여 명의 대원을 모집하여 합류했다. 휴전



부대장 복무확인증

후 1953년 9월, 박진효 부대장이 그만두면서 부대장으로 취임했다.<sup>794)</sup> 스톰부대

790)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2, 『세대』 1967. 3, 205면. 1952년 1월 11일 창설했다는 기록도 있다(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791) 스톰부대에 관한 기록은 대대장 박진효와 이희영·나만준 대원의 노력에 힘입었다(박진효, 『스톰연대 전사자료』, 2002. 9. 30).

792) 생존 대원들은 제3중대장 구승희, 제4중대장 이재완 등 일부 다르게 기억했다. 그 외에 제1중대 1소대장 황동선, 제2중대 1소대장 노재필, 제3중대 1소대장 전호련, 제4중대 1소대장 이기환, 의무관 김학수 등의 이름도 전우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박진효, 『스톰연대 전사자료』, 2002. 9. 30).

793) 『8240부대 스톰연대 명단』, 1961, 정부기록보존소.

는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되면서 제3연대 공수대대로 개편되었다.<sup>795)</sup>

대원 모집은 전쟁전 월남했거나 전쟁 이후 1·4후퇴시 북한에서 남하한 반공 청년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미군 군속이나 노무부대(KSC) 등에서 활동하다가 귀가 조치 또는 사회로 내보내는 시기에 모병관을 용산역,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 역이나 큰 시장터 등에 보내어 지원자를 대상으로 매일 100~200명씩 모집했다. 수송할만한 규모가 되면 주둔지인 속초읍 폐산리 학사평(설악산 동쪽 기슭)으로 보냈다. 따라서 간부급에는 국민방위군을 거친 노무단 간부출신이 많



폭풍부대가

일부 대원은 미군 공정부대에서 파견한 교관의 지도 아래 동해안 현지 훈련과 공수 특전훈련을 받았다. 훈련 내용으로 비밀 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 파괴

았다고 한다. 한 때 부대원의 규모는 거의 1,500명에 도달했다고 한다.<sup>796)</sup> 휴전 후 국군에 배속되어 소, 분대까지 분산 배치되었다

교육 훈련은 최동하 부부대장이 책임을 맡아, 유격군으로 갖추어야 할 정신무장의 강화와 적 후방 침투를 위해서 유격훈련을 시켰다. 대원의 사기를 위해 “민족의 번영 위해 용감히 싸우자”는 ‘폭풍부대가’가 보급되었다.

794) 이 때문에 전우회의 활동이 미흡해, 전사자의 확인, 국립묘지 위패봉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795) 당시 간부는 대대장 최동하, 부대대장 김홍택, 인사 최세위, 정보 최국현, 작전 조하영, 군수 정삼윤, 제1중대장 예광일, 2중대장 표익수, 3중대장 김기환, 화기중대장 윤희환 등이었다(『8250 제3연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796) 『8250 제3연대 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이규철, 『유격군동해안부대 개요』(매모), 1994. 3. 3, 3면. 그러나, 1953년 2월 제3유격대 총 병력을 산정하면서, 커크랜드, 토치라이트, 아벤리 등의 부대와는 달리 스톱부대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유엔군 유격전』, 104면).

기술, 화약장치와 폭과술, 기만술, 문서 위조술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이수자의 일부는 민가에 침투하는 실습훈련도 받는 한편, 공수특전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중 오발로 사망자가 발생했다.<sup>797)</sup>

스툼부대의 작전 활동은 다른 동해안 유격부대와 동일했다. 중공군과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에 주안을 두고, 적계는 7~8명 많게는 1개 중대 규모로 차출하여 해안지역 후방 교란, 공산군 생포, 보급로 차단, 군사시설 파괴 활동 및 첩보 활동 그리고 국군 1군단의 요청에 따라 설악산 지역의 공비소탕과 해상기습작전을 전개했다.<sup>798)</sup> 때로는 인접한 토치라이트부대, 아밴리부대에서 차출된 대원들과 함께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1953년 3월부터 특공대는 소대규모로 통천에서 함경남도 안변 원산까지 침투하여 보급로 차단, 군사시설 파괴 등 국지적인 기습작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작전 가운데, 1953년 6월 18일<sup>799)</sup> 남강전투를 주목할 만하다. 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스툼부대에서 지원자로 1개 중대를 편성했다. 대원들은 간성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21사단 제65연대와 함께 북한군 제6사단을 상대로 합동작전을 했다. 고성군 향로봉 산맥 큰 까치봉 742고지 쪽으로 박진효 부대장이 2개 소대를 인솔했고, 남강 상류 작은 까치봉 711고지 쪽으로 최동하 부부대장이 중화기 소대를 포함하여 2개 소대를 지휘했다.<sup>800)</sup>

이 전투에서 큰 까치봉 공격조가 북한군 10여 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1정·다발총 3정·소련제 소총 8정·방망이 수류탄 10발 등을 노획했으며, 작은 까치봉 공격조는 8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1정·다발총 1정·소련식 소총 5정·수류탄 12발 등을 획득했다. 그러나 마침 비가 많이 와서 남강의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져, 신흥철·홍순용이 강을 건너다가 실종되는 등 모두 7명이 희생되었

797) 그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안장되었다. 박진효, 『스툼연대 전사자료』, 2002. 9. 30; 이희영 증언, 2003. 5. 23.

798) 이 과정에서 이희창(李喜昌)이 적에게 적발되어 전사했다고 한다.

799) 1953년 5월 12일로 기록된 경우(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547면), 혹은 1953년 2월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 육군 제21사단 전투상보에는 21사단이 1953년 6월 12일 이 지역에서 육군 제11사단과 교전한 후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기술했다(『한국전쟁사료』 61, 179-199면). 이 기록에는 스툼부대의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800) 이병두, 앞의 글, 103면; 박진효, 『스툼연대 전사자료』, 2002. 9. 30; 이희영 증언, 2003. 5. 16.

다. 이 전투 공로로, 국군 제21사단장은 부대를 찾아와 치하하였고 부대원이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될 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sup>801)</sup> 이후에도 통천에 기습상륙하여 내무서 습격, 교량폭파 등으로 적 후방을 교란했다.<sup>802)</sup>

## 5. 토치라이트부대(Torchlight Regiment)

토치라이트부대 혹은 횃불부대는 ‘아밴리’, ‘스툼’부대와 같이 동해안유격대의 확대계획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아밴리와 스톼부대와 비슷한 시기 1952년 2월 말,<sup>803)</sup> 서울 사직공원에서 약 600명으로 창설되었다. 당초 미군 당국에서는 장헌일(張憲一)을 초대 부대장으로 임명하고 서울 등지에서 대원을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케 했다. 대원들은 황해도·함경도·평안도 등 이북출신이 많았고, 남한출신도 있었다. 대북심리전을 수행한다고 해서, 휘문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한다. 북한 출신 피난민으로 서해안에서 유격대 활동 경험이 있거나, 덕소 공수부대에서 옮겨 온 경우도 있었다. 부대는 강원도 속초읍 패산리 설악산 기슭으로 이동하여 주둔지를 정하고 교육훈련을 받았다.<sup>804)</sup>

1952년 5월경 서울에서 미 제8240부대 통역장교로 복무하던 선우진 대위가 부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창설멤버였던 장헌일 부대장과 대원들이 반발하여 영내에서 전투 일보직전까지 이르렀다. 결국 선우진 대위가 서울로 돌아감으로써 위기는 해소되었지만, 미 고문관 윌리엄스 중위는 장헌일 부대장의 독단적 성격과 자주적 부대운용에 대해 회의를 갖고, 소대장급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부대장을 선출케 했다. 이에 따라 장헌일과 이동석(李東錫)이 입후보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하여 15:16으로 방위군 장교 출신인 이동석이 선출되었다. 장헌일이 속

801) 김두삼, 『8250부대(간성지구유격전)』, 1966. 9. 7, 전사편찬위원회; 이희영 증언, 2003. 9. 25.

802)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547-548면; 이희영 증언, 2002. 10. 11.

803) 이영순, 『KLO/8240부대전기』 2, 『세대』, 1967. 3, 205면. 1952년 3월경이라고 기억하는 이도 있다(안성일(예, 대령)·권영철(예, 대위) 증언, 2003. 9. 6). 『한국전쟁과 유격전』에서는 1952년 10월경이라고 정리되었다(339면).

804) 이병두, 『오뚜기 인생』, 1992, 79-90면; 이규철, 『유격군동해안부대 개요』(메모), 1994. 3. 3, 3면.



초를 떠난 후,<sup>805)</sup> 이동석이 부대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지휘체계는 안정이 되었다. 휴전이 될 때까지, 이동석이 부대를 계속 지휘했으며 그 외 간부로는 작전과장 김관술(강화도 HID 공작원), 정보과장 이광성, 보급과장 민병철, 정훈과장 위인찬, 제1중대장 신재성, 제2중대장 황대성, 제3중대장 김응기 등이었다.<sup>806)</sup>

부대본부에서는 대원의 규모를 2,700명까지 확대하려고 했지만, 1953년 1월말경 그들을 수용할 천막과 장비가 부족해서<sup>807)</sup> 556명은 속초에 주둔했고, 40여명은 서울에 머물렀다. 같은 해 2월말에는 속초에서 623명이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sup>808)</sup> 대원의 규모는 6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대원에 대한 훈련은 다른 유격대와 같았으나, 미군이 장차 수행할 침투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근방에 공수훈련시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덕소 공수부대, 일본 등지로 파견하여 낙하산훈련을 많이 실시했다. 일부대원들은 심리전을 위해 서울 가회동 심리전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sup>809)</sup>

토치라이트부대는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로 침투하는 것이 목표였다. 평북 구성, 영변지역, 함북 초산 등(XE, YE, YF, BA, CA, CV, DA, DV, CB, YD, BV)이 작전대상지역이었다.<sup>810)</sup> 11명씩 구성된 토치라이트 I~IV팀이 제1공수연대에서 훈련을 받고, 1953년 2월 5~10일경 투하됨으로써 작전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대원들은 실종되고 말았다. 3월 30일 11명으로 구

805) 장현일은 육군 제5816부대 유격대의 수송관 출신이었다(이인택 증언, 2003. 10. 25).

806) 안성일·권영철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3. 9. 2, 6; 강성구(정보보좌관) 증언, 2003. 9. 2.

807) 1953년 2월말경 당시 보급이 충분하지 못해, 의식주가 실망스러웠다는 회고를 했다(이병두, 앞의 글, 100면).

808)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809) 권영철(예, 대위) 증언, 2003. 9. 2;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810)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성된 1개 팀이 후속 팀을 위해 안전기지 확보하기 위해 투하될 예정이었고, 4월에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었다.<sup>811)</sup>

이들의 구체적인 작전 내용과 성과는 자료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부대가처럼 “어지러운 이 나라에 햇불 높여, 멸공의 햇불”을 들고 일부 대원들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하고, 또 다른 대원들은 동해안 지역의 한국 제1군단의 작전지원을 위해 적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교란작전 및 심리전을 전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휴전을 맞았다.

늦게 창설되어 이들의 작전활동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접경지역에서 유격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북한군은 이에 대비해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sup>812)</sup> 1954년 2월 대원들은 국군으로 편입된 후, 일부 대원들은 공수 부대가 창설되자 이 부대로 차출되어 명맥을 이었다.

<부 대 가><sup>813)</sup>

동해바다 잔잔한 깊은 물 속에  
일어서니 사자처럼 사나운 무사  
어지러운 이 나라에  
햇불 높이어, 멸공의 햇불 들고  
싸워 이기자, 아— 장하도다  
햇불부대 기리 빛나라.

811)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812)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9. 6.

813) 정지운 제공, 2003. 12. 3.

## 제 4 절 제1공수유격부대

### 1. 창설배경과 개편

제1공수유격연대(the 1st Partisan Airborne Infantry Regiment, 1st PAIR)는 1951년 2월 15일,<sup>814)</sup> 부산 동래에서 창설된 베이커기지(Baker Section)를<sup>815)</sup> 확대 재편한 부대이다. 이들은 휴전시기까지 활동을 했으나, 한 때 자료부족으로 참전자의 회고처럼 “극히 적게 세상에 알려져서, 신화와 같이 여기 저기에 전해지다가”<sup>816)</sup> 참전 영·미군의 회고로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미 제8군 지구전과의 맥기 대령이 서해안 유격대 창설구상과 동시에 장차 예상되는 유엔군의 대규모 반격과 관련하여 적 후방에 공중으로 침투시켜 유격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베이커기지를 세웠다. 그 책임자는 처음 미군 페리(Eugene Perry) 대위였다가 영국군 앤더슨(Ellery Anderson) 대위가 된 후<sup>817)</sup> 그 아래 미군 헨(David Hearn) 중위, 영국군 애담스 액튼(Leo Samuel Adams-Acton) 소위 등이 있었다. 한 때 라 랜드(George E. La Land) 중위도 지휘관을 맡았다가<sup>818)</sup> 부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대장으로 미군 베트론(Phillip L. Vetrone) 소령이 되었고 장교와 부사관이 늘어났다.<sup>819)</sup> 이 부대는 적 후방지역에 대한 공중침투 외에도

814) 『유엔군 유격전』, 214면. 그런데, 3월 1일 혹은 4월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8250 제5연대 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황해도지』, 350면).

815) 당시 신분증에는 주한국동사령부연락과편대 베이커과(낙하산대)로 표기되어 있다(『신분증: 김완규』, 1952. 4. 22).

816) 국제연합유격군 공수부대 전우회, 『國際聯合 遊擊軍 空輸部隊 沿革』, 1991. 6. 1.

817) 앤더슨 대위는 영국군 장교였으므로, 미군들이 그를 베이커기지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서 엄밀하게는 스핏파이어작전 책임자였다(*Dark Moon*, p. 104).

818) 『신분증: 김완규』, 1952. 4. 22.

819) 『김완규 제대증서』, 1954. 2. 25;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48-49; *Dark Moon*, p. 47, p. 52.

영국군과 미군이 지휘하고, 한국인 대원이 참가하여 3개국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점이 특징이다.

베이커기지는 1951년 5월 경, 미 제8군 통제 아래 있던 제8086부대의 기타업 무단으로 편입된 후,<sup>820)</sup> 1952년 5월 부산 동래 반여리에서 백령도 표기지 사령부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낙하산 학교를<sup>821)</sup> 설치하여 서해도서 유격대원에 대한 공수훈련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서울 근교 광나루 골프장(현재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동하여<sup>822)</sup> 청룡부대와 남풍부대(Southwind)를 창설하고, 요원에 대한 훈련을 계속했다.

1952년 11월말 제1공수유격연대로 확대 개편되었다.<sup>823)</sup> 이는 제8240부대 예하 유격부대의 재편개혁에 따른 것이었다. 1953년 3월 중순<sup>824)</sup> 주둔지를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 와부면(瓦附面) 도곡리(陶谷里)로 이동했다. 이 지역이 덕소역과



김명식·정현교·베트론 등 간부

820) 1951년 6월 2일 발행된 김완규의 낙하훈련 증명서에서 제8086부대 산하 소속으로 기술되었다.

821) 맥기 대령은 베이커 기지에 한국에서 최고의 낙하산 학교(Jump School)를 만들 계획이었다 (Col. John. H. McGee, "Policies for Eagle", Mar. 16,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822) 9월초 태풍으로 텐트와 장비가 크게 손실되었기(CCRAK Guerrilla, "Summary No. 108", Sep. 4,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때문에 이동했는지 모르겠다.

823) 『유격작전계획 제2단계 ‘가’』, 1953. 5. 10, 『유엔군 유격전』, 233-234면; *Operation Aviary*, p. 27.

824) 1952년 3월 15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3·1부대 사진<sup>825)</sup>

가까웠기 때문에 덕소공수기지라고 했다.<sup>826)</sup> 이렇게 이동이 잦은 까닭은 부대의 비밀유지와 유격대원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대원들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전투력과 사기의 저하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덕소기지에서 3·1부대, 번개(Lightning) 부대, 임호 부대 등 특별임무부대가 편성되었다.<sup>827)</sup> 3·1부대의 간부는 부대장 신돈섭, 부부대장 이성순<sup>828)</sup>이었다다가 이성순 등이 부대를 떠난 후, 3·1부대는 사자부대로 개칭되었고<sup>829)</sup> 교관인 박진원이 부대장이 되었다. 이 부대원의 규모는 300여 명이었다. 임호부대는 200명 규모로 부대장이 김수만이었고, 제3소대장은 음기선이었다. 그 외 부대의 규모는 약 100명 내외였다.<sup>830)</sup> 번개부대는 중대 규모로 중대장 고달섭, 행정관 전정훈, 제1소대장 이명순, 제2소대장 최기준, 제3소대장 윤석문 등이 간부로 있었다. 남

825) 이성순의 홈페이지에서(www.sirasoni.org)에서 퍼옴(2003. 11. 4).

826) 『영양:靈像』, 문왕출판사, 74면; 박우석 증언, 1994. 1. 20; 특수전 사령부 교육단, 『덕소공수기지 편성 및 부대이동』, 1993. 4. 21.

827) 1961년 조사에서 청룡부대는 제시되지 않았고, 임호부대를 호랑이부대라고 기술했다(『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828) 그는 제1공화국 시기 주먹계에서 ‘시라소니’로 더 유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그가 한국전 때 특수부대인 HID요원으로서의 활약했다고 보도했으나(『중앙일보』, 2003. 4. 24), 바로 삼일부대의 간부였다.

829) 정지운 증언, 2003. 11. 29.

830)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9면; 전우회, 『國際聯合 遊擊軍 空輸部隊 沿革』, 1991. 6. 1; 『황해도지』, 350면; 김수만 증언, 2003. 11. 27; 박우석 증언, 2003. 12. 10. 각 부대의 규모를 500명-700명 선으로 회고한 경우도 있다(『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풍부대의 부대장은 처음에 하용정이 임시로 맡았다가 이후 서월식 교관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sup>831)</sup>

유격대원의 모집은 초기에 예비사관후보생들 가운데 선발되었지만, 나중에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1기생(Baker 1)은 1951년 1월 중순 대구에<sup>832)</sup> 집결해 있던 방위사관학교 후보생 400명 중에서 30명이 선발되어, 동래 육군종합학교 제18기생으로 입교했다.<sup>833)</sup> 앤더슨 대위와 다른 장교들이 그들 가운데 주로 북한출신이나 영어가능자, 혹은 낙하산을 탈 자신이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박중흠·권영채(權英採)·강봉영(姜奉英) 등 15명을 선발했다.<sup>834)</sup> 당시 후보생들은 보급이나 대우가 좋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했다고 한다.

제2기생(Baker 2)은 3월 4일<sup>835)</sup> 당시 범어사에 있던 국민방위사관학교에서<sup>836)</sup> 후보생 가운데 박우석(朴宇錫), 한준구(韓俊球), 홍순권(洪淳權), 하용정(河龍正),<sup>837)</sup> 김완규(金完圭), 김근태, 홍사현, 유익수, 임승환, 김성환, 김병률 등 20명이 선발되었다.<sup>838)</sup> 제3기생(Baker 3)으로는 1951년 5월 육군예비사관학교 후보생 중에서 정현교(鄭賢敎), 김명식(金明植) 등 20명이었다.

그 후 점차 대원의 규모를 늘리면서, 부산부두에서 북한출신 100명 정도를 모

831) 정지운(변개부대 제3소대 근무) 증언, 2003. 11. 26, 12. 3; 김재수(의무관) 증언, 2003. 12. 8; 김창규 증언·유병렬 증언, 2003. 12. 10.

832) 대원들은 1월 중순으로 회고했으나, 2월 초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구가 아니라 부산 일 가능성이 크다(『육군역사일지』, 1949, 8. 17~51. 12. 31, 군편사료 280; *Dark Moon*, p. 54).

833) 종합학교 제18기생은 1950년 12월 10일 입교해 이듬해 2월 10일 임관하였다(육군종합학교전우회, 『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 1995, 1320, 1324면).

834) 앤더슨 대위는 15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적으로 10명을 선발했다고 한다(Ellery Anderson, *Battle Over Pusan*, pp. 68-70). 진해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관후보생으로부터 40명을 선발했다는 서술도 있다(*Dark Moon*, p. 52).

835) 4월 10일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에서 원산이남 지역 출신 53명을 선발하여 부산 기장으로 이동했다는 기술도 있다(*Dark Moon*, p. 105).

836) 1951년 5월 국민방위사관학교는 육군예비사관학교로 개칭된 후,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제5군단 직할로 되었다가, 10월 15일부터 해체되었다(『육본 일반명령』 제97호, 149호, 1951. 7. 2, 10. 15).

837) 그는 이미 ‘버지니아 1’ 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나,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Dark Moon*, pp. 106-107).

838) 김완규의 복무기점은 1951년 3월 1일로 기술되어 있고, 박우석의 제대증에는 같은 달 15일부터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김완규 제대증』, 1954. 2. 25, 특전사 역사관 소장; 『박우석 제대증』, 1954. 3. 30, 같은 역사관).

아 미군 교육대(UN Reception Center)에서 2~3개월간 교육 훈련을 시켰다. 서울로 이동한 후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부산·춘천 등지에 모집했기 때문에 황해도 출신을 비롯한 북한출신<sup>839)</sup> 뿐만 아니라, 남한출신도 다수 있었다.<sup>840)</sup> 일부 여성대원도 있었고, 영도유격대가 해산된 후 이정남은 이 부대에 합류했다.<sup>841)</sup>

공수유격연대의 총 규모에 대해 3,126명이라는 주장도 있다.<sup>842)</sup> 그러나 미군 자료에 의하면 1953년 7월 1일까지 3,6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1953년 1월 말 당시 부대의 규모는 527명이었고, 2월말에는 372명으로<sup>843)</sup> 줄어들어 5월말까지도 같은 규모였다.<sup>844)</sup> 당시 대원들 가운데 일부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미군 장병과 유격대원

839) 황해도지편찬위원회, 『황해도지』, 1982, 350면.

840) 국제연합 유격군 제1공수부대 전우회, 『회원명부』, 2002. 8.

841) 황보현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2003. 5. 26.

842) 『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9면. 한국인 대원 1,533명, 미 장교 7명, 미 사병 등 1,551명이라는 진술도 있다(『덕소공수기지 편성 및 부대이동자료』, 1993. 4. 21).

843) 이 무렵 대원의 규모가 336명, 혹은 390명이라는 기술도 있다(『유엔군 유격전』, 104면, 112면).

844) 『유격작전 제1단계 평가』, 1953. 5. 25, 『유엔군 유격전』, 305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군편, SN 1964;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군편, SN 1965. 그러므로 1953년 4월 1,132명, 5월 1,533명이라는 경우도 있으나(『유엔군 유격전』, 167면, 112면; 『덕소공수기지 편성 및 부대이동자료』, 1993. 4. 21), 1953년 5월 25일 평가 보고에 따랐다.

여건에서 재차 투입을 반대해 도망한 경우도 있었다.<sup>845)</sup> 실제로 유격연대는 대대규모 수준의 기동부대(action team)로 보인다.

제1공수유격연대도 휴전 후 창설된 국방부 제8250부대로 편입되면서 제5연대로 재편되었다. 당시 간부는 연대장 정현교, 부연대장 김수만, 인사과장 김광포, 정보과장 김용규, 작전과장 박진원, 군수과장 김완규 등이었다.<sup>846)</sup> 육군으로 125명이 편입되어 군번을 받았다. 1953년 11월 18일 유격대사령부에서는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유격대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공중낙하 시범을 실시했다.<sup>847)</sup> 나머지 201명은 미군 산하에 계속 있었으나 결국 해체되었다.<sup>848)</sup>

국군에 편입되면서, 대원들 가운데 연소자나 연장자는 귀향조치 했다. 제8250부대에서 연대장이던 정현교는 대위, 박진원과 김완규 등 참모는 중위, 3·1부대



신익희 국회의장  
김완룡 장군  
무겔버그 중령

845) 김완규 증언, 2003. 11. 14; 박중흠 증언, 2003. 12. 10.

846) 『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그러나 박우석의 복무확인증에는 육군제 8250부대 공수보병대대로 기술되어 있다. 생존 대원들도 제5연대로 편성된 사실을 부인했다.

847)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22. 이승만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는 오지 않았다(김명호 증언, 2003. 11. 13; 오봉규(예, 소령) 증언, 2003. 12. 13}.

848) 『유엔군 유격전』, 204면.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53년 12월 15일 현재 대원의 규모는 48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같은 책, 168면). 그러나 대원들은 연대본부 170명, 3·1부대 350명, 남풍부대 200명, 번개부대 300명, 호랑이 300명 등 1,320명이 국군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여(『8250 제5연대편성표』, 1961. 4, 정부기록보존소), 미군기록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김만식)·남풍부대(김영식), 번개부대(고달섭), 임호부대(김상국) 등이 중위로 임관했다. 국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공수훈련 경험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1954년 3월 한국군 최초의 특전부대인 제8731부대가 창설될 때, 박진원·김완규·박우석·임상운 등 일부 부대원들이 차출되어 이 부대의 발전에 기여했다.<sup>849)</sup>

## 2. 주요 작전

### 가. 교육훈련과 작전 수행

제1공수유격연대의 작전목표는 북한지역으로 대원을 침투시켜 게릴라기지를 건설한 후 첩보 수집, 시설파괴, 주 보급로와 병참선 차단작전을 용이하게 하며 유엔군 포로를 구출하기 위한 도피망을 제공하려는 것 등이었다. 이를 통해 적의 부대병력을 전선에서 감소시키고자 하였다.<sup>850)</sup>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원들은 영국군과 미군장교들로부터 인민군 훈련을 비롯하여 공수훈련, 교량과 철도 파괴 등 특수전 교육을 비롯해 모의훈련을 여러 차례 받았다. 당시 공수낙하훈련은 부산 기장에 있던 미 제8군 특공대 훈련학교(Ranger Training School)에서 교관들에게 받았고, 폭파훈련은 전 영국군 특수부대(SAS) 출신 앤더슨 대위 아래 폭파훈련학교(Sabotage Training School)에서 받았다. 속초의 아밴리부대에서 해상훈련을 받기도 했다.<sup>851)</sup> 공수연대의 대원 외에도 제8240부대 산하 유격부대 요원들에 대한 공수훈련을 실시했다. 예를 들면 1953년 2월 5일 북한지역에 투하시킬 토치라이트 대원 11명을 제1공수유격대에서 낙하훈련을 시켰다.<sup>852)</sup>

849) 국제연합유격군 공수부대 전우회, 『國際聯合 遊擊軍 空輸部隊 沿革』, 1991. 6. 1.

850) 『유격작전계획 제2단계 ‘가’』, 1953. 5. 10, 『유엔군 유격전』, 233-234면; *Operation Aviairy*, p. 27.

851) 이병두, 『오뚜기 인생』 3, 2000, 96면; 정지운 증언, 2003. 11. 26;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48-49; Baker Section, 8086th A.U, HQ EUSAK, “Certificate: Kim Wan Kyu”, June 2, 1951(특전사 역사관 소장); *Dark Moon*, pp. 47-48.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원들은 북한군 복장을 입고 그들의 장비로 위장하여 적의 주 보급로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공중투하되었다. 이 때 부산에 있는 에이비에리팀(Aviary Team)의 지원을 받았다.<sup>853)</sup>

아직도 이 부대의 자세한 작전 내용은 자료가 많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부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제2차 작전인 스피트파이어작전(Operation Spitfire)이 끝나고, 마침 휴전협상이 진행된 이후는 미군이나 영국군 장병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인 대원만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1951년 10월 정현교·최정용·김용규 등의 대원이 함남 신고산으로 투하되었고, 그 해 12월 회양으로 장치환 등 4명이 투하되는 등<sup>854)</sup> 첩보수집을 위한 소규모 작전도 있었다. 무스탕 작전도 이 연대에서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2년 9월초 극동군사령부의 월간 보고서에 베이커 기지로부터 투입된 한 대원(J-750)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군의 대규모 공습 결과 북한인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유엔군 게릴라작전에 합류할 것을 우려한다고<sup>855)</sup> 기술되어 그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남풍부대의 공중침투작전으로 추정되는 남풍계획(Project Southwind)은 대원의 규모를 750명으로 확대하여 북한지역의 철로절단과 지뢰매설을 실시하려는 작전이었다. 1953년 2월 7일경 첫 작전은 48명을 12명씩 4개 팀(Boxer I-IV)으로 나누어, 침투시켜 성진과 홍남 사이 열차가 주간에 터널에 대피할 수 없도록 철로를 파괴하려는 것이 임무였다.<sup>856)</sup> 1953년 4월 2일경 50명의 대원을 2명씩 래빗팀(Rabbit team)으로 구성하여 평양 이북지역에서 주간에 열차를 터널에 피난시

852)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853) *Dark Moon*, pp. 47-48; *Operation Aviary*, p. 13, p. 38; Col Dillard's Letter, Dec. 3, 2003. 그런데 에이비에리팀이 베이커기지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에반호와는 달리 딜라드는 스피트파이어작전의 실패 이후 1952년 초부터 말까지 공수작전에 에이비에리팀으로 이관된 것으로 이해했다.

854) 김용규 증언, 2003. 12. 10.

855) "CINCUNC Tokyo to DA", Sep. 1, 1952, FECOM, "Command Report Sep. 1952", 군편, SN 66.

856)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미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투하시킬 예정이었다. 4월 2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50명의 대원이 2명씩 영흥·개천·희천·함흥 등지에 투하될 예정이었다. 이 외에 번개부대의 작전계획으로 추측되는 우리계획(Project Thunder)의 경우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군과 중공군 조종사의 생포 및 미그기의 정보수집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57)</sup>

청룡작전(Green Dragon Baker)같은 내륙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작전도 수행되었다. 이들은 강화도의 그린드래곤팀(Green Dragon Able)과 연계하여 작전을 수행하되, 특히 수력발전소와 강을 이용한 수송방해, 안동지역의 공군기지를 파괴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sup>858)</sup>

### 나. 버지니아1작전(Operation Virginia 1)과 스피트파이어작전

침투작전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버지니아1과 스피트파이어작전이다.<sup>859)</sup> 원래 베이커기지는 대원을 훈련시켜 작전이 가능한 시기를 1951년 4월 말이나 5월초로 예정했으나, 대원들을 모집하지도 않은 채 버지니아1작전 계획을 서둘렀다. 1950년말 국군과 유엔군이 동해안지역에서 철수할 때 당시 원산과 철원사이의 철로를 파괴했지만, 북한측은 원산과 고성사이 철로를 우회로로 사용했다. 이 철로를 미군 해군특공대(UDT) 대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 해병대가 파괴했지만, 이를 후 임시로 복구되어 운행되었다. 이 때문에 미 제8군에서는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 특공대를 동원해 재차 이 지역 철로를 파괴하려고 했으나, 미군들의 희생을 우려해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인 유격대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작전은 맥기 대령과 미 제8군 지구전과에서 제안

857)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Command Report”, Mar. 4,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남풍부대에서 구월산 지역으로 150명 정도, 원산과 평양사이의 철도파괴를 위한 30명 규모의 침투가 있었다고 한다(김창규 증언, 2003. 12. 10).

858) 이병두, 앞의 글, 96면;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Feb. 1,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4-17.

859) 주로 예반호의 글을 참고하였다(*Dark Moon*, pp. 104-116).

했다.<sup>860)</sup>

버지니아작전을 위해 선발된 대원들이 이미 서술한 대로 1951년 2월 중순경 공수낙하 훈련 중, 조종사의 실수로 얼음이 언 논으로 낙하하게 되어 11명이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9명은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파괴훈련 위주로 훈련과정이 바뀌어서 낙하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861)</sup>

낙하훈련 중 골절상을 입은 대원들은 한국군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침투는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3월 15일 20시<sup>862)</sup> 미 육군 공수대원 4명, 국군 4명, 유격대원 제1기생 15명, 통신사 1명 등으로 편성된 버지니아 제1팀은 C-47 수송기를 타고, 수영비행장(K9)을<sup>863)</sup> 떠나 철도터널을 파괴하여 전선으로 수송되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강원도 회양(淮陽) 부근 현리에 공중으로 침투했다. 국군 사병들이 길 안내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본래 페리 대위가 작전을 지휘하기로 되었으나, 첫 작전에 대한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은 모두 제외되고 사병들로만 선발되었다. 미군 제4특공중대에서 상병 왓슨(Martin Watson)·마일스(William T. Miles), 퍼셀(Edward W. Purcel)·일등병 베이커(Raymond E. Baker) 등 4명을 차출했다. 이중 퍼셀 상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지역에서 OSS대원으로 활동을 했고, 나머지는 보병 전투경험이 있었다.<sup>864)</sup>

그러나 버지니아 제1팀은 훈련이나 적에 대한 정보 미흡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미군들과 한국인 대원들이 작전 전에 충분한 합동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낙하 당시 공군수송기 조종사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낙하 예정지 보다 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4개 그룹으로 흩어져 낙하되었다. 왓슨 상병은 마을 안

860) *Dark Moon*, pp. 48-50; *Operation Aviary*, p. 27. 참전자들은 1951년 2월 하순으로 기억했다(『국제연합유격군공수부대』, 1993. 4. 21, 특전사역사관)

861) *Dark Moon*, p. 52; *Operation Aviary*, pp. 27-28.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미군 하사관 1명, 의무관 김재수, 여자 간호원 2명 등으로 이루어진 의무실이 운영되었다고 한다(김재수 증언, 2003. 12. 8).

862) 한국인 대원들은 2월중에 실시했다는 증언도 있으나(김완규 증언, 2003. 12. 8), 미군 문서에 3월 15일로 명기되었다(“Status Report of Miscellaneous Division”, Mar. 15, 1951, SN 1400-1).

863) 포항비행장(K3)이라는 서술도 있으나(*Dark Moon*, p. 54), 한국인 대원의 진술에 따랐다.

864) 『유엔군 유격전』, 82면; “The John H. Mcgee Papers”, Mar. 24, 1986, 군사편찬연구소, SN 1961, pp. 24-26; *Dark Moon*, pp. 52-53. 그런데 왓슨 상병이 특공대 출신이라는 서술도 있다(Col.Dillard, *op. cit.*, p. 28).

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다치지 않았고 장비를 회수할 수 있었다.

낙하지점이 목표지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당시 눈과 폭풍이 길을 가로막아, 대원들은 16일과 17일을 완전히 허비한 후, 18일 아침에서야 목적지인 현리에 도착했다. 영하의 날씨 탓에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무전기가 무용지물이 되어 본부와 통신이 두절되었고, 식량도 3일분만 가지고 출동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현리 터널은 중국군 철도수송대대와 지방 자위대원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어서, 이를 폭파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원들은 무전기와 폭약 등을 메고 눈 속을 헤쳐가면서 삼대리 터널로 이동했으나, 이 곳 또한 터널 양쪽에 참호를 구축하고 경비를 서고 있어서 사기마저 저하되었다.

다행히 29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끊어졌던 무전기가 연락이 회복되어 기지본부와 접촉을 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당시 동해안 함대에 있던 3대의 헬기가 출동해서 공중 구조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던 적군이 그 날 밤 추격을 했다. 손튼(John H. Thornton) 중위의 헬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격추되었다. 다행히 그는 탈출해 왓슨 상병을 만났다. 두 번째 헬리콥터에 의해, 퍼셀 상병, 마일스 상병이 구조되었고, 세 번째 헬리콥터는 베이커 이등병을 구했다. 헬리콥터가 다시 구출하러 오기 전 적군이 몰려 왔다. 이들을 피해, 손튼 중위와 왓슨 상병은 한국인 대원과 헤어진 후<sup>865)</sup> 곧 포로가 되었다. 한국인 대원 가운데 박중흠·권영채·강봉영 등은 귀환했으나, 오수관·이종운·성낙운 등은 사살되었거나 실종되었다.<sup>866)</sup>

맥기 대령은 이들이 귀환하면, 베이커 2팀과 통합하고자 했지만 귀환대원들은 장교임관·일본휴가<sup>867)</sup> 등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지본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침투하라고 하자, 박중흠과 권영채는 부대를 떠났다고 한다.<sup>868)</sup>

865) 손튼 중위와 왓슨 상병이 한국인 대원과 헤어지게 요인이 탈출 중 우연한 것이거나 아니면 한국인 대원이 자신들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Dark Moon*, p. 61).

866) 박중흠 증언, 2003. 12. 10; *Shadow Warriors*, pp. 173-174.

867) 맥기 대령도 그들이 귀환하면, 일본으로 휴양을 보내도록 지시했다(Col. John. H. Mcgee, "Policies for Eagle", Mar. 16,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베이커기지에서는 버지니아 1팀의 공중침투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재차 북한 지역에 유격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스피트파이어작전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버지니아작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작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다. 먼저 선발대로 우뢰(Thunder)팀을 파견한 후, 1주일 정도 간격으로 ‘번개팀(Lightening, 팀장 애담스 액튼 소위와 대원 11명), 폭풍팀(Storm) 20명, 북풍팀(Northwind) 20명을 투하시킬 예정이었다. 또한 버지니아작전 때의 무전기 고장을 감안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썼던 SCR 300보다 훨씬 가볍고 성능이 좋은 최신 기종인 AN/PRC-10이 2대가 제공되었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출작전도 준비되었다. 기간이 넉넉했으므로, 대원들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사관후보생 출신인 박우석, 한준구, 홍순권, 하용정, 김완규, 김근태, 홍사현, 유익수, 임승환, 김성환, 김병울 등 20명 그들은 독도법, 첩보수집, 낙하훈련, 폭파훈련 등을 비롯해 양산과 기장에서 종합 훈련을 받았다.

1951년 6월 18일 오후 10시 앤더슨 대위, 가너 하사(Marvin G. Garner)<sup>869</sup> 마일스 상병 등과 한국인 하용정과 서창욱 통역<sup>870</sup> 등 선발대가 C-47 수송기를 타고 수영비행장(K9)을 떠나, 가려주리 동남 쪽 분지에 투하되었다. 버지니아1작전에 참가했던 피셀과 베이커는 미군 제4특공중대로 복귀했고, 마일스 상병만 잔류하여 참가했다. 낙하 중 앤더슨 대위가 등을 다친 것 외에는 안전하게 착지했다. 선발대의 임무는 1주 후에 있을 본대의 안전한 낙하를 유도하기 위한 낙하지점(DZ)을 준비하고, 작전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투하된 대원들은 근거지로 예정된 화개산으로<sup>871</sup> 이동했다. 이 산은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이 중국군 포로를 이용해 벌목작업을 한 곳으로, 일본 패망 후 선페스트(bubonic plague) 전염병이 돌아 주민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다. 또한 협

868) 『유엔군 유격전』, 82면; 박중흠 증언, 2003. 12. 10; *Dark Moon*, p. 52; *Operation Aviary*, p. 27; Col(R). Douglas G. Dillard's Letter, 2003. 10. 21, 22.

869) *Operation Aviary*, p. 32. 가렛(Charles Garret) 하사라는 기술도 있으나, 생존한 대원들도 가너 하사로 기억했다(김완규 증언, 2003. 12. 8).

870) 하용정을 호영종, 서창욱을 송창욱으로 잘못 표기했다(*Dark Moon*, p.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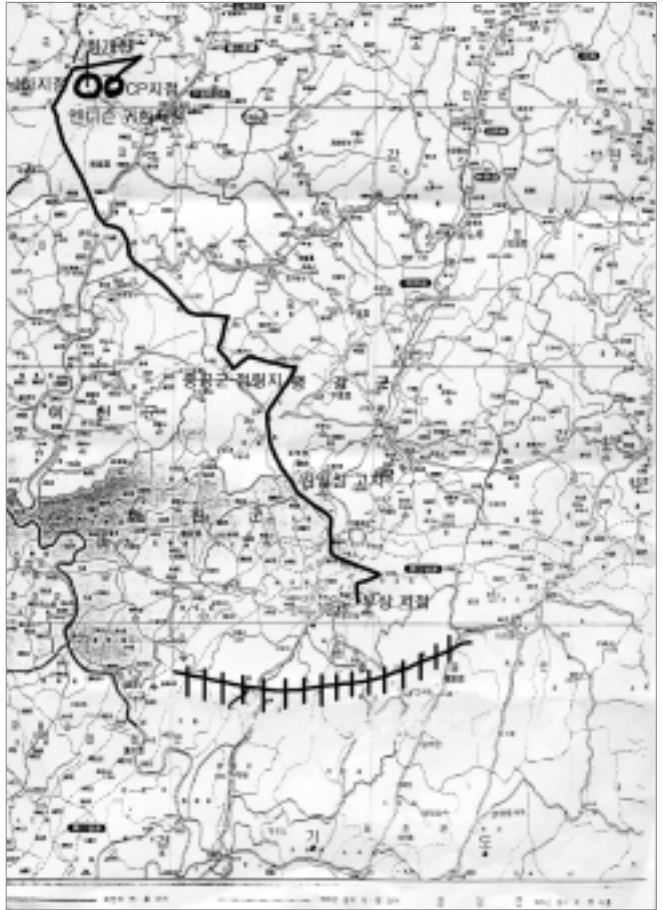
871) 사태산으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태산과 화개산은 아호비령산맥과 마식령산맥 사이에 있어 지역으로 서부에는 화개산(1,038m)·가칠봉(706m) 등이 있고, 동부에는 사태산(1,148m)이 있다.

곡과 크고 작은 분지가 발달해서 유격대가 활동하기가 좋았다. 이곳에 도착한 선발대는 정찰활동을 통해, 때마침 그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군 1개 사단의 이동을 추적하여, 공군으로 하여금 광현리(CT2288)에 대한 폭격을 유도하여 그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이 성과로 오히려 대원들의 위치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동을 했다.

그런데 본대 가운데 번개팀은 6월 24일 출동했으나, 선발대와 무전연락이 안되어 복귀했다가 다시 6월 26일 0시경 출동했

다.<sup>872)</sup> 현 중위·애담스액트 소위·밀스(Fusilier Mills)·김승환·임성환·홍사현·홍순권·한준구·박우석·김근태 등 12명의 번개팀은 조정사의 실수로 선발대가 설정한 낙하예정지를 약 반마일을 벗어나 화개산 동쪽 바위투성이 지역으로 떨어뜨렸다.<sup>873)</sup>

번개팀은 선발대와 합류했다. 그렇지만 적지에서 대낮에 헬리콥터에 의한 앤



스핏파이어 투하지점과 복귀로

872) 한준구 증언, 2003. 12. 10.

873) 이때 애담스액트 소위는 왼쪽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졸업생이었으나, 공수훈련 경험이 없었다. 그의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공중후송을 요청했으나, 페니실린이 보급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인 대원은 그가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한준구 증언, 2003. 12. 13).

더슨 대위의 복귀,<sup>874)</sup> 수회의 공중보급지원에서 보여준 미 공군 조종사와 항법사들의 미숙한 조치로 기지의 위치와 더불어 대원규모까지 적에게 노출되어 기습을 자초하였다. 즉 식량 보급 지점을 찾기 위해 선회하던 수송기(C-47)는 날이 밝은 아침에야 비로소 보급품을 투하하게 되자, 중공군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보급품을 접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은 기습을 받았다.

대원들은 중공군의 추격을 피해 산 속을 헤매면서 보급된 식량도 없이 때로 교전을 하면서 귀환했다. 현 중위는 체중이 25파운드나 빠졌고, 한국인 한 대원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고 한다. 7월 26일 애담스액튼 소위, 가너 하사 등은 육로로 미군 제35연대 지역으로 귀환했지만, 마일스 상병과 영국군 통신병 밀스는 전사했다. 현 중위와 미군 통신병과 김근태, 박우석 등 한국인 대원 3명이 함께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헤어져서, 현 중위 일행은 제25사단 지역으로 귀환했고, 한준구와 박우석은 철원으로 복귀했다. 하용정과 홍순권은 함께 귀환했다. 서창옥 통역이 후송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인 대원은 행방불명이 되었다.<sup>875)</sup>

결국 스피트파이어작전도 북한지역에 게릴라 기지를 설치하지 못한 채, 내륙 지역에서 약 1개월 동안 첩보수집과 아군 폭격유도 등의 활동을 하다가 기지로 귀환했다. 이 작전이 실패한 후 앤더슨 대위는 크게 위축되어 결국 부대를 떠났다고 한다.

874) 한국인 대원들은 앤더슨 대위의 후송이 오전 9시경 이루어진 무모한 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중위는 앤더슨 대위가 6월 27일 시도하다 실패한 후 28일 귀환했으나, 그가 귀환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기억했다(*White Tigers*, p. 135).

875) Col(R). Douglas G. Dillard's Letter, 2003. 10. 21, 22; *White Tigers*, p. 135; *Operation Aviaary*, p. 35; 김완규 증언, 2003. 12. 11.



## 제 5 절 첩보대의 조직과 활동

### 1. 전쟁이전 첩보기구와 KLO

#### 가. KLO 창설 배경

전쟁 전부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면서 첩보전의 무대였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했다면 전쟁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국군을 비롯한 미국의 첩보대 조직과 활동을 개관하면서,<sup>876)</sup> 미 제8240부대 통제아래 활동했던 첩보대를 주로 다루었다. 상술한 대로, 미 제8240부대 유격대가 적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교란전술을 도모하는 한편 첩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약간 덧붙였다.<sup>877)</sup>

전쟁 전, 미군은 물론 국군과 청년단체 등에서도 북한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하였다. 우리나라 군 관련 정보기구는 미 군정시기 국방총사령부 아래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정보과가 만들어졌고, 다음해 국방총사령부가 통위부로 바뀌면서 정보국으로 개편되었다.<sup>878)</sup>

정부수립 후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정보국이 있었고, 국방부에 제4국이 있었다. 국방경비대의 정보과가 육군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당시 이범석 국방장관은 독립운동시기에 국민당 정부의 첩보기구인 ‘군통국’의<sup>879)</sup> 활동에 대한 중요

876) 졸고, 『전쟁을 전후한 첩보부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2 참조. 이 논문을 추가증언이나 문서로 보완했다.

877) 단순히 미군 장병의 비중으로만 비교한다면, 첩보전은 유격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52년 주한연락처에는 유격전 담당 장병이 55명이었고, 첩보전 담당 장병은 48명이었다(『유엔군 유격전』, 105면).

878) 육본 군사편찬과, 『창군전사』, 1980, 385면.

879) ‘군사조사통계국’으로, 남의사의 군내 명칭이라고 한다(인순창 증언, 2003. 12. 13).

성을 인식하였고 미국 전략사무국(OSS)의 지원 아래 광복군 국내 ‘정진군’을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제2국(정훈국)과 제4국(정보국)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정훈국은 북한의 사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정보국은 북한의 테러에 의한 국내 교란에 대비한 조직이었다.<sup>880)</sup> 그런데 당시 주한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W. L. Roberts)가 특수공작국인 제4국<sup>881)</sup>이 육군이나 해군의 정보국 기능과 중복된다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자, 국방부에서 국방기구의 간소화 방침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1949년 1월 해주지역 대북공작의 실패로 제4국의 기능을 각 군 정보국으로 이관하였다.<sup>882)</sup>

정부 수립 후에도, 남한 내에서 좌익활동이 활발하고 남북한의 대치가 심화되었으므로, 육군 정보국에서는 인천·청단·연안·개성·연천·동두천·강릉 등 38선 접경지역과 전국 각처에 장교 1명·하사관 2명 규모의 파견대를 보내 방첩과 첩보활동을 전개했다. 대원들은 박문사(현 신라호텔 자리)와 육군수색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파견대에서는 피난민과 귀순자를 통해 전차, 팔로군 입국, 인민군총사령부와 사단편제, 강동정치학원 등의 중요 첩보를 획득했다. 육군일선 부대나 경찰서에서도 서북청년회 등을 내세워 북한의 정보를 수집했다.<sup>883)</sup> 백선엽 정보국장 시절, 정보국에는 제1과 전투정보과·제2과 첩보과·제3과 SIS(후에 CIC) 등이 있었다. 북한에서 게릴라를 자꾸 남파하자 첩보과에 남한반과 북한반을 설치하고, 청량리 소재 육군 정보학교에서 2주간 훈련을 받은 육사 제8기생 10명을 보강하였다.<sup>884)</sup> 1949년 7월 정보국장이 된 이용문 대령은 일본이나 홍콩

880) 4개 과로 편성되어 있었고, 국장은 김근찬이었고, 제3과장은 신치호 대위였고, 과원은 이지녕, 최제부, 황호 등 10명 정도였다. 이들은 4국이 해체된 후 ‘통일사’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이연길, 『남북첩보전선의 생과 사』, 『월간조선』 1993. 9, 638-640면; 이연길 증언, 2003. 12. 13).

881) 당시 문서에는 제5국으로 표현되어 있다.

882) 『하우스만 증언록』 1971. 3. 18,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5-6면, 45면; 이범석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88-89면; 국방부, 『국방사』 1, 1984, 224면; “W. L. Roberts to President, Syngman Rhee”, Dec. 17, 1948(『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공한철』 1, 군사편찬연구소, SN 1326).

883) 『김익수 증언록』 1990. 3. 14, 『독수리 유격대 자료집』,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한철민 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실; 이동섭 증언, 2002. 12. 5; 한국통일촉진회편, 『북한반공투쟁사』, 1970, 356면; 육군본부, 『육군사』 2, 1960, 80면;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482-483면.

지역에 정보망을 구축하려는 구상을 가졌지만 실현하지 못했다.<sup>885)</sup>

공군 정보기구는 1948년 7월, 육군 항공기지사령부 정보과로 발족된 후, 같은 해 12월에 정보처로 개편되었다. 이어서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공군본부 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정보국은 제1과 전투서열과, 제2과 특무과, 제3과 첩보공작과, 제4과 지도·통신·사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국 직속으로 38선 접경지역인 황해도 청단과견대와 백천과견대, 경기도 동두천과견대가 있었고, 제3과 산하에 태극호공작대, 현무공작대, 계림공작대 등과 2개소의 과견대가 있었다.<sup>886)</sup>

미 군정시기에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소속 정보부는 정부수립 후 작전국 아래 정보과로 바뀌었고, 각 지구에 방첩대가 있었다.<sup>887)</sup> 그리고 상술한 대로 호림부대 중 일부 대원으로 구성된 어룡대가 동해안 묵호를 중심으로 대북 첩보활동을 수행했다. 전쟁 직후 이들은 전부 해병대에 입대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에 참가했다.<sup>888)</sup>

한편 전쟁 전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첩보활동 또한 미 육군 정보기관이나 중앙정보국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sup>889)</sup> 그러나, 극동군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서 일부 첩보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그들이 철수하는 1949년 6월까지 정보참모부 제224방첩대가 남한전역에 지부를 두고서, 남한의 정치정세를 비롯해 북한지역의 소련군과 북한군 동향, 38선 충돌 등에 대한 정세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였다. 그 후 1946년 4월 1일부로 제971방첩대 파견대가 그 임무를 대신하였다. 이 부

884) 조갑제, 『짧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102-103면; 강신탁 증언, 2003. 3. 5, 6; 백선엽 장군 증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실, 2003. 3. 12. 백선엽 정보국장 시절, 차장은 김점곤, 2과장 한무협, 3과장 김안일 등이었다(『한무협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술총서 발간 예정).

885) 구상, 『이용문 평전』,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90면.

886)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575-577면, 582-590면.

887)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 해군사』 2(행정편), 1958, 41-42면;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 1970, 1.1-4면.

888) 김시홍(예, 해병중령), 『나의 회고』, 『건국회보』, 1990. 3. 25.

889) John Patrick Finnegan, *Military Intelligence*, Center of Mil. History, USA, 1998, p. 114.

대는 도쿄의 제441방첩대의 통제를 받았으나, 실제 정보수집은 한국인이 수행했다. 이들 가운데 전쟁시기 고트대(Goat Net)의 간부인 최규봉은 동두천과전대에서 활동했다.<sup>890)</sup>

미군이 철수한 후 한국에 남겨진 군사고문단 소속 제308방첩대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보의 경우 한국군 첩보대와 경찰에 의존했고 주로 38선 충돌에 대해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첩보수집 능력이 약화되어, 북한군의 동향 정보는 이전 미 군정시기에 비해 자세하지 못하고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졌다.<sup>891)</sup>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는 1949년 6월 1일<sup>892)</sup> 서울에서 한국인 대원을 모집하여 주한연락처(KLO: Korea Liaison Office)를 창설하였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의 윌로우비(Charles A. Willoughby) 정보참모부장은 한국이 동 사령부 지휘를 벗어나 미 국무부 관할에 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sup>893)</sup>

KLO의 임무는 북한정부기관, 군 및 산업기관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sup>894)</sup> 대원 규모는 미군 정보요원 5명과 이윤명, 전준, 박태현, 김형섭, 최학

890) 최규봉, 『나는 KLO부대장이었다』, 『신동아』 1982.6, 254면; 정병준, 『해제』,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소편, 『미군CIC정보보고서』 2, 1996, 해제, 6-7면;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정보일지』 1-7, 1989 참조; “Historical Report”, Jan. 1-Oct. 31, 1950, 군사편찬연구소, SN 1340.

891) 정용욱, 『한국전쟁시 미군 방첩대 조직 및 운용』,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연구총서』 1, 2001, 41-42면;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1-2, 1989; “Weekly Activities of KMAG”, June 27, 1949, Box 8/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국편 0112161); *Dark Moon*, pp. 10-11.

892) 계인주, 『맥아더 장군과 계인주 대령』, 167면;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S, FEC GQ, “Memo for Gen. Willoughby”, May 15, 1951, 『KLO·TLO문서집』 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p. 1. 하기와라 료는 미 극동군사령부 첩보부대가 1949년 여름부터 중공군 중 조선계 중국인 부대 3만명이 장비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북한의 남침의도를 경계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KLO를 설치하였다고 평가했다(하기와라 료, 『한국전쟁』, 한국논단, 1995, 252-253면). 그러나, 이미 1948년 4월 중순부터 첩보원에 대한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박태현 증언, 2002. 11. 24).

893) 연정, 『윌로비 장군과 나』, 『경향신문』, 1973. 5. 19.

894) 하기와라 료, 앞의 책, 248면, 252-255면; “KLO Report”, May 15, 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KLO·TLO 문서집』 1, 2000, p. 1.

빈 등 한국인 정보원 10명 정도로 출발했다. 이들로부터 ‘산대’(San Net : 한국인 책임자 전훈), ‘땀대’(Tam Net : 전준), 위스키대(Whisky Net : 박태현)가 창설되었다.<sup>895)</sup> 이 외에 ‘트리블대’(Trouble Net : 김원길)<sup>896)</sup>가 편성되어 각 팀마다 30여 명씩의 공작원이 있었다. 공작원을 모집할 때, 서북청년회 부회장 김성주가 반공주의 단체인 ‘양호단’이나 ‘정의사’,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등에서 선발하도록 추천했다고 한다.<sup>897)</sup>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에는 공군 특수첩보대(ASIS)도 있었다. 도널드 니콜스(Donald Nichols)가 지휘하는 일명 ‘네코부대’는 1946년 한국에 와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안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한국의 정치·군사·인물 정보 등을 수집했다.<sup>898)</sup>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9월 중앙정보기구였던 전략사무국(OSS)을 해체했으나, 1947년 9월 국가안보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중앙정보국(CIA)을 창설했다.<sup>899)</sup> 그러나 당시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에서 CIA의 역할을 워싱턴에 있는 그의 반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CIA는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해야 했다.<sup>900)</sup>

895) 전준이 재일조선연맹을 통한 일본공작을 위해 건너가자, ‘땀대’에 소속되어 있던 금종태, 엄숙진 등은 별도로 ‘특수공작대(SOU 혹은 SRU)’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전쟁 전에 북한으로 파견된 김재윤 등 20명과 현지에서 포섭된 5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Yu Ki, 『희생자일람표』, 연도 없음; 엄숙진·전수광 증언, 2003. 11. 13).

896) 트리블대는 개성(양대원), 청단(김이준) 등에 대원을 파견했다고 한다. 전쟁이 난 후 김원길은 미 국무부 관련 첩보기구로 떠나고, 트리블대는 대구에서 뽀스대(Wimpus Net)로 재편되었다(윤영중 증언, 2003. 12. 17).

897) 최규봉, 앞의 글, 254-255면;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미 극동군사령부 직할 첩보부대』, 1992. 3. 13; 박태현 증언, 2002. 11. 24, 12. 10; “KLO Report # 365-B”, Feb. 27, 1950, 『KLO·TLO 문서집』 1, p. 27; “KLO Report # 406-B”, March 22, 1950, 같은 책, p. 39.

898) 『한·미합동첩보비화 ‘6006부대』 1, 『중앙일보』, 1971. 8. 3; 『6·25 동란 비화』, 『경향신문』, 1973. 5. 19; 하리마오,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 새로운 사람들, 1998, 121-122면.

899) 박영일편저, 『강대국의 정보기구』, 현대문예사, 1994, 290-292면.

900) 『위험한 임무』 1, 『서울신문』, 1991. 8. 3; *Dark Moon*, p. 7. 1950년 4월경에 비로소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 극동군사령부와 협의를 했으므로, 전쟁 전까지도 한국에 파견된 요원은 없었다는 진술도 있다(Richard G. Stilwell, “Guerrilla warfare as conducted in the Far East”, US Psychological Warfare School, Fort Bragg, N.C. July 25m 1955, p. 6).

## 나. 첩보 수집활동

전쟁 전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월남민을 통해서 획득하였다.<sup>901)</sup>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기도와 징후와 같은 군사적 극비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북한에 첩보원을 밀파하거나 현지 거주 고정 첩보요원들을 확보했다. 그들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쟁이전 남한지역에서 좌익세력이 무장투쟁을 강화할 때이므로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진압, 군내의 좌익세력 색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북 첩보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902)</sup>

육군 정보국 산하의 '38무역'이라는 대북교역기구를 활용하거나, 서북청년회·대동청년단·대한청년단 등의 일부 대원들이 군·경과 연계하여 38선을 넘나들며 대북 정보를 수집했다. 이 외에 북한지역으로 요원을 직접 침투시키기도 했다. 그 사례로, 1949년 8월 해군 첩보대원들이 탄 공작선이 평북 대화도에서 활동하다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게 발각되어 탈출했다.<sup>903)</sup> 1950년 4월 중순 해군 어룡대 소속의 안해룡, 이인철 대원 등도 원산항 앞 바다의 알섬에 침투해 선원 20여 명이 탄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북한실정을 수집했다고 한다.<sup>904)</sup>

KLO 대원들은 1949년 6월부터 약 1년간 체계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1,195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417건이 미 육군부에 보고되었다. 전쟁 이전 북한에서 활동한 KLO 첩보원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반공 인사들과 연결하여 활동했다. 그 가운데 북한군 제105기갑여단에 소속한 연대 참모장 김 모는 비둘기를 이용해 첩보를 전하던 중, 체포되어 전쟁직전 사형

901) American Embassy, "Record of an Interview with a Recent Refugee from North Korea" Aug. 5, 1949, 69/263 Records of the CIA; American Embassy, "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OK, July 1949", Aug. 10, 1949, 69/263, p. 18;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Oct. 19, 1950.

902) 문기섭, 『나의 걸어온 길 가야 할 길』(미발간 수기), 1999, 20면; 해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45면; 『6·25전쟁 증언록』, 567면. 이 무렵 소련의 국경지구에서 다년간 근무했다는 회고도 있으나(문광일, 『소련정보부비밀전 고찰』, 『육군』, 1950. 1, 8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903) 『위험한 임무』 1, 『서울신문』, 1991. 8. 3; 채철석 증언(전우회 사무실, 2002. 11. 12).

904) 최순길, 『추억도 새로운 나의 전기』, 해병대 정훈감, 『해병장병문예집』 1, 1953, 41면; 김시홍(예, 해병중령), 『나의 회고』, 『건국회보』, 1990. 3. 25; 『고문단정보일지』 1, p. 459.

되었다고 한다.<sup>905)</sup>

이러한 활동을 소련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한 공무원들이 북한의 각 도에 테러와 파괴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들 단체들에게 새로운 단원의 충원, 첩보 활동의 수행, 봉기 계획의 수립을 지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9년 9월 중순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는 남한이 보낸 스파이, 테러리스트, 파괴분자들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이러한 단체들이 평양에서 2개, 해주에서 1개, 신의주에서 1개가 적발되었다면, 북한당국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sup>906)</sup>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원들이 수집한 북한 정보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것이었으나 전쟁 전에 가장 중요한 첩보는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과 남침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군 사단 증편이나 탱크 등 장비 도입에 대한 정보는 계속 입수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 정보국은 정보수집 능력을 비난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정보국장 장도영은 북한의 정세와 전투능력, 동태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했고, 그 분석과 판단이 한·미 정보기관 중 가장 정확했다고 주장했다.<sup>907)</sup> 전투정보과장이었던 유양수도 전투정보과 북한반은 미국 정보원 같은 능력은 없었지만 북한군의 38선 집결과 공격준비가 100% 완료된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sup>908)</sup>

그러나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나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한국측 정보를 믿지 않았다. 미 제308방첩대는 한국측의 첩보능력을 ‘전적으로 부적절했다(totally inadequate)’고 평가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얻기 위한 과장된 정보라고 이해했다.<sup>909)</sup>

905) 노먼 존스(박성희역), 『노먼 존스의 한국작전』, 삼진기획, 1991, 336-337면; 하기와라 료(최태순역), 앞의 책, 249면;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582면.

906)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1949. 5. 2, 41-44면,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김광린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17면; 『남북한 정세에 대한 대사관 분석 보고』, 1949. 9. 15, 같은 책, 36-37면; 최풍렬 강원도 내무부장, 『스파이 침입단속 강화에 대한 긴급지시』, 1950. 5. 31, 국사편찬위원회.

907)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183면.

908) 김영훈, 『워싱턴은 극동사령부 G2의 남침경고를 묵살했다』, 『신동아』, 2001. 7, 440-441면; 유양수 장군 증언(박정희대통령추모사업회, 2002. 11. 18).

전쟁이 발발한 후 미 제8240부대로 흡수된 미군 지휘하의 KLO 대원들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전쟁초기 국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북한군의 초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소련제 탱크 정보에 대해 1950년 3월, 상술한 북한군 제105기갑여단 연대 참모장 김 모로부터 북한이 대규모 탱크 기동을 계획 중이며 6월 중에 남침을 도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sup>910)</sup> 5월 중순 또 다른 첩보원은 북한군 제4~6사단의 지휘관·병력 규모·장비·주둔지역 등을 보고했다.<sup>911)</sup>

이러한 사례 외에도 전쟁 직후에 미 극동군사령부가 그들의 정보능력으로 북한의 남침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가운데 KLO 대원이 획득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50. 3. 15(San No. 93); 1950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내무성 경비국에서 열린 인민군 대대장급 지휘관 360명의 회의 내용이다. 15일 김일성이 1949년에는 북조선을 방어하는데 그쳤으나 금년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영웅적 투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 평가 F-6).
- ② 1950. 3. 31(T-i3); 38선 접경지역의 주민 소개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고 38선을 통해 남한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C-3).
- ③ 1950. 3. 31(San. No. 64 Seagull); 38선 지역의 도로와 다리 보수 사실을 보고하면서, 기타 사항으로 북한주민 대부분은 조만간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함(C-3).
- ④ 1950. 5. 10(San No. 121-Bicycle); 중공군내 조선족의 북한군 편입으로 북한군 6사단 창설. 기타-북한군 장차 13개 사단을 증설할 것이라는 소문을 보고함(F-6).

①번 첩보는 김일성의 연설을 보고한 내용으로 크게 주목할 수 있었지만,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이를 정보원(source)이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F-6으로 평가하였다. 더욱이 이 첩보는 3월 15일 첩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5월 15일에 극동군사령부로 보고되었고 워싱턴의 육군부에는 6월 3일에

909) 이형근, 『군번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1993, 44-45면; 『6·25전쟁 증언록』, 625면;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71면; *Dark Moon*, p. 11.

910) 노먼 존스(박성희 역), 앞의 책, 337면

911) 『KLO·TLO문서집』 3, p. 296.



이르러서야 보고되었다. ④번 역시 F-6 등급으로 처리했다.<sup>912)</sup> 당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세인식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의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보고된 북한남침 첩보<sup>913)</sup>를 비롯한 각종 첩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전쟁시기 KLO 첩보대 조직과 활동

### 가. 조 직

#### (1) 국군 첩보대

전쟁이 일어나자 국군의 첩보와 방첩 조직은 거의 붕괴될 형편이었다. 1950년 6월 28일경에는 전선으로부터 후퇴하는 일선부대로부터 적정보고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본 정보국은 시흥에서 정보상황실을 설치하였다가 육군본부에 따라 수원으로 후퇴한 후 대전을 거쳐 대구로 이동했다. 대구에서 비교적 안정을 찾아 첩보요원의 선발과 훈련, 전시 후방방첩업무 강화, 통신정보 등 정상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했다.<sup>914)</sup> 같은 해 11월 17일, 행정서무관계를 제1과, 전투정보과를 제2과, 공작과를 제3과, 기술정보과를 제5과로 개칭했다. 그 후 1951

912) “Reveal Capital Got MacArthur Warning on War”, Chicago Sunday Tribune, Aug. 20 1950; “KLO #424”, Mar. 31, 1950, 『KLO·TLO문서집』 1, p. 48; “TE-482-50”, Apr. 1, 1950, 『KLO·TLO문서집』 1, pp. 240-242; “KLO #457-B”, Apr. 21, 1950, 『KLO·TLO문서집』 1, p. 64; “KLO #498-C”, May 15, 1950, 『KLO·TLO문서집』 1, pp. 75-77; “KLO #518”, May 25, 1950, 『KLO·TLO문서집』 1, pp. 97-99; “Intelligence in War: A Brief History of Macarthur’s Intelligence Service 1941-195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KLO·TLO문서집』 3, pp. 291-292.

913) 1950년 1월 5일, 북한이 3~4월중 남침할 것으로 보고했고, 3월 10일에는 북한군이 6월에 남침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방선주, 『KLO 문서해제』, 『KLO·TLO문서집』 1, pp. vi-vii; “KLO # 518”, May 25, 1950, 같은 책, p. 98).

914) 방첩업무를 위해, 1950년 10월 21일, 국본 일반명령 제91호로 육본 직할로 특무부대를 창설하여(부대장 육군대령 김형일), 정보국 방첩업무를 계승했다고 한다(『육군특무대약사』, 육본, 『전사』 13, 1953.12, 5면).

년 3월 5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2호로 경북 대구에서 제3과의 첩보관계 업무를 분리 독립해 첩보부대(부대장 이극성 중령)로 개편하였다. 당시 미 제8군연락장교단을 해체·편입하여 첩보활동을 강화했다. 첩보대는 본부대를 비롯해 11개 지대가 있었고, 첩보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문관의 T/O는 2,000명이었다.<sup>915)</sup>

육군첩보대는 직할대로 제36지구대, 27지구대, 18지구대를 설치하였고, 각 군단과 사단에<sup>916)</sup> 지대를 파견했다. 제36지구대는 연대 규모로 속초에 본부를 두고 동해안 지역의 여도, 양도, 화진포 등에 지대를 두었다. 제18지구대는 인천에 본부를 두고 서해지역에서 대북첩보활동을 했다. 1951년 2월 25일부로 육본에서는 각 사단과 지구에 파견되어 있는 첩보기관을 일원화시키고 그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각 첩보대를 사단에 배속하여 주로 전투정보를 수집했다.<sup>917)</sup> 실제 첩보활동을 수행한 공작원은 현역도 아니고, 문관이나 군속도 아닌 신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현지입대를 했다.<sup>918)</sup>

정보국 공작과에서는 1950년 8월 중순 손진·정명도 등 12명으로 ‘대한유격대’를 편성하여 ‘유엔군 서울 입성 환영준비회’의 구성, 뼈라살포, 요인 구출 등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울에 파견하였다고 한다.<sup>919)</sup> 첩보대 직할대 가운데, 1952년 12월 대북한 침투와 공작활동을 위해 HID 제1교육대가 창설되었다. 대원들은 이를 ‘북한산부대’ 혹은 ‘북한산특전대’라고 불렀다. 교육대

915) 『국본 일반명령(육)』 제52호, 1951. 3. 6; 『조선일보』, 2003. 9.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2001, 249면.

916) 1951년 1월 하순 리지웨이 장군은 이 대통령에게 적 후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를 원했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때 신성모 국방장관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국군 제1사단과 제6연대처럼 왜 한국군 사단에 정보참모(G-2)를 허용하지 않느냐고 의의를 제기했다. 각 사단에서 G 2가 있다면 요원을 파견해 첩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지웨이 장군은 깜짝 놀라면서(rather surprised)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든 한국군이 각각 G-2를 두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Francesca’s Diary”, “Feb. 1, 1951, 『대한민국사자료집』 29, pp. 432-433).

917) 『육본 작전지시 제16호』, 1951. 2. 12, 『한국전쟁사료』 63, 689-693면; 보병제2사단 민심처, 『노도부대사』 1, 1995, 149면; 김동석 증언(2002. 12. 13).

918) 한무협(예, 소장)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언자료집』, 2004년 발간예정. 요원 가운데 북한에서 치안대활동을 하다가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한인석, 『연백지』, 1988, 429-440면).

919) 윤치영, 『나의 이력서』 71, 『중앙일보』, 1981. 10. 17; 손진, 『김창룡 중령과 나와 박순천 여사』, 『건국회보』 2002. 3. 8; 손진, 『입대기간중 활동사항』, 2002. 12. 9.

장에는 구월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원대 복귀한 김종벽 대위가 맡았다. 1952년 11월 하순 그는 육군으로부터 유격부대 조직을 명령받고 옛 부하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대원들을 모집한 후, 제1기 124명, 제2기 158명, 제3기 71명에게 첩보교육을 실시했다.<sup>920)</sup> 또한, 중공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화교부대(Seoul China, SC시대)가 1951년 가을쯤 편성되었다. 그 규모는 70여 명으로 3개 소대와<sup>921)</sup> 중국 방면대, 교동파견대, 퇴조도파견대 등으로 편성해 운용했다고 한다.<sup>922)</sup>

해군과 공군에서도 정보부대를 각기 운용했다. 전쟁이 발생하자, 공군 정보국 제3과에서는 첩보공작을 위해 조치원지구, 인천지구 등 6개의 파견대를 운용했다. 1951년 5월 공군본부 직할부대로 특무부대가 대구에서 창설되었고, 1952년 1월 공군 제90특무대로 개편되어 예하에 제191, 192, 193, 194, 195 등 5개 특무대를 두었다. 이때, 공군특무대는 미 극동공군 제6004부대 제2파견대를 개편한 제6006부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그 규모는 200여 명으로, 서해안 말도(聾島), 동해안 여도 등지에 30여 명씩 파견되었다. 1953년초에 이르면, 특무대가 첩보대로, 방첩대는 특무대로 바뀌었고 정보학교도 설치되었다.<sup>923)</sup>

전란으로 인해 해군본부가 해군작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감실이 정보참모실로 개칭되었다. 이후에 정보감실로 환원되었다가 정보참모실로 개편되기를 반복했다. 본부기구 아래에 첩보대와 정보교육대가 있었고, 첩보대에는 동해안 제1지구, 서해안 제2지구, 서울지구로 편제되었다가, 1952년 7월 서해안에 제3지구가 증편되었고, 1953년 서울지구를 제5지구 첩보파견대로 편성했다. 이들은 미군 CRDG(Combat Research Development Group)와 함께 합동공작을 했다고 한다.<sup>924)</sup>

920) 김종벽 등, 『북한산특전대』, 1991. 5. 4(특전사 역사관 소장); 이종환, 『북한첩투 HID, ‘북한산부대’의 최후』, 『신동아』, 1994. 4, 456-458면.

921) 제1소대장 遲建藩, 제2소대장 金立志, 제3소대장 劉玉傑 등이었다.

922) 진유광, 『수색대해체』, 『중앙일보』, 1979. 12. 5; 『문화일보』, 2002. 6. 4; 지건번(동지회 회장) 증언, 2002. 11. 8.

923) 국방부 병무과, 『중군자복무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962. 10. 10(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한·미합동첩보비화 ‘6006부대’』, 『중앙일보』, 1971. 8. 3; 공군본부, 『공군사』 1, 1991, 314-319면; 『6·25전쟁 증언록』, 573면, 591면, 604면; 윤일균 장군 증언, 2002. 12. 9.

924) 해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42-54면; 이성기(예, 대위) 증언, 2003. 10. 20.

## (2) 미군과 CIA 첩보대

6개월 사이에 북한군 남침과 중공군 개입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미국은 군과 중앙정보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sup>925)</sup>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미군 각 사단 G2와 KLO를 통제했다. 195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441방첩대로부터 각 사단에 파견된 지대의 규모는 376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도쿄에서 애보트(Leonard J. Abbott) 소령이 각 사단의 G2와 연계되도록 했고, 각 사단 G2는 미 제8군과 미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하도록 했다.<sup>926)</sup> 이 과정에서 미 제8군이 현실적으로 KLO대원을 통제했으나, 극동군사령부의 제442방첩대가 1950년 12월 20일부터 활동하였으므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442방첩대의 임무는 미 극동군사령부의 지시업무를 수행하고 극동군사령부연락단(FECLG)을 통제하는 것이었다.<sup>927)</sup> 이후 단일 기관이 적 전선 후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 위해, 1951년 7월 26일 극동군사령부주한연락처(FEC/LD/K)가 창설되었다. 이때 제442방첩대의 인력과 기능이 제8240부대로 이관되었다.<sup>928)</sup> 미군 요원들은 한국인 첩보원을 쉽게 모집하여 작전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sup>929)</sup>

CIA는 미 극동군 사령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했다. 이미 1950년 7월 특수작전과(Office of Special Operations)에서는 한국인 첩보요원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정책조정과(Office Policy Coordination)에서도 9월 부산 동래에 기지를 건설하고, 10월 서울에 임시기지를 만들었다. 10월 중순부터 특수작전과에서는 요원을

925) 전쟁이 발발한 후 DALD(Department Army Liaison Detachment) 산하로 거제도의 한 섬에서 훈련을 받다가, 원산이 함락되자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중국어 가능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산되었다는 술회도 있다(박두현: 울팩제8부대 대대장, 증언, 2002. 6. 24, 2003. 8. 8).

926) HQ, 442 CICD, "Tactical Intelligence for 8th Army", Aug. 22, 1950, 『KLO·TLO문서집』 2, p. 310; The Military History Section of HQ, USAF & 8th Army,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Problems During the Korean Conflicts"(manuscripts), Center of Mil. History, USA, p. 43.

927) HQ, 442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1951. 2, 『KLO·TLO문서집』 2, pp. 452-453; John Patrick Finnegan, *op. cit.*, p. 119.

928) 정용욱, 앞의 글, 42면; 『유엔군 유격전』, 1988, 59면; HQ, CCRACK, "Task Organization", Jan. 28,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HQ, CCRAC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Feb. 1, 1953, 같은 문서; John Patrick Finnegan, *op. cit.*, p. 119.

929)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Fort Knox, Kentucky, Apr. 1952, p. 13.

이름	성명	소속	직위	직책	소속	직위	직책	소속	직위	직책	소속	직위	직책	소속	직위	직책
김영기																
김영기																
김영기																
김영기																
김영기																
김영기																

제8240부대 산하 부대의 활동과 해체  
1952. 5. 8

책부대 요원의  
물품요구서  
(강인모 제공)

북한 후방지역으로 침투시켰고 중공군 개입 이후까지 활동하게 했다고 한다.<sup>930)</sup> 이후 1951년 7월 2일 한반도에서 작전과 정보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두 과를 책부대(JACK: Joint Advisory Commission Korea)로 통합했다.<sup>931)</sup> 부산 동래에서 서울로 본거지를 옮긴 책부대는 북한 서해안의 여러 섬에 파견대를 보내 비밀 정보망을 구축했으며 원산 앞 여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활발한 첩보활동을 하였다.<sup>932)</sup> 1953년 4월초 책부대 소속 통역관 김용기, 무선사 오희양, 선원 김조당 등 7명이 속초와 여도, 양도 등지에서 첩보대원을 수송하였다고 한다.<sup>933)</sup>

1951년 11월 28일 극동군사령부와 CIA의 첩보활동을 단일한 기구로 통제하기 위해 연합정찰사령부(CCRAK)가 창설되었다. 1952년 2월 16일부터 국군 첩보대 역시 미 제8군의 통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연합정찰사령부에 정보를 보고했다.<sup>934)</sup>

930)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p. 4-5; *In the Devil's Shadow*, p. 188.

931)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p. 5-6; *In the Devil's Shadow*, p. xvi. 고정훈도 이 기구(DARU/JACK)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HQ, 308th CICD, "Historical Research", Mar. 20,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932) 하리마오,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 새로운 사람들, 1998, 182면; 박선동 증언, 2002. 10. 24.

933) Lt(R). B. W. Collins(U.S.N.), "A Rare Experience"(no. date), 군사편찬연구소, SN 1960.

934) HQ, CCRAK, "Extract from Message Received by G2, 8th Army from G2 AFFE", Sep. 6, 1953, "Clandistine Organizations(CCRAK, HID, etc)" (군사편찬연구소, SN 1978). 북한측 자료에는 미 해군 정보국 소속의 첩보원도 언급되어 있다(『황해일보』 1953. 2. 21).

1952년 9월 28일부로, 연합정찰사령부는 제8242부대(HQ Covert, Clandestine and Related Activities Korea, 8242d AU)의 아래 속하게 되었다.<sup>935)</sup> 1953년 1월 새로 설치된 제8007부대도 연합정찰사령부에 편입되었다. 이 부대는 탈주작전(E&E)을 기본으로 하고, 포로수용소와 포로 인원에 대한 첩보수집과 포로를 탈출시키는 임무 등을 맡았다. 1월 중 40명의 한국인 대원이 훈련을 받았다.<sup>936)</sup>

유엔군 첩보요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선과 달리, 피부색이나 언어 등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위장을 하더라도 발각되기 쉬웠기 때문에 한국인 대원들을 주로 파견하였다.<sup>937)</sup> 극동군사령부연락단은 전선의 보병사단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TLO(Tactical Liaison Office)와 적 후방 침투를 위한 KLO를 조직하였다. 1950년 9월 30일까지 TLO팀은 미군 사단과 한국군 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각 팀은 장교 1명, 사병 1명, 통역 1명, 한국인 대원 20명으로 조직되었다.<sup>938)</sup> 미 제10군단에서도 북한 피난민과 귀순병을 중심으로 비비대(Blue Boy)<sup>939)</sup>라는 첩보대를 편성해 운용했다. 그 규모는 40~50명으로 인제군 관대리에 선봉대가 있었고, 삼섬에 20여 명을 파견하였다.<sup>940)</sup>

KLO 첩보대는 1950년 8월경, 미 제8군사령부에서 부산으로 후퇴해 와 있던 전쟁 전 육군 정보국 차장 계인주 대령을 영입한 후<sup>941)</sup> 더욱 활성화되었다. 미군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군의 병력·장비 규모·보급 현황 등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미 전쟁 전에 활동했던 ‘산대’, 위스키대를 활용하는 동

935)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60면, 97면; HQ, CCRA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Feb.1,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In the Devil's Shadow*, pp. 182-185.

936) HQ, CCRA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Feb. 1,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937) 벤 S. 멜콤, 『백호부대 유격전사』, 2001, 249면.

938)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Fort Knox, Kentucky, Apr. 1952, pp.18-19. 1950년 12월, 제442방첩대에서 미 제1기갑사단 TLO 대원으로 활동한 경우나, 충주에서 합류한 경우도 있었다(김선희 진술, 2002. 12. 5; 이광표 진술, 2002. 1. 30).

939) 15세 이하의 소년들도 모집되었다(김선희, 앞의 책, 34면).

940) 장부길, 『유공사실확인서』, 날짜 없음; 장부길 증언, 2003. 12. 2; Technical Intelligence Detachment, HQ X Corps, ‘Certificate : Choe Ku Bong’, Sep. 29, 1950(전쟁기념관); *Dark Moon*, pp. 87-89.

941) 계인주, 앞의 책, 152-154면. 계 대령은 군내 갈등으로 사실상 군을 이탈한 상태였다.

시에 별도로 서해안에서  
어선 한 척으로 ‘살러맨더  
작전(Operation Salamander)’  
이라는 해상첩보대 활동을  
시작했다. 미 해군 순시선  
(‘Q’ Boat)이 도입되어 첩  
보원들의 기동력이 크게  
향상되었다.<sup>942)</sup>



미 제8240부대 입구와 계인주 대령

특히 인천상륙작전 이후  
첩보활동이 활발해졌다. 제1공작지구대(대장 이철), 고트해상대(대장 이지녕)<sup>943)</sup>  
등이 새로 조직되어<sup>944)</sup> 일부는 평양으로 가서 첩보를 수집하였다. 1950년 연말  
을 전후하여 ‘래빗(Rabbits)’으로 불렸던 여성첩보대원들이 투입되었다.<sup>945)</sup> 유엔군  
은 북진할 때 현지에서 첩보원을 모집했다. 1950년 10월 개성에서 치안활동을  
하던 ‘혈투공작대’ 대원 11명이 북진하는 KLO 첩보대에 가담하여 평양까지 올  
라갔다. 이 가운데 대원 8명은 함경북도로 출동하였다. 중공군의 개입 후에는 대  
원들이 ‘산대’에 합류했다.<sup>946)</sup>

1951년 12월 대원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 여러 첩보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미  
제8240부대 산하로 재편했다. 계인주 대령 아래, 총무과장 박태현, 공작과장 최  
규봉, 보급과장 전훈 등이 간부진이었다. 김인직 소령과 안기욱 대위도 보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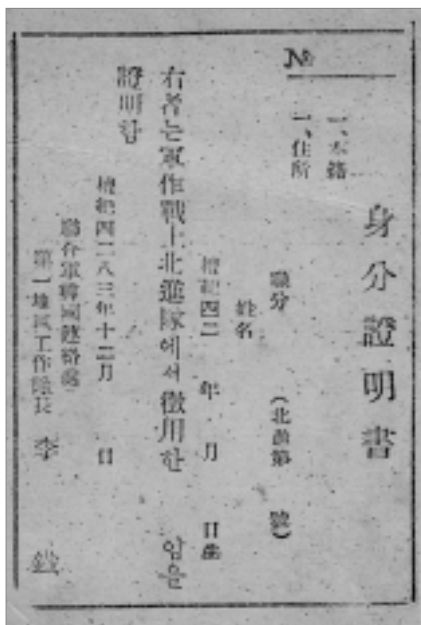
942) 김선한, 『X』, 디지털에프케이, 2000, 26면;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pp. 46-49.

943) 1951년 1월 20일경, 부산에서 17명으로 고트해상대를 창설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간부는 부  
관 박창련, 공작부장 이연길, 총무부장 박원 등이었다(이연길, 『해상고트대 역사』, 200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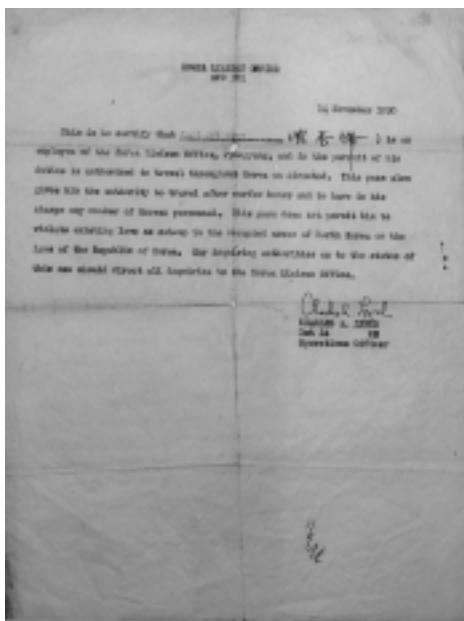
944) 1950년 9월, 부산 동래에서 ‘SOU’가 창설된 후 동서해안에 파견대를 두었다. 서해안 윤민섭,  
동해안 박세갑이 책임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창설시기가 1952년 4월경이고, 그 소속도 국무  
부산하라는 주장도 있다(『군번없는 냉전의 전사 KLO 비화』, 477-478면; 『대북첩보공작부대  
의 피어린 발자취』, 『디지털경제신문』, 2000. 4. 17).

945) 김선한, 앞의 책, 26-31면; KLO, Pyongyang, “Certificate : Choi Kyu Pong”, Nov. 14, 1950(전쟁기  
념관). 이 무렵, 제442방첩대 첩보요원으로 강화도 증산에서 첩보수집활동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유예선, 『미 CIC KLO 부대활동 보고서』, 1993. 8. 16).

946) 『이영철 수기』, 1993; 이영철 증언, 2002. 6. 8.



연합군한국연락처 제1지구공작대장 이 철



최규봉 신분증(1950. 11. 14, 전쟁기념관)

으로 활동하였다. 대원들을 3개 중대로 편성했다.<sup>947)</sup> 그러나 미군 측은 여러 첩보대를 통합하는 것보다 분산하여 서로 경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sup>948)</sup>

따라서 KLO첩보대는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위스키대, 산대 등 외에 많은 첩보대들이 새로 창설되거나 기존 부대를 확대 재편했다. 각 첩보대는 부대장의 역량에 따라 그 규모나 편성이 달랐다.

전쟁전 트러블대는 1·4후퇴 후 대구에서 한주석을 책임자로 Wim프스대(Wimpus Net)로 개편되었다. 1951년 7월경 해산된 후 ‘산대’ 교동대, 낙하산 교육대 등으로 편입되었다.<sup>949)</sup> 고트대는 서울본부와 서해안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1952년 10월 경 이들의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최규봉 대장을 비롯한 박양후·조승원·김

947)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5면; 이동욱, 『군번없는 냉전의 전사 KLO비화』, 438면; 계인주, 앞의 책, 168면; 최규봉 증언, 2003. 11. 19. 계인주는 3개의 아지트만 잔류시켰다고 회고했고, 김정일은 10월 하순경으로 기억했다.

948) 이연길 증언, 2003. 12. 8.

949) 윤영중 증언, 2003. 12. 17.





원프스대 대원일동  
(대구, 1951. 5. 8, 김만중 제공)

철구 등 서울 그룹이 리바이벌대(Rivival Net)로 개편되었다. 서해안에서 활동한 고트해상대는 황해도 송화군 초도에 공작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공작대 별동대·선박대·무전반·심문반·의무반 등을 편성하였다. 대청도(파견대장 이량재), 대화도, 애도(파견대장 최윤수), 우리도, 취라도 등에 파견대를 두고 평안남북도, 황해도, 만주 등지까지 가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지녕 해상대장이 공작선을 끌고 대화도, 신미도 등에 출동하여 첩보를 수집하다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한 후부터 이연길이가 지휘하였다.<sup>950)</sup>

‘산대’에서는 첩보원의 적진 투하 후 귀환 거리가 멀고 위험한 일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고 정보 가치가 떨어지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서해안과 동해안 도서에 파견대를 설치하였다. 이미 1951년 3월경 ‘산대’ 본부에서는 대한청년단 서울본부 서북처장으로 있던 안홍국을 서해지구 파견대장으로 임명하고, 교동도와 초도에도 파견대를 보냈다.

‘산대’의 교동도 파견대는 배저대(Badger Net)로 재편되었다. 배저대는 교동도 삼선리에 본부를 두고, 대장 노재권, 교육대장 이영철, 공작과장 이강호, 별동대

950) 진유광, 『수색대해체』, 『중앙일보』, 1979. 12. 5; 이경남, 『양호단』, 『경향신문』, 1987. 11. 25; 이연길 진술, 『박순자 기록』, 1991. 12, 특전사 역사관 소장; 이연길, 『미 극동군사령부 고트해상대의 결성배경』, 2002. 8.



'산대' 교동도 파견대  
공작과장 아침 훈시

대장 이광휘 등을 간부진으로 하였다. 낙두포, 소수압도, 검도, 순위도 등에 파견대를 두었다. 대원은 200명 정도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영애, 박정숙을 포함하여 여성대원 20여 명이 있었다. 대원들은 황해도 이북이나 연백 출신들로 현지실정에 능통했다.<sup>951)</sup>

1952년 7월 '산대'의 초도 파견대(대장 안홍국)는 근거지를 대청도로 옮기면서 플래시대(Flash Net)로 독립했다. 그 후 본대의 근거지를 굴업도, 삼산도, 주문도 등으로 이동하면서 초도, 순위도, 기린도, 창린도, 연평도 등지에 파견대를 보냈다. 대원의 규모는 공작대원 70명, 전투원 겸 선원 20명, 무전사 15명, 경비 10명 등 100여 명이었다. 공작대원 가족 30명도 돌보았다고 한다.<sup>952)</sup>

위스키대는 윌로우대(Willow Net)로 개편되었다. 서울 본부에는 공작과장 박상훈 등 최소 인원만 있고, 강화도(파견대장 조창준), 교동도(임선순), 초도(배동훈) 등의 파견대는 자체에서 공작원을 모집하여 인원을 보강하였다.<sup>953)</sup> 규모가 비교적

951) 이강호 고증, 『배저대』 1992. 2. 16, 특전사 역사관; 이동욱, 『군번없는 냉전의 전사 KLO 비화』, 444-446면. 대원 규모를 400명 정도로 기억한 경우도 있다(특전사 역사관, 『미 극동군사령부 직할 첩보부대』, 1992. 2. 6; 김정일·김위철, 『연혁 및 간략 전과』, 1992. 12; 김정일 증언, 2003. 12. 11).

952)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8-30면, 특전사 역사관 소장.

953) 박태현 증언, 2003. 10. 13.

큰 파인애플대는 서해안 강화도 지대와 동해안 양도지대를 두고 활동하였다.<sup>954)</sup>

1953년 초 울퉁부대의 게릴라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퍼윌(Whippoorwill)대가 새로 조직되었다. 또한 보름도대가 스타(Star)대로 바뀌었다. 이해 2월 위즈(Whiz)대, 타이거대, 다이아몬드대, 니트로스타치(Nitrostarch)대가 새로 편성 중이었다.<sup>955)</sup>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용된 적이 있는 턴코트(Turncoat)대는 북한군이나 중공군 귀순자 혹은 포로를 대원으로 활용했다. 중공군 포로도 70여 명이 활동했다고 한다.<sup>956)</sup>

TLO팀은 미군 사단과 영국군 여단에 파견되어 각 사단 정보참모부의 통제를 받았다. 1개 TLO팀은 한국인 대원 20~30명 정도로 구성되었고, 3~4명의 여성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 대원은 김병직·김보현·강영자 등 모두 30여 명이었다고 한다. 미 제1해병사단과 7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TLO에는 소규모의 유격부대를 편성하여 작전지역 방어, 노출된 첩보요원의 귀환 등 첩보요원의 작전을 지원했다.<sup>957)</sup> 이들은 정찰능력이 필요로 한 미군



TLO복무 증명서

954)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955)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8면, 특전사 역사관 소장;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956) 최규봉, 앞의 글, 268면; 이동욱, 앞의 글, 434면, 439-440면; 정용욱, 앞의 글, 46면.

957) 『여 상이용사가 사랑의 인술피』, 『주간여성』, 발간일 불분명; 김선희 증언, 2002. 12. 5; 조영림 증언, 2002. 12. 13; 김병직 증언, 2003. 12. 9; HQ, FEC LD(K), 8240th AU,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Report for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미 해병사단 TLO 윤기하 대장 외(1952, 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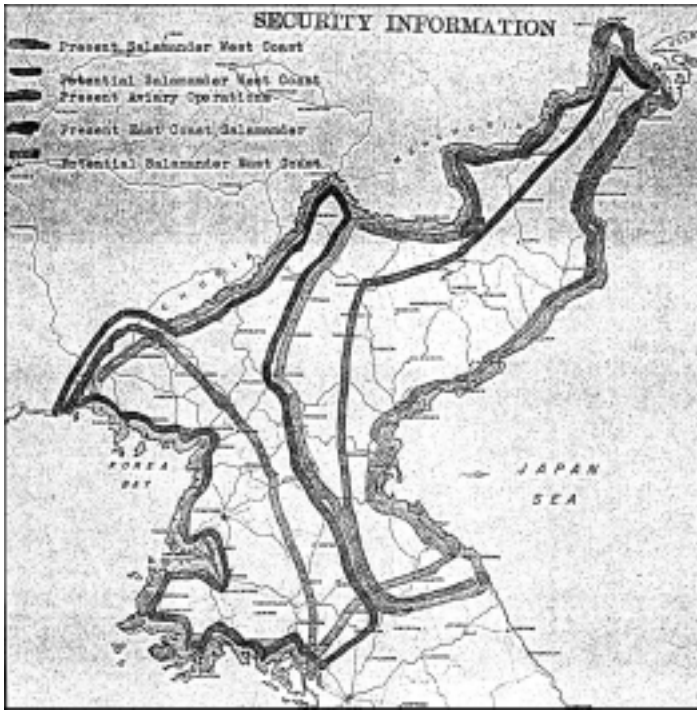
각 사단에서 소규모의 특수정찰중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sup>958)</sup>

새로운 부대의 창설, 기존 부대의 개편 등을 거치면서 <표 5-10>에서처럼 1953년 2월 중 고트대와 위스키대가 속한 서부 샬러만더(Salamander) 부대는 제1부대로, 배저대 스타대 플래시대 등을 제2부대로, 전선의 TLO 팀을 제3부대로, 블루보이대 타이거대 등의 동부 샬러만더 부대는 제4부대, 턴코트대 파인애플대 등을 제5부대로 변경되어 제8240부대(후에 제8242부대) 산하에 첩보부대는 5개로

<표 5-10> KLO 첩보부대 편성(1953. 2)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근거지	초도 이북	강화-초도	전선	동해안	서울(본부)
예하 파견대	체리 (전 고트) 위스키	배저 플래시 스타 레블 위즈	7개 TLO 팀	블루보이 여도 양도	턴코트 윌로우 파인애플 니트로스타치 다이아몬드 리바이벌 블루 라디오팀 아이시(IC)블루

958) 『미 싱글로브장군 회고록/위험한 임무 2』, 『서울신문』, 1991. 8. 7.

<요도 5-13> 활동지역 요도<sup>959)</sup>

구분되었다.<sup>960)</sup>

각 첩보대의 규모를 비롯하여 전체 첩보대원의 규모는 전사자나 실종자, 신규 모집, 이탈자 등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상술한 대로 플래시대 대원의 수는 100여 명이었고, 스타대의 경우는 1953년 2월 본부와 파견대 69명, 훈련중 대원 24명, 침투된 대원 91명, 북한지역 현지 세포 394명으로 구성되었다. 파인애플대는 훈련을 받은 인원이 1953년 2월 셋째주 192명이었다.<sup>961)</sup>

1953년초 부대본부에서는 작전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포함하여 약 3,000명분에

959) "Intelligence Coverage", Jan. 1953, "Command Report", Jan.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960)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CCRAK Intelligence Reports, Sources, Statistics & Summary", Sep. 1, 1953,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71.

961)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8-30면(특전사 역사관 소장);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해당하는 보급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첩보대원은 1,000여 명을 훨씬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962)</sup> 전사자, 실종자 및 도중이탈자 등을 포함하면 누적 인원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sup>963)</sup>

## 나. 교육과 파견 규모

적 후방지역에 파견하는 대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대원을 보충하기 위한 훈련센터가 있었다. 전쟁이 나자, 1950년 7월 8일 전쟁 전 방첩교육을 주로 했던 국군 정보학교가 임시 폐교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미 제8군 정보연락장교단 요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대구에서 재개교했다. 이듬해 1월 정보국 소속으로부터 제7훈련소로 개칭되었다가, 1952년 3월 6일 육군 정보학교로 발전했다. 육군 첩보대에서는 북한으로 파견하는 공작원들에게 전서구(傳書鳩) 사용법, 모오스 부호, 낙하훈련 등을 교육시켰다.<sup>964)</sup> 한 국군장교는 미 제442방첩대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서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미군 제2사단의 제187공수부대에 배속되어 낙하산을 타고 적 후방에서 침투해 적의 이동상황, 장비 이동, 보급로 등을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던 경우도 있었다.<sup>965)</sup>

공군첩보대의 경우,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장교들의 출동지역이 크게 늘

962) 이연길, 『남북첩보전선의 생과 사』, 644면;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5면; 계인주, 앞의 책, 167-168면; HQ, CCRACK, “Annex 2(Logistics) to Operation Plan A”, Jan. 28,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오학선(위스키대) 증언, 2002. 11. 10. 각 첩보대의 파견대에서 임의로 첩보원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우나, 서울에 3,000명과 서해안 도서 등에 파견된 대원 2,000명 등 5,000명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고, TLO 대원 약 1,800명을 비롯한 6,000명으로 추정한 경우도 있다(이영철 진술, 1993. 8. 30; 『8240부대 편성표』, 1998. 11; 최규봉, 『나는 KLO부대장이었다』, 260면).

963) 과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8,000명에 이르렀다는 추정치도 있다(『남측 첩보전의 비밀』, 『경향신문』, 2000. 7. 5).

964)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31면; 권병태, 『퇴역할 때까지 군사정보 향상에 진력』, 육사 제8기생회, 『노병의 증언』, 1992, 352면; 『6·25 사변 후방전사』(인사편), 육본, 1956, 182-183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250-251면.

965) 문무상(예, 대령) 증언, 1966. 2. 23, 전사편찬위원회.

어나자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도간부 후보생, 행정장교 후보생 가운데 정보요원들을 선발했다. 1950년 9월 7일 제1차로 58명, 9월 18일 제2차로 통신사 25명과 신병 15명 등 40명을 모집해 일본에서 2개월 동안 교육 시켰다. 이는 미군 제6006부대와 공동 작전을 펴기 위한 것이었다. 서해 제부도에서도 첩보교육대를 신설해 첩보수집활동의 기술적인 능력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모든 대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51년 3월 16일에 입대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0일 출동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1951년 8월 평안도 양덕에 출동했던 윤모 대원은 뛰어내리기가 무서워 주저하다가 결국 낙하지점을 벗어나서 마을로 떨어져 북한측의 추격을 받았다고 한다.<sup>966)</sup>

공군 첩보 교육기관에서는 첩보수집과 공작, 낙하산 강하, 적지에 추락한 아군 전투조종사의 구출방법, 위장, TNT 폭과, 유격전, 탈출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미그기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대비해 제트기의 구성, 주요 계기와 기자재, 통신전자장비, 방탄장치 등에 대한 특별교육과 주요 부품의 해체, 절단, 폭발물 설치 훈련 등을 받기도 했다.<sup>967)</sup>

한편, 미군은 익숙하지 못한 한국지형에서 북한군의 군대이동이나 군사시설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자, 첩보 수집을 위해 영등포, 대구, 부산 등지에서 대원을 구했다. 당시 미군은 풍요와 권력의 상징이어서, 미군에 들어가면 최소한 ‘먹는 것’은 보장되었기 때문에 대원 모집이 용이했다. 이미 전쟁 전 첩보 수집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국군에서 유관한 일을 했던 이들이 모여들었다. 작전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출신이 많았다. 대원 가운데에는 여성과 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었고 남한 출신도 일부 있었다.<sup>968)</sup>

서해안에서 활동 중인 유격대원 가운데 선발한 경우도 있었다. 1952년 1월 16

966) 박계주, 앞의 책, 210면; 『6·25전쟁 증언록』, 605면.

967) 『6·25전쟁 증언록』, 568-569면, 575-577면, 591면, 594면, 602면.

968) 『황해일보』 1952. 9. 4; 같은 신문 1953. 1. 4; 『나는 KLO부대장이었다』, 253면, 256면; 『위험한 임무』 3, 『서울신문』, 1991. 8. 10; 이 연길 진술, 『박순자 기록』 1991. 12, 특전사 역사관 소장; 『켈로부대의 숨겨진 전쟁』, 『한겨레 21』, 1997. 7. 3, 79면; 『여성스파이들이 한국전 판도 바꿨다』, 『세계일보』, 2001. 7. 25; 『6·25전쟁 증언록』, 599면.

일 미 제8240부대 예하 정보학교(선린상고)에서 교육생을 모집하자, 동키 제11부대(웅진학도유격대)에서는 이택규·오덕수 등 49명이 지원하여 모두 합격되었다. 이들은 정보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미군 각 사단 정보원으로 배치되었다.<sup>969)</sup>

교육훈련은 일본에서 실시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산 송도 정보학교, ‘심리전학교’, 청파동하우스, P훈련소(Paradise Training School, 신설동), 낙하산 교육대(성북동, 대장 김상복), 무전교육대(성북동)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송도정보학교는 1951년 2월경 신설되어 주로 TLO 대원을 대상으로 15일간씩 교육을 하였다. P훈련소(소장 이철)는 고트대의 무전공작반 훈련소로 1개 반 15~20명 규모로 3개 반이 편성되었다.<sup>970)</sup> 때로는 육군첩보대로 파견을 나가 교육을 받기도 했다. 훈련기간은 2~3주에서 2~3개월 간이었다. 교관들은 남북전쟁사, 중국전사, 제2차 세계대전사 가운데 첩보전 관련자료를 수집해 교육시켰다. 공중으로 투하될 대원들에게는 낙하 훈련, 통신 대원에게는 무선교육이 강조되었다. 북한 지역에 침투해야 하는 만큼, 모든 훈련은 철저하게 인민군식으로 이뤄졌다. 인민군복을 입고 북한 말투를 사용했다. 군가도 ‘인민 군가’와 ‘김일성 찬가’를 불렀다. 북한군 18개 동작 훈련, 탈출훈련, 낙하훈련, 유도와 합기도 등 체력단련 외에 북한과 중국의 언어, 풍습, 지리, 증명서 활용법, 구급, 위생, 첩보수집방법, 북한군과 중공군 편제, 무기와 항공기 식별, 독도법, 측량, 도청기술, 운전사 행상인 교사 건축기사 등의 위장술, 중국어와 러시아어, 무전기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겨울에는 내한(耐寒) 훈련이 포함되었다.<sup>971)</sup>

1953년 2월 중 블루보이대의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임무설명 32시간, 독도법 30시간, 관측법 32시간, 무기숙지 16시간, 체력단련 24시간, 무선교육 60시간, 암호와 해독 16시간, 위장과 은폐 16시간, 내한법(耐寒法) 24시간, 군사정보 16시간,

969) 『학도유격부대전사』, 290면.

970)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4면; 이철 증언, 2002.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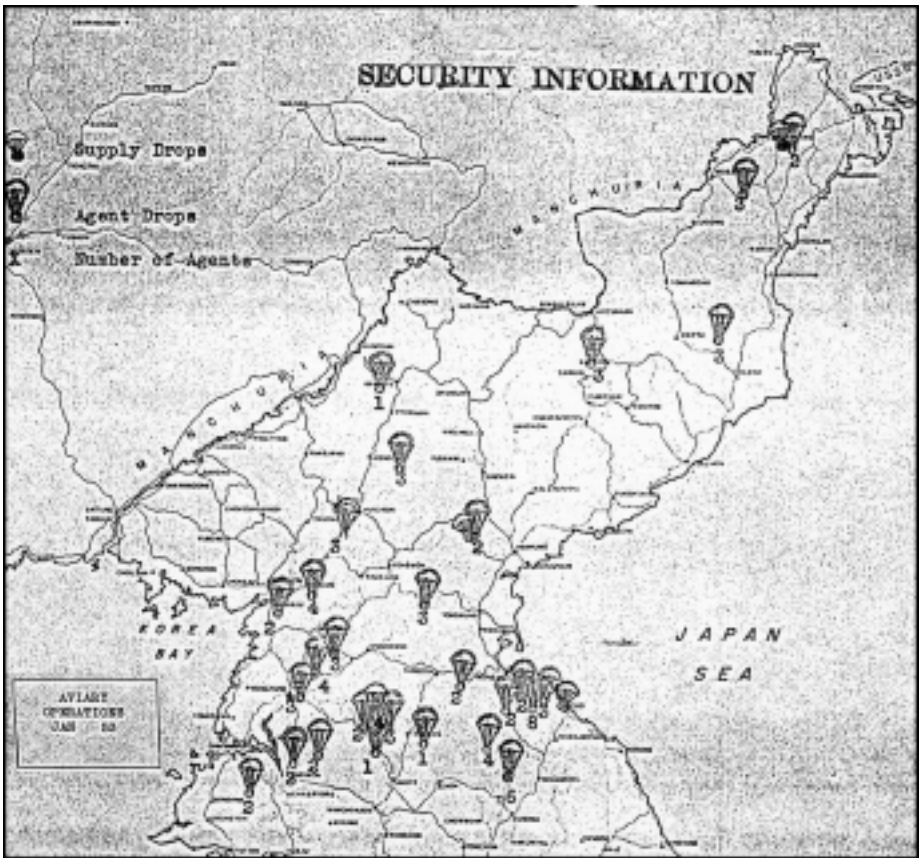
971) 이영순, 『청파동 하우스』, 『세대』, 1967. 10, 288-290면; 이영순, 『니트로 구리세린작전』, 『세대』 1967. 11, 282면;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24면, 28면(특전사 역사관 소장); 『켈로부대의 숨겨진 전쟁』, 『한겨레 21』, 1997. 7. 3, 79면;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미 극동군사령부 직할 첩보부대』, 1992. 3. 13; 최규봉 증언, 2002. 12. 10; 이철 증언, 2002. 12. 13.



북한군 훈련 32시간 등이었다. 툰코트대의 경우, 교육대상이 중국인일 때 한국어 교육을 32시간 배당했다.<sup>972)</sup>

첩보대원들은 일부 중국인을 제외하고 주로 한국인 대원이었다. 미군들은 후방지역에서 활동 중 생포될 것을 우려해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 그들은 초도 이남 지역의 서해안 섬, 동해안의 여도·양도·난도 등을 방문해 첩보대원을 지휘 하면서, 첩보대원들의 출동시 항공기와 선박 내에서 지원활동을 했다.<sup>973)</sup> 한국인 첩보대원들은 전선 후방에 지상과 공중으로 1~8명 규모로 침투했다.

<요도 5-14> 공중 침투지역(1953. 1)<sup>974)</sup>



972)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973) HQ, CCRAK, "a list of personnel", June 1, 1953, "Command Report", Ma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974) "Aviary Operations", Jan.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북한군이 있을 때에는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중공군이 있을 때에는 중공군 복장을 입었다. 대원들은 금목걸이, 의약품을 비롯해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휴대하여 공작활동에 썼다. 무선 연락을 통해 공중으로 재보급을 받았다.<sup>975)</sup>

1952년 6월 10일 한 위스키대 대원은 서해안 초도에서 출발해 청천강 하구인 평남 안주군 연호면 모처로 상륙했다가, 4박 5일간 공산군 주둔 병력 수·무기고 위치, 열차 수송상태 등 첩보수집 활동을 마치고 15일에 귀대했다. 일부는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장, 회사 등에 위장 취업하여 첩보를 제공했다고 한다.<sup>976)</sup>

8월 18일 평안도 양덕군 출신인 한상욱 등 25명은 양덕군 신읍 북쪽에 위치한 북대봉에 투하되었다. 이들의 침투 목적은 평원선 루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적군



적지에 출동대기 중인 대원(이철 제공)

975) *In the Devil's Shadow*, p. 189.

976) 이동협, 『침투활동 내역』, 2002. 12. 6.; 장진 증언, 2002. 6. 8.; 김기영 증언, 2003. 10. 27.



북한 내무서원으로 위장



중공군 복장으로 위장(김기영 제공)

의 병력, 군수품의 종목과 수량, 통과시간 등을 탐지하여 본부에 알려 줌으로써 야간포격을 가능하게 하거나 직접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전기 1대, 담배 각각 10일 분, 식량은 1일분씩 받았다. 나머지는 무전기로 연락하여 보급을 지원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투하 당시 북한측에 노출되어 일부는 체포되고, 또 일부는 사살되었으며 무전기는 파괴되었다. 한상욱은 1년이 넘도록 북한측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거의 산송장이 되어 돌아왔다”.<sup>977)</sup>



낙하훈련

침투와 귀환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5-11>에서 나타나듯이 1953년

977) 박계주, 앞의 책, 206-236면. 이 책에는 1952년 8월로 기술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 1951년 8월로 보인다(208면).

<표 5-11> 턴코트대 파견(1953. 2)<sup>978)</sup>

대원수	침투일자	방 법	귀환일자	귀환지점	성 과
2명	2. 4	지 상	2. 6	미 제25사단	보고 1
2명	2. 6	지 상	2. 10	제45사단	보고 1
3명	2. 10	지 상	2. 13	제7사단	보고 1
3명	2. 21	지 상	2. 23	제7사단	보고 1
3명	2. 26	지 상	3. 3	제3사단	귀환예정
3명	2. 3	공 중	2. 23	제3사단	귀환일 경과
3명	2. 3	공 중	2. 23	제7사단	귀환일 경과

2월 중 턴코트대의 경우, 지상으로 투입된 작전은 근거리로 침투하기 때문에 단기간 작전에 그쳤으나 공중으로 투하된 작전은 후방지역으로 침투했으므로 비교적 장기간이 걸렸다. 대원들은 전선 후방지역으로 침투할 때에 정치보위부 대남공작대원, 북한군, 민간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했다.<sup>979)</sup>

국군 첩보대나 KLO 첩보대의 경우, 침투대원의 규모에 대한 통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육군 첩보대에서 1953년에만 채용한 민간인이 800여 명이었고, 전쟁 시기에 활동한 대원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sup>980)</sup> 해군첩보대의 경우, 1952년 중매월 2~4회 정도의 작전이 있었고 대원 규모는 40~60명 정도였다.<sup>981)</sup>

KLO 첩보대에서 침투한 요원은 1950년 12월중 368명이었고, 이듬해 1월에는 723명으로 크게 늘었다.<sup>982)</sup> 자료가 남아있는 공중으로 투하된 경우를 살펴보면, <표 5-12>와 같이 1950년 8월 중 2회 30명이었고, 10월 58명 등이었다. 특히

978)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979) 김명식 증언, 1966. 7. 19, 전사편찬위원회; 김정일, 『내가 겪은 6·25전쟁』, 1993. 12. 18, 11면 특전사 역사관 소장; 이동협, 『침투활동 내역』, 2002. 12. 6; 『6·25전쟁 증언록』, 600면.

980) 이극성, 『육군 첩보부대 창설사』(메모), 16-17면; 엄한얼, 『HID 북과공작원! 그 숙명의 비극』, 『국방119』, 2002. 8, 24면.

981) 해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41-42면.

982) Col. C. A. L. Dickey, "Command Report-Dec. 1950", Jan. 1, 1951, 『KLO·TLO 문서집』 1, p. 363; HQ 442nd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1, 같은 책, p. 507.

<표 5-12> KLO 대원 공중투하자(1950. 8~1951. 1)<sup>983)</sup>

	1950. 8	1950. 9	1950. 10	1950. 11	1950. 12	1951. 1	계
투하횟수	2	2	6	2	8	8	28회
대원 수	30	9	58	25	53	43	218명
귀 환	4	8	36	8	25	8	89명
보고건수	3	3	20	5	16	8	55건

10월 중에는 해주, 안악, 평양, 길주, 청진, 성진, 만포진, 수안 등 적진 후방 깊숙이 침투했다.<sup>984)</sup> 1951년 1월에는 침투 횟수는 8회로 늘었고 대원수가 43명이었다. 1953년 1월 중 84명이 공중 투하되었다. 이때 대원 구성을 살펴보면, 블루보이 대원 18명, 스타대 4명, 플래시대 3명, 배저대 3명, 턴코트대 12명, 파인에플대 6명, 리바이벌대 5명 등이었고, 게릴라작전 요원 9명과 육군 첩보대원 24명도 포함되었다.<sup>985)</sup> 1953년 2월 중 공중으로 북한의 후방지역에 투하된 인원은 114명으로 파인에플대 20명, 라바이벌대 9명, 턴코트대 6명, 블루보이대 7명, 유격대 48명 등이었다.<sup>986)</sup> 1953년 3월 14일 왕치(암호명 : Wang Chih-chia)를 비롯한 9명의 전 국민당군이 세균투하의 효과를 수집하기 위해 만주지역에 투하되었다고 중국측이 주장했다.<sup>987)</sup>

JACK 부대에서 중국에 첩보대를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 7월 장재문, 허강지, 우관주, 만지휘, 우송림 등 전 국민당군 5명으로 구성된 ‘문대’(장재문의 가명이 문세걸로 그 성을 따라 불렀다)를 길림성 안도현으로 투하했고, 이

983) HQ, 442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1951. 2, 『KLO·TLO문서집』 1, p. 539.

984) HQ 442nd CICD, “Special Report”, 『KLO·TLO문서집』 1, p. 535. 1950년 10월 24일 중공군 부대의 인원과 편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공군 집결지역에 21명이 낙하되었다는 소련측 기술이 있다. 이들도 미군 공수대원이라기 보다는 KLO 대원일 가능성이 크다(러시아 국방부편(김종국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344면).

985) HQ, FECLD(K),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986)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Feb. 1953, “Command Report”, Feb.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987) “Capture of American Imperialist Agent Wang Chi”, Col(R). Douglas C. Dillard, *op. cit.*, p. 94.

해 9월 란형산, 왕유번, 왕금성, 왕동화, 종전형 등 5명으로 ‘심대’(란형산의 가명이 심형년이었었는데, 그의 성명을 따랐다고 한다)가 B-17기로 길림성 용만 부근에 공중투하되었다. 1952년 10월 10일과 30일 ‘백두산천지기상대’로 명명된 첩보원 20명이 백두산 천지부근으로 투하되었다. 11월 29일 이전에 투입된 첩보원들에게 보급물자를 투입하던 미 C-47 수송기가 격추당해, 조지 토마스 탕나와 리차드 펙토우(Richard Fecteau)가 체포되었다. 1953년 5월 한 달 동안 대원 25명이 침투했고, 15명이 성공적으로 귀환했다.<sup>988)</sup>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지상 침투와 함께 고찰하면, 적 지역으로 침투한 대원은 1950년 9월 135명, 10월 90명, 11월 77명, 12월 208명이었다. 1951년 1월 중 지상과 공중으로 723명의 대원이 파견되었다. 이 때 공중투하 대원이 43명이었는데 비해, 지상으로 침투한 인원 가운데 KLO 대원이 99명이었고 TLO 대원은 592명이었다. 전체 파견된 대원가운데 459명이 귀환했고 132명이 투항했다고 보고했다. KLO 대원은 8명이 귀환했고, 6명이 투항했다. TLO 대원은 443명이 귀환했고, 99명이 투항했다. 나머지는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2월 중 대원 401명이 파견되어, 그중 264명은 귀환했고 나머지는 투항한 것으로 보고했다.<sup>989)</sup> 1953년 6월 611명의 첩보대원이 해안 365명, 공중 67명, 지상 179명 등으로 북한에 침투했다.<sup>990)</sup>

공산측 자료에 의해서도 대북첩보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신문에는 남에서 파견한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기사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이미 1950년 11월 하순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상인·농민·학생·노동자·피난민·고아·거지·정신병자 혹은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가장하여 첩보와 파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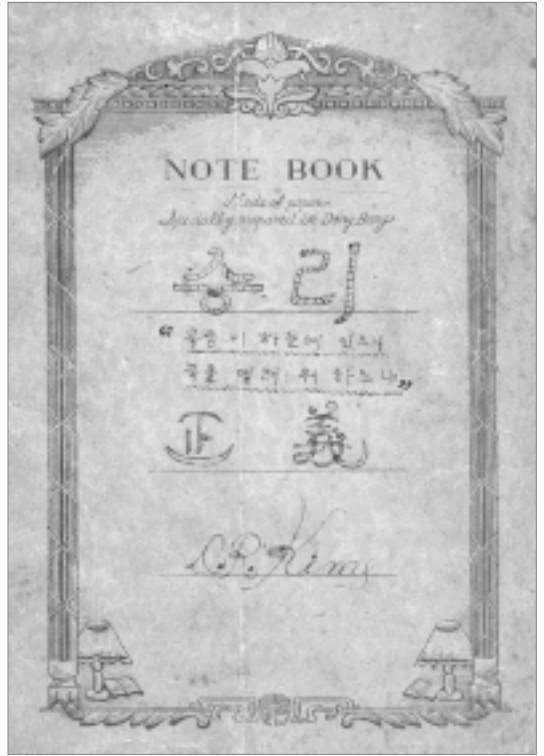
988) 『미국공중투하특무섬멸기』,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편, 『돌아보는 역사』, 심양: 료녕출판사, 2002, 332-333면, 366-367면; “JACK Reports for May 1953”, “Command Report”, Ma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In the Devil's Shadow*, p. xvii(조지 토마스 탕나가 아니라 존 도우니로 기록되어 있다).

989) HQ, 442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1951. 1, 『KLO·TLO문서집』 1, p. 507; “Statistical Report”, Feb. 4, 1951, 『KLO·TLO문서집』 2, p. 52, p. 56; FEC Liaison Group, “Recapitulation Chart”, 같은 책, p. 315; HQ, 442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1951. 2, 같은 책, p. 455.

990) HQ, CCRAK, “Command Report”, June 1953, p. 5, 군사편찬연구소, SN 1969.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분쇄하기 위해 집단적 감시를 강조했다.<sup>991)</sup> 그 외 1952년 7월 8일 황해도 송화군 모 중학교 오상석은 미군이 보낸 소년 간첩을 적발해 은신하고 있는 10명의 ‘무장간첩’을 체포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도했다.<sup>992)</sup> 중공군의 일부 자료에도 전 국민당군 출신 포로나 북한군 귀순자, 남한청년 등을 이용한 ‘특무’를 체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993)</sup>

소련 군사고문단은 휴전협상 이후에도 미군이 북한에 대한 스파이와 유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스파이와 파괴분자를 침투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들 가운데 “1951년 5월부터 10월까지 동해 연안에서만 980명의 스파이가 체포되었고, 북한지역에 첩자와 폭도집단을 조직한 규모가 2,500여 명에 이르렀으며 1953년 초에도 미군이 북한지역 정찰 활동, 교란활동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sup>994)</sup>



북한에 침투한 김 모 대원이 남긴 노트(1953.5)

991) 『경각성을 높이라. 적의 기도를 분쇄하라』, 『조선인민군』 1950년 11월 27일자 사설; 『적 간첩 파괴분자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이라!』, 『민주청년』, 1953. 1. 20.

992) 『황해일보』, 1952. 9. 4, 10. 28, 1953. 2. 13, 21.

993) 610團政治處保衛股, 『陣地捕特工作』,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678-679면.

994) 중장 라주바예프, 『개성회담시 남조선군과 유엔군의 활동(1951. 7. 10-1952. 1. 10)』, 1951. 1. 1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2, 2001, 237면; 『주 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이 불가닌에게』, 1953. 1. 21, 같은 책, 284면.

## 다. 성 과

전쟁이 나자, 첩보수집은 포로나 투항자, 피난민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적 후방으로도 많은 첩보원이 파견되었다. 대원들의 임무는 적 이동, 사기, 민심, 장비, 역 정보 유포, 적 병력과 군사시설에 대한 항공폭격 유도, 귀순 공작, 기밀서류탈취 등이었다.<sup>995)</sup>

대원들은 입수한 첩보를 가지고 귀환하여 직접 제출하기도 했으며 연막탄, 무전기 등을 사용해서 보고하기도 했다. 연막탄을 사용한 경우(“Sky Jumps”), 붉은색 연막탄은 중공군 500명 이상, 노란색은 북한군, 녹색은 소수의 적군이 주둔해 있음을 의미하였다.<sup>996)</sup> 첩보당국은 여러 대원의 첩보를 비교 검토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51년 6월 하순 육군 첩보대 대원이 함흥으로부터 원산을 거쳐 고암부근(CU 5518) 지역으로 이동한 중공군 25,000명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미 이 정보는 KLO 첩보부대 가운데 하나인 블루보이대 첩보원이 만주로부터 신고산까지 철도로 원산부터 트럭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sup>997)</sup>

아직 1952년 이후 관련 문서는 비교적 많으나, 그 이전의 첩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1950년 11월 10일까지 육상·해상·공중으로 침투한 KLO 첩보원이 총 300건의 첩보를 보고하였다. 12월중 368명의 첩보원이 파견되어 259명이 귀환했으며 126건을 보고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723명이 파견되어, 이 가운데 459명이 귀환하고 132건을 제공하였다.<sup>998)</sup> 앞서 서술한 공중으로 침

995) 특전사 역사관, 『미 극동군사령부직할 첩보부대』, 1992. 1951년 9월 이후 6개월간 육군 첩보부대장을 지냈던 박경원 장군도 KLO 부대가 대이북 정보를 수집했던 부대로 인식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248면).

996)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pp. 40-43.

997) G-2 Section, HQ X Corps,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293(July 15-16,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783.

998) Col. C. A. L. Dickey, “Command Report-Dec. 1950”, Jan. 1, 1951, 『KLO·TLO 문서집』 1, p. 363 ; HQ 442nd CICD Korea,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1, 같은 책, p. 507 ;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Fort Knox, Kentucky, Apr. 1952, p. 35.



투한 경우, 1950년 8월 16일부터 1951년 1월 말까지 55건을 보고하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구체적인 사례를 일부 자료로 추적할 수 있다. 1950년 8월 16일, 제대로 낙하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대구를 출발해서 항공기로 김천에 투하된 KLO 대원('P-11')은 이 일대에 있던 북한군 이동이나 탱크나 무기 등의 동향을 수집해 9월 20일에 대구로 귀환했다. 왜관으로 침투한 대원 10명의 임무는 1950년 8월 14일, B-29 폭격기의 폭격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KLO 대원 가운데 10명이 낙동강 전선 후방으로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 때 대원 중에는 북한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15세에 불과한 김현기와 같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집했다.<sup>999)</sup>

첩보원 중 일부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유엔군 사령부의 요청으로 해군정보부와 유엔군사령부 정보부가 합동하여 첩보대를 편성하였다. 이 첩보대는 덕적도에 주둔하면서 인천과 서울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였다. 육군과 해군 첩보대 요원들이 영흥도와 인천상륙직전인 9월 14일 인천 앞 바다에 있는 팔미도에 상륙하여 등대의 항해등을 점화해 미군 함대의 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했고, 적의 동향을 수집하여 상륙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때 미군 책임자 클라크 대위를 비롯해서 육군 계인주 대령, 해군 연정 중령 외에도 김순규 소령, 장석윤 병조장 등 해군 수병, 그 외에도 한미합동정보대(COIC: Combined Operational Intelligence Club) 소속의 최규봉·이철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인 대원 가운데 정성도 등 14명은 팜에서 훈련을 받고 영흥도에서 이 작전에 합류했다고 한다. 일부는 의용군 낙오병으로 위장하여 인천지구로 파견되어 첩보를 수집했다.<sup>1000)</sup>

999) 박태현 증언, 2002. 12. 10 ; "Itinerary of Agent 'P-11'" Sep. 29, 1950, 『KLO·TLO문서집』 1, pp. 541-542; HQ 442nd CICD, "Special Report", 같은 책, p. 533.

1000) 최규봉, 앞의 글, 257-258면;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2, 1958, 46-47면; 『한국전쟁사』 3, 642면, 646면; 『민족의 증언』, 3, 43면; 계인주, 앞의 책, 157-162면; 이철 증언, 2003. 11. 11; Eugen Franklin Clark, USN, 『The Secrets of Inchon』, N.Y.: G.P.Putman's Sons, 2002. 『영흥도 작전중 미 구축함의 특별배려』,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4, 1993, 47면. 당시 이 작전에 참가했던 해군 정보국 특수공작대의 임병래 소위는 홍시욱 3조 등 의용대원과 함께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공방전을 전개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자결했다(『전쟁유공 추모대상자 공훈카드: 임병래/홍시욱』; 『‘상륙작전’ 성공 숨은 주역』, 『국방일보』, 2002. 9. 10).



트러블대원(평양 기림학교옆 에이전트숙소 뒤뜰, 1950. 10. 27)

인천상륙작전 이후, KLO 첩보대원은 북한지역에 투입되었다. 황해도 지역에 투입된 위스키대 곽한영은 은을 군 일원과 구월산으로 후퇴한 북한군과 빨치산 세력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강부대’라는 무장첩보대를 운용하여 적정을 KLO 본부에 보

고하여 미군 작전에 기여하였다.<sup>1001)</sup> 1950년 10월 12일 트러블대에서 18명이 브루워(Brewer) 대위 인솔아래 황해도와 평양 동북방 약 20km 지점인 ‘새리’부근에 공중으로 투하되어 포로수용소의 위치와 평양지역의 민심동향을 파악하였다. 12월 12일 첩보원 2명과 무전사 2명이 여의도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타고 황해도 황주에 투하되어 황주, 평산 등지의 중공군과 북한군 주둔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sup>1002)</sup> 이 무렵 황해도 장수에서 최승호, 이승부 등이 중공군 동향을 비롯한 첩보수집 활동 중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되었다.<sup>1003)</sup>

유엔군이 북진한 후, 제일 중요한 첩보대상은 중공군의 개입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쟁 당시 국군 제9사단장이었던 이한림 장군은 미국의 군사당국이 얼마나 정보에 무능했는지 초산에서 국군이 중공군에게 포위된 후인 1950년 10월 28일에도 “만주에 있는 한국인이 중공군의 훈련을 받고 입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바로 맥아더 극동군사령부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시 미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지를 드러낸 본보기라고 지적했다.<sup>1004)</sup>

---

그런데, 이 작전에서 한국인 대원의 전과에 대해 일부 이견이 존재함으로, 미군측 보고서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1001) 이춘복, 『땀부기는 오늘도 ‘조산들’을 날고 있다』, 104-106면.

1002) 『이영철 수기』, 1993; 이영철 증언, 2002. 6. 8; 윤영중 증언, 2003. 12. 7..

1003) 백운학·김기영·전영찬 진술, 2002; 김기영, 『관련경위서』, 2002. 4.

1004) 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208면.

먼저 국군 첩보부대의 역할을 살펴보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인 1950년 10월 초 문기섭 소령이 서해지구 첩보대장으로 복진하는 지상군을 위해 한·미 합동 정보대를 대청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대중국 공작은 중공군 개입 이후 그 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영도를 근거지로 삼아 진남포 방면 도서와 신의주 지구에 침투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그쳤다.<sup>1005)</sup>

미 국무부는 소련이나 중공이 직접 간접으로 한국전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있었다. 국무부에서는 보급과 물자지원, 고문단파견, 북한군 교육, 소련과 중국거주 북한교포의 북한이주 등 폭 넓은 관점에서 그들의 개입여부가 정책 수립에 중요하므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다.<sup>1006)</sup> 1950년 9월 25일 미 육군부 정보참모부(G-2)는 중공군이 한·만국경 지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들이 북한으로 건넌다는 징후는 없다고 평가했다.<sup>1007)</sup>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윌로우비 소장은 10월 14일 소련과 중공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소련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중공군에 대해서 만주 주둔 9개 야전군의 38개 사단 가운데 24개 사단이 압록강을 따라 배치돼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외교적 위협’으로 간과해 버렸다.<sup>1008)</sup> 심지어 전선에서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희천을 점령했을 때, 중공군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극동군 사령부에 알렸으나,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sup>1009)</sup>

CIA에서는 중공군 개입 직전인 1950년 10월 12일자 보고서에서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입할 것 같지 않다(not necessarily decisively)고 평가했다.

1005) 문기섭, 『나의 걸어 온 길 가야 할 길』(미발간 수기), 1999, 25-27면; 문기섭 증언, 2002. 7. 12; 해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47-48면.

1006) “Military Liaison Branch, Department of State to Chief, Intelligence Division, G-2, DA: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by Soviets and Chinese in Korea”, Sep. 8, 1950, 170/319.

1007)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s of Staff, G-2, DA, “Indication of Enemy Intentions”, Sep. 25, 1950, 171/319.

1008) 『위험한 임무』 2, 『서울신문』 1991. 8. 7. 중공군이 개입한 후, 윌로우비 소장은 한만국경선 근방에 비행금지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김중오 장군 증언』, 1965. 3-3. 6, 전사편찬위원회, 48면).

1009) 『양중호 장군 증언』, 1966. 12. 27, 전사편찬위원회, 16면.

즉 주은래 성명, 중공군의 만주이동, 비난선전 등은 중국 공산당이 전면개입을 의도하는 확실한 증거가 못된다고 평가했다. 중공의 개입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중공은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집된 정보를 판단컨대 소련이 세계전쟁을 원하지 않고 특히 1950년에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아마도 북한군에 대한 은밀한 지원을 계속할 정도라고 결론지었다.<sup>1010)</sup> 중공군과 조우한 이후에도 미국정부에서는 중공정부가 아직 개입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군사작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sup>1011)</sup>

그런데 1950년 10월 공중으로 투하된 KLO 첩보원은 이미 중공군 수천 명이 만포진 부근 압록강을 건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서 정보를 전달했으므로 정보당국이 이를 입수하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다. 11월 9일에 이르러 구체적인 중공군 개입 정보를 제출했다(KLO #300). 만약 그들에게 무전기가 있었으면 10월 27일 중공군 개입 정보를 알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11월 16일, 공중침투요원들에게 무전기(AN/GRC-9)가 지급되었다.<sup>1012)</sup> 한국인 유격대와 함께 압록강 하류까지 진출했던 다른 첩보대에서 대규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놀라운 정보(earthshaking news)를 즉시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하였으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자만하고 있던 터라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sup>1013)</sup>

1950년 12월 10일경 KLO 첩보원 12명이 김포공항에서 미군 군용기를 타고 2인조씩 강원도 고성군 근방으로 투하되었다. 대원들은 중공군의 병력 수를 확인하여 3색 연막탄으로 알려주었고, 중국어에 능통한 오죽송을 침투시켜 화천지구 중공군 포대가 나무로 만든 위장포대라는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적의 수중에 있던 화천화력발전소를 탈환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다.<sup>1014)</sup>

1010) "Critical Situations in the Far East", Oct. 12, 1950, 『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한국전쟁 자료총서 14), pp. 280-282.

1011) "Estimate of Chinese Communist Intentions and the Implication for US Propaganda", Nov. 8, 1950, NA.

1012) LC Garth Stevens · Major Frank D. Bush, etc., "Intelligence Information by Partisan for Armor", pp. 35-37; HQ 442nd CICD, "Special Report", 『KLO · TLO문서집』 1, p. 535.

1013) 『세번째 받는 은성』, 『조선일보』, 1952. 5. 18; 『황해 피난민구출작전』,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4, 1993, 59면; Eugene Franklin Clark, *The Secrets of Inchon*, p. 324.

1014) 최규봉, 『나는 KLO부대장이었다』, 267-268면; 전영찬 진술서, 2003.11. 그런데, 화천발전소

1951년 1월 공중으로 투하된 첩보원 가운데, 중공군이 38선에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철원 근방에 대규모 보급기지 위치를 제공함으로써(KLO #467) 미군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sup>1015)</sup> 1951년 2월 고트대에서 평남 안주 터널 안에 비축된 탄약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폭격하도록 했다. 4월 초, 감악산 계곡에서 임진강 도하를 위해 집결중 중공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sup>1016)</sup>

부분적으로 한국군 정보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미군첩자 보고’ 혹은 ‘미 8군첩자’는 바로 KLO 첩보대원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미군첩자가 1951년 4월 28일 북한군 제4군단이 이천으로부터 철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첩보를 제공하였다.<sup>1017)</sup>

이제 1952년 이후의 첩보 수집 통계를 보면 <표 5-13>에서 나타나듯이 첩보 건수가 한 달 동안에 200여 건으로부터 많게는 2,000건이 넘었다. 이는 KLO 첩보대원과 육군 첩보대 등의 활동이 망라된 것이다. 첩보건수 가운데 포로와 피난민으로부터 입수한 20.4% 이외에는 침투대원에 의한 성과였다. 휴전 직전까지 전체 첩보 건수 가운데 KLO 대원의 보고건수가 거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즉 1952년 6월 전체 1,234건 중 605건을 차지했고, 1953년 1월에는 전체 1,646건 가운데 KLO 첩보대원의 보고는 1,012건이었다.<sup>1018)</sup>

<표 5-13>를 보면, 국군 첩보대의 역할이 크게 미약해 보이거나 수집된 첩보를 평가한 후 미군 측에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1952년

탈환시기에 대해 1952년 봄이라는 기술도 있다(이동욱, 『군변없는 냉전의 전사 KLO 비화』, 434면; 실향민중앙협의회, 『공적내용: 최규봉』, 1997.11). 또한, 국군 제6사단에서 1951년 5월 29일, 화천발전소를 되찾은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1954년 11월 전공비를 세우면서(김희선, 『분대장의 화천발전소 탈환작전 보고서』, 『6·25 우리들의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1; 전사편찬위원회, 『용문산전투』, 1983, 227-228면; 『참전기념조형물도감』, 국가보훈처, 1996, 384면), 첩보원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다.

1015) HQ 442nd CICD, “Special Report”, 『KLO·TLO문서집』 1, p. 537. 화천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해 중공군 한 작전에 김종호, 전영찬 등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화천발전소를 탈환하라』, 『사상 21세기』, 2000

1016) 김선희 진술(『사실자인서』), 2002. 1. 30; 이연길, 『해상고트대 약사』, 2002. 3.

1017) 육본 정보국, 『정기정보고서』 93, 1951. 4. 3, 『한국전쟁사료』 1, 1985, 241면; 육본 정보국, 『정기정보고서』 134, 1951. 5. 14, 『한국전쟁사료』 3, 164.

1018) HQ, CCRA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Feb. 1,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표 5-13> 첩보 건수 통계(1952. 1~1953. 8)<sup>1019)</sup>

	KLO 첩보부대	제6004 부대	잭부대 (JACK)	한국 해군(ONI)	한국 육군(G2)	제704 방첩대	제8007 부대	계
1952. 1	170	0	43	17	0			230
2	161	0	40	13	0			214
3	246	12	77	20	0			355
4	442	283	59	16	0			800
5	465	367	141	13	14			1,000
6	605	474	134	9	12			1,234
7	751	336	268	0	70			1,425
8	902	696	199	0	162			1,959
9	1,054	604	213	34	127			2,035
10	1,055	693	337	5	187			2,277
11	1,165	360	212	1	112			1,850
12	1,164	511	167	2	180			2,024
1953. 1	1,012	340	135	2	157			1,646
2	795	744	95	2	124			1,760
3	1,000	489	90	2	252			1,833
4	1,042	578	197	2	205			2,024
5	1,077	473	118	2	249			1,919
6	889	382	100	0	234	1	2	1,608
7	602	271	36	1	181	0	0	1,091
1953. 8	122	418	42	0	94	0	0	676

8월 중 육군 첩보대에서 연합정찰사령부로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군, 중공군 이동 및 훈련상황, 군병원과 의료시설위치, 북한군 특수부대, 지뢰매설, 항

1019) HQ, 8242D AU, "Comparison of Report by Month", Sep. 1, 1953,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71. 제8007부대에서도 한국인 대원이 활동했다고 한다(차덕순 진술, 1999).



여성 요원 귀환보고

공기 은폐, 중공군 대공망, 군관학교, 신소총 무기 전차부대 이동, 북한 내각건물 위치, 철도성 기구, 쌀 창고와 쌀값 등이었다. 심지어 북한어민이 북한군이 설치한 어뢰에 의해 사망한 사실까지 보고되었다(CCRAK # H-1107, Aug. 13, 1952).<sup>1020)</sup> 해군의 경우는 북한의 육·해·공군, 중공군, 소련 등의 첩보를 수집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KLO 첩보부대들이 수집한 내용은 위의 육군첩보대의 경우와 비슷했다. 1953년 1월 경우 1,012건 가운데 포함된 정보내용은 전투서열, 병력 위치, 보급로, 열차 수송, 장갑, 레이더시설, 비행장, 무기, 통신과 명령, 트럭 이동, 미 제5공군 기상 정보 등이었다. 공산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쌀 저장소에 대한 첩보를 중요시 했다. 이 정보는 공군첩보대에서도 많이 입수했으나, KLO 첩보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 폭격을 유도했다.<sup>1021)</sup>

KLO 첩보대원이 매일 아침 기상정보를 제공하면, 미 제5공군은 이 정보에 따라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매일 B-29 기상정찰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항공기를 이용한 기상정찰 비용은 첩보부대의 총비용보다 많이 차지했다. 첩보대 가운데 특히 리바이벌대가 기

1020) 8240th AU, HQ, CCRAK, "Intelligence Report", Aug.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7.

1021) "Enemy Rice Storage",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s, GQ, UN and FEC, "Military Situation", May 4, 1951(군사편찬연구소, SN 1980), M.4-6.

상관측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리바이벌대 대원 15명이 관상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적 후방에 침투하여 무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JACK 첩보대에 서도 기상정보를 수집했다.<sup>1022)</sup>

부대별 첩보건수는 <표 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1952년 2월 KLO 첩보부대를 5개 부대로 개편하기 전의 통계여서, 고트대와 위스키대가 서부 샬러만더로 합쳐져 있고, 동부 샬러만더에는 아직 블루보이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파인애플대, 월로우대, 스타대, 배저대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TLO팀과 레오파드부대와 울팩부대 등 유격부대의 적정보고도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면, 1952년 12월의 경우 총 첩보건수 1,164건 가운데, TLO팀이 424건, 울팩부대와 레오파드부대가 각각 161건 등이었다.

물론 유격대의 주임무는 내륙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공작원들이 북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제8240부대와 극동군사령부가 필요로 하는 대인 정보를 수집했다.<sup>1023)</sup> 예를 들면, 동키 제4부대에서 여자정보대원을 내륙으로 침투시켜 북한군 주둔지를 파악하여 미군기가 폭격하도록 유도하였다.<sup>1024)</sup> 동키 제11부대의 전병학 공작대는 PPC-10 무전기 1대를 휴대하고 옹진군 읍저반도(岫

<표 5-14> 산하 첩보부대의 보고 건수(1952.12, 1953.1)<sup>1025)</sup>

(단위: 건)

	서 샬 러 만 부 더	동 샬 러 만 부 더	배 저	플 래 시	파 인 애플	월 로 우	블 루 보 이	턴 코 트	라 디 오 팀	T L O	울 팩 부 대	동 키 부 대	스 타	리 바이 벌	강 화	계
1952. 12	51	14	47	48	78	60	5	4	36	424	161	161	64	6	5	1,164
1953. 1	39	15	20	32	66	46	3	3	35	470	122	99	37	25	0	1,012

1022) 『미국공중투하특무섬멸기』, 333면; 최규봉(리바이벌대 대장) 증언, 2003. 11. 16.; HQ, FECLD(K), “Intelligence Division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1023) 벤 S. 멜콤(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 128면.

1024) 이순옥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3. 8.

1025) “Report and Sources”, Feb. 1, 1953,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底半島)에 침투하여 1952년 12월 28일부터 1953년 3월 5일까지 2개월여 동안 체류하면서 30여 건의 중요한 첩보를 보고함으로써 유격대의 작전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이 정보를 근거로 6회에 걸쳐 적 집결지에 대한 공중공격을 감행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1026)</sup>

휴전이 가까워지면서 유격대의 첩보활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1953년 5월, 제1연대(레오파드) 76건, 제2연대(올팩) 21건, 5연대 29건 6연대 14건 등 140건이었고, 6월에는 제1연대 30건, 제2연대 22건, 5연대 4건, 6연대 1건 등 56건이었다. 7월에는 제1연대 24건, 제2연대 27건, 제3연대(스캐논부대) 2건 등 53건이었다.<sup>1027)</sup>

### 라. 휴전 후 부대 해산과 재편

휴전 후에는 전쟁시기처럼 첩보수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KLO 첩보대원들은 거의 해산되었다. 다만, 일부 대원은 활동을 계속했다.

휴전이 성립되자, 1953년 7월 31일자로 육군 첩보대는 첩보요원들의 철수를 지시했다.<sup>1028)</sup> 연합정찰사령부도 1953년 8월 2일자 지시를 통해 동 사령부에 속한 모든 한국인으로부터 무기와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인이거나 다른 백인계는 북한이나 중국지역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했다.<sup>1029)</sup> 그런데 이미 침투한 대원들이 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귀환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sup>1030)</sup> 유격부대에서 내륙으로 침투한 첩보대는 비하이브(Behive), 무스(Moose), 캐멀(Camel) 팀이 있었다. 이들은 1954년 2월 북한지역에 투하되어 11번의 보고를 하였다.

1026) 이종학, 『전병학 공작대의 활동』, 날짜없음.

1027) “Total No. of Intelligence Reports”, “Combat Command Report”, June-Jul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9-1970.

1028) “Withdrawal of ROK Army Intelligence Personnel”, Aug. 8, 1953, 47/338.

1029) “Indigenous Craft”, Aug. 2, 1953(File No. JCO 560),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71; “FEC/LDX(K) Security Division Activities”, Aug. 18, 1953(File No. JCO 322), 같은 문서.

1030) 1953년 1월초, ‘산대’에서 2인 1조로 파견한 정명덕, 우정민은 휴전직후인 8월까지 무전연락을 했으나 결국 귀환하지 못하고 생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허억(산대 통신사) 증언, 2003. 11. 29.』.

첩보대의 경우는 월로우대가 유지되었고, 해상 고트대 출신 중 박한룡, 하재룡 등은 제6006부대의 SAU-K(호부대)로 편입되어 서해의 말도에서 활동했고, 다른 대원들도 미군 제8097부대나 제8157부대로 재편어 활동을 계속했다. 제8097부대의 TLO 3는 한국인으로, TLO 1~2는 중국인, 크루세이드(Crusade) 팀은 중국계 한인으로 구성되었다.<sup>1031)</sup>

각 부대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8097부대가 월 평균 45명 수준이었다.<sup>1032)</sup> 제8097부대가 해산된 후 새로 창설된 제8157부대는 일본 드레이크 캠프(Camp Drake)에 있는 부대(CCRAFE)의 예하 부대로 용산에 기지가 있었고, 보트과견대(Boat Detachment)는 소월미도에 있었다.<sup>1033)</sup> 이들은 북한지역에 있는 포로수용소 위치 파악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분할해 전투서열, 북한 정치, 경제, 사회상황을 수집해 보고했다.<sup>1034)</sup>

미국 CIA 산하에서 활동했던 잭부대(JACK)에서도 동래캠프가 1953년 6월 30일 부산캠프는 각각 폐쇄되었고, 8월에 잭 본부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미군의 보호아래 소규모 단위로 재편되었다. 1954년 1월 중, 전쟁 중 활동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대북 첩보기구가 창설되어 활동을 시작했다.<sup>1035)</sup> 1953년 12월 13일 강용재는 이 첩보대 소속으로 황해도 근해 비압도 인근에서 북파공작 도중 공작선 선상화재로 사망했다.<sup>1036)</sup>

북한에 대한 첩보수집을 계속했다. 1953년 8월중 13명이 해상으로 침투해 7명

1031) 휴전직전 교육을 받은 후 제8007부대(본부, 종로3가 태화관)에서 1954년 3월까지 복무하다가 이탈했다는 증언도 있다(차덕순 증언, 2003. 11. 28).

1032) 1954년 5월, 서울 명륜동에서 설립되었고, 이진호(통역) 씨와 H.I.D. 김 대위의 명에 따라 북파공작원 약 80여 명이 활동했다고 한다(김기영 증언, 2003. 10. 23).

1033) 이상호, 『군복무 약력』, 2001. 2.; 이연길, 『해상고트대 약사』, 2002. 2., 10면; 박태현 증언, 2002. 5. 23.; 박태욱·김운기 증언, 2002. 9. 28.; 채철석 증언, 2002. 11. 12.; 김상기 증언, 2002. 12. 3.; “Herman O Bailey’s Letter”, July 16, 2002.

1034) 백운학 증언, 2003. 10. 24. FEC/LD(H) 8200th AU, “Semi-Annual Progress Report of Clandestine Collection Operation”, 1954, Bx 8/ RG 319 Army Intelligence TS Decimal File 1942-52.

1035)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p. 8-9. 휴전 후인 1954년까지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 침투와 교란작전을 벌이다 유격대원들이 국군에 편입될 때 예편했다는 진술도 있다(『JACK 제2과견대 대장 박선동씨』, 『경향신문』 2000. 7. 19).

1036) 『한겨레신문』. 2000. 9. 18.

이 해상으로 귀대했으나 4명은 예정된 해상탈출에 실패했다. 이 기간 중 176건의<sup>1037)</sup> 보고가 있었고, 1953년 9월초까지 계속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전투서열, 목표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형편, 남한의 정치활동 등이 포함되어 전쟁 전과 비슷했다.<sup>1038)</sup>

첩보대도 유격대와 마찬가지로 해산 과정을 거쳤다. 간부급들이 재편된 부대에서 활동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 대원은 제8250부대로 편입되거나 해산되어 사회로 나갔다.<sup>1039)</sup> 이 과정에서 병역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대원들은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징집연령에 해당되지 않았던 대원들은 아무런 대우없이 해산된 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sup>1040)</sup> 도중에 이탈한 대원들은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했다.

이상과 같이 KLO 첩보대원들은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 지역으로 침투하여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를 내면서도<sup>1041)</sup> 수 만 건에 이르는 첩보를 수집하여 전쟁 수행과정에서 전략 수립과 전투수행 등에 크게 기여했다.

1037) <표 5-14>에 나타난 42건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합정찰사령부에 보낼 때 걸러서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1038) “Intelligence Activity during Aug. 1953”, Sep. 4, 1953, “Command Report”, Aug.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71): “Information from Central and Eastern North Korea”, Sep. 4, 1953, Bx 30/ RG CCRACK 8242nd AU. 미 제8군에서도 첩보활동을 일부 한국군으로 이관했다. 1953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적 후방에 대한 530건의 첩보 보고가 있었다(HQ EUSAK, “Command Report”, Aug., 1953, p. 11, 군사편찬연구소 SN 1534).

1039) 김인현(TLO) 증언, 2003. 12. 18.

1040) 한 대원은 통신사로서 임무수행 중 작전에 기여한 공으로 브로바 시계 1점과 파카 만년필 셋트를 받았다고 한다(허억 증언, 2003. 11. 29).

1041) 전사자와 실종자의 규모가 3,000여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남측 첩보전의 비밀』, 『경향신문』, 2000. 7. 5).

## 제 6 절 해체와 국군 편입

### 1. 유격부대의 후방 철수와 국방부 제8250부대 편입

휴전협정의 체결이 다가오던 1953년 6월 8일,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 서해지구 유격부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다. 기지사령관은 곧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북방도서는 공산측에게 양도하고 철수해야 하므로, 적지에서 활동중인 유격대원을 빠른 시일내에 임무를 중단시켜 전원 철수시키고, 각 부대는 인원과 장비를 정비하여 언제라도 철수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sup>1042)</sup>

한때 백령도 기지사령부는 백호부대·옹진학도유격대 등 일부 부대에게 전 근거지인 육도·어화도 등을 되찾도록 지시했지만, 휴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너머에 있는 연안도서 가운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모든 섬에서 철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동서 해안의 섬에 주둔했던 유격부대들은 막사, 초소, 병커 등 시설을 파괴하고 철수했다. 제1연대 산하의 어화도·창린도·월내도 등지에서는 7월 26일, 기린도와 초도 등지는 7월 27일 철수하도록 했다.<sup>1043)</sup> 제3연대는 난도, 제5연대는 소수압도·대수압도·용매도 등, 제6연대는 납섬·덕도 등으로부터 7월 26일까지 철수하도록 했다.<sup>1044)</sup> 이에 따라, 초도, 석도를 비롯한 백령도 인근에 주둔하던 동키부대는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도로 이동시킨 후 나중에 용유도로 옮겼다. 울팩부대는 대무의도로 철수시켰다.

1042) 『백호부대유격전사』, 367면; 『은울유격전사』, 188면.

1043) 1953년 6월 중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이미 옹진반도에 속한 용호도, 어화도, 기린도, 초도 등에 있는 피난민들은 대청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했다(조남혁 일기, 1953. 6. 11).

1044) “Combat Command Report No. 5”, June 1,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8; “Islands to be Evacuated”, July 27, 1953, “Combat Command Report”, July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70; *History of US Naval Operations: Korea*, p. 457.



옹유도 천막 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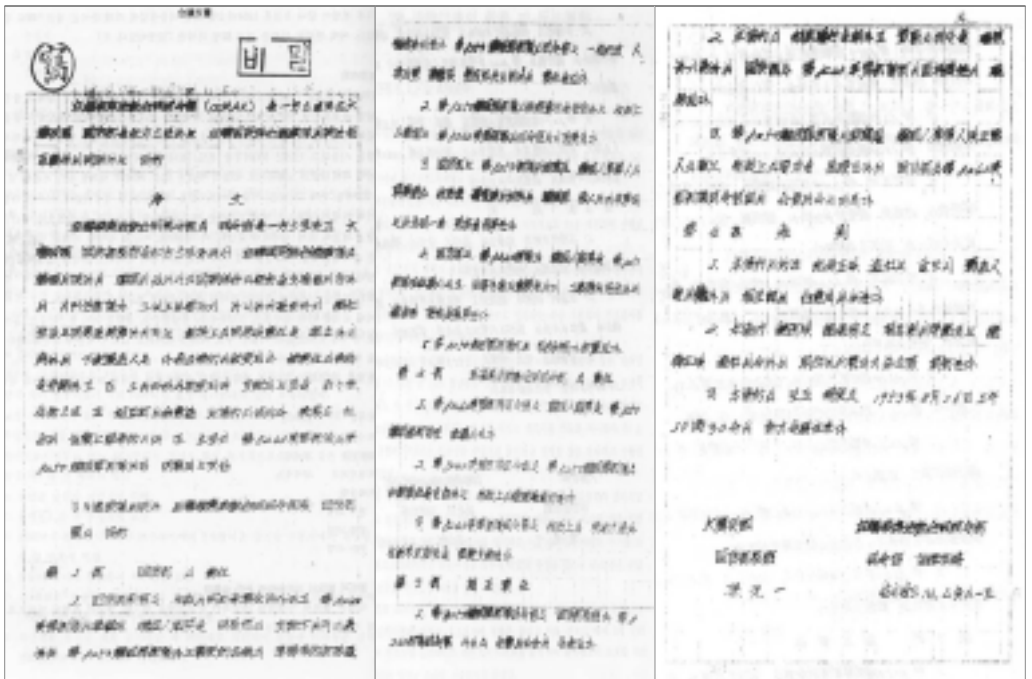
중공군의 참전으로 부득이 고향 땅을 등지고 부모형제들을 북한에 남겨둔 채 수개월내에 연합군의 북진으로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안고 싸워 왔지만 휴전으로 후방도서로 철수하게 되자, 유격대원들은 영원한 실향신세가 되거나 앓을까 하는 실망과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고 한다.<sup>1045)</sup> 더욱이 유격대원들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도서로부터 철수는 그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046)</sup>

비정규군 출신의 유격부대는 임무가 종결된 후, 해체되거나 정규군으로 편입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 당시 미군 산하에 있었던 유격부대들도 휴전이 성립되면서, 1953년 8월 국군으로 편입과정을 거쳤다. 이미 1952년 10월 당시 국방부 장관 신태영은 유엔군 아래 있던 유격군들이 국군의 지휘하에 들어 올 것과 국군과의 획적인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여건에 비추어, “우리가 싸우는 의미는 세계사적 사명과 전 인류의 사명임을 상기하고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들을 장차 ‘대한의 국군’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1047)</sup>

1045) 이 과정에서 섬에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노약자와 부녀자는 남겨두고 청장년만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생이별을 한 경우가 발생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이 고향인 안용관옹(80·경기도 안산시 사동)은 뒤따라오겠다는 아내와 2살과 백일도 채 안된 자녀를 기다렸으나, 결국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대한매일』, 2001. 10. 11).

1046) 『유엔군 유격전』, 171면.

휴전이 다가오자, 국방부는 유격군의 사명이 전쟁에서 그 비중이 크다는 점을 인식했고, 미 극동군사령관도 유격대원의 경력이 그들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손원일과 연합정찰사령부(CCRAK) 사령관 스튜어트 준장과 협약(손원일-Stuart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953년 8월 10일부로<sup>1048)</sup> 본부에 제8250부대 사령부를 창설하는 동시에 대원들을 이 부대에 편입하여 국군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하였다(일반명령 제219호).<sup>1049)</sup>



손원일-스튜어트협약

- 1047) 국방부장관 신태영, 『격려사』, 1952. 10, 『당나귀』 3, 1953. 1, 11-12면.
- 1048) 8월 12일자라는 기술도 있다(국방부 총무과장 대령 김귀암, 『국방부귀속 제8250부대원 신분증 발행에 관하여』, 1953. 12. 7, 박상준 제공 문서).
- 1049) 국방부 총무과장 대령 김귀암, 『국방부귀속 제8250부대원 신분증 발행에 관하여』, 1953. 12. 7, 박상준 제공 문서; 『예속변경』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 1954. 1. 8; 『합의문서』,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30-632면. 1953년 10월 8일, 전상자에 대해 특별상이기장을 수여할 때, 미 제8240부대를 국방부 제8250부대로 정정했다(육본 일반명령 제253호, 1953. 10. 31).

당시 미군 입장에서는 유격대원들을 강제로 섬에서 철수시켜 국군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대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여겼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 가운데 철수와 국군편입을 반대하고 투쟁을 계속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열띤 논쟁 끝에 결국 국군으로 편입되었다.<sup>1050)</sup> 유격대원들은 이것으로 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한 처우를 획득한 것으로 이해했다.<sup>1051)</sup>

미 제8240부대에 소속하고 있던 한국인 대원들은 국방부 제8250부대로 일제히 전속되었다. 미군에서 유격군의 국군편입을 패피작전(Operation Plan Pappy)이라고 했다.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 특수작전과의 헤이굿(Johnny Haygood) 중령이 담당자였다.<sup>1052)</sup>

국방부 제8250부대로 편입은 ‘고아격이었던’ 유격대원들이 ‘조국의 품안으로 안겨 잃었던 아버지를 찾게 된 것’으로 비유되면서, 장교 혹은 부사관으로서 정식으로 국군과 동일한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들이 국군의 일원으로서 특수사명에 전심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sup>1053)</sup> 제8250부대장은 김완룡 준장이 임명되었다.<sup>1054)</sup> 그 외 간부진으로 법무부장 대령 고석태, 인사참모 소령 오봉규, 고급부관 대위 박희양, 군기대장 대위 안병윤 등이었다.<sup>1055)</sup>

각 유격대는 제8250부대로 편입되어, 제1연대에서 6연대까지 편성되었다. 제1연대 소속은 동키 제1부대(신천부대), 동키 제4부대(장연부대), 동키 제11부대(웅진학도유격대), 동키 제13부대(신천부대) 등이었다. 제2연대는 울팩 제1, 2, 8 부대였고, 제3연대는 커크랜드, 아벤리 등 동해안부대, 제5연대는 공수 제1유격연대, 제6연대는 동키 제3, 7, 9, 10, 15, 20, 21, 월봉부대, 안용부대, 수도부대, 천

1050) 『안악군지』, 417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5.

1051)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5면; 『유엔군 유격전』, 171면.

1052)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2-13.

1053) 『제8250부대 창설과 김완룡 준장의 취임사』, 『파라슈트』 12, 1953. 11. 5, 22-23면; 국방부 제8250부대 사령관 준장 김완룡, 『연두사』, 『파라슈트』 14, 1954. 1. 15.

1054) 전쟁전 청년방위대 훈련지도관을 역임했다(『육본 특별명령(갑) 제70호』, 1950. 3. 16, 남정욱,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0, 군사편찬연구소, 176면에서 재인용).

1055) 『국8250특별명령(갑) 제1호』, 1953. 11. 16(박상준 제공문서). 오봉규 소령은 1953년 초에 잠시 제8240부대에 복무한 적이 있었다.



신분증(국방부 제8250부대 사령부 발행)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으로 이관되기 전에 부대원의 명부, 공훈관계 등에 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대로 유격부대의 간부와 통역 등 2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였을 뿐이었다.

제8250부대는 유격대의 인사, 포상, 군기 및 계급부여 등을 책임지는 동시에 전상유격대원과 전사자 가족은 한국군과 동일한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유격대의 작전통제, 군수지원 및 훈련을 제8240부대의 미군 책임 아래 두었다.<sup>1058)</sup> 제8250부대에서는 부대원 가운데 종전에 총참모장 사단장 등이 발행한 ‘훈기장 가수여증’을 받은 자들은 ‘정수여증’과 교환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해당 훈기장은 무공훈장, 상이기장,

용, 황해, 방카, 울퍽 3~7부대 등이었다.<sup>1056)</sup>

비정규군의 유격부대를 해체할 때, 이들 부대의 기록 정리, 봉급수당 지급, 상훈, 무기와 장비 회수, 상병자의 보호, 고용, 불법단체 형성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sup>1057)</sup> 그런데, 전쟁중 국군 당국은 유엔군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에 대한 통제를

1056) 『8250부대편성표』, 1961, 정부기록보존소; 『부대편제표』, 전 8250부대 서해지구 학도유격대, 『청원서』, 1962. 7.

1057) 육군대학, 『군사평론: 전술연구참고』, 1972, 242-243면. 북한측은 전투에서 ‘인민군’의 용감성과 헌신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미 1950년 7월 1일 전쟁 참전 군인들에게 ‘영예훈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 ‘인민군’은 물론 유격대원들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7월 7일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유독립훈장’을 제정하면서도 그 대상에 유격부대가 들어 있었다. 전후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에서는 조국해방전쟁 기념메달은 전쟁에서 헌신적이며 용감한 투쟁으로써 승리를 보장한 ‘인민군’,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일꾼들에게 수여할 때에도 전선과 후방에서 직접 빨치산투쟁을 하였던 부대원도 포함되었다(『조선중앙년감』, 1954-55(상), 49면;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194면).

1058) 『유엔군 유격전』, 200-201면.



6·25 종군기장 등이었다.<sup>1059)</sup> 율팩 제2부대의 경우, 1953년 12월, 전투공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8250부대장에게 1연대 신태호, 제2연대 김일동 등 39명을 훈장수여대상자로 추천했다.<sup>1060)</sup>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격대가 각 부대 단위로 육군 정규사단의 경우처럼 전공이나 공로에 따른 대통령, 국방장관, 참모총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적이 없었다.<sup>1061)</sup> 미 제8240부대 사령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에게 미국 동성 자유훈장을 수여토록 추천하였다.<sup>1062)</sup> 그러나 제8240부대에서 실제로 미국 훈장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왜냐하면, 미군은 전과가 있는 유격부대에게는 포상을 즉각적으로 잘 해 주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Successful partisan teams were rewarded immediately and well). 예를 들면, 제일 큰상은 미국 훈장이 아니라 발동선이었다. 1952년 4월 2일, 동키 제20부대가 신화면 상륙작전에서 북한군 제26여단 1개 소대를 섬멸하고 생포한 특무장으로부터 기밀과 정보를 다수 제공하자, 백령도 기지사령부에서는 발동선 청길호(40톤)를 구입해 주었다.<sup>1063)</sup>

전쟁중 전사한 유격대원의 유가족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었다. 유격대원이 사망할 경우, 장비는 동료에게 인계되고 미망인이나 자녀들에게 별 다른 조치는 없었다.<sup>1064)</sup> 동키 제20부대장 박동호는 유가족들에게 부대차원에서 약간 배려를 한다고 했으나 불가항력이라고 했고, 동키 제4부대장 박철은 동고동락의 뜻은

1059) 육군 제8250부대 사령부, 『훈기장 정수여증 교부에 관한 건』, 1954. 1. 30, 『래한철』(사령부 1954. 1(특전사 역사관 소장).

1060) 『전투공적자 추천에 관한 건』, 1953. 12. 28(율팩 제2부대 전우회 제공문서).

1061) 육본 군사감, 『병과별 부대역사』, 1959, 31-39면. 이 때문에 전우회에서 유격전 전투유공자 681명에 대한 서훈 청원을 했다(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정부관련부처에 계류중인 현안』, 2001. 3. 31). 그런데, 2001년 3월 현재, 한국전쟁 참전자의 경우는 총 769,353명으로 이 가운데 109,005명이 전쟁중 포상을 받았고, 휴전 후 1954년 말까지 누락된 서훈자를 조사하여 추가로 포상된 경우가 70,386명으로 총 179,391명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국방부 인사국, 『6·25 참전 유공자 민원처리』, 2001. 3. 12).

1062) R.M.Ripley Maj., HQ Operation Wolfpack, "Recommendation for Award", Oct. 26, 1952,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Thomas A. Dye, Maj., HQ Operation Leopard, "Award of Medal of Freedom", Nov. 13, 1952, 국방부, 『공적서철』(군편 사료 304).

1063) 『구월산유격부대전사』, 67면;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p. 414, p. 417.

1064) 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p. 23.



상이기장 수여

김일환 국방부차관,  
전상 대원 및 상이기장 수여 훈시

있으나 호구지책을 강구할 따름이었다고 했다. 동키 제16부대장 전용세는 유가족을 최소한으로 돌보고 있다면서, 사령부에게 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sup>1065)</sup>

결국 제8240부대의 전상자는 제8250부대로 편입된 후 정리되었다. 전상자는 각 부대에서 부상당시의 직책, 부상장소, 부상일시, 부상부위, 부상정도 등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군의관이 해당자의 치료기간, 치료경과 등을 확인하여,<sup>1066)</sup> 그 결과에 따라 상이기장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 상이군인에게 기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각 도서에서는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다. 한 섬에 있는 상이군인이 50여 명인데, 국방부로부터 받은 특별상이기장은 4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sup>1067)</sup>

동키 제4부대에서 전투 중 한 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대원의 일자리 문제를 백령도 기지사령부에 요청했을 때, 기지사령관은 이들이 걸리지 않아 서울에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경우처럼 일부 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침은 아니었다.<sup>1068)</sup> 부상대원의 대우를 개

1065) 『설문』, 『당나귀』 2, 1952. 12, 81면; 『설문』, 『당나귀』 4, 1953. 2, 43-45면.

1066) 제2연대 제9대대, 『사실확인서』, 1953. 8, 특전사 역사관 소장; 국방 제8250부대 제2연대 제8대대, 『군의관인정서』, 1953. 8, 특전사 역사관 소장.

1067) 『대원 상담실』, 『과라슈트』 9, 1953. 8. 15, 142면; 본부 정양원 황형근, 『무제』, 『과라슈트』 11, 1953. 10. 15, 165면.

선하고자, 1951년 10월 율곡 제2부대에서는 ‘부상군인회’를 조직해 지원했다.<sup>1069)</sup>

## 2. 육군 편입

1954년 신년사에서 무겔버그(Muggelberg) 중령은 유격부대의 재조직과 아울러 적을 무찌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훈련을 강조했다.<sup>1070)</sup> 국방부 제8250부대 사령관 김완룡 장군은 유격대원들이 국군의 일원으로서 특수사명에 전심전력해 전 국민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진실한 유격군을 하루속히 확립하기를 기대했다.<sup>1071)</sup> 1953년 12월 동키 제13부대 부대장이 무겔버그 사령관에게 보낸 성탄절 서한에서 “새로운 1954년에는 가일층 훈련에 정려할 것이며 반공적 관심을 양양하여 우리 유격군은 영예있는 북진 전선의 선봉이 되어 우리 한국의 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맹세한다”고 썼다.<sup>1072)</sup> 또한, 구월부대의 경우 내무부 산하 공비특별대로서 싸울 것을 탄원했다.<sup>1073)</sup> 그때까지 이들은 제8240부대가 육군으로 편입되어 해체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이들을 유격대원으로 양성하지 않고, 일반 보병대원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미군사령부는 한국정부에 항의를 했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손원일-Stuart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방부 제8250부대가 ‘준군사적 부대’인데다가, 제8250부대 사령관은 일반행정·포상·징계 처분에 관한 권리만 있고, 연합정찰사령부의 사령관이 훈련과 작전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므로<sup>1074)</sup>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국방부에서는 1954년 1월 8일, 제8250부대를

1068)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069) 『신광천 공적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전투공적조서서』, 1953. 12.

1070) 『신년사』, 『파라슈트』 14, 1954.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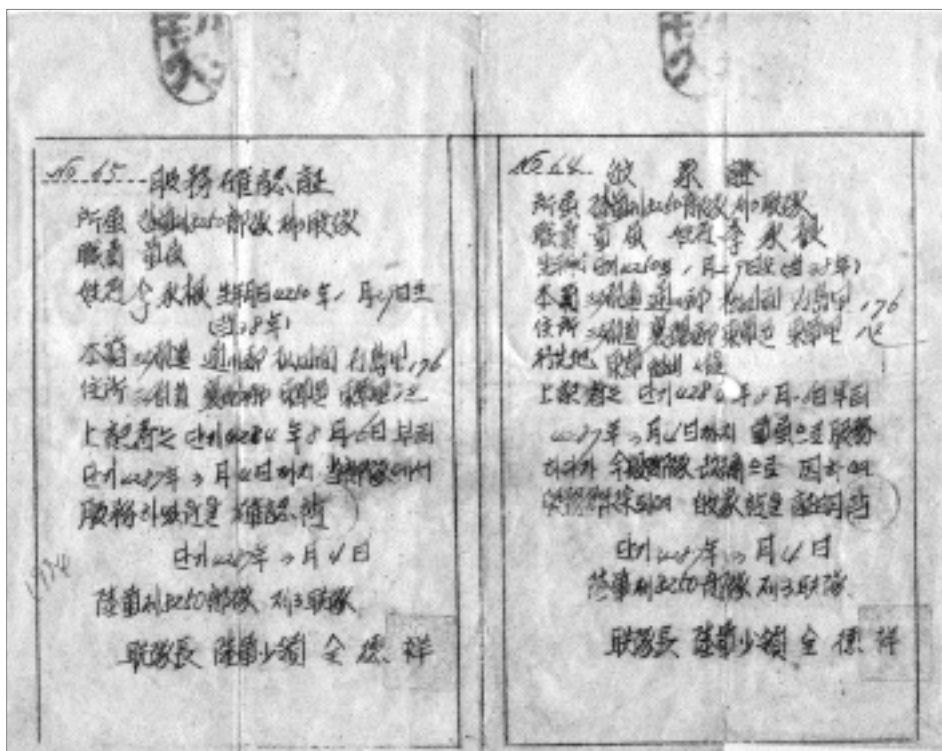
1071) 국방부 제8250부대 사령관 준장 김완룡, 『연두사』, 『파라슈트』 14, 1954. 1. 15; 제8250부대 사령관 준장 김완룡, 『제8250부대 상이기장 수여에 제하여』, 같은 잡지.

1072) 『유격사단 제13대대 대대장 김장성이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 1953. 12,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1073) 구월부대장 박동호 외, 『탄원서(내무부장관)』, 1953. 8. 14.

육군본부로 예측시켰고(국일명 제20호),<sup>1075)</sup> 부대원들을 2월 22일부로 육본특(을) 제66호에 의거해 육군 제8250부대로 입대시키는 동시에 계급부여 및 배속을 실시했다. 군 병원에 입원했던 전상불구자는 이 날짜로 현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퇴원할 때 군번부여와 동시에 제대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에서 유격대를 한국 육군으로 이관시키는 계획(Quick-Silver)을 수립하여 제8250부대원들은 1954년 2월 중순 미군들에게 직접 인원점검을 받고, 20일경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sup>1076)</sup> 군번 수여식이 거행되어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다. 동키 제11부대의 경우, 대위 1명, 중위 13명, 소위 29명 등 총 43명이 장교로 임관되어 신고식을 마쳤다. 이어 부사관 임관식, 대원들의 육군 입대에 따른 서



육군 제8250부대 복무확인증

1074) 『합의문서』,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30-631면.  
 1075) 『예속변경』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 1954. 1. 8.  
 1076) 대원들은 수 많은 전투에서 목숨을 지켜 온 무기를 회수당할 때 좌절과 허망함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해주유격부대 전사』, 402-403면).

약 선서가 있었다.<sup>1077)</sup> 2월 24일 부대 단위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sup>1078)</sup> 이에 따라 율백 제8부대의 대원은 3월 5일 주문도를 떠나, 3월 6일 춘천에 도착해 국군 제6사단 보충대로 가서 배치되었다.<sup>1079)</sup> 장교는 대구보충대에서 병과 분류 후 보병학교 특별반(OCS 94, 96기)을 수료하여 각 사단으로 배치되었고, 사병은 춘천보충대를 거쳐서 각 사단으로 편입되었다. 미군 요원들은 대개 미 제8군으로 전속되었다.<sup>1080)</sup>

유격대원으로서, 계급장이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 정정당한 대한민국 육군 계급장을 달았다는 자부심을 가진 대원도 있었겠지만<sup>1081)</sup> 상당수의 유격대원들은 이를 불만으로 여겨, 모 부대에서는 참모와 중대장급 간부들이 혹은 행정관과 정보관 등이 함께 도망갔다. 이 중에서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sup>1082)</sup> 1954년 2월초에 611명, 3월초에 1,493명이 탈영을 했다.<sup>1083)</sup> 육본에서는 정식으로 제대 허가를 받지 않는 도망자나 무단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1954년 3월 4일부로 제1헌병호송중대를 동원하여, 용유도, 대무의도, 주문도, 강화도, 교동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잠재하고 있는 제8250부대의 도망병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였다.<sup>1084)</sup>

1077) 『학도유격부대 전사』, 433면.

1078) 『작전지시 제482호』, 1954. 2. 22, 『한국전쟁사료』 64, 육본, 1988, 674면; 『유엔군 유격전』, 202면.

1079) 이종암, 『북향록』, 1954. 2. 14, 22, 3. 5-7.

1080) Col(R), Charles W. Norton, Jr.s Letter, Oct., 2002.

1081) 이경남, 『구월산 안악반공유격부대 투쟁사』, 1985. 11. 26, 육본 군사연구실, 56면. 당시 국방부에서는 정규 유격대와 임시로 채용되어 있는 고용인을 구분하여 고용인은 임시 군속으로 처리하였다(국방부 총무과장 대령 김귀암, 『국방부귀속 제8250부대원 신분증 발행에 관하여』, 1953. 12. 7, 박상준 제공 문서).

1082) 이종암, 『북진록』, 1953. 9. 8; 『래한철』(사령부) 1954. 1(특전사 역사관 소장); 『유엔군 유격전』, 204면; 김인식(예, 중령) 증언, 2003. 12. 8;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3;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9-23; *Witness to War : Korea*, p. 200.

1083)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면, 16-17면; 『유엔군 유격전』, 203면. 1951년 8월, 미군 소속의 특공중대원들은 부대가 해산되자, 심한 좌절과 분노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수작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응했고, 전쟁중 성과에 대해 자부심이 컸기 때문이었다(Robert W. Black, op. cit., pp. 202-203).

1084) 『작전지시 제483호』, 1954. 3. 3, 『한국전쟁사료』 64, 육본, 1988, 675면.



동기 제11부대 인원 점호(대청도, 1954. 1)

당시 유격대원들은 전쟁시기의 풍부한 경험들이 사장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들은 베트남이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대립하면서, 좌익세력들과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월남이나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의 반공투쟁에 파견될 것을 대비해 훈련을 했다고 한다.<sup>1085)</sup> 혹은 지리산 등 일부 빨치산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산악 및 야간 전투의 실전경험이 많은 자신들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백령도나 서해 등 해안방위지역에 배치될 것을 기대하였다.<sup>1086)</sup> 또한,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 등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대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육군 사병으로 편입되자 반발하였다.

유격대는 육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앞서 서술

1085) 『국민보』 1954. 2. 17; 최광국 증언, 2002. 9. 5; 장재혁, 『제3공화국의 베트남파병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29-35면;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 논총』 39-2, 1999, 175면. 1954년 1월 28일, 국무총리 백두진이 유엔군사령관 헐 장군에게 그가 동의한다면 국군 1개 사단을 좌익과 투쟁하고 있는 라오스에 파병할 용의가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국 입장은 한국군의 파병이 한국에서 유엔군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라오스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반대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나, 한국정부가 파병안을 구상할 때 제8250부대를 고려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Memo for NSC: Proposed ROK Offer of Troops to Laos”, March 2, 1954, 군사편찬연구소 SN 915). 1954년 6월, 인도차이나 정세의 악화를 배경으로 이승만이 3개 사단 파병안을 다시 제안할 때는 이미 제8250부대가 육군으로 분산되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1086) 이경남, 『구월산 안악반공유격부대 투쟁사』, 1985. 11. 26, 육본 군사연구실, 56면.

한 대로, 1953년 5월에 유격대원의 규모는 22,000여 명 정도였으나, 휴전 후 1953년 11월경에는 14,000여 명으로 줄었다. 1954년 3월 7일까지 육군으로 편입된 인원은 제1유격대 1,752명, 제2유격대 2,665명, 제3유격대 2,161명, 제6유격대 2,954명, 제1공수유격대 125명 등 9,657명이었다.<sup>1087)</sup> 여기에는 각 연대가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150명과 새로 편성된 특수작전팀 요원으로 참가할 제1공수유격대연대의 201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 전상자 575명은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고,<sup>1088)</sup> 군 입대 적령에 미달자인 18세 미만의 청소년 대원과 초과자인 30세 이상, 신체적 결함이 있는 대원 혹은 복학으로 인한 경우는 제대를 했다. 이 때 제대대원들에게 미 제8240부대 명의로 제대증서를 수여했다.<sup>1089)</sup> 예를 들면 송호부대의 경우 1953년 1월 당시 부대장 34세, 참모장 29세, 인사참모 43세, 정보참모 33세로 이들은 제대처리를 해 제2국민병으로 등록을 했다.<sup>1090)</sup> 울퉁 제3부대의 경우, 전체 대원 550명 중 미 편입인원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70명이었다.<sup>1091)</sup>



미 제8240부대 제대증서

1087) 1954년부터 1960년까지 현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11,546명이다(중문단 자료).

1088) 육본 중문단 병적부, 부관감실 전상자 명부 참고.

1089) 안용부대전우회, 『안용부대 약사』, 2002. 8.

1090) 『송호부대 명부』, 1953. 1. 21, 특전사 역사관. 그런데, 군대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연령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1091) 『미 제8240 W/P 3부대 편성표』, 1951. 4. 23, 정부기록보존소.



유격군 장교임관  
(동키 제11부대)

국군 현역으로 편입되면서, 전쟁기간 동안 유격대원으로 참전했는데도 다시 현역으로 입대하는 방침이 정해지자 연령을 올리거나 낮추어 병역을 기피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가족의 부양을 위해 도망한 경우도 많았다.<sup>1092)</sup> 제대자에게는 제복, 모포 4매, 취사도구, 쌀 90kg과 한국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수송편이 제공되었다.

육군 편입시 계급 부여는 다음과 같았다. 미군 유격대사령부에서는 연대장에게는 중령, 대대장에게는 소령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한 계급씩 낮게 소령과 대위로 처리되었다. 실제로 일부 부대에서 대대장과 참모들이 중위, 중대장은 소위로 임관된 경우도 있었다.<sup>1093)</sup> 간부들 가운데 소위에서 소령까지 임관된 인원은 753명(군번 222452~223204)이었다. 1954년 2월 16일, 국방부 특별 명령 제39호 임관자체는 ‘민간인’ 김장성, 박상준, 이태훈, 정현교 등 753명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장교로 현지임관” 형식으로 현역에 복무토록 하였다. 박상준, 김장성, 이태훈 전덕상 등 4명의 부대장에게 소령대우를 했지만, 소위로 임관하고 임시 계급으로 중위, 대위, 소령으로 임관했다.<sup>1094)</sup>

1092) 임영의 증언, 2002. 8. 29.

1093) 이종암, 『북향록』, 1954. 2. 20, 21;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3.

1094) 이규철, 『유격군동해안부대 개요』(메모), 1994. 3. 3, 6-7면; 이영재(동키 제11부대) 증언, 2002. 9. 12; 황윤걸(동키 제9부대) 증언, 2003. 11. 8.



&lt;표 5-15&gt; 동키 제4부대 장교 임관자 명부

성명	계급	병과	성명	계급	성과
최문려	대위	공병	임종실	중위	법무
송성일	중위	공병	조승환	중위	포병
박인철	중위	공병	김효선	중위	통신
김영구	중위	공병	최경현	중위	보병
최승철	중위	공병	김재도	소위	공병
최원봉	중위	의정	김성욱	소위	포병
김준걸	중위	공병	김병호	소위	보병
오종국	중위	포병	김병택	소위	공병
최한철	중위	정훈	여성순	소위	통신
박창훈	중위	포병	김대인	소위	정훈

이 때문에 현지임관 이전 유격대 복무기간이 현역복무로 인정되지 않아,<sup>1095)</sup> 진급에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임관된 간부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위로 제대했다. 하위 간부들과 같이 진급하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진급이 더 늦은 경우에는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up>1096)</sup>

간부들은 <표 5-15>처럼 보병으로부터 정훈, 법무, 포병, 공병, 통신, 의정 등 다양한 병과로 편입되었다. 이 때 중화기 중대나, 통신대, 의무대 등에서 복무하였던 간부들은 포병, 통신, 의정 등으로 임관되었다. 보병보다는 공병나 법무 등을 선호했다.<sup>1097)</sup> 장교들은 대구 보충대에서 병과 분류 후, 보병은 광주 보병학교에서 장교후보생(OCS), 초등군사반(OBC) 훈련을 받고 전후방 각 사단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군 당국이 그들의 사상성이나 훈련 수준에 의구심을 가져

1095) 육본, 『민원처리회신(임종득)』, 1986. 5. 28; 이종학, 『진정서』, 1987. 2; 국제연합유격군전상동지회 회장 노관형, 『탄원서』, 1992. 5; 목영설, 『진정서』, 1995. 11. 18; 육본, 『민원처리 결과회신(목영설)』, 1995. 12. 4. 전쟁기간 중 복무연한이 포함되지 않아, 군인,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개별 복무기록이 없어서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주한국제연합유격군 사령관 명의로 발행된 제대증서에는 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울퉁 제2부대에 근무했던 이영배는 1951년 3월 27일부터 1954년 2월 25일까지 복무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1096) 이영재(동키 제11부대) 증언 2002. 7. 19;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9. 2. 임관자 가운데 대령까지 진급한 경우는 7명, 장군은 1명이었다.

1097) 『백호부대 유격전사』, 263면, 임결순 증언, 2003. 12. 8.

진급에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했다.<sup>1098)</sup>

부사관과 사병으로 편입된 인원은 12,000명 정도였다. 사령부에서는 대원들의 유격대 시절 직책과 기간을 고려하여 이등병부터 일등중사(하사)까지 계급을 부여했다. 군번은 0770001번부터 0782594번이었다. 이후에도 군 병원에 입원했던 전상 장애자는 1957년 100명, 1958년 160명이 계급과 군번 부여와 동시에 명예 제대를 시켰고, 그 외 누락된 자가 추가되어, 1961년의 경우 179명에게 군번(0786009-6188)이 부여되었다.<sup>1099)</sup>

대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계급에 대해 민감했다. 동키 제11부대 제1대대 통신사로 있던 전인수는 자신의 계급에 대해 초조히 기다리다가 이등중사(병장)를 받자, “머리에는 안개가 가득차 있고…… 이 때 기분을 무엇으로 형언할지 모르다…… 나에게 돌아온 대가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커다란 좌절을 느끼면서 집합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입대 서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등중사를 몇 천만번 입 속에서 중얼거리며 잤다고 했다. 다른 대원들도 누구는 어느 계급을 받았고, 누구는 무엇이라고 불평불만을 토해 냈다.<sup>1100)</sup>

유격대에서 직책에 따라 소대장이나 선임하사 등 30% 정도가 하사(상등병)로부터 이등중사로 편입되었다. 분대장은 일등병, 화기분대장 상등병, 소총 선임하사 상등병, 화기 선임하사 이등중사, 직책이 없는 대다수 일반 대원은 이등병으로 입대했다.<sup>1101)</sup> 그러므로 전쟁 기간 동안 풍부한 전투경험으로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대원들은 자신들이 신병과 다름없는 대우로 국군에 편입되자 불만이 많았다. ‘무등병’으로 햇병아리 일등병에게도 굽신거려야 하니, “그 동안의 유격군 생활이 허사였다”고 토로했다.<sup>1102)</sup> 심지어 현역 낙오병도 유격부대에서 줄곧

1098)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6-17면.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15. 미군에서 훈련을 받고 국군에 배치된 K 군번의 병사들도 진급을 지연시키는 등 견제가 있었다고 한다(오용일 증언(전쟁당시 제9사단 복무), 2003. 7. 28, 군사편찬연구소).

1099) 이 군번에는 현지입대자, 무병적자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육본 부관감실 군번부여대장).

1100) 전인수 일기, 1954. 2, 19-22.

1101) 한동수(울퍽 제1부대) 증언, 2002. 9. 16; 변철준(동키 제12부대) 증언, 2003. 11. 8.

1102) 이병두(도치라이트 부대원), 『오뚜기 인생』, 1992, 106-107면; 황윤걸 증언, 2003. 5. 17; 장기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일등병으로 편입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장교가 되었다.<sup>1103)</sup> 결국 일반대원은 대부분 다시 현역으로 복무했다. 이에 따라, 불만이 많았던 대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 당국에서는 제8250부대 제대증을 압수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국군에 편입된 후로도 제8240부대 대원들에 대해 국군 장교들은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다. 더욱이 그들이 북한 출신이 많은 데다가 대북 침투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주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1개 분대에 2명 이상을 배속시키지 않고, 주로 후방지역의 여러 부대에 나누어 편입시켰다.<sup>1104)</sup> 그러나 전투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점차 신뢰를 얻었다.<sup>1105)</sup>

한편 육군 제8250부대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은 1954년 4월경일 것으로 보인다. 육본에서는 이 해 4월 6일, 국방부로 제8250부대의 해체명령을 내려 줄 것을 건의했으나(작편 제994호), 국방부에서는 이 부대의 예속이 이미 육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대의 해체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sup>1106)</sup>

1954년 3월 한국군 최초의 특전부대인 제8731부대(김중진 중령 ; 육사5기)가 창설되자, 특전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 제1공수유격연대 출신, 육군 지원자 등 400여 명으로 편성했다. 1954년 3월 31일부로 제8731부대는 경기도 덕소리에서 작전과 교육감독권을 참모총장으로부터 미 제8240부대로 이양했다.<sup>1107)</sup> 이후 경기도 용유도로 옮겨서 훈련을 받다가, 1954년 12월 초 제8731부대는 제2훈련소장이 정한 논산부근으로 이동지시가 있었다. 미 제8240부대가 해체된 후, 1954년 12월 말 해체되어 일부 병력은 HID, 논산훈련소 교관요원으로 활용되었다.<sup>1108)</sup>

---

락 증언, 2003. 11. 7.

1103) 『학도유격부대 전사』, 433면.

1104) 장기락 증언, 2003. 7. 23; 임결순 증언, 2003. 12. 8.

1105)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16-17면; 최광국, 앞의 글, 10면; 『유엔군 유격전』, 199면; 조남혁, 앞의 책, 58면; 김기서·박두현·황순규 등(울팩 제8부대) 증언, 2002. 6. 24; 민중선 증언, 2002. 8. 25.

1106) 『제8250부대 해체에 관한 건』 국방총제622호, 1954. 4. 12, 육본 군사연구실.

1107) 『작전지시 제632호』, 1954. 8. 23, 『한국전쟁사료』 64, 육본, 1988, 845면; 김완규, 『國際聯合遊擊軍 空輸部隊 沿革』, 1991. 6. 1.

1108) 『작전지시 제690호』, 1954. 11. 30, 『한국전쟁사료』 64, 육본, 1988, 921면; 이정구 증언,

그 후 1958년 4월 1일 서울 용산에서 공수부대인 제1전투단(부대장 백문오 대령)이 2개 대대 병력으로 창설되면서(국본 일반명령 (육) 제7호), 육군에 흩어져 있던 제8240부대 출신의 장교 20여 명이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었고, 일부 사병들도 합류시켜 공수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들은 전쟁시기 공수부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받았다.<sup>1109)</sup>

한편 유격대 활동 중 도중이탈자나 국방부 제8250부대 편입시 징집연령 미달자 등에 대하여 1962년 국방부는 전쟁중 국군 또는 유엔군 부대의 일원으로 종군하여 군에 복무한 자 가운데 전공, 사상, 심신장애 등으로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귀가한 자에 대한 복무조정을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전란기에 행정적 결함을 시정하고 민원처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제8250부대로 편입될 때까지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이탈한 자들을 구제하려는 조치로, 종군사실이 확인된 자는 제1예비역에 편입시켰다.

1962년 4월 11일, ‘6·25 종군자 복무조정계획’에 대한 장관 승인을 얻은 후, 동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제1예비역 편입서류를 접수받아, 동년 6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은 국방부 병무국 병무과장과 인사관리과장, 육군 인사참모부 인력통제처장, 해군 인사참모부 운영처장, 공군 인사국장 등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 인사관리자들로 구성되었고, 심사위원장은 국방부 병무국장 유근창 소장이었다. 이 기간 중에 접수된 총 8,282건은 미 제8240부대 3,360건, 정보학교 출신자 490건 등이었다. 이들 신청자 가운데 제대증, 각종 수료증, 사진 등을 제출한 519명(재검토자 103명)이 적격자로 처리되었다. 이들은 이등병으로 1953년 7월 27일 입영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여 군무 소집대상에서 정식으로 면제되었다. 부적격자들에 대한 검토는 1966년까지 계속되어 실격자 464명을 심사하여 23명만 적격자로 추가 처리한 후 종군자 복무조정이 종결되었다.<sup>1110)</sup>

2003. 10. 21.

1109) 제1공수특전단 부대약력표, 육본 군사연구실; 김선한, 『X』 하, 디지털에프케이, 2000, 270-271면; 이상연(울팩 제7부대) 증언, 2002. 9. 6, 전화; 강종진(울팩 제1부대) 증언, 2002. 9. 7;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8. 18.

1110)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복무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962. 10. 10, 정부기록소 소장; 국

유격대원들은 전쟁 당시의 증빙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출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전우회 발행 증서가 첨부된 경우가 많았으나 신빙성을 검증하기에 많은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군당시의 부상, 증서에 쓰인 잉크색·획·고무인, 사진 등을 통해 종군사실을 확인하여, 1966년 7월 10일자로 전역확인을 처리했다.<sup>1111)</sup> 그러나 이때 전쟁 시기 부대의 병력 관리 소홀,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지 않는 점, 전후 어려운 생활 속에서 증빙서류의 보존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sup>1112)</sup>

### 3. 전사자와 포로 및 실종자의 현황

#### 가. 규 모

미군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무기와 훈련부족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모부대의 한 중대장은 심지어 야간 침투시 플래시를 머리에 달고 가서 적의 표적이 되어 즉사했다.<sup>1113)</sup>

1952년 11월 10일 율백 제8부대에서 웅진군 용연면 천좌농장을 기습할 때, 유격대의 공격을 대비해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이 총기를 발사하지 않는 채 서로 퇴각하기를 요구해 양측이 서로 살생을 하지 않는 이변이 있었다고 한다.<sup>1114)</sup> 그러나, 상술한 대로 대화도, 용호도 등 북한군의 피습을 당할 때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방부 병무과, 『종군자 복무확인 작업결과』, 1965. 8. 4, 같은 문서;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 복무 조정업무 종결보고』, 1966. 6. 7, 같은 문서.

1111)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복무조정종결계획』, 1965. 6. 7,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국방부, 『종군자 복무조정 업무 종결』, 1966. 7. 18(같은 기관); 국방부 병무과, 『종군자 복무조정』, 1966. 8. 23(같은 기관).

1112) 병무청, 『참전사실 확인질의 회신』, 1970. 12. 7(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병무청, 『6·25종군자 복무 재조정』, 1970. 9. 29(정부기록보존소).

1113) 안병섭, 『실지를 지키는 낙도』, 『사상계』, 1962. 2, 216면; 이병곤 증언, 2002. 9. 7.

1114) 이종암(당시 소대장), 『웅진군 용연면 해암동 천좌농장 기습작전의 이변』, 2002. 4.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동서 해안에서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작전 중 희생된 규모를 살펴 볼 수 있다. 1952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해안 레오 파드기지와 울팩기지의 작전과정에서 아군 유격대원 34명이 전사했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1953년 1월중 98명이 전사했고,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2년 1월 이후 10월까지 동키 제4부대의 경우, 전사자가 22명이었고, 1952년 1월부터 1953년 1월까지 1년 동안 두 기지에서 868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1,092명이었다.<sup>1115)</sup> 전사자들에게는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sup>1116)</sup>

동키 제3부대 최동하 부대장, 동키 제7부대장 박철성, 동키 제16부대장 양창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각 부대별 규모를 고찰하기 위해, 1977년 6월 국립현충원에 유격군 전적 위령비를 건립할 때 파악한 전사자를 부대별로 살펴보면, 장연·백호부대(D-3, D-4) 318위, 신천부대(D-1, D-5, D-13) 188위, 송림부대(D-6, D-8) 96위, 수월부대(D-7) 166위, 구월부대(D-20) 719위, 안악부대(D-10) 66위, 송화부대(D-21) 90위, 용진부대(D-11) 274위, 평산부대 47위, 강화 울팩 부대 472위,<sup>1117)</sup> 백마 평남 동해안 부대 660위 등이다. 이 가운데 2,000명 정도가 황해도 출신이다.<sup>1118)</sup>

1955년 12월 20일, 육군본부에서는 동키 제2·20부대 536명, 동키 제21부대 86명, 동키 제3부대 88명, 동키 제10부대 70명, 동키 제7부대 132명 등 총 912명을 전사자로 인정하였다. 동키 제11부대는 120명을 전사자로 인정받았다.<sup>111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65년 4월 22일 국방부에서 3,459명의 전사자 명단을 전사망자(순직 포함)를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결정했다.

1115) 대위 도날드. A. 세이버,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 11. 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HQ, CCRAC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군편, SN 1964.

1116) 이종암 일기, 1953. 7. 16.

1117) 휴전 직후 조사한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타이거여단의 전사자 규모는 290명이었다(『전사명부』(문건번호 22호, 타이거여단 전우회 제공문서). 그러나 그 범위와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났다.

1118) 『백호부대유격전사』, 264-26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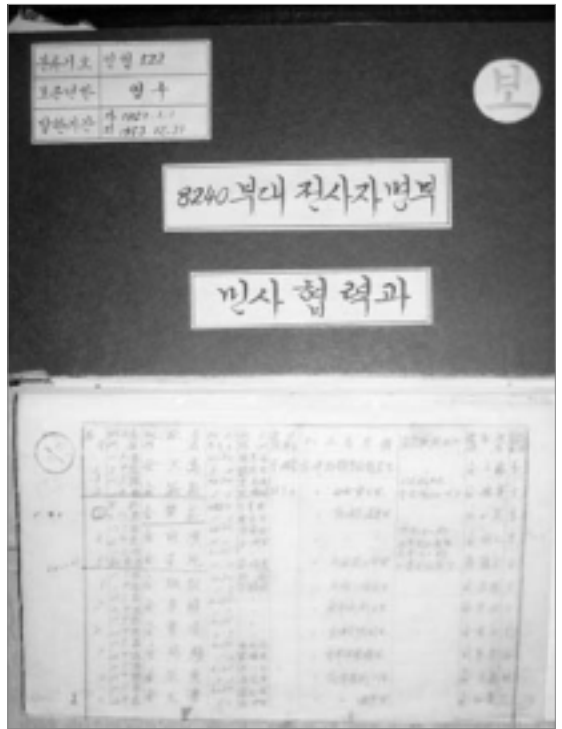
1119) 『구월산부대 전사 인정의결서』, 1955. 12. 20, 육본 부관감실; 서해지구학도유격대 이종학, 『청원서』, 1962. 8, 육본 부관감실; 『8240(8250) 부대원전사자 처리』, 1962. 9. 20.

안타깝게도 전사자들 가운데 당시 주둔지에 안장했던 상당수는 북한지역에 안장된 상태로 있어서 오늘날 찾아 볼 길이 없다. 예를 들면 동키 제7부대의 경우, 초도에는 박철성, 이정세 등 부대 간부를 비롯한 전사자를 소사리 상동초등학교 뒷동산에 안장했으나, 휴전 전에 이곳을 철수하면서 그대로 떠났다.<sup>1120)</sup>

그 외 훈련이나 경계근무 중 총기나 수류탄 오발 혹은 대인지뢰를 조명지뢰로 잘못 알고 투척해 전사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 1952년 10월 20일 동키 제20부대에서

오리포 주둔 제582포부대와 서해리 포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오다가, 금산포 해안에서 지뢰를 밟아 최용일은 전사하고, 김능모는 경상, 김찬진은 중상을 입고 대전 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953년 초 7명의 유격대원이 낙하산 점프훈련 도중 한강에 빠져 사망했다.<sup>1121)</sup>

작전 중 미군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즉 미 고문관이 위험할 때 예광탄을 발사해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으나, 이를 작전에 성공할 때 발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적시에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전사자 명부

1120) 『은율유격전사』, 182-183면.

1121) 이병곤 증언, 2002. 9. 7; 『퍼셀(Francis R. Purcell) 중령과의 면담록』, 1953. 5. 13,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율팩 제8부대에서 벙커 근무 중 수류탄 오발로 인해 박창선이 사망했다(조남혁 일기, 1953. 3. 4; 이종암 일기, 1953. 3. 4); 민종선 증언, 2002. 8. 16.

오탁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 1951년 11월 3일 04:00, 동키 제15부대는 백령도 기지사령부에 가차도가 적의 공격을 받고있다는 긴급보고를 하면서, 항공기의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침 9시경 미 공군기는 가차도 상공으로 날아와 육지의 적군 집결지에 대한 폭격은 하지 않고 해상에서 작전중인 백마부대 선박들을 폭격하였으며 가차도로 향해하고 있는 아군 지원부대 60명이 승선한 조양호를 공격하였다. 이 사고로 배가 침몰하여 정보참모 승석균을 비롯해 40여 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sup>1122)</sup> 1951년 12월 17일 우군기가 옹도 좌측에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동키 제20부대의 중선 1척과 범선 2척에 대해 기총사격을 가해 3척의 선박이 침수되고 선원 김무쇠, 박용래 등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sup>1123)</sup>

동키 제4부대의 발동선 대영호는 120톤급 선박으로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가장 대형 모선이였다. 1952년 8월 2일 북한군이 장산반도 일대에 대한 정찰활동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키 제4부대는 장산기지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대원 170명을 빨찌굴에 파견하였다. 이들을 하선한 뒤에 돌아오던 중 미군 전투기 2대가 출현하여 대영호를 적선으로 오인하고 기총사격과 로켓포를 발사하여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즉시 월내도 기지에서 백령도 기지사령부로 폭격중지를 요청하는 무전을 보냈으나, 포탄이 무선실에 명중되어 무선통신병 홍석충이 전사하고 김재려 보급관은 중상을 입었다. 월내도 기지에서 즉각 구조선을 현장으로 보내 선장, 보급관, 대원 8명은 구출하였다.

그 사고 원인은 서해지구 소속 VP쾌속정이 당일 처음으로 백령도 근해에 취항되어 장산반도 근해에서 초계활동을 하고 있던 중, 적지 장산반도로부터 되돌아오는 대영호를 발견하고 적선으로 오인하여 공격한데서 비롯되었다. 사전에 백령도 사령부를 통하여 향해 승인을 받았으므로, 미 극동군사령부는 서해지구 연합군의 해·공 협조체제와 연락계통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일본으로부터 쾌속 발동선(YARK120호)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sup>1124)</sup>

1122) 백마부대 정훈처,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당나귀』 1, 1952. 11, 82면; 백금룡 진술, 『민족의 증언』 5, 287면. 전사자의 규모를 55명, 부상자는 8명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다.

1123) 『구월산』, 239-240면, 242면.



이중간첩의 유인작전에 걸려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북한군의 추격으로 퇴각하면서, 부상대원을 후송할 수 없을 때는 비밀유지를 위해 동료대원의 손으로 희생시키기도 했다.<sup>1125)</sup>

그때 전사한 유격대원들은 국군묘지에 봉안되지 못하였으나,<sup>1126)</sup> 1970년 1월 9일 제정된 국립묘지령에 의해 유해가 없는 전사자도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6월 20일 전사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2,410명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했다. 누락된 인원이 추가되어 1996년 1,005위·1997년 304위·2000년 156위·2001년 19위·2002년 12위 등 총 3906위의 위패를 대전 국립묘지 현충탑에 봉안했다.<sup>1127)</sup> 이와 같이 전사자에 대한 기록이 계속 보강되면서 전사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부상자는 국군의 경우 전쟁시기에도 각 지구 전투 상이장병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였으나, 제8240부대 산하 부상자들은 휴전 후 비로소 전상자로 처리되었다. 이 때 군의관들이 부상자들을 검진하여 갑, 을, 병, 정으로 등급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sup>1128)</sup>

1953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89호에 의해 인사명령 제225호로 이종학·박복준 등 575명에게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했다.<sup>1129)</sup> 이들에게는 육군으로 편입된 1954년 2월 20일부터 수도육군병원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복무기간을 산정하고 현역으로부터 제대함과 동시에 병역면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박용민 이등중사(군번 0781727)는 복무기간이 1954년 5월 26일까지

1124) 『백호부대 유격전사』, 210-211면; Pak Choll, D-4 Leader,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Rewarding Captain of Abuse-2 on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Jan. 28,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3.

1125) 조남혁, 앞의 책, 53-55면; 안성일(예비역 대령) 증언, 2003. 9. 2.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전사자가 아니나, 대원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1126) 국제연합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반공유격군개황』, 1961, 26면.

1127) 육본 민사협력과, 『8240부대 전사자명부』(민협 522). 이 명단에는 중복인원이 13명이었다고 한다.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한국유격군 전사자 국립묘지추가봉안청원』, 1995. 9. 19;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한국유격군 전사자 추가확인 청원』, 2002. 4. 4;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국제연합 한국유격군 소개』, 2003.

1128) 제2대대 9대대, 『군의관의 인정서』, 1953. 8, 전쟁기념관.

1129) 대원들은 전쟁중 유격대를 이탈하거나 전후 처리에서 누락된 인원이 많다는 주장을 한다.



울퍽 제8부대 박의배 대원의 장례식(1953. 5)



동키 제11부대 안상렬 공작대장 묘지

계산해서 3개월간으로 산정했고, 고인산 일병(0774004)은 1954년 9월 17일까지 합산해서 7개월간으로 처리했다.<sup>1130)</sup>

#### 나. 포로 대우 및 귀환문제

유격대 활동을 하던 중 포로가 되었거나 실종된 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휴전 전에 북한으로 침투했다가 휴전이 성립되어 구출되지 못하거나 귀환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sup>1131)</sup>

1130) 『박용민 명예제대증서』, 1954. 5. 16; 『고인산 명예제대증서』, 1954. 9. 17.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살펴 볼 수 있다. 1952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레오파드기지와 울팩기지의 작전과정에서 유격대원 3명이 실종되었고, 1953년 1월중에도 유격대원 65명이 실종되었다. 동키 제4부대의 경우, 1952년 1월부터 1953년 1월까지 380명이 실종되었다.<sup>1132)</sup> 이 자료에는 포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1952년 5월 동키 제10부대의 김유성 부대장, 원용서 참모장, 전명성 호위대장, 국도빈 선박계장 등 10여 명이 웅진군 흥미반도 남쪽에서 태풍을 만나 선박이 북한측 해안에 닿은 바람에 모두 생포되었다. 또한 1953년 5월초 같은 부대에서 특공대 7명을 선발하여 구월산에 침투시켰으나, 5월 하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sup>1133)</sup> 울팩 제2부대에서도 1953년 7월 1일까지 대원들 가운데 행방불명된 자는 1951년 3월 25일, 귀순공작차 출동했던 첩보대원 최근일, 1951년 9월 15일 이중호·이찬모 등 6명이 개풍 토성 대정(BT757042) 지역으로 정보수집을 위해 침투했으나 소식이 두절되었다. 1952년 6월 16일 전투중 포위되어 실종된 자는 중대장 노창균 등을 비롯하여 모두 57명이라고 정리했다.<sup>1134)</sup> 울팩 제8부대의 ‘행방불명자명부’에 따르면 1952년 11월부터 1953년 5월까지 1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135)</sup> 이 가운데 후에 일부는 전사자로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는 낙오나 납치로 인한 실종이었다.

유격대의 포로대우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가 원칙적으로 비록 제네바협정 4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억류하고 있는 적측의 모든 인민들을 포로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유엔군사령부는 게릴라들도 반란군(bandit or outlaw)

1131) 임원빈, 『6·25의 전우들』, 1983. 7. 13, 27면.

1132) 대위 도날드 A. 세이버,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 11. 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304; HQ, FECLD(K), 8240th AU, “Resume of Guerrilla Operations 1-7”, Nov. 1952, 군편, SN 1963; HQ, CCRACK, “Combat Command Report”, Jan.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1133) 『안악군지』, 405면, 413-417면.

1134) 제8250부대 2연대, 『실종자명부』, 1953. 11. 12, 전쟁기념관; 타이거여단, 『행방불명자명단』, 1953. 7. 1, 전우회 제공.

1135) WP 8부대, 『해방불명자명부』, 1952-53, 특전사 역사관 소장.

으로 포로로 처리하였다.<sup>1136)</sup>

그러나 북한군 방송에서는 유격대 대원들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 전쟁포로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간첩으로 취급될 것, 즉, 게릴라부대는 공산군에 포로가 되면 제네바협정에 의하지 않고 가장 잔인하게 처리된다고 누차 경고했다고 한다.<sup>1137)</sup>

이 때문에 포로가 된 유격대원이나 첩보대원들은 북한 토벌대의 체포를 피해 자살을 하거나 탈주하였다. 1952년 2월초 육도가 피습되면서 포로가 된 동키 제4부대의 이호진, 오중섭은 2개월만에 탈주해 왔다.<sup>1138)</sup> 1952년 3월 하순 동키 제20부대에서 미 제6006 공군 첩보대원 김봉수(전 구월부대 대원)로부터 피납된 대원의 정보를 입수하자, 박덕관·이화준 등이 태을리로 상륙하여 포로가 된 임종득·김환녀 등 13명을 구출하여 초도로 귀환하였다. 8월 1일 오창걸은 강동 제8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해 썰물 때 도보로 유격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용매도로 귀환했다.<sup>1139)</sup> 앞서 서술한 대로 1952년 4월 구월산에 침투했던 동키 제20부대 대원 가운데 5명은 휴전 후 휴전선을 뚫고 돌아왔다.

포로가 된 유격대원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부 대원들은 처형되거나 중형을 받았을 것이다. 1952년 4월 동키 제20부대 이영배·최일성·배보양 등은 정보 수집과 귀순 공작의 임무를 받고, 장련면 직전리로 상륙하였다. 이 가운데, 임기성과 신관숙은 적에게 체포되어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악질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처단되었다.<sup>1140)</sup> 생포된 다른 부대의 대원들은 군중재판에서 20세 미만인 대원들에게 20년형을 선고하는 것을 비롯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sup>1141)</sup>

휴전 후에도 일부 첩보대원이나 무장유격대 출신들은 교화소에 수용되어 그

1136) 『극동군사령부 헌병감실에서 육군부 헌병감실로』, 1951. 10. 31, 29/389.

1137) 대위 도날드. A. 세이버,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 1952. 11. 6, 국방부, 『공적서철』(군편사료 304); 『백호부대 유격전사』, 177면;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 6.

1138) 이호진 증언, 동키 제4부대전우회, 2003. 8.

1139) 오창걸, 『사선을 헤쳐 1500리』, 『당나귀』 3, 1953. 1;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217-219면; 『구월산유격부대 전사』, 129면.

1140)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186-197면, 213-217면; 『구월산유격부대전사』, 133면.

1141) 이호진(동키제4부대) 증언, 2003. 8.

기간이 끝난 후에도 탄광, 농촌 등지로 격리당한 채 반강제적인 노역을 했다. 강원도 원산 출신인 고 모씨는 속초에서 북한으로 침투한 후 체포되어 15년형을 받았고, 중공군을 가장해 침투한 이 모는 12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과 같은 유격대원의 경우, 함흥 교화소의 2,000여 명 가운데 300명 가량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교화소에서 철공이나 목공으로 일을 하거나 벽돌이나 어망 등을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회고하면서 이미 전쟁 당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수용자 중에서 감시를 받는가 하면, 배급량이 적고 노동은 힘들어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희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진 후 생활하기가 매우 열악해서 오직 ‘먹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sup>1142)</sup> 일부는 전향하여 북한군을 순회하면서 남한 사정이나 전술을 교육한 자들도 있었다.<sup>1143)</sup>

둘째, 북한측은 부상자나 여자 대원들에게 귀향 조치를 했고, 일부를 선전과 공작사업에 이용했다. 특히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경우는 정규군 포로의 경우처럼 부상병 치료나 경어사용 등 북한군 보다 대우가 나았다고 한다.<sup>1144)</sup> 예를 들면 1951년 12월 북한군이 웅도를 공격할 때, 포로가 된 동키 제20부대 대원 75명은 송화군 장양면의 제23여단 본부로 이송된 후, 여자 대원과 나이 어린 대원, 부상대원 등은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에 의해 귀향 조치되었고, 김순삼·정호 등은 선전사업과 공작사업에 이용되었다고 한다.<sup>1145)</sup>

북한 당국은 전쟁 중 국군이나 유격대활동에 협조를 하였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죄과를 뉘우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나선다면 손을 잡고 같이 나갈 것”이라고 유화책을 썼다.<sup>1146)</sup> 그러나 실제로는 유격활동에 협조하였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을 만들어 서로 감시케 하였다. 체포된 자들은 처벌과 함께 개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고, 협조를

1142) 김 모(탈북 포로) 증언, 2003. 5. 17.

1143) 이 모(탈북자) 증언, 2002. 8. 30.

1144) 안성일(예, 대령) 증언, 2003. 9. 2.

1145) 『구월산유격부대 전사』, 125-127면.

11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 력사연구소, 『인민들 속에서』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205면.

하였던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관계가 없던 가족들은 10리 밖을 나갈 수 없는 ‘두문별’을 주거나 감시대상이 되었다고 한다.<sup>1147)</sup>

셋째, 동키 제20부대의 안호현·박순현 등 40여 명이 벽동(碧潼) 포로수용소로 이관되었던 것처럼<sup>1148)</sup> 그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으나 포로 중 일부는 포로 수용소로 이관되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휴전 후 귀환했다. 울퉁 제2부대의 유명식은 1952년 3월 22일 봉화리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1953년 11월 13일 포로교환시 귀환하여 부대에 복귀했다. 울퉁 제3부대의 이영화도 포로가 된 후 휴전이 된 다음 귀환하였다.<sup>1149)</sup> 포로가 된 일부 미군 요원들도 휴전 후 귀환했다. 이미 서술한 대로 커크랜드부대에서 한국인 유격대원과 원산지역으로 출동했던 손튼 중위와 월슨은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휴전 후 돌아왔고, 유격대원의 투하 지점을 모색하는 정찰비행을 하다가 포로가 된 루이스(William Lewis) 중위도 귀환했다.<sup>1150)</sup>

1147) 이준기(탈북자) 증언, 2002. 8. 30.

1148) 『구월산유격부대 전사』, 125-127면.

1149) 울퉁 3부대 전우회, 『3대대 지대유격전투 사항』, 날짜없음; 『유명식 공적서』, 제8250부대 제2연대 제2대대, 『전투공적조사서』, 1953. 12.

1150) *Shadow Warriors*, pp. 173-174.

제 6 장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영도유격대



2.36인치 로켓포 훈련

## 제 6 장

#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영도유격대

## 제 1 절 창설 배경과 부대 편성

### 1. 창설 배경

영도유격대는<sup>1)</sup> 한국전쟁 당시 부산 영도에 본부와 훈련장을 두고 강원도 일대와 함경남북도까지 공중과 해상으로 침투하여 활동한 유격대이다. 대원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했으므로 ‘동해지구 반공 의병대’라고도 불렸다. 이 부대는 휴전 후에도 한 동안 당시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어느 기관 소속이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부대장이 국군 현역 대위였으므로 국군 통제부대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었고, 초창기 부대 창설과정에서 미국측을 도왔던 윤치영은 물론, 부대장마저 극동군사령부 소속으로 알 정도로 전쟁 당시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인지 몰랐다.<sup>2)</sup> 그러나 이 부대는 미 CIA 산하 유격대였다.<sup>3)</sup>

1) 『부대일지』는 전쟁 당시 오용호 대원이 대원 입대상황, 작전일자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여 영도부대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 『영도유격부대소사』(영도유격부대기념사업회, 1989), 『Y부대송가』(주홍길, 1988), 『영도유격부대』(영도유격부대전우회, 2001), 『전사-영도유격부대동해삼도실전기』(미동훈, 영도유격부대전우회, 2002) 등을 참고했다.

2) 윤치영, 『나의 이력서』 71, 『중앙일보』 1981. 10. 17. 한철민 부대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자신의 부대가 미 극동군사령부에 속한 것으로 인식했다(『한철민 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소).



전쟁 전 CIA는 유럽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 특히, 미 극동군사령부 맥아더 사령관의 비협조로 한국에서 활동이 미약했다.<sup>4)</sup>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토프트(Hans V. Tofte)의 지휘아래 극동군사령부나 미 제8군사령부와 별도로 활동하였다. 이미 1950년 6월 30일 CIA 간부들이 수원에 도착해서 7월 초부터 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9월 부산 동래에 기지를 설치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10월 7일 CIA는 서울에 임시 근거지를 마련했다. CIA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경험있는 요원을 불러모으는 한편 한국인 요원을 모집했다. 195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CIA는 북한내륙 깊숙이 침투해 후방을 교란할 요원을 모집하면서, 북한 연안의 섬들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 이후, CIA는 미 극동군사령부와 별도로 첩보수집부대와 게릴라부대를 창설했다. 1950년 12월, CIA는 게릴라 훈련기지를 열어, 부산기지 외에 백령도 등 3곳에서 작전을 수행했다.<sup>5)</sup>

1951년 초 미 제8군과 CIA는 작전지역을 구분했다. 미 제8군은 서해안을 맡고, CIA는 동해안과 북한 동북부 산악지역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개월 후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원산항에서 가까운 동해안 지역에 커크랜드 부대를 창설하면서, CIA와 갈등이 생겼다. CIA의 항의 결과, 커크랜드 부대는 원산 인근으로 한정하고, CIA는 원산 이북으로부터 소련 국경선까지로 작전 지역을 합의하였다.<sup>6)</sup> 1951년 여름 국방부 장관 마셜(George Marshall) 장군과 CIA 국장 스미스(Walter Bedell Smith)는 한국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미 제8군을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극동군사령부 지휘아래 수행하도록 합의했다.<sup>7)</sup> 이후 1951년 11월 28일

3) Joseph C. Goulden, "CIA's Korean Capers", *Soldier of Fortune*, May 1983.

4) 조지프 굴든(김쾌상역), 『한국전쟁』, 일월서각, 1982, 477-478면; Richard G. Stilwell, "Guerrilla warfare as conducted in the Far East", US Psychological Warfare School, Fort Bragg, N.C. July 25, 1955, p. 6; William M. Leary, *Perilous Missions: CAT Transport and CIA Covert Operations in Asia*, Uni. of Alabama Press, 1984, p. 124.

5)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p. 3-5; "The John H. Mcgee Papers", Mar. 24, 1986, 군사편찬연구소, SN 1961, p. 21.

6)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 139-140.

7)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6.



한스 토프트, 한철민 대위, 그리고 크래머 중령

연합정찰사령부(CCRAK)가 창설되어 극동군사령부, CIA 활동이 단일 기구의 통제를 받았다.<sup>8)</sup>

한편 그들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언어나 인종적 요소, 지형 미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반자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윤치영을 통해 육군 정보국 소속의 한철민 대위가 CIA측 요원 레이놀드에게 소개되었다.<sup>9)</sup> 이 때문에 영도유격대의 역사는 한철민의 활동사이기도 하다.

한철민은 해방 직후 함경남도에서 결성된 반공청년운동단체인 양호단에서 활동하던 중, 월남하여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 서북사무국장으로 반공활동을 하면서 윤치영과 연계되어 원산시와 함남 문천군의 반공조직인 애국단, 단천의 맹호단, 회양의 서북조직국 등 대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8기 특별반을 수료하고 임관한 후, 육본 정보국 소속의 동두천 파견대장으로서는 대북 첩보활동을 담당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 전투에서 적정정찰 중 부상을 입고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미군 고문으로부터 특

8) *In the Devil's Shadow*, pp. 182-185.

9) 『함경·강원북부 누빈 영도유격부대』, 『이북도민보』, 1999. 8. 1.

수전 부대의 편성을 요청받았다.<sup>10)</sup>

1950년 9월 하순 무렵 한철민 대위가 전쟁이전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반공투쟁을 하였던 청년들을 규합하여 부산의 서면에 있는 포로수용소 부근에 천막을 치고 유격부대 편성에 착수하였다.<sup>11)</sup> 인천상륙작전 후 국군이 북진하자, 한철민 대위는 이준기·문명원·강제순 등과 함께 부산 남포동에서 원산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중공군이 개입한 후 원산에서 대원과 피난민을 해상으로 피난시키고, 일부 대원과 함께 안변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던 중 그들을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에 편입시키고 부산으로 돌아왔다.<sup>12)</sup>

또한 10월 초, 부대창설 기간대원 노농서 대위<sup>13)</sup> 인솔아래 박성만, 오용호, 유재복, 황보현, 김태은 등 15명이<sup>14)</sup> 일본에 있는 미군 유격훈련소에 파견되어 조지 애치슨(George Atcheson)<sup>15)</sup> 해군 중위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15명은 한철민 대위의 귀국요청으로 함흥으로 갔다가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하였다.<sup>16)</sup> 12월말 부산으로 돌아와 서면 캠프에서 신입대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 10) 한철민, 『탄원서』, 1978. 12; 이찬훈 편지, 2002. 8. 27; 『영도유격부대소사』, 4면; 『Y부대송가』, 19-21면.
- 11) 한철민, 『탄원서』, 1978. 12.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세워진 ‘유격부대 전적위령비’에는 1950년 8월부터라고 새겨져 있다. 그 외에도 9월초라는 주장도 있고(『월남반세기』, 185면), 한철민 부대장은 1950년 10월 15일부터 ‘주한 미 연합고문단 사령부 Y지구부대’에서 한국인 책임자로 복무했다고 진술했다(한철민 기소장, 1953. 9. 16; 『‘TP 스톨작전’의 주역 토프트의 정체』, 『중앙일보』, 1982. 2. 16). 1956년 5월, 미국정부가 한철민 부대장 등에 훈장을 수여할 때, 그의 활동기간을 1950년 12월 1일부터라고 기술하였다. 박병권의 제대증에는 그가 1950년 10월 25일부터 복무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 12) 한철민 기소장, 1953. 9. 16; 윤치영, 『나의 이력서』 71, 『중앙일보』, 1981. 10. 17; 김태은 증언, 2003. 4. 25; 황보현 증언, 2003. 5. 27;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6.
- 13) 노농서 대위는 광복군으로 중국서안에서 장준하, 김준엽 등과 OSS 특수훈련을 받았다(서중석, 『비극의 현대지도자』, 성균관대 출판부, 2002, 267면).
- 14)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2000. 3. 11; 황보현 증언, 2002. 5. 26.
- 15) 그는 이미 1950년 8월 5일 부산으로 와서 같은 달 12-16일 북한지역의 철로를 공격한 침투작전에 참가한 후, 1951년 여름 영도부대 고문으로 배속되었다. 그는 8월 작전으로 미 동성훈장을 받았다(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이남표 제공).
- 16) 1950년 11월 2일,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기술도 있다(미동훈, 앞의 책, 12-13면).

부대편성에 착수했다.<sup>17)</sup>

이 부대의 창설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다. 1950년 10월 5일 교육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시점을 부대의 창설일로 여기는가 하면, 이 해 11월에 창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18)</sup> 그러나 1951년 2월말 부대를 부산의 영도(Yong Island)로 옮기고 이 때부터 ‘Y부대(혹은 Yong-do Group)’라고 부르게 된 점이나, 1952년 3월 5일 ‘본대 창설 1주년 기념 웅변대회와 경기대회’를 개최했다는 『부대일지』의 기록<sup>19)</sup>으로 볼 때 영도유격부대의 공식적인 창설은 1951년 3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부대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대의 창설을 위해 이미 1950년 9월 말경부터 한철민 대위를 비롯한 간부 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도 태종대는 일제시대 일본 해군이 구축해 놓은 해안포대와 이를 지원하는



영도기지 전경

17) 황보현 증언, 2003. 5. 26. 안변출신의 김용환은 국방부정훈국 학도의용대 원산지구 선발대원으로 파견을 갔다가 후퇴한 후 합류했다(국방부정훈국 학도의용대장 이선근, 『신임장: 김용환』, 1950. 10. 15).

18) 『영도유격부대소사』, 4면; 『영도유격부대』, 20면; 김태은 증언, 2002. 10. 28; 황보현 증언, 2003. 5. 26.

19)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부대시설이 있었고, 삼림이 울창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등대에 종사하는 직원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유격부대의 근거지로 적격이었다.<sup>20)</sup> 영도 유격부대가 주둔하게 된 후 태종대는 외부인사는 물론 대원 또한 외부와 접촉이 금지된 유격기지가 되었다.

## 2. 부대창설과 대원 모집

영도유격대는 동해안 북부지역을 작전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함경남도과 북도, 강원도 등 동해 3도 출신을 주로 모집하였으나, 부산이나 거제도 등지로 피난 온 서울·평안도 등 다른 지역 출신도 있었다. 월남 청년들 가운데, 대개 가족이 없는 경우를 대원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할 의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sup>21)</sup>

대원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모집했다. 첫째, 한철민 대위는 전쟁이전 북한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양호단·애국단(원산, 문천), 백호단(단천), 북한연맹(경성·성진), 서북조직국(회양, 통천) 등의 고향출신 연고자들을 모집했다. 1951년 1월 23일 문천 출신 대원 39명, 원산 출신 대원 5명이 입소했고, 부산피난민 수용소에서<sup>22)</sup> 문천·단천·안변 등지 출신이 2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혹은 군민회 등의 소개로 입대했다. 예를 들면 함경남도 문천 출신의 박일필은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자원했다. 이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각각 문천대, 회양대, 안변대 등으로 불렸다.<sup>23)</sup>

둘째, 흥남철수작전시 거제도로 내려온 피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모집이

20)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21) 『한철민 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실; 『Y부대송가』, 9면, 51면; 조지프 골든, 앞의 책, 480면.

22)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23) 박일필, 『군복무사실 진술서』, 1962. 5. 28;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김태은·주홍길 증언, 2002. 9. 26.

이루어졌다. 당시 피난민은 초등학교·극장·창고 등에서 거주하면서, 1인당 1홉도 되지 않는 식량배급으로 인해 영양부족과 한기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에서 귀향을 고대하였다.<sup>24)</sup>

1951년 1월 16일<sup>25)</sup> 한철민 대위의 지시를 받아 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상훈이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가서, 장승포읍과 대한청년단의 지원을 받아 장승포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99수용소’를 설치했다. 장승포읍에서 99수용소 대원의 식량을 지원했다.<sup>26)</sup>

99수용소가 4월 28일 폐쇄되고 영도로 이동될 때까지, 4개월 동안 대원을 모집했다. 1951년 1월 22일 299명이 99수용소에 입소했고, 1월 30일 32명, 2월 3일 8명, 5일 17명 등 총 규모가 700명에 이르렀다.<sup>27)</sup>

대원은 1·4후퇴시 월남한 함경남·북도 출신의 청년중 북한에서 반공활동이나 치안대 활동을 하였던 반공주의자와 의리가 강했던 일제시대 전과자들 가운데 엄선하여 99수용소에 수용하고 기초교육을 실시한 후 재심사에 합격한 자만을 30명에서 50명 단위로 부산의 서면훈련소로 보냈다. 예를 들면 1951년 2월 2일 99수용소 대원 중 50명을 선발하여 서면훈련소로 입소시켰다. 2월 28일 100명, 4월 21일 92명, 4월 28일 63명 등을 입소시켰다.<sup>28)</sup> 이들은 ‘99수용소대’라고 불렀다.

셋째,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때, 국군 제9사단 30연대에 편입된 인원이 유격대에 합류하였다. 즉 한철민 대위는 원산·안변·회양 등지에서 치안활동을 하던 청년들과 함께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 강릉지역으로 철수할 때, 당시 중공군과 교전으로<sup>29)</sup> 손실을 입은 국군 제9사단 30연대<sup>30)</sup>

24) 『거제도 피난상황 보고의 건』, 1950. 9. 25, 해군본부, 『해군활동보고철』,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705.

25) 1월 21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다(『영도유격부대소사』, 4면).

26) 노상훈 증언, 2002. 9. 6. 그는 CIC 요원으로 원산에 가서 한철민 대위를 만나 합류했다.

27)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28)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29) 『육본 작전일지』, 1950. 12. 30, 『한국전쟁사료』 91, 41-48면.

30) 당시 제30연대장은 고시복 대령, 정보과장은 김영선 대위였다고 한다. 제9사단에서 1951년 1월 15일 계림부대를 창설했다가(사 일명 제4호), 2월 5일 동 부대를 해체했다(제9사단 부대역

수색대(중대장 안수성 중위)에 청년대원 대다수를 편입시키고<sup>31)</sup> 일부만 인솔하여 부산으로 왔다.

이들 가운데 이일원 등 일부가 제9사단 제30연대에 계속 잔류하고, 대부분은 영도유격부대로 합류했다. 1951년 3월 10일 제30연대 특공대 소속 대원 157명 중 20명이 입소한 후, 15일 박재근·전윤록 등 137명이 LST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와 부대에 합류했다.<sup>32)</sup> 전투경험이 있는 이들이 편입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같은 달 23일 황명원과 김윤록이 신규대원 모집을 위해 묵호로 가서 활동하기도 했다.<sup>33)</sup>

부대원의 규모에 대해 CIA 문서에서는 여전히 비밀로 처리하고 있으므로<sup>34)</sup> 그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표 6-1>에 나타난 것처럼, 1950년 12월 24명, 1951년 1월 102명, 4월 205명 등으로, 11월까지 992명이 입소했다. 그런데 『부대일지』에 의하면, 1951년 7월의 경우 18일 14명, 19일 83명, 20일 36명, 21일 3명 등 총 136명이었고, 11월의 경우 8일 25명, 14일 3명, 16일 7명, 19일 7명, 24일

<표 6-1> 월별 입대자<sup>35)</sup>

(단위: 명)

월별	1950. 12	1951. 1	2	3	4	5	6	7	8	9	10	11	계
인원	24	102	150	191	205	8	76	124	67	11	7	21	992

력표, 육본 군사연구소). 계림부대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북한에서 피난 온 청년들이므로 추정된다.

31) 트럭을 타고 후퇴하던 오박 등 대원들 가운데 통천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일부 희생자가 발생했고, 제30연대의 작전에 참가해서 30~40명이 전사하였다고 한다(이일원 탄원서, 2001. 1. 30; 김태은 증언, 2002. 10. 28, 2003. 4. 25; 이찬훈 증언, 2003. 5. 19; 『미군CIC정보보고서』 2, p. 297). 한철민 대위는 철수작전시 공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한철민, 『탄원서』, 1978. 12).

32) 『부대일지』 1편, 1951. 4.-1951. 11.; 이일원, 『탄원서』, 2001. 1. 30. 이렇게 많은 병력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영도유격대 본부와 제9사단 사이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3)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34) “CIA in Korea 1946-1965”(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7.

35) 미동훈, 앞의 책, 17면.

19명 등 61명으로 약간 더 늘어난다.<sup>36)</sup> 제대명부에 의하면, 대원들의 근무연한이 6개월 혹은 9개월인 경우도 있어서 1952년 중반까지도 신입대원이 있었음을 나타낸다.<sup>37)</sup>

전쟁 당시 정리되었던 대원명부가 1960년대 초에 분실되어, 전체 대원의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sup>38)</sup> 대체로 해상대원 150명을 포함하여 약 900여 명으로부터 1,200명 수준이었다.<sup>39)</sup>

유격대원들은 일부 무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출신의 청년들이며 그것도 1·4 후퇴 시기까지 북한 내에서 반공저항운동에 가담했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투쟁경험이 많고 투지가 남달리 강했다. 또 내 고향을 내 힘으로 수복하겠다는 공통적 투쟁목표를 세움으로써 동지적인 결속이 강했다. 대원들의 입대동기는 공산당에 대한 개인적 원한과 복수심, 고향에서 반공지도자를 따라오거나, 특수부대라는 매력, 피난살이가 고달파서 들어온 무리 등이다.<sup>40)</sup> 이와 같이 여러 동기가 있지만, 입대 후에는 반공의식이 고취되면서 소속의식이 형성되었다.

유격대원들은 연령상으로 박일필 25세(1927년생)·박홍범 27세·최진수와 전갑빈 26세·김용환 29세(1923년생) 등 20대가 다수였으나, 한승훈은 30세이고, 조기묵은 40세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20세 이하 111명, 21~25세 363명, 26~30세 282명, 31~35세 181명, 36세 이상은 82명이었다. 심지어 56세나 되는 당시로서는 노인도 있었다고 한다.<sup>41)</sup> 대원들 가운데 병역의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원들이

36) 대원들의 규모에 대해서, 1951년 3월, 부대 창설 초기에는 약 3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가, 5월경에는 400명으로 늘어났다는 진술도 있다(『한철민 기소장』, 1953. 9. 16;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1951년 4월에는 대원이 1,200명이라는 회고도 있다(『미동훈 증언』, 『민족의 증언』 5, 216면).

37) 박일필, 『제대자 명부』, 1952.

38) 당시 대원 명부에는 출생지, 생년월일, 가족현황, 입대동기, 개인사진 등이 첨부되어 정리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전우회에서 대원의 ‘이름찾기 운동’을 벌여, 확인한 명단은 출동대원 458명, 제대자 261명 등 총 719명이고, 그 외는 명단마저 확인할 수 없다(영도유격대기념사업회, 『기본대원 명부』, 1989. 3).

39) 『TP 스톨작전』의 주역 토프트의 정체, 『중앙일보』, 1982. 2. 16; 조지프 굴든(김쾌상 역), 앞의 책, 480면; 『U부대송가』, 10면; 벤 S. 맬콤, 앞의 책, 268면.

40)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44.





영도정신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강계출신 여성도 있었으며,<sup>42)</sup> 또한 김정환·김용환 등 형제 대원이나 이학영(51세)과 이경훈(16세) 대원처럼 부자도 있었다.<sup>43)</sup>

그런데 대원들은 병적이 없어서 군번도 계급도 없었다. 부대에서 활동할 당시 군번형식으로 대원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박일필은 392번이었다.<sup>44)</sup> 부대를 영도로 옮긴 후 ‘Y부대’라고 부르게 되었으나, 제대 중에 보면 부대명은 ‘주한연합고문단 사령부(Joint Advisory Commission Korea, JACK)’<sup>45)</sup>라고 되어 있고, 미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의적 혹은 위장명칭

으로 미 극동공군 기술분석단(Far East Air Force Technical Analysis Group, FEAFTAG)으로 불리기도 했다.<sup>46)</sup>

이 때문에 대원들은 전쟁 당시 자신들이 어느 소속인지 몰랐다.<sup>47)</sup> 이미 951년 4월 2일 한철민 부대장은 사령부 측에 부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서신을 발송

41) 『연령별 통계』 1951. 12. 25; 강근휘, 『군번 없는 병사의 빛바랜 수기』(프린트판), 2000. 5. 405-406면; 미동훈 진술, 『민족의 증언』 5, 256면.

42) 윤치영, 『나의 이력서』 71, 『중앙일보』, 1981.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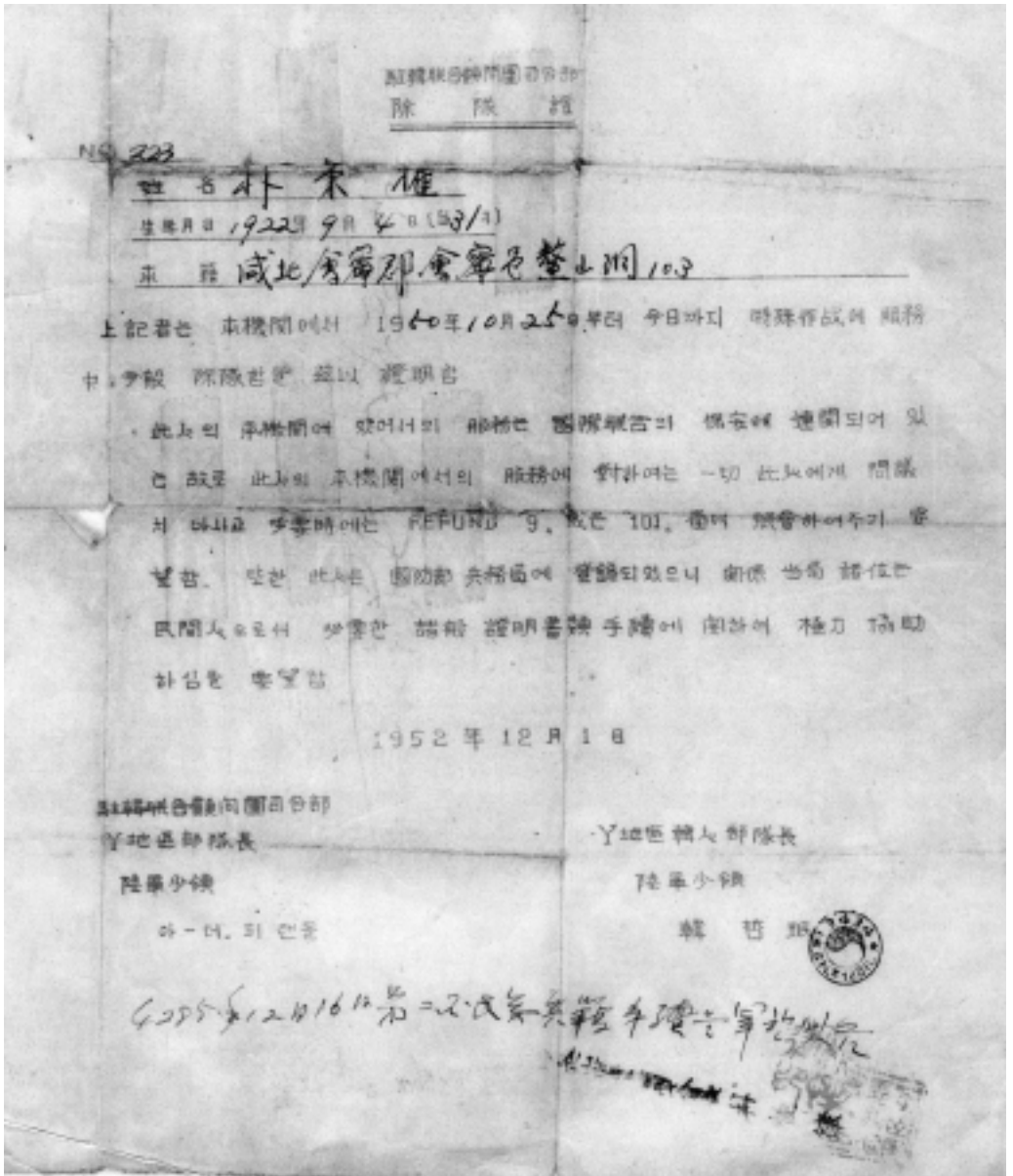
43) 영도유격부대전우회, 『탄원서』 2, 2001. 11. 30.

44) 박일필, 『제1예비역편입원』, 1962. 5. 29.

45) 싱글로브 장군은 1952년, CIA에서 중공군 교란작전의 이름으로 JACK을 명명했다고 기억했다(『미 싱글로브장군 회고록/위험한 임무 3』, 『서울신문』, 1991. 8. 10).

46) 박일필, 『제1예비역편입원』, 1962. 5. 29; 황보현 증언, 2002. 8. 24; 이남표·노상훈 증언, 2002. 9. 6; 주홍길 증언, 2002. 9. 26; 노능서 증언, 2003. 7. 3.

47) 전쟁 당시 대원들은 자신들의 부대 소속을 알지 못해, 작전 후 귀환시 자신들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국군이나 미군으로부터 북한 첩자로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



박병권 제대증

했고, 3일 간부회의에서 부대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1952년 6월 21일 국  
군으로 편입문제를 동래본부와 논의했다. 8월 12일 한철민 부대장이 국방부에  
출장을 갔던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대증서에 부대원들이 국방부

병무국에 등록되어 있음을 명기했다.<sup>48)</sup>

대원은 급여는 물론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입대시 일체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만일 유엔군 고문단측이 제안한 보수를 받게 된다면 영도유격부대는 한낱 용병이나 피고용자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어 대원들의 투쟁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작전수행에 있어서도 피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거절했다고 한다.<sup>49)</sup> 따라서 유엔군 고문단측에서는 군수물자의 지원을 전담했을 뿐, 인사와 작전분야는 모두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 3. 부대 편성

동래에 있는 JACK사령부의 지휘아래,<sup>50)</sup> 영도지구 한인부대장은 한철민 대위였다. 그러므로, 미군 부대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부대 해산 무렵 미군 부대장은 랜돌(Arthur P. Randall) 소령이었다.<sup>51)</sup> 미군 고문관은 해병대 중령 더치 크래머(Vincent ‘Dutch’ Kramer)와<sup>52)</sup> 애치슨 해군 대위였다.

부대 본부의 편성은 창설기에 부대장 아래 참모와 부관이 있고, 제1~3처, 대원수집 연락처, 훈련소 등으로 편성되었다. 그 후 1951년 1월 21일, 부산 서면 포로수용소 옆에 훈련소를 설치한 후, 2월 하순 부대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기지를 영도의 태종대로 옮기고 사격장, 연병장, 특수교육훈련장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유격부대 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3월 1일 부대본부와 교육대, 취사장을 설치했다.

부서도 대원이 늘어남에 따라, <표 6-2>와 같이 부대장 아래 행정, 작전, 정보,

48) 『부대일지』, 1952. 6. 21; 주한연합고문단사령부, 『제대증: 김용환』, 1952.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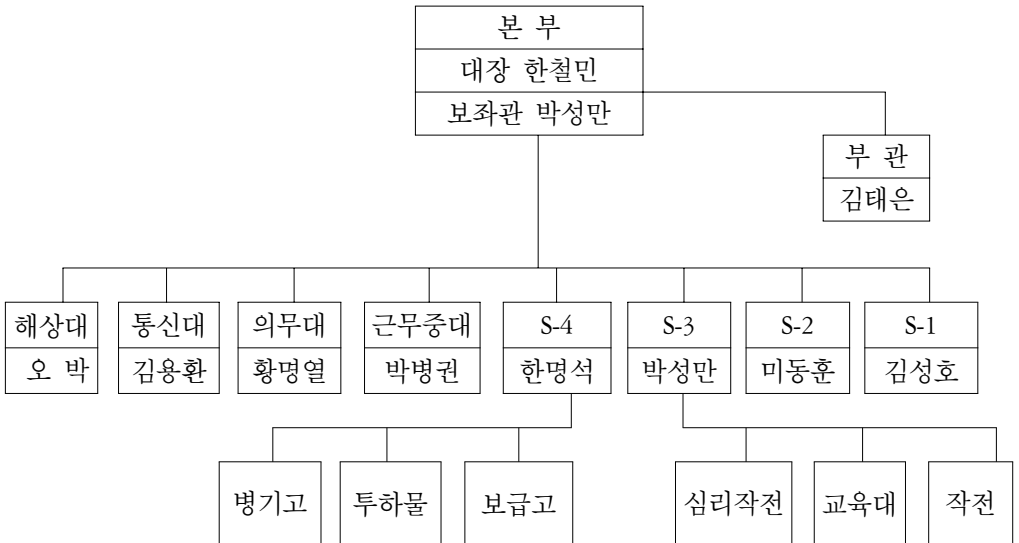
49) 한철민 진술, 『민족의 증언』 5, 220면; 『한철민 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실.

50) 본 필드 대령이나 벤 반더부르트 대령도 이 곳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한철민 증언, 1991; 『미싱글로브장군 회고록/위험한 임무 3』, 『서울신문』, 1991. 8. 10).

51) 『제대증: 김용환』, 1952. 12. 1.

52) 『TP 스톨작전』의 주역 토프트의 정체, 『중앙일보』, 1982. 2. 16.

&lt;표 6-2&gt; 부대 편성표



보급 등 4개 처와 교육대, 해상대, 통신대, 의무대, 근무중대 등으로 확장되었다. 유격전투부대로 총사령부(총사령관 최제부) 아래 4개 관구사령부로 편성하였다.

간부진은 부대장 한철민을 비롯해 박창해·최제부·강제순·이종한 등이 양호단 출신이 많이 포함되었다.<sup>53)</sup> 강석훈·조기묵 등은 북한연맹 출신이었고, 김태은·이봉규 등은 서북조직원 출신이었다. 대원들은 대개 전쟁이전 반공단체와 연관하여 회양대(서북조직원), 안변대(대한청년단), 문천대(애국단), 단천대(백호단), 갑산대(백호대) 등 지역별로 편성됨으로써 결속력이 강했다.<sup>54)</sup>

반면에 이러한 지역적 요소와 반공단체 활동 경험이 부대 운용상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다. 부대 내에 계급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반공단체의 간부들이 독립적 행태를 보였고, 부대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치하여 대원들의 반발을 샀다. 예를 들면 해상대장에 영도부대의 창설요원이었던 황보현·유재복 등을 무시하고 한철민 부대장과 가까운 오박이 임명된 점이나 보급관에 부대장의 친척이 담당할 데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sup>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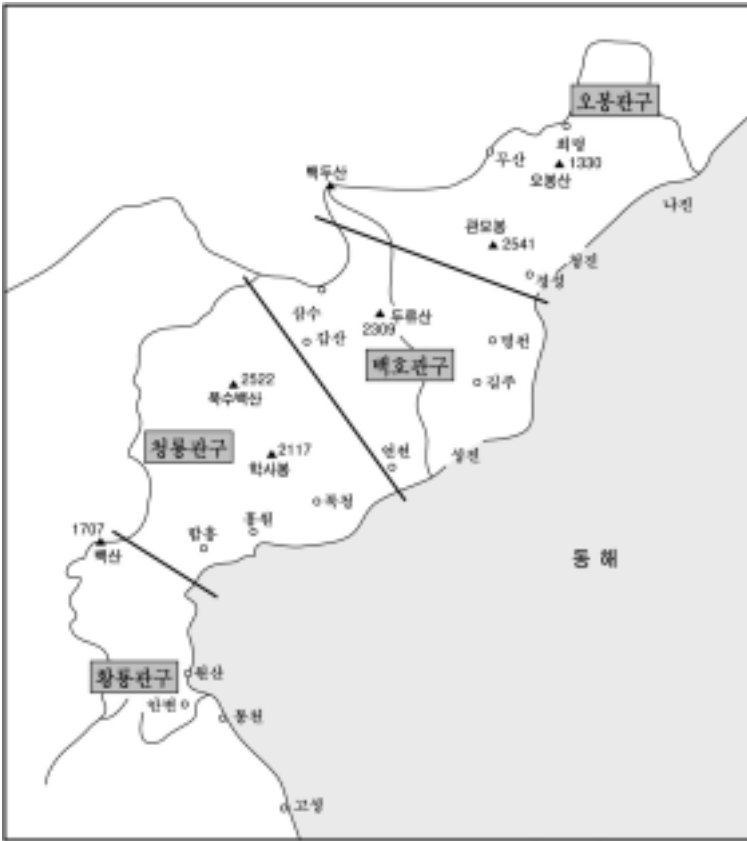
53) 이경남, 『양호단』, 『경향신문』, 1987. 11. 25.

54) 영도유격부대전우회, 『탄원서 2』, 2001. 11. 30. 대원 가운데 이중침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1952년 4월 14일, 2명이 탈영했듯이 종종 탈영자가 발생했다.

- 
- 55)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노상훈 증언, 2002. 9. 24. 그 외에도 국군이 북진시 함흥시 대한 청년단장 출신인 안모는 부대운용에 대한 갈등으로 다른 대원 7명과 함께 총살되었다. 이 사건은 마침 북한으로 침투한 대원 가운데 변절자가 생기면서 더욱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부대장이 기소되었고, 대원들이 사이에 갈등요인이 되었다(한철민 기소장, 1953. 9. 16).

영도 유격대는 강원도 북부로부터 함경남·북도를 작전지역으로 하여, 4개 지구, 즉 황룡관구·청룡관구·백호관구·오봉관구 등으로 편성했다. 각 관구 책임자를 사령관으로 부른 까닭은 침투대원이 체포되었을 경우 부대규모를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이들의 작전지역은 황룡관구-강원북부, 함남 남부(사령관: 임여성, 전윤연), 청룡관구-함남 중부(이의섭), 백호관구-함남

<요도 6-1> 작전지역 구분



56) 노상훈 증언, 2002. 9. 24.

북부, 함북 남부(최제부, 임봉옥), 오봉관구-함북 북부(강석훈) 등이었다. 작전지역별로 유격기지가 건설되었다. 예를 들면 백호관구에 활기봉 기지, 오봉관구에 설령기지를 구축했다.

기존의 4개 관구와 함께 그 후 1951년 9월 19일<sup>57)</sup> 오박을 대장으로 하여 보트 그룹을 토대로 해상대를 창설했다. 11월 15일에는 심리작전부를 신설했다. 이미 1951년 3월, 의무반이 설치되었다. 당시에 대원들 사이에 맹장염이나 결핵 등과 같은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환자가 발생하면 일일이 부대 밖으로 이송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부대 내에서 치료하고자 미군측과 협의해 의무대를 창설했다. 의무대장 황병열, 의사 이형백, 약국장 김남섭, 간호장 한효식 등이었다.<sup>58)</sup> 1952년 7월 중순, 대원들의 교양 제고를 위해 도서실도 설치했다.<sup>59)</sup>

미군으로부터 무기 장비 및 보급 지원은 풍부하였다. 권총, 칼빈 소총 외에도 로켓포와 무반동총 등으로 무장했다. 작전을 수행할 때,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았다.<sup>60)</sup> 북한지역으로 출동한 대원들에게는 보급품을 공중으로 투하했다.

57) 이 날짜는 『부대일지』에 따랐다. 『영도유격부대 소사』(53면)나 『영도유격부대』(98면)에는 8월 5일로 기록되었고, 해상대의 황보현은 9월 24일로 기억했다.

58)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59) 『부대일지』, 1952. 6. 13, 20, 7.14.

60) 이찬훈·김태은 증언, 2003. 5. 19.

## 제 2 절 교육 훈련

부대 창설 초기에 간부들은 일본 미군기지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고, 영도에 훈련시설이 갖추어진 후에는 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 10월 5일, 제1차로 부대창설 기간대원 노승서 대위를 비롯한 김성호·황종우 등 15명이 일본의 가나가와현 시가자끼<sup>61)</sup>에 있는 미군 유격훈련소에 파견되어<sup>62)</sup> 미군 특수요원들로부터 정규 군사훈련은 물론, 유격훈련과 함께 폭탄 분해·해체, 낙하·해상·수중과괴훈련 등을 받았다. 교육은 통역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sup>63)</sup> 이들은 귀환 후 신입대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 후에도 일본에 파견될 대원을 심사하여, 1951년 1월 27일 일본 시가자끼 훈련소에 H그룹 32명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4일, H2 그룹 36명, 2월 25일 K그룹 56명, 4월 8일 L그룹 48명을 파견했다. 이와는 별도로 무전사 50명도 중국인 50명, 필리핀인 50명 등과 훈련을 함께 받았다고 한다.<sup>64)</sup>

이들의 교육기간은 1951년 1월 하순에 파견된 H그룹이 4월 7일 귀대했고, 2월 25일에 파견된 K그룹이 4월 29일 귀대한 것으로 보아 2개월 정도로 생각된다.<sup>65)</sup> 이들은 영도본부에 돌아와서 교관으로 신입대원을 교육하거나 각 지구대의 요원 혹은 북한지역 침투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출동했다.

영도본부기지에 점차 사격장 5개소, 낙하훈련장, 연병장, 유격훈련장, 해상훈련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낙하산 훈련이나 UDT 훈련이 이루어졌다.<sup>66)</sup> 1951년

61) 이곳에 미군 훈련소가 있었다(『극동사령관으로부터 한국총참모장에게』, 1950. 9. 14, 『한국전쟁사료』 62, 1108면). 에치슨 대위는 마에바시로 기억했다(“George Atcheson’s Letter to Hwang Pohyun”, Feb 28, 2001.).

62) 『“TP 스톨작전”의 주역 토프트의 정체』, 『중앙일보』, 1982. 2. 16.

63) 조지프 굴든, 앞의 책, 480면; 노상훈 증언, 2002. 9. 24.

64) 『부대일지』; 『미동훈 증언』, 『민족의 증언』 5, 216면; 박기학 증언, 2003. 11. 6.

65)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66) 『한철민 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실.



10월 21일 해상대에서는 동래 보병학교의 전투훈련을 견학했으며, 이곳에서 사격훈련도 실시했다. 간부들은 전술학 연구회, 교관회의를 열어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

대원들은 <표 6-3>과 같이 제식훈련부터 전투훈련, 권총, 소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로켓포, 박격포 등 각종병기의 분해·조립과 사격술,<sup>67)</sup> 총검술, 수류탄, 지뢰, 폭발물의 취급, 공중낙하훈련, 매복훈련, 상륙훈련, 보트훈련, 산악훈련, 야간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sup>68)</sup> 밧줄 타고 절벽 오르내리기, 줄사다리 잡고 계곡을 건너는 유격훈련 등도 실시했다. 해상대의 훈련 중 신인균 대원이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고, 수중 폭발 실험을 하다가 교육대 교관 7명이 해군 헌병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sup>69)</sup> 이런 훈련들은 수영훈련이나 보트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심리전, 모택동의 유격전(번역본), 정치공작, 정보공작, 기상학 등을 병행했다. 1952년 9월 『20세기 초기에 있어서의 각 열국의 심리전의 개요』를 출간하여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표 6-3> 신입대원 교육 계획표

과목	정보	독도	폭발	태업	구급	위생	A3	칼빈	권총	SMG	BAR	LMG	로켓포	박격포	제식훈련	유격학	호신법	계
학과시간	18	16	10	6	4	6	8	8	8	8	10	10	8	10	2	40	2	174
실습	4	6	8		4	2	2	2	2	2	2	2	2	2	18	62	8	128
계	22	22	18	6	8	8	10	10	10	10	12	12	10	12	20	102	10	302

67) 신인균은 실탄훈련 중 순직해, 영도 태종대에 안장되어 있다.

68) 『미동훈 증언』, 『민족의 증언』 5, 216면; Joseph C. Goulden, "CIA's Korean Capers", p. 26.

69) 『부대일지』, 1952. 3. 6, 4. 27.



총기분해 교육, 뒤에 투하연습대가 보인다

개별분야 교육이 끝나면 각 부대별로 종합 전투훈련을 했고, 특히 출동을 앞두고는 항공기에서 공중 촬영한 침투지의 항공사진과 지형이 흡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해상에서부터 고무보트로 상륙하여 가상적과 전투하며 목표물을 폭파하는 등 실전과 똑같은 실탄훈련을 야간에 반복 실시했다. 예를 들면 1951년 8월 15일 전 대원이 모의 전투훈련을 실시했고, 1952년 3월 31일 부대장 인솔아래 181명이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신불산(경상남도 양산군)이나 태백산 등지의 좌익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sup>70)</sup>

한편 대원들에게 반공정신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8·15후의 한국”, “유격대로서 우리의 역할”, “6·25동란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정신교육이 이루어졌다. 대한청년단장 안호상 박사, 정치인 윤치영을 초빙해 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1951년 7월 12일, 시집 『봉화』 제1집을 발간한 후 2, 3집을 출간했고, 『矢筒』 1-2집, 『영도주보』 1-2호(1952. 10. 20, 27)를 발간했다.<sup>71)</sup> 그 외 195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씨름대회를 했다. 1952년 8월 23~24일에는 영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결속을 다졌다.

70)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71) 『부대일지』; 주홍길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2. 9. 26.

## 제 3 절 주요 작전활동

### 1. 개 요

1951년 3월 11일 부대본부에서 회양으로 침투시킬 선발대 4명을 선발했지만, 해상과 공중을 통한 본격적인 침투공작은 4월부터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2)</sup> 4월 12일 작전지역별 대원이 편성되고, 14일 모든 대원에게 무기가 지급되었다.

1951년 4월 15일 제1차 침투공작을 기획하여, 같은 달 29일 104명의 대원이 해상으로 침투했다. 즉, 황룡관구-회양지구(A) 57명, 안변지구(B) 12명, 문천지구(C) 12명, 청룡관구-북청지구(B) 11명, 백호관구-경성지구(C) 12명 등이다.<sup>73)</sup> 이처럼 영도부대는 1951년 4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 북부 지역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했다. 대원들은 대부분 토프트가 독자적으로 운용한 민간항공수송대(CAT: Civil Air Transport)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침투하고 보급도 받았다.<sup>74)</sup> 공중 출동시는 수영비행장을 이용했다.

특히 1951년~1952년 겨울, 영도부대의 활동은 정점에 이르렀다. 1951년 여름과 가을, 동해안에서 유엔군 함정의 함포들이 해안선 연변에 있는 목표에 쉴새 없이 포격을 가해 철도와 자동차 도로가 파괴되었다.<sup>75)</sup> 이 가운데에는 영도유격대의 성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맞서 공산군의 반격도 활발했다.<sup>76)</sup>

72)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6. 영도부대의 ‘작전관구도’에 의하면, 이미 1951년 1월 5명의 대원을 원산앞 여도(麗島)지구로 침투시켰다(『침투상황도』, 1951. 1. 전우회). 2월부터 침투작전을 개시했다는 주장도 있다(『월남반세기』, 188면).

73) 『부대일지』, 1951. 1. 16-1952. 11. 2.

74) 조지프 굴든(김쾌상역), 앞의 책, 480-481면.

75) 『…… 조국해방전쟁시기 군민일치의 전통적 기풍의 발양』, 『력사과학논문집』 8, 1978, 167면.

76)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7.

<표 6-4> 월별 출동자수<sup>77)</sup>

(단위: 명)

월별	1950. 12	1951. 1	2	3	4	5	6	7	8	9	10	11	계
인원	3	·	1	3	103	60	259	173	50	86	21	7	766

부대의 전체 출동 인원은 약 900명이라고 한다.<sup>78)</sup> <표 6-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51년 12월까지 출동 인원수가 766명이므로 1952년 중에는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한 번 출동할 때 3~8인의 규모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79)</sup> 출동 시기를 보면, 추운 겨울에는 대원을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다. 이 통계에 의하면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어서 몇 개의 팀이 몇 회에 걸쳐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51년 4월부터 12월까지 44개 조의 공작원을 투입했다고 한다.<sup>80)</sup>

주요 임무는 첫째 안전한 근거지의 설정, 둘째 각종 정보수집, 셋째 반공청년의 포섭과 조직확대, 넷째 후속부대의 공중투하 지점 설정, 다섯째 수송차량 공격, 보급로 교란 등 본격적인 유격전 전개 등이었다.

관구 별로 유격기지를 설치했다. 예를 들면 백호관구의 활기봉 기지는 1951년 7월 1일 최제부 사령관이 C지구 전투대 53명을 지휘하여 함북 경성 남방 해안에 상륙하면서 설치했다. 그는 그 동안 사방으로 분산되었던 백호관구내의 대원들을 수습하여 정봉문대, 한창덕대, 6408번(경성출신)대, 이연구대, 이남수대, 김순호대 등을 재편성하여 유격기지의 터전을 닦았다. 한 때 백호관구와 청룡관구를 최제부가 통합 운용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출동대원 보다 훨씬 더 많았던 현지 반공청년들의 활동이다. 대원들은 연고지별로 지하에 숨어 있던 청년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반동으로 몰려 두문벌(杜門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포망을 구축했

77) 미동훈, 앞의 책, 17면.

78) 『미동훈 청원서』, 1992. 3. 14, 군사편찬연구소. 한철민 부대장은 그 규모를 800여 명이라고 했다(『민족의 증언』 5, 219면).

79) 『부대일지』, 1952. 2. 12.

80) 벤 S. 맬콤, 앞의 책, 269면.

다.<sup>81)</sup> 부대 본부에서는 현지 대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sup>82)</sup>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전투형태는 소규모 작전을 주로 하되, 공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1952년 5월 15일 오봉관구 허영진의 지휘 아래 황철수 등 8명의 설령기지대원들은 함북 무산군 정사면 소재 임업사업장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기동소대를 기습하기 위하여, 기관단총·칼빈·자동소총·수류탄·TNT 등으로 무장하고 기지를 출발했다. 다음 날 14:00경 목적지에 도착한 대원들은 고지에 매복하고 있다가, 북한군 약 30명이 도로를 통하여 접근하자 일제히 수류탄 공격을 가했다. 적들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약 15구의 시체를 남겨놓은 채 도주하였다. 약 20분 후 적들이 반격을 해왔으나 유격대원들은 유인한 후 공격을 가하여 거의 전멸시키고, 철도공사장에 TNT를 설치하여 놓고 16:00경 철수했다.

공군과 합동 작전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백호관구 지용수대는 함남 갑산군, 혜산군, 삼수군의 핵심 노동당원과 북한군 간부들이 1951년 10월 28일 갑산읍에 집결하여 활기봉유격대 토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때 갑산읍에 북한군 대대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지 사령관은 이 사실을 영도본부에 무전보고하는 동시에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적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8대의 유엔군 공군기가 나타나 회의장 건물과 북한군 대대본부, 내무서 그리고 군사안전부 건물들을 폭격했다. 이 폭격으로 12개의 주요기관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고 노동당간부, 북한군, 내무서원들이 많이 폭사했다.

영도유격대의 전과는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병력과 보급품을 남쪽으로 수송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후방교란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sup>83)</sup> 북한군과 공산당원 다수를 살상하고, 내무서 5곳·군용창고 4곳·탄약공장 2곳·국영백화점·가옥 등을 파괴했다. 또한 수류탄 52발, 탄약 920발, 소련제 소총 21정·양곡 1,000여 kg 등도 노획했다.<sup>84)</sup>

81) 미동훈 진술, 『민족의 증언』 5, 218면, 224면.

82) 『부대일지』, 1952. 1. 1, 19, 3. 22. 이상준은 그 규모를 3,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월남반세기』, 188면).

83) 벤 S. 맬콤, 앞의 책, 268면.

84) 미동훈 진술, 『민족의 증언』 5, 218면, 224면; 미동훈, 앞의 책, 29-31면. 공군과 합동작전을

이를 관구별로 고찰하면, <표 6-5>와 같이 백호관구와 청룡관구가 전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작전 사례는 자세히 후술할 것이다. <표 6-5>에서 김인석은 백호관구 C지구 공작대장이다. 청룡관구의 플루토는 Q지구 김명렬 공작대이고, 위정사(魏楨士)는 전투대 A, C지구 대대장이었다. 황룡관구 전윤현은 C지구 전투대 중대장이었다.<sup>85)</sup>

황룡관구는 1951년 2월 12일 김기현 등 5명이 영흥만의 여도에 상륙한 이래 7월 6일까지 7차에 걸쳐 약 200명의 대원이 해안상륙과 공중투하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함경남도 영흥 이남에서부터 강원도 이북지역을 작전지구로 설정하였다. 즉, A지구는 회양, 금화, 평강, 이천, 양구, 고성, 인제, 화천군 및 통천군 일부이었고, B지구는 안변과 통천군 일부이었으며, C지구는 문천, 고원 및 평남 양덕군 일부였다.

이들은 작전계획상으로는 함경남도의 황룡산, 두류산, 백산 등에 유격기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리적으로 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다른 후방지역보다도 많은 적군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경계도 삼엄하여 유격전 전개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었다.

<표 6-5> 각 관구별 전과 통계표

(단위: 명)

관구명	백 호						청 룡				황룡	오봉	합계
	부대명 전과 구분	최 제 부	지 용 수	마 스 켈	실 리 (Silly)	김 인 석	소 계	플 루 토	위 정 사	송 근 호	소 계	전 윤 현	
사 살	67	266	98	62	5	498	68	41	13	122	19	2	641
포 로	3	3	9	12		27		40		40		2	69
귀 순		2				2							2
합동작전		4,028				4,028	100			100			4,128
계	70	4,299	107	74	5	4,555	168	81	13	262	19	4	4,840

포함하여 4,800여 명을 살상했다고 한다.

85) 전두열, 앞의 글, 68-69면.

특히 무리한 적전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상륙 즉시 포위공격을 받아 분산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공중투하에서도 조종사의 착오로 착지도 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받아 다른 관구에 비하여 조직적인 유격전을 전개하지 못했다. 더욱이 영도본부와의 무전연락도 불통되어 분산된 대원들이 소수 또는 개별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서, 유격활동은 영도본부에 무전보고 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남한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관구에 비하여 귀환대원의 수가 많았다.

오봉관구는 회령군에서 활동한 북한연맹 등의 반공청년들을 규합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려고 했다. 첫 침투는 1951년 9월 16일 고태봉 경성지구대장 등 16명을 비롯하여 2차로 9월 23일 조광진 부사령관 등 10명, 3차로 10월 16일 강석훈 사령관 등 17명, 4차로 11월 16일 허영진 외 1명 등 모두 45명의 유격대원이 관모봉(2541고지) 설령에 공중으로 침투하였다.

오봉관구의 침투는 다른 작전관구에 비하여 침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9월 중순 이후, 고산지대에 벌써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려오기 시작하여 기지설치와 지방정보망을 조직하기 전에 폭설로 길이 막혀, 대원들은 기아와 동상에 시달려야 했다.

오봉관구 작전 가운데, 주을작전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였다. 1952년 3월 10일 조 부사령관·허경훈·김교우·이시영·임창용 등 5명은 권총·칼빈·자동소총·무전기 등으로 무장하고 청진지구 파견대로서 설령기지를 출발했다. 3월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기온이 영하 15~16℃를 오르내리고, 산야에는 적설이 허리 높이까지 쌓였다. 눈을 헤치고 진로를 내기 위해 김양봉 등 7명으로 지원대를 편성하여 마치 참호를 파듯 쌓인 눈을 파헤치며 일보일보 전진했다. 이런 눈길을 파헤치는 작업을 8일이나 계속한 후 관모봉 2541 고지에 도달했다.

주을쪽 약 10리 지점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한 민가를 급습하여, 마침 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주을 사회안전부원 나희백을 생포하고 소련제 장총 1정을 노획했다. 그 마을에서 좁쌀 5두·감자·된장 등을 얻고 소 한 마리를 매입했는데 다음 날 아침 05:30경 내무서원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 내무서원 2명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생포하려다 실패하고, 뒤따라오던 내무서원 약 30명과 교전이 벌어져 20명을 사살했으나 10명은 도주했다.

1951년 9월부터 1952년 6월까지 반공 유격전을 전개하여 45명중 겨우 11명만 살아서 돌아왔다.

북한측은 유격대원들을 ‘산돼지’, 혹은 ‘물쥐’로 부르면서 유격대의 근거지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1952년도 봄부터 갑산, 삼수, 풍산 일대에서 유격대의 지방조직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성·김공성·이상규 등이 체포되어 갑산군 동인면 안간령에서 총살당했다고 한다. 지방조직망이 와해된 유격대는 마치 눈과 귀를 잃은 것 같이 그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1951년 12월 ‘배치상황도’에서 나타나듯이, 각 지역의 유격대원들은 본부와 통신이 단절되었다. 영도에 있는 비문처럼 “다시 못 올 결의로”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대원이 많았다. 1952년 하반기에 침투했던 대원들은 투하 후 곧 사라졌다고 한다.<sup>86)</sup>

<표 6-6>과 같이 1952년 4월 9일 현재, 전사 27명, 체포된 대원 22명, 행방 불명 413명에 이르렀다. 일부는 침투 후 북한측에 귀순한 경우도 있었다.<sup>87)</sup> 전사자 가운데는 백호관구 최제부 사령관도 포함하여 그 외에 공중투하나 해상침투 중 사망하거나, 강추위로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6월 18일 황룡관구 C지구대 31명(대장 최윤찬)이 2대의 수송기에 분승하여 백산으로 투하될 때, 대원 5명이 바위에 부딪쳐 사망했다.<sup>88)</sup> 오봉관구 유격대원들은 영하 40℃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눈길을 헤치며 정보수집과 식량조달을 위해 싸우면서 기나긴겨울을 넘겼는데 비타민 결핍으로 각기병에 걸려 3명의 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다.<sup>89)</sup>

<표 6-6> 출동 대원 현황(1952. 4. 9 현재)

출 동	전 사	피 검	귀 환	행 방 불 명
768	27	22	24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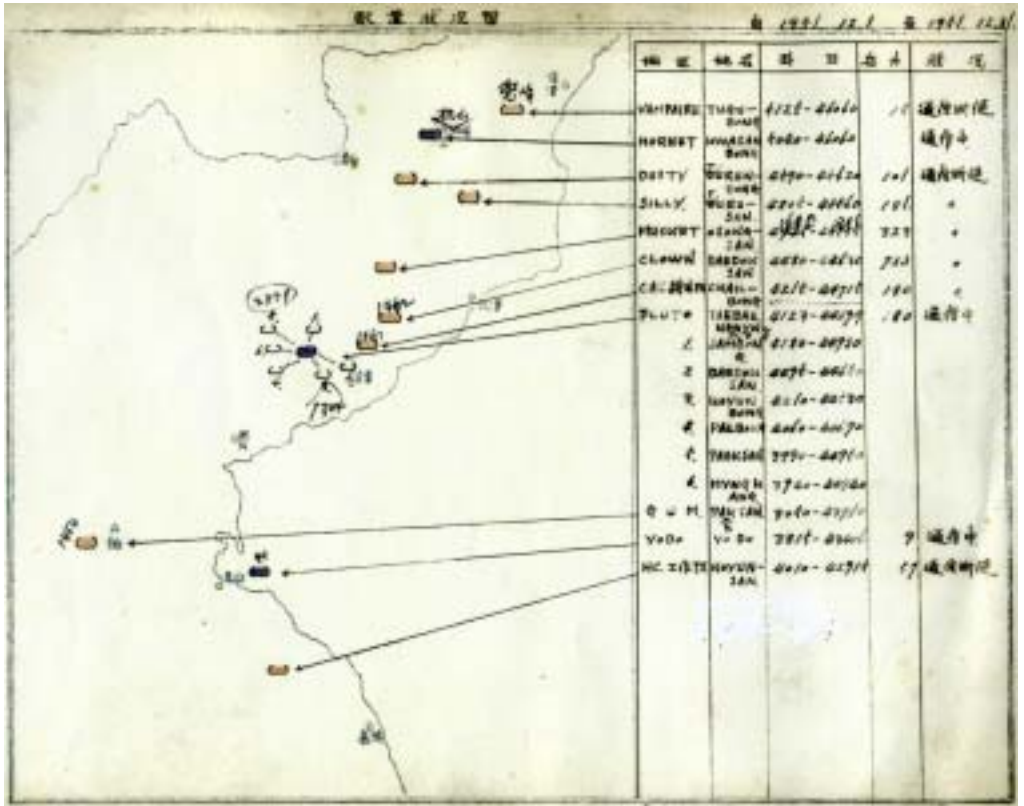
86) “CIA files show agency lost thousands of Korean agents”, *The Honolulu Advertiser*, April 4, 2000.

87) 영도유격대기념사업회, 『기본대원 명부』, 1989. 3.

88) 강근휘, 『상흔』, 1996. 8. 17; 『영도유격부대』, 82-83면.

89) 2001년 11월 현재, 전우회에서 확인한 전사확인자는 160여 명이다(영도유격부대전우회, 『탄원서 2』, 2001. 11. 30). 그러나 현지에서 입대한 대원들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배치 상황도(1951. 12)

## 2. 주요 작전

### 가. 백호관구 유격대

백호관구는 1951년 4월 29일 C지구(길주, 명천, 경성) 공작대 김인석 대장 등 12명이 침투한 이래,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약 350명의 대원들이 공중 또는 해상으로 침투하여 함남 갑산군 활기봉(2,003m)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사령부는 총사령관 최제부, 부사령관 지용수, 기본대원 15명, 직속중화기대 11명, 무전반 등으로 편성하였다. 1951년 9월 4일, 신정수리 전투에서 최 사령관이 전사한 후,

지용수 부사령관이 사령관직을 맡아 삼수·갑산·혜산·길주·명천·단천 등지에서 유격전을 수행했다.

백호관구는 A, B, C의 3개 지구로 편성되고 각 지구를 공작대와 전투대로 나눠었는데, 공작대는 산하에 지구를 두고 전투대는 본부중대와 독립소대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각 지구대는 침투시 적과의 교전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최사령관은 흩어진 대원들은 재규합하여 활기봉기지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대원들의 무기는 권총, 기관단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로켓포, 수류탄, TNT, 대검 등이었다.

백호관구는 적의 사살·시설파괴 등에서 4개 관구중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1951년 10월 하순부터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준령에 흑한이 몰아닥치고 적설이 쌓여 활동이 어렵게 된 데다가 토벌대의 포위공격이 압박하게 되어 부득이 각 지구별로 분산하여 월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산은 결과적으로 큰 화를 자초했다. 약화된 각 지구대는 확고한 아지트도 구축하기 전에 때마침 활기봉기지 토벌을 위해 집결되고 있던 토벌대의 공격을 받아 희생되거나 생포되어 백호관구의 유격전은 소강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백호관구 전투 가운데, 최제부 사령관이 주도한 신정수리 전투와 최제부 사령관이 전사한 후 지용수 부사령관이 활약한 중장리 전투가 주요 성과이다. 북한군이 유격대 토벌을 강화하자, 기지사령부는 1951년 9월 3일 이동하기 어려운 장비는 땅속에 묻고 날이 어두워지자 200여 명의 대원들은 긴 행렬을 지어 관두봉으로 향했다. 9월 4일 새벽 06:00 함경남도 혜산군 봉두면 신정수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관모봉으로 향하는 요충지인 동시에 목재생산지였기 때문에 많은 북한군과 내무서원이 주야로 경비를 하고 있어서 임산작업소 경비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최 사령관의 사격신호탄과 함께 200여 명의 대원은 함성을 지르며 부락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선두에서 지휘하던 최제부 사령관이 전사했다. 그의 전사 사실을 알게 된 대원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인근 부락인 용암리까지 진격했다.

용암리 역시 큰 제재소가 있어 적은 나무더미에서 저항하였으나, 지용수 부사령관의 지휘 아래 마을을 포위하여 적병을 사살하는 한편 세포위원장·무장자위

대장·여성 열성당원 등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도망치는 임산사업 소장을 사살했다. 또 일부대원들은 소비조합 창고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꺼내어 학교운동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날의 전투에서 34명을 사살한 외에 창고·통신기관·제재소·기관고 등 중요 건물 100여 개소를 파괴했다. 기관차 9량을 TNT로 폭파했다.<sup>90)</sup>

중장리 전투는 1951년 9월이 되면서, 북한 당국이 활기봉 유격대에 대해 토벌을 하려하자 계획되었다. 16일 영도본부에서는 보충대 21명, 동 17일에는 보충대 35명을 활기봉에 추가로 공중투하시켜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20일 함경남도 풍산군 천남면 중장리로부터 활기봉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북한군이 ‘중장 인민학교’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새로 사령관이 된 지용수는 즉시 영도 본부에 타전하여 공군지원을 요청하고 김후석·전하정·최신 등 250여 명의 대원을 갑산·혜산·단천의 3개 지구대로 편성하여 22일 중장리를 향해 출발했다. 기지에는 경비소대만을 남겨 놓았다.

23일 중장리에서 약 20리 떨어진 어느 부락 근처에 이르러 행군을 중지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전 11:00경, 갑자기 요란한 비행음과 함께 중장리 상공에 아군 폭격기 4대가 나타나 폭격이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자, 유격대원들은 출발하여 24일 04:00경 50호 가량되는 중장리에 도착하여 온 마을을 완전 포위했다. 06:00경 폭격을 당한 학교 건물에서 약 300명의 북한군들이 운동장으로 몰려나왔다. 그들이 아침 체조를 하려고 상의를 벗는 순간 공격을 개시했다.

1발의 박격포탄이 북한군 대열에서 터지고 3면의 고지에 배치됐던 유격대원들은 박격포, 경기관총, 자동소총 등으로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적들도 초소에서부터 응사가 시작되면서 검덕광산 쪽으로 도주했던 적병들이 반격에 가세하였다. 적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갑산, 혜산대의 후면으로 우회하여 역습을 가해 왔다.

숫적으로 압도당한 갑산, 혜산대는 일단 후퇴하고 본부부대와 단천대가 역공하여 돌격전을 전개했다. 전투는 10:00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날의 전투에서 약

90) 『백호관구 전투 및 전과』(최제부 사령부), 미동훈, 앞의 책, 20면.

220명의 적을 살상하고<sup>91)</sup> 식량창고와 노획한 다수의 무기를 불질렀으나 유격대도 5명이 전사했다.

### 나. 청룡관구 유격대

청룡관구 유격대는 함경남도의 팔봉산·백산·대덕산·차일봉·쌍봉 등 험준한 산악지대에 유격기지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측 토벌대의 집요한 공격으로 자주 기지를 이동해 가며 함경남도 신흥 장진군(A지구), 함주, 정평, 영흥군(B지구), 북청, 이원, 홍원군(C지구) 일대를 작전지역으로 삼아 유격전을 전개했다.

청룡관구의 유격전은 백호관구와 같이 대규모 작전은 없었으나 지방 첩보망의 조직, 반공청년의 규합, 적 시설물의 기습파괴, 적 전투병력의 후방 유인 등에 크게 기여했다. 1952년에 접어들면서 북한 내에서 전반적인 반공 유격전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청룡관구에서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관구의 여러 전투 가운데, 김명렬대의 전투성과가 컸다. 1951년 5월 1일 B지구 Q지대(대장 김명렬) 11명의 북청출신 대원이 미군 함정으로부터 엄호를 받으며 북청 해안으로 상륙 침투한 이래 동년 7월까지 8차에 걸쳐 약 270명이 해상 또는 공중으로 침투했다. 그러나 각 지구에서 적의 대규모 토벌작전으로 대원들이 분산되고 또 도처의 철광산의 자력 장애로 무전이 불통되어 영도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고립되어 싸웠다. 그러나 B지구는 김명렬대를 중심으로 각 지구의 분산되어 있던 대원들을 수습하고 현지 반공청년들을 흡수하여 재편성하였다.

김명렬대 11명은 북청읍을 경유하여 서북방 팔봉산(1,681m)에 임시 아지트를 설치한 후 영도본부와 무전연락을 하는데 성공했다. 8월, 북방으로 진출하여 마산(1,708m)에서 대원을 나누어 1대는 쌍봉 방향으로 향하고, 2대는 쌍봉 북방 덕방 방면으로 진출했다. 당시 새밭골과 1340고지 중간 상리에 2개 중대의 적병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정보망조직을 위해 활동하다가

91) 부대사에는 220명을 사살한 것으로 서술되었다.

양 대는 각기 공작임무를 마치고 8월 19일 쌍봉에서 다시 합류하여 임시 아지트를 설치했다. 8월 30일 영도본부에 입수된 전문보고에 의하면 당시의 김명렬대의 병력은 기본대원 30명(19명의 분산대원 합류), 현지 신입대원 66명으로 모두 96명이었다.

본부로부터 보급품을 받기 시작한 것은 8월 27일부터였다. 이날 밤 16개의 보급품이 투하되었으나 15개만 찾았다. 동 30일 나머지 1개를 찾기 위해 보급품 투하지점을 수색하던 중 적의 매복병에게 발각되어 교전이 벌어지게 되어 6명을 사살하고, 29명을 패주케 했으나, 대원도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아지트로 돌아오던 도중 차일봉에 낙하한 후 분산 배회하고 있던 C지구대원 등 18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9월 12일에는 학사봉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적군과 영화봉 근처에 집결하고 있는 적군을 기습공격하기 위해 기지 경비대원만을 남기고 전 대원을 2개 대로 편성하여 1대는 김명렬 대장이, 다른 1대는 김동준 부책이 지휘하여 출동했다. 김명렬이 학회사봉의 적군을 기습하여 13명을 사살하였다. 김동준대는 영화봉의 적군을 기습하여 군용트럭 3대를 파괴했으나 대원도 3명이 전사하고 2명이 행방 불명되는 손실을 입었다.

9월 14일 김명렬대는 아지트가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을 느끼게 되어 풍산군 쌍봉기지를 포기하고 고산으로 이동했다. 이 때의 병력은 기본대원 16명, 신입대원 94명 등 110명이었다. 22일에는 기본대원이 3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달 17일 북청면 상리 민가에 북한군 기병대 2개 중대가 분산 투숙 중이라는 정보에 의하여 기습전을 감행했다. 적은 잘 훈련된 기마병이었던 관계로 완강히 저항했지만 치열한 격전 끝에 40명을 사살하고, 기마 13두 도살이라는 전과를 올렸다.<sup>92)</sup> 그러나 김명렬 대장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대원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중상을 당했다.

18일 김동준 부책이 대장직을 대리하고, 전창형 대원이 부책을 맡아 기지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김명렬 대장의 구출을 위해 북청으로 출동했다. 북청에 도착한 후 대원들은 각기 분산하여 반공지하단체와 지방정보망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92) 미동훈, 앞의 책, 26면.

김명렬 대장이 구금되어 있는 곳을 탐색했다. 그 사이, 10월 3일 김동준대는 북청읍 근처에 있는 탄약제조장을 급습하여 폭탄 약 300톤과 다량의 소총탄을 폭파하는 등 소규모 작전을 계속했다.

12월 5일 김동준 대장 대리는 김명렬 대장 등이 북청에서 함흥으로 이송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명렬 대장 구출작전에는 김덕진이 지휘하는 거두봉(1304고지)대가 정치범을 호송하는 길목에 잠복했다. 19:30경 내무서원의 호위를 받고 있는 트럭이 산언덕에 이르러 속력을 늦추자 일제히 사격이 시작되었다. 호송원들은 사살되거나 도주하고 김명렬 대장과 정치범 16명은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러나 도주했던 적의 기습 반격을 받아 대원 1명과 현지 대원 6명이 전사하고 대원 2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현지 대원 3명이 체포되었다.

그런데 체포된 현지 대원들의 자백으로 김동준대의 본부기지가 탄로되어 파리봉(1,447m)으로 이동했으나, 얼마 후 북한군과 무장자위대 총 200명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17명을 사살하고 간신히 포위망을 돌파하여 마산(1,708m)으로 탈출했으나, 적의 추격은 계속되어 안전한 아지트를 설정할 수가 없었다.

## 다. 해상대의 작전

### (1) 창설과 편성

해상대의 창설배경은 상술한대로, 1951년중 대원을 대규모로 침투시켜 장기간 작전을 펼치도록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환율이 낮아, 작전방침을 바꾸어 해안선 근처에서 단기간의 소규모 침투작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1년 6월경 편성된 보트그룹(BG 그룹)을 토대로 해상대<sup>93)</sup> 창설했다. 칠보산 정찰작전으로부터 태종대로 돌아 온 보트그룹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더욱 강력한 장비·무장·병력을 증원해 UDT 임무를 겸한 소규모 전투부대로 재편성

93) SMG(Special Missions Group) 그룹으로 불렸다(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되었다.

영도유격대 직속 해상대는 오박을 대장으로 하고 대원 10인에 불과한 소부대로 출발했다. 한수신·임한영·황보현 등이 교관요원 귀환대원 교육대 등에서 대원을 엄선하여 대원이 5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4개 소대로<sup>94)</sup> 편성하고 다시 각 소대는 3개조로 이루어졌다. 소대로 편제되었으나, 병력은 사실상 분대 규모였다. 본부 인원 6명과 각 소대 13명이었다.

해상유격대는 대장 직속으로 부관·통신병·의무병·무반동총조가 있었고, 전투대는 제1소대 수색대, 제2소대 공격대, 제3소대 방어대, 제4소대 폭파대로 편성되었는데 각 소대는 3개조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통신병이 있었다. 이 편제에 미 해병대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소대로 불리는 것보다 척후조, 공격조, 폭파조 등으로 호칭되었다.<sup>95)</sup>

해상대는 1951년 9월부터 1952년 5월 9일까지 오박이 지휘를 맡았고, 그 이후는 주홍길이가 담당했다. 부대개편이 있었던 것은 오박 대장이 소대장들과 융합이 되지 않는 데다가, 1952년 4월 하순 침투작전이 실패하여 3명의 전사로 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해상대를 일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96)</sup> 편제도 2기에는 4개 분대로 바뀌어 각 분대에 11~13명 수준이었다. 즉 1분대장 황보현, 제2분대장 김치민, 제3분대장 홍현식, 제5분대장 임한영 등이었다.<sup>97)</sup>

해상대원의 훈련은 모든 유격훈련과정을 마친 대원들 가운데 수영에 능숙하고 배를 잘 탈 수 있는 대원들을 선발하여 1951년 12월 하순까지 해상침투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미 해군특전대 출신인 애치슨 대위, 팩넬라(James C. “Joe” Pagnella) 상사로부터<sup>98)</sup> 받았다. 팩넬라 상사는 그가 받았던 16주간 부사관 코스를 대원들에게 전수했다. 기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해안까지 헤엄쳐 나오

94) 다른 부대사에는 3개 소대로 서술되었으나, 해상대의 황보현의 진술을 따랐다. 각 소대장도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난다.

95)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3.

96) 『부대일지』, 1952. 5. 9; 황보현, 『영도부대』 3; 주홍길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2. 9. 26.

97) 미동훈, 앞의 책, 123-124면.

98)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헨스콧 상사로부터 받았다는 기술도 있다.

는 수영훈련을 강조했다. 노젓기 연습과 고무보트 조작법과 함께 옷 입고 헤엄 치기, 수중에서 입었던 바지로 구명대 만들기, 물에 빠진 익사자 구출법 등도 병행했다.

실전에서의 적전 상륙은 미 해군함(124, 125, 127호)을 타고 북한 해안 몇 마일 해상까지 접근, 정박시킨 다음 6~7척의 고무보트에 분승하여 예인선(V. P.)으로 해안 1,000m 해상까지 접근했다. 거기서부터는 직접 노를 저어서 고무보트가 해안 약 200m 해상까지 근접하면 일단 정지하고 수색대에서 수영 척후병 2명을 해안에 잠입시켜 안전신호가 오면 수색대인 제1소대가 상륙하여 작전지역을 수색했다. 제1소대의 수색결과 안전신호가 오면 제2소대, 제3소대가 상륙하고 해상의 보트는 기관총으로 엄호태세를 취했다. 해상대는 이러한 통상적인 상륙과정에 맞추어 전투, 폭파, 기습 등의 훈련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영도 해상대의 대원들은 해군 특수전부대(UDT)의 원조라고<sup>99)</sup> 자부심을 가졌다.



영도 해상대 호송함 124호(Stan Levin호)

99) 해군특수전대는 전후에 미 해군 UDT 과정을 이수한 장병들로 1955년 11월 창설되었다(김선한, 『X』 하, 디지털에프케이, 2000, 262-263면).



<해상유격가><sup>100)</sup>

“동해 물결 바라보는 절벽 수 백척, 대지를 부르는 우거진 녹음,<sup>101)</sup>

여기 삼천리 강산 남단, 원한도 새로워 뼈에 사무쳐,

원수를 찾아 패들을<sup>102)</sup> 드니 동해 천지 울리며 노래 빛난다.

만경창과 헤쳐 나가며 원수를 찾아 패들을 드니 동해 천지 울리며 노래 빛난다.”<sup>103)</sup>



## (2) 작전활동

## (가) 해상작전 개요

해상대의 주요 임무는 첫째, 소련으로부터 수송되는 군수물자를 차단하기 위

100) 본래 제목은 ‘바다의 용사’로 1952년 9월, 주홍길이 작사했다.

101) 『영도유격부대』에는 노을로 기술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녹음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2) 대원들은 패들로 기억하고 있으나, 노를 의미하는 ‘paddle’이다(주홍길, 앞의 책, 142면).

103) 강근희, 『군번 없는 병사의 빛바랜 수기』(프린트판, 2002, 1면; 영도유격부대전우회, 『영도유격부대』, 2001.

해 북한 지역의 해안선 근처에 있는 철도·터널·철교·교량 등 파괴, 후방 보급차량의 기습, 돌궐, 해안 근처에 위치한 주요 기관 습격 및 기관원 납치, 기밀 서류 탈취, 셋째, 적지에 침투활동 중인 유격대원과 연결 및 유사시 그들의 해상 탈출 방조 등이다.<sup>104)</sup>

해상대는 여도를 중심으로 원산에서 청진에 이르는 전 해안을 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밤에 상륙했다가 동트기 전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야간작전에 주력했다.<sup>105)</sup> 본격적인 적지침투 작전은 1952년 1월 하순부터 이후 총 10여 차례에<sup>106)</sup> 걸쳐 수행했다고 한다. 즉 1952년 1월의 일신철교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동년 2월의 이원 철산 근처에서 쌍두마차 공격작전, 기관차 공격작전, 3월의 보급차량 기습작전, 1952년 6월의 염분동, 방호동, 보천동작전 등, 10월의 독진리, 제2차 방호동, 이원 쌍마작전 등이다.

작전 내용은 철수대원의 지원을 비롯하여 내륙 지역으로 침투하여 기관차·터널·철교의 폭파 등이었다. 때로는 정치보위부, 해안경비초소 등을 기습하여 민심을 교란시켰고, 북한군을 사살하여 해안경비병을 불안케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소수의 철도경비대로 철도(함경선)와 해안을 경비하였던 것을 병력을 늘려 해안지대에 투입했기 때문에 적의 병력 분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내륙에 침투했던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산악지대에 배치됐던 적군을 해안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었다.<sup>107)</sup>

실패한 작전도 있었다. 1952년 4월 22일 함북 학성군 용현리 터널을 폭파하려고 침투하는 과정에서 유격대의 침투를 사전에 알아차린 북한군의 반격을 받아 유재복, 전도현(통역) 등이 희생되었다.<sup>108)</sup> 전도현은 영도 태종대에 안장되었다.

104) 전두열, 『동해안지구 실전기』, 『전사』 80, 1974, 64면; 미동훈, 앞의 책, 120-121면;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r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105) 『위험한 임무』, 『서울신문』 1991. 8. 10.

106) 황보현은 2회의 보트그룹의 작전까지 포함해서 18차례 이루어졌다고 했다.

107)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r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108) 『부대일지』, 1952. 4. 23. 2명 외에 박홍범 등 2명이 고무보트가 뒤집혀서 사망했다(강근휘, 『상흔』, 1996. 8. 17;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rcheson with SFC

10월 14일<sup>109)</sup> 함북 경성군 정치보위부를 기습할 특공대(미동훈 대장 외 10명)의 상륙과 철수를 지원하고 엄호하기 위한 독진리 상륙작전도 유격대의 상륙을 대비하고 있던 북한군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 (3) 주요 작전

#### (가) 일신철교 폭파작전

해상대로 확대 개편된 후 첫 작전이 일신철교 폭파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함북 학성군 학성면 일신동에 있는 철교를 폭파하여 북한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려는 데 있었다. 미 공군이 이미 수 차례 폭격을 했지만 지형관계로 실패했기 때문에, 해상대가 이를 맡았다. 이 작전은 해상대 창설 이후 3개월 정도의 훈련을 쌓았던 첫 작전으로 해상대의 장래를 가늠하는 전투였다.

1952년 1월 중순경 애치슨 대위로부터 눈 덮인 북한지역의 한 사진을 받아 1952년 1월 22일<sup>110)</sup> 오박 대장을 비롯해 홍만학·황명원·김효극·이장열 등 해상대원 45명은<sup>111)</sup> 미 해군 제124호(Stan Levin)에 승선하여 영도기지를 떠났다. 이때 크레모아 중령, 애치슨 중위도 함께 출동했다.<sup>112)</sup> 대원들은 누비방한복을 입고, 방수용 고무바지와 방수 덧신까지 신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눈 위에서 몸을 은폐하기 위하여 백색 가운을 입었다.

1952년 1월 22일 오전 중에 각자의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점검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총기의 시험발사도 마쳤다. 최종적으로 고무보트도 점검한 후 도상연습을 했다. 23:00시 대원들은 구축함을 떠나 6척의 고무보트에 분승하고 2척의 예인선이 고무보트를 로프로 연결하여 끌기 시작했다.

상륙방법은 공작함-예인선-고무보트-수영척후-상륙-본대 상륙 순이었다. 육지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예인선은 속도를 줄여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낮추어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109) 17일로 기술된 경우도 있으나(『영도유격부대소사』, 59면), 『부대일지』를 따랐다.

110) 해상대의 출동 날짜에 대해 애치슨 중위의 훈장수여 대장에는 1월 25일로 기록되었으나, 『부대일지』와 해상대 출신의 황보현의 기록을 따랐다.

111) 황보현 등은 해상대 전원이 출동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부대일지』의 기록을 따랐다.

112) 『부대일지』, 1952. 1. 22.

대기하고 있다가, 애치슨 대위가 지휘하는 보트에서 예인 로프 해제의 발광신호가 발사되자, 해안선 전방 약 1,000m 해상에서 6척의 고무보트로 각기 노를 저어 해안으로 접근했다. 척후수색대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 양쪽에 공격, 방어대를 거느리고 폭파대는 이들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진을 계속했다. 북한군의 소총사거리를 감안해 공격목표로부터 약 500m 지점에서 일단 정지했다.

이 때 한수신 등 정찰수색대가 먼저 전진하여 척후조를 보내 상륙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6척의 고무보트가 일제히 전진을 했다. 약 200m 해상에서 일단 정지하고 제1소대인 수색대가 먼저 상륙하여 수색이 완료된 다음 제2~3소대가 상륙하여 제2소대는 동·서 양쪽에 있는 터널 윗쪽으로 경계망을 펴고, 제3소대는 재빠르게 양 터널 중간에 위치한 철교폭파작업에 들어갔다. 수색임무를 마친 제1소대는 본부와 함께 해안에서 보트경비에 임했다. 해안에서 약 50~60m 떨어진 곳에 높은 철도 제방이 동서로 뻗어있고, 그 북쪽은 급경사를 이룬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제2소대 1조가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치며 철로변의 산비탈을 따라 동쪽 터널 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이를 모르고 다가오는 적병 1명을 생포했다. 적병은 단천지구 해안경비대 제518부대 소속의 전사였다. 1조장은 포로를 해안에 있는 본부로 호송시킨 후 고지에 올라가 방어진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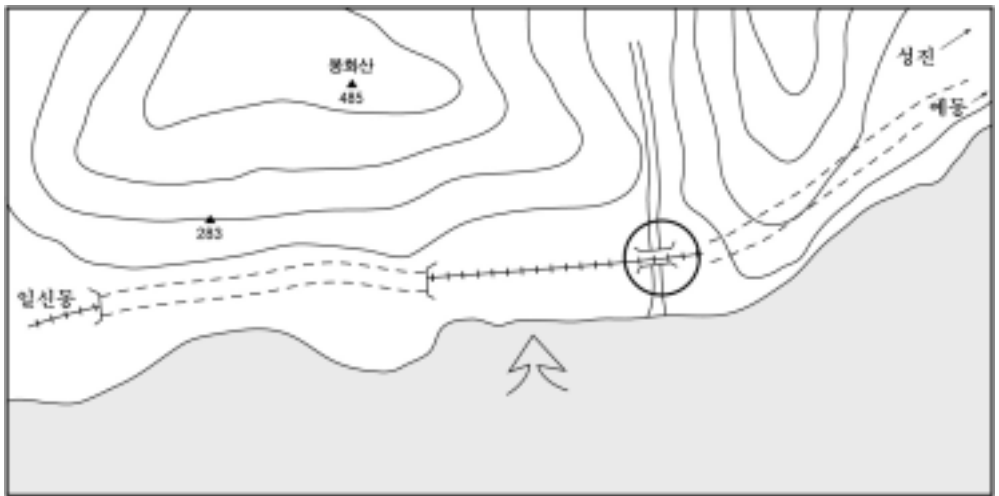
한수신 제1소대장은 대원 2명과 함께 서쪽 고지로 올라가다가 30~40m 전방에 위치한 적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을 받았다. 화력으로 보아 적 병력은 4~5명 정도였고, 적의 위치는 산 중턱에 있는 교통호임에 틀림없었다. 즉시 응사했으나 낮은 곳에서는 불리하다는 판단아래 김치민, 홍선수 두 대원이 적의 측면으로 우회하여 수류탄을 호 속에 던졌다. 전투가 벌어지자 폭파소대도 작업을 중단하고 황보현 소대장의 지휘 아래 교전에 가세했다. 이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동쪽 고지의 제2소대 1조에서는 상황과약을 위해 본부에 무전연락을 했으나 소통되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바닷물에 젖은 무전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8발의 수류탄이 연이어 터지고 적의 사격은 멈추어졌다. 호 속의 적병 8명이 폭사하고 2명은 도망갔다. 황보현 소대장이 지휘하는 폭파조는 민첩한 동작으로 철교에 C<sub>3</sub>(폭약)를 쌓고 철도의 이음새마다 폭약장치를 한 후 해안으로 철수했다.<sup>113)</sup>

뒤이어 제1소대와 제2소대의 2조, 3조도 철수했으나 다만 동쪽을 경계하고 있던 제2소대 1조만은 철수명령을 받지 못하고 방어임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1조장은 교전이 끝난 후 약 1시간 가까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이미 폭파장치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또 무전기교신이 되지 않아 철수명령이 하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대원들은 인솔하여 해안으로 철수했다.

해상대의 첫 작전은 1명의 부상자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무사히 모함으로 돌아왔다. 망원경으로 침투지점을 바라보았더니 철교가 폭파되고 그곳을 통과하던 기차까지 파괴되었다. 이 날의 결과로 철교의 폭파는 물론, 기관차 1대 파괴, 생포 1명, 사살 14명, 소총 노획 1정이었다.<sup>114)</sup> 포로는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였고, 포로수용소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해상대 대원으로 편입했다.

<요도 6-2> 작전요도



113) 한수신 진술, 『민족의 증언』 5, 250면.

114) HQ, EUSAK, "Award of the Silver Star", July 8, 1952; "George Atcheson's Letter to oh pak", Oct. 16, 2000. 이 작전이 성공한 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부내 내에 전시했고, 애치슨 중위는 미 은성훈장을 받았다. 그는 해상대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당시 해상대장인 오박에게 은성훈장을 기증했다.

## (나) 방호동 작전

1952년 6월 21일, 해상대는 함북 경성군 방호동으로 상륙한 후 부락을 수색해서 노동당원증, 공민증 등을 50여 매를 압수하고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었다.<sup>115)</sup> 이번에는 첩보수집을 위해 군용차량을 기습하여 운전병을 납치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곳은 청진으로부터 어대진, 길주, 성진을 잇는 철도와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여, 군수물자가 전선으로 빈번하게 수송되는 곳이었다. 당시 유엔군은 항공기에 의한 공중폭격과 해상으로부터 함포사격을 통해 보급로를 차단시키려고 했으나, 공산군은 야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군수물자의 수송을 계속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연료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군의 유류저장소를 알고 있는 수송차량의 운전병을 납치하여 그곳을 폭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1952년 10월 19일, 해상대원 50여 명은 경성군 독진리 상륙작전의 실패를 만회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01:30경 방호동 해안에 무사히 상륙했다. 국도는 해안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주홍길 대장은 국도 위에 이상이 없다는 수색대로부터 보고를 받자, 경비대를 도로의 남북 양쪽에 50m 간격으로 배치하여 통행을 차단시켰다. 뒤이어 폭파대가 진입하여 도로상에 폭파장치를 했다.

폭파대원들은 민첩하게 1파운드의 폭약 4개를 노면에 수직방향으로 배열하고 일시에 폭파하도록 도선으로 연결한 다음 전선을 길게 끌어 발전기에 연결시켰다. 도선과 폭약은 운전병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래로 덮어 은폐했다. 대원들은 도로에서 20~30m씩 후퇴하여 몸을 은폐하고 적의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군용트럭 1대가 폭발물 매설지점에 이르자 김성훈이 폭파 스위치를 눌렀다. 트럭은 요란한 폭음과 함께 길 아래 밧으로 굴러 떨어지며 차 속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트럭에는 북한군 부식용 건어물을 적재했다. 대원들은 순식간에 적재함 건어물 껍질 틈에 숨어 있는 북한군 중위 1명과 특무원(헌병) 5명을 끌어내리고 운전대에선 죽은 채하고 쓰러져 있는 운전병과 조수를 생포했다.<sup>116)</sup>

115) Michael E. Haas, "The Special Missions Group: LT George Atcheson with SFC James C. "Joe" Pagnella", 7/27/2001.

116) 주홍길 진술, 『민족의 증언』 5, 254면.



항공사진과 포로

대원들은 트럭을 폭약으로 완전 폭파한 후, 포로들을 끌고 해안으로 빠져 나왔다. 생포한 북한군 중위는 군단 연락장교 박내천이었다. 그로부터 압수한 서류 가방 속에는 뜻밖의 문서들이 있었다. 관모봉부대에 대한 토벌작전 계획서와 작전지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의 출몰 지역과 보급품 투하지점 등이 표시된 군사지도가 들어있어 그들의 토벌계획을 탐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 제 4 절 부대 해체

1952년 여름부터, CIA측은 북한지역으로 투하된 영도유격대가 이미 공산주의자들에게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북한으로부터 온 첩보보고를 불신한 데다가,<sup>117)</sup> 1952년말 휴전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부대를 해체하였다.

영도부대의 귀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대원들이 출동할 때 “살아서 돌아 오라, 귀환 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sup>118)</sup> 북한지역 내륙 깊숙이 침투하였던 까닭에 귀환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951년 7월 9일 문천지구 대원 3명, 같은 달 18일 문천지구 5명, 9월 2일 백산지구 파견대원 2명, 26일 백산지구 파견대 2명 등이 귀환했다. 12월 3일 문천대 주홍길, 백산대 조병육, 8일 회양대 손창필, 이듬해 1월 27일 클라운대 전하정 등 4월 9일 현재 24명이 귀환했을 뿐이다. 그 후 부대가 해산될 때까지 전체 귀환자의 규모는 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19)</sup> 귀환자는 대체로 단천·문천·회양·백산 등 38선이나 해안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침투했던 경우이다.

1952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격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27일 신태영 국방장관이 내방하는 등 국군측에서도 영도부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미 같은 해 3월 중순, 한철민 부대장은 크레모아 중령·오브라인 등 미 고문관과 함께 휴전에 따른 부대가 취할 방법을 협의하면서, 본대 철수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sup>120)</sup>

그 후 경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엔군이 확전을 하지 않고 휴전

117) “CIA in Korea 1946-1965”, 군사편찬연구소, SN 1975, p. 8; *In the Devil's Shadow*, p. xvi.

118) 모 대원 증언, 2003. 11. 27. 그러나, 대원들은 북한에 한번 침투하면 국군이 북진하여 수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

119) 미동훈, 앞의 책, 17면; 『영도유격부대』, 17면. 한철민 부대장은 생환자가 26명에 불과하였다고 회고했다(『민족의 증언』 5, 219면).

120) 『부대일지』, 1952. 3. 11-14. 4. 9-27. 부대일지에 따르면 1951년 10월 8일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이 부대를 예방했다.





신태영 국방부장관  
부대시찰  
(1952. 4. 27)

을 모색했기 때문에 영도유격대는 해산을 하게 되었다. 당시 CIA 간부들은 그다지 열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작전활동이 군사적이었고, 준 공개작전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군수나 작전을 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CIA에서 일종의 식객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sup>121)</sup>

1952년 10월경부터 해상대 침투와 공중투하도 축소되다가 결국 중지되었다. 이미 9월 30일, 애치슨 고문이 떠났다. 『부대일지』에 의하면, 1952년 11월 1일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에게 부대 해산을 통고했고, 이튿날인 2일 전 대원에게 부대해체를 선언했다. 휴전협상이 계속되어 국군이 진격할 계획이 없는 데다, 귀환율이 낮아서 결국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잭부대(JACK)는 서울·인천·부산 등에 4개의 기지가 있었고, 77곳의 훈련소·안전 가옥을 비롯해 크고 작은 배를 여러 척 거느리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로 첩보활동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2)</sup>

1952년 12월 1일 귀환대원 40명과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훈련 중인자 등 260여 명이<sup>123)</sup> 제대했다. 이미 결핵환자나 장기환자 등을 제대시켰다. 예를 들면, 1952

121) Richard G. Stilwell, "Guerrilla warfare as conducted in the Far East", US Psychological Warfare School, Fort Bragg, N.C. July 25, 1955, p. 7.

122) *In the Devil's Shadow*, p. 183.

123) 영도유격대기념사업회, 『기본대원 명부』, 1989. 3. 부대해체 직후 작성된 명부에 따르면, 250명이었으나(박일필, 『제대자 명부』 1952), 이 명부에는 한철민 부대장, 김성호 등이 누락되었

년 3월 13일 장기 환자인 강승중·장연수 등 4명이 제대했고, 27일 환자 5명, 4월 13일 결핵환자 2명, 5월 14일 환자 13명 등이 제대했다. 그 외에도 1952년 2월 12일, 해상대가 귀환할 때 함께 탈출한 김원근·전하립을 부대에서 떠나 보냈다.<sup>124)</sup>

부대를 해체하면서, 공로대원·전사자 유가족·부상자에 대한 원호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다. 『부대일지』에 따르면, 이미 1951년 11월 29일 부대본부에서는 유가족 원호문제, 최제부 사령관 및 전사자에 대한 표창문제를 논의했고, 1952년 1월 4일 유가족 원호에 대해 한철민 대장과 미 고문과 협의하여, 유가족 원호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아 8일, 한 대장 외 3명이 유가족을 위문하기 위해 거제도를 방문하여 모포와 원호금을 지급했다. 1952년 1월 15일 공훈신청서를 작성했으나, 부대가 해체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상술한 대로 출동한 인원을 766명으로 볼 경우, 전사자나 실종자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 3월 1일 최제부 등 36인의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부상자는 부대내의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해산 후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미 고문관은 해산 당시, 해상대를 해군, 교육대를 육군으로의 편입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에 침투되어 있는 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백지 상태로 해산했다. 더욱이 이 부대가 한국정부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줄 수 없었다.<sup>125)</sup>

해체 당시, 귀향자는 국군의 공식적인 제대증이 아닌 ‘주한연합고문단사령부 Y지구부대장’ 이 발행한 제대증을 발급받았다. 이 때 모포 2매·군복 3벌·군모 1개·군화 1족·내의 3벌 등을 지급받았다. 상술한 대로 제대증에는 대원들이 국방부 병무국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명기하였으나, 군복무 필증이 아니었으므로 병역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sup>126)</sup> 종군기장을 신청하기 위해 명단을 제출하

다고 한다.

124) 박모 등 탈영자는 추적해서 체포한 후 일부는 총살시켰다.

125) 김태은 증언, 2002. 9. 26; Richard G. Stilwell, “Guerrilla Warfare As Conducted in the Far East”, US Psychological Warfare School, Fort Bragg, N.C. July 25, 1955, p. 10.

126) 『제대증: 김용환』, 1952. 12. 1; 『공군퇴영증서: 김용환』, 1960. 2. 20; 김용환 증언, 2002. 7.

였으나, 1953년 8월 하순 한철민 부대장이 전쟁중 부대원 즉결처분 등으로 피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sup>127)</sup>

부대가 해산된 후 통신대원 김용환 등은 공군으로 편입되었으나 곧 제대하여 복무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28)</sup> 미 제8240부대로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김기덕은 교육대에서 교관을 하다가 활민부대에 참가하였다.<sup>129)</sup> 종로에 있던 벼락부대에 박기학·서성학·김병은·김면기 등 90%가 영도대원이었고, 나머지 10%는 별도로 모집했다고 한다.<sup>130)</sup> 그 외에는 부산에서 각자 생업을 찾아 흩어졌으나,<sup>131)</sup> 갈 곳이 없는 그들로서는 생활난에 직면하였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가운데 박일필 등 20명은 1960년초 ‘중군자복무조정’시 처리되어 1962년 12월 26일자로 입대하여, 당일 제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sup>132)</sup> 일부 대원은 군대에 사병으로 재복무했고, 간부후보생이 되어 장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공적이 뒤늦게 미군 고문이었던 애치슨에<sup>133)</sup> 의해 알려져, 1955년 5월 30일 한철민 부대장·오용호·주홍길·임한영·김치민·황보현 등 10명은 미국의 자유훈장을 받았다. 애치슨은 한국정부가 유격대원들의 활동을 인식해 주기를 바랐다.<sup>134)</sup>

한편 북한에 침투한 대원들은 전투중 사망하였거나 겨울에 동사했을 수도 있으며 투항자나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sup>135)</sup> 이 모 대원은 1951년 북한에 투하되었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받았고, 그의 형제도 처벌을 받았다.<sup>136)</sup> 1951년 8월 투하된

14; 이남표·노상훈 증언, 2002. 9. 6.

127) 김태은 증언, 2002. 9. 26.

128) 『제대증: 김용환』, 1952. 12. 1; 『공군퇴영증서: 김용환』, 1960. 2. 20; 김용환 증언, 2002. 7. 14.

129) 강근휘, 『군번없는 병사의 빛바랜 수기』, 2002. 5, 405면; 김기덕 증언(활민부대 전우회 회장), 2002. 6. 17.

130) 박기학 증언, 2003. 7. 21.

131) 일부 간부나 대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황보현·노상훈 증언, 2002. 8. 4, 9. 6).

132) 국방부, 『중군자복무조정업무 종결보고』, 1966. 6. 7, 정부기록보존소.

133) 그는 전후에도 자신을 대원들의 ‘老朋友’라고 여기면서 CIA와 미 의회 등에 영도부대의 활동사실을 확인하는데 노력하였다.

134) “George Atcheson Letter to Hwang Pohyun”, Feb. 28, 2001.

135) 주홍길 증언, 2002. 9. 26.

---

136) 그의 아들은 1970년대에 사회안전부로 끌려 간 후 행방불명이 되어,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유훈장 수상  
(1955. 5)

김 모 대원 등은 1952년 4월 체포당했으나, 북한 당국이 활동중인 유격대원을 유인하기 위해 ‘관대정책’으로 귀향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런데 휴전 후 윤명필, 임중호 등대원이 처벌을 받아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자, 김 모 대원은 이러한 처벌을 피해 평남 안주 요업공장으로 이름을 바꿔 취직했다가 북한군을 지원하여 복무하던 중 1954년 9월 남한으로 탈출했다. 일부 대원은 귀순을 해서 동료대원들의 귀순공작을 했다고 한다.<sup>137)</sup>

현재 생존대원들은 전우회를 결성해, 전사자와 실종자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제를 봉선사(경기도 양주군)에서 지내다가, 부산 영도에 기념비를 세운 후, 매년 10월 3일,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북한지역에 투입된 대원들을 현지에서 도와 주다가, 희생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1951년 4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영도유격대는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한편으로는 770명의 전사 및 실종자를 내었다. 생존 대원들은 자신들이 젊음을 불살랐던 ‘영도 태종대’가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다.

137) 『민족의 증언』 5, 242면; 김 모 증언, 2003. 10. 21.

제 7 장  
맺 음 말



유격부대전적위령비(국립현충원)

# 제 7 장

## 맺 음 말

### 제 1 절 유격대 활동의 성과와 의의

6·25전쟁 시기 반공 유격대 활동은 전쟁 초기부터 자생적인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북한군의 우세한 공세 속에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장비나 보급면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경기도 등지에서 일부 반공청년들은 유격대를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그들은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나 국군과 경찰이 남기고 간 무기로 무장했다. 국군에서도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유격사령부’, ‘명부대’, ‘결사유격대’ 등을 창설해 작전을 전개했고, 미군에서는 물론 중앙정보국(CIA)에서도 유격전을 수행했다.

동키 제20부대 부대장 박동호의 지적처럼,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지만,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다”.<sup>1)</sup>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유격대원들은 전쟁 중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전선에서 “애국의 희망을 안고 승리로 맹진하면서”<sup>2)</sup> 소규모 전투일지라도 적을 꾸준히 괴롭히는 유격전이 애국임을 굳게 믿었다.

자생적이거나 국군통제 혹은 유엔군 지휘아래 있었던 유격대원은 모두 우리

1) 박동호, 『책임을 다하는 애국투사가 되라』, 『당나귀』 2, 1952.12, 19-20면.

2) 이용삼, 『N도의 회상』, 『당나귀』 6, 1953. 4, 67면.

역사상 국난시 마다 등장했던 의병의 전통을 이은 ‘6·25 의병’이었고, 외세를 등에 업은 공산주의자에 맞서서 일어난 ‘자유의병’, ‘자유유격대’ 혹은 ‘반공민병’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거창한 애국심보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복수심, 고향수복, 조국에 자유가 와야 한다는 신념 등이 그들의 활동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힘이었다. 율백 제4부대 ‘해주연대가’에서는 “해주지구 지키자, 민주국가 지키자”로 표현되었다.<sup>4)</sup>

전쟁 초기 북한군에 의해 수세에 몰릴 때, 민간 자생유격대와 국군유격대의 활동은 일시적이었으며 “게릴라전은 약자의 수단”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유엔군 통제아래 유격대는 게릴라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약자의 수준도 아니었다. 2만 명이 넘는 대원들은 로켓포와 무반동 총으로도 무장했으며 함포와 공중지원을 받음으로써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미군의 정규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카투사·노무지원병(KSC)이 있었다면, 유격대에는 제8240부대가 있었다. 이들은 서해안에서 백령도와 강화도를 기점으로 옹진반도에서부터 대화도까지, 속초와 주문진을 근거지로 동해안에서 활동했다. 주요 유격부대로는 레오파드기지 가운데 동키 제1부대(신천부대), 동키 제2부대(구월부대), 동키 제3, 4부대(백호부대), 동키 제10부대(안악부대), 동키 제11부대(옹진학도유격부대),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 등이 있었고, 율백기지 소속으로는 제2부대(타이거여단)와 제3부대, 제7부대, 제8부대 등이 있었다. 이 외에 공중침투작전을 시도했던 제1공수유격연대와 미 중앙정보국이 통제한 영도유격부대가 있었다.

미 제8240 유격부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격대의 간부들은 이미 소련 군정시기와 북한 정권 아래에서 반소(反蘇)·반공 활동을 전개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해 오자 각지에서 치안대·자치대·결사구국

3) 이원복, 『6월의 산하가 전화에 물들 때: 유격대』, 『조선일보』 1975. 7. 8; 박창암, 『보병 제8사단수색대대의 6·25 실전비화』, 64-65면; 강덕원, 『유격전』, 군편, 사료 183; 이경남, 『자유 의병들의 반공유격전』, 『한국발전 리뷰』, 2002. 5, 114-115면; 대한민국 건국회 황해도본부편, 『잃어버린 50년사: 유장준 비망록』, 2003. 3.

4) 『구월부대 총강』 1952. 4, 구월산유격부대 전우회.



대 등의 무장대를 조직하여 후퇴하는 북한군, 내무서 등을 공격할 만큼 세력을 확대했다.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에서 가까운 섬으로 탈출하여 고향 수복을 위해 미군의 지원을 받아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반공적인 북한주민의 지원도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둘째, 보통 유격전은 적 후방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지만, 미 제8240유격부대는 북한과 인접한 동·서 연안 도서에 거점을 두고 소규모 침투공작을 주로 했다.

셋째, 유격대의 간부들은 일본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방위대나 방위군 간부들, 국군 낙오병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경험은 전투력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넷째, 작전활동 가운데 작전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협력을 얻기 위한 심리전 활동이 없지 않았지만, 주로 짧은 기간 내 군사작전의 성격을 띠는 전투활동을 했다. 이 점은 작전지역 내에서 군사작전 외에 지역주민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시도했던 중공의 게릴라전법과 구별되었다.<sup>5)</sup>

다섯째, 카투사나 노무단의 지원과는 달리, 제8240부대 유격대원은 미군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독자적인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세웠다.

유격대의 성과를 종합하면, 대원들은 주로 수많은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면서 철도 파괴나 통신선 절단, 첩보수집을 했다. 비록 전과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이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유격투쟁과 첩보활동은 미군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유격대는 공산군의 동·서해안 진출을 봉쇄하는 동시에 기습상륙작전으로 적의 전선의 병력을 해안선 일대로 분산시켰고 적 후방을 교란해 그들의 활동범위를 제약했다.

전쟁시기 유엔 해군 및 공군, 국군 해군이 동서 해안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유격대의 활동으로 서해 5도를 고수할 수 있었다. 유격대는 방어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 취약점만 보이면 적지로 파고드는 적극적인 공격작전으로 북한의 동서 내륙을 교란했다. 그들의 전과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

5)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s to Sep. 30, 1950", ATIS,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S, GQ FEC, "North Korean Forces", Nov. 15, 1950, pp. 15-16.

이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유격대를 통제하는 미군 장병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유격대 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지 않는 유격대원들이 1만 명 이상의 적을 살상하고 군수물자 집적소·철도·교량 등을 파괴했으며 피난민과 격추된 유엔군 비행사를 구출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은 2개 사단 규모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도록 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유격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성과가 큰 만큼 유격대원들의 희생 역시 적지 않았다. 전투과정에서 동키 제3부대 최동하 부대장, 제7부대 박철성 부대장 등을 비롯해 3,000명이 넘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1951년 11월 30일 동키 제15부대는 중공군의 침공으로 탄도와 대화도를 빼앗길 때 유태영·정광남·최광조 등 3개 연대장 모두 전사하거나 자폭했다. 1952년 2월 초 북한군이 육도를 공격해 왔을 때, 동키 제4부대 대대장 허성룡·오선국은 생포되기 직전에 죽음을 택했다. 1952년 8월 하순 외순도에 주둔하고 있던 동키 제16부대장 양창렬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대원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숫적 열세와 탄약이 고갈되자 도망하기보다는 자결을 택했다.



현충일 행사(동작동 국립현충원)

생존한 유격대 전우들은 매년 현충일이나 부대 창설일에 국립현충원이나 각 부대 전적비에서 전사자를 추모하면서, 희생된 동료들과 자신들의 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미군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인부대’로<sup>6)</sup> 취급되어 휴전 후 유격대원 대부분이 귀향하거나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그들의 존재는 물론 그들의 경험과 교훈마저 쉽게 잊혀졌던 것으로 여겼다.

유격대원들은 전과보다도 자신들의 투쟁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전쟁기간 3년 동안 그들의 희생과 녀이 ‘반공의 등대불’로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특전사령부에서 “6·25때 활약한 유격부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sup>7)</sup> 점에 커다란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6) 이경남,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118면.

7) 『이영재 기술』, 1991. 11. 24; 특전사 홈페이지(<http://www.swc.go.kr/html/intro/intro.html>).

## 제 2 절 유격대 운용의 한계

국군 유격대는 육본 작전국이나 정보국, 혹은 일선부대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되었다. 이 때문에 유격사령부 예하 유격대대를 정규군으로 재편시킨 후, 얼마 후 새로 적 후방에 투입할 유격대를 편성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유격대는 훈련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명부대’나 ‘결사유격대’ 등도 2~3주 수준의 훈련을 받은 후 출동시켜 희생이 많았다. 또한, ‘명부대’의 대원은 작전개시 후 정규군으로 입대 명령과 군번이 부여되었고,<sup>8)</sup> ‘결사유격대’의 대원에게는 임시 군번만을 부여했을 뿐 정규군으로 편입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었다.

미군 제8240부대의 규모가 한 때 2만 명을 넘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공이지만, 한편으로는 유격대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유격대는 성과도 많았지만, 약점도 존재했다. 무엇보다 유격대의 작전 목표가 불분명했다. 1951년 7월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측이 휴전협상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 지역에 대한 유격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 유격대 초기에는 유격대를 유엔군의 공세와 직접 연관시켜 운용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공세작전이 시행되지 않고 제한전으로 전략이 바뀌어 대부분의 기간 중 여러 교란작전이 실시되었다.

미군은 교란작전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황해도의 서남부 지역은 적을 교란하기 위한 표적지역으로는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 주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던 우회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이 없는 농업지역이었다. 분명한 전략적 목적이 부족하여 연안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비롯한 정규군과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대별 협동작전이 미진하여 작전이 단절적으로 실시되어 전과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sup>9)</sup> 결국 작

8) 1950년 8월 초, 현지임관을 한 김재의는 1950년 10월 11일부로 정식 임관명령을 받았다고 인사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김재의, 『진중일기』(날짜 없음), 군사편찬연구소, 60-61면).

9) 白善燁, 『朝鮮半島 對話の限界』, 東京: 草思社, 2003, 59면; 고우상 증언(예, 대령), 군사편찬연

전이 고문관의 개인성과를 위하거나 단위부대 위주로 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대간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전술적 측면에서 지역 동조자 확보, 기지구축 등 장기적 전략이 없이 2년 여 동안 비슷한 작전 형태를 보였던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동키 제10부대, 울괘 제3부대, 영도유격부대 등에서 북한에 기지를 건설했으나, 작전지역에 지하 공작대와 같은 조직을 구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때 지역주민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것보다 대원들의 혈연 지연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도 한계이다. 결국 정규군도 아니고, 자생적인 유격군도 아니며, 첩보대도 아닌 다소 모호한 성격의 부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유격기지사령부에서 주둔지에 대한 방어를 보장해 주지 못한 점도 극복되어야 할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동키 제15부대의 경우 1951년 11월 30일 대화도 피습 후나, 동키 제20부대의 경우 1951년 12월 11일 북한군의 피도 피습 이후, 연이어 청양도와 응도를 빼앗기자, 이에 크게 좌절한 대원 38명이 간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대를 떠나 남하함에 따라 부대장 김정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하고 부대를 떠나 조직을 약화시켰다.

유격대원들의 신분은 모호했다. 사령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는 ‘부대근무자’로 명기되었고 영문으로 고용된(employed) 자로 표기되었지만, 그들은 미군의 고용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의 통제 받기를 지원한 동맹국의 비정규군 요원(private army of Korean guerrillas)이었다.<sup>10)</sup> 그들은 장기간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나 한국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애매한 입장에 있었다. 결국 그들은 “군번도 없이 계급도 없이”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원들 가운데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유격대를 미군이 통제하더라도 국군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유격대원의 명부·전과 보고와 포상 등에 관한 사실의 조사 및 문서 인계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구소 회의실, 2003. 7. 8; Donald W.Boose, Jr., “Perspectives on the Korean War”, *Parameters*, Summer 2002, p. 119.

10) 이와 달리,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에서는 “유격군과 미군 당국의 동의에 의하여 미군의 작전수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포괄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특별권력관계로서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

못해 이들의 병적 처리나 상훈관계가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쟁 당시 미군은 전과를 보급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유격대를 운영하여, 오늘날까지도 공훈평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 대원들은 전후에 다시 복무하게 된 데 대하여 불만이 많다.

부대자료의 관리 측면에서 작전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후 즉시 간부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져 관련문서나 그들의 증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장이나 간부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지난 세월 속에 특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다.

부대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리더십, 출신 지역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부대장의 독단적인 인사와 작전 등의 부대운용은 상급기관이나 지휘관의 적절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원의 단결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심지어 부대 내 갈등으로 부대장이 살해되거나 정보참모가 참모장을 살해한 경우, 명령을 어긴 대원을 자의로 처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력을 약화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노획물품이나 포상으로 받은 보급품의 처리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격부대가 대부분 같은 고향사람끼리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일 지역출신이 아닐 경우 부대내의 갈등과 부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여, 일부 부대에서는 지역출신별 갈등으로 해산과 재편이 반복되었다. 다른 부대와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희생자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sup>11)</sup> 따라서 보급 지원은 미군이 하고, 부대 운용에 대해 한국군이 지원을 했다면 더욱 전술적으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격대의 운용상 어려움도 극복되었을 것이다.

전쟁 교훈은 어느 전쟁이나 전선으로부터 얻는 것이다.<sup>12)</sup> 장차 미래전은 전면전이러기보다는 제한전쟁일 가능성이 많다. 정규군의 작전과 동시에 펼쳐지는 비정규전 양상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에서 유격전의 성과와 문제점은 앞으로 유격대나 혹은 특전부대의 운용에 많은 시사를 던져 줄 것이다.

11) 강용준, 『나성에서 온 사내』, 정음사, 1985, 109면.

12) Ellery Anderson, *Banner Over Pusan*, p. 23.

6·25전쟁 중 미군 통제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격대의 운용이 비밀로 분류되어 제한적이었지만, 미군에게 베트남전 등지에서 유용한 교훈이 되었다.<sup>13)</sup>

끝으로 한 유격대원이 자신들의 활동을 “역사에 담으려면 책이 모자라고, 영화에 담으려 해도 스크린이 부족할 것”이라고<sup>14)</sup> 안타까워 한 것처럼, 본서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숨은 공을 세우다 이름 없이 희생된 유격대원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아쉽다.

증언에만 의존한 서술부분은 미국자료가 더욱 공개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 북한측의 자료와 주민들의 증언 혹은 격전지를 직접 확인하여 보완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생존한 유격대원들은 아직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활동내용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부담스러워 했다. 이 점은 이 민족(異民族)에 대한 투쟁인 일제시기 독립운동사의 연구보다 더욱 어렵게 했다. 앞으로 동족 사이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13) 벤 S. 맬콤, 『백호부대유격전사』, 406-407면, 426면 ; Maj. Shaun M. Darragh, op. cit., pp. 66-67.

14) 박종극, 『유격대원에게 남기고 싶은 글』, 2002. 6. 25.

● ● ●

## 유격전 주요 연표

- 1948. 11. 25 육군 수색학교 창설
- 1949. 2. 25 호림부대 창설
-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 1950. 9. 15 ‘명부대’ 장사동 상륙
- 1951. 1. 8 미 제8군, 서해 도서에 복한 출신 무장대 존재 입수
- 1951. 1. 15 미 제8군 작전참모부(G-3) 지구전과 설치
- 1951. 1. 30 결사유격 제11연대, 적후방 작전 출동
- 1951. 2. 4 창린도 초등학교에서 웅진학도의용대 결성
- 1951. 2. 15 미 제8군, 부산근교, 베이커(Baker) 기지 창설,  
백령도,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 기지 창설  
동키 제1부대 창설
- 1951. 3. 1 윌리엄 에이블 기지를 레오파드(Leopard : 豹)부대로 명명, 그 이하 유격  
부대는 동키(Donkey)부대로 명칭부여
- 1951. 3. 6 동키 제4부대 창설
- 1951. 3. 15 베이커 기지, 버지니아 1 공중침투작전  
동키 제2부대(구월부대) 창설
- 1951. 3. 25 동키 제10부대 창설
- 1951. 3. 26 동키 제14부대 창설
- 1951. 3. 27 육군 을지 제2병단 창설
- 1951. 4. 1 동키 제11부대 창설
- 1951. 4. 5 주문진, 커크랜드기지 창설
- 1951. 5. 5 미 제8군 통제하에 있던 제8086부대의 기타업무단이 지구전과 흡수
- 1951. 6. 18 베이커 기지, 스픛파이어 작전
- 1951. 7. 10 휴전협상, 개성에서 시작
- 1951. 7. 26 미 극동군사령부 연락과견대(FEC/LD), 제8240부대 창설
- 1951. 7. 30 동키 제2부대 173명 조난, 171명 익사, 2명 생존



- 1951. 8 강화도, 울팩(Wolf Pack)기지사령부 설치, 웅진반도의 동부를 담당
- 1951. 11. 28 미 극동군사령부로 명령으로 연합정찰사령부(CCRAK) 설치
- 1951. 11. 30 중공군, 동키제15부대의 주둔지 대화도 점령
- 1951. 12. 10 주한 극동군사령부 연락과견대와 기타업무단이 통합, 유격대의 작전통제권이 극동군 사령부로 G-2로 이관
- 1952. 3. 17 울팩 제3부대 창설
- 1952. 5. 21 백마부대, 대화도 진주
- 1952. 9. 27 유격군 확대 명령
- 1952. 9. 28 연합정찰사령부, 제8242부대로 변경
- 1952. 10. 1 유격대 증강 계획 착수
- 1952. 10. 5 주한 연합정찰사령부는 제8242부대로 개칭되고, 극동군사령부 주한 연락처의 작전통제권 인수
- 1952. 11. 11 주한 연락처의 유격부대,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PFK)로 명명
- 1952. 12. 5 영도유격부대 해체
- 1952. 12. 10 제3유격보병연대 창설
- 1953. 4. 1 제5유격보병연대 창설
- 1953. 4. 6 제6유격보병연대 창설
- 1953. 6. 12 38도선 북방도서의 유격대 철수
- 1953. 7. 27 정전협정 체결
- 1953. 8. 12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
- 1953. 8. 16 미 극동군사령부와 한국정부 유격대 신분에 관한 협약(손원일-Stuart 협약) 체결
- 1953. 10. 13 용유도에서 동키 제15부대(백마부대) 충혼탑 건립
- 1954. 1. 8 국방부 제8250부대, 육군 제8250부대로 예속
- 1954. 2. 22 유격대원을 육군 제8250부대로 편입
- 1961. 8. 15 윤보선 대통령 회호와 한국일보의 협조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반공유적비 건립
- 1977. 6 국립현충원에 유격전 위령비 건립
- 1981. 6. 25 육군 제5816유격부대전우회, 강화도 송해면에 반공유격용사위령탑 건립
- 1984. 10. 3 영도유격대전우회, 부산 영도에 기념비 건립
- 1986. 10. 25 호림유격대전우회, 강원도 고성, 호림유격전적비 건립
- 1990. 11. 9 백골병단 참전전우회, 강원도 인제에 '백골병단 전적비' 건립
- 2001. 11. 29 울팩 제2부대, 교동도에 유격군충혼전적비 건립

## 참고 문헌

### 1. 1차 자료

- 구월부대, 『국방부제출문건』, 1953. 8.
- 국방부 제1국장, 『미극동사령부직할부대원 22명에 대한 무공훈장수여』, 1952. 11. 21, 군사편찬연구소, 『공적서철』 304.
- 국방부 제8250부대 제1연대 11대대, 『총인원명부』, 1953. 11. 25, 특전사역사관.
- 『당나귀』, 『파라슈트』, 『로동신문』, 『황해일보』, 『동북인민일보』.
- D-21연대, 『송호부대 명부』, 1953.1.21, 육본 군사연구소.
- 민사군정감실 운영과, 『구월산부대전사자명부』, 1955. 12. 12, 육본 부관감실.
- 영도유격부대, 『부대일지』, 1951. 1-1952. 12.
- 遊學本發 제255호(웅진학도유격대), 『부대역사』, 1953. 9. 21.
- 육본, 『한국전쟁사료』 1-99, 1985-1991.
- 이영재, 『일기』, 1952, 1953.
- 이종암, 『一生日誌』·『북진록』·『북향록』, 1949. 2-1954. 6.
- 『인사명령철』, 육본 중앙문서관리단.
- 『자료 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
- 전인수, 『바보일기』, 1953, 1954. 1-3.
- 조남혁, 『일기』, 1951. 11. 25-1956. 1. 31.
- 『한철민 재판기록』, 1953.
- 『해군작전사 개설』 1, 해군본부, 2001.
- 『KLO-TLO문서집(미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자료총서 2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pecial Warfare, Secret Correspondence, 1951-58, 1951-54, 370.64-380.01, Box 20, NA.
- \_\_\_\_\_,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pecial Warfare, Top Secret Correspondence, 1951-58, Box No. 15, NA.
- RG 319 Army Intelligence TS Decimal Files 1942-52.
- Record Group 349 CCRAK(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G-2 Report 1952. 10-1953. 5, National Archives.

RG 349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The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_\_\_\_\_,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52”, 1953.

CCRAK Guerrilla, “Summary No.10-174”, May 3, 1952-Nov.9,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46.

## 2. 증언자료(미발간)

강근휘, 『군번없는 병사의 빛바랜 수기』, 2002.

강석인(웅진학도대 정훈참모) 증언, 1991, 육본 군사연구실.

국제연합유격군동지회, 『대한반공유격군 개황』, 1961. 8. 20.

김인호(조양단과 공군서해지역 첩보대), 『실록수기』,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81-2.

『독립 제1유격대 자료』, 1994. 12. 27.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독수리 유격대 자료집』, 1995. 8.

문기섭, 『나의 걸어 온 길 가야 할 길』(미발간 수기), 1999.

서해지구 학도유격대, 『청원서』, 1962. 7.

신 민, 『반공유격대전기』, 1981. 8. 5,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81-10.

신천부대전우회, 『신천부대기록』, 1975.

육본 군사연구실, 『영도유격대장 한철민 고증록』, 1991.

윤익균, 『6006부대』, 『중앙일보』, 1971. 8. 3-8. 20.

이극성, 『육군첩보부대 창설사』, 육본군사연구실.

이병두, 『오뚜기 인생』 3, 2000.

이상연, 『유격작전의 특전교육 교관으로 요원 양성』, 50동우회, 『국군의 뿌리』, 삼우사, 1998.

이영순, 『KLO/8240부대전황』 1-1, 『세대』, 1967.2-1968. 1.

임원빈(강화독립부대장 WP-1), 『6·25의 전우들』, 1983. 7. 13,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73.

임창수, 『나의 반공투쟁기』, 육본 군사연구실.

장사 상륙참전유격동지회, 『육본직할 독립 1유격대 참전기』, 1994. 12. 27, 육본 군사연구실.

장하상, 『웅진학도유격대 제2대대 전투사』, 1987. 3. 18, 육본 군사연구실.

최광국, 『유격전 참전수기』, 프린트판, 1992.

『타이거여단 약사』(문건 연번 21호), 1953. 7.

『태극단 활동상황』,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735-736.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국제연합한국유격군』, 2001(팜플렛).

『한철민증언』, 1985. 10. 28, 육본 군사연구실.

황보현, 『영도유격부대』 1-6, 2000.

『호림 유격부대 제5, 6대대 혈전기』, 군편 사료 175.

『호림부대자료철』 3, 군편 사료 527.

『호림부대전투상보』(제6대대), 군편 사료 177.

『호림부대투쟁사』, 군편 사료 176.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Lt. B.W. Collins(U.S.N. ret.), “A Rare Experience”(no. date)(군사편찬연구소, SN 1960).

“Lt.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 3. 연구 논저

#### 1) 논 문

葛原和三, 『北傀軍은 韓國戰爭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軍事評論』 339, 1999. 5.

『국군최초의 북파유격대 호림부대』, 『전사연구』 12.

길기상, 『모택동의 戰略 戰術思想』, 『關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21, 1993. 2.

김광운, 『항일유격대집단의 형성과정 연구』,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2000. 12.

김 문, 『여자유격대원들 중흥무진 활약: 정보와 위생,통신대원으로 사선 넘나들며 유격전 성공적으로 수행』, 『뉴스피플』 426, 2000. 7. 13.

\_\_\_\_\_,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 ‘동키부대’ “이제야 50년을 말한다”: “연합군 재복진 길을 열어라”: 미 극동군 사령부 ‘1·4후퇴’ 치명타로 서둘러 극비작전 구상』, 『뉴스피플』 424, 2000. 6. 29.

\_\_\_\_\_, 『한국군 흡수, 유격대를 격리시켜라: 전쟁 종식 후 미군측 작전명령 ‘킵 실버’ 국방부에 알려와』, 『뉴스피플』 429, 2000. 8. 3.

김재진, 『遊擊戰 基本 考慮事項에 관한 研究』, 『軍事評論』 227, 1982. 8.

\_\_\_\_\_, 『유격전部隊 生存性 向上에 관한 研究: 戰例分析을 中心으로』, 『軍事評論』 232, 1983. 2.

김정민, 『북한군 특수부대는 어떤 군사집단인가』, 『북한』, 1997. 7.

대한유격참전동지회, 『백골병단전사 추가기록』 1.2, 1993.

『모표없는 영웅들』, 『자유공론』, 1986. 11.

백병훈, 『중국의 革命戰爭과 毛澤東의 遊擊戰 연구』, 『北韓』 158, 1985. 2.

『세계 최대규모의 북한특수부대의 해부』, 『평화』, 1989. 6.

- 신평길, 『조선노동당과 남한내 유격투쟁』(下), 『북한』 276, 1994. 12.
- 싱글로브, 『위험한 임무 1-8』, 『서울신문』, 1991. 8. 3-9. 7.
- 이경남, 『구월산유격대 활약상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굴』, 『月刊同和』 11, 1998. 11.
- \_\_\_\_\_, 『구월산유격대의 월북작가 이태준 귀순공작』 상·하, 『신동아』, 1993. 8.
- \_\_\_\_\_, 『구월산유격대혈전기』, 육본, 『전화 속의 무훈』, 1985.
- \_\_\_\_\_, 『서해안의 ‘동키부대’ 용전기』, 『신동아』, 1969. 1.
- \_\_\_\_\_, 『유엔군 유격대 당나귀부대』, 『신동아』, 1965. 8.
- 이기봉, 『‘강동정치학원’은 남침용 유격대 양성기구』, 『새물결』 184, 1996. 8
- \_\_\_\_\_, 『남조선의 허리를 두동강으로 잘라라; 정규전과 유격전 배합전략 구상』, 『自由公論』 207, 1984. 6.
- 이도상, 『전북活動 敎理에 關한 研究: 遊擊戰 戰略과 전북活動을 中心으로』, 『軍事評論』 195, 1978. 7.
- 이동욱, 『군번없는 냉전의 전사 KLO 비화』, 『월간조선』, 1995. 10.
- 이상구, 『중공군의 유격전 소고』, 『군사세계』 46, 1999. 1.
- 이석승, 『智異山 地區 共匪討伐作戰의 考察』, 『전주교대논문집』 17, 1981. 6.
- 이선호, 『혁명전쟁의 제이론 분석』, 『국방연구』 30-2, 1987. 12.
- 이연길, 『6·25전쟁 때의 첩보부대 KLO 고트대장 이연길수기』, 『월간조선』, 1993. 9.
- 이영순, 『KLO/8240부대 전기』 1-6, 『세대』, 1967. 11.
- 이용평, 『북한 공군의 유격전술』, 『空軍評論』 94, 1994. 9.
- 이종학, 『遊擊戰의 理論과 實際』, 『護國』 130, 1984. 10.
- 전두열, 『동해안지구 유격대』, 『전사』 84, 1976. 6.
- \_\_\_\_\_, 『동해안지구 유격전(실전기)』, 육본, 『전사』 80, 1974. 4.
- 정광용·최영관, 『모택동의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전남대통일문제연구』 5, 1981. 12.
- 제3군단편, 『山嶽地域防禦 發展方案』, 『軍事評論』 343, 2000. 1.
- 『제5유격대대의 양양지구 유격전』, 『전사연구』 12.
- 조광웅, 『冠帽峯 反共遊擊隊, 北韓聯盟과 Y地區部隊를 追憶하며, 悲憤의 六·二五를 되새긴다』, 『정훈』 54, 1978. 6.
- 조이현,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보존』 12, 2000.
- 주보중, 『東北抗日聯軍 유격전 개황』, 『共產圈研究』 147, 1991. 5.
- 차재익, 『智異山地區 遊擊戰 考察』, 『軍事評論』 227, 1982. 8.
- 채명신, 『장군의 비망록』, 『뉴스피플』 104-106, 1994. 1. 20, 1. 27, 2. 3.

- 최 영, 『1930年代의 中共의 軍事戰略』, 단국대, 『중국연구』 3, 1981. 5.  
 \_\_\_\_\_, 『毛澤東의 戰略思想』, 한양대, 『중국문제』 2-1, 1977. 1.  
 최규봉, 『나는 KLO부대장이었다』, 『신동아』, 1982. 6.  
 특전사, 『특전부대의 어제와 오늘』(초안), 1984.  
 한의수, 『빛나는 유격전 1백20일』, 『自由公論』 188, 1982. 11.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s”, Army, Nov. 1984.

## 2) 단행본

- 강근조,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강기천, 『나의 인생여로』, 계몽사, 1995.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강화문화원편, 『강화도사』, 1989.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1989.  
 계인주, 『맥아더장군과 계인주대령』, 다인미디어, 1999.  
 공군본부, 『6·25전쟁과 증언록』, 200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하, 1995-1997.  
 국방부 정훈국, 『구월산』, 1955. 6.  
 \_\_\_\_\_, 『상이군인원호의 현황과 과제』, 1952. 12.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김 봉, 『개마고원: 북에서 온 유격대장의 수기』, 부름, 1988.  
 김선한, 『X』 상·하, 디지털에프케이, 2000.  
 김용제, 『유격전과 심리작전』, 극동사령부주한연락처 심리작전과, 1953. 1.  
 김운성, 『자유의 증언』, 정화문화사, 1976.  
 김점곤, 『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博英社, 1973.  
 김종벽,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그 후』, 서울인쇄주식회사, 1967.  
 김한철, 『마지막 침투한 대북유격대의 활약상』, 자유사, 1991.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대한유격대 참전동지회, 『백골병단 전사』, 1993.  
 대한유격대참전동지회, 『백골병단사』, 1993.  
 『력사과학논문집』 6, 사회과학출판사, 1975.  
 로날드 H. 베일리, 『빨치산과 게릴라』,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2.  
 류근주·남상선 공편, 『승자와 패자』 1, 육법사, 1982.

- 문교부, 『6·25 실증자료』, 1976.
- 미동훈, 『전사-영도유격부대동해삼도실전기』, 영도유격부대전우회, 2002.
- 『병무행정사』 상, 1985.
- 백호부대유격군 전우회, 『백호부대유격전사』, 1992. 6.
-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 1990.
- 서원룡, 『군번없는 고원의 청년들』, 경운출판사, 1988.
- 수월부대전사편찬위원회, 『은율유격전사』, 1986.
- 신천군지편찬위원회, 『신천군지』, 1984.
-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1993.
- 연백군민회, 『연백군지』, 1986.
- 영도유격부대전우회, 『영도유격부대』, 2001.
- 오곡문화원, 『특명 특공대』, 1980.
- 웅진군민회지편찬위원회 편, 『웅진군민회지』, 1995.
-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1989.
- 유인용, 『대동강』, 열화당, 1962.
- 육군 제3139부대, 『강원수호사』, 1984.
- 육군본부, 『특공연대』, 1983.
- \_\_\_\_\_,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1988.
- \_\_\_\_\_,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 \_\_\_\_\_,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1994.
- 육본 군사연구실편, 『한국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1988.
- \_\_\_\_\_,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 육본, 『공산도당의 적화 유격전술』, 1965.
- \_\_\_\_\_, 『백골병단』, 1985.
- \_\_\_\_\_, 『육군특수전 발전사』, 1999.
- \_\_\_\_\_, 『호국용사 6·25 참전 전투수기』 1-4, 1997-2002.
- 육본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1971.
- 윤택립,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역사비평사, 2003.
-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1-2, 삼성문화개발, 1989.
- 이기건, 『구월산의 여장군』, 우현사, 1953.
- 이북5도위원회, 『월남반세기』, 1995.
- 이영재편, 『학도유격부대』(D-11), 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 명성출판사, 1992.
- 이중운, 『살아남은 자의 일기』, 웅진출판, 1996.

- 이춘복, 『땀부기는 오늘도 ‘조산들’을 날고 있다』, 가톨릭출판사, 2002.
- 이형근, 『군번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1993.
- 이형우, 『빨치산들의 섬』, 새시대문화사, 1983.
- 임동원, 『혁명전쟁과 대공전략:게릴라전술을 중심으로』, 1967.
-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국방부, 1955.
- 장 코르미에(김미선역), 『체게바라 평전』, 실천문학사, 2003.
-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 \_\_\_\_\_, 『한국전쟁사』 1-9, 1970-1979.
- 전인식, 『나와 6·25』, 건설연구사, 1981.
- \_\_\_\_\_, 『알섬의 갈매기는 왜 우는가』, 건설연구사, 1999.
- \_\_\_\_\_, 『적후방 300리의 혈투 백골병단』, 대한 유격 참전 동지회, 1988.
- 정주군지편찬위원회, 『정주군지』, 1975.
- 정채호, 『덕산에서 월남까지』 상·하, 우정출판사, 1981.
-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편, 『돌아보는 역사』, 심양: 료녕출판사, 2002.
- 제2군단사령부, 『군단지역전사』, 1972.
- 조남혁, 『나는 북위 38°선상에서 결혼했다』, 2002.
- 조동환, 『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 조영운편역, 『유격전의 원칙과 실제』, 사계절, 1986.
- 주홍길, 『Y부대 송가』, 도서 출판 평화, 1988.
-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總結編委會, 『中國人民支愿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滙編』, 解放軍出版社, 1987.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4-5, 1972.
-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1972.
-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 칼 슈미트(김효전역), 『파르티잔』, 문학과 지성사, 1998.
-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 사례집』, 1986. 9.
- 특전사, 『특수 8군단』, 1976.
- 평북 망향 40년사 편찬위원회편, 『평안북도 망향 40년사』, 1989.
- 평북 정주군지 편찬위원회, 『평북 정주군지』, 1975.
- 폴 브레이, 『위대한 장군 벤플리트』, 육군본부, 2001.
- 학도의용군 장사 상륙작전 유격동지회, 『모래톱에 묻힌 忠魂: 육본 직할 독립 제1유격 대대 參戰記』, 칠곡군, 1995.
- 한국통일촉진회, 『북한 반공투쟁사』, 1970.



한정영, 『켈로』 1-3, 모아출판사, 1995.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1, 1954.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1-5, 1964, 1969, 1977, 1993.

황해도지 편찬위원회, 『황해도지』, 1982.

회양군민회, 『회양군지』, 2001.

Hellmuth Rentsch(민병돈역), 『공산유격전과 대격전』, 육군대학, 1977.

James A Field, Jr.(김종기외 역), 『미해군 한국전참전사』, 해군본부, 1985.

MBC, 『불암산 호랑이유격대』, 1996.

R. 프트렐편저(강승기역), 『한국전에서의 미공군전략』, 행림출판, 1982.

R.B. 에스프레이(편집부역), 『세계 게릴라전사』 1-4, 일월서각, 1989.

Alfred H.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 Revised Edition*, Univ Pr of Kansas, Rev edition, 2002.

David McLaren · Warren Thompson, *MiG Alley: Sabres Vs. MiGs Over Korea*, Specialty Press/Midland, 2002.

Douglas C. Dillard, *Operation Aviary: Airborne Special Operations-Korea, 1950-1953*, Trafford, 2003.

Douglas C. Waller, *The Commandos: The Inside Story of Americas Secret Soldiers*, Dell Pub Co, Reissue edition, 1995.

Ed Evanhoe, *Darkmoon: 8th Army Special Operaions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Annapolis, MD, 1995.

Edwin P. Hoyt, *Submarines at War*, Jove Pubns, Reprint edition, 1992.

Edwin Price Ramsey and Stephen J. Rivele, *Lieutenant Ramsey's War: From Horse Soldier to Guerrilla Commander*, Brasseys, Inc., 1996.

Eugene Franklin Clark, *The Secrets of Incheon*, Putnam Pub Group, 2002.

John B. Dwyer, *Commandos From The Sea: The History Of Amphibious Special Warfare In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Paladin Press, 1998.

John L. Newburn, *23 Navy Air in Korea*, 1stBooks Library, 2000.

John R.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2.

Leroy Thompson, *America's Commandos: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of World War II and Korea*, Greenhill Books, 2001.

Major General John Singlaub, *Hazardous Duty: An American Soldier in the Twentieth Century*, Summit Book, N.Y., 1991.

- Michael E. Haas, *In the Devil's Shadow: UN Special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Annapolis, MD, 2000.
- Richard J. Aldrich, Gary D. Rawnsley and Ming-Yeh T. Rawnsley, *The Clandestine Cold War in Asia, 1945-65: Western Intelligence, Propaganda and Special Operations*, London: Frank Cass, 2000.
- Robert B. Asprey, *War In The Shadows: The Guerrilla In History*, iUniverse.com, 2002.
- Robert I Channon, *The Cold Steel Third: Third Airborne Ranger Company Korean War 1950-51*, Genealogy Pub, 1993.
- Robert Lapham · Bernard Norling, *Lapham's Raiders: Guerrillas in the Philippines, 1942-1945*,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6.
- Robert W. Black, *Rangers in Korea*, Ivy Books, 1989.
- Sedgwick D. Tourison, *Secret Army, Secret War: Washington's Tragic Spy Operation in North Vietnam* (Naval Institute Special Warfare Series), United States Naval Inst., 1995.
- Tom Clancy, Carl Stiner(Contributor), Tony Koltz, *Shadow Warriors: Inside the Special Forces*, Putnam Pub Group, 2002.
- William B. Breuer, *Shadow Warriors: the Covert War in Korea*,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96.
- William H. McRaven, *Spec Ops: Case Studies in Special Operations Warfare: Theory and Practice*, Presidio Pr, Reissue edition, 1998.
- William H. McRaven, *Spec Ops: Case Studies in Special Operations Warfare*, Presidio, 1996.

저자가 6·25전쟁시 여러 반공유격대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점은 자료에 근거한 사실확인이었다. 주요 부대에서 발간한 부대사를 기초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보고서, 증명서, 사진 등과 증언을 통해 막연했던 사실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생존한 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구술자료들이 비교적 많았지만 문서자료가 부족한 여건에서 이를 검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자료가 많은 부대는 다소 용이했고 좀더 자세히 다룰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중요한 부대임에도 간략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유격대 활동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전술적 의의가 있는 부대만 다루어졌다면 주요 부대의 작전활동 위주로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휴전 후 50년이 지나도록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여기는 여러 유격대 대원들의 기대를 반영해야 했다. 유격대원들은 계급도 군번도 없이 수행한 그들의 업적과 희생이 세월과 함께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누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책을 발간하면서 대원들의 기대나 검증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각 부대 창설일을 비롯해 매년 현충일에 수많은 유격대원이 모이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들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각 유격대의 전과와 대원들의 개별 공적은 일일이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작전일이 때로는 1년씩 차이가 났고, 일부 대원들은 전우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전우회에서 정리한 ‘부대사’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부분은 본서의 발간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규명을 위한 토대와 진전으로 여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연구소의 자료실 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중앙문서관리단·부관감실 인사처리과 및 병적과, 특수전사

령부 역사관, 정부기록보존소, 전쟁기념관 등을 비롯해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박상준 회장님과 임원들, 각 유격부대 전우회와 그 회원들, 특히 호림부대(회장 황희성), 백골병단(회장 전인식), 동키 제2부대(김현), 동키 제4부대(회장 민종선), 동키 제11부대(이영재), 동키 제15부대(김찬수), 울퓌크 제8부대(김기서), 스톰부대(이희영), 제1공수유격연대(김완규), 영도유격대(김태은·전하립) 등의 전우회와 회원들의 도움 없이는 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힘써 주신 방선주 박사님, 미 제8240부대 전우회 딜라드(Col. Douglas C. Dillard) 회장님과 미 특수전 사령부 역사학자들, 그리고 당시 유격대와 함께 싸웠던 노튼(C. W. Norton) 대령을 비롯한 뉴맨(M. E. Newman), 베일리(Herman O. Bailey) 등 미 고문들의 자료 협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거친 원고를 읽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김행복 전쟁사 부장을 비롯한 김현영 국방사부장, 최종대 조사부장과 최용호·남정옥 연구원, 그리고 기꺼이 감수해 주신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의 이경남·이원복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끝으로, 유격전사 연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재평 전임 소장님과 안병한 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2월

저자 씀

□ 저 자

조 성 훈(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문학박사)

□ 감 수

이 경 남(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전사편찬위원)

이 원 복(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전사편찬위원)

##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

2003년 12월 20일 인쇄

2003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구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